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譯註와 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최 소 영

국문 초록

13세기 몽골이라는 광대한 제국의 세력 하에 들어가면서 티베트에는 새로운 역사 서술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적인 티베트 역사서의 방식대로 인도 역사와 티베트 역사는 물론, 漢地의 역사와 서하의 역사, 그리고 몽골의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최초로 이끈 것은 『홀란 뎀테르(紅史)』라는 책이었고 티베트어 史書임에도 제목이 몽골어로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몽골 제국 시기라는 시대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었다. 이후 편찬된 사서들도 다수가 『홀란 뎀테르』를 따라 티베트 판 “세계사”를 싣고 몽골 역사를 적기 시작했다. 이들이 담고 있는 기사들은 서쪽 페르시아 지역에서 등장한 라시드 앗딘의 “최초의 세계사” 『집사(Jāmi al-Tawarīkh)』보다 소략하고, 연대기라기보다 설화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기도 했지만 『집사』가 몽골 지배층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집필된 것에 반해 티베트 사서들은 저자들 스스로가 각 집단의 역사에 대한 사료를 찾아 집필한 것임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티베트 딱창stag tshang 지역 출신인 뽕조르 상뽕dpal 'byor bzang po(fl. 15c)가 편찬한 『한장사집』은 이 새로운 전통의 정점에 있는 책이다.

뽕조르 상뽕은 몽골 제국의 대칸이 明軍에 쫓겨 대도를 버리고 그의 권속들과 함께 몽골리아로 쫓겨간 지 약 70년이 지난 1434년에 이 책을 펴냈다. 제목이 『현자들이 좋아하는 漢地와 티베트의 대 문서 모음: 섬부주를 비추는 거울(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s dga' byed chen mo 'dzam bu gling gsal ba'i me long)』인 이 책은 『홀란 뎀테르』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여 “세계사”를 싣고 거기에 더해 티베트에 茶가 도입된 정황과 차잎 감별법, 도검의 종류 등을 서술했다. 이는 그 전에 티베트 저작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소재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몽골이 티베트를 관할하면서 호계를 조사한 방식과 역참을 설치하고 관할한 방식 등을 상술하여 티베트에서의 몽골 지배 방식의 일단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사 까의 書庫에 보관되어 있던 카안 울루스 조정 내부의 인물들에 대한 口傳이나 혹

은 문서들로 전해져 왔을 중요한 기사들을 대량 수록한 사실이다. 즉 뵤조르 상뵤는 남송 정벌의 최고 공신인 바얀ba yan(伯顔)의 등용과 좌천, 재등용에 대해 서술하고, 카안 울루스의 대표적인 姦臣으로 알려져 있는 상가sang gha(桑哥)와 케식들의 갈등을 상세히 적었다. 그가 이러한 기사들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몽골과 함께 티베트를 다스렸던 사까파 소속이었고 또한 그의 직책이 익칸 즉 문서 관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딱창stag tshang 출신의 문서 관리인(yig mkhan)이며 석가모니의居士(dge bsnyen)”라고 소개했고 이러한 뵤조르 상뵤의 정체성은 책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까파의 서고에 보존되어 있던 몽골 관련 주요 문서들은 “문서 관리인인居士” 뵤조르 상뵤에 의해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왔고 이 책은 홀란 뎃테르 이후 새로운 전통의 정점에 올라섰다.

그러나 『한장사집』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 제목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러한 무관심은 카안의 어전에 누구보다 가깝게 머물렀던 한 집단이 남긴 역사적 증언과 그들이 수집한 기록들이 외면 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역자는 『한장사집』을 역주하였으며, 이 번역과 주석이 기존의 한문, 페르시아어 사료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몽골제국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관찰하게 하고, 또한 티베트 역사학의 흐름을 이해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핵심어: 『한장사집(rgya bod yig tshang)』, 뵤조르 상뵤dpal 'byor bzang po, 티베트 역사서, 바얀(伯顔). 상가(桑哥)

학번: 2010-30878

목 차

해설: 사까의 문서지기가 남긴 문서 모음집: 『한장사집』	1
Ⅰ. 지혜로운 漢地 군주들의 역사	34
Ⅱ. 용맹한 메낙 군주들의 역사	72
Ⅲ. 法王 티베트 군주들의 역사	90
1. 초기의 역사	98
2. 불교 전흥기-토번 제국의 군주들의 역사	122
3. 불교 후흥기의 역사	207
Ⅳ. 설명을 덧붙인 위대한 몽골 군주들의 역사	277
1. 선조들의 계보	287
2. 몽골 제국 대칸들의 계보	292
3. 다스만sda sman의 티베트 역참 설치	321
4. 바얀ba yan(伯顏, 1236-1295) 승상 이야기	328
5. 상가sang gha(桑哥, ?-1291) 승상 이야기	342
6. 위짱dbus gtsang 아리mnga' ris의 호계 조사와 역참 관리	353
참고문헌	366
Abstract	385

해설: 사까의 문서지기가 남긴 문서 모음집: 『한장사집 (Rgya bod yig tshang)』

1. 새로운 흐름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이 몽골이라는 단일 세력 하에 들어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정치·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는 역사 서술에도 새로운 흐름을 일으켰다. 새롭게 나타난 흐름 중 첫째는 여러 피지배 지역들이 자신들이 겪은 경험과 각자 입수한 典籍에 근거해 몽골이라는 집단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몽골의 지배 하에 있던 중국과 이란, 러시아, 고려는 물론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인도, 유럽에도 몽골 지배와 관련된 연대기나 몽골 기행문이 등장했고 이처럼 다양한 기록과 증언들은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이 몽골 제국의 등장의 의미와 그 역사를 탐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¹ 또 다른 하나는 광대한 제국에 의해 넓어진 시각으로 일종의 “세계사”가 저술된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페르시아에 자리잡고 있던 훌레구 울루스의 재상 라시드 앗딘(Rashīd al-Dīn Faḍlullāh Hamadānī, 1247-1318)이 편찬한 『집사(Jāmi al-Tawārīkh)』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예다. 저자 라시드 앗딘은 몽골 각 부족 집단의 기원과 계보, 칭기스 칸의 생애, 그후의 대칸들의 계보와 업적, 그리고 자신이 속한 훌레구 울루스의 역사를 상술한 외에, 유태, 프랑크, 중국의 역사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술하여 “최초의 세계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집사』가 편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몽골 제국의 등장과 발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으니 이 저작의 등장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었고 이 방대한 저서를 편찬한 저자 라시드 앗딘에 대한 연

¹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앗딘, 『부족지』, 사계절, 2002, p. 11.

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² 『집사』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되었고³ 그 내용이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에서 소개·인용되어 왔다.

그런데 몽골 지배 하의 티베트⁴에서도 이러한 역사 서술 흐름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몽골 제국 말기인 14세기 후반 티베트 13만호 중 하나인 첼派 만호의 만호장⁵이었던 꺄가 도르제Kun dga' rdo rje(1309-1364)가 몽골 조상들의 계보와 칭기스 칸에서 시작하는 카안들의 계보 등 몽골 역사를 서술한 외에 인도의 역사, 西夏(me nyag) 군주들의 역사와 漢地(rgya nag)

² 대표적으로 Stefan T. Kamola, "Rashīd al-Dīn and the making of history in Mongol Ir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2013이 있다.

³ 특히 한국은 가장 가장 충실한 역주본을 갖고 있는데 최근 출간된 『일칸들의 역사』까지 이른바 가잔史(Tārikh-i mubarak-i Ghazānī)가 모두 한국어로 역주된 것이다.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앳 딘의 집사, 권1: 『부족지』, 권2: 『칭기스칸기』, 권3: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2~2005; 권4: 『일칸들의 역사』, 2018, 사계절.

⁴ 티베트는 크게 암도, 캄, 중앙 티베트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티베트는 몽골 제국 시기 帝師와 宣政院의 관할 하에 있었고 13만호로 나뉘어 관리되었던 중앙 티베트를 가리킨다.

⁵ 1240년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이 군대를 보내 중앙 티베트를 침략한 이래 몽골의 티베트 관리는 여러 변화를 겪었는데, 쿠빌라이 이후 사까파 출신 帝師, 宣政院, 중앙 티베트 혹은 암도 지역에 주둔하며 주로 군사적 문제를 관할한 出鎮宗王 西平王(후대의 鎮西武靖王), 중앙 티베트에 설치된 위장 선위사사(烏思藏宣慰使司, 후에 위장 아리 꼬르숨 등삼로 선위사사 도원수부烏思藏納里速古兒孫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 등이 티베트 관리에 관여하여 복잡하고 다층적인 행정 체제를 보이거나 티베트 현지에서 직접 티베트인들을 관할한 것은 몽골이 설치한 열 세 萬戶(khri skor)의 티베트人 萬戶長(khri dpon)들이었다. 원칙적으로 만호장의 임명은, 帝師의 추천을 받은 이들이 대칸의 조정에 직접 가서 임명을 허가하는 문서와 인장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여러 이유로 대도를 자주 드나들고 몽골 상층 인사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몽골 문화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으로 몽골 복장을 하여 티베트인들에게 비난받기도 했다(최소영, 「13~14세기 몽골의 침입과 지배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 『중앙아시아 연구』, 2018, 23-1, pp. 88-89).

군주들의 역사를 기술한 『홀란 뎀테르hu lan deb ther(Tib. deb ther dmar po, 紅史/紅冊)』라는 저작을 내놓았고 이후 티베트에는 그와 같은 체제를 가진 史書들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는 티베트 지역의 역사 서술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었으며 몽골 제국 시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편가 도르제가 저작의 이름을 몽골어에서 차용하여 “홀란 뎀테르Hu lan deb ther”라고 한 것에서도 이 변화의 흐름이 몽골의 도래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⁶ 라시드 앳딘이 『집사』에서 “칸의 풍성한 寶庫 안에 보존되어 있는 사서들과 단편들” 중 하나로 『알탄 다프타르Altān Daftar(金冊)』라는 책을 거론한 것은⁷ 당시 몽골인들에게 유사한 제목의 책이 존재했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편가 도르제는 “뎀테르”라는 이름이 붙은 몽골 史書의 존재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책에도 그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⁸

⁶ “홀란 뎀테르”라는 이름은 몽골어 “ulayan(붉은)”에서 유래한 “hu lan”과, 원래 그리스어에서 기원하였고 이후 시리아어, 페르시아어 등을 거쳐 몽골어에 유입된 “debter(책, 권)> deb ther”의 합성어이다. 관련 내용은 Gerhard Doerfer,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älterer neupersischer Geschichtsquellen, vor allem der Mongolen- und Timuridenzeit*, Band 4, F. Steiner Verlag, 1975, p. 39 참고. 이 서명은 티베트어로는 “뎀테르 마르뽀deb ther dmar po”이며, 몽골어에서 유입된 “뎀테르”에 티베트어로 “붉은”을 뜻하는 “마르뽀dmar po”를 합친 말이다. 일반적으로 “뎀테르 마르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일본어 번역본의 경우 저자의 뜻을 살려 역주본의 제목을 『홀란 뎀테르』라고 적었다(稻葉正就, 佐藤 長 譯, 『フウランテプテル: チベット年代記』, 法藏館, 1964). 제목에 색깔이 들어가는 것(『홀란 뎀테르』나 『靑冊(뎀테르 원뽀deb ther sngon po』 등) 역시 몽골의 영향이라고 보기도 한다(Kuijp, 1996, p. 45).

⁷ “다프타르”가 “뎀테르”와 같은 어원의 단어임은 물론이다. 라시드 앳딘에 의하면 『알탄 다프타르(金冊)』는 “칸들의 財庫 안에 항상 대아미르들에 의해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며, “시대 시대마다 몽골의 문자와 언어로 된 그들의 신빙성있는 사서는 정비되고 정리되지 않은 채 불완전한 篇篇으로 [군주의] 寶庫에 보존되어 있었고, 이방인과 전문가들은 열람할 수 없도록 은폐되고 차단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김호동, 『부족지』, 사계절, 2003, p. 29).

⁸ 편가 도르제가 첼파 만호의 만호장이었고, 체류 기간은 알 수 없으나 대도에 세 차례 다

그리고 이러한 『홀란 뎀테르』의 체제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위에 몽골 정치에 대한 보기 드문 기록을 수록하고 또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티베트의 물질 문화 소개라는 새로운 내용을 실어 몽골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전통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15세기 사가派 출신의 뵤조르 상뵤dpal 'byor bzang po(fl. 15c)가 편찬한 『漢藏史集(현자들이 좋아하는 漢地와 티베트의 대 문서들: 섬부주를 비추는 거울(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s dga' byed chen mo 'dzam bu gling gsal ba'i me long)』이다. 이전의 『홀란 뎀테르』가 티베트 역사 서술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고 그 내용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티베트인의 시각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사료 자체가 새로운 정보는 아니었던 것에 반해, 『한장사집』은 어떤 저작에도 없는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몽골과 티베트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은 한국은 물론 해외의 학계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는 몽골, 티베트 역사 연구 둘다에 손해가 되어 왔다. 본 역주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시작되었다.

『한장사집』을 설명하기 전에, 몽골 진입 이전 티베트의 주요 “역사서”들의 구성이 어떠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돈황 藏經洞에서 나온 두 종의 뵤리오 문서인 <P.T. 1287>과 <P.T. 1288>이 있다. 이들 연대기는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자들은 전자를 *The Old Tibetan Chronicle*, 후자를 *The Old Tibetan Annals* 라고 부른다.⁹ 첫번째 *The Old Tibetan Chronicle*은 토번 군주들의 위대

녀왔으며 몽골어와 중국어에도 능했던 사실은 그가 『홀란 뎀테르』 즉 “티베트 최초의 세계사(Kuijp 1996, p. 44)”를 저술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몽골 시대가 낳은 국제적인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그의 조부 가데 뵤Dga' bde dpal(1254/56-1310)은 18세에 쿠빌라이의 조정에 가서 첼파 만호장 임명을 받은 때부터 몽골 조정에 일곱 차례를 다녀왔다고 한다. 가데 뵤에 대하여는 Sørensen and Guntram, *Rulers on the Celestial Plain. Ecclesiastic and Hegemonic Rule in Central Tibet*.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7, pp. 185-194 참고.

⁹ *The Old Tibetan Annals*는 *Royal Annals of Tibet*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들 자료에 대한 간단한 분석은 Leonard W. J. van der Kuijp, “Tibetan Historiography,” José Ignacio Cabezón and Roger R. Jackson eds., *Tibetan Literature: Studies in Genre*, New York:

함을 산문과 운문으로 찬양하는 글이며, 좀더 신뢰할만한 자료인 <PT 1288> 즉 *The Old Tibetan Annals*는 한 해 한 해 토번 조정의 군주와 대신들의 거취와 업무를 간략히 적은 연대기로, 641-2년 문성 공주가 티베트에 도착한 기록에서 시작하여 763-4년 티베트 군의 唐 長安 점령을 짧게 언급한 것으로 끝이 난다.¹⁰ 즉 이들 문서는 모두 토번 조정의 사건들만 싣고 있다. 다음으로 『송첸 감뽀 遺訓(bka' chems ka khol ma)』은¹¹ 아띠샤Atiśa (982?-1054?)가 1049년경 라싸 툽낭 사원 기둥의 구멍(ka khol ma)에서 “발견”했다고 전해지며 송첸 감뽀의 재위기 툽미 삼보파thon mi Sambhoṭa의 티벳 문자 창제, 재상 가르 톡첸 율송mgar stong btsan yul bzung의 여정 등이 적혀 있다.¹² 또한, 삼애bsam yas 사원을 건설한

Snow Lion, 1996, pp. 39-56 참고.

¹⁰ 이 연대기는 몇 해전 관련 지도와 함께 그 번역과 주석이 출간되었다. Brandon Dotson & Guntra Hazod, *The Old Tibetan Annals: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ibet's First History: with an annotated cartographic documentation by Guntram Hazod*,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0. 연대기의 일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랑이해였다. 찐뽀(토번 제국의 군주에 대한 호칭)는 메르케mer khe에 거주했고 대 재상 [mgar] 톡첸stong rtsan은 몽뿌 셸종mong pu sral 'dzong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인구를] 豪(rgod, 즉 軍)와 順(g.yung 즉 民)으로 나누고 대 행정을 위한 책자를 만들었다. 1년.”; “토끼해. 찐뽀는 메르케mer khe에 머물렀고 대재상 톡첸은 고르띠'gor ti에서 법률을 위한 책을 썼다. 1년.”; “용해였다. 찐뽀는 메르케에 머물렀고 대재상 톡첸은 꺾꺾gtsam의 율마르yul mar에서 대규모 호랑이 사냥을 열었다. 1년.”(Brandon Dotson & Guntra Hazod, 위의 책, pp. 85-86). 이 문서는 아마도 티베트에서 작성된 원문을 11세기 초 돈황(혹은 그 주변) 지역에서 필사한 것으로 보이며(Sam van Schaik, “Review of *The Old Tibetan Annals* by Brandon Dotson,” *European Bulletin of Himalayan Research*, 2010, vo. 1, 37, p. 150) 이미 한문이 쓰여진 종이의 뒷면에 티베트어 정자체로 쓰여 있다.

¹¹ “기둥 구멍에서 나온 유언”의 뜻.

¹² 이 저작은 송첸 감뽀가 자신의 사망일을 정확히 예견하거나, 아띠샤의 도래를 미리 언급하는 등 후대의 사건을 정확히 적고 있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출처는 밝히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초기 저작들을 인용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배경과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삼애 사적기』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바세sba bzhed』는 티송데첸이 빈교 대신들의 반대를 이기고 불교를 전파하고 삼애 사원을 세운 이야기를 적었으며,¹³ 12세기 낭랄 니마 외세르nyang ral nyi ma 'od zer(1124-1192)가 지은 『佛教史: 꽃의 精粹의 蜜汁(chos 'byung me tog snying po sbrang rtsi'i bcud)』도 많은 자료를 인용하여 토번 제국 시기의 불교의 역사를 적었다.¹⁴ 쇠남 께모bsod nams rtse mo(1142-1182)의 『불교 입문(chos la 'jug pa'i sgo, 1167/8)』도 역시 제목대로 불교사에 대한 기술이다. 13세기에는 대우 조 새Lde'u jo sras의 『大 佛教史: 가르침의 勝旗(chos 'byung chen mo bstan pa'i rgyal mtshan)』와 캐빠 대우mkhas pa lde'u의 『상세한 인도와 티베트 불교사(rgya bod kyi chos 'byung rgyas pa)』 등의 불교사 저작들이 나왔다.¹⁵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부핀 린첸 둑bu ston rin chen grub(1290-1364)의 『불교사(chos 'byung, 1322/1326)』가¹⁶ 있는데 이 책 역시 제목에서 짐작되는 바대로 인도와 티베트의 불교사를 적고 있고 후반부는 경전 목록을 망라하고 있다.

즉, 몽골 이전의 “역사서”들은 서술 대상이 토번 제국사와 불교사 두 가지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몽골 이후에 등장한 저작들과 크게 대비되는

¹³ 티송데첸의 재상이었던 바샬낭Sba gsal nang(fl. 8c)이 지었다고 하나 수록된 기록들을 보면 이 책의 저작 연대는 12세기에서 심지어 14세기로 볼 수도 있다.

¹⁴ 그가 인용했다고 하는 저작들은 ① Bka'i yig rtsis che, ② Bka'i yig rtsis chung, ③ Bka'i thang yig che, ④ Bka'i thang yig chung, ⑤ Rgyal rabs rkyang pa, ⑥ Khug pa, ⑦ Zings po can, ⑧ Spun po 등이다.

¹⁵ 이 두 권의 저작 연대에 대하여는 Leonard van der Kuijp, "Dating the Two Lde'u Chronicles of Buddhism in India and Tibet," *Asiatische Studien*, 1992, vol. 46, pp. 468-491 참고. 13세기 후반 장지 뽀빠 세랍뵈Byang ji ston pa Shes rab 'bum의 『왕통 如意寶樹(Rgyal rabs dpag bsam ljon shing(1286))』는 현전하지 않지만 『홀란 뎀테르』가 티베트 지배 가문의 계보를 쓸 때 인용했다고 언급한 저작이다.

¹⁶ 전체 제목은 “Bde bar gshegs pa'i bstan pa'i gsal byed chos kyi 'byung gnas gsung rab rin po che'i mdzod.”

것을 알 수 있다.¹⁷ 『홀란 뎀테르』가 새 전통을 시작한 이후 쇠남 겔첸bsod nams rgyal mtshan(1312-1375)의 『왕통을 비추는 거울(bgyal rabs gsal ba'i me long, 1368)』, 샤까 린첸 deshakya rin chen sde의 『얄룽 조오 교법사(yar lung jo bo'i chos byung, 1376)』 등의 역사서들이 줄지어 “세계사” 서술 형식을 따라 편찬되었다.

그리고 뵈조르 상뵈는 『한장사집』에서 『홀란 뎀테르』에서 시작된 새로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티베트 판 “세계사”를 서술하는 외에 티베트에 도검과 茶, 도자기, 전래된 역사와 각각의 종류 등 이전에 없던 소재인 물질 문화를 소개했다. 그럼으로써 이전의 저작들보다 확대된 시야를 보여주고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티베트에서의 만호 분류와 역참 설치 과정 등 몽골이 티베트를 어떻게 관할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편, 카안 울루스 내부 주요 인물의 생애에 대해 한문 사료나 페

¹⁷ 토번 제국 시기의 사료 중에는 주변의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를 다룬 것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 토번과 和-戰의 여러 방면으로 관계가 깊었던 唐의 역사에 대한 기록도 남은 것이 없어, 그때문에 『홀란 뎀테르』의 저자 편가 도르제는 중국사를 적기 위해 중국에서 쓰인 티베트의 역사, 즉 『唐書』 「吐蕃傳」을 보고 역으로 唐의 역사를 재조립해야 했다.

그러나 토번 제국시기 “세계사”라고 할만한 자료가 편찬되지 않았었다고 해도 몽골 제국 시기 나타난 티베트 판 “세계사”들은 이전의 토번 제국의 기억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다른 티베트문 돈황 문서 P.T. 1283은 위구르(hor) 왕의 명으로 다섯 명의 위구르인이 북쪽에 파견되어 북쪽의 왕들을 조사한 보고서로, 처음 편찬자나 원래의 언어, 티베트로 입수(되어 티베트 문으로 번역)된 경위 등이 분명치 않으나 그 안에 고구려ke'u li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구려인들이 “턱이 가슴에 붙어 있고, 인육을 먹으며, 늙은 부모와 노인들을 나체로 내보내 죽인다”고 적었다. 이 문서에 대하여는 Federica Venturi, “An Old Tibetan Document on the Uighurs: A New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Asian History*, 2008, vol. 42-1, pp. 1-35 참조. 요약하면, 후대에 돈황에서 옮겨 적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토번 제국 시기에 처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돈황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세속의 일을 적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국 멸망 이후 이른바 티베트 불교의 후흥기(즉 토번 제국 멸망 후 불교가 부흥하기 시작한 11세기 이후부터)에 들어 불교가 다시 흥성하면서 역사 서술은 불교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고, 이전에 일어난 불교적인 사건은 그 종교적 내용이 더욱 강조되며 세속적인 기록 또한 불교적으로 해석되는 특징을 보인다.

르시아어 사료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가 『한장사집』에 대해 “동시대에 출현한 모든 티베트 역사 저작 중 자료가 가장 풍부하고 광범위하다”거나 “蒙元 시대 티베트 역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문헌”¹⁸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에 이 저작과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한장사집』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15세기 이후 티베트 史家들 자체가 이 책을 언급하거나 인용하지 않았던 것이¹⁹ 현대 학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본과 그간의 연구

『한장사집』의 原題는 『현자들이 좋아하는 漢地와 티베트의 대 문서들: 섬부주를 비추는 거울』이고 짧게는 『漢地와 티베트의 문서들(Rgya bod yig tshang)』이라고 부른다. 제목 그대로 티베트의 문서들과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에 전해진 漢地の 문서들을 다량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이 처음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05년 찬드라다스(Sarat Chandra Das)가 발표한 "Tibet under the Tatar emperors of China in the 13th century"²⁰를 통해서였지만 상세한 내용이 알려진 것은 Ariane Macdonald가 1965년 "Preamble a la lecture d'un Rgya-Bod yig-chan"이라는 논문에서 이 사료를 소개하면서 부터였다.²¹ 맥도날드가 소개한 사본은 藏書家

¹⁸ 沈衛榮, 「中世紀西藏史家筆下的蒙元王朝及其與西藏關係: 以閱讀藏文史著《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爲中心」, 『重新講述蒙元史』, 北京: 三聯書店, 2016, pp. 130-155.

¹⁹ 최근의 한 연구는 물질문화를 소개하고 몽골 지배 체제를 수록하는 등의 『한장사집』의 서술 내용이 불교를 중시하고 세속을 경시하는 티베트 史學에 맞지 않았고 거기에서 이단적인 빈교의 이론까지 소개하고 있어서 티베트 학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보았다(金鵬飛, 「《漢藏史集》長期未引起足夠重視的認識和分析」, 『學理論』, 2014, pp. 112-114).

²⁰ Sarat Chandra Das, "Tibet under the Tatar emperors of China in the 13th century", *Journal of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 1905, Extra Number, pp. 94-102.

²¹ Ariane Macdonald, "Preamble a la lecture d'un Rgya-Bod yig- chan," *Journal*

덴사빠(Densapa)가 소장하고 있던 이른바 덴사빠본이었고 전통적인 형식인 가로로 긴 빼차에²² 필기체(우메dbu med)로 쓰여 있었으며 현재 일본 東洋文庫에 마이크로 필름의 프린트본이 남아 있는데 일부 페이지가 결락되어 있다. 이 사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한장사집』의 유일한 사본으로 여겨졌다. 1979년 부탄의 수도 팀푸의 승려가 이 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원본과 같이 고전적인 빼차 형태로 다시 필사 편집본을 만들어 출판하였는데,²³ 이 편집본이 덴사빠의 원본과 거의 일치하고 원래의 사본은 접하기가 어려우니 이 팀푸 편집본이 초본 역할을 해 왔다.

한편 중국에서는 1980년 한 학자가 미국에서 열린 국제 티베트 학술대회에 참가했다가 팀푸 편집본을 구해 와서 처음 소개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四川民族出版社가 1985년 현대적인 서적 형태의 책을 출간했다. 1986년에는 중국의 티베트 학자 陳慶英이 번역본을 냈는데²⁴ 이 中譯本은 이 책에 대한 전 세계 유일의 번역으로 지금까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왔다. 다만 역자 陳慶英 자신이 말한 대로 급히 번역하느라 오류가 많고²⁵ 또한 주석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근년 티베트 라싸의 대뽕bras spungs²⁶ 사원에서 역시 빼차에 필기체로

Asiatique, 1963, vol. 251, pp. 53-159.

²² dpe cha. 원래 긴 나뭇잎에 글을 적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가로로 긴 종이에 써서, 묶지 않고 낱장으로 쌓아 보자기로 싸서 보존하는 방식이다.

²³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ed., Thim-phu, Bhutan, 1979.

²⁴ 達倉宗巴 班覺貢布 著, 陳慶英 譯, 『漢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1986.

²⁵ 陳慶英, 「關於漢藏史集的作者」, 『西藏民族學院學報』, 2004, vol. 25-2, p. 11.

²⁶ 보통 드레푹이라 불리는 라싸 근교의 사원으로 1416년 종카빠의 제자 중 하나인 잠양 최제 따쉬 뽀덴'jam dbyangs chos rje bkra shis dpal ldan(1397-1449)이 세웠다. 간덴, 세라와 함께 겔룩 3대 사원 중 하나이며 “간덴 포당dga' ldan pho brang”이라고 하는 달라이

쓰여 있는 이 책의 사본 두 종류가 발견되었다. 표지에 제목이 “Rgyal rabs gong ma'i legs bshad rnam dbye yid 'dzin lta bde go gsal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라고 길게 붙여져 있는 이들 사본은 대뽕의 十六羅漢堂(gnas bcu lha khang)²⁷ 내에 보존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번호가 <phyi. ra. 20>으로 붙여져 있고 다른 하나는 <phyi. ra. 127>로 적혀 있다. 이 사본들을 저본으로 하고 기존에 나온 다른 편집본을 참고하여 2007년 라싸 뽕쩍 장문고적 연구실(百慈藏文古籍研究室)²⁸의 학자이며 린포체인 툽땡 니마thub bstan nyi ma가 “Rgyal-rabs Mang-po'i Legs-bshad Rnam-grangs Yid-'dzin Nor-bu'i Phreng-ba”라는 제목으로 현대 서적 판형에 인쇄체(우쨌dbu can)로 전자 입력한 편집본을 냈다.²⁹

본 역주는 일본 東洋文庫가 소장하고 있는 덴사빠 사본의 마이크로 필름 프린트본을³⁰ 저본으로 삼고, 결락된 부분은 대뽕 사본 <phyi. ra. 20>을 참고했다. 東洋文庫는 이 자료에 대해 대출은 물론 복사나 사진 촬영 등을 일체 금하였으므로 직접 가서 열람했는데, 팀푸 편집본을 가져가서 비교해 본 결과 둘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 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고 그나마도 깊이 있는 연구가 아닌 짧은 논문들일 뿐이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왔다. 처음 1985년 이 책이 중국에서 소개된 직후 소수 학자들에 의한 몇몇 연구가 나오고 그쳤는데³¹ 최근 몇

라마의 주석지가 있던 곳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원이다.

²⁷ 이름에는 bcu, 즉 10이라고 쓰여 있으나 16나한당으로 해석한다.

²⁸ 티베트어 명 Dpal-brtsegs Bod-yig Dpe-rnying Zhib-'jug-khang.

²⁹ *Rgyal-rabs Mang-po'i Legs-bshad Rnam-grangs Yid-'dzin Nor-bu'i Phreng-ba*, Dpal-brtsegs Bod-yig Dpe-rnying Zhib-'jug-khang, Krung-go'i Bod Rig-pa Dpe-skrun-khang, Lhasa, 2007.

³⁰ 東洋文庫 소장도서 일련번호 520-3066.

³¹ 沈衛榮, 「一部珍貴的藏文史籍—《漢藏史集》」, 『西藏研究』, 1987, vol.2, pp. 135-138; 陳慶

년 사이 중국의 몽골-티베트 관계 전문가들이 이 책을 집중적으로 다시 소개하는 정황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한족 티베트 연구가 張雲은 2016년 『한장사집』의 문헌학적 특징을 간단히 설명한 뒤 이 책에서 보이는 외래 문화가 티베트에 준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다.³² 같은 해 沈衛榮은 「中世紀西藏史家筆下的蒙元王朝及其與西藏關係」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 역사 서술 전통이 새로이 형성되어 『홀란 뎀테르』 등이 나오면서 이후 저서들도 천편일률적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따르고 있는데 『한장사집』은 이전 사료들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풍부한 자료를 싣고 있다”고 평가했다.³³ 두 논문은 모두 『한장사집』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沈衛榮은 이 책이 “동시대에 출현한 모든 티베트 역사 저작 중 자료가 가장 풍부하고 광범위하며 우리가 오늘날 몽원 시대의 티베트 역사를 연구에 가장 중요한 티베트 문헌”이라고 주장했다.³⁴ 한편 전면적인 연구는 아니더

英, 史衛民, 「大蒙古王統綜述-《漢藏史集》節譯並註釋」, 『蒙古學資料與情報』, 1987, vol. 1, pp. 7-15; 陳慶英, 沈衛榮, 「簡論《漢藏史集》」, 『青海社會科學』, 1988, vol.4, pp. 95-101.

³² 張雲, 「藏文史書 《漢藏史集》의 文獻學特點及其史學價值」, 『青海社會科學』, 2016-1, pp. 32-40. 그러나 張雲이 『한장사집』의 특징으로 들고 있는 점들 다수는 이전에 『홀란 뎀테르』에 실려 있는 것들이다.

³³ 沈衛榮, 「中世紀西藏史家筆下的蒙元王朝及其與西藏關係: 以閱讀藏文史著《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爲中心」, 『重新講述蒙元史』, 北京: 三聯書店, 2016, pp. 130-155.

³⁴ 沈衛榮, 2016, pp. 130-155. 沈衛榮은 『한장사집』이 중세기 티베트 승려의 눈에 비친 불교사와 세계사를 보여준다고 극찬하는 한편, 『한장사집』이 중국 황제에 대한 호칭이었던 꺄rgyal po를 몽골 대칸에 대하여도 쓴 것, 토곤 테무르에 대해 “漢地の 왕국rgya nag gi rgyal khams”을 다스린 마지막 황제라고 쓴 것 등을 분석하고 이 책이 몽골을 宋-明을 잇는 중국 왕조로 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沈衛榮, 2016, pp. 137-140). 그러나 “꺄rgyal”은 중국 황제뿐 아니라 서하나 호탄 등의 군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쓴 칭호이며 티베트 史家들은 각각 다른 군주들의 원래 호칭에 상관없이 티베트어 “꺄rgyal”을 동등하게 적용했는데 沈衛榮은 이를 몰랐거나 무시했다. 또한 몽골이 “漢地の 왕국”을 통치했다는 표현이 몽골이 중국 왕조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몽골의 군주들의 역사>가 칭기스 칸 이전 몽골리아에서 일어난 9대만을 가리키니 『한장사집』이 칭기스 칸 이후의 몽골 왕통에 대하여는 ‘중국의 왕통’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pp. 138-139)도

라도 『한장사집』의 일부에 대한 인용은 있어 왔는데, 주요 연구만 들자면 일찍이 찬드라 다스가 이 책의 13만호 등 행정 체제에 대한 기술을 인용한 것에 이어 1990년 페텍도 역시 행정 구역과 만호에 대해 쓰면서 주된 사료로 『한장사집』을 인용했다.³⁵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애트우드도 몽골 군주들의 계보를 집사, 비사, 성 무친정록 등과 함께 티베트 사료 속 기재를 비교하면서 『한장사집』을 인용했다.³⁶ 그 외에 특히 중국의 논문들이 이 책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티베트 역사> 장에서 뵘조르 상뵘가 티베트에 도검이 도입된 역사와 창, 도자기의 도입 등에 대한 역사를 실었기 때문이다. 티베트 무기에 대한 연구나 차에 대한 연구들은 『한장사집』을 인용하고 있다.³⁷

3. “사까의 문서 관리인” 뵘조르 상뵘dpal 'byor bzang po

맞지 않다. <위대한 몽골 군주들의 역사>은 몽골 장 전체의 제목이며 뵘조르 상뵘는 그 장 안에서 다만 그들이 흥기한 장소를 구별한 것뿐이다. 沈衛榮의 주장은 대단히 오류가 많다. 한편 沈衛榮과 張雲 두 학자는 이 책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리고 있어 흥미로운데, 沈衛榮은 이 책이 “티베트 史家의 눈에 供施 관계(mchod yon)의 목적은 종교적인 것일 뿐 아니라 정치, 종교 둘다임을 보여준다(沈衛榮, 2016, p. 150)”고 본 반면 張雲은 이 책이 티베트의 몽골에 대한 관계를 종교적으로만 적고 있고 “몽골에의 정치적 예속 관계를 단지 供施 관계로 왜곡하고 있다(張雲, 2016, p. 36)”고 했다.

³⁵ Luciano Petech,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the Yüan-Sa-skyä period of Tibetan history*,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1990, pp. 52-61.

³⁶ Christopher P. Atwood, “Six Pre-Chinggisid Genealogies in the Mongol Empire”,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2012, xix, pp. 6-58.

³⁷ 예를 들어 차에 대한 연구 旦增卓瑪, 「淺論西藏茶文化-以漢藏史集相關記載爲中心」, 『西藏發展論壇』, 2013-4, pp. 25-28; 羅桑開珠, 「論藏族茶習俗的形成及其特點」, 『中央民族大學學報』, 2011-3, pp. 85-90; 趙國棟, 「西藏傳統茶文化的發展階段」, 『農業考古』, 2018-2, pp. 153-159; 趙金鎖, 「藏族茶文化: 茶馬貿易與藏族飲茶習俗」, 『西北民族大學學報』, 2008-5, pp. 126-131 등이 『한장사집』을 인용했다.

저자 뽕조르 상뽕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985년 중국에서 이 책을 편집하여 인쇄체로 펴낸 티베트인 학자 둥까르 롽상 툰래dung dkar blo bzang 'phrin las(Ch. 東嘎 洛桑赤列, 1927-1997)는 뽕조르 상뽕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의 사적은 기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책의 중국어 역주자인 陳慶英도 역시 “둥까르 롽상 툰래의 말을 인용하며 “저자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없다”³⁸고 적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우리는 저자가 남긴 짧은 정보로 그가 생존했던 시공간적 환경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저자 뽕조르 상뽕은 책의 말미에 “익캔yig mkhan 석가모니의 居士dge bsnyen 쉬리부띠바드라shri bhu ti bha dra라는 이름을 가진 애루g.yas ru 딱창빠stag tshang pa가 나무-陽-호랑이 해(1434)에 썼다”고 적었다. 익캔은 “문서-사람”의 의미로 문서나 책과 관련 있는 사람을 뜻하며, 쉬리부띠바드라shri bhu ti bha dra는 Śrībhūtibhadra 즉 뽕조르 상뽕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역일 것이다. “딱창빠”는 “딱창 출신 사람”을 뜻하며 애루는 “오른쪽 루”를 뜻하는데 “루ru”는 토번 제국 시기부터 존재해 온 전통적인 지역 구획이며, 중앙 티베트를 네개의 루ru로 나눈 것이고 애루는 그 중 하나다. 위치는 짱 지역의 얄룽 짱뽕강 북안 지구로 오늘날의 南木林縣, 薩迦縣, 吉隆縣을 포괄한다. 딱창은 애루에서 현 吉隆縣 현성 소재지인 宗嘎鎮 지역으로, 원 후기 사까派의 후에 중 네 개 라당bla brang³⁹ 중 하나인 뒤

³⁸ 陳慶英, 2004, vol. 25-2, p. 12.

³⁹ 13세기 말 사까의 지배 가문인 퀴씨는 후손이 단 한 명 다니 첸뽕 상뽕 뽕 bdag nyid chen po bzang po dpal(1262-1324)이 남아 있었는데 그는 딱빠의 장례를 엄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쿠빌라이에 의해 만쯔 즉 남중국에 유배되어 있었다. 이후 여러 티베트인들의 호소로 성종 테무르는 그를 풀어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 몽골의 공주 등 여러 여성과 혼인시켰다. 그 결과 많은 수의 자식이 태어났고 아들만 13명이나 되었다. 이에 그의 아들 중 하나인 帝師 편가 로되 겐첸kun dga' blo gros rgyal mtshan(1299-1327)이 1322년 티베트로 돌아와서 자신의 형제들을 네 개의 라당bla brang으로 나누었고 두척 라당은 그 중 하나다. 라당은 “라마의 거주지”를 뜻한다. 이 조치는 후에 사까의 힘을 약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최Dus mchod 라당의 인물들이 자리잡고 주변 지역을 관할하던 곳이다.⁴⁰

그런데 뒤최 라당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쿠빌라이 이후 대칸들은 사까派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았고 사까파 최고의 우두머리인 제사가 몽골 조정에 가 있으므로 사까의 세속 수령인 뵘첸dpon chen⁴¹이 티베트를 관할했다.⁴² 사까派는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교파들의 토지나 속민을 빼앗기도 했는데 몽골 以前과 몽골 초기 티베트에서 최대 세력을 자랑하던 디궁派와 팍모두派 역시 속민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⁴⁰ 팍창종에 대하여는 R. Vitali, *The Kingdoms of Gu.ge Pu.hrang according to the Mnga' ris rgyal rabs by Gu ge Mkhan chen Ngag dbang grags pa*, Dharamsala: Tho ling gtsug lag khang lo gcig stong 'khor ba'i rjes dran mdzad sgo'i go sgrig tshogs chung, 1996, pp. 565-574 참고.

⁴¹ “대 수령”의 뜻.

⁴² “불교로 이어진 시주-복전 관계”라고 하는 후대의 이미지와 달리 몽골과 티베트의 첫 만남은 티베트인들에게도 큰 재난이었다. 몽케가 보낸 몽골군에 대해 한 티베트 사료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몽골은] 만나는 사람을 모두 죽였고 보이는 재산을 모두 가져갔으며 가옥을 모두 불태우고 전 사원을 파괴했다. 특히 승려들을 미워했다. 통역자나 티베트어를 말할 수 있는 자는 백 명에 한 명도 안 되었고 귀순의 말이 있어도 [티베트인들이] 몽골의 법률 체계나 행동을 알 수 없었다. 몽골(hor)이나 몽골인(sog po)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티베트인들은 두려워했고 땅에 바로 서지 못했다. 모든 이들이 염라 왕(las kyi gshin rje)의 손아귀에 있는 듯이 공포에 빠졌다(Spyan-snga-ba Rin-chen-ldan, *Rje-yang-dgon-pa'i rnam-par-thar-pa, Dkar-brgyud-gser-'phreng*, compiled by Mon-rtse-pa Kun-dga'-dpal-ldan and edited by Kun-dga'-'brug-dpal. Leh: Sonam w. Tashigang, 1970, p. 398; Spyian-snga-ba Rin-chen-ldan, *The Collected Works (Gsung-'bum) of Yang-dgon-pa Rgyal-mtshan-dpal*, Reproduction of three volumes of the writings of the Stod 'Brug-pa Dkar-brgyud-pa master from Rta-mgo Monastery in Bhutan, 1982, Volume 1, p. 64; Willa Blythe Miller, Doctoral Dissertation, “Secrets of the Vajra Body: Dngos po'i gnas lugs and the Apotheosis of the Body in the work of Rgyal ba Yang dgon pa”,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2013, p. 19; Soyoung Choi 2020 (발간 예정) “From Brutes to Bodhisattvas: The Mongols in Tibetan Sources”, Timothy May & Michael Hope ed., *The Mongol World*.”

주지 승려 임명 문제를 간섭 받기도 했다. 이에 1285년 디궁派가 몽골-사까 정권에 맞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으나 잔인하게 진압당했고⁴³ 이 때 팍모두派는 디궁派와 가까운 관계였으면서도 사까에 순응하며 혼란에서 비켜서 있었다. 그러나 14세기 들어 당대 최고의 영웅이라 일컬어지는 만호장 장츄 겔첸byang chub rgyal mtshan(1302-1364)⁴⁴의 지휘 아래 팍모두派는 서서히 주변의 교파와 만호를 복속하면서 잃어버린 권한을 되찾기 시작했고 결국 마침내 14세기 중반 사까派까지 완전히 제압하니, 사까 만호장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아들, 티베트 관할권을 모두 장츄 겔첸에게 넘겨야 했다. 몽골은 티베트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것을 추진하였으며 그에게 大司徒 칭호를 내려주었다. 이후에도 팍모두派에 맞서려는 사까派의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고, 일부 사까派는 전란에서 벗어나고자 먼 곳으로 이동했는데 딱창으로 온 뒤최 라당도 그들 중 일부였다. 딱창종stag tshang rdzong⁴⁵은 1354년에 세워졌고 이 곳의 사까派 인물들은 1368년 원이 “멸망”한 후에도 “복원”의 카안으로부터 각각 大元國師와 리짱왕ri tsing dbang 칭호를 받았다.⁴⁶

⁴³ 디궁의 난에 대하여는 최소영, 「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 2010,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참조.

⁴⁴ 장츄 겔첸은 팍모두 관할권을 빼앗기 위해 사까의 만호장이 그를 구금하여 고문하기도 했으나 풀려나 결국 사까를 제압하고 티베트를 장악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322년, 당시 20세의 장츄겔첸이 팍모두 만호장에 취임하여 티베트 정치 무대에 나섰고 관할 지역 내에서 농목업 생산을 발전시키고 부세와 요역을 완화시키는 등 팍모두 만호 세력을 강화했다. 그는 수십년의 투쟁과 몇차례의 생사를 건 위기를 넘기며 타 세력과 연합 또는 대립하며, 또한 사까 정권 내부 각 라당의 분열을 이용하여 사까파로부터 사까 뽌첸의 大印을 손에 넣고 사자를 대도로 보내 대칸으로 하여금 팍모두파의 집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大司徒에 임명하게 했다. 팍모두 후손들이 티베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간의 일과 교훈을 적은 “司徒遺訓”이 들어 있는 『郎氏家族史』를 남겼다.

⁴⁵ 종rdzong은 요새, 城을 뜻한다.

⁴⁶ 즉 이전에 원으로부터 白蘭王 칭호를 받았던 닥빠 겔첸 뽈 상뽈grags pa rgyal mtshan dpal bzang po(1336-1376)은 쾨가 렉뽈 겔첸 뽈 상뽈kun dga' leg pa'i rgyal mtshan

그러나 빨조르 상뵤가 활동하던 15세기 초중엽에는 팍모두派 역시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다.⁴⁷ 팍모두 정권의 행정 수령은 데시sde srid라 칭했고 장츄 겔첸의 조카 등이 세습했는데 빨조르 상뵤가 『한장사집』을 펴낸 때는 5대 데시인 닥빠 겔첸grags pa rgyal mtshan(1374-1432; r. 1385-1432)⁴⁸ 사망 직후 그 직을 놓고 팍

dpal bzang po(1357-1384)와 남새 겔첸 빨 상뵤nam sras rgyal mtshan dpal bzang po(1360-1408)가 각각 대원 국사 칭호와 리짚왕(ri tsing dbang,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다) 칭호를 받은 것이다. 백란왕이란 몽골이 티베트 사까파의 지배 가문인 쾰시 가문의 인물 중 출가하지 않은 俗人에게 준 칭호이며 왕 칭호와 印, 그리고 官署가 주어졌다. 또한 백란왕들은 대부분 몽골 공주를 아내로 맞아 몽골의 부마가 되었다. 최초의 백란왕은 팍빠의 동생 착나 도르제phyag na rdo rje(1239-1267)이며 쿠텐의 딸과 혼인했고 그 다음이 쇠남 상뵤bsod nams bzang po(?-?), 다음이 쾰가 렉빠 겔첸 빨 상뵤kun dga' legs pa' i rgyal mtshan dpal bzang po(1308-1336), 그 다음이 닥빠 겔첸grags pa rgyal mtshan(1360-1378)이었다. 이른바 복원 시기에는 백란왕 대신 “리짚왕ri rtsing dbang” 칭호가 주어졌는데 칭호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짚왕rtsing dbang”은 이전에는 出鎮 宗王으로 주로 도매(암도) 지역에 머물며 티베트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던 쿠빌라이의 일족인 鎮西武靖王의 약칭이었다. 기록 상으로는 몽골이 최초의 백란왕인 착나 도르제로 하여금 티베트를 관할하게 했다고 하나 帝師, 宣政院, 出鎮宗王, 宣慰使司, 사까 쾰첸dpon chen 등 권력 구조가 다층적이었던 티베트에서 백란왕의 업무가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팍모두 만호의 장츄 겔첸에 의하면 백란왕과 공주가 1329년 팍모두와 야상 두 만호간의 갈등을 해결해 준 일이 있다(Byang chub rgyal mtshan, *Si-tu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 mthong ba don ldan*, Bod-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Lhasa, 1989, p. 51). 백란왕과 몽골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 제국의 부마들의 권력은 소속 집단 별로, 개인 별로 달랐고 그 중 티베트의 백란왕들은 권력이 크지 않았는데, 그들과 몽골 공주와의 사이에 자손이 없었던 것 즉 티베트-몽골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백란왕에 대하여는 陳慶英, 「元朝在西藏所封的白蘭王」, 『西藏研究』, vol. 4, 1983, pp. 29-33 참고.

⁴⁷ 그는 1364년 사망했고 원말 명초 티베트는 사까파가 帝師를 맡으며 명의상의 영수 지위를 유지하고 실제 상황은 팍모두 정권이 티베트를 장악한 형세였으며 동시에 많은 대소 지위 다른 승속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명은 티베트의 僧俗 수령들을 수도로 초청하여 칭호와 대량의 하사품을 주었고 이는 해당 인물들의 명성을 높여주었지만 명 조정이 티베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⁴⁸ 데시 닥빠 겔첸grags pa rgyal mtshan은 장츄 겔첸이 만든 종뽕 3년 임기제를 세습제로

모두파 내부에서 대분열이 일어난 때였다.⁴⁹ 이때 사까파의 딱창은, 이 책이 편찬된 “나무-陽-호랑이 해”에 복원으로부터 칭호를 받은 리짙왕의 아들이며 스스로는 輔教王이었던 남카 렉빠 로되 겐첸뽕상뽕nam mkha' leg pa'i blo gros rgyal mtshan dpal bzang po(1399-?)가 관할하고 있었다.⁵⁰ 이것이 『한장사집』 편찬 당

바꾸었다. 팍모두 주요 가신들이 대대로 주요 종을 세습하게 됨에 따라서 린뽕빠rin spungs pa, 총개빠phyongs rgyas pa 등의 가문이 고정된 영지를 대대로 소유하게 되고 이는 팍모두 정권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닥빠 겐첸은 신흥 겐룩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겐룩파의 종조인 쯡카빠(tsong kha pa Blo bzang grags pa, 1357-1419)가 라싸에서 정월에 대 기원 법회(smon lam chen mo)를 주최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라싸 3대 사원 짓는 것을 도왔다. 그가 이렇게 초창기 겐룩파를 도운 것은 겐룩파의 정치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⁴⁹ 이를 “호랑이 해의 대 동란(stag lo sde gzar chen po)”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팍모두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팍모두의 가신인 린뽕빠가 사실상 팍모두 정권을 압도하게 되었다. 린뽕빠는 까르마 까귀파를 후원했다.

⁵⁰ 1406년 明 영락제는 까르마 까귀派의 제5대 까르마빠인 대신 섹빠de bzhin gshegs pa(1384-1415)를 수도로 초청했고 1412년에는 명 조정에 초대된 사까派 승려가 영락제에게 리짙왕의 아들 남카 렉빠로되 겐첸뽕상뽕nam mkha' leg pa'i blo gros rgyal mtshan dpal bzang po를 輔教王에 임명해 줄 것을 청했다. 『明史』에도 “보교왕은 딱창思達藏 승려다”라고 기록되었는데 “딱stag”이 “思達”로 음사된 것은 아마도 “s”가 그 때는 음가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교왕은 후에 명 조정을 몇 번 방문했으며 1456년에는 노쇠함을 이유로 아들에게 이 칭호를 물려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받았다. 이것으로, 뽕조르 상뽕가 『한장사집』을 완성하던 1434년 딱창종의 상층 인물들은 명 조정과 왕래가 있었고 그 중 보교왕 남카 렉빠 로되 겐첸 뽕 상뽕이 관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陳慶英, 2004, pp. 12-15). 明으로부터 받은 칭호가 공식적으로 티베트에서의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명의 일부 황제들은 몽골 카안들의 관행을 따르고자 했고 티베트인들로서도 손해될 것은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명초 티베트 승려들과 명 조정에 대하여는 Elliot Sperling, “The 5th Karma-pa and som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ibet and the Early Ming”, *Tibetan Studies in Honor of Hugh Richardson*, ed. Michael Aris and Aung San Suu Kyi. New Delhi: Vikas, 1980; Elliot Sperling, “Early Ming Policy Toward Tibet: An Examination of the Proposition that the Early Ming Emperors Adopted a “divide and Rule” Policy Toward Tibet”,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83; 김성수, 「明朝와 番僧」, 『명청사연구』, 2013, vol. 40, pp. 141-175 참고.

시 “딱창빠” 뽕조르 상뽕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다.

뽕조르 상뽕의 생애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없으나 기록 상 그와 가장 가까운 인물은, 15세기 사까파 승려 딱창 로짜와stag tshang Lo tsā ba⁵¹ 세랍 린첸shes rab rin chen (1405-1477)이 자신의 삼촌으로 언급한 사람이다. 세랍 린첸은 자신의 조부가 리짱왕⁵²의 익뽕yig dpon이었고 그 장남이 자신의 부친이며 차남이 “뽕익dpon yig”⁵³ 즉 “최고 문서 관리자” 뽕조르 상뽕이라고 적었다.⁵⁴ 앞에서 본 대로 리짱왕은 딱창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세랍 린첸 자신도 “딱창 로짜와” 즉 딱창의 譯經師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으므로 이는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장사집의 저자 뽕조르 상뽕이 딱창 로짜와 세랍 린첸의 삼촌이라는 주장은 2007년 대뽕 사본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출간된 편집본의 편집자 톱뽕 니마가 티베트어 서문에서 저자 소개를 하며 밝혔고⁵⁵ 최근의 한 연구도 역시 같은 견해를

⁵¹ “딱창 출신의 譯經師”를 의미.

⁵² 즉 남새 겐첸 뽕 상뽕rnam sras rgyal mtshan dpal bzang po(1360-1408). 위에서 본 보교왕의 부친.

⁵³ “우두머리-문서”.

⁵⁴ Shes rab rin chen, *Lo chen thams cad mkhyen pa shes rab rin chen rgyal mtshan dpal bzang po'i zhabs kyi rnam par thar pa*, *Gsung 'bum*, vol. 2, Mes po'i shul bzhang, ed. Rgyal mo 'brug pa, Beijing: Krung go'i bod rig pa dpe skrun khang, 2007, pp. 12-13. 딱창 로짜와 세랍 린첸은 종가빠의 중관Madhyamaka를 비판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비판은 후에도 티베트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는 José Cabezón, 1995. "On the sGra pa Shes rab rin chen pa' i rtsod lan of Pan chen bLo bzang chos rgyan." *Asiatische Studien: Zeitschrift der Schweizerischen Asienengesellschaft*, vol. 49, issue 4, pp. 643-669 참고.

⁵⁵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l rabs mang po'i legs bshad rnam grangs yid 'dzin nor bu'i phreng ba*, Pe cin: Krung go'i bod rig pa dpe skrun khang, 2007, p. 9.

보였다.⁵⁶ 세랍 린첸이 삼촌 뽕조르 상뽕이 뽕익이라고 한 기록도 『한장사집』에서 저자 뽕조르 상뽕이 자신을 “익캔” 즉 문서관리인으로 소개한 것과 일치한다.⁵⁷ 이렇게 뽕조르 상뽕에 대해 확실하게 전해지는 기록이 없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사까의 지배 가문인 쾰 가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명한 17세기 사까派의 저술 『사까 世系史(sa skya gdung rabs chen mo)』은 사까派의 주요 인물들을 다루고 있으나 제목에서 보다시피 대를 이어 사까의 승속 수령을 맡았던 인물들의 업적을 적는 것이므로 그 방대한 기록 속에 뽕조르 상뽕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뽕조르 상뽕의 직책이었던 익캔yig mkhan의 임무나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진 것은 없다. 사료에서 그 용례를 찾아 보면 먼저, 처음 몽골이 중앙 티베트를 침략하고 나서 사까 뽕디따가 티베트를 대표하여 양주의 쿠텐을 만난 뒤 티베트 승속들에게 보낸 서신에 그 용례가 있다. 즉 『사까世系史』에 의하면 사까 뽕디따는 몽골에 분명한 복속을 표시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일찍 귀부한 위구르가 얻은 혜택을 강조하며, “위구르yu gur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사람과 재산을 그들 자신이 받으며 財庫 관리인⁵⁸과 익캔yig mkhan을 스스로 맡는다.”고 했다.⁵⁹ 사까 뽕디

⁵⁶ Leonard W.J. van der Kuijp, “Fourteenth Century Tibetan Cultural History III: The Oeuvre of Bla ma dam pa Bsod nams rgyal mtshan (1312-1375), Part Two”, *Revue d'Etudes Tibétaines*, 2018, no. 46, p. 5. 한편 진경영은 겐룩파의 宗祖인 종카빠tsong kha pa(1357-1419)의 글에 등장하는 깡축 뽕상skyabs mchog dpal bzang이라는 인물이 시기적으로나 장소 상 뽕조르 상뽕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종카빠의 종교 개혁을 도운 인물이라고 한다(陳慶英, 2004, pp. 15-17).

⁵⁷ “익캔”의 “익yig”은 이 책의 제목에 들어 있는 “익yig”과 같은 것으로, 문서라는 뜻이며 “캔mkhan”은 단어나 음절에 붙어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익캔”은 읽고 쓰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부터 문서를 다루는 사람, 書記, 저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세랍 린첸이 자신의 조부는 “익뽕yig dpon(문서-우두머리),” 삼촌 뽕조르 상뽕은 “뽕익dpon yig(우두머리-문서)”이라고 한 것이 두 직명을 다르게 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⁵⁸ nor gnyer ba.

따는 쿠텐의 조정에서 몽골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또한 팍빠에 대한 한 기록은, 팍빠가 쿠빌라이의 조정에서 티베트로 돌아와 우육u yug⁶⁰ 지방에 머물 때 텐트 안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았는데 그 때 팍빠의 “왼쪽에는 글을 쓰는 익칸이 있었다(g.yas na rtsom pa mdzad pa'i yig mkhan)”고 했다.⁶¹ 팍빠는 몽골의 케식 제도와 유사한 시종관들을 두었는데 모두 열 세 종류였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서yig 관리자였다.⁶² 이 두 가지 익칸의 예는 모두 이 단어가 몽골 제국 시기 “비틱치”에 대한 티베트어로 쓰인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익칸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티베트어이기도 해서 비틱치 이외의 원래의 의미로도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틴 린첸 둍이 대규모 티베트어 경전들을 한데 모아 편집하면서 “익칸”들에게 편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적은 글(yig mkhan rnam La gdams pa)이 바로 그것이며 이때 익칸은 편집자라고 할 수 있

⁵⁹ “yu gur gyi rgyal kham s 'di yang ma brlag par gong du phan/ mi nor rnam khong gis blangs nas/ yig mkhan nor gnyer ba/ bu dga' thams cad khong gyis byed”(Ngag dbang kun dga' bsod nams, *Sa skya'i gdung rabs ngo mtshar bang mdzod*, Mi rigs dpe skrun khang, 1986, p. 137)

⁶⁰ 짱(gtsang)의 한 지방.

⁶¹ 이 단락에 대하여는 최소영, 2018, pp. 85-86 참조.

⁶² 팍빠의 곁에서 그를 호위하고 일상을 책임지던 자들의 직책은 열세 종류였는데 “음식(gsol), 기거(gzims), 종교 활동(chos) 이렇게 셋; 손님, 문서yig, 창고mdzod 이렇게 셋; 부역(thab), 인솔('dren), 텐트gdan 이렇게 셋; 말 안장(馬具skya), 말(rta), 소(mdzo), 개(khyi) 이렇게 넷으로 도합 열 셋이었다.”고 한다(Ngag dbang kun dga' bsod nams, 'Jam mgon A myes zhabs, *Dzam glinng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Sa-skya gdung rabs chen mo*), Delhi : Tashi Dorji ed., Dolanji, H.P., 1975, pp. 174~175; 阿旺貢噶索南 著, 陳慶英, 高禾福 周潤年 譯注, 『薩迦世系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p. 118. 이는 몽골 지배층이 자신의 친위로 두고 각종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조를 짜서 근무하게 했던 케식과 유사하다. 아왕 편가 쇠남은 팍빠 이후 티베트의 훌륭한 인물들이 모두 이를 따라했다고 말했다.

다.⁶³

뵐조르 상뵐은 책에서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썼으므로 일시적으로 책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은 것보다는 그의 직책이 문서 관리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⁶⁴ 그는 자신이 典據로 삼은 이전의 저작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한] 진기한 문서가 셀 수 없이 많지만 내가 우둔하여 그것을 관통하여 융합할 수 없다.⁶⁵

이 문장이야말로 사까파의 익캔으로서의 저자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티베트 승속 수령들 특히 사까의 인물들이 몽골 조정에 가서 구해 온 문서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돌아와서 적은 문서들이 사까의 문서고에 쌓여 있었을 것이며 뵐조르 상뵐은 사까派의 서고에 보관된 문서들을 관리하면서 그냥 묻히기에 아까운 수많은 기록들을 소개하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대로 저자는 자신을 “석가모니의 居士(게넨dge bsnyen)”라고 소개했다. 진경영은 “게넨dge bsnyen”에 대해 “겔롱dge slong” 즉 “比丘”의 오기일 것이라고 보았다.⁶⁶ 그러나 초본과 편집본 모두에 분명히 쓰여 있고, 무엇보다 저자가 자신의 신분을 잘못 적는 것은 불가

⁶³ 이에 대하여는 Kurtis R. Schaeffer, “A Letter to the Editors of the Buddhist Canon in Fourteenth-Century Tibet: The “Yig mkhan rnams la gdams pa” of Bu ston Rin chen grub,”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2003, vol. 31, pp. 621-641 참고.

⁶⁴ 다만 몽골 지배기에 “비탁치”의 의미와 기능을 나타낸 이 단어가 뵐조르 상뵐 시기에도 여전히 같은 함의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⁶⁵ “yig tshang ngo mtshar phreng ba mtha’ yas rnams/ bdag rmongs blo yi sradd burgyud ma nus/” (Dpal ’byor bzang po, vol. 1, p. 9)

⁶⁶ 陳慶英, 2004, p. 12.

능한 일이다. 빨조르 상뽕의 정체성은 그가 『한장사집』에 서두에 남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왕통 중에 으뜸인 것은 인도의 왕통인데 내가 그것에 정통하지 못하다.⁶⁷

인도의 왕통이란 바로 티베트 역사 저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사를 말하며, 불교사에 대해 지식이 없다고 인정하는 문장은 저자가 승려였다면 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이어서 “나는 口語(phal gtam)를⁶⁸ 사용하여 인도, 漢地, 게사르, 대식, 네팔, 티베트, 몽골, 메낙의 왕통을 적을 것이다.”⁶⁹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신이 불교 지식이 없다거나 종교적인 어투가 아닌 평상어를 쓸 것이라고 밝힌 것은 빨조르 상뽕이 자신이 일반적인 티베트 저자들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나타내며 그가 승려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점 역시 후대의 “승려” 史家들이 이 저작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며 현대의 학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 그가 자신의 저작에 역참 설치에 대해 상술하거나 티베트의 茶와 도검의 역사를 수록한 것도 이러한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한장사집』의 문장들은 빨조르 상뽕이 사까파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

⁶⁷ “rgyal rabs kun gyi nang nas mchog tu gyur pa/ rgya gar rgyal rabs/ bdag gi mkhas par gyur pa mi shes kyis” (Dpal 'byor bzang po, vol. 1, p. 3).

⁶⁸ 팍땀phal gtam은 종교적이고 우아한 말이 아닌 보통의 언어를 말한다.

⁶⁹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ed., Thim-phu, Bhutan, 1979, vol. 1, pp. 8-9. 이 앞에는 “성현들이 좋아할dam pa rnams dgyes pa”라는 표현이 있는데 진경영은 중역본에서 “위인들이 웃음을 터뜨릴(發笑)”이라고 번역했다(達倉宗巴 班覺貢布 著, 陳慶英 譯, 『漢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1986, p. 5).

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몽골 제국 시기 만호를 서술할 때 그는 첫 문장에서 “具吉祥 사가의 역대 法主의 은덕으로 위장 지방에 다수의 권세가 크고 각 만호, 천호를 통치하는 대신 가문이 생겨났었다”⁷⁰라고 하거나, 사가 뽕첸들을 열거할 때도 “具吉祥 사가파의 청정 법계와 몽골 황제가 시주와 복전의 관계를 맺어 政教 양 방면에서 티베트를 護持했다.”고 하여 몽골 시기 사가파의 티베트 통치를 은혜로운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뽕조르 상뽕 당시 팍모두 정권이 내분으로 약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파가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뽕조르 상뽕은 『한장사집』 2권에서 사가 뽕디파와 그 제자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전에 사가派의 上師들이 티베트 지방을 護持할 때, 그들의 이 모든 善緣을 가진 제자들이 佛法 대로 행함으로 인해 法力이 큰 자들은 上師의 법좌를 차지하고 황제rgyal po의 帝師ti shri 지위를 얻었다. 그러한 성취가 금후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⁷¹

⁷⁰ 阿旺 貢噶索南 著, 陳慶英, 高禾福 周潤年 譯注, 『薩迦世系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p. 204.

⁷¹ “sngon tshe sa skya bla mas bod kham bskyangs pa'i dus/ dus bzang skal ldan slob mas chos bzhin byas pa'i mthus/ mthu chen bla ma'i gdan sa rgyal po 'i ti shri thob/ thob pa de'dra phyin chad 'byung pa'ang e srid ang//”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ed., Thim-phu, Bhutan, 1979, vol. 2, pp. 76-77; 達倉宗巴 班覺貢布 著, 陳慶英 譯, p. 197). 『사가 世系史』에 의하면 사가파의 라당 중 하나인 린첸강 라당의 세랍 겔첸 뽕 상뽕Shes rab rgyal mtshan dpal bzang po라는 인물이 1458년 사가를 떠나 캄으로 갔다가 뽕뽕뽕Bon khyung po stod라는 곳 부근의 黃 몽골(hor gser)인들이 있는 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때 티베트어를 아는 몽골인 하나가 와서 당신들은 누구냐고 묻길래 팍빠의 조카의 후예라고 하니 이 몽골인들이 놀라며 “라마 팍빠와 우리 몽골은 서로 시주-복전(yon mchod) 관계였다!”라고 하고 다음 날 다시 와서 많은 보시를 했다고 한다(Ngag dbang kun dga' bsod nams, pp. 299-300; 阿旺貢噶

뽕조르 상뽕의 말대로 사까파는 다시 권력을 얻지 못했지만 사까파에 속하며 문서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뽕조르 상뽕의 소속과 신분은 그로 하여금 몽골 조정 내부 사정이나 몽골의 티베트 지배와 관련된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몽골 군주들의 역사> 장에 티베트의 다른 만호나 교파에는 물론 카안 울루스가 있던 중국 지역에도 남아 있지 않은 문서들을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티베트를 통치했던 사까 소속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또한 그가 “무수히 많은 진기한 문서들을 관통하여 융합하지 못 하여” 이들을 그대로 수록함으로 인해 영원히 사장될 뻔했던 귀중한 기록들이 그대로 전해지게 된 것도 현대의 연구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다.

4. 『한장사집』의 문헌학적 의의: 사까와 겔룩 시기의 架橋

『한장사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도와 불교의 역사

지혜로운 漢地 군주들의 역사

용맹한 메냐⁷² 군주들의 역사

법왕 티베트 군주들의 역사

설명을 덧붙인 위대한 몽골 군주들의 역사

索南 著, 陳慶英, 高禾福 周潤年 譯注, pp. 198-199). 사까인들에게 몽골 제국 시기는 다시 오지 않을 영광의 시대였다.

⁷² me nyag. 즉 서하.

티베트 교파들의 역사

이 중 이 글에서 역주한 장은 볼드체로 된, 지혜로운 漢地 군주들의 역사, 용맹한 메낙 군주들의 역사, 법왕 티베트 군주들의 역사, 위대한 몽골 군주들의 역사의 4개 장으로, 불교적 내용을 제외한 “역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選譯하였다.⁷³ 각 장에 대한 해설은 장 마다 본문 앞에 게재해 두었다. 그전에 여기서 먼저 각 장의 특징과 그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한장사집』의 티베트 역사 기록은 이전에 『홀란 뎀테르』 등이 수록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면서 차, 도자기, 도검과 같은 물질 문화를 소개하고 그 역사와 분류법을 상술하는 파격을 보였다. 『한장사집』 이후 『뎀테르 윈뽀(靑冊)』나 『賢者喜宴』은 역시 몽골의 역사, 漢地의 역사, 서하의 역사를 수록하여 세계사 기술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나 『한장사집』이 보인 실용주의는 사라졌다. 『賢者喜宴』은 그 대신 이전의 『바세』 등의 전문을 수록하여 티베트 불교 역사에 중점을 두었고 『뎀테르 윈뽀(靑冊)』도 역시 각 불교 교파들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漢地의 역사는, 라시드 앳딘의 『집사』가 중국사를 전설적인 班固(pankū)에서 시작하는 것과 달리⁷⁴ 빨조르 상뽀는 周 왕조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티베트 사가들이 입수한 저작이 이른바 전설 시대가 빠진 실재한 왕조 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주 4대 왕때 서방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漢地의 역사를 불교사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唐의 역사는 『唐書』 「吐蕃傳」을 이용해, 불교사보다 당-토번 관계사를 중심으로 하여, 漢地의 역사의 왕조들 중 가장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宋, 遼

⁷³ 역주에서 제외된 제일 마지막의 티베트 교파의 역사가 양이 많기 때문에 분량으로 보면 역주는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⁷⁴ 金浩東, 「라시드 앳 딘(Rashīd al-Dīn, 1247-1318)의 『中國史』속에 나타난 ‘中國’ 認識」, 『東洋史學研究』, 2011, Vol.115, p. 25.

에 이어 女眞Ne'u rje이⁷⁵ 정권을 잡고 나라를 大金ta'i gam이라 하고 알탄칸A'e tan khan⁷⁶이라 하는 왕통 9대를 이어갔는데 칭기스 칸에 의해 멸망했다고 적었다.⁷⁷ 한편 송은 대요t'a'i gle'u에게 국토의 반을 빼앗기고 만차sman tsha(蠻子) 지방으로 가서 建康rkyen khang, 杭州hang je'u를 중심으로 제국을 유지하여 8대가 이어지고 역시 몽골에 의해 멸망했다고 적었다. 요약하면, 漢地 역사에 대한 기록은 唐 이전 시기는 불교사, 唐은 唐書에 기반한 토번과의 관계사이며, 唐 이후에 대한 기술은 간략한 왕조사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메낙 즉 서하 역사 장은 漢地 역사 장과 마찬가지로 홍사 이래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각 군주들의 이름을 서하어로 적었고 그들의 성은 오뉴ngo nu'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 사서가 서하 건국 집단을李씨로 적은 것과 크게 대비된다. 元代에 편찬된 『요사』나 『금사』 역시 서하 왕족의 성을李씨로 적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 서하가 몽골에 멸망한 것에 대하여 서하 군주의 命은 불이며 칭기스 칸의 命은 물이므로 어떻게 해도 서하가 이길 수 없었다고 적었는데 이는 아마도 정보 제공자인 쯔젠tsen tse 세랍 예셰shes rab ye shes의 시각일 것이다. 쯔젠의 뜻은 분명하지 않으나 禪師로 보인다.

한편 『한장사집』에서 가장 역사적 의미가 큰 것은 몽골 장이다. 『홀란 뎀테르』를 필두로 한 몽골 제국 시기와 그 직후의 티베트 사서들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며 몽골 역사를 서술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이 몽골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닌 반면, 『한장사집』은 몽골 카안의 종신인 바얀ba yan(Ch. 伯顏), 상가sang gha/sam gha(Ch. 桑哥)의 정치적 여정에 대한 기록, 다니쉬만드의 티베트 역참 설치부터 티베트에서 몽골의 인구조사 방식이나 역참 관리 방식 등 카안 울루스에도 남아 있지 않은 가치 있는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장사집』의 몽골 관련 기록이, 몽골이 광범위하게 티베트

⁷⁵ GBT: nu'i rje. 中譯本이 이를 '아보기'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⁷⁶ GBT: al tan khan.

⁷⁷ 金은 칭기스 칸 사후 그 아들 우구데이 카안 시기(1234)에 멸망했다.

불교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이 기록하기 시작한 17세기 이후의 몽골 저작들에 나타나는 점이다. 즉 이 책에 실린 몽골 왕권의 계승과 정통성 문제 등에 대한 서사가 꺾록 시기 즉 17세기부터 몽골 역사서에서 다소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장사집』을 후대의 몽골인들이 보고 적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사까가 지배하던 몽골 제국 말기와 그 직후 몽골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서사를 몽골 지배자들과 가까이 있던 사까 승속 수령들이 문서로 적어 둔 것을 뽕조르 상뽕이 수록해 두었고 몽골인들은 몽골인들 사이에서 전해오던 전적이거나 구전을 다시 살려 낸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뽕조르 상뽕은 칭기스 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홀란 텡테르』 등 이전 티베트 사서들의 기록을 그대로 옮긴 뒤, 거기에 덧붙이기를 “그의 치세에 寶印이 나타났다. 그것은 하늘이 준 것이라고도 하고 장수 새가 준 것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이 寶印은 진시황 때부터 전하는 傳國璽로, 금이 복송을 침략할 때 없어진 것을 몽골이 발견했다고 하며 몽골의 중국 지배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쓰였다. 몽골 제국 당시에는 분명히 쿠빌라이 이후 성종 시기에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아마도 제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출현 시기를 칭기스 칸 재위기로 하는 서사가 몽골인들 사이에 퍼졌고 이를 저자가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몽골의 구전을 기록했을 이러한 서사는 후대의 몽골인들에게 다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蒙古世系譜』는 칭기스 칸이 태어난 지 7일 후에 검은 새가 검은 바위에 앉아 사흘 밤낮을 지저귀었고, 그 바위 안에 옥새가 있었다고 하고 있다.⁷⁸

또한 랍데lab de라고 하는 한 가난한 漢人 승려-미래의 주원장-의 흥기와 몽골의 패퇴를 그리면서 뽕조르 상뽕은,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말과 행동이 몽골 황제와 똑같았”으며 이를 주원장이 상서롭게 여겼다고 적고 있다. 이는 후에 널리 퍼지는 영락제 몽골인설의 원류일 수 있다. 저자는 또한 토곤 테무르가 대도

⁷⁸ 이 寶印에 대하여는 Herbert Franke, *From Tribal Chieftain to Universal Emperor and God: The Legitimation of the Yüan dynasty*, Vorgetragen in deutscher Sprache am 4. VERLAG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In Kommission bei der C. H. Beck'sehen Verlagsbuchhandlung Munchen, Munchen, 1978, 3장 참조.

를 떠날 때 점술사들이 “황제께서 지금 떠나셔도 이 곳은 몽골인이 다시 장악할 것입니다”라고 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의 아들의 언행이 몽골인과 같았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러한 서사는 티베트인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元의 北走 이후 몽골인들 사이에 퍼진 서사가 티베트인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주원장 설화는 17세기 이후의 몽골 사서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이름이 주게jüge로 바뀐다.⁷⁹

몽골 제국 시기 혹은 그 직후 몽골에서 티베트에 전해진 서사가 후에 다시 몽골에서 보이는 또다른 예는 <漢地 군주들의 역사> 장에 보이는 “하얀 고려ka’u li dkar po” 기록이다. 이 내용은 『홀란 뎃테르』⁸⁰부터 여러 사서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漢 明帝 때 인도에서 온 고승이 漢地에 白馬寺를 지어 머물다가, 하늘을 날아 바다 가운데의 섬인 하얀 고려로 갔으며 후에 그 곳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 승려들은 竺法蘭과 迦葉摩騰으로, 그들이 소승 경전을 싣고 왔다는 기록이나 그들을 위해 漢地에서 최초로 불교 사원 白馬寺를 지었다는 내용 등은 중국 佛書의 기록과 일치하나 어째서 거기에 고려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하얀 고려”인지 알 수 없다. “하얀 고려”는 역시 17세기 이후의 몽골 사서들에 실린 개념으로, 몽골 제국이 다스린 五色(tabun öngge) 四夷(혹은 四藩, dörben qari) 즉 푸른 몽골, 붉은 중국, 검은 티베트, 하얀 고려, 노란 사르타골 중의 하나이다. 『한장사집』의 “하얀 고려” 기사는 몽골-사까기 혹은 그 직후에 이 개념이 티베트에 전해질 정도로 이미 몽골인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기사는 축법란 혹은 가섭마등이 漢 명제 때에 고려로 갔다고 적음으로써 고려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중국과 거의 같은 시기, 즉 한나라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

⁷⁹ 주게는 朱家 혹은 朱哥에서 왔을 것으로 보인다. 주게 설화의 내용과 그 등장 배경에 대한 분석은 Johan Elverskog, “The Story of Zhu and the Mongols of the Seventeenth Century”, *Ming Studies*, vol. 50, 2005 참조. 元의 멸망과 明의 건국 사이의 설화들에 대하여는 Hok-Lam Chan, *China and the Mongols: History and Legend Under the Yüan and Ming*, Taylor & Francis, 2018 참고.

⁸⁰ 이하에서는 『紅史』로 표기하겠다.

며, 고려를 오랜 전통의 불교 국가로 보는 것 역시 티베트의 시각이라기보다 몽골의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즉 『한장사집』은 13, 14세기 사까 시기와 17세기 이후 겐룩 시기의 중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고립되어 자리하고 있으나 실은 양 시기의 주요 서사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17세기 이후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몽골인들의 주요 서사 몇 가지가 사실은 몽골 제국 시기 혹은 그 직후에 이미 기본 틀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한장사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후대의 몽골인들이 영락제 몽골인설이나 五色 四夷의 서사 등을 한장사집에서 직접 보고 옮긴 것은 아니나 이 책이 아니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서사들의 발생 시기를 훨씬 뒤로 추정하여 17세기 이후에 몽골인들 사이에 비로소 형성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정통성과 계승 문제에 대한 기록들은 대부분 몽골 제국 당시는 물론, 16세기까지 티베트나 몽골 어느 쪽에도 남아 있지 않아 그 가치가 높다. 다만 저자가 이런 기록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까의 서고에 반입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를 구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이 편찬된 시기가 티베트에 대한 몽골-사까 지배 시기가 이미 끝났을 때, 즉 몽골이 대도를 버리고 北走한지 66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저자가 몽골 멸망의 이유를 나름의 시각과 정보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𠵿조르 상뵈에 의하면 몽골이 멸망한 첫번째 이유는 몽골 지배층이 불교에 귀의한 남송의 마지막 황제인 趙顯⁸¹을 사형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쿠빌라이는 남송 정벌 직후 조현에게 瀛國公의 칭호를 주고 모친과 함께 살게 하였으나 곧 불교를 공부하라는 명목으로 티베트의 사까로 유배를 보냈는데 그는 사까에 이르러 실제로 佛法에 정진하였으며 티베트어도 공부하여 다수의 책을 번역했다. 티베트인들은 그를 만체 라췌n sman tshe lha btsun이라 불렀는데 잘 알려진 대로 만체는 남송 지역에 대한 몽골인들의 호칭이며 라췌는 왕족 출신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된 자에 대한 경칭이다. 조현 관련 기록은 『紅史』 등 다른 사서에서도 보이지만 이들

⁸¹ 즉 恭帝(1271-1323, r. 1274-1276).

은 모두 조현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피가 붉은 색이 아니라 우윳빛이었다고 하여 그가 무죄임을 제시할 뿐이었다. 그런데 빨조르 상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현이 죽을 때 “자신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는데도 만약 죽인다면 다음 생에서 몽골의 왕권을 탈취할 것”이라는 저주를 남겼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정치적 야망이 없이 불교에 귀의한 이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그는 마침내 “대명 황제로 태어나 몽골의 황권을 빼앗았”고 몽골은 북쪽으로 도망쳤으니 이것은 몽골 멸망 후 티베트인의 시각에서 본 몽골의 패망 원인이다.

몽골의 패배에 대해 두번째로 제시된 원인은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토곤 테무르 시기 가난해서 식량을 얻으려 군대에 합류한 랍데lab de라는 漢人 승려에 대한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공양을 바치던 시주가 병이 나서 출군하지 못하게 되자 승려 신분으로 그를 대신하여 군인이 되어 나갔다. 그런데 당시 군을 통수하던 황태자에게 적발되었고 불교와 세속을 분리하는 두법(khrims gnyis)의 원칙, 즉 승려는 군인이 될 수 없는 법을 위배했다고 하여 큰 벌을 받으니 이에 분개하여 군대를 일으켜 결국 몽골을 몰아냈다는 것이다. 출군하면 식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고 무과가 군인이 되었다는 점이나, 황태자에게 들킨 후 “궁핍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아뢰었는데도 그를 수없이 곤장을 쳐서 거의 죽게 했다.”는 문장들은 몽골 제국 말기 상황에 대한 티베트인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인 승려가 처음부터 정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진 후 자신에게 “王” 칭호를 내려달라고 청했으나 토곤 테무르가 그가 몽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니 그가 더 분개했다는 기사도 역시 당시 조정의 요직과 분봉 등이 몽골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록에 대해 빨조르 상뽕은 당시 티베트 위짱에서 대도로 갔던 박시가 직접 본 것이라고 적었다. 저자가 생존하던 시기는 몽골 제국은 이미 멸망했고 린뽕빠 등 티베트 현지 세력이 티베트를 장악하고 있을 때였으며 호쇼트, 준가르 등 새로운 몽골 세력은 오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몽골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약하면, 1240년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이 보낸 군대와 1251년 몽케 즉위 후 티

베트에 보낸 군대에 의해 티베트는 몽골 제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곧 이들은 몽골 제국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칸을 비롯한 몽골 지배층이 티베트 불교를 숭상했고 帝師 제도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몽골 조정에서 이들의 권세는 멀리 페르시아인들에게도 알려질 정도였다.⁸²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티베트인들이 권력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정보에 접근하기 쉬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들은 몽골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남기고 몽골의 등장과 몰락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적었다. 서쪽의 훌레구 울루스에서 편찬된 세계사와 비교하면 티베트에서 등장한 “세계사”는 범위가 좁고 내용도 소략하며 때로는 역사라기보다 설화에 가까운 이야기를 신기도 했지만 전자가 몽골 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하에 편찬된 일종의 官撰 史書인 반면 티베트의 저작들은 각 史家들이 구전을 전해줄 인물이나 사료를 찾아 내서 스스로 펴낸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몽골을 대리하여 티베트를 지배한 사까파에게는 방대한 문서들이 남아 있었고 사까의 익칸, 즉 문서 관리인이었던 뽕조르 상뽕은 이것들을 모아 『한장사집』 즉 『현자들이 좋아하는 漢地와 티베트의 대 문서들: 섬부주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이름의 책을 펴냈다. 그러나 이 저작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무관심은 카안의 어전에 누구보다 가깝게 머물렀던 한 집단이 남긴 역사적 증언과 그들이 수집한 기록들이 외면 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역자는 『한장사집』을 역주하였으며, 이 번역과 주석이 몽골 제국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티베트 역사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티베트어 전사는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라 음절의 자모음을 모두 표기하는 와일리Wylie 표기를 따랐다.

⁸² “비록 키타이나 힌두나 그 밖의 다른 [지방] 박시들이 많지만 티베트인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 두 티베트 박시들은 권력과 권세를 누린다(김호동, 『칸의 후예들』, 서울: 사계절, 2005, p. 448)”.

* 티베트어의 한글 표기는 동국대학교 티벳 장경 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글 표기안을 대부분 따랐으나 sa(싸)와 sha(샤)를 단어의 처음절에서는 경음으로 적지 않고 각각 사, 샤로 적는 등 예외가 있다.

* 티베트어 인명, 지명의 와일리 표기는 괄호 없이 한글 발음 바로 다음에 붙여서 적었다.

* 축약 표기 GBTB 가뵈익창 동양문고 덴사빠본 일련번호 520-3066.

GBBR 가뵈익창 대뽕 본 phyi ra 20

GBT 가뵈익창 텀푸 본

GBC 가뵈익창 成都 본

GBB 가뵈익창 북경 본

DMB 홍사 북경본

DMS 홍사 씨킴본

GSM 왕통을 비추는 거울

* [숫자]는 GBTB의 페이지.

<숫자>는 GBT의 페이지.

-숫자-는 GBBR의 페이지.

I . 지혜로운 漢地 군주들의 역사

해설

티베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중국 지역을 唐이 지배하고 있던 때였다. 티베트인들은 唐이 장악한 대략적인 지역을 ‘가낙rgya nag’이라고 불렀는데 몽골

제국 시기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으며 이 호칭은 현대에도 중국에 대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단어의 기원에 대하여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⁸³ 13-15세기의 티베트 저작들은 南宋이 차지했던 중국 남부를 따로 지칭할 때는 “만제man tse”⁸⁴라고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몽골 제국 전후 시기 남송 지역을 “蠻子”라고 부르던 관행을 따른 것이다.⁸⁵

漢地의 역사를 최초로 기록한 것은 역시 편가 도르제의 『紅史』이다. 『한장사집』을 비롯하여 그 이전의 『알롱 조오 教法史』나 『왕통을 비추는 거울』, 그리고 후대의 『靑史』도 모두 『紅史』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唐 이전 즉 周, 漢, 南北朝 시기는 불교사적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시기에 대한 기록에서 특징적인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석가모니의 탄생 시기가 漢地의 왕조 周나라 4대 왕 즉 昭王 때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는 이 연도가 北魏 조정에서 열렸던 佛-道 논쟁에서 주장되었고 중국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佛誕年인데 이것이 티베트 학계에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보았다.⁸⁶ 원대 승려 釋念常이 편찬한 『佛祖歷代通載』도 역시 주 昭王 재위기에(昭王 25년) 석가모니가 탄생했다고 적고 있다.⁸⁷

⁸³ 글자 그대로는 ‘큰rgya-검은nag’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인도를 지칭하는 가가르(rgyagar, 큰-흰)와 대비된다.

⁸⁴ 혹은 Sman rtse. 때로 만제Sman tshe/Man tshe; 만차sman tsha.

⁸⁵ 몽골인들은 남송이 지배하던 중국 남부에 대해, 남중국을 가리키는 Nangkiya(‘南家’)에 몽골어 복수형 어미 -s가 첨가된 “낭기야스Nangiās”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티베트 사료에는 낭기야스가 보이지 않고 蠻子에서 온 “만제”만이 전해진다. 『집사』의 저자 라시드 앳 딘은 두 호칭에 대해 남중국을 “키타이인들은 만지라고 부르고 몽골인들은 낭기야스라고 부른다.”고 했다. 라시드 앳 딘 자신은 남중국을 “대중국”을 뜻하는 Mahācīna에서 유래한 “마친”이라고 불렀다. 이 호칭들에 대하여는 金浩東, 2011 참조.

⁸⁶ Per K. Sørensen, 1994, p. 78.

⁸⁷ 釋念常 撰, 『佛祖歷代通載』,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권77,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 p. 28

두 번째 특징은 漢地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漢 明帝 시기라고 적고 있는 점이다. 이 내용 역시 『佛祖歷代通載』에 유사한 기사가 실려 있으며 이 기록들은 원래는 『周書異記』를 비롯한, 중국에서 僞書로 여겨지지만 영향력이 큰 몇몇 서적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다. 몽골 제국 시기 페르시아에서 편찬된 집사의 중국사 역시 『佛祖歷代通載』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⁸⁸ 漢地의 불교사에 대해 몽골 제국 시기에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석가모니 생시에 만들었다고 하는 旃檀 나무 소재의 어린 붓다의 像이 제작되고 이동하는 정황과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전단 상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관심은 티베트 대장경 내에 『旃檀 상이 漢地에 안치된 유래(tsan dan gyi sku rgya nag na bzhugs pa'i byung tshul)』라는 글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⁸⁹ 元代 관리이며 文人인 程鉅夫(1249-1318)가 지은 『敕建旃檀瑞像殿記』와 매우 유사하여 관련 내용이 몽골 시기 漢地의 상층 지식인들 사이에도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몽골 카안들 역시 이 전단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이 상의 안치를 위해 대도 부근에 大聖壽萬安寺를 건설한 것이라고 전해진다.⁹⁰

漢地 역사 기술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唐朝의 역사를 가장 상세하게 적고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다. 唐 시기를 상술한 것은 티베트인들 자신들의 역사인 토번 제국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唐 역사 기록의 典據에 대해 저

⁸⁸ Herbert Franke, "Some Sinological Remarks on Rashid ad-Din's History of China," *Oriens*, vol. 4, no. 1, 1951, pp. 22-23; 金浩東, 위의 글, p. 30.

⁸⁹ 글 말미에 처음 원본은 한문이었고 그것을 위구르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티베트어로 번역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그 한문 원본을 알 수는 없으나 전단상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元의 관원이며 문인인 정거부(程鉅夫, 1249-1318)의 『敕建旃檀瑞像殿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百濟康義, 「〈旃檀瑞像中國渡來記〉のウイグル訳とチベット訳」, 森安孝夫: 『中央アジア出土文物論叢』, 京都: 朋友書店, 2004, pp. 71-84).

⁹⁰ 원대와 그 이후 명, 청 황실에서 旃檀像의 의미에 대하여는 H. Franke, *From Tribal Chieftain to Universal Emperor and God: The Legitimation of the Yüan Dynasty*, pp. 72-76 참고.

자는

“史官⁹¹ (63) 宋祁su khi⁹²가 쓰고 후에 韓祖才han se'u tsha가 모아서 묶은 것을 원대 漢人 譯師 胡將祖hu gyang ju가⁹³ 臨洮(shing kun)에서 번역했고 라마 린첸닥 국사rin chen grags gu shrI⁹⁴가 티베트문으로 출간한 책”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문 서적 “탕슈투판thang shu thu ‘phan” 원본을 보라.

“탕슈 투판”은 “『唐書』吐蕃(傳)”⁹⁵일 것이며 수키는 宋祁일 것이니 이 저작은 『新唐書』 토번전일 것이다. 唐書を 바탕으로 당의 역사를 쓴 기록으로 보아,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에 상당수의 한문 사적들이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 역사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나 내용의 대부분이 토번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임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唐 이후 梁, 5대 10국의 역사부터는 구체적인 전거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잠발라dzaM bha la/dzam bha lha’라는 몽골인 사신이 한문 저작을 보고 적어 둔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잠발라는 14세기 티베트의 저명 승려이며 학자인 부퉁Bu ston을 몽골 조정에 초청하기 위해 파견된 사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문 사료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⁹⁶ 내용은 송에서 요, 금으로 이어지는

⁹¹ yig tshang pa

⁹² GBTB: ba su khi. GBB에도 이름 앞에 “'ba'”가 추가되어 있다. su khi는 송기로 보이나 그 앞의 ‘바’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⁹³ GBTB: ba hu gyang ju.

⁹⁴ Leonard W. J. van der Kuijp, “The Kālacakra and the patronage of Tibetan Buddhism by the Mongol imperial family”, Bloomington, Ind.: Dept. of Central Eurasian Studies, Indiana University, 2004, pp. 44-46.

⁹⁵ GBT: thang zhu hu then.

⁹⁶ 잠발라에 대하여는 Leonard van der Kuijp, “Jambhala: An Imperial Envoy to Tibet during the Late Yu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113-4, pp. 529-

건국자 이름과 이어진 왕통의 수 정도로 그쳐서 唐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대조를 보인다.

이상의 내용은 14, 15세기 티베트 사서 『紅史』, 『알룽 조오 教法史』, 『왕통을 비추는 거울』 그리고 『한장사집』의 중국사 기록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간략하게나마 토곤 테무르가 주원장 군에 의해 북쪽으로 쫓겨 간 이후의 漢地의 역사도 적고 있는 것이 『한장사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명 황제들이 까르마파 승려와 사까派 승려를 초빙한 기록은 물론이고, 오이라트 예센에 의해 명 영종이 사로잡힌 이른바 토목의 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몽골 제국 멸망 이후 사까파를 비롯한 티베트인들이 몽골리아의 몽골과 명 간의 정세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⁹⁷ 한편으로는 몽골인이 한인 황제를 사로잡은 사건에 대해 티베트 사료가 아무 해설 없이 건조한 기록만을 남기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영종byin thun 황제는 철-陽-말해(1450년) 여덟 번째 달 16일에 몽골의 대신 예센 타이시a san thang shrī에 의해 사로잡혔다가 풀려났다.”고만 적고 있다. 이는 티베트인들이 몽골과 명 양 세력 사이에서 말을 아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로잡힌 영종에 이어 즉위한 “경태gyin thas” 황제에 대하여는 그라마의 제자였다고 하며 喜金剛,⁹⁸ 大威德⁹⁹ 등 밀종의 교법에 정통하고 佛法을 존숭한다고 한다.”고 상세히 적은 것으로 보아 경태제가 즉위 후 티베트 승려를 초청하여 후대한 것에 비해 티베트인들이 보기에 영종은 티베트나 불교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본대로 몽골 장에는 고려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

538 참고.

⁹⁷ 『靑史』는 『한장사집』 이후인 1476년의 저작이지만 『紅史』 내용 이외의 것은 적지 않고 있다. 한편 저자가 몽골이 한인 황제를 생포한 사건인 토목보의 변에 대해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고 건조하게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⁹⁸ kye rdo rje 즉 Hevajra.

⁹⁹ 'jigs byed 즉 Yamantaka.

면 <漢地 의 역사> 장에는 “하얀 고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티베트 사료에서 고려 혹은 한반도에 기반한 왕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수는 매우 적다. 『紅史』는 당 태종이 ‘고려(ka’u li)’를 침공했다가 돌아오자 티베트 측이 당 조정의 大臣 가르 동첸(mgar stong btsan)을 파견하고 금으로 만든 새를 바쳤다고 적었다.¹⁰⁰ 같은 내용이 『舊唐書』 「吐蕃傳」에 실려 있는데, 즉 송첸 감뽀가 재상 祿東贊을 보내 “高麗는 멀리 있음을 믿고 성스러운 천자에게 신하의 예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천자가 친히 백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요하를 건너 토벌하여 성을 부수고 진을 함락한 후 짧은 시일에 개선하셨습니다.”라고 경하하고, 그 속도가 기러기보다 빠르다며 기러기와 같은 거위를 금으로 만들어 봉헌했다는 것이다.¹⁰¹ 한편, 앞에서 본 티베트문 돈황 문서 P.T. 1283 즉 위구르(hor) 왕의 명을 받아 다섯 위구르인이 파견되어 북쪽의 왕들을 조사하게 한 보고서에는 께울리 ke’u li 방면에 투르크인들이 獐族(mug lig, 투르크 비문의 Bökli), 한인들이 까울리 ka’u li라고 부르는 지역과 그 풍습이 간단히 적혀 있다.¹⁰² 즉 토번 제국 시기에 언급된 고려(고구려)에 대한 소수의 기록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뒤의 <티베트 군주들의 역사> 장에는 티송데첸의 부친 메악춤 재위기에 사신들이 당에 파견되어 불경을 얻어 오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세』 등의 초기 저작들은 이 사신들에게 경전을 전해주고 佛法의 가르침을 준 인물로 호랑이를 부릴 수 있고 예지 능력도 뛰어난 김화상 kim hwa shang이라는 승려를 언급하고 있다. 사실 김화상은 즉 신라의 왕족인 淨衆 無常 大師이나, 『바세』는 김화상 kim hwa shang 기록에서 그를 “漢人(rgya)” 화상이라고 적었고¹⁰³ 『한장사집』은 사신

¹⁰⁰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Mi rigs dpe skrun khang, 1981, p. 18.

¹⁰¹ 『舊唐書』 「吐蕃傳」, p. 346; 『新唐書』 「吐蕃傳」, p. 259.

¹⁰² 이 문서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Federica Venturi, 2008; 박원길, 「Sine-usu 비문(碑文)과 p.1283 문서(文書)에서 본 바이칼 주변 및 동몽골의 민족분포-Cik과 국부(鞫部), Mug-lig(맥족(獐族))와 백습(百雪)을 중심으로-」, 『몽골학』, 2018, vol. 54, pp. 1-75 참조.

¹⁰³ Sba gsal snang, pp. 7-15.

들을 보낸 사실 외에 김화상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 승려와 관원들이 몽골 조정을 방문하고 장기 체류하면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몽골 수도에 머물러 있던 고려인들을 다수 만났을 것이 분명하지만 고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지극히 적고 그 소수의 기록에서 “Ka’u li”인들은 티베트 승려들로부터 불교적 가르침을 받는 대상 혹은 심지어 잘 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外道와 같은 집단으로 기술되었다. 1369년에 출간된 한 저작은 “세존께서 8400회 法蘊을 말씀하셨으나 外道와 몽골과 고려 등 전도된 견해를 가진 자들이 무수히 일어났다.”고 적어 고려를 外道 즉 非 불교도와 나란히 세우고 있다.¹⁰⁴ 또한 17세기 아왕 편가 소남ngag dbang kun dga’ bsod nams의 『사까世系史』는 몽골 제국 시기 팍빠가 4천명의 비구와 비구니에게 관정을 주었는데 그들은 네팔, 인도, 漢地, 몽골, 대리, 고려(ka’u li) 등에서 온 자들이었다고 기록했다.¹⁰⁵ 또한 본 역주에서 번역되지 않은 『한장사집』 제2권에는 팍빠가 “네팔(bal po)과 인도·중국(rgya dkar nag), 서하(me nyag), 몽골(hor), 고려(ka’u le), 운남(jang), 위구르yo gur, 쿠차khu sen 등의 비구와 비구니와, 사미와 사미니에게 계를 주기를 4천 4백 25명의 칸빠가 되어” 관정을 주었다고 적어¹⁰⁶ 역시 티베트 승려들로부터 관정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이들의 목록에 고려인을 넣고 있다.

그러므로 한 명제 때 처음 불교를 전하러 漢地에 온 인도 승려가 곧 바다 가운데 있는 땅 하얀 고려로 가서 그 곳에서 열반했다는 기사는, 고려가 중국 못지 않은 오랜 불교 국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티베트인의 시각이라기 보다 몽골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서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또한 앞에서 말한 대로 17세기 이후 등장한 것으로 보이던, 몽골 제국이 지배했다는 “五色 四夷” 관념이

¹⁰⁴ Sgra tshad pa,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i mdzes rgyan gyi rgyan mkhas pa'i yid 'phrog*, 1369,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971, p. 282.

¹⁰⁵ 『사까世系史』, p. 243.

¹⁰⁶ Dpal 'byor bzang po,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1454, Thim-phu, Kunsang Topgyel & Mani Dorji, 1979, smad cha, p.35.

15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漢地 군주들의 역사>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티베트인들에게 중국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나라였고 따라서 그들의 역사 대부분을 佛誕부터 중국에의 불교의 초전, 중국으로 건너간 구마라집 등의 승려 이야기 등으로 채웠다. 唐만은 토번 제국과 和戰 양면에서 접촉이 있었던 왕조였고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중요하므로 예외적으로 양측의 관계를 상술했다. 토번 제국 시기는 티베트 역사상 유일하게 군주가 있었던 때이며 唐 이후 티베트 자체는 분열 상태였고 漢地의 왕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宋, 遼, 金 등과 소규모로라도 접촉한 것은 이전 토번 제국 시기에 파견되어 주둔했다가 정착한 압도(청해) 지역의 티베트인 집단들이었다. 저자는 唐 이후 왕조의 건국자와 왕통 수를 약술하고, 금 애왕이 몽골에 멸망한 것과 몽골 이후 다시 명이 집권하여 5대가 지난 것을 약술하며 <지혜로운 漢地 군주들의 역사> 서술을 끝내고 있다.

지혜로운 漢地 군주들의 역사

성스러운 만주쉬리에게 예경합니다.

지혜와 悲心의 빛으로 모든 중생의¹⁰⁷

하열한 지혜와 극심한 무지를 제거하시고

¹⁰⁷ GBB는 ‘으로’의 자리에 ‘의(kyi)’를, ‘의’의 자리에 ‘으로(kyis)’를 넣었으나 문맥이 맞지 않으므로 GBT를 따랐다.

밝은 지혜와 변재의 빛을 주시는

지혜로운 만주쉬리의 발에 절합니다.¹⁰⁸

그의 도량성지인 五臺山(ri bo rtse lnga)은

그 주위가 漢地(rgya nag) 唐Thang의 땅이니

그 곳을 관할한 왕통이 일어난 방식에 대해

지금 여기에 요약하여 핵심을 적습니다.

周¹⁰⁹

漢人(rgya nag po)들의 문서에 의하면, 周ce'u라고 하는 왕통의 네 번째인 周王 ce hu wang이¹¹⁰ <140> 나무-陽-말 해에 정권을 잡고 나서 21년¹¹¹ 되던 해인 나무-陽-호랑이 해 네 번째 달의 8일에 인도에서 성취자 석가모니 세존께서 왕자 된 돕don grub으로 화하여 탄생하셨다.¹¹² 그 빛과 신통 변화가 漢地에도 보이니 점

¹⁰⁸ 티벳 불교에서 중국은 지혜의 상징인 만주쉬리(문수보살)와 연결되었고 특히 오대산은 만주쉬리의 거주지로 여겨졌다. 이 장의 제목이 ‘지혜로운 漢地 군주들의 왕통’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뒤에서 볼 수 있는 바대로 티베트는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과 연계되고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 여겨진다.

¹⁰⁹ 각 왕조 명 제목은 역자.

¹¹⁰ GBT와 GBC: ce'u dbang. 周의 네 번째 왕은 소왕昭王이다.

¹¹¹ 『알룽 조오 教法史』 등은 24년이라고 적고 있고, 『紅史』는 두 판본이 각각 20년, 24년이라고 썼다. <불조역대통제> 등 한문 저작들은 대부분 24년이라고 했다. 나무-陽-호랑이 해 즉 甲寅年은 소왕 즉위 26년에 해당한다(稻葉 正就 佐 藤長, p. 60). 나무-陽-호랑이 해는 기원전 977년이다(『알룽 존자 教法史』 중역본 p. 114 주 83).

¹¹² 『紅史』를 비롯하여 『알룽 조오 教法史』, 『왕통을 비추는 거울』 등 15세기까지 제작된 대부분의 티베트 사서들은 漢地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周의 제4대 昭王 24년 즉 B.C. 975년

을 쳐서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가르침이 漢地에도 올 것이라고 하였다.¹¹³

경 붓다가 태어났다고 적고, 이것이 漢地의 문서(rgya nag gi yig tshang)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에서 본대로 Sørensen은 이 연도가 北魏의 조정에서 열렸던 佛-道 논쟁에서 주장된 것이며 중국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佛誕年이며 이것이 티베트 학계에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보았다(Per K. Sørensen, 1994, p. 78). 『佛祖歷代通載』도 역시 주 昭王 재위기에(소왕 25년) 석가모니가 탄생했다고 적고 있다(釋念常 撰, 『佛祖歷代通載』,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권77,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 p. 28). 주 소왕은 기원 전 977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재위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석가모니의 생애(c. 563/480 - c. 483/400 BCE)보다 수백 년이 빠르다. 그러나 중국 불교계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周初 정도로 잡아 불교에 좀 더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紅史』 등 원대 티베트의 저작과 漢地의 주요 저작이 같은 견해를 보이는 것에서, 당시의 주류 관점을 알 수 있다. 몽골 제국 당시 저작인 『紅史』는 사까파의 계산법이라고 하면서 帝師 편가 로 되 꺾첸뵘 상뵘가 티베트에서 受戒한 물-陽-개해(1322)가 부처님이 나신지 3455년이 되는 해라고 적었다. 이것으로 계산하면 석가모니의 탄생은 기원전 2133년이 된다. 즉 몽골 제국 당시 티베트와 漢地 불교계의 佛誕年 계산 방식은 같지 않았다.

¹¹³ 위진남북조 불교사 연구자인 탕응동에 의하면 석가모니 탄생의 내용이 漢籍 중 지금은 逸失된 『周書異記』에 내용이 상세한데, 다음과 같다고 한다. “周나라 昭王이 즉위 24년 4월 8일에 강과 하천, 샘과 연못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모든 우물물이 넘쳐 흘렀고, 궁전과 민가만이 아니라 산천과 대지가 다 진동하였다. 그날 밤 오색의 빛이 태미성(太微星)을 꿰뚫고 서쪽 전체를 청홍색으로 물들였다. 주나라 소왕이 태사(太史)인 소유(蘇由)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소유가 답했다. '위대한 성인이 서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서로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년 후에 이 성인의 명성과 교화가 이 땅에도 미칠 것입니다.' 소왕은 즉시 이 일을 돌에 새겨 기록한 뒤에 남쪽 교외에 있는 天祠앞에 묻게 하였다 (周昭王即位二十四年甲寅歲 四月八日, 江河泉池, 忽然泛漲, 井水并皆溢, 宮殿人舍, 山川大地, 咸悉震動. 其夜五色光氣入貫太微, 遍于西方, 盡作青紅色. 周昭王問太史蘇由曰: 是何祥也? 蘇由對曰: 有大聖人生于西方, 故觀此瑞……一千年外, 聲教被及此土. 昭王即遣鐫石記之, 埋在南郊天祠前)”, 탕응동 저, 장순용 옮김, 『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1』, 學古房, 2014, pp. 82-83; 朱麗霞, 「古代藏族漢地佛教史觀若干問題探析」, 『北方民族 大學學報』, 2010, vol. 3, pp. 18-19). 이 기사는 『佛祖歷代通載』에도 유사하게 실려 있는데, 역시 주 소왕의 물음에 대해 신하 傅毅가 답하면서 『周書異記』에 실린 내용이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釋念常, p. 50). 이 기사들은 티베트 사료와 거의 같은 내용이며 『周書異記』와 『漢法本內傳』은 僞書지만 元代人들

왕자 된듬은 29세 되던 해에 출가했고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7년이 지나 모친에게 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늘lha yul로 가서 삼 개월간 머물렀다. 그가 없을 때 우따야나u Ta ya na¹¹⁴ 왕이 目犍連子mo'u 'gal gyi bu¹¹⁵에게 명하여 하늘에 있는 붓다의 像을 흰 전단 나무¹¹⁶로 <141> 만들어 인간 세상으로 모셔오게¹¹⁷ 하였다. 세존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63- 인도에 오니 이 전단나무 상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상에] 머리 숙여 절하신 후 정수리에 손을 대고 나서 스승(즉 석가모니)께서 “[내가] 열반한 뒤 천 년이 되었을 때 이 像이 漢地에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다. 그리고나서 38년이 지난 80세 되시던 해에 열반하셨다. 그 후 세첸 황제가 정권을 잡은 지 2년 반이 지난 물-陰-돼지해까지 계산하면 3413년이 지났다.¹¹⁸ 전단 조오를 만들고 나서는 3455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漢地의 『旃檀 조오의 역사(tsan dan jo bo'i lo rgyus)』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¹¹⁹

은 이 내용을 존중했던 것으로 보이며(탕용동, vol. 1, p. 84) 티베트인들도 또한 그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朱麗霞, 2010, p. 20). 또한 『廣弘明集』의 「元魏孝明召佛道門人論前後」절은 도교의 도사와 불교의 법사 간의 문답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부처님이 태어난 때가 주 昭王 때라고 어떤 글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묻자 법사가 ‘『周書異記』에 나와 있고 『漢法本內傳』에는 그 기록이 더욱 분명하다’고 답했다(『廣弘明集』, vol. 1, p. 17)”.

¹¹⁴ GBT와 GBC: u tra ya na. 한문 불서에 優填(道宣 지음, 이한정 역, 『한글대장경 廣弘明集』 1, p. 382) 혹은 優闍(釋念常 撰, 『佛祖歷代通載』, p. 29)이라고 적혀 있다.

¹¹⁵ GBT와 GBC: mo'u ghal gyi bu.

¹¹⁶ tsan dan go shir Sha. GBT와 GBC: tsan+dan gor shi Sha

¹¹⁷ 모셔오는gdan drangs 대상은 붓다일 수도 있고 붓다의 상일 수도 있다.

¹¹⁸ 같은 내용이 『紅史』에는 “佛滅부터 세첸 황제 즉위 2년 반인 물-陰-돼지해까지 2013년이 지났다”고 적혀 있다.

¹¹⁹ 이 문장은 GBT와 GBC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한문 원본 “漢地의 『旃檀 조오의 역사(Tsan dan jo bo'i lo rgyus)』”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앞에서 본대로 그 내용이 元代 관리이며 文人인 程鉅夫(1249-1318)가 지은 『敕建旃檀瑞像殿記』와 매우 유

물-陰-돼지해부터 쉐派의 교법이 일어났고 불-陽-개 해까지 <142> 144년이 지났다. 그 후 오늘날 나무-陽-호랑이해 제 8宮이¹²⁰ 위dbus 지방에 있는 공까르와 gong dkar ba에 나타난 때부터 위짱에 좋고 나쁜 큰 일들이 일어난 이 해까지¹²¹ 89년이 지났다. 종합하면 스승(붓다)께서 흙-陽-용 해에 태어나신 후¹²² 지금 나무-陽-호랑이해¹²³까지 3585년이 지났다.

漢地에서 周ce'u에 36왕이 일어났고 100년간¹²⁴ 집권했다.¹²⁵

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글은 『佛祖歷代通載』 권22 (pp. 462-463)에 실려 있고 같은 글이 그의 문집인 『雪樓集』에는 『旃檀佛像記』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티베트에 전단 상 관련 내용이 전파된 것은 <티베트 대장경> 내에 수록된 『旃檀像』이 漢地에 들어온 유래Tsan dan gyi sku rgya nag na bzhugs pa'i byung tshul』라는 글로 알 수 있다. 그 글 말미에 “본문이 원래 한문 저작이었는데 암장(Am chang, 安藏)이라는 현자가 위구르어로 번역했고 이후 다나시(Da na si, 彈壓孫)라는 현자가 다시 티베트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쿠다라 코오기(百濟康義)의 연구 참조(百濟康義, 「<旃檀瑞像中國渡來記>のウイグル訳とチベット訳」, 森安孝夫 編 『中央アジア出土文物論叢』, 京都: 朋友書店, 2004, pp. 71-84) 참조. 優填王이 도리천으로 간 석가모니를 그리워하며 전단으로 그 像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은 『僧一阿含經』, 法顯(circa 340-420)의 『佛國記』와 玄奘(circa 600-664)의 『大唐西域記』에도 수록되어 있다.

¹²⁰ srog rme brgyad dkar.

¹²¹ 이 구절은 GBT와 GBC에는 보이지 않는다.

¹²² 위에서는 붓다가 나무-陽-호랑이 해에 태어났다고 적었다.

¹²³ 15세기의 나무-호랑이 해는 1422년과 1482년이며 『한장사집』의 저작 연도가 1434년으로 여겨지므로 142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¹²⁴ 8이 추가되어 800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¹²⁵ GBT와 GBC에는 ‘네번째 주왕인 차양cha yang왕(함양왕)이라고 하는 이에게 비사문천왕(rnam sras)이 준 아들이 있었는데 地乳王sa la nu이라고 했으며 그가 호탄bal yul을 통치한 최초의 왕이다.’ 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다.

秦

그 후 秦始皇chin hri hwang 황제 둘이 일어났다.¹²⁶

漢

그리고 나서 漢 高祖han ka'o dzung¹²⁷라고 하는 자가 집권했고 14 왕통이 일어났으며¹²⁸ 그 후 한 대신이 반란을 일으켜¹²⁹ 18년간 정권을 잡았다. 후에 漢han의 후손 光武 gong bu가¹³⁰ 大臣 <143> 王莽ang mang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아들이 다섯 있었는데 그 중 막내 아들 漢明帝han min ti라고 하는 군주가 났고,¹³¹ 그의 재위기에 뽀디따 쓰法蘭dzu ha lam이라고 하는 자 등 진실(=四諦)을 보는 자 2인이¹³² 인도에서 白馬 한 마리에 小乘(the g pa chung ngu)의 -64- 경전을 실어 와서 漢地 河南ho nan에¹³³ 白馬寺pa'i ma si¹³⁴ 寺廟를 세우고 경전을

¹²⁶ “de nas chin hri hwang gi rgyal po gnyis byung.”

¹²⁷ GBT와 GBC: han ka'o jung. 몽골 장에서도 태조 칭기스 칸을 tha'i dzung으로 적어 중국어 '祖'를 티벳어로 음사하면서 받침 'ㅇ'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¹²⁸ GBT와 GBC: 12 왕통

¹²⁹ 王莽이 반란을 일으키고 新(CE 9-23)을 세운 것.

¹³⁰ GBT와 GBC: gong bun

¹³¹ 한 명제 劉莊은 광무제의 넷째 아들이었다.

¹³² 이 문장은 '축법란이라고 하는 자 등 진실을 보는 자 둘이 있었다' 혹은 '축법란이라는 자와 또 다른 자 이렇게 진실을 보는 두 사람이 있었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다른 한 승려의 이름은 迦葉摩騰 혹은 摄摩騰(?-73)이다.

¹³³ GBT와 GBC: 河南府에ho nam hur

¹³⁴ 白馬寺는 하남 낙양 동쪽에 있으며 중국의 가장 이른 사원중 하나라고 말해진다. 한 명제 영평 8년(CE 65) 사신을 서역으로 가게 하여 월지에서 천축 출신의 가섭마등과 축법란을

번역하였다. 그때부터 漢地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전파된 것이다. 그 두 뽀디따는 阿羅漢¹³⁵ 지위를 얻었고, 한 사람은 신통력으로 허공을 날아 바다 가운데 있는 땅 “하얀 高麗(ka’u li dkar po)”¹³⁶라고 하는 왕국으로 가서 그 곳에서 열반했다.¹³⁷

만나 그들을 낙양으로 모셔왔으며 雍門 밖 3리에 이 사원을 지었다. 백마에 말을 싣고 와서 백마사로 했다는 내용은 『洛陽伽藍記』 권4(城西 사원)에도 실려 있다. (楊街之 撰, 林東錫 譯註, 『낙양가람기』, 서울: 동서문화사, 2013, p. 381). 『魏書』 釋老志는 백마사에 대해 한 명제가 세웠고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된 최초라고 기록했다. “白馬寺, 漢明帝所立也. 佛教入中國之始.”라고 하였다 (고승전에도 있음-낙양백마사섭마등-한국어 번역본은 축약본이라 없음. 원문 확인하여 기재) 관련 내용은 탕융동, 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 1, pp. 115-143 참고. 명제 시기의 불교 전래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나 그의 사촌인 초왕 영은 일찍이 黃老學과 부처를 동시에 숭봉한 것은 분명하다(탕융동 1, pp. 185-186)

¹³⁵ “dgra bcom pa” 즉 아라한은 산스크리트어 Arhat의 음역으로 이른바 소승 불교 수행에서의 최고 fruit에 해당한다.

¹³⁶ 몽골이 지배했다고 하는 “五色四夷” 혹은 “五色四藩”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일반적으로 “푸른 몽골, 하얀 고려, 붉은 중국, 검은 티벳, 황색 투르키스탄”을 가리킨다. 하얀 고려를 언급한 가장 이른 기록은, 위 본문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14세기의 저작 『紅史』이다(蔡巴 • 貢噶多吉 著, 陳慶英, 周潤年 譯, 『紅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p. 11). 이들 기록에 따르면, 漢地에 처음 불교를 전한 인도 승려가 다음으로 고구려에 갔다고 하는 것은 漢地와 고려에 불교가 거의 동시에 전래된 것을 의미하는데, 몽골 제국 시기 카안 울루스의 조정 내에서 고려 불교의 위상이 높았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한반도에 불교가 매우 이른 시기에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5세기 『한장사집』 이후의 티베트 저작에는 이들 漢地에 도착한 최초의 인도 승려 중 하나가 고려로 갔다는 기록은 사라진다. 清代에 쓰인 티베트 저작 『토관종파원류』 역시 영평 구법 설화를 적고 있지만 고려 언급은 빠졌다. 『漢地 불교사(rgya nag chos 'byung)』도 역시 유사한 내용을 싣고 있으나 백고려 언급은 없다. ‘하얀 고려’ 개념은 티베트 저작에서는 사라지지만 몽골 제국 이후 몽골어 사료에 빈번히 등장한다. 최초의 등장 시기로 보면, 13세기 저작이라고 제시되는 『차간 테우케(Čaγan Teūke)』도 위대한 불교 국가 여덟 개를 나열하고 그 중 하나로 “흰 산의 솔롱가스čaγan ayula-yin solung-γas”를 적고 있지만 그 성서 연대가 사실은 훨씬 후기인 것을 고려하면, 남아 있는 기록 중에는 『紅史』를 비롯한 티베트 저작들이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을 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저작 속에서의 한국에 대한 기록에 대한 연구는 Jamiyan Battur, “Korean Themes in Mongolian Historical Sources of the 16th-18th Centuries,” 제5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문, 2010.

다른 한 사람은 그 寺廟의 아래에서 滅禪定에 들어갔고 미륵이 出世했을 때 친견하고 나서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¹³⁸ <144>

魏晉 南北朝

漢Han의 24대 황제 漢 獻帝han Hen ti의¹³⁹ 대신 曹操tsha'o tsha'o¹⁴⁰라는 자가

https://congress.aks.ac.kr:52525/korean/files/2_1393906887.pdf; 김장구, 「17세기 '몽문 연대기'에 보이는 한국 관련 기록의 비판적 검토」, 『동국사학』, vol. 62, 2017, pp. 323-361 참고.

¹³⁷ 가섭마등과 축법란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 신통술을 부렸다고 알려진 것은 가섭마등으로 보인다. 『廣弘明集』은 가섭마등이 “몸을 솟구쳐 높이 날아올라 공중에서 자유로이 서고 누웠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고 적고 있다(vol. 1, p. 11). 그러나 가섭마등은 낙양에서 입적했다고 분명히 적혀 있고(『出三藏記』 외, p. 501) 축법란의 입적 기록은 없다. 또한 한문 사적 어디에도 백고려에 대한 언급은 없다.

¹³⁸ 구체적으로는 漢 明帝가 꿈을 꾸고나서 가섭마등과 축법란을 초청했다는 감몽구법 설화가 잘 알려져 있고 중국 불교의 始原으로 여겨지는데 『한장사집』의 이 기사에는 그의 꿈 이야기는 없다. 『佛祖歷代通載』는 명제가 대신들에게 꿈에 본 神人 이야기를 했고 그 대신 傅毅가 『周書異記』를 전거로 들어 소왕 24년 4월 초파일에 부처가 태어난 이야기를 전했으며 이에 명제는 사신을 대월지국에 파견해 가섭마등과 축법란을 초청했고 그들은 우전왕의 백단상과 『四十二章經』을 가지고 漢으로 왔다고 적었다. 그들이 백마에 경전을 싣고 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지은 절 이름을 白馬寺라 하였다고 한다(pp. 50-51). 최초의 한문 번역 경전이라는 『四十二章經』에 대하여는 실체가 없는 허위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20세기 중반 한~남북조까지의 탕유동은 후한 때 이 경전의 이름이 이미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축법란과 가섭마등의 『四十二章經』이 존재하였으나 失傳하고 지겸의 번역본이 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1, pp. 145-173). 『四十二章經』은 고려 대장경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어 번역본도 있다(오광익 역, 『42편의 지혜법문-佛說四十二章經』, 서울: 明文堂, 2012).

¹³⁹ GBT와 GBC: hwan hen ti.

¹⁴⁰ GBT와 GBC는 단지 tsha'u라고 했다.

정권을 탈취하여 5대에 걸쳐 집권했고 또한 그의 대신 司馬si ma¹⁴¹라고 하는 자가 정권을 빼앗았는데 그 뒤 西晉hu'u tsing의 후에 중에 東晉tung cin과¹⁴² 前秦zhi cin¹⁴³ 둘이 일어났다. 전진zhi cin 황제 재위기¹⁴⁴에 인도의 한 연로한 學匠이 “인도와 장일jiang yul¹⁴⁵ 사이의 한 작은 나라에 예전 붓다 석가모니 33세 때 지은¹⁴⁶ 像, 붓다 12세¹⁴⁷ 때의 조오 석가모니 상과 붓다의 사리, 그리고 꾸마라ku ma ra¹⁴⁸라고 하는 현인 學匠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작기 때문에 중생에게 이익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제께서는 힘이 있으므로 군대를 보내 그들을 가져오고 데려오시면 <145>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¹⁴⁹ 그 황제의 대신 중에 성zhing의 승상phying sang인 대신과 추밀원chu mi

¹⁴¹ GBT와 GBC: su ma

¹⁴² GBT와 GBC: dung rtsing

¹⁴³ GBT와 GBC: gwa'i rtsing

¹⁴⁴ 前秦의 符堅(338-385)

¹⁴⁵ 장jiang(혹은 'jang)은 일반적으로 운남 지역의 南詔를 가리킨다. 그러나 쿠차의 위치를 고려해 보면 羌 정도로 볼 수도 있다. 'yul'은 지방 혹은 국가를 뜻한다.

¹⁴⁶ GBT는 “짬축 성에 이르렀을 때 지은grong khyer rtsam mchog tu byon dus bzhengs pa”이라고 했다.

¹⁴⁷ GBT는 8세

¹⁴⁸ 『紅史』는 ku ma ra sri.

¹⁴⁹ 東晉(317-420)의 고승 석도안(釋道安, 312-385)이 前秦(351-394) 왕 부견(符堅337-385)에게 꾸마라지바(Kumārajīva, 344-413)를 초청해 올 것을 조언하는 내용이다. 『紅史』는 처음 초청해 오려 했던 승려의 이름 즉 꾸마라지바 부친의 이름을 꾸마라쉬리ku ma ra shri라고 하고 그 아들 이름은 『한장사집』과 같이 ‘꾸마라 충우’ 즉 작은 꾸마라라고 적었다. 꾸마라지바의 부친 이름은 꾸마라야나이다. 379년 符堅이 襄陽성을 공격하여 고승 석도안을 장안성으로 초빙해왔고 석도안이 꾸마라지바를 龜茲에서 초청해 올 것을 말했다고 한다. 탕 융동도 도안이 구마라집의 명성을 듣고 매양 부견에게 그를 영접하기를 권했다고 했으니 구마라집의 도래는 도안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명승전』이 이와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고 적었

dben¹⁵⁰의 장관mi dpon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장관에게 40만 대군을 주어 보내서 불상과 사리, 그리고 그 學匠은 사망하였으므로 그 대신 어린 꾸마라Ku mA ra chung ba를 모셔오게 했다.¹⁵¹ 오는 길에 어린 學匠은 賢者의 -65- 징조를 차례로 보였다.¹⁵²

다(『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2』, p. 491). 양 혜교의 『고승전』에 의하면 부견이 이미 석도안과 구마라집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여광을 쿠차로 파견하면서 스스로 구마라집을 언급하고 그를 데려올 것을 명했다고 한다(慧皎, 유월탄 편역 『고승전』, 자유문고, 2003, p. 45). 사실 부견의 쿠차 공격 목적은 오로지 구마라집을 찾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부견은 382년 여광 呂光에게 7만 군사를 주어 龜茲에 파견했다. 관련 내용은 탕용동 저, 장순용 옮김, 『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2』, 學古房, 2014, pp. 583-681 참조. 慧皎, 유월탄 편역 『고승전』, 자유문고, 2003, pp. 39-46 참고. 꾸마라지바는 중국 불교 4대 역경가 중 하나이며 『대품 반야경』, 『백론』, 『십이문론』, 『대지도론』, 『성실론』 등을 번역하여 중국 불교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

¹⁵⁰ GBT: chu mi dbon. 前秦 대에 추밀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唐代에 처음 세워졌다고 하나 당시에는 환관이 기밀 문서를 다루는 관청이었으며 송대에 들어서 군정을 총괄하는 기관이 되었다. 원대에 들어서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으며 이 내용은 원대의 상황을 소급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zhing도 마찬가지다. 파견 직전 여광의 직위는 使持節, 都督西討諸軍事였다.

¹⁵¹ 『紅史』는 쿠차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좀더 기록하고 있다. 쿠차 왕이 이 장군에게 “그대의 나라와 나는 仇怨이 없는데 어찌하여 대군이 왔는가.”라고 하자 장군이 “불상과 성물과 學匠 셋을 주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키겠소.”라고 했고 이에 왕이 “불상과 성물은 이곳에 있으니 보낼 수 있으나 學匠은 작년에 사망했고 아들 하나를 남겼는데 꾸마라지바라고 하며 18세이니 보낼 수 있을 것이요.”라고 하며 셋을 보냈다는 것이다(『紅史』, p. 11).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여광이 쿠차에 이르렀을 때 구마라집의 나이는 이미 41세였고 중원으로 와서 불법을 펴다가 70세에 사망했다(탕용동 2, pp. 594-602).

¹⁵² 승려 十明이撰한 『優填王所造旃檀釋迦佛像歷記』라는 저작에, 부견이 여광을 보내 쿠차를 정벌하게 하고 전단불상과 구마라집을 얻어 돌아오는데 前秦이 이미 무너진 것을 알고 여광이 양주에 자립하여 왕이 되어 후량을 세웠고 전단불상은 양주에 있게 되었다고 쓰여 있다. 티베트 사서들의 전단상 기록은 이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있다(百濟康義, 「<旃檀瑞像中國渡來記>のウイグル記とチベット記」, 森安孝夫: 『中央アジア出土文物論叢』, 京都: 朋友書店, 2004, pp. 71-84; 朱麗霞, 2010, p. 22).

『송쨌 감뵤 遺訓(Bka' chems bka' khol ma)』¹⁵³에서 말하기를 인도의 왕 다르마 팔라dhar+ma pha la 이후에 외도(外道)의 군대가 吉祥 날란다srI na len+dra를 무너뜨려 가르침이 파괴되었을 때 漢地의 왕 데와라자de ba rA dza에게 援軍을 요청하니, “내 군대는 보내지 못합니다.¹⁵⁴ 좋은 재보를 보내니 그것에 의지하여 外道를 진압하시오!”¹⁵⁵라고 하고서 그림이 있는 無縫의 수놓은 비단 옷과¹⁵⁶ <146> 뚝지 못하는 무기, 길상 매듭을 필두로 하여 좋은 선물들을 두 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것으로] 외도들을 이기고 佛法을 증장시켰고 그 답례로 붓다 8세 때의 불상과 『佛說大乘莊嚴寶王經(mdo za ma tog)』,¹⁵⁷ 『大乘密嚴經(stug po bkod pa'i mdo)』, 『佛說河流經(chu klung gi mdo)』, 『律藏('dul ba ko sha)』 -74a- <147> 과 4부 율을 갖춘 비구를 보내 달라고 하니 [인도 왕이] “그는 은혜가 크다.”라고 하며 보내주었고 이것들이 漢地에 도착하게 되었다.¹⁵⁸

장관이 군대와 함께 漢地에 도착하였는데 前秦zhi cin¹⁵⁹의 황제는 사망하고 후사

¹⁵³ “bka' chems ka ka bkol ma”로 적기도 한다. 송쨌 감뵤(r. 618-641)의 저작이라고도 하고 아티샤(Atiśa, 980-1054)가 지었다고도 한다.

¹⁵⁴ GBB는 “그 길에서 보낸다.” GBT와 GBC는 “내 군대는 보내지 못한다nged kyi dmag mi thon”이라고 쓰여 있다.

¹⁵⁵ GBT는 “가르침이 쇠퇴하지 않게 하시오”가 덧붙여져 있다.

¹⁵⁶ GBB: za 'og gi gos srubs med pa'i ri mo can GBT: za 'og gi ber chen/ srubs med pa/ ri mos spras shing sra ba.그림으로 장식된 두껍고 無縫이며 수가 놓아진 큰 의상.

¹⁵⁷ Kāraṇḍavyūha 수트라를 가리킨다고 한다. 티베트 본래 명칭은 ['phags pa] za ma tog bkod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¹⁵⁸ 이 단락은 저자가 앞에서 漢地에 전단상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한문 서적에서 인용하면서 티베트 저작에서 말하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 것이다. <알롱 조오 교법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으나 漢地 왕의 이름이 스쁘리스뎀 자야(spri stim dza ya)라고 적혀 있고 중역본은 spri stim을 한어 昭帝의 음역으로, 자야는 raja 즉 ‘왕’의 음역으로 보았다(p. 163).

¹⁵⁹ GBT: gwa rtsing

가 끊겨 이전의 그 승상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¹⁶⁰ 장군은¹⁶¹ 자신의 군대 40만¹⁶²을 모아 西凉si chon¹⁶³과 <148> 24개 州ci'u 城의 왕이 되었다.¹⁶⁴ 후에 승상 왕이 이 장관의 후손으로부터 불상과 聖物과 學匠을 京兆府kiM shang hu¹⁶⁵에 초대하고 크게 존경했다.¹⁶⁶ 그 學匠에게는 열 명의 처가 있었기 때문에 비구들이 존경하지 않으니 입에 針(khab)을 넣어 [邪見을] 정화했다.¹⁶⁷ 그 빠디따의 제자 중

¹⁶⁰ 姚萇(330-393)이 後秦을 세운 것. 요장은 부견 휘하에서 승상을 지낸 적은 없다.

¹⁶¹ 앞에서는 계속 수령, 장관mi dpon이라고 하다가 여기서는 장군dmag dpon이라고 적고 있다.

¹⁶² GBB는 여기서 4만khri tsho bzhi po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군대 규모를 40만이라고 했고 GBT에도 이 문장에서 40만khri tsho bzhi bcu po라고 하고 있어 그를 따랐다.

¹⁶³ 발음상 四川에 가깝고,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 『紅史』 일역본도 이를 사천으로 번역했으나 서량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武威의 또 다른 옛이름인 姑臧이라고 보기도 한다(湯池安 역, 『雅隆尊者教法史』, p. 116)

¹⁶⁴ 後凉을 세운 呂光(338-399)의 이야기다. 前秦의 장수로 군대를 이끌고 서역으로 갔다가, 후에 부견이 淝水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알고, 회군 중에 凉州를 공격하여 그 곳에 정권을 세워 大凉이라 하였다.

¹⁶⁵ GBT와 GBC: kem cang hu. 西安을 가리킨다. 라시드 옷딘의 집사에도 경조부는 킹잔푸(Kingjānpû)라고 기록되었다(김호동, 『칭기스칸 기』, p. 290). 後凉은 3대 군주 呂隆 시기에 後秦의 姚興(姚萇의 아들)에게 멸망했고(404) 요흥은 이 때 꾸마라지바를 자신의 수도 장안에 초대했다.

¹⁶⁶ 여기의 불상은 앞에 나온 전단상과는 다르며, 후에 唐 문성 공주가 티베트에 들어오는 조오 상의 유래를 적고 있는 것이다.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처음부터, 漢地에 들어온 불상이 두 개였으며 하나는 전단상, 하나는 후에 티베트에 들어오는 상이라고 적고 있다(Per K. Sørensen, p. 81).

¹⁶⁷ 한문 저작에 의하면 요흥이 꾸마라지바에게 “대사의 총명함과 뛰어난 깨달음은 천하에 둘도 없습니다. 만약 하루 아침에 세상을 떠나시거라도 한다면, 법의 후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하며 姪女 열 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고 한다(탕용동 2, p. 607). 한편 바늘에 대한 내용은 『紅史』에 좀더 자세하다. 꾸마라지바에게 부인이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승려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자, 誦經 대회에서 그는 승려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바늘

에 周和尚ce'u hwa shang이라고 하는 현인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學匠(paNDi ta)으로 불렸다. 그에 대해 황제의 大妃가 [왕이 그와] 친한 것 때문에¹⁶⁸ 참수형의 벌을 받았는데 머리가 잘렸을 때 그 피가 우유로 나왔다. 자신의 -66-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목에 붙이고는 사원에 돌아가 業의 因果에 대해 많은 제자들에게 설하였으며 머리가 가슴팍에 떨어져서 명이 다 했다.¹⁶⁹

隋

승상의¹⁷⁰ 후손이 끊겨서 隋 양제su'i dbyang di¹⁷¹라고 하는 <149> 황제 부자 양대가 나타났다.

唐

을 하나씩 주었다고 한다. 승려들은 바늘을 먹을 수 없었고, 이에 구마라지바는 “그대들같이 정결한 승려들은 바늘을 먹을 수 없지만 계율이 청정하지 않은 이 승려는 오히려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모든 바늘을 먹어 치웠다고 한다. 이에 승려들은 구마라지바에 대한 불신을 모두 거두었다는 것이다. 『紅史』, p. 12 한문 저작인 『高僧傳』 등의 구마라집 관련 저작에는 ‘바늘’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연구에 의하면 唐代에 편찬된 『晉書』 열전 65, <예술>에 그 내용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朱麗霞, 2010, p. 22).

¹⁶⁸ GBB: 'grogs pa la bstan nas. GBT GBC: khros pa la brten nas(원한 때문에). 의미가 모호하므로 “왕이 그와 친한 것에 대한 원한 때문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¹⁶⁹ 이 기사 역시 『紅史』에 좀더 상세히 실려 있다. 즉 주 화상이 법력이 대단해 왕이 크게 존숭하였고 이로 인해 그가 后妃에 대한 왕의 사랑을 빼앗아 가니 후비가 이에 대해 원한을 품고 화상에 대해 거짓으로 비난하여 화상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紅史』 pp. 12-13). 『알롱 존자 教法史』의 역자는 이 화상이 구마라집의 수제자 승조(僧肇, 384-414)라고 보았다(사까 린첸 데 저, 湯池安 역, 『雅隆尊者教法史』, p. 15).

¹⁷⁰ GBB는 ‘승상 가의ching sang gwa'i’ 라고 되어 있으나 GBT와 같이 ‘승상의ching sang gi’로 보아야 할 것이다.

¹⁷¹ GBT GBC: su'i g.yang di

그 휘하에 唐 高祖thang ka'u cung dzung¹⁷²이라고 하는 太原府tha'i yang tha'i hu¹⁷³ 留守事gle'u shu si의 留守le'u shu 한 명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였으니 그가 唐thang의 초대 황제이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둘째 唐 태종thang tha'i dzung 황제 재위시에 당 삼장(唐 三藏thang zam tshang)¹⁷⁴이라고 하는 譯經師가¹⁷⁵ 있었으니 바수반두(dbying gnyen, Sans. Vasubhandhu, 世親, 316-396) 대사의 제자였고¹⁷⁶ 인도로부터 많은 경전을 번역했다. 그때까지 漢地에는 역경사가 2백명이었다.¹⁷⁷

그때 宣 律師zon klu shrI¹⁷⁸라고 하는 大持律師가 있었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서 구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 천신의 아들이 공중에서 그를 받아서,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가 천신 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답하기를, “나는 毘沙門天王¹⁷⁹의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형제는 열 두 명¹⁸⁰인데 12 경전을 <150> 수호하기로 맹세했고 나는 律藏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宣 律師, 唐 三藏

¹⁷² GBT도 같다.

¹⁷³ tha'i yang tha'i hu 발음으로 보면 태항 태후라고 읽을 수도 있다. 당 고조 이연은 수 문제의 비 독고 황후의 조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연이 태원부의 유수였기 때문에 태원부로 읽었다.

¹⁷⁴ GBT: thang zim tshang. 삼장법사 현장(玄奘, 602-664).

¹⁷⁵ lo tsA ba

¹⁷⁶ 현장은 그의 제자가 아니었다.

¹⁷⁷ 이 내용도 맞지 않다.

¹⁷⁸ 唐 南山 律宗 개창자인 승려 道宣(596-667)으로 보인다. 도선 律師라 불린다. 같은 내용이 『紅史』에도 실려 있는데 그 중역본은 zon klu shri를 宋 律師라고 보았다(陳慶英, 周潤年 역, p. 13). 관련 내용은 王璞, 『『紅史』考述二則』, 『正觀』, vol. 44, 2008, pp. 196-197 참고. 도선은 『속고승전』 『광흥명집』 등 다수의 불교 관계 서적을 펴냈다.

¹⁷⁹ rgyal po rnam thos sras. GBT: rgyal po rnam sras. 多聞天王.

¹⁸⁰ GBB는 ‘열’이 빠져 있는데 GBT에 따라 열 두 명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thang zam tsang, 어린 구마라ku mA ra chung ba 등의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라고 물었고 [선율사는] 대답을 하였다.¹⁸¹

당 태종thang tha'i dzung의 딸 수련 공주(su'i lan kong jo 水蓮 공주)¹⁸²는 티베트어로 호수 안의 연꽃이라는 뜻인데, 티베트에 왔을 때 조오 석가모니상을 가지고 왔다.¹⁸³ 그때부터 지금 불-陽-개해 (1346년)까지 700년이 흘렀다고 한다.¹⁸⁴ 이것은 잠발라 斷事官dzaM bha la sogs shri mgon¹⁸⁵이 오래된 한문 사적에서 본 것인데, 라사 조강 사원에 문서(yi ge)로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쓴 것이다.¹⁸⁶

¹⁸¹ 『紅史』에는 이 기사가 좀 더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이 꿈에서 선 율사가 “密宗의 경전은 진실입니까?”하고 묻자 그가 진실이라고 답했고 이에 율사가 다시 “빨디파 구마라지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니 그는 見道 보살이라고 답했다고 한다(陳慶英, 周潤年 譯, 『紅史』, pp. 13-14). 선율사에 대한 이 단락은 그 기재 목적이 구마라지바에 대한 찬양인 듯한데, 『한장사집』의 단락은 내용 결락이 많다. 이 문단의 내용으로, 티베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漢地의 승려는, 특히 계율과 관련하여, 구마라집, 현장, 道宣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¹⁸² GBT: sru'i glen kong jo. 文成 공주 (625-680)를 말한다.

¹⁸³ 이것이 바로 위에서 몇 번 언급되었던 불상이며 현재까지 라사의 조강 사원에 보존되어 있고 티베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불상으로 순례의 대상이 되고 있다.

¹⁸⁴ 문성공주가 티베트에 도착한 것은 중국측 사료에 641년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계산하면 이 글이 쓰인 것은 1341년이 된다.

¹⁸⁵ GBT: 'dzam bha la sto shri mgon. 잠발라라는 이름의 이 관리는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인에게 간략한 중국사를 전해준 인물로 『紅史』에서부터 등장하나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티베트 사료에 sto shri mgon, sti shri mgon, stwo shri mgon, sogs shri mgon 등 다양한 철자로 기록되어 있다. 중역본 등은 번역하지 않거나 帝師로 번역하였으나 van der Kuijp은 이를 斷事官의 음역이라고 보았다. 그에 대한 연구는 Leonard van der Kuijp, “Jambhala: An Imperial Envoy to Tibet during the Late Yu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3(4), 529-538 참고.

¹⁸⁶ GBT: “발견한 한문 사적에서 잠발라 단사관이 본 것을 라사의 조강 사원에서 쓴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쓴 주체가 누구인지가 이 문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周-唐-元에 이르는 역사와 문성 공주의 조오 석가모니 불상 반입, 그리고 잠발라까지의 기록은 첼빠 편가 도르제의 『紅史』에서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라사의 사원에서 문서로 있는 것을 보고나

『唐書 吐蕃thang shu thu hAn』¹⁸⁷ 이라고 불리는 한문 사적rgya'i deb ther에서 말하기를, 당 고조thang ka'u dzung 황제는 흙-陽-호랑이 해(618) -67-에 즉위하였고, 9년간 재위하고 70세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 아들 당 태종thang tha'i dzung은 나무-陽-말 해(634)에 티베트 황제와 친교를 맺고 때로 선물을 보내니 이것이 중국rgya-티벳bod 관계의 시초였다. -76a-<151> 티베트 왕 송贊감뽀srong btsan sgam po¹⁸⁸는 금으로 된 갑옷을 보내고 당 공주와 혼인을 청했으나 당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티베트는 군 2십만을 이끌고 토욕혼thu yus hun¹⁸⁹을 공격하여 장악하고 나서 돌아왔다. 그 후 시간이 많이 지나고 티베트의 재상blon po 가르 동贊mgar stong btsan¹⁹⁰에게 황금 5천냥과 각

서 쓴 사람이 누구인지 주어가 애매한데 『알룬 조오 教法史』는 같은 내용을 적으면서 “漢地와 티베트의 방식에 대해 말하는 자들 중 가장 뛰어난司徒 계외 로되si tu dge ba'i blo gros가”라고 기록하여,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다(ShAkya Rin chen sde, Yar lung jo bo'i chos 'byung, Lhasa: Bod ljong mi dmangs dpe skrun khang, 1988, p. 28). 계외 로되는 『紅史』의 저자인 첼빠 편가 도르제의 별칭이다. 즉 잠발라가 본 책을 편가 도르제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문성 공주가 티베트에 도착한 것은 641년이므로 700년이 지난 때는 1341년이어야 한다. ‘불-陽-개해’ 즉 1346년을 가리키는 연도는 『紅史』에 없고 빨조르 상뽀가 삽입한 구절이다. 『紅史』의 대부분이 1346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맥상 아마도 잠발라 라는 인물이 첼빠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가 1341년에 기록된 텍스트를 첼빠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다. 잠발라는 티베트에 중국 역사를 전한 중요한 인물로, 페르시아에 몽골 역사를 전한 볼라드 승상(Bôlâd Chîngsâng)과 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¹⁸⁷ GBT: thang shu thu hwan.

¹⁸⁸ 티 송贊. 그의 이름은 『通典』에는 弃蘇農贊, 『新唐書』에 弃宗 弄贊 등으로 표기되었다.

¹⁸⁹ GBT: thu lu hun.

¹⁹⁰ 당 사서의 祿東贊. 가르 동贊 월승mgar stong rtsan yul zung은 송贊 감뽀와 그 후계자 망된 망贊mang slon mang btsan(r. 649-676) 양 대에 걸쳐 재상이었고 행정과 법률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663년 토번의 토욕혼('a sha) 정벌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그 후 토욕혼은 티베트의 일부가 되어 小國rgyal phran이 되었다. 가르 동贊

종 보물을 주어 딸bu mo을 시집 보내줄 것을 청했다. 태종의 따님sras mo 문성 공주wun shing kong jo를 쇠-陰-달 해(신유)에 주었다.¹⁹¹ 호송하는 사람들과 영접하는 사람들이 栢海pA'i hwa에서 만났다. 티베트에 이른 후에 공주는 황제에게 티베트는 이전에 문서가 없었으므로 문서를 만들어 주기를 청하니 그렇게 하였다.¹⁹² 또한 당 황제가 대신 가르mgar를 좋아하여 질손녀 공주tsha mo kong jo한 명과

사후 그 아들들이 재상이 되었고 후에는 티베트 황제의 경쟁자가 될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 재상 가문의 세력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군주의 나이가 어리고 親政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때의 재상들의 통치가, 후대에 어린 달라이 라마들을 대신한 데시sde srid들의 섭정의 전조라고 보기도 한다. 가르 가문이 지배하던 시기에, 670년경에, 토번 제국은 카쉬 가르까지 장악하고 호탄과 쿠차 등 도시국가들을 점령했으며 서돌궐의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다. 후에 토번은 이 지역을 빼앗겼다가 되찾기를 반복했다(Brandon Dotson & Guntram Hazod, 2010, p.18). 한문 사료에 薛祿 東贊 혹은 祿 東贊으로 기록되어 있다. 640년경 장안에 도착했다가 다음 해 봄 문성 공주를 모시고 티베트로 돌아갔다. 티베트 제국 대표적인 재상 중 한 명이다. 한문 사료는 당 황제가 그를 우위대장군에 임명하고, 낭야공주의 외손을 그의 처로 삼게 하였으나 가르 동궐이 말하기를 “신은 이미 혼인을 했으니 감히 조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껌뽀가 아직 공주를 만나지 못했으니 신은 감히 사절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황제가 그의 말을 놀랍게 여기고 은혜를 더해주어 회유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동북아역사재단, 『中國 正史 外國傳 譯註: 新唐書』 「吐蕃傳」, p. 262). 이하 『新唐書』, 「吐蕃」으로 약칭. 그의 아들 가르 티링(Mgar khri 'bring, 欽陵) 또한 유명한 재상이었다.

¹⁹¹ byin. GBT는 ‘phyin 갔다’로 적었다.

¹⁹² 『舊唐書』 「吐蕃傳」에 의하면 처음 구혼하였을 때 당 태종은 허락하지 않았고 당에서 돌아온 사신이 “吐谷渾이 당에 입조하여 이간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니 송贊 감뽀가 羊同(상승Zhang zhung, 象雄)과 연합하여 토욕혼을 쳤다고 한다. 그리고나서 당에 말하기를 “만약 나에게 공주를 시집보내지 않는다면 곧 침략할 것이다”라고 하고 松州 등을 공격했다가 물러나며 다시 청혼하자 태종이 이를 허락했다. 또한 티베트로 온 문성 공주가 티베트인들이 얼굴에 붉은 칠을 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송贊 감뽀는 이 풍습을 그만 두게 하였으며 그 또한 스스로 가죽옷을 벗고 비단옷을 입었다고 한다. 또한 僞豪의 자제들을 당에 보내 國學에서 詩, 書를 배우게 할 것을 청했으며 중국의 글을 아는 사람을 청하여 表疏를 담당하게 했다 (『舊唐書』 「吐蕃傳」, pp. 342-346; 『新唐書』 「吐蕃傳」, pp. 254-256))

右衛大將軍g.yi'u g.yu tha'i jung kun¹⁹³의 칭호를 주었으니 그가 漢地의 관직을 받은 최초의 티베트인이었다. -76b- <151> 당 태종은 군대를 파견하여 인도 마가다ma ha ta¹⁹⁴를 무너뜨렸고 이 소식을 들은 (59) 티베트 황제 역시 마가다를 멸망시켰다고 한다. 당 태종은 불-陽-개 해(병술, 626년)¹⁹⁵부터 23년을 재위하였고, 52세가 되던 흙-陰-닭 해(649년) 4월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의 아홉째 아들 고종cha'i ko'i dzung¹⁹⁶이 즉위했는데 선후 두 차례에 걸쳐 티베트 왕 송贊 감빠에게 관직을 주었다. 첫째는 駙馬都尉 西海郡王hu ma dud wi si'i ha'i thun dbang¹⁹⁷이었고 그 다음에는 종왕貢王tshung dbang에 봉했으며 티베트 이전에는 없었던 누에(dar gyi 'bu) 종류를 보내고,¹⁹⁸ 쌀로 빚은 술('bras chang)과 水晶 匠人 등 여러工匠을 티베트에 보냈다.

그 후 -68- 티베트 황제 망송mang srong(650-676; r. 663-676)¹⁹⁹ 재위시에 당-티베트 양측은 때로 우호적이었고 때로는 여러 차례 전쟁과 갈등이 있었다. 당 대신blon 薛仁貴(dpya zhin gus, 614-683)²⁰⁰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라싸까지 이

¹⁹³ GBT: g.yi'u g.yu tha'i jung gun.

¹⁹⁴ GBT: ba ma ga ta.

¹⁹⁵ byi라고 되어 있으나 12지에 없는 단어이므로 GBT와 같이 khyi 즉 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¹⁹⁶ 차이cha'i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다. 뒤에서는 치 고종chi ko'i dzung이라고 적고 있다. GBT도 역시 고종 앞에 치를 두었다. chi ko'i dzung

¹⁹⁷ GBT: hu ma dud wi si'i ha'i thun dbang.

¹⁹⁸ 한문 사료에 의하면 문성 공주가 시집온 후 송贊 감빠도 가족 옷보다 비단 옷을 즐겨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¹⁹⁹ 망송 망贊mang srong mang btsan. 송贊 감빠의 아들.

²⁰⁰ GBT: dpya bzhin dgu'i. 薛仁貴: 降州 龍門(현 산서성 河津) 출신. 북위 명장 설안도의 후예. 태종의 고구려 원정에 발탁되어 연개소문 휘하의 장군 고연수 군을 격파하여 공을 세웠다. 이후 658년 고구려 원정, 662년 위구르 원정, 666년 고구려 원정 등에도 참가하여 이름을 날렸으나 670년 티베트 전에서 패하여 제명되었다.

르렸고 -77a- <153> 티베트는 대신 가르의 長子²⁰¹를 장군으로 삼아 당군 전체를 패퇴시켰다. 高祖chi Ko'u dzung(r. 618-635)는 흙-陰-닭해(649)에 국정을 장악하여 34년 되던 해 나이 56세이던 물-陰-양 해에 사망했다.

전에 太宗의 후비 중에 太宗 사망 후에 비구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후에 환속하여 高宗의 비가 되어 아들 中宗dzu dzung, 睿宗wi dzung과 딸 太平tha'i phing²⁰² 셋을 낳았다. 황제는 장자를 즉위시키라고 유언을 남겼으나 이 비는 듣지 않고 자신이 女帝rgyal mo가 되었고 가문이 武wu였기 때문²⁰³ 武則天wu dzi than(690-704)²⁰⁴이라 칭하였다. 이 황제는 티베트에 군대를 보내 여러 지역을 탈취했다. 이 때 티베트 왕 뒤송 망뽀제'dus srong mang po rje(r. 677-704)²⁰⁵는 나이가 어려 大臣 가르의 아들, 형제, 조카 등이 -77b- <154> 권력을 잡고 있었다. 후에 황제가 벌을 내린 소식을 듣고 가르의 장자는 자결하여 죽고 그 동생이 형의 아들인 조카 망뽀제mang po rje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漢人 女帝에게 귀순하였으며²⁰⁶ 당은 쯔뽀를 歸德郡王kun de khun dbang²⁰⁷에 봉하고 대신에 임명하였으며 조카 망뽀제를 좌측의 용사(g.yon phyogs dpa' bo) [즉] 左羽林大將軍dza'u ling ti tsang kun),²⁰⁸ 安國公ngan gu'i gung²⁰⁹에 봉하고 이 두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²⁰¹ 한문 사료에 欽陵 혹은 論 欽陵(윈 톤딩) 이라 적는 가르 톤딩(일반적으로 가르 친링)이며 가르 톡젠의 둘째 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쯔뽀 망송망젠 사후 6세의 티독 송젠이 즉위했는데 699년 장성한 티독 송젠이 가르 가문의 권세를 부담스럽게 여겨 반역죄를 씌워 대대적인 숙청을 벌이자 동생과 아들을 당에 항복시키고 자신은 쿠쿠 노르 근처에서 자결했다.

²⁰² GBT: tha'i dzung

²⁰³ GBT: 'u.

²⁰⁴ GBT: wu ji thon

²⁰⁵ 망송 망젠의 아들.

²⁰⁶ 『紅史』(p. 16)에 이 사건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²⁰⁷ GBT: kun de khyun dbang.

²⁰⁸ GBB: dza'i ling ti tsang kun; GBT: ja wi lim ti'i tsang gun

않은 鐵券 문서lcags kyi yi ge를 발급해 주었다.²¹⁰ 무측천wu dzi then 황제는 나 무-陽-원숭이 해(684년)부터 21년간 국정을 장악하여 80세가 되던 양목 룡해(갑진, 704년)에 사망했다.²¹¹

다른 일화에서는 말하기를, 이 여제에게서 당나귀 같은 코를 가진 아들이 태어나니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사람을 파견해 죽이게 했는데 이때 티베트 대신 하나가 그를 돼지로 [바꿔 놓고] 돌보았다.²¹² 후에 여제가 연로하였을 때 -78a- <155> 唐은 -69- 후사가 없었고 여제는 자신의 오빠 무삼사wu san라는 자를 즉위시키고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무삼사를 세우는 것에 동의하는가?”하고 높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누구든 ‘반대(mi ‘thad)’라는 단어를 말하는 사람은 죽여라²¹³”라고 명령’ja’ sa을 내렸다. 이때 무삼사가 “저를 임명하는 것에 반대...²¹⁴”라고 말하자 그 티베트인 대신이 그 말이 나오자 바로 검으로 쳐서 죽였다. [황제가] “무슨 일인가?”하고 묻자 그는 여제 자신의 명령대로 했다고 말했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다. 황제는 크게 슬퍼하였고 이 대신은 당나귀 코를 가진 왕자를 데리고 와서 그가 즉위하게 되니, ‘당나귀 코 황제’로 알려진 것이 이 때문이다. 당나귀 코를 가리기 위해 이 황제는 황금 가면을 썼고 ‘황제의 金面(rgyal po’i gser zhal)’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 母子 -78b-<156>의 능묘는 현재 乾州khan rje’u 북쪽에 있다고 한다. 티베트인은 이 여제를 ‘漢人 측 老婦人(rgya’i dzi rgan mo)’이라 부른다.

²⁰⁹ GBB: ngan gu’i gung; GBT: ngan gu’i gu.

²¹⁰ 친링의 사적과 쩌뽀를 귀덕군왕에 임명하고 망뽀제를 좌우림대장군, 안국공에 임명하고 모두에게 鐵券을 준 내용은 그대로 『新唐書』 「吐蕃傳」 pp. 279-280에 실려 있다.

²¹¹ 무측천은 624년에 태어나 705에 사망했으니 향년 60세다.

²¹² nyar ra byas. GBT의 nya ra byas를 따랐다.

²¹³ GBB의 bsod pa는 GBT와 같이 gsod pa로 바뀌어야 한다.

²¹⁴ “nga bskos pa mi ‘thad”

이 일화의 설법에 따르면²¹⁵ 나무-陰-뱀 해(705년)에 [무축천] 황제의 친자 中宗 dzu dzung이 즉위했다. 이때 티베트 황제는 공주를 시집 보내주기를 청했고 중종은 동생 예종 왕ji dzung dbang(睿宗王)²¹⁶의 딸 金城 公主kim shing kong jo를 보냈는데²¹⁷ 선물로 수만 냥의 황금, 다양한 匠人, 수많은 각종 악기를 딸려 보내고 미낙mi nyag 땅 전체를 주었다.²¹⁸ 中宗 황제는 6년간 재위했고 55세가 되던 쇠-陽-쥐 해²¹⁹에 사망했다.

쇠-陰-돼지 해(711)에 공주의 부친 睿宗wu dzung²²⁰이 즉위하여 12년²²¹ 집권했으며 55세가 되던 물-陽-쥐 해(712)에 사망했다.

물-陰-소 해(713)에 예종dzi dzung의 삼남 玄宗han dzung이 즉위했다. 이때까지 唐 제국을 장악한 것이 -79a- <157> 116년이였다. 현종은 40년간²²² 재위했는데 이 기간에 제국은 평화롭고 안정되었다. 그가 73세 되던 쇠-陰-닭 해(781)²²³에 -

²¹⁵ 무축천 일화를 다른 계통의 저작에서 소개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²¹⁶ GBT: wi dzung dbang

²¹⁷ 티데 쪽쟁Khri lde gtsug brtsan(704-755)과 혼인했다. 그는 9세가 되던 712년에 즉위하였는데 혼인은 710년이였다. 733년 청해성 湟源 縣 日月山(赤嶺)에 정계비를 세웠다.

²¹⁸ 미낙은 탕구트인들의 땅 河西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이 세운 나라- 西夏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하서 지방을 가리킬 텐데 당과 티베트 사이에 모종의 협약이 있었고 하서가 티베트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할 것이다. 한편 『舊唐書』 「吐蕃傳」은 중종이 공주의 나이가 어린데도 자애를 끊어 멀리 시집보내는 의도를 티베트 사신에게 분명히 밝힌 뒤, 황제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舊唐書』 「吐蕃傳」, p. 365)

²¹⁹ 사실은 710년. 개의 해.

²²⁰ GBT: wi dzu.

²²¹ GBT: 2년.

²²² GBT 43년.

²²³ 현종은 762년 물-陽-호랑이해에 사망했다.

70- 사망했다.

당 玄宗의 셋째 아들 당 肅宗dzu dzung²²⁴은 불-陽-원숭이 해(756)에 즉위하였는데, 이 해에 티베트군이 가서 만째sman rtse의 維州Wi ji'u²²⁵ 등 많은 지방을 취해 가졌고 후에 24개 州의 城(ci'u mkhar)이 티베트에 함락되었다. 숙종은 7년간 재위했고 51세가²²⁶ 되던 물-陽-호랑이 해(762)에 사망했다.

이 해에 그의 장자 代宗tha'i dzung 황제가 즉위했다. 물-陰-토끼 해(763)에 티베트군이 침입하니 대종 황제는 陝州shel chu²²⁷로 피신하였으며 황제의 대신인 高暉ka'u hi가 티베트에 투항하였다.²²⁸ 티베트 군대는 경조부<ki ma> [kim] byang hu에 진입하여 광무왕ga'u dbang을 황제로²²⁹ 임명했고 -79b- <158> 연호를 새로 하고 詔('ja' sa)를 전하게 했다.²³⁰ 후에 [한인들이] 광무왕을 죽이고 티베트 군대를 몰아냈으며 대종은 7년 집권하고 50세 되던 흙-陰-양해(779)에 사망했다.

그의 장자 德宗ding dzung은²³¹ 쇠-陽-원숭이해(780)에 즉위했다. 덕종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므로 여러 해 동안 漢地-티베트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 漢地-티베트 사이에 경계는²³² 미낙mi nyag 지방부터 賀蘭山ha la shAn으

²²⁴ GBT: dzung dzung.

²²⁵ 사천성 故威 북쪽.

²²⁶ GBT 52세.

²²⁷ GBT: shen shu

²²⁸ 이 때 티베트의 군주는 2대 법왕으로 불리는 티송 데첸(khri srong lde btsan, r. 755-797? 또는 804)

²²⁹ GBB는 황제 뒤에 '로(r)'가 없으나 GBT에 의거하여 추가했다.

²³⁰ 『新唐書』「吐蕃傳」은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티베트에 항복한 당의 장수 고희라고 하고 있다. 즉 그가 오랑캐를 인도하여 장안으로 들어와 광무왕 승광을 황제로 옹립하고 연호를 고쳤으며 멋대로 사면을 단행하고 관리를 임명했다는 것이다(『新唐書』「吐蕃傳」, p. 302).

²³¹ GBT: deng dzung.

²³² GBT GBC: sa tshigs. GBB: tshigs

로 하고, 티베트 영토의 경계는 서쪽으로 蘭州lan ju, 渭州wi ji'u, 原州wan je'u, 會州he'i ji'u, 동으로 臨洮shing kun(臨洮), 남으로 成州[shing] je'u²³³에서 劍南gyang nam까지. 북으로는 북쪽에²³⁴ 大渡河te'i tu²³⁵에서 서남쪽까지 그리고 황하(rma chu)²³⁶까지가 티베트의 영토였다. 한(당)의 변계는 涇州ke je'u²³⁷ [서쪽] 으 로 彈箏峽than jing ha, 龍州lu ju의 清水shing hu, 風州hung ce'u,²³⁸ 同谷thang ku, -80a- <159> 西山'si chon 大渡河tha'i hu ha 까지를 당의 관할 지방으로 하였다. 변계 사이의 新泉軍sug bcu, 大磧tsa bye'u²³⁹, 賀蘭山ha la shan, 낙타령 tha tha ling은 비워 두고 쌍방이 점거하지 않았다. 후에 한-티베트 사이에 또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다.²⁴⁰ 불-陰-소 해(797) 티베트왕 무네 쩌뽀mu ne btsan po가 사망했다.

덕종은 25년간 재위하고, 64세가 되던 나무-陰-달해(805)에 사망했다.

그 장자 順宗shun dzung 이 그 해에 즉위 -71- 하여 1년 재위하고 46세이던 불

²³³ GBT에는 shing 이 있다.

²³⁴ GBT는 '북쪽에 란lan의 땅' 즉 lan gyi sa cha라고 써 있고 中譯本은 이를 제 蠻의 땅 이라고 번역했다.

²³⁵ GBT: twa'i duM ha.

²³⁶ GBT: rma chu. 황하는 보통 rma chu라고 쓴다.

²³⁷ GBT: ki ji'u.

²³⁸ GBT: hung ci'u.

²³⁹ GBT: tsa byi'u.

²⁴⁰ 당시 티베트군의 규모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舊唐書』「吐蕃傳」에 의하면 당시 검교좌서자 겸 어사중승이었던 787년入吐蕃使로 티베트에 갔던 최한이 “뇌물로 티베트에서 노역하는 사람을 꺾어 티베트의 인구와 말의 실제 수효를 조사해 보니 모두 5만 9천여 명이고, 말은 8만 6천여 필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는 겨우 3만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린 아이였으니 숫자만 채웠을 뿐이었다.”고 했다고 한다(『舊唐書』「吐蕃傳」, 동북아역사재단 역, p. 428).

-陽-개 해(805)에 사망했다.

그의 장자 憲宗hun dzung이 그 해에 즉위하여 쥐 해(820)에 사망했다.

그의 아들 穆宗mu dzung은 소해(821)에 즉위했는데, 그의 재위 기간에 라싸의 평원에 티베트의 대신들이 모여 대 승려(ban chen po)²⁴¹가 조약문을 읽었고 제신들에게 진실을 증명하였으며²⁴² 모두 -80b- <160> 선포하고 약속했다.²⁴³ 穆宗은 불-陽-말 해(826)²⁴⁴에 한 대신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의 둘째 아들 文宗bu dzung은 (62) 불-陰-양해(827)에 즉위했다. 흙-陰-양 해(839)까지 208년²⁴⁵이 흘렀다. 文宗은 12년간 집권했고 30세되던 나무-陽-용 해(824)에 사망했다.²⁴⁶

이 해에 文宗의 다섯째 아들 武宗wu dzung이 즉위하여 6년간 집권한 후 34세되던 나무-陰-소 해에 사망했다.²⁴⁷

²⁴¹ 대 승려 혹은 僧相의 뜻. 당시 승상이었던 대 승려(ban de chen po) 뵤기 윈뎀dpal gyi yon tan을 가리킨다.

²⁴² bden pa bdar. 토번 제국 시기 티베트인들의 관행. 맹세할 때 자신이 믿는 지역신yul lha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함을 증명한 것.

²⁴³ 長慶 會盟을 말한다. 821년 먼저 장안에서 맹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에 라사 동쪽 교외에서 어사대부 劉元鼎을 대표로 하는 당 사신단과 論訥羅를 대표로 하는 티베트 간에 평화 협정을 맺고 조강 사원 앞에 한문과 티베트문으로 비를 세웠다. 신당서 토번전은 란주를 지나 예전 금성 공주를 맞이했던 실렬라령을 넘어 티베트 군주의 아장까지 가는 劉元鼎의 여정 그리고 敵血 등 회맹의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당 조정에 돌아오는 과정 등을 상세히 그리고 있다(『新唐書』「吐蕃傳」, pp. 345-346). 이른바 唐蕃會盟碑는 지금도 라사의 조강 사원 앞에 서있다. 비의 티베트 명칭은 “gtsug lag khang mdun gyi rdo rings([조강] 사원 앞의 비석)”이다. (gtshigs dang mna' chad byas는 紅史 티벳문 p. 293) 이 때는 토번 제국이 마지막으로 세력을 떨친 시기라 할 수 있다.

²⁴⁴ 穆宗은 825년 즉 나무-陰-뱀 해에 사망.

²⁴⁵ 사실 221년.

²⁴⁶ 오기. 문종은 신유년 즉 음-철-닭해인 841년에 사망.

²⁴⁷ 846년 즉 불-陽-호랑이해가 맞음.

불-陽-호랑이해²⁴⁸ 문종의 열 셋째 아들 宣宗zon dzung이 즉위했고 그때부터 티베트의 땅 대부분을 취했다.²⁴⁹ 처음에 당의 국토는 京兆府kim jang hu에서 티베트까지 9천 9백리였는데 후에 숙종²⁵⁰때부터 티베트에게 3백 城을 잃었다가 당이 모두 되찾았다. 선종은 14년간 집권하고 50세 되던 불-陰-토끼 해(847)²⁵¹에 사망했다.

흙-陽-용해(848)²⁵² -81a- <161> 그의 장자 懿宗ghing dzung이 즉위했고 이때부터 토번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²⁵³ 이와 같이 당 황제 고조ka'u dzung²⁵⁴에서 시작하여 이 때까지 239년이 지났다. 의종은 국정을 14년 관장하고 물-陰-뱀 해(873)²⁵⁵에 사망했다.

나무-陽-말 해(874)에 그의 다섯째 아들 僖宗hying dzung²⁵⁶이 즉위하여 15년 집권하고 흙-陽-원숭이 해(888)에 사망했다.

그 해에 그의 일곱째 아들 昭宗je'u dzung이 즉위하여 14년²⁵⁷ 집권하고²⁵⁸ 물-陰

²⁴⁸ GBT는 음화 호랑이해 (티베트력에는 음화호 해가 없으며 음화토끼해인 정묘, 847년일 것)

²⁴⁹ rgyas blangs. 이 구절에서 rgyas의 뜻은 알 수 없다. GBT는 rgyas를 brgyad 즉 8로 적었다.

²⁵⁰ zon dzung 즉 선종이라고 되어 있으나 선종은 당이 토번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은 때 이므로 GBT와 GBC를 따라 숙종(dzu dzung)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²⁵¹ 이 해는 무종이 사망하고 선종이 즉위한 해.

²⁵² 860년이 되어야 함.

²⁵³ GBB의 관계가 컸다che고 되어 있으나 GBT와 같이 chad(자르다)가 옳을 것이다.

²⁵⁴ GBT: dzung ka'i

²⁵⁵ GBB는 물-陰-용 해라고 적었으나 GBT, 紅史와 같이 물-陰-뱀해가 옳다.

²⁵⁶ GBT: hyeng dzung

²⁵⁷ GBT: 40년.

-돼지 해(903년)에 사망했다.

나무-陽-쥐 해에 그의 아홉째 아들 哀帝nga'i ding가 즉위하였고 4년 재위하고 불-토끼 해(904)²⁵⁹에 사망했으며 당의 왕통은 이에 이르러 끊겼다.²⁶⁰

이상 唐은 20명의 황제가 288년 간²⁶¹ -72- 제국을 관장했다. 이후 제위는 양(myang, 梁)이 탈취했다.

이상 漢-티베트 역사는 -81b- <162> 태종tha'i dzung²⁶² 시기의 사관²⁶³ (63) 宋 祁'ba' su khyi²⁶⁴가 쓰고 후에 韓祖才han se'u tsha가 모아서 묶은 것이다. 漢人 譯師 胡將祖hu gyang ju²⁶⁵는 나무-陰-닭 해(1285, 1345)에²⁶⁶ 임조(shing kun)에서 번역했고 라마 린첸닥 국사rin chen grags gu shrI가 나무-陰-소 해(1325)에 티베트문으로 출간하였다. 그 중 연도의 간지²⁶⁷ 오류 착오가 다수 있으니, 토욕혼thu yus hun을 황 몽골(hor ser)라고 하고 호탄wu then을 沃田O thon이라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漢地의 서적 『唐書 吐蕃thang shu thu 'phan』²⁶⁸ 원본을 보

²⁵⁸ 15년.

²⁵⁹ GBB는 음/양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GBT는 '음'해라고 적었다.

²⁶⁰ 일반적으로 당의 건국은 618년, 멸망 연대는 907년으로 본다.

²⁶¹ GBB는 188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GBT처럼 288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²⁶² 북송 인종.

²⁶³ yig tshang pa

²⁶⁴ GBT: ba su khyi. su khyi는 송기일 것이나 그 앞의 '바'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²⁶⁵ GBT: ba hu gyang ju.

²⁶⁶ 세조 지원22년이여야 함.

²⁶⁷ 나무, 불, 흙, 철, 물을 의미.

²⁶⁸ GBT: thang zhu hu then. 紅史 thang zhu thu hyen.

라.²⁶⁹

梁 5대 10국

唐 황제 시기에 황마이huang ma'i²⁷⁰라는 이름의 세우se'u tshe²⁷¹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 황제가 되고, 주온ju wun (朱溫)²⁷²이라는 사람이 대신을 맡았다. 후에 주온이 당에 투항하여 추밀원chu mi dbyen 장군이 되었다. 그 후 주온이 또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탈취하고 양(myang, 梁) 황제라는 왕통이 일어나는 등 서로 다른 성의 -82a- <163> 5개 朝에 총 15 황제가 50년 동안 집권했다.

宋

그 뒤 조Ce'u(趙) 태조tha'i dzung(太祖)라고 하는 황제에게 변량spen lang(汴梁) 지방에서 8명의 황제가 일어났다.

南宋/ 大遼

제8대 황제 흠종shwang hang²⁷³ 부자로부터 키탄chi twa²⁷⁴ 대요tA'i gle'u(大遼)라는 자들이 汴梁spen lang²⁷⁵등 국토의 반을 빼앗으니 그 나라를 대요(tA'i gle'u,

²⁶⁹ GBB: blta'o. blta: 보다의 미래. 볼 것이다. GBT: lta.

²⁷⁰ GBT도 같은 표기. 紅史는 hwang ma'o.

²⁷¹ GBT도 같은 표기. 紅史는 gswe'u

²⁷² GBT: ju 'un. 紅史도 같다.

²⁷³ 문맥상 欽宗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의 음역인지 발음만으로는 알 수 없다. 흠종의 이름은 趙桓이다. 上皇? 『紅史』는 shang gang, shang han 등으로 표기했다.

²⁷⁴ 아래에서 chi twan이라고 쓴 것을 보면 GBT와 마찬가지로 키탄chi twan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²⁷⁵ GBT: spen lang

大遼)라고 한다. 흠종shwang hang의 아들 강왕khang dbang(康王)이라는 자가 만차sman tsha(蠻子) 지방으로 가서 조상들의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몽골인들이 남대(nam tha'i, 南臺)²⁷⁶라고 부르는 건강(rkyen khang, 建康) 항주(hang je'u, 杭州)를 중심으로 제국을 유지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만쯔sman rtse에 라쥘lha btsun²⁷⁷ 까지 8대의 왕통이 일어났다.

금

기탄chi twan 대요ta'i gle'u의 여덟 군주 이후 女眞ne'u rje²⁷⁸라고 하는 대신이 정권을 잡고 알탄칸a'e tan khan²⁷⁹이라 하는 왕통 -82b- <164> 9대를 이어갔으며 나라를 大金ta'i gam²⁸⁰이라 하였다. 9대 애왕hung dbang²⁸¹이라는 -73- 자로부터 몽골 칭기스 황제jing gir rgyal po가 왕권을 취하였으며 이 몽골 국가를 대원ta'i dben이라 칭했다. 『大元通制ta'i dben thong ji』²⁸²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국법의 상세한 내용이 그 안에 분명하게 실려 있다. 이상 잠발라dzam bha lha 斷事官

²⁷⁶ 항주에 있던 행어사대를 남대라고 불렀으므로 nam tha'i는 남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역본은 nam tha'i를 江南에 대한 멸칭인 南家子로 보고 '몽골인들이 남가자라고 부르던'이라고 번역했다. 『紅史』도 역시 몽골인들이 nam tha'i라고 불렀다고 써있고, 중역본은 이를 南朝로 번역했다(Tshal pa kun dga' rdo rje, p. 25; 蔡巴·貢噶多吉 著, 陳慶英, 周潤年 譯, p. 20).

²⁷⁷ 남송의 마지막 군주이며 몽골로부터 영구공 호칭을 받은 조현(趙顯, 1271-1323). 그에 대하여는 <몽골> 장에 상세히 나와 있다. 또한 본 역주의 전체 <해설> 참조.

²⁷⁸ GBT: nu'i rje. 中譯本이 이를 '아보기'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²⁷⁹ GBT: al tan khan.

²⁸⁰ 『紅史』는 타이김ta'i gim이라고 썼다.

²⁸¹ GBT와 『紅史』 모두 똑같이 표기되어 있다.

²⁸² GBT: twa'i dben thong ji.

twan srwls mgon²⁸³이 말한 것을 기록했다.

*²⁸⁴ 漢地 왕통을 기록하는 선업에 의해

漢-티베트-몽골 등의 세상 사람들이

어찌다 한번이라도 유가 원만을²⁸⁵ 얻어, 모든

광대하고 수승한 법을 수행하는 원인이 되게 하소서!

이상 서술한 漢地의 왕통의 최후의 군주 애종hu dbang이 흙-陽-호랑이 해(1218)에 몽골 칭기스ching gir 황제에게 제위를 빼앗겼고 그때부터 15 위의 황제가 전하며 -83a-<165> 151년간 몽골이 漢地를 통치했다.

大明

그 최후의 황제 토곤 테무르tho gan tham mur로부터 또한 한인rgya nag 大明 ta'i ming 황제가 양-토-원숭이 해(1368)에 제위를 빼앗고 32년간 집정했다.

그 뒤 永樂yun lo 황제가 22년 재위했으며 그와 大乘 法王theg chen chos kyi rgyal po이 시주-복전 관계를 맺었다.

이후 洪熙hung gi 황제가 7개월 재위했다.

宣宗yon dzun 황제가 12년 재위했다.

英宗byin thun 황제가 14년 집정했다. 영종 황제는 양철 말해(1450) 여덟 번째

²⁸³ GBT: 'dzam bha lha twan shrI mgon.

²⁸⁴ 이 계승 이하의 내용은 GBB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GBT와 GBC에서 옮겨 적었다.

²⁸⁵ dal 'byor. 8 有假와 10 원만.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인간의 삶. 불교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간의 몸을 가리킨다. 8 有假와 10 원만에 대하여는 뵈뵈 린포체 저, 오기 열 역,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티베트의 모든 불교 종파의 제자들이 받들어 공경하는 수행의 나침반』, 지영사, 2012, pp. 42-70 참고.

달 16일에 몽골의 대신 에센 타이시a san thang shrI에 의해 사로잡혔다가 풀려났다.²⁸⁶

그 후 양철 말해에 경태gyin thas 황제가 제위에 올랐고 올해 개해(술년 1454년)까지 5년이 지났다. 이 황제 또한 라마의 제자였다고 하며 흠金剛,²⁸⁷ 大威德²⁸⁸ 등 밀종의 교법에 정통하다고 하며 -83b- <166> 佛法을 존중한다고 한다. 이는 리싱 빠'ri zhing pa의 학자 世頓byis ston이 漢地로 가서 말을 바치고 황제를 만난 정황이다. 이때까지 36년이 지나고 토끼-陽-용 해에 제 9궁(srog rme dgu dmar)이²⁸⁹ 위dbus 지방에 있는 이 때까지 12년이 지났다. 모두 합쳐서 계산하면 漢地 최후의 왕조가²⁹⁰ 세워진 지 이미 81년이 되었고²⁹¹ 5명의 황제가 있었다.

²⁸⁶ 1449년에 중국 명나라의 영종이 토목보(土木堡)에서 오이라트의 수령 에센에게 사로잡힌 사건. 오이라트와 명이 조공 무역 조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에센이 공격해 오자, 영종은 환관 왕진의 건의에 따라 대군을 이끌고 친정하였으나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 명은 영종을 구하지 않고 경태제를 즉위시켰는데 에센이 영종을 풀어주어 이후 영종은 재즉위하였다.

²⁸⁷ kye rdo rje 즉 Hevajra.

²⁸⁸ 'jigs byed 즉 Yamantaka.

²⁸⁹ srog <rme> [sme]? dgu dmar: 티베트 점성술에서 중요한 九宮 혹은 九星(sme ba dgu) 중 아홉 번째.

²⁹⁰ 즉 明朝.

²⁹¹ 위에서 저자는 저작 당시의 해가 1454년이라고 했는데 1368년부터 1454년은 86년이 지난 때이다. 아마도 건문제 재위기 5년을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 왕통이 81년 이어졌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II . 용맹한 메낙me nyag 군주들의 역사

해설

<메낙 역사> 장은 네 개의 장 중 가장 짧고 소략하다. 또한 연대기적 서술이 아니라 국가의 건국 설화 위주로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티베트 사서의 ‘메낙me nyag’ 혹은 ‘미낙mi nyag’은 西夏 건국 집단 즉 탕구트인 들 혹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호칭이다. 이는 탕구트인들이 자신들을 미냐mi niah 또는 미mi라고 부른 데서 왔다. 이 호칭은 몽골 제국 이전부터 있었는데, 『舊唐書』 「西戎傳」에 의하면 강족羌族 탁발적사托拔赤辭과 그가 이끄는 무리가 7세기 감숙성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일찍이 토욕혼에 귀부해 있다가 후에 당에 복속하여 이씨 성을 받았다. 그러나 곧 토번 세력에 밀려 일부는 당으로 도망쳤고 남은 세력은 토번의 지배하에 들어갔는데 토번은 이들을 ‘弭藥’이라 불렀다고 한다.²⁹² 서하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대하여 “phôn¹ mbin² lhja³ tha²” 즉 “희고 높은 큰 나라”라고 했고, 한문으로는 이를 번역한 ‘白高大(夏)國’이라고 하거나 혹은 “大夏”라고 적었다.²⁹³ 이 국가에 대해서 티베트 사서들은 단순히 미낙(혹은 메낙)이라고 부르거나 때로 ‘미낙mi nyag’ 혹은 ‘메낙me nyag’에 ‘夏’의 음역인 ‘가(gha/

²⁹²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 10: 舊唐書』, 동북아 역사 재단, 2011, pp. 537-538 (이하 『舊唐書』 「吐蕃」)

²⁹³ ‘미’는 서하어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서하 건국 집단과 국가의 명칭에 대하여는 Ruth W. Dunnell,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Buddhism and State Formation in Eleventh-Century Xia*,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1996, conventions: Ksenia Borisovna Kepping and George van Driem, “The Name of the Tangut Empire”, *T’oung Pao, Second Series*, Vol. 80, Fasc. 4/5 (1994), p. 358; 盧梅 · 聶鴻音, 「藏文史籍中的木雅諸王考」, 『民族研究』 vol. 5, 1996, pp. 64-69 참조. 이들은 미mi를 한자로 번역할 때는 중국을 가리키는 漢과 대비하여 蕃이라고 했다. 한편 탕구트라는 호칭에 대한 여러 이론은 Ruth W. Dunnell, “Who are the Tanguts? Remarks on Tangut Ethnogenesis and the Ethnonym Tangut”, *Journal of Asian History*, vol. 18, no. 1, 1984 참고.

‘ga/sga)’를 붙여서 ‘미낙 가’ 혹은 ‘메낙 가’라고 불렀다. 이런 기록은 한문 사료들이 탕구트인들의 나라 이름을 중국식 명칭인 夏, 西夏로 적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한문 사료들이 서하 군주들을 이원호李元昊, 이현李暉 등 중국식 이름으로 적고 있는 것에 비해 『紅史』를 비롯한 티베트 사료의 기록은, 그 내용은 역사 기록이라기보다 설화에 가깝지만, 서하인들이 실제로 사용했을 명칭을 적고 있다. 즉 서하의 건국자의 성을 “오늬ngo nu’i”로 적고 이는 티베트어로 “소젖을 먹은 자”라는 뜻이라고 한 것이다. 중국 사료들은 이원호가 독립을 표방하면서 이전에 중국 왕조에서 받은 이씨 성과 조씨 성을 버리고 ‘외명嵬名’이라는 성을 채택한 것을 적었으나,²⁹⁴ 서하 왕족의 성씨를 일관되게 이씨로 기록하고 있다. ‘嵬名’의 어원에 대하여는 위의 “오늬”와 의미상 같은 표현인 “ṇwe² mji”를 음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²⁹⁵ 이렇듯 『한장사집』을 비롯한 티베트 저작들의 서하 역사 기록은, 연대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정치사가 상세히 드러나 있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티베트 사료 속의 서하 기록은 중국 기록 위주의 서하 역사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하 역사 장을 처음 수록한 편가 도르제는 그 기록이 서하 출신 승려 쟈젠tse 세랍 예셰shes rab ye shes의 口述을 글로 옮긴 것이라고 썼고 『한장사집』 등 후대의 사서들도 역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紅史』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²⁹⁶ 『紅史』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인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같은 내용을 신

²⁹⁴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 13: 宋史』, 동북아 역사 재단, 2011, p. 87. 이하 『宋史』 「外國傳」.

²⁹⁵ Guillaume Jacques 2010, pp.259-260.

²⁹⁶ 그 후 샤까 린첸 데Shakya Rin chen sde의 1376년 저작 『알룽 조오 교법사Yar lung Jo bo'i chos 'byung』, 뽕조르 상뽕Dpal 'byor bzang po의 1434년 혹은 1454년 저작 『가 뵈익창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그리고 1566년 완성된 빠오 쪽락 텡와Dpa' bo Gtsug lag phreng ba의 『賢者喜宴 Chos 'byung Mkhas pa'i dga' ston』까지 그대로 옮겨 적었다.

고 세랍 예셰가 중국과 몽골의 문서와 연대기에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적었다.²⁹⁷ 학자들은 그가 1865년 완성된 『암도 政教史(mdo smad chos 'byung)』에 언급된 켄뵤 세랍 예셰 뵤 상뵤Mkhan po Shes rab Ye shes dpal bzang po라고 보고 있다. 그는 서하 말기 청해 지역의 티베트 귀족 가문인 동Idong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장성한 후 사까 사원으로 가서 많은 경전을 읽고 顯密 교법을 익힌 사까派의 승려다.²⁹⁸

티베트인들이 자신들의 저작에 서하의 역사를 넣은 것은 민족적으로 그들이 티베트인과 가깝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며²⁹⁹ 또한 서하 지배층이 불교 특히 티베트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하 역사에 대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사실 티베트 불교 세력은 서하 조정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까르마 까귀派의 기록인 『賢者喜宴Chos 'byung Mkhas pa'i dga' ston(1566)』에 의하면 서하(mi nyag 'ga') 타이후tha'i hu라는 황제가 제 1대 까르마빠인 뒤숨 켄빠(Dus gsum mkhyen pa, 1110-1193)를 서하로 초청했는데 뒤숨 켄빠는 노령을 이유로 사양하고 자신의 제자인 짱뵤빠 꺄축 쟁게gtsang po pa Dkon mchog seng ge(?-1218/1219)³⁰⁰에게 “하란산ha lan shan³⁰¹이라는 산에서 명상하라!”고 말하며 서하로 보냈다고 한

²⁹⁷ Per K. Sørensen tran.,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XIVth Century Tibetan Chronicle: rGyal-rabs gsal-ba'i me-long*,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1994, p. 84.

²⁹⁸ 浜中沙椰, 「サキヤ派史料における西夏の記述 : チベット・モンゴル関係樹立期の記述変化を中心に」, 『史観』 175, 2016, p. 25; 楊浣, p. 15.

²⁹⁹ 티베트인들은 서하의 건국집단이 청해 부근에 거주하던 티베트 귀족인 동Idong氏의 후손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宋史』에 의하면 이원호는 송 황제에게 보낸 표에서 자신의 먼 조상(遠祖)은 唐代에 활약한 탁발사공拓跋思恭이라고 썼고(『宋史』 「外國傳」, p. 95) 원대에 편찬된 『遼史』의 「西夏外紀」도 “西夏本魏拓跋氏後.”라고 적었다(위의 책, p. 28).

³⁰⁰ 짱빠 따시gtsang pa bkra shis라고도 불린다.

³⁰¹ 賀蘭山을 가리킨다.

다.³⁰² 꺄뽕뽕는 “미낙 가 왕의 라마가 되어 꺄뽕 帝師(gtsang po ti shri)라는 칭호를 받았고” 이 기록으로부터 그가 서하 황제의 帝師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서하 양주(byang ngos)에서 삶을 마감했는데, 이후 帝師 직은 그가 서하에서 제자로 받아들인 바롬派³⁰³ 출신의 티베트 승려 제사 상개 래첸ti shri sangs rgyas ras chen, 1164/1165-1236)³⁰⁴이 계승했다.³⁰⁵ 그는 서하 멸망 직전인 1226년 티베트로 돌아왔다. 즉 최소한 13세기 초반에 서하에서 帝師직이 제도화되어 있었고 이를 까귀파 출신 티베트 승려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⁰⁶ 그 외에도 디궁 까귀

³⁰² Sperling, “Lama to the King of Xia”, pp. 32-33.

³⁰³ 까르마派와 마찬가지로 까귀派의 하부 종파이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창립자 바롬빠'ba'rom pa(1127/1128-1203)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지만 사료마다 종파 명이 조금씩 철자가 다르게 적혀 있다.

³⁰⁴ 도권 帝師 래빠'Gro mgon ti shri ras pa라고도 한다.

³⁰⁵ Si tu Pan chen Chos kyi 'byung gnas, *Sgrub brgyud karma kaM tshang brgyud pa rin po che'i rnam par thar pa rab byams nor bu zla ba chu shel gyi phreng ba*, vol. 1, Gyaltsan & Kesang Legshay, New Delhi. 1972, p. 52; Sperling, 위의 글, p. 33.

³⁰⁶ 관련 내용은 E. Gene Smith, Introduction of *Mnyam-med-'Bri-gung-pa chen-po skyob-pa 'jig-rten mgon-po'i bka'-'bum* (*The Collected writings of 'Bri-gung cho-rje 'jig-rten-mgon-pa Rin-chen-dpal*), 1969, I, p. 2; Elliot Sperling, “Lama to the King of Hsia”, *The Journal of the Tibet Society*, 1987, vol. 7, pp. 33-36; R. A. Stein, “Mi-ñag et Si-hia”,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X L IV (1951), pp. 223-265; “Nouveaux documents tibétains sur le Mi-ñag/Si-hia”, *Mélanges de Sinologie offerts à Monsieur Paul Demiéville*, Paris: 1966, pp. 281-289; Ruth Dunnell, “The Hsia origins of the Yuan institution of Imperial Preceptor”, *Asia Major. Third Series*, Vol. 5, part 1, 1992, pp. 85-111; Maho Iuchi, “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ka' gdams pa School and Mi nyag/Xixia”, 『藏學學刊』, 2013, vol. 8, pp. 58-62 참고. 한편 몽골-티베트 접촉 초기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이 티베트 대표를 불렀을 때, 당시 티베트 내에서 까귀派의 하부 종파인 디궁派가 가장 큰 세력이었음에도 디궁의 주지가 사까派의 사까 뽀디따를 보낸 것은 까귀派로서는 자신들과 시주-복전 관계에 있던 서하와 오래 적대관계에 있던 몽골의 소환에 응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 불교-서하 지배층 관계에 대한 기록은, 후대의 역사가인 까르마 까귀派 출신의 빠오 쪽락 텅와dpa' bo gtsug lag phreng

나 까담파, 닝마파도 역시 서하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³⁰⁷ 사까派 역시 이들보다는 가깝지 않았지만 서하와 교류했다.³⁰⁸ 사까 빠디따가 서하 양주에서 사망할 때 그는 자신의 수발을 들던 비지bi ji라는 승려에게 “전에 그대는 내茶 시종이 었는다가 내가 서하 땅에 보냈는데 다행히 몽골에 의해 죽지 않고 남아 다시 나를 여러 모로 받들고 있구나.”³⁰⁹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몽골 제국 흥기 후 처음 중앙 티베트에 군대를 보낸 것은 바로 서하의 옛 땅인 凉州(byang ngos)³¹⁰를 근거지로 하여 주둔하고 있던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이었다. 그는 당시 대칸의 아들로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최근의 한 연구가 티베트인들이 쿠텐을 “꺄뽕rgyal po” 즉 대칸에 준하는 호칭으로 부른 것이 그가 대칸처럼

ba(1504-1566)가 1566년 완성한 『賢者喜宴(chos 'byung mkhas pa'i dga' ston)』을 참고. 『한장사집』과 유사한 내용의 서하의 왕통을 기록한 뒤에 까귀派와 서하 지배층의 관계에 대해 덧붙이고 있다(Mkhas pa'i dga' ston, pp. 721-723).

³⁰⁷ 서하와 티베트 각 불교 교파의 관계에 대하여는 崔紅芬, 「河西地區的藏傳佛教」, 『西夏河西佛教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10, pp. 313-353 참고. 엘리엇 스펠링은 쿠빌라이가 까르마 박시 등 까귀派를 박해한 것이 이전에 그들이 서하 군주와 연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쿠빌라이의 정적인 아락 부계와 까르마 박시의 연계 문제가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³⁰⁸ 이에 대하여는 浜中沙椰, 「サキヤ派史料における西夏の記述: チベット・モンゴル関係樹立期の記述変化を中心に」, 『史観』 175, 2016, pp. 20-41 참고.

³⁰⁹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Sa skya'i gdung rabs ngo mtshar bang mdzod*, p. 144; 『薩迦世系史』, p. 93

³¹⁰ 단어 자체의 의미는 ‘북방’인데 구체적으로는 서하의 凉洲(현 감숙성 武威)를 가리킨다. 『宋史』 「吐蕃傳」

에 의하면 이 지역은 토번 제국 시기 그 세력 하에 들어갔는데 10세기 즉 토번 제국 멸망 후에도 경작에 종사하던 피지배 한인 외의 주민은 모두 토번인이었다고 한다(『宋史』 「外國傳」, p. 576).

세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만큼³¹¹ 쿠텐은 세력이 컸다. 쿠텐은 당시 군주가 없던 티베트의 대표로 사까派의 사까 뽀디따를 양주로 소환했다. 쿠텐을 만난 사까 뽀디따는 그의 오래된 피부병을 치료해 주고 그가 서하 겔괴rgyal rgod 황제의 轉生이라고 선언했다.³¹² 이를 알게 된 것은 사까 뽀디따의 꿈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사까派측의 기록에 의하면 양주에 도착해서 사까 뽀디따가 쿠텐을 만난 후 그의 병을 고치려 고심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전 서하의 한 首長dpon gcig이 나타나 쿠텐의 前生에 대해 사뽀에게 일러주었다고 한다. 쿠텐은 이전에 석가모니에게 높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맞설 수 없었고 그가 서하 왕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몽골의 왕자로 환생했다는 것이다.³¹³ 사까 뽀디따는 이를

³¹¹ R.Yu. Pochekaev, ““King” Godan: Status of the Ruling Chinggisid in Mongolian and Tibetan Sources,” *Golden Horde Review*, 2018. Vol. 6, no. 1, pp. 6-17. 그러나 쿠텐을 “겔뽀”라고 부른 것은 사까파의 저자들이며 『홍사』 등의 사서들은 왕자를 뜻하는 쿠텐을 “겔부rgyal bu”라고 정확히 적고 있다. 사까파의 승속 수령들이 쿠텐이 겔뽀가 아닌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만 그들은 처음 티베트 대표로 사까파에 권한을 부여하고 사까 뽀디따와 짝뽀 형제를 맞이한 쿠텐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티베트 저작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기술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티베트 사료들”이라고 일괄하여 말할 수 없다. 이는 뒤의 <몽골 군주들의 역사> 장의 상가sang gha/sam gha(桑哥)에 대한 기술에서도 알 수 있다.

³¹² 사뽀이 쿠텐의 병을 완치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일시적으로나마 호전되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사까派의 기록에 의하면 사까 뽀디따가 처음 양주에 도착했을 때 쿠텐의 주변에는 기독교 사제e ka 'un과 몽골 샤먼hor gyi lha pa들이 득세하고 있었는데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Sa skya gdung rabs ngo mtshar bang mdzod*, Beijing: Mi rigs dpe skrun khang, 1986, p. 126; 陳慶英・高禾福・周潤年 譯註, 『薩迦世系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p. 82) 후에 사뽀를 비롯한 티베트 불교 세력이 -절대적이지 않더라도- 높은 지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³¹³ 이 내용은 아왕 편가 쇠남Ngag dbang kun dga' bsod nams (1597-1659/62)의 유명한 저작 『사까世係史(*Sa skya'i gdung rabs ngo mtshar bang mdzod*)』에 실려 있는데, 가장 이른 기록은 오르첸 편가 상뽀Ngor chen Kun dga' bzang po(1389-1456)의 사까 뽀디따 전기인 *Kun dga' rgyal mtshan gyi rnam thar gsung sgros ma*(pp. 27-29)이며 이것을 후에 아왕 편가 쇠남도 자신의 저작에 그대로 실은 것으로 보인다.

쿠텐에게 말했고, 사뻐에 의한 자신의 오랜 숙환의 호전과 서하 군주 轉生설 선포 등은, 우구데이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쿠릴타이에서 병이 있음을 이유로 후보군에서 탈락하고 돌아온 쿠텐에게 의미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쿠텐은 이 선언을 받아들여 그 서하 군주가 살해된 지방에 사원을 세우고 살해자의 집안을 족멸했고 서하 군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조정에서 티베트 불교의 지위를 높였으며 사뻐에게 환화사라고 하는 사원을 보시했다.

즉 몽골 이전 티베트 불교 교파들과 서하 조정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사까뻐디따는 몽골 제왕 쿠텐을 이전 께괴 황제의 轉生이라고 선언했고 이 선언에 의해 이론적으로 몽골은 이전 서하 군주들처럼 티베트 불교를 보호하는 시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서하에서 몽골로 이어지는 세속 군주들에 대해 티베트 승려들이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스승이 되는 것이다.

즉 티베트와 몽골의 초기 관계에서 서하는 주요 연결 고리 중 하나였으며 최근 연구들은 몽골 제국의 國師나 帝師 제도가 이전에 서하 황제들이 12세기와 13세기 초 까귀派 승려들을 자신들의 조정에서 스승으로 받든 예를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티베트-서하-몽골 관계 연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³¹⁴

³¹⁴ Elliot Sperling, 앞의 글; Ruth Dunnell “The Hsia origins of the Yuan institution of Imperial Preceptor,” *Asia Major. Third Series*, Vol. 5, part 1, 1992, pp. 85-111 참고.

용맹한 메낙 군주들의 역사

吉祥!

처음에 가탁gha thag³¹⁵ 등 메낙의 땅은 모두 漢地rgya³¹⁶ 군주의 관할 하에 있었다. 양주(byang ngos)와 夏州('ga) 사이의 윈리³¹⁷라는 산에 디후³¹⁸라는 신이 있었다. 어느 날 백색 騎士 일곱 명³¹⁹이 양주의 성 안에 있는 한 여성에게 왔고 그 수

³¹⁵ GBT·GBC: gha thag. 티베트 사료에서 夏가 gha 혹은 'ga, 혹은 sga로 표기되므로 가 gha는 하주夏州를 가리키는 하夏의 음역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나 “탁”의 의미는 알 수 없다. 중역본은 가탁을 음사하여 다만 “迦塔”이라고 적었다. 『한장사집』의 서하 장은 앞서 나온 『紅史』를 답습하였으나 “가탁 등”이라는 구절은 『紅史』에 없고 “처음에 메낙의 땅은”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이 단어는 저자 뵈조르 상뵈가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장사집』보다 후에 나온 『賢者喜宴』은 이 자리에 “전에 쿠텐go dan이 장악한 하주gha와 양주(byang ngos) 등은 영토의 주요 지역이었다.”라고 적었다.

³¹⁶ 앞의 漢地の 역사 장에서 보았듯, 가rgya 혹은 가낙rgya nag은 일반적으로 중국 왕조 혹은 중국 땅을 가리키는데, 남중국 만째man tse와 대조되는, 이전에 금의 영토이던 북중국을 지칭하기도 했다.

³¹⁷ GBT·GBC: smon ri. 리ri가 ‘산’을 뜻하므로 ‘윈 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紅史』와 다른 사료들은 ‘윈샤mon sha(DMS)라는 산’ 혹은 ‘윈시smon shi(DMB)라는 산’이라고 적고 있다. 『紅史』의 일역본과 중역본은 이 이름을 그대로 음사하고,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중국학자 楊浣은 윈시가 서하문 백과사전인 『聖立義海』의 산 이름 중 彌頂聖山の 줄임말인 彌聖의 서하여 음역이라고 보았다(楊浣, p. 14). 스타인은 알라산일 것이라고 보았다(Per K. Sørensen, 1994, p. 84)

³¹⁸ GBT·GBC: gri hu; DMB: ga'i hu; DMS: dgi'u. 『賢者喜宴』은 “시후 또는 가후si hu a'm ga hu”라고 했다(Mkhas pa'i dga' ston, p. 721)

³¹⁹ 『紅史』는 ‘백색 騎士 主從(dpon g.yog) 일곱 명’이라고 적었다. 『한장사집』과 『紅史』는 앞에서 언급한 세후라는 신과 이들 기사들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 신의 등장 이유

령과 여인이 교제하여 <167> 사내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그 때 전에 보이지 않던 별이 나타나니 漢人 점술가들이 “이 성 안에 왕좌를 탈취할 인물이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그 아이를 찾아내라!”라고 명하였다. 이에 부인은 아이를 구덩이³²⁰에 숨기고 널빤지로 덮은 후 그 위에 물 그릇을 올려 두었고, 점술가들은 “[그 아이는] 큰 호수와 나무의 땅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왕은] 성 안에 있는 두 살 안 된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관리들이 아이들을] 죽일 때 부인은 자기 아이가 죽은 것으로 가장하고 관 안에 넣고 울면서 들고 가 물 한 가운데의 풀이 무성한³²¹ 곳에 놓아 두었는데 매일 독수리 한 마리가 와서는 그 아이가 얼어 죽지 않게 하였다. 다른 한 노부인에게 젊은 암소 한 마리가 <168> 있었는데 그 암소가 매일 아이에게 와서 젖을 주었다.

를 알 수 없으나 『티베트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이 신이 일곱 기사로 환생하여 양주로 가서, 고기를 먹는(sha za) 여성과 동거하였다고 썼다. 『賢者喜宴』도 그 신이 일곱 기사로 환생했다고 기록했고 『알룬 조오 교법사』는 『티베트 왕통을 비추는 거울』만큼 상세하지 않으나 세후 신의 설명 뒤에 주격 조사를 써서 그가 양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났음을 밝히고 있다. 『新紅史』도 역시 세후 신 뒤에 ‘그리고(dang)’를 써서 그와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임을 보여주며 등장 인물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상세하게 실었는데 그에 따르면 양주와 미낙 가 사이의 성에 세후se hU라고 하는 大龍魔가 있었고 그가 양주 성 안의 한 식욕 여자 정령과 결합하여 아이를 낳았으며, 이 아이가 장성하여 非人(lha ma yin)인 노인의 말에 따라 많은 기병을 이끌고 궁궐로 가서 옥새를 얻고 왕과 대신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漢地가 서하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며 그 황제의 이름은 부친 세후se hU의 이름을 따서 세우se'u라고 했다고 한다(Bsod nams grags pa, Tucci trans., *Deb t'er dmar po gsar ma*, pp. 177-178). 한편 빨댄 최끼 상뽕Dpal ldan chos kyi bzang po의 *Sde pa G.yas ru Byang pa'i rgyal rabs rin po che bstar ba*는 시후왕이 처음에 漢地의 군주들로부터 일어나 힘으로 수도를 빼앗고 큰 국가에 세력을 떨친 인물이라고 적었다(Sperling, 1987, p. 36; p. 45).

³²⁰ GBT·GBC: skong; DMB: kong. 『紅史』 DMS는 조사를 붙여 kong에 kong mo 로 적었다.

³²¹ GBT·GBC: 'thub po. 'thug po(무성한)의 오기로 보인다. 紅史 DMB·DMS: 'thug po.

하루는 소의 주인인 노부인이 소가 가는 뒤를 따라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데려 가서 아들로 삼았다. 성³²²을 오뇌ngo nu'i³²³라고 했는데 티베트어로는 소젖을 먹은 자³²⁴라는 뜻이다.

이 아이는 일곱 살이 되자 동갑인 어린 아이 여섯 명을 찾아내어 양주의 雪山 속으로³²⁵ 도망가 반란을 시작하고 그 산의 나무꾼들을 모두 잡아서 병사로 삼았다. 그리고나서 양주 성의 현자에게 반란을 일으킬 방법을 물으러 가니³²⁶ 漢人 노부인 한 명이 그에게 방도를 알려주기를 “그대는 이 달 15일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대량의 말 채찍과 말 똥을 강에³²⁷ 던져라. 그러면 <169> 내가 漢地의 왕권과 옥새

³²² GBT·GBC: dus pa. dus pa는 ‘rus pa(가문, 성씨)’의 오류로 보인다. 『紅史』 판본은 모두 rus pa로 적고 있다.

³²³ GBT·GBC: ngo nu'i; DMB: ngo snu'i; DMS: ngu snu'i. 『賢者喜宴』은 두마이du ma'i로 적었다. 기욤 작끄는 서하어 ‘오뇌’가 ‘젖소’를 뜻하는 탕구트어 nwe²와 먹이다라는 뜻의 nju²가 합쳐진 단어일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조합이 현전하는 기타 탕구트어 저작에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Guillaume Jacques, “Deux noms tangoutes dans une légende tibétaine”, *Revue d'Etudes Tibétaines*, 2008, vol. 13, pp. 4-10; Guillaume Jacques, “A Note on the Etymology of the Tangut Name Ngwemi”,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30, No. 2, 2010, pp. 259-260 참조. 일찍이 屠寄는 『蒙兀兒史記』에서 서하인들이 모자에 외명이라는 이름의 붉은 리본을 달고 다녔는데 그들의 성이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적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Ruth Dunnell, 1984, p. 86). 한편 『宋史』는 서하의 개국 군주인 이원호가 스스로를 嵬名 吾祖라고 불렀고 (『宋史』 「外國傳」, p. 87), 후에 吾祖를 兀朮로 바꾸었으며 이들은 모두 카간(可汗)과 같은 뜻이라고 적고 있어서(『宋史』 「外國傳」, p. 107) 서하인들이 자신들의 군주에 대해 吾祖, 兀朮과 유사한 발음의 호칭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³²⁴ GBT·GBC: ba la 'o ma nu; DMB·DMS: ba la 'o ma 'thung ba

³²⁵ GBT·GBC: gangs ri'i <sreb> [gseb] tu.

³²⁶ GBT·GBC: ngo log tsam pa'i theb 'bri rung phyin pa; DMB·DMS: ngo log rtsom pa'i thabs 'dri ru yong ba

³²⁷ GBT·GBC: chu. 가뵵익창은 모두 ‘추chu’ 즉 ‘강’으로 적었으나 『紅史』 등은 마추(DMB: rma chu; DMS: sma chu) 즉 황하라고 기록했다. 『한장사집』도 몇 줄 아래에서는

³²⁸가 그대에게 갈 방도를 행하겠다.”라고 했다.

14일에 그 노부인이 성벽 위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가자 왕이 이유를 물었다. 부인은 “제석천帝釋天³²⁹ 명을 내려서 메낙 왕을 임명하였습니다. 만약 그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漢地는 그 이름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일 무수한 군사가 올 것입니다.” 하였고 왕이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묻자 “여러분께서는 내일 아침 황하³³⁰를 보십시오. [메낙 군사]의 말뚝과 말 채찍이 떨어져서 물 색깔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음 날 보러 갔더니 과연 그대로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묻자 노부인이 말하기를 “항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왕과 主從 세 사람이 옥새를³³¹ 가져가서 메낙 왕 등 일곱 기사를 만나니 [메낙 황제는] 옥새를 받고나서 왕을 죽이고 <170> 그 후 漢地의 이름있는 대신들도 역시 차례로 죽인 후 왕권을 취했다.³³² 이는 漢地에도 전해졌다. 노부인 하나가 지은 말의 죄 때문에 삼각三角과 육문六門이 있는 漢地の城이 파괴되었는 말이 [여기서] 생겨난 것이다.³³³ 메낙 왕 그에게는 부친의 이름에

마추rma chu로 적고 있다.

³²⁸ GBT·GBC: tham kha.

³²⁹ GBT·GBC: lha'i dbang po; DMB·DMS: lha'i dbang po brgya byin. 帝釋天은 Śakra devendra의 한자 표기로, 須彌山 꼭대기 도리천의 임금이다. 4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면서 佛法과 佛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한다.

³³⁰ GBT·GBC: rma chu.

³³¹ GBT·GBC: tham kha; DMB·DMS: dam kha.

³³² 나무와 물로 점술가를 속이고 은신하는 내용은 돈황 발굴 한문 사적 『오자서 변문(伍子胥變文)』, 『世說新語』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과(鐘燾, 「西藏史籍中木雅王占卜傳說的漢族故事原型」, 『中國典籍與文化』, pp. 37-40) 티베트 저작 『송첸감뽏 遺訓』의 가르 재상 일화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楊浣, p. 18).

³³³ 서하와 노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저자 미상의 『몽골 황금사』에도 등장하는데, 서하가 칭기스칸 군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한 노부인이 나타나 몽골군의 말과 병사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탕고드 나라의 국경에 다다랐을 때, 시도르고 카안의 나찰(羅刹)을 선조로 하는 노부

서 따서 다이숭gra'i dzung³³⁴ 왕이라고 이름이 붙었으며 그가 메낙 황제의 시초이다.³³⁵

그로부터 6대째 황제는 메낙 겐리rgyal brgyud³³⁶였는데 그의 재위기에 시뇌와si

인이 몽골의 병사를 맞이하러 나와서 병사와 편마(종마)를 한꺼번에 살해”했고 이를 수베데이가 칭기스칸에게 보고하니 칭기스칸은 동생 카사르를 노부인과 맞서게 했으며 부인은 카사르에게 저주를 내리며 죽었다(김장구 역, 『역주 몽골 황금사』, pp. 74-75).

³³⁴ GBT·GBC: gra'i dzung; DMB: ga'i rtsu; DMS: dzu. 다이숭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는, 『한장사집』 몽골 장에서 저자가 太祖 칭기스칸을 타이숭tha'i dzung이라고 적었으므로 서하 장의 다이숭gra'i dzung도 태조일 가능성이 있으나 『紅史』 편집본 두 개가 각각 가이쭈, 수로 적고 있어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서하의 태조는 이계천이고 태종은 이덕명이며 이원호의 묘호는 景宗이다. 또한 이 호칭이 부친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한장사집』의 설명 만으로는 그 부친의 이름을 알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新紅史』는 양주와 가(하주) 사이에 거주하던 神 세후(『한장사집』의 ‘디후’)가 서하 최초의 황제의 아버지이며 부친의 이름을 따서 최초 황제의 이름을 ‘세우’라고 불렀다고 적고 있어서, 이 설명이 더 일관성 있다. 『賢者喜宴』은 두 종류의 이름을 다 기록하여 “시후si hu 또는 가후ga hu라고 했다.”라고 적었다(Mkhas pa'i dga' ston, vol. 2, p. 1409).

³³⁵ 건국 설화이므로 이원호에 대한 설화로 볼 수 있으나 이계천을 서하의 건국자로 보기도 하므로 분명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새 왕조를 세웠고 오누이라는 성을 처음 사용했다는 기록으로 본다면 이는 이원호에 대한 설화라고 볼 수 있다. 이원호는 독립을 표방하며 당과 송으로부터 각각 받았던 이씨 성과 조씨 성을 버리고 외명嵬名이라는 성을 처음 채택했다.

³³⁶ GBT·GBC: rgyal brgyud; DMB·DMS: rgyal rgod. 『紅史』는 겐리rgyal rgod라고 적고 있고 『한장사집』 본문도 몇 줄 아래에서는 겐리라고 쓰고 있다. 겐리는 티베트 저작에서 서하 왕통을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호칭으로, 가괴rgya rgod로 표기되기도 했다. 스타인은 겐리 혹은 가괴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하 왕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보았다(R. A. Stein, pp. 223-265; “Nouveaux documents tibétains sur le Mi-niag/Si-hia”, *Mélanges de Sinologie offerts à Monsieur Paul Damiéville*, Paris: 1966, pp. 281-289). 앞에서 본 대로 군주에 대한 서하인들의 호칭이 오조 또는 올졸인 것을 고려하면 서하 당시에는 겐리와 올졸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두 단어는 발음이 전혀 달라 보이나 예를 들어 티베트어 뿌겐spu rgyal을 唐의 사료들이 솔발야牽拔野라고 적은 것을 보면 당시 ‘겐rgyal’이 ‘野’로 음사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nos wa,³³⁷ 티베트어로 “나쁜 마음의 산”³³⁸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황제의 스승이 되어 왕을 죽일 것이라는 말이 퍼졌다. 황제는 “그 산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를 죽이면 어떻습니까?”하고 타이후 tha'i hu³³⁹에게 물었으나 그는 佛心이 깊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제는 양주(byang ngos)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어 하주gha³⁴⁰ 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171> 그 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후에 발각되지 않고 고위 대신이 되어 메낙 꺄과rgyal rgod를³⁴¹ 죽였고

이원호 이후 여섯 번째 군주는 李安全이다. 서하 군주들의 계보를 한문 사료의 기록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李繼遷)-(李德明)-李元昊(r. 1038-1048)-李諒祚(r. 1048-1067)-李秉常(r. 1067-1086)-李乾順(r. 1086-1139)-李仁孝(r. 1139-1193)-李純佑(r. 1193-1206)-李安全(r. 1206-1211)-李遵頊(r. 1211-1223)-李德旺(r. 1223-1226)-李睭(r. 1226-1227).

³³⁷ 저자는 ‘시뇌와’라고 적고 있으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紅史』는 ‘시뇌샤si no'i zhwa’로 적고 있고 『한장사집』 저자도 아래에서는 ‘시뇌산’이라고 적고 있어서, 본 뜻은 한자어 산山이 섞인 ‘시뇌라는 이름의 산’인 것으로 보인다. GBT·GBC: si nos wa; DMB·DMS: si no'i zhwa.

³³⁸ GBT·GBC: sems nag po'i ri.

³³⁹ GBT·GBC·DMB·DMS: tha'i hu. 앞의 해제에서 본 대로 『賢者喜宴』은 타이후tha'i hu가 초대 군주로부터 5번째 황제이고 타이후의 아들이 ‘미낙 꺄과’였으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안 꺄과가 부친 타이후에게 시뇌산의 사람들을 모두 죽여도 되는지를 물었다고 썼다. 또한 이 타이후는 초대 까르마빠인 뒤숨 켄빠를 서하로 초청한 인물이다(*Mkhas pa'i dga' ston*, p. 722). 타이후라는 명칭은 한자에서 온 듯하나 구체적으로 기원을 알 수 없다. 타이후와 꺄과의 이 대화 내용은 『紅史』에도 실려 있는데 『紅史』日譯本은 타이후tha'i hu를 大夫라고 번역했고 申譯本은 음역하여 게후 신(格胡 神)이라고 번역했다.

³⁴⁰ GBT·GBC·DMB: gha; DMS: 'ga'.

³⁴¹ GBT·GBC·DMB·DMS: rgyal rgod. 꺄과가 어느 왕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元史』 태조본기에 태조 13년 칭기스칸이 서하 왕성을 포위하자 “서하 군주 이준옥李遵頊(r. 1211-1223)이 왕성을 벗어나 서량(즉 涼州)으로 도망쳤다(夏主李遵頊出走西涼, 『元史』 卷1, 「太祖本紀」)”고 적혀 있으므로 8대 군주 이준옥일 가능성이 있다. 엘리엇 스펠링도 이 꺄과를 이준옥이라 보았다(Elliot Sperling, 2004. 'Further Remarks Apropos of the 'Ba'-rom-pa and the Tanguts', *Acta Orientalia Hungaricae*, 52.1, 1-26). 그러나 『賢者喜宴』의 기록대로 황제의 부친이 살아 있었다면, 꺄과는 이덕왕李德王(r. 1223-1226)이고 그 부

이후 메낙의 왕통은 끊겼다.

후에 토지tho rdzi³⁴²라고 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지만 몽골hor의 칭기스jing gir³⁴³ 황제가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았으니,³⁴⁴ 메낙 황제의 命은 불이요, 칭기스 황

친(『賢者喜宴』의 타이후)은 몽골에 패한 후 아들에게 양위하고 서하 역사상 유일한 태상왕으로 남은 이준옥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양주에 대하여는 前田正名, 『河西の歴史地理学的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4, pp. 362-407; David Gray, “Tibet and the Continent in the Tenth to Thirteenth century”, Charles Orzech, Henrik Sorensen and Richard K. Payne, ed., *Esoteric Buddhism and Tantras in East Asia*, Leiden: Brill, 2011, pp. 451-455 참고.

³⁴² GBT·GBC: tho rdzi; DMB: thwo ji; DMS: tho ji.

³⁴³ GBT·GBC·DMB: jing gir; DMS: ji ging.

³⁴⁴ 『元史』를 비롯한 한문 저작에 기록된 서하의 마지막 왕은 이현李暉이다. 한 연구는 ‘暉’의 宋代 북방 발음이 ye였고 그 뜻이 金剛, 즉 티베트어 도르지라고 주장한다(盧梅 · 聶鴻音, 「藏文史籍中的木雅諸王考」, 『民族研究』 1996, vol. 5, pp. 66-67). 한편 『몽골비사』는 서하 멸망시의 왕은 일로코 보르칸이며 칭기스칸은 그가 귀부하러 왔을 때 그에게 시도로고(정직한의 의미)라는 이름을 주었으나 곧 그를 죽였다고 적었다(유원수 역, 『몽골비사』, 사계절, 2003, p. 282). 일로보 코르칸이라는 이름에 대해 유원수는 村上正二의 의견을 따라 이는 이안전이며 이름의 뜻은 本初佛을 의미한다고 적었다(유원수 역, p. 255). 14세기(1341) 釋念常이 편찬한 『佛祖歷代通載』도 역시 시두르쿠에 대한 기사를 실고 있는데 즉 서하 군주 탁발 시두르쿠(拓跋 失都兒忽)는 乾順의 小子인 仁友의 아들이며 仁宗(즉 李仁孝, r. 1139-1193)의 조카로, 병인년(즉 1206)에 즉위하여 6년간 재위했다고 적었다. 이 기록은 이원호로부터 시작하면 제7대 군주인 이안전 李安全(r. 1206-1211)과 계보, 즉위, 재위 기간 등 모든 정보가 일치한다. 즉 칭기스 칸이 처음 침입하여 항복을 받아내고 이름을 하사한 시두르쿠는 이안전이고 서하가 최후로 멸망할 때의 군주인 토지는 이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17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황금사』는 서하의 마지막 군주는 시두르쿠 칸이라고 적고 있고(김장구, 2014, pp. 68-76) 1819년 완성된 『蒙古佛教史』는 그가 서하 제9대 왕인 도르제 丕rdo rje dpal이었고 몽골어로는 토지 혹은 시두르쿠였다고 적었으며(耶喜巴勒登 著, 蘇魯格 譯註, 『蒙古政教史』, 民族出版社, 1989, p. 10). 1835년 완성된 『蒙古政教史』도 역시 그를 따르고 있는데(耶喜巴勒登 著, 蘇魯格 譯註, 『蒙古政教史』, 民族出版社, 1989, p. 16) 이는 칭기스 칸의 첫 침입 시기의 군주 시두르쿠와 마지막 군주 토지를 혼동한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제의 命은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칭기스 황제와] 맞서 싸울 수 없는 것이었다.³⁴⁵

서하 겐괴 황제의 환생은 몽골 황제 쿠텐rgyal po go dan³⁴⁶이다. 그는 양주에 이르자, 이전에 겐괴 황제가 살해된 곳에 사원을 하나 세우고 그를 죽인 자의 일족을 멸했다.³⁴⁷ 계겐³⁴⁸ 황제에게 해를 입힌 치긴 테무르chi gin the mur³⁴⁹도 시뇌산³⁵⁰

³⁴⁵ 이 문장은 『紅史』와 『알룬 조오 교법사』에도 똑같이 실려 있으며 한문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서하 장의 내용을 쯔쨈 세랍 예세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한 것에서, 이 평가는 쯔쨈 즉 禪師의 의견일 것이다. 한편 五德終始說에서 서하 왕조는 金으로 알려져 있다 (王炯·彭向前, 「“五德終始說”視野下的“大白高國”」, 『青海民族學院學報(社會科學版)』, vol. 35 no.3, 2009; 楊浣, p. 23).

³⁴⁶ GBT·GBC: ga don; DMB·DMS: go dan. 티베트어 “겐뽀rgyal po”는 군주를, “겐부rgyal bu”는 왕자를 뜻한다. 칭기스 칸이나 쿠빌라이는 “겐뽀”이며 훌레구는 “겐부”인 것이다. 그런데 쿠텐을 겐뽀라고 적는 것은 후대 사가派 사료들의 특징이다. 이 기사의 원본임이 분명한 내용이 첼파 소속의 편가 도르제의 『紅史』에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왕자 쿠텐rgyal bu go dan”이라 적혀 있다. 몽골 제국의 멸망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의 사가 기록은 쿠텐을 그대로 왕자rgyal bu라고 하고 있으나 15세기부터는 유명한 아왕 편가 쇠남 등 사가 사료들이 같은 기사를 인용하면서도 쿠텐 황제라고 적고 있다(Ngag dbang kun dga' bsod nams, pp. 136-139; 『薩迦世系史』, pp. 88-90). 최초로 사가파의 권위를 인정하고 몽골에 대한 티베트의 복속을 요구한 쿠텐에 대해, 그의 명령에 권위를 신기 위해 그를 왕자가 아닌 황제로 기술했다. 『한장사집』의 저자 뽕조르 상뽕 역시 사가派의 승려였기 때문에 이를 따랐을 것이다. 팍모두파의 장췌 겐첸의 저작 『랑씨가족사』 등은 모두 쿠텐을 왕자rgyal bu라고 적었다.

³⁴⁷ 그런데 쿠빌라이는 1270년 팍빠의 관정灌頂을 받은 후 서하 황제의 옥새를 개조하여 그것을 쿠텐의 후손이 아니라 팍빠에게 주었다. “왕은 [팍빠에게] 다시 관정을 청하고 서하mi nyag 가괴 황제의 水晶印을 개조하여 六洲 水晶印으로 만들어 특별 성지'ja' sa과 함께 하사했다.” (Sa skya'i gdrung rabs chen mo, p. 212; 『薩迦世系史』 p. 140)

³⁴⁸ GBT·GBC·DMB·DMS: ge gan. 영종英宗 시대발라(r. 1320-1323)를 가리킨다. 1323년 남파南坡에서 살해되었다.

³⁴⁹ GBT·GBC·DMB·DMS: chi gin the mur. 『元史』의 赤因帖木兒로 보인다. 『元史』 표6 상 「재상표」 참고. 표에 따르면 그는 무종, 인종, 영종 3대에 걸쳐 평장정사를 지냈다. 黃潛의

에서 태어났다. 이상의 이야기는 메낙의 禪師 세랍 예세³⁵¹가 말한 것을 글로 적은 것이다. 그 이야기에 漢地의 군주 趙 태조³⁵² <172> 두 형제가 왕권을 잡고 난 후³⁵³ 시우si'u³⁵⁴ 황제가 흥기했고 시우 황제부터 메낙의 열 두 황제가 260년 동안 정권을 잡았으며³⁵⁵ 그 후 몽골에게 정권을 빼앗긴 것이 몇 가지 일화에 서술되어 있다.

『金華黃先生文集』의 바이주(拜住) 神道碑)에 그가 남파의 변을 공모한 기록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赤回帖木로 적혀있다(黃潛, 『金華黃先生文集』, 元鈔本, 卷二十四 續藁二十一, 「中書右丞相贈孚道志仁清忠一德功臣太師開府儀同三司上柱國追封鄆王諡文忠神道碑」, pp. 326a-326b).

³⁵⁰ GBT·GBC·DMB: gsi no'i shan; DMS: gsi no'i shwa.

³⁵¹ 세랍 예세에 대하여는 앞의 해설 참고. 『한장사집』 팍빠에 대한 장에는 쿠빌라이 즉위 이전 팍빠가 쿠빌라이와 머물다가 河州he ce'u 부근에서 계를 받는데 受戒에 참여한 인물 중 하나로 켄뵤 세예, 즉 켄뵤 세랍 예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GBT, p. 34. 『漢藏史集』, p. 180) 그가 『암도 政教史』의 세랍 예세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³⁵² GBT·GBC: ci'u tha'i dzung; DMB·DMS: ci'u tha'i dzu.

³⁵³ 태조 두 형제는 태조 趙匡胤(r. 960-976)과 태종 趙匡義(r. 976-997)를 가리킨다. 『한장사집』보다 앞서 나온 『紅史』와 『알룬 조오 교법사』에는 태조 형제 2인이 집정한지 30년 후에 라고 적혀 있다(DMB p. 28; *Yar lung*, p. 37).

³⁵⁴ GBT·GBC: si'u; DMB·DMS: si hu.

³⁵⁵ 일반적으로 이원호가 칭제한 1038년을 건국 연도로 하여 서하 왕조가 1227년까지 총 10대 약 190년간 존속했다고 보는데 이계천이 宋에 반기를 든 982년부터 계산하면 12대 246년이 된다. 260년에 맞추려면 968년을 건국 연도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이계천이 6세가 되던 해이며 그의 族叔이던 이광예가 서하 왕조의 전신이던 定難 절도사로 있던 때다.

이 메낙의 왕통을 적는 善業으로 인해

중생들이 雲회의 戰場에서

두려움 없는 용기를 얻고

모든 중생이 不動의 금강의 경지를 속히 성취하게 하소서!

吉祥!

Ⅲ. 法王 티베트 군주들의 역사

해설

티베트 장은 4개 장 중 가장 길며 상세하다.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초기의 역사
2. 불교 전흥기-토번 제국의 군주들의 역사

3. 불교 후흥기의 역사

먼저 뽕조르 상뽕은 티베트 인류의 기원에 대해 여러 문서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첫번째로 티베트인들도 역시 인도에서 전체 섬부주의 최초의 왕이라 말해지는 “모든 이에 의해 추대된 왕” 즉 “衆敬王”의 후예라고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Mahābhārata』를 인용하여, 그 중 敵惡(dgra ngan)이라는 자의 권속들이 적악을 피해 雪域 티베트로 와서 정착했다는 기사와, 또한 티베트에서 가장 일반적인 서사인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원승이가 타라 여신의 화신인 바위 마녀와 결합하여 태어난 자손들이 티베트 최초의 인류라는 기사들을 나란히 소개했다.

또한 저자는 『마하바라타Mahābhārata』 서사를 티베트 서사인 “하늘에서 내려온 나티 쩡뽕” 이야기와 붙여서 연결하고 있다. 즉 적악의 사촌 중 하나가 눈이 새처럼 덮이며 눈썹이 벽옥 색이었고 손가락이 붙어 있는 등 상서롭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니 왕이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대신들이 감히 죽이지 못하고 그를 상자 안에 넣고 갠지스 강에 던졌다는 것이다. 익숙한 서사대로 상자를 한 노인이 발견해 그를 키웠고 후에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된 아이가 도망쳐서 티베트에 이르렀는데 그를 목격한 목동들이 어깨에 태우고 돌아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으며 그가 “어깨 보좌 왕” 즉 나티 쩡뽕gnya' khri btsan po라고 했다.

나티 쩡뽕 이야기는 원래 티베트 최초 군주에 대한 뽕교도들의 서사이며 뽕조르 상뽕 역시 여기에 뽕교도들의 의견도 소개하면서 “그들은 나티 쩡뽕이 무rmu 줄과 깡rkyang 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라고 적고 나서, 어쨌든 이 나티 쩡뽕이 티베트 최초의 왕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에서 아이가 인도에서 온 설정임에도 목동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나?”고 물었을 때 아이가 인도가 아니라 하늘을 가리킨 것은 이전의 뽕교의 서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티베트인들의 유래를 인도의 왕과 연결시켜 불교적으로 채색하면서 불교 이전 티베트에 있던 설화도 부자연스럽게 이어붙였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군주라고 하는 나티 쩡뽀 이후의 초기 티베트 군주들과 송첸 감뽀에서 시작하는 토번 제국 시기 군주들의 이름, 그리고 관련된 인명과 지명, 연도는 저작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니, 본 역주는 앞에서 본 돈황 문서 중 하나인 P. T. 1288 *The Old Tibetan Annals*와 비교하였다. 이 문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티베트 역사 저작으로, 그 제목은 보이지 않으며 매해 쩡뽀의 여름 거주지, 겨울 거주지, 여름과 겨울 회의('dun ma)가 열린 장소, 누가 회의를 소집했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를 적고 쩡뽀나 비 등의 죽음을 기록한 문서다. 티송 데첸 시기까지만을 다루고 있는 한계가 있으나 이 시기까지의 일에 대하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겠다.³⁵⁶ 또한 각 쩡뽀 시기의 정황과 업적에 대하여도 역시 각주에서 티베트 군주들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라마 담빠 쇠남 겔첸 bla ma dam pa bsod nams rgyal mtshan(1312-1375)의 『왕통을 비추는 거울(rgyal rabs gsal ba'i me long)』과 비교했다.

저자는 알롱 왕조부터 토번 제국의 마지막 군주 랑 다르마의 역사까지를 상세히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것이며 비 불교적인 내용 예를 들면 송첸 감뽀가 네팔과 당의 공주를 취한 것도 역시 “有情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는 가뵤익창 만이 아니라 제국 시기 이후 티베트 사서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번 군주들의 정복 전쟁과 영토 확장에 대한 기록이 소략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³⁵⁷

군주들의 왕통 이외에 『한장사집』의 티베트 역사 기록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저자가 티베트의 물질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먼저 그는 찾잎이 처음 도입된 역사를 적었으니 즉, 뒤송 망뽀제'dus srong mang po rje(r. 676-704)가

³⁵⁶ Brandon Dotson & Guntra Hazod, 2010.

³⁵⁷ Robert Meyer, “Social silences and cultural shame in indigenous historiographies of Tibetan religions”, *History as a Challenge to Buddhism and Christianity*, eds. Elizabeth J Harris and John O'Grady, EOS Press, 2016, pp. 169-189.

몸이 아플 때 우연히 새 한 마리가 물고 온 처음 보는 잎을 맛보았는데 이것이 병 치료에 효과가 있었으므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 잎을 찾아오게 했다고 했다. 이에 충성심 강한 대신이 漢地와의 경계 지역에서 이 나무를 발견해 사슴 등에 싣고 왔으며 황제는 이 나무의 잎을 달여 먹고 병이 나았다는 것이다. 역사라기보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기록은 티베트에서 처음에 차를 최고 계층이 향유했다는 점과, 보통의 음료수라기보다 약용으로 도입되었던 것, 그리고 그 잎을 구한 것이 티베트와 漢地의 경계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본 대로, 이 기록들은 티베트의 차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일차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도자기 제조를 시작한 것도 이 차를 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唐에 요청해 티베트에 초대되어 온 장인이 만들었다는 것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刀劍의 역사에 대한 기록 역시 가장 선구적이면서 후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검은 활과 함께 티베트에서 7세기경부터 20세기초까지 가장 기본적인 무기였다. 『新唐書』는 토번인에 대한 설명에서 “다수가 칼과 활을 차고 다닌다”고 적고 있어서,³⁵⁸ 토번 제국 시기에 도검이 이미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활보다 도검을 상세히 소개한 것은 도검의 제조는 고도의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이다. 티베트에서 최초로 그 시신이 땅에 남았다고 하는 왕의 이름에 검(“gri”)이 들어가고 그가 자신의 검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줄을 끊어 버렸다는 서사가 티베트 왕통을 서술하는 저작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것도 토번 제국 이전부터 티베트인들이 검에 대해 가졌던 관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티베트의 도검은 그 실용적인 기능 외에도, 그 품질이나 장식의 종류에 따라 지위와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동부의 캄 지역에서는 도검이 남성 착장의 일부이기도 하다. 또한 도검은 티베트 불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정신적 무지를 베는 지혜의 검(shes rab ral gri) 같은 것이 있다.³⁵⁹

³⁵⁸ “多佩弓刀.” 『新唐書』, 「吐蕃」, p. 250.

³⁵⁹ 티베트의 도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Donald Larocca, *Warriors of the Himalayas*:

뵐조르 상뵐은 “이전에는 티베트에 검의 이용과 분류를 문서로 쓴 것이 없었다.”고 하고 그러므로 “내가 학자들의 좋은 말을 잘 분석하여 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글로 쓸 것”이라고 자신있게 기술했다. 저자의 말대로 『한장사집』 이전에 도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약 1세기 뒤인 1524년 따쉬 남궐(bya ‘jam dbyangs bkra shis rnam rgyal)이 『세상의 관행에 대한 논서(‘jig rten lugs kyi bstan bcos las dpyad don gsal ba’i sgron me)』라는 글을 써서 무기를 비롯한 여러 물건들을 감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안에 보석의 감정법이나 차, 도자기, 검 감정법을 썼다. 뵐조르 상뵐이 자랑스럽게 “도검에 대한 기록은 내가 처음”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자신 있는 논조는 앞에서 그가 불교사를 서술할 때 “인도의 왕통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했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며 뵐조르 상뵐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의약에 대한 내용은 티베트 의학서 중 가장 유명한 『四部醫典(rgyud bzhi)』과 유사하다. 『四部醫典』의 티베트어 제목은 “bdud rtsi snying po yan lag brgyad pa gsang ba man ngag gi rgyud (甘露의 여덟 支에 대한 비밀 口訣의 精粹 탄트라)”이다. 8세기 초 유평 오펜 궐뵐 닝마(yu thog yon tan mgon po rnying ma, 708-833?)가 여러 의학 서적과 동시대 의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했다고 하며 또한 이것을 후대의 또다른 유평 오펜 궐뵐(yu thog yon tan mgon po, 1138-1213)가 보완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8세기의 유평은 전설상의 인물이라고 보기도 한다. 책 제목은 일반적으로 짧게 『규쉬rgyud bzhi』라고 부르는데 「根本醫典」, 「論說醫典」, 「秘訣醫典」(혹은 「要訣醫典」), 그리고 「後續醫典」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체액’으로서 風(rlung), 담즙(‘khris), 점액(bad kan)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 가지의 균형이 깨져서 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티베트 의학은 토번 제국 시기 중국과 인도는 물론, 그리스 의학의 영향까지 받았다

Rediscovering the Arms and Armor of Tibet,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2006 참고.

고 한다.³⁶⁰ 몽골과 티베트의 공식적인 첫 접촉에서 제왕 쿠텐이 사가 빠디파를 신뢰하게 된 계기가 쿠텐의 병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티베트 의학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며 티베트 의학은 이후 사원의 강원에서 五明學의 하나로 의학 교육이 이루어졌고 몽골에도 전파되었다.³⁶¹ 지금까지도 티베트 의학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도 티베트 의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³⁶²

저자는 티베트 의학에 대하여 인도인과 漢人, 투르크gru gu에서 온 인물, 톰 khrom(한문 사료의 拂菻)에서 온 인물 등이 각각 의학서적을 번역했다고 하고 또한 도검에 대하여도 漢地의 여성이 제조한 상마zhang ma 라는 검, 몽골인들이 만든 후페hu phe라는 검, 변경인들이 만든 속뽕sog po라는 검 등이 있다고 기술하여, 티베트의 지식과 물질 문화가 여러 문명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차, 도자기, 도검, 의약에 대한 기술은 당시에는 물론 후대에도 티베트 저작에서 보기 드문 주제이며,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15세기 티베트인들의 생활을 일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사가파의居士이며 문서 관리자였던 저자가 다양한 문서들을 모아 자신있게 소개한 장이

³⁶⁰ 관련 내용은 Ronit Yoeli Tlalim, “Revisiting Galen in Tibet”, *Medical History*, 56:3, 2012, pp. 355-365 참고.

³⁶¹ 티베트 의학이 전해지면서 의학서도 몽골어로 번역되었는데, 먼저 『四部醫典(rgyud bzhi)』이 번역되고 다음으로 『醫藥月帝(sman dpyad zla ba'i rgyal po)』가 Sumaraza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보급되었다. 태아의 발육, 인체 해부, 진단, 병의 원인, 음식과 약물, 치료술 등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을 寒, 熱 두 성질로 나누었다. 관련 내용은 策·財吉拉胡, 「蒙藏兩民族文化交流中的藏醫古文獻」, 『中國藏學』, 1997-4, pp. 89-95 참고.

³⁶² 張恩英, 尹暢烈 「티벳의학에 對한 研究-《四部醫典·根本醫典》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金圭滿, 「藏醫學의 學術思想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양승규, 「불교의학과 사상의학의 체질적 양생론(養生論) 연구」, 『淨土學研究』, 2013, vol. 19, pp. 367-400 등이 있다.

지만 『한장사집』의 이러한 특수성은 한편으로 정신적이고 불교적인 것을 높이는 티베트 저작 문화를 고려할 때 오히려 외면 받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³⁶³ 뵤조르 상뵤의 茶와 도자기, 의약, 도검에 대한 기록들이 후에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더 상세히 연구되기를 바란다.

法王 티베트 군주들의 역사

관세음보살(lo ki shwa ra)³⁶⁴에게 예경합니다

연민으로 중생의 큰 고통을

연민의 눈(spyan)으로 하찮게 여기지 않고³⁶⁵

³⁶³ 金鵬飛, 「《漢藏史集》長期未引起足夠重視的認識和分析」, 『學理論』, 2014, p. 113.

³⁶⁴ 산스크리트어 Lokeśvara의 음사.

³⁶⁵ ras su ma <nor> [bor] ba.

연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므로(gzigs pa yis)³⁶⁶

관세음보살에게 예경합니다.

그 분들은 이 雪域 淨土 티베트에서

그의 <173> 化身으로 하여금 인류를 번창하게 하시니,

그들의 보호주로 석가의 왕통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의 역사³⁶⁷

티베트인의 출현

티베트의 왕통도 인도 衆敬王³⁶⁸ 으로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니, 샤까 첸뽀 shAkya chen po,³⁶⁹ 샤까 리닥빠shAkya ri brag pa, 샤까 리짜지shAkya li tsa byi³⁷⁰ 셋으로 나뉘었다. 그 중 리닥빠는 팍꺈'phags rgyal³⁷¹의 땅에 있었는데 거

³⁶⁶ 관세음보살은 티베트어로 “ჟჳლჳსჳჳ spyan ras gzigs”이며 이 시는 그 뜻을 풀이하고 있다.

³⁶⁷ 이하 각 분절은 역주자.

³⁶⁸ rje mang pos bkur ba. “모든 이가 존경하는 왕”. 뽀조르 상뽀는 이 저작의 맨 앞에서 인도의 첫번째 왕인 중경왕이 모든 인류 최초의 왕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티베트의 왕통도”라고 한 것이다. 티베트의 지배 집단이 인도에서 시작되었다는 불교적 서사를 보여 주고 있다.

³⁶⁹ Skt. Mahā-Śākya 혹은 Aranemi.

³⁷⁰ Skt. Śākya Licchavi를 가리킴.

기서 輪轉王(rtsibs kyi mu khyud mtha' yas)이라는 왕이 났고 그의 아들은 猛光王(gtum po rab snang)³⁷²이었는데 석가모니와 같은 때에 태어났다고 한다. 맹광왕의 후예 중에 護獅王(skyabs seng)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티베트의 군주가 되었다.³⁷³

이전의 각종 사적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처음 티베트 지방에는 인류가 없었고 非人(mi ma yin)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시빠채 칸제srid pa cha'i mkhan rje³⁷⁴가 통치했다. 이후에 순서대로 무제 꺄뽀rmu rje btsan po, 여 마귀 마따루따 bdud mo ma tra ru tra, 남 마귀 <174> 약샤 데와bdud po yak+Sha de ba, 용왕(龍王) 강빠klu rgyal gang pa가 통치했다. 그 때 서방 극락 세계에 무량광불(無量光佛, sangs rgyas 'od dpag tu med pa)의 권속 중에 보살 중 가장 존승한 성자 관세음보살이 있었다. 무량광불이 관세음보살에게 “동방의 사바 세계 남섬부주³⁷⁵라는 곳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한 여래께서 주하시는데, 그는 열반을 받아들였다.

³⁷¹ Skt. Ujjayinī.

³⁷² Caṇḍa-Pradyota. 난폭했으나 후에 붓다에 의해 순해졌다고 하는 왕.

³⁷³ 룡강왕, 맹광왕, 호사왕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며 이 단락은 티베트의 기원에 대한 여러 설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이다. 이들 호사왕(『마하바라타Mahābhārata』의 판두Pāṇḍu)과 그 아들 유디슈트라Yudhiṣṭhira에 대한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이어진다.

³⁷⁴ 꺄뽀가 도르제의 『紅史』도 같은 문장을 싣고 있는데 편집본 중 라싸본은 이 구절을 『한장사집』과 똑같이 적었으나 씨킴본은 “시빠치이 왕제sri pa phyi'i dbang rje"라고 적고 있다. 이 표기를 바탕으로 번역하여 『紅史』일역본은 “많은 非人으로서 두루 퍼져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지배했다”고 번역했다(稻葉正就, 佐藤 長 譯, 『フウランテプテル』, 法藏館, 1964, p. 89). 중역본은 라싸 편집본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시빠채 칸제를 그대로 음사했다(陳慶英, 周潤年 譯, 『紅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p. 27).

³⁷⁵ 산스크리트어 Jambudvīpa 즉 '잡부 洲'의 티베트어 음역과 의역이 합쳐진 단어. 한문 瞻部洲. 구사론에 의하면 세계는 동서남북에 네 대륙(四洲)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남쪽에 있는 섬부주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 네 개의 대륙은 각각 두 개의 中洲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雪域³⁷⁶ 티베트 지방의 有情들에게 說法이 있던 적이 없으니 저 여래의 의도는 성취되지 않았다. 내가 가서 간청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성자[관세음보살]가 석가모니 세존에게 이르러서 설역 티베트의 유정 중생들을 위해 법륜을 - 88a- <175> 굴릴 것을 청했다. 또한 말하기를 “그와 같이 한 후에 당신의 의도는 원만히 성취됩니다.” 라고 하였다.

석가모니 세존이 대답하기를 “선남자여! 설역의 이 유정 중생들은 교화하기 매우 어려우며 지금은 성숙시킬 수 없다. 미래에 그대와 같은 보살이 그들을 교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관세음보살이] 즉시 극락세계(bde ba can)로 돌아가 석가모니가 말한 것을 무량광불에게 고하자 무량광불이 “선남자여! 그렇다면 그대가 설역의 흉폭한 유정들을 四攝事(bsdu ba rnam bzhi)³⁷⁷로써 교화하여 마침내 이 극락세계 내 앞으로 이끌어 오라!”라고 명하였다.

그 후 대자대비한 성자 관세음보살이 두려움 없는 세계 <176> 남섬부주에 와서 포탈라po ta la 산 꼭대기에서 북쪽을 보고 설역 유정 중생을 이끌 방법을 생각했다. 晝夜六時の 관찰을 통해 이 雪域이 남섬부주의 다섯 혹은 아홉 지역 중 가장 열악한 지방인 것과, 부처님의 발길이 이르지 않은 것, 說法의 빛이 비치지 않고, 가르침이 없으며 교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암흑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다. 티베트 상부³⁷⁸ 3개 지방은 눈과 먼지로 둘러싸여 마치 호수 같았고 양과 사슴 등이 장악했으며 티베트 중부 3개 지방은 바위와 초지로 인해 수로 같았으며 원숭이와 바위 마녀(brag srin ma)에 의해 점거되어 있었다. 티베트 하부 3개 지방은 풀밭과 숲으로 가득 차 있어서 평탄한 밭 같았고 코끼리와 새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인간

³⁷⁶ kha ba can. 때로 gangs can. “눈이 있는 곳”, “눈으로 덮인 곳”의 의미. 티베트에 대한 별칭.

³⁷⁷ Samgrahavastūni. 보살이 중생을 불도로 이끌기 위한 네가지 방법. ①布施攝 ②愛語攝 ③利行攝 ④同事攝. “sdud ba dngos po bzhi”고도 한다. Mahāvvyutpatti no. 924.

³⁷⁸ <stong> [stod].

은 없고 -89a- <177> 교화의 시기에도 이르지 못했다.³⁷⁹

그는 法器³⁸⁰가 없는 설역 지방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먼저 사람으로 변한 화신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때 관세음보살 앞에 할루만다ha lu man+da³⁸¹라고 하는 원숭이 力士가 나타났다. [보살이] “그대는 설역에서 수련할 수 있는가?” 하니 원숭이가 대답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관세음보살이 그에게 재가자의 5계³⁸² 및 不淨觀(aśubhabhāvanā)³⁸³ 법의 훈련을 주신 후에 그를 보냈다.³⁸⁴ 이 원숭이가 설역 티베트 중부의 한 큰 바위 위에서 수행을 하는데 바위의 여자 정령(brag srin mo)이 매일 나타나 청정하지 않은 여러 탐욕행을 보이며 또한 그 앞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7일 동안 바위 여자 정령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8일째에는 美婦人으로 나타났다고도 한다- 원숭이의 자비심은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으나 계율을 위반하는 것 또한 할 수 없었으므로 -89b- <178> 관세음보살에게 가서 이 일을 여쭙었다. 관세음보살과 타라 여신sgrol ma이 견해를 말

³⁷⁹ 인간이 정착하기 이전의 티베트 땅의 지형에 대해 여러 사료들은 티베트 중앙에 커다란 바다나 호수가 있었고 현재 존재하는 많은 호수들이 그 흔적이라고 보고 있다. 16세기의 역사가 빼마 까르뽀pad+ma dkar po는 세존이 “내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 눈의 땅(즉 티베트)에서 호수가 사라지고 사라수의 숲이 그 자리에서 자라날 것이다.”라고 예언했으며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 땅이 형성된 후에 관세음보살과 타라 여신께서 원숭이와 바위의 여자 정령의 모습을 취했다(R. A. 슈타인 지음, 안성두 옮김, 『티베트의 문화』, 무우수, 2004, p. 38).”는 것이다.

³⁸⁰ chos kyi snod. 佛法을 담을 그릇. 불도를 수행할 만한 이.

³⁸¹ 고대 인도 장편 서사시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원숭이 신의 이름. 하누만이라고도 한다.

³⁸² dge bsnyen gyi khrims lnga.

³⁸³ 욕체의 더러움을 관상하여 번뇌, 욕망을 없애는 觀法.

³⁸⁴ 관세음보살(spyan ras gzigs)은 티베트의 수호자로 여겨지며, 역대 달라이 라마들은 그의 화현이다.

하자 원숭이는 바위의 여자 정령과 결합하였다.³⁸⁵

아홉 달 혹은 열 달이 되자, 부모를 닮지 않고 털도 꼬리도 없는 자식이 태어났다-어떤 사람은 六趣³⁸⁶에서 전이하여 아들 여섯 명이 태어났고 이들이 각 趣의 習氣 (bag chags)를 가지고 태어났다고도 한다- 그는 생고기와 뜨거운 피를 몹시 좋아했다. 아버지가 그를 새들이 있는 숲(nags ma bya tshogs can)³⁸⁷의 원숭이 무리에게로 보내니 어미 원숭이들과 함께 갔으므로 1년 만에 그와 유사한 아이들이 4백으로 늘어났다. 그들 중 부친의 성향이 큰 자식들은 신앙과 지혜가 있고 자비롭고 근면하며 教法과 善業을 받들었으니, 대지혜 보살의 부류였다. 모친의 성향이 큰 이들은 고기와 피를 -90a- <179> 좋아하며 상업 이윤을 생각하고, 我執이 있고 집착하며 목소리가 크고 얼굴색이 일정함이 없으며,³⁸⁸ 다른 이의 잘못을 말하기 좋아하고 존경과 신심이 적고, 또한 경거망동하는 데다 다른 이를 돌보지 않으니 이들은 모두가 붉은 얼굴³⁸⁹의 육식종이 일어난 것이다.

³⁸⁵ 원숭이와 바위 마녀가 각각 관세음보살과 타라 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³⁸⁶ ‘gro ba rigs drug. 중생이 업에 의해 윤회하는 여섯 종의 세계, 즉 地獄, 餓鬼, 畜生, 菟羅, 人, 天. 六道라고도 한다.

³⁸⁷ 막연한 지칭이나 티베트 역사 서술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송첸 감뽀의 유언집이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11세기 고승 아티샤가 발견했다고 하는 『송첸 감뽀 遺訓(Bka’ chems Ka khol ma)』에서는 원숭이들이 정착하고 후손이 늘어난 곳을 “[yar-lung] rtsan[g] thang gi nags ma bya tshogs [can]”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곳은 분명히 짱뽕 강변, 알룽 계곡에 가까운 오늘날의 께탕rtse[d] thang (“[원숭이들이] 놀던 땅”의 뜻) 지역을 가리킨다(Per K. Sørensen, *The Mirror Illuminating the Royal Genealogies*,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1994, p. 130).

³⁸⁸ ngo mi rtag pa

³⁸⁹ gdong dmar. 티베트인들이 불교 이전의 티베트인들을 지칭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新唐書』는 티베트인들이 “붉은 색을 얼굴에 칠하는 것을 좋아한다(『新唐書』, 「吐蕃傳」, p. 252)”고 했다.

후대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설역 각지에 오곡('bru sna lnga)³⁹⁰과 금 등 각종 진보를 뿌려 加持하였다. 이와 같은 것을 누렸으므로 인류가 된 원숭이들이 점점 많아지니 -원숭이 무리 속에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아이 하나를 보내 법을 따르게 하였고 새끼 원숭이들도 사람의 몸으로 변한 것이라고도 한다- 곡식에 대해 불화가 일어나 네 집단으로 나뉘었으니 즉 세se, 무rmu, 동stong, 동ldong이고 이들은 4대 씨족(mi bu rus bzhi)이라고 불린다. 티베트인은 대다수가 이 4대 씨족에서부터 -90b<180> 퍼진 것이다.

원캄빠son khams pa 등은 말하기를 티베트 최초의 성씨는 라dbra, 두'bru, 동ldong 3성이고 거기에 가sga 씨가 더해져서 4성이며 다시 두 동생 왜dbas와 따rta까지 하여 티베트 6개 씨족이 생겨났다고 한다.³⁹¹ 그러나 관세음보살이 자비로써 명하여 원숭이와 바위 마녀가 결합하기 전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6대 씨족이라는 것도 또한 상술한 4대 씨족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일 뿐이다. 또한 세

³⁹⁰ 쇠남 겔첸(bsod nams rgyal mtshan, 1312-1375)의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보리, 밀, 콩, 메밀 그리고 껌질 벗긴 곡식 다섯 가지로 나열했다(Per K. Sørensen, p. 131). 다른 자료는 후손들이 “여름에는 비와 태양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 때문에 고통받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인 시조 원숭이가 자비심에서 그들에게 메밀, 대맥 등 여섯 가지 곡식을 주었다고 한다(R. A. 슈타인, 안성두 역, pp. 49-50). 즉 이는 알롱 계곡에서 초기 형태의 농업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³⁹¹ 이 책의 맨 앞에서 저자는 “티베트에 족계가 여섯 있었는데 그 중 첫번째는 마카슈약슈르의 공카라는 곳에 시빠srid pa의 아들 텅기thing gi라는 자에게 아들이 셋 났고, 그들이 漢人, 티베트인, 몽골인으로 나뉘었다. 그 중 티베트인 티도 첸빠 khri do chen po라고 하는 자에게 아들이 여섯 일어났으니 다dbra, 두'bru, 동ldong 셋에 가lga씨까지 넷, 동생 왜dbas, 다brda' 둘까지 여섯이다. ... 동ldong은 빠마레뽕pa ma le pang을 얻었고, 다dbra는 다모랍따dbra mo rab bkra를 얻었으며 두'bru는 두모툼툼'bru mo phrom phrom을 얻었다. 가lga는 가르마메뽕lga ma me po를 얻었고 왜dbas와 다brda'는 漢地와 티베트의 경계에 다다르공마 지역을 장악했다.”라고 적었는데 이것이 원캄빠라는 인물의 기록일 것이다. 원캄빠에 대하여는 알려진 것이 없다. 라dbra, 두'bru, 동ldong, 가lga, 왜dbas, 다brda'은 티베트의 주요 씨족들이나 여기 나타난 “빠마레뽕” 등의 지명은 실존하는 지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se, 쿵khyung, 다dbra씨와 무mu, 차tsha, 가lga씨의 후에 등을 설명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한 고사에 의하면 예전 인도에 持國天王³⁹²의 아들 敵惡³⁹³이라는 자가 형제 100명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護獅王(rgyal po skyabs seng)³⁹⁴의 아들 戰堅(g.yul ngor brtan pa)³⁹⁵ 형제와 싸웠는데 대부분 살해되고 전투는 처참히 패배했다. - 91a<181> 이때 敵惡의 부하 일부가 “죽이기 좋아하는 우리 주인의 신민이 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우리 설산 안으로 도망가자!”라고 하고 도망쳐서 티베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하며³⁹⁶ 그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량함을 유지했다고 한다.³⁹⁷ 그러나 이 고사는 이 사람들이 티베트 어느 지방에 위치했는지 후에는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티베트인과 씨족의

³⁹² rgyal po yul 'khor skyong. “나라를 지키는 왕.”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주요 등장 인물 중 하나로 산스크리트어로는 드리타라슈트라Dhṛtarāṣṭra. 쿠루Kuru 왕국을 다스린 눈먼 왕이다.

³⁹³ dgra ngan. “흉악한 적.” 산스크리트어 두료다나Duryodhana. 눈 먼 왕 드리타라슈트라³⁹²의 아들 백 명 중 장남이며 다음에 나오는 사촌 유디슈트라Yudhiṣṭhira(즉 戰堅王)와 쿠룩셰트라Kurukshetra를 갖춘 수단을 동원해 박해했으나 끝내 그들과의 전투에서 대패한다.

³⁹⁴ “사자를 보호하다”의 뜻. 드리타라슈트라³⁹²의 동생. 눈먼 형을 대신해 왕이 되었으나 사슴으로 변신한 성자를 죽이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 왕비와 함께 숲으로 들어가 살았다.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서 그의 이름은 판두Pāṇḍu이고 “노란, 창백한”의 의미이다.

³⁹⁵ “전쟁에서 확고한 자.” 산스크리트어 유디슈트라Yudhiṣṭhira. 판두의 장자로 네 명의 동생들과 함께 사촌들과 싸워 대승을 거둔다.

³⁹⁶ 드리타라슈트라왕이나 판두왕의 이야기, 두료다나 형제와 유디슈트라 형제간의 갈등과 전쟁에 대한 내용은 대 서사시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서사이며 위의 기술 내용은 정확하다. 그러나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는 두료다나의 부하들이 티베트로 도망쳐 갔다는 얘기는 없으며 이는 인도의 선조 설화에 티베트의 기원을 연결하려는 티베트 사가들의 노력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내용은 R. K. Narayan 편저, 김석희 역, 『마하바라타』, 서울: 아시아, 2014 참고.

³⁹⁷ 티베트 기원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원숭이와 바위 마녀의 결합이다.

최초는 위에서 서술한 4대 씨족인 것이 분명하다.

티베트인을 종류대로 나누면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예상 까르뽀ye sangs dkar po인데 모두 하늘의 밋줄을 가진 자들이며, 또 한 부류는 예민 낙뽀ye smon nag po이며 鐵鑄 반석(khro chu'i pha 'ong)과 같았다. 또 한 부류는 장턱 예세 sbyang khrig ye shes인데 천상의 밝은 등과 같았고 한 부류는 뽀중 낙뽀mon rdzung nag po인데 푸른 개꼬리를 가졌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한 -91b- <182> 이들은 그 수가 증가한 이후 티베트를 장악했는데, 순서대로 마상ma sangs 아홉 형제, 스물 다섯 小王(rgyal phran), 열 두 小王, 그리고 마흔 개의 지역 小王이 차례로 다스렸다고 한다.³⁹⁸

³⁹⁸ 토번 제국의 지배 집단의 기원에 대하여 다양한 설이 있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원숭이의 자손이라거나 『마하바라타Mahābhārata』 등장인물인 인도인의 후손이라는 주장은 티베트인의 기원을 불교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한문 사료들은 그들의 기원을 탁발인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둔황에서 발굴된 문서들도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록상 분명한 것은 알롱 계곡의 소 군주였던 딱리 낸식stag ri snyan gzigs이 딱제stag rtse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구디 싱뽀제dgu gri zing po rje라고 하는 강력한 봉건 영주의 가신들이 그의 지배에 불만을 가지고 딱리 낸식과 공모하여 싱뽀제를 몰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그가 죽고 그 아들이며 계승자인 남리 송젠(gnam ri srong btsan 혹은 남리 름젠gnam ri slon brtsan, 송젠 감뽀의 부친)과 다시 협상을 하게 되고 남리 송젠은 모든 공모자들로부터 협력의 맹세를 얻어내는데 그 맹세는 “우리는 싱뽀제zing po rje를 영원히 버릴 것이며 뿌궐spu rgyal 군주에게 충성할 것이다”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정복을 계속하고 나서도 이 신생국가는 “쨌뽀btsan po 뿌궐spu rgyal의 땅”이라고 불렸다. “쨌뽀”는 계속해서 토번 제국 군주에 대한 호칭이 되었다. 이후 남리 송젠은 정복을 계속하여 짱궐gtsang bod라고 알려진 서쪽 지역을 정복했으며 여기서 “뵈”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후기 티베트 사료에서 티베트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 되는 “뵈” 명칭의 최초 기록이 피정복지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즉 고대 명칭인 뵈는 원래는 단지 티베트 고원의 일부만을 가리킨 것이다.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은 Christopher I. Beckwith,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A History of the Struggle for Great Power among Tibetans, Turks, Arabs, and Chinese during the Early Middle Ag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p. 3-36 참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반박은 Leonardo W. J. van der Kuijp, “A Recent Contribution on the History of the

최초의 왕 나티 꺼뽕gnya' khri btsan po

神이 사람의 군주가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전술한 인도의 護獅王에게는 아들이 다섯 있었는데 가운데 아들이 눈이 새처럼 덮이며³⁹⁹ 눈썹이 벽옥 색이었고 손가락이 붙어 있었으며, 치아는 바다 소라 같았다. 왕이 “나쁜 징조이므로 그를 죽여라!”라고 했는데 대신들은 감히 무기로 죽이고 못하고 그를 뚜껑 있는 銅 상자 안에 넣고 못을 박아서 갠지스gang+gA 강에 던졌다. 양빠꺼yangs pa can⁴⁰⁰ 지방의 노인이 이것을 발견하고 그를 숲 속의 외딴 곳으로 데려가 치료했다. 새와 맹수, 사슴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주며 친절을 베풀고, 나무와 꽃도 그에게 절했다. 92a<183> 시간이 흐른 후 왕자가 “나의 환경은 어째서 이렇게 열악한가. 내 부모는 누구인가?”하고 말하니 “너는 네 부친이 흉조라고 여겨 강에 버렸는데 내가 발견했다.”는 등의 설명을 해 주었다.⁴⁰¹

Tibetan Empire”,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991, vol. 111, no.1, pp.94-107.

³⁹⁹ 눈꺼풀이 아래에서 위로 덮이는 것을 의미. 『왕통을 비추는 거울』에 조금 더 상세히 나와 있다(Per K. Sørensen, p. 526).

⁴⁰⁰ 갠지스 강변의 도시 바이샬리Vaiśālī에 대한 티벳어 이름. 붓다가 귀쉬나가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설법한 도시. 티베트에서는 라싸의 간덴 사원 안에 있는 절 이름이기도 하다.

⁴⁰¹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護獅王, 즉 판두의 아들은 차례로 유디슈트라Yudhiṣṭhira, 비마Bhīma, 아르주나Arjuna, 나쿨라Nakula 그리고 사하데바Sahadeva였다. 가운데 아들이라면 셋째인 아르주나를 가리킬 것이나 그는 지혜와 武勇을 겸비한 영웅으로 쿠룩셰트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후에 형제들과 함께 차례로 신들의 나라로 갔다. 한편 판두의 아들은 아니지만, 판두의 비이며 유디슈트라, 비마, 아르주나의 모친인 쿤티Kuntī가 태양신과 사이에서 낳은, 카르나(Karna)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쿤티는 그를 상자에 넣어 갠지스 강물에 띄워 보냈고 이를 한 마부가 물에서 끌어 올려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왕가에서 상서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강에 버린 아이가 구조되어 자라는 서사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므로 티베트인들이 카르나를 염두에 두고 만든 이야기

왕자는 설산으로 도망쳐 강토gyang mtho 神山の 성에 이르렀고 그 다음 차례로 도착하여 설역 중부 야르모나시yar mo sna bzhi 지방에서 神 야를라삼뽀yar la sham po⁴⁰²를 보고서 그곳으로 갔다. 석가모니가 나신 지 1356년이 지난 물-陽-개 해에 그는 공뽀gong po 神山の 꼭대기로 갔고 무 사다리rmu <skad> [skas]를⁴⁰³ 타고 내려가 쩌탕고시rtsan thang sgo bzhi⁴⁰⁴에 도착했다. 이 때 아감라새 a gam lha sras, 툽라원뽀thog lha dbon po 등 12명의 총명한 소년들이 거기서 방목하고 있다가 그를 만났다. 그들이 왕자에게 “그대는 누구인가?” 하고 물으니 그

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카르나는 후에 두료다나 편에 서서 자신의 同母弟들과 끝까지 싸웠다. 사촌간의 대 전투에 대하여는 R. K. Narayan 편저, 김석희 역, 『바하바라타』, 서울: 아시아, 2014 참고. 한편 『한장사집』보다 먼저 나온 『紅史』나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조금 다른 기술을 하고 있다. 『紅史』는 샤까 리닥빠의 후손 중 갑쟁skya bseng (호사왕의 이름인 skyabs seng과 철자가 조금 다르다)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에게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중 막내가 군대를 이끌고 여장을 하고 와서 티베트의 군주가 되었다고 했다(Tshal pa Kundga' rdo rje, *Deb ther dmar po*, Mi rigs dpe skrun khang, Lhasa, 1981, p. 89).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판두와 왕위를 겨루던 百軍王dماغ brgya pa (즉 Skt. Śātānika)이라는 왕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중 막내인 “루와 께ru ba skyes”가 왕의 자질을 타고 태어났으나 신의 예언에 따라 권력을 버리고 여장을 하고서 티베트로 왔다고 했다(Per K. Sørensen p. 138).

⁴⁰² 보통 “yar lha sham po”. 중앙 티베트의 알룬 계곡에 있는 산 이름이며 또한 티베트의 수호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하늘에서 최초의 티베트 지배자가 내려온 곳이라 믿어지며 따라서 규모가 큰 산은 아니지만 聖山 중의 하나다.

⁴⁰³ 이 사다리는 디굼 쨌뽀 시기까지 쨌뽀들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이다. 디굼 쨌뽀는 자신의 검으로 이 줄을 끊어 버리는 바람에 하늘로 가지 못했다. 뒤에 나오는 디굼 쨌뽀 기사 참고.

⁴⁰⁴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네 개의 문을 가진, 왕의 평원”의 뜻. 『왕통을 비추는 거울』에는 쨌탕 공마btsan thang gong ma. 이 장소에 대하여 9세기의 한 사료는 “그곳은 하늘의 중심, 땅의 중앙이며 나라의 심장부였다. 병하에 의해 둘러싸인 곳이고 모든 강의 수원인 곳, 높은 산과 순수한 대지, 멋진 지역이다. 현자들이 영웅으로 태어난 곳, 풍속이 완전한 곳이며 말이 빨리 자라는 곳이다”라고 적었다(R. A. 슈타인, 안성두 역, p. 44).

가 “꺄뽞btsan po⁴⁰⁵다.”하였고 또 묻기를 “어디에서 왔는가?”하니 <184> 왕자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매우 놀랍다.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꺄뽞이니 우리의 군주(jo bo)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그를 나무로 된 자리(khri)위에 앉히고 어꺄(gnya')로 태워 집으로 왔다. 그러므로 그를 냐티 꺄뽞gnya' khri btsan po라고 한다.⁴⁰⁶ 곧 목자들이 그들이 방목하던 지방에 움푸라카르 궁⁴⁰⁷을 세워 꺄뽞에게 바치니 이것이 최초의 궁이다.

이 왕이 인도에서 온 정황에 대하여는 여러 다른 설이 있는데 뵈교도bon po들은 (72) 그는 무 줄(rmu thag)과 깡 줄(rkyang thag)을 이용하여 티베트에 왔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모두 냐티 꺄뽞가 티베트 최초의 왕인 것에 동의한다. 냐티 꺄뽞는 숨빠gsum pa의 뵈뽞bem po, 알롱꺄a long rgyal을 정복했다.

그의 아들은 무티 꺄뽞mu khri btsan po이며 그 후예들은 순서대로 뎡티 꺄뽞deng khri btsan po, 소티 꺄뽞so khri btsan po, 다텐 꺄뽞da khri btsan po - 93a<185> 닥티 꺄뽞dhag khri btsan po, 십티 꺄뽞sribs khri btsan po이다. 이들 7명의 꺄뽞를 합쳐서 “하늘의 일곱 티khri 왕(gnam gyi khri bdun)”⁴⁰⁸이라고 한다. 이상의 왕들은 모두 빛이 나는 하늘 밧줄이 있었고 아들이 말을 탈 수 있게

⁴⁰⁵ 토번 제국의 군주에 대한 칭호이며 한문 사료에서 贊普. “강한 자”를 뜻하며 드물게 일반적으로 군주를 칭하는 “꺄뽞rgyal po”를 쓰기도 했다.

⁴⁰⁶ 냐티 꺄뽞gnya' khri btsan po는 “어꺄 보좌의 꺄뽞”를 의미하며 “알롱 왕조” 최초의 왕이라고 일컬어진다. 이전에 이 왕은 닥티 꺄뽞nyag khri btsan po라고 표기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 12명의 총명한 소년들이라고 기록된, 최초의 왕을 맞이한 이들은 다른 사료에서는 목동, 사냥꾼, 토착민, 12명의 소왕 혹은 12명의 뵈교 사제, 현자, 토호 등으로 나타난다. 냐티 꺄뽞가 하늘에서 하강했다는 기록으로부터 이것이 뵈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R. A. 슈타인, 안성두 역, p. 44; pp. 299-300).

⁴⁰⁷ yum phu bla mkhar. 주로 움부라캉 혹은 움부라강yum bu bla sgang이라고 적는다. 네동의 꺄탕 부근 알롱 계곡에 현존하는 건물. 티베트 최초의 궁성이라고 본다.

⁴⁰⁸ 즉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이름에 티khri가 들어가는 일곱 명의 왕.”

되면 부친은 하늘로 가버렸으니 시신이 없이 무지개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디굼 쨌뽕gri gum btsan po

십티 쨌뽕의 아들은 디굼 쨌뽕gri gum btsan po이다. 그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祖母 딱기라모까르모brtags kyi lha mo dkar mo⁴⁰⁹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기를 청했는데 조모가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 그 말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바람에 디굼 쨌뽕 같은 그런 이름을 지었다.⁴¹⁰ 디굼 쨌뽕의 아들은 샤티sha khri와 자티bya khri 냐티nya khri 셋이 있었다. 디굼 쨌뽕 이전에는 티베트에 도검(gri)이라는 말이 없었다. 디굼 쨌뽕 시기에 필신두phul zin du라고 하는 나쁜 땅에서 무심mu zim⁴¹¹ 형제 아홉 명이 검을 만들었는데 이를 티베트 구시dgu zi⁴¹² 검이라고 불렀다. 아홉 형제의 제자들이 아홉 부류로 퍼지니 티베트의 도검이 점점 많아졌다. -이 왕 재위시에 <186> 外道인 싱되빠shing gros pa, 속쌔빠srog zan pa, 덕깨빠dig skad pa 등 셋이 나타나서 공경의 대상이 되니 국정이 쇠퇴하고 티베트가 고통에 빠지고 젊은이들은 지혜의 善根을 얻지 못했으며 그들의 견해와 행동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이 때 왕이 신하 룡암 따지lo ngams rta rdzi⁴¹³라는 자에게 “그대가 나의 대결

⁴⁰⁹ “딱의 흰 여신”.

⁴¹⁰ “검(gri)에 의해 죽는 왕”의 뜻이다.

⁴¹¹ 티베트 검의 역사에서는 이들이 “믹심mig zim” 형제였다고 했다. 믹심은 실눈을 떴다는 뜻이다.

⁴¹² '구시'는 유명한 도검의 이름이다. 구dgu는 '9'를 뜻하는데, 아홉 형제가 만든 것을 나타낸다. 티베트 검에 대하여는 뒤에 나오는 “도검의 역사” 참고. 뒤에서는 아홉 형제가 살던 곳이 “시두zi ‘du”라고 했다.

⁴¹³ '룡암 지방의 말 키우는 자'를 뜻하므로 그가 말과 관련된 직무를 맡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디굼 쨌뽕을 이어 토번의 9대 쨌뽕이며, 위의 전승을 믿는다면 그는 토번 군주 중 유일

상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였다. 왕의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여러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여쭙었으나 듣지 않았으므로 낭룽찌왜nyang rong rtsi bas의 텔라첼thal la tshal⁴¹⁴에서 군주와 대신이 대결했다. 룡암 따지는 징조를 알아 내는 것을 잘 했다. 왕은 최고의 검인 구시dgu zi⁴¹⁵ 랑뽀나glang po na를 머리 위로 돌리면서 말을 달리다가 그만 하늘로 오르는 ‘무rmu’ 줄을 끊어버리니 신은 사라졌고 왕 자신은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의 시신은 銅棺 안에 넣어져 찌다ci mda’ 다리(橋)의 입구에서 냥nyang 강⁴¹⁶에 던져져 떠내려 갔다. 동관은 河曲部에 7일을 멈추어 있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흘러가] 총뒤구르모tshong dus mgur mo⁴¹⁷ 지방에 14일을 <187> 머물러 있었지만 역시 사람이 오지 않으니 콩추rkong chu 강 물결⁴¹⁸에 휩쓸려 갔다. 물의 괴물⁴¹⁹ 도르제 리모 rdo rje ri mo의 여종인 龍精(klu srin) 제마락링bye ma lag ring이 강에 고기를 놓아주러 갔다가 상자를 발견해 도르제 리모에게 바쳤

하게 나티 찌뽀의 혈통이 아니다.

⁴¹⁴ 캄의 낭룽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땅. 낭룽은 캄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북으로 까르제dkar mdzes와 남으로 리탕li thang 사이에 있다.

⁴¹⁵ 앞에서 말한 아홉 형제가 만든 검이다.

⁴¹⁶ 알룽 찌뽀의 지류 중 하나.

⁴¹⁷ “구르모의 시장”. tshong ‘dus mgur mo로 적기도 한다. 찡gtsang의 지명으로 보이거나 위치는 알 수 없다. 부틴 린첸둑(bu ston rin chen grub, 1290-1364)이 구족계를 받은 곳도 총뒤구르모의 사원(gtsug lag khang)이었다. 이 지명은 사료들에 가끔씩 등장하는데, 14세기 중반 티베트의 권력을 장악한 팍모두파의 장출 겐첸이 “법정”을 세운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 지명에 대하여는 Olaf Czaja, *Medieval Rule in Tibet: The Rlangs Clan and the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Ruling House of Phag Mo Gru Pa : With a Study of the Monastic Art of Gdan Sa Mthil*,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3, pp. 124-125 참조.

⁴¹⁸ <rlag> [rlabs]. 콩추 즉 콩 강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⁴¹⁹ ‘chu srin’. 산스크리트어 makara 혹은 patrana. 용이나 악어 등을 가리킨다.

고 [도르제 리모는] 이를 창고 안에 숨겨 두었다. 그것을 “상부stod의 두려움 snyengs”이라고 했다.⁴²⁰

부친이 살해되자 세 아들은 조상의 창고에 있던 백각신우(白角神牛, lha gla ru dkar)라고 하는, 날 수 있는 소 한 마리를 타고 꾱rkong⁴²¹ 지방으로 도망갔다. 그들의 모친은 룡암 따지의 말치기 노릇을 하게 되었고⁴²² 하나 있던 공주는 룡암의 처가 되었으며 [쌈부째구sham <du> [bu] rtse dgu 궁⁴²³을 비롯한 나라 전체가 룡암 따지 손에 들어갔다.]⁴²⁴ 어느 날 모친이 말을 먹이러 나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한 백색인과 교합하였고 꿈에서 깨니 백색 야크 한 마리가 머리 밑에 있다가 가버렸다.⁴²⁵ 그 후 여덟 달이 되자 모친은 주먹 만한 핏덩어리를 낳았는데 <188> 그것을 버리려 했으나 버리지 못 하였고 기르려 하였으나 입과 눈이 없었으며 떨고 있었다. 그것을 야생 야크의 뿔 속에 넣어두고 튼튼한 바지의 온기⁴²⁶로 덮히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한 남자 아이⁴²⁷가 나왔고 그 이름을 “현명한 아들

⁴²⁰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알 수 없는 물건이므로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⁴²¹ <rkong> [kong]. 티베트 동남부의 꾱뽕kong po 지방을 가리킨다.

⁴²² 왕비가 룡암 따지의 ‘따지’가 된 것을 말한다.

⁴²³ 삼부 꾱구는 산의 이름으로 다꾱 꾱뽕의 성이 있던 곳이며 현 간꾱rgyal rtse 시 서쪽에 위치해 있다. 몽골 제국 시기 사꾱파 측이 곳에 사원을 세우기 위해 몽골 조정에 사자를 보내 허락을 얻고 여기에 꾱첸rtse chen 사원을 세웠다. (Leovan der Kuijp, ““Bayši” and Bayši-s in Tibetan Historical, Biographical and Lexicographical Texts”, *Central Asiatic Journal*. vol. 39, 1995, p.295)

⁴²⁴ [] 안의 내용은 GBB에 없다.

⁴²⁵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이 야크가 야를라 꾱뽕yar lha sham po 산신의 화현이라고 했다. (Per K. Sørensen, p. 142)

⁴²⁶ <dros> [drod].

⁴²⁷ bu <khyi’u> [khye’u].

⁴²⁸ 루래께^{ru las skyes}⁴²⁹라고 하였다.

그가 10세가⁴³⁰ 되어 부친과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모친은 이전의 정황을 말해 주었다. 그는 “시신과 형제들을 찾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시신을 찾아 냈다. 그러나 받으려 해도 주지 않았고, 훔치려 해도 할 수 없었으므로 “사려고 하면 얼마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하니 답하기를 “닭해에 나서 새와 같은 눈을 가졌으며 나이는 16세인 한 인간 여성을 원한다.”고 하였다. 루래께는 찾고 또 찾아서 예g.ye 지방의 설산에 뿌르공^{spur gong}⁴³¹이라는 곳에서 [그에 맞는 여성을] 발견했다. 젊은 여성의 부친은 차르라레텐^{mtshar la re then}이라고 하고 모친은 깰라룽숨^{skyid la rung zhum}이라고 했으며 여성은 게우유메^{dge'u yu me}라고 했고 요구에 딱 맞았다. 그녀를 사겠다고 하자 처자의 부친은 딸 무게만큼의 금을 원한다고 했고 <189> 모친은 시신에 80개의 줄을 그을 것을 요구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자를 데려오고 시신을 찾아와서 공^{kong} 지역의 세모폭⁴³²에 능 하나를 만들었으나 부친의 시신은 이곳에 안장하지 않았다.⁴³³ 능을 세운 처음이 바로 이것이다.⁴³⁴

⁴²⁸. 여기에 “현명한<’jing gi> [’dzangs gyi] bu”이 들어간 것은 그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뒤에서 보듯 그는 “티베트의 일곱 현명한 대신” 중 첫번째가 된다.

⁴²⁹ “뿔에서 태어났다”는 뜻.

⁴³⁰ GBB: 12세.

⁴³¹ “시신의 위” 라는 뜻이다.

⁴³² se<n> mo phug. 공뽕 지역에 있는 지명.

⁴³³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기술이 더 간단하지만 루래께가 시신을 발견한 곳이 냥추까모 ^{nyang chu skya mo} 강이라고 적었다(Per K. Sørensen, p. 143)

⁴³⁴ 고대 티베트에서 묘는 돌을 쌓아 놓은 것이었고 편평한 지붕이 있는 사각형의 형태였다. 묘의상부에는塚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여러 나무를 심어 사원이나 희생 장소로 삼았다(R. A. 슈타인, p. 244). 송쨤 감뽕부터 티송 데쨤에 이르는 위대한 왕들의 묘는 연대기들에 그 위치와 외형, 묘의 명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장사집』 역시 뒤에서 관련 기록을 남기

그리고나서 [루래께는 세 형을 초청하러 갔다. 형 샤티sha khri는 꾡kong 지방의] 데나gre sna 지방에 있었고]⁴³⁵ 꾡제 까르뽀kong rje dkar po⁴³⁶라고 불리며 꾡뽀를 다스리고 있었다. 셋째 나티nya khri도 나췌 왕nya btsun rgyal po라고 불리며 닥뽀dwags po⁴³⁷ 지방의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⁴³⁸ 둘째 자티bya khri는 뿌오닥톡spu bo brag thog 지방에서 뿌데 궁궐<spo> [spu] de gung rgyal⁴³⁹이라고 불리며 뿌오<spo> [spu] bo 지방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루래께의 초대를 받아들여 [티베트의] 왕이 되었다. 그때 이래로 뿌궐 티베트 국(spu rgyal bod kyi yul)이라고 하는 이 호칭도 생겼다.⁴⁴⁰

이 후 디꾡 꾡뽀의 시신을 알룽으로 모셔오니 <190> 뵤교도 빠라spa ra의 아들 궐궐마오체kye rgyal sma bo che가 궐에 절하고나서, 점술사가 13년간 닫혀 있던

고 있다.

⁴³⁵ []부분은 GBB에 결락.

⁴³⁶ “꾡뽀의 백색 왕”의 뜻.

⁴³⁷ 라사 동남부에 있는 지역.

⁴³⁸ GBB는 여기에 ‘지금도 그 둘의 왕통이 많이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⁴³⁹ 일반적으로 spu lde gung rgyal.

⁴⁴⁰ 뿌궐spu rgyal은 “뿌spu의 왕”의 뜻으로, 이들 알룽 왕조의 지배층이 중앙 티베트 동남부의 뿌오spo bo 지역 출신임을 암시하고 있다. 뿌를 성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앞의 각주에서 짧게 언급한 대로 이들은 알룽 계곡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후에 티베트 고원 전체를 손에 넣고 이웃 국가들을 차례로 점령했다. 뿌궐의 선조와 그 후에 집단에 대한 기억 혹은 서사는 오늘날 티베트인들의 민족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 뿌궐spu rgyal은 『舊唐書』와 『新唐書』에 “窰勃野” “<勃悉> [悉勃] 野” 혹은 단지 “弗野” 등으로 음사되었다. 중세 이후 티베트어 발음으로 뿌궐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지만, “窰勃野”로 표기된 경우 첫번째 음절 “spu”의 ‘s’에 음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rgyal(현대 티베트어 발음 궐rgyal)”은 唐人들이 듣기에 당시의 중국어 발음 ‘野’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오데 뿌궐’o lde spu rgyal 혹은 오떼 뿌궐’o ste spu rgyal이라고도 하며 이는 『唐書』에 “鶻提<勃悉> [悉勃] 野”로 기록되었다(『新唐書』, 「吐蕃傳」, pp. 248-249)

동관을 열자 그 안에서 “아라라라nga ra ra ra!” 하는 소리가 났다. 그 때문에 이 지방을 아라탕nga ra thang⁴⁴¹이라고 했다. 후에 -84- 디굼 쩌뽀의 시신을 총개 ‘chong (=‘phyong) rgyas⁴⁴²의 당모당충grang mo rang chung⁴⁴³의 꼭대기에 숨겨두었는데⁴⁴⁴ 이 때 하늘에서 황금으로 된 가는 밧줄⁴⁴⁵이 나타나 그곳으로 스며들었으므로 이 땅을 일컬어 ‘남라 세르틱gnam la gser thig’⁴⁴⁶이라고 하였다.

이후 루래께는 낭로삼뽀nyang ro bsham po 성의 산 꼭대기에 이르러 독수리처럼 숨어 있다가⁴⁴⁷ 롱암 집안의 남녀노소를 모두 죽이고 삼뽀 성을 무너뜨렸다.⁴⁴⁸ 삼뽀 성보를 무너뜨려 왕성 칭아딱제‘phying nga stag rtse의⁴⁴⁹ 초석을 세우니 주변의 어린 사슴들이 다 사라졌다. 이에 대해 뿌데 궁궐 왕은 매우 기뻐하며 루래께

⁴⁴¹ 아라 소리가 난 (높은) 땅

⁴⁴² 총개는 중앙 티베트의 알룽 왕조의 수도 근처에 있는 계곡이며 왕들의 무덤이 세워진 곳이다. 쩌탕에서 27km 떨어진 곳에 있다.

⁴⁴³ 여러 사료에 다양하게 표기되는 지명이다. 알룽 계곡 위쪽의 산 이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 지명에 관해서는 Per K. Sørensen, p. 143 참고.

⁴⁴⁴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이 장소를 칭‘phying 지역의 다르탕dar thang이라고 했다.

⁴⁴⁵ gnam nas gser gyi thig gu.

⁴⁴⁶ ‘하늘에 황금 줄’의 뜻.

⁴⁴⁷ bya rgod kyi gsob tu zhugs nas.

⁴⁴⁸ 일부 기록들은 디굼의 자손들이 털에 독을 바른 개 한마리를 롱암에게 보내, 그가 독 묻은 개를 쓰다듬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

⁴⁴⁹ 칭아딱제는 칭와딱제‘phying ba stag rtse 등 다양한 표기로 나타나며, 총개에 있는 지역이다. 토번 제국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다. 뿌궐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쩌뽀의 궁성이 세워진 곳이고 또한 제국이 분열된 후 랑다르마의 아들 외승의 자손들이 이 곳을 다시 장악하여 거주했다. 총개와 칭와(혹은 칭아)가 같은 지역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Kuijp, 1991, p. 98).

의 이름을 쿠쿠 라부뽀상khu khu lha bu smon bzang⁴⁵⁰이라 하였다.

부친 디굼 쩌뽀 재위 시에 상승zhang zhung과 두샤bru sha⁴⁵¹의 빈교도들에 의해 신기두르gshin gyi 'dur 빈 교법이⁴⁵² <191> 일어났다. 아들 뿌데 궁궐 재위시에 둥<sbrung> [sgrung]과 데우<'debs> [lde'u] 교법이 일어나고 하늘 빈 쉰뽀체 gshen po che라는 것이 등장했다. 재상 루래계와 그의 아들 라우 고까르lha'u mgo dkar가⁴⁵³ 재상을 맡을 때 들소를 길들이고 물을 관개 수로로 끌어들이며 초지를 개간하여 농전으로 만들었다. 또한 목탄으로 돌을 녹여 금, 은, 동, 철 등을 추출해 냈으며 강에 다리를 놓았다. 디굼 쩌뽀의 시신을 먼지 산으로 옮겼으므로, “두 높은 왕steng gnyis⁴⁵⁴의 능을 각각 바위산과 먼지산에 세웠다”라고 한다.

뿌데 궁궐의 아들은 이솔렉i sho legs이고 그 후 후손들은 순서대로 데솔렉de sho legs, 테솔렉the sho legs, 고평렉go tu legs, 돔세를렉'brom zher legs 아솔렉a sho legs이며 땅의 여섯 렉(sa'i legs drug) 왕이라고 한다.⁴⁵⁵ 여섯 렉왕의 능은 먼지 산과 草地 사이에 있다.

아솔렉의 아들은 사남시데za nam zi lde이며 이후 후손들은 차례로 데틸남승뽀 lde 'phrul nam gzung can <192> 뉘남데snol nam lde, 뉘뽀데snol po lde, 데틸남lde snol nam, 데뉘뽀lde snol po, 데궐뽀lde rgyal po, 데뽀뽀lde sprin btsan 이었고, 이들을 중간의 여덟 데lde 왕이라고 한다. 중간의 여덟 데 왕의 능은 강

⁴⁵⁰ “숙부khu <khu> [gu] 天子lha bu 祈願賢者smon bzang”. 이 이름에 대하여는 孫林, 「西藏傳說時代의 “絶地天通” 事件與苯教的制度化」, 『西藏民族大學學報』, 2007, p. 5 참고.

⁴⁵¹ 현대의 길기트 지방.

⁴⁵² GBB는 여기에 “신두zin du 라는 땅에, 가라mga' Ra의 아홉 형제가 처서 만들었기 때문에 티베트의 아홉 검bod ral dgu zi와 아홉 모임rogs이 일어났다”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

⁴⁵³ 뒤에서는 이 이름을 라부 고까르lha bu mgo dkar라고 적었다.

⁴⁵⁴ 디굼 쩌뽀와 뿌데 궁궐.

⁴⁵⁵ 여섯 명의 이름에 모두 렉legs (좋은, 훌륭한)이 들어간다.

가운데에 세웠다.

데핀첸의 아들은 겔 포레롱첸rgyal to re long btsan이며 그의 재위 시에 대신은
틴미 덩뽀겔mthon mi 'bring po rgyal, 늑윈도레snubs rmon do re, 다르'dar의
아들 퉁다르첸stong 'dar chen 등이었다. 이 왕 이전에 각 왕은 모두 신과 용의
딸과 함께 살았고 정해진 왕비(btsun mo)⁴⁵⁶가 없었으며⁴⁵⁷ 그러므로 [비들의] 시신
이 땅에 남지 않았다. 그 왕 이후부터 신민이나 친척들과 통혼했다.

겔 포레롱첸 이후의 후예들은 순서대로 먼저 제티첸rje khri btsan⁴⁵⁸이었고 그의
재위시에 대신 (blon po) 늑나포레쭈로snubs gnya' to re gtsugs lo,⁴⁵⁹ 팍티 승된
캥stabs khri bzung mon kheng⁴⁶⁰이 재상을 맡았으며, [제티첸의 아들은] 제 티다
뽕첸rje khri sgra spungs btsan⁴⁶¹이고 大臣은 가르 티다지뽕mgar khri sgra ji
thun과 틴미 루망대뽕mthon mi klu mangs dras po가 맡았다. [그 아들] 제 티
톡제톡첸rje khri thog rje thog btsan <193> 때는 가르첸나돔부mgar btsan gnya'
ldom bu,⁴⁶² 늑께 톡제 로첸snubs skyes thog rje lo btsan이 大臣이었다. 이상은

⁴⁵⁶ 찼뽀의 비를 찼모btsun mo라고 한다. 『新唐書』 등이 “찼뽀의 처를 말몽末蒙이라고 하
다”라고 한 기록(『新唐書』, 「吐蕃傳」, p. 250)의 말몽은 朱蒙의 오기로 보인다. 『唐國史補』와
같은 책은 “西蕃呼贊普之妻爲朱蒙”이라고 올바르게 적었다(李肇(唐), 이상천 역주, 『唐國史補』,
서울: 학고방, 2006, p. 263).

⁴⁵⁷ btsun mo brten dgongs pa la ma 'tshal.

⁴⁵⁸ GBB: 제티 찼남rje khri btsan nam.

⁴⁵⁹ GBB: snubs gnya' to re gtsugs lo

⁴⁶⁰ GBB: rtabs khri bzung mong kheng.

⁴⁶¹ GBB: rje khri dgra dpung btsan

⁴⁶² 후에 찼뽀 뒤송 망뽀제 시기의 유명한 재상이자 장군인 가르 찼나돔부와 동명이인일 것
이다.

神이 사람의 군주를 맡은 것이며 27대에 이르고,⁴⁶³ 이 기간에 국정은 등sgrung, 데우<ldebs> [lde'u], 빈bon 세 가지로써 관할했다.⁴⁶⁴

라토토레넌쨌lha tho tho re snyan btsan

티 툽제툽쨌와 루용ru yongs 출신의 비 퉁가초stong rgya mtsho의 아들 라토토레 넌쨌lha tho tho re snyan btsan⁴⁶⁵은 티베트 왕 나티 쨌뽀 탄생 후 966년이 지난 불-陰-토끼 해에 태어나셨다. 이 왕들을 합쳐서 다섯 쨌(btsan lnga)이라고 한다. 이 왕의 대신은 티툽제쨌khri thog rje gtsug⁴⁶⁶과 당티송랜빠sbrang khri gzung lan pa⁴⁶⁷가 맡았다. 이 왕의 재위시에 구리 상자 하나가 하늘에서 움부라카르yum bu bla mkhar 궁 위로 떨어졌는데 그 안에 『百拜懺悔經(spang skong

⁴⁶³ 27대라는 것은 즉 나티 쨌뽀와 그 자손 6명을 합친 하늘에서 온 일곱 명의 티왕(gnam gyi khri bdun), 디굼 쨌뽀, 자티(뿌꺈), 뿌꺈의 후손 6명(여섯 명의 렉왕), 그 후손 “중간의 여덟 데lde왕”, 꺈 토폰쨌, 제티 쨌, 제 티다 뽕쨌, 제 티 툽제 툽쨌를 말한다. 룡암 따지는 디굼 쨌뽀 시해 후 실질적으로 군주가 되었으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⁴⁶⁴ 뽕조르 상뽀는 앞에서 뿌데 궁꺈 시기에 등<sbrung>[sgrung]과 데우<'debs> [lde'u] 교법이 일어나고 하늘 빈 쉌뽀체gshen po che라는 것이 등장했다고 했으며 송쨌 감뽀 시기에 대한 기록에도 등, 데우, 빈의 교법으로써 국정을 다스렸다고 적었다. “등sgrung”은 이야기를 뜻하며 데우lde'u는 수수께끼를 뜻한다. 데우는 때로 토번 군주들의 이름에 등장하는데, 즉 군주 이름의 “lde”가 때로 “lde'u” 표기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티송데쨌이 “khri srong lde'u btsan”으로 쓰일 때가 있다. 슈타인은 “27대에 걸친 전설적 왕의 시기 동안 왕국은 이야기꾼이나 수수께끼 음송자, 또는 빈교 의식의 힘을 통해 종교적 차원에서 보호되었거나 또는 지배되었다.”라고 하였다(R. A. 슈타인, 안성두 역, p. 55).

⁴⁶⁵ GBT는 라토토리이 넌쨌lha mtho do ri'i gnyen rtsa로 적었다. GBB를 따랐다. 일반적으로 라토토리넌쨌lha to to ri gnyen btsan으로도 쓴다. 저자는 뒤에서는 이 이름을 토토토리이 넌쨌tho tho ri'i snyan btsan이라고 적었다.

⁴⁶⁶ GBB: 티툽제쨌khri thog rje btsan.

⁴⁶⁷ GBB: sbrang khri bzung lan pa.

phyag brgya pa)』, 한 肘尺⁴⁶⁸ 높이의 금탑, 『莊嚴寶王經(mdo sde za ma tog bkod pa)』⁴⁶⁹, <194> 전단나무로 된 마니 다라니, 무드라(mu tra phyag rgya) 등이 들어 있었으며, “5대가 지난후 이것들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났다.⁴⁷⁰ -이 해는 티베트력 원숭이해였다-

이것이 경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기이한 물건이라고 여기고 궁전 꼭대기에 두고 신에게 올리는 음료와 푸른 옥 등을 바쳤다. 그랬더니 라토토레넌첸이 80세 이던 원숭이해부터 흰 머리가 검게 변하고 주름이 없어지며 신체가 변하면서 청년 같이 바뀌어 120세까지 살았다. 이 물건을 “넵췌 상와gnyan po gsang ba”⁴⁷¹라고 이름 붙이고 그는 “내 계승자들은 모두 넵췌 상와에 공양을 바치고 기도하라! 모든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이 때에 티베트에 수승한 법이 처음 시작된 것이며 이 왕은 보현보살의 화신이다. <195> 다섯 췌(btsan lnga) 이후로 능은 자신의 나라⁴⁷²에 세웠으며 나라의 이름은 칭룽의 아라탕⁴⁷³이었다. 능묘는 흙을 <sang> [sa] 쌓아서 모양이 천막 같고 봉분이 없었으며(phul med) 모양은 四方形이 아니었다고 한다.

⁴⁶⁸ 'khru gang pa.

⁴⁶⁹ ['phags pa] za ma tog bkod pa. 범어 Kāraṇḍavyūha Sūtra. 한문으로 莊嚴寶王經.

⁴⁷⁰ GBB는 구리 상자 일화 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적고 있다. “이 왕의 재위시에 인도에서 빠디따 학자 시리진si li byin이 (티베트에) 이르렀으나 티베트에는 문자와 번역을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손에 공양한 것에 기대어 rags sku'i rigs lnga cha gcig bzag하였고 그는 漢地rgya nag에 이르렀다.”

⁴⁷¹ “비밀스러운 넵췌”. 넵췌는 왕의 sku bla인 산의 정령을 말한다. 넵췌 상와라는 이름은 “넵췌 상와gnyen po gsang ba”로 적기도 하는데 이 때의 의미는 “비밀스러운 벗”을 뜻한다.

⁴⁷² yul. 나라 또는 지역의 뜻.

⁴⁷³ 'phying lung nga ra thang. GBB: 칭룽소라탕'phying lung so ra thang.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칭룽의 다르탕dar thang이라고 썼다(Per K. Sørensen, p. 151)

라토토레 낸쨌의 아들은 티넨송쨌⁴⁷⁴khri gnyan gzung btsan이며 대신은 배낭셰르다쨌⁴⁷⁵sbas snang gzher zla btsan과 가르티딩⁴⁷⁶mgar khri ‘bring이 맡았다. 티나송쨌의 묘는 된카르다⁴⁷⁷don mkhar mda’에 세웠으며 이 또한 봉분이 없이(phul med) 흙을 쌓아 평평하게 폼다.⁴⁷⁸

티넨송쨌의 아들은 도넨 데루⁴⁷⁹bro snyan lde ru이며 대신은 낙탕뽕양제⁴⁸⁰와 늑티다르레통뽕⁴⁸¹가 맡았다. 그의 아들은 딱리 낸식⁴⁸²stag ri gnyan gzigs이고 이 부자를 “중간의 꼭대기”⁴⁸³라고 부른다. 그들의 역사는, 도넨 데루가 침⁴⁸⁴mchims 출신 비 루겔앤부⁴⁸⁵klu rgyal ngan bu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의 음식에 대해 의심한 죄로 왕에게 용에게 생기는 병 찌치차마⁴⁸⁶가 발생하니 부부와 <196> 大臣 낙

⁴⁷⁴ GBT에 티나송쨌⁴⁷⁴khri gnya’ gzung btsan이라 했으나 GBB: 티넨송쨌⁴⁷⁴khri snyan bzung btsan이고 GBT도 뒤에서 티넨이라고 했으므로 티넨송쨌으로 적었다.

⁴⁷⁵ gnyag thang pang yang rje. GBB: sbas snang gzher zla btsan.

⁴⁷⁶ “phul med” 즉 phul이 없다는 구절은 토번 쨌뽕들의 능에 대한 서술에서 몇 번 반복되는데 뜻이 분명하지 않다. Phul은 명사로 쓰이면 용량의 단위이거나 꼭대기, 최고의 의미이며 동사로는 바치다, 헌상하다의 뜻이다. 중역본은 장식이 없다고 썼으나 근거가 없고 『왕통을 비추는 거울』이 구절이 빈출하는데 역자 쇠렌슨Per K. Sørensen은 이 구절 번역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계가 없고”로 번역했다(p. 151, 153). 그러나 이 문장에서 보듯 “phul med”는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흙을 쌓아 덮었으나 평평하게 폼 때문에 무덤의 윗부분 즉 봉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⁴⁷⁷ GBB: 낙탕뽕양제⁴⁷⁷gnyag thang pa yang rje.

⁴⁷⁸ snubs khri dar res thong po.

⁴⁷⁹ 딱부 낸식⁴⁷⁹stag bu gnyan gzigs이라고도 한다.

⁴⁸⁰ 토번 제국 마지막 왕인 랑 다르마는 ‘아래의 꼭대기’라고 불린다.

⁴⁸¹ 침⁴⁸¹mchims은 토번 제국 시기 유력 가문 중 하나이며 쨌뽕의妃 중 다수가 침 출신이었다. 침 지역의 중심지는 동부 닥뽕⁴⁸²dwags po의 꺾뽕⁴⁸³skyems stong 계곡이다.

⁴⁸² tsi tshi tsha ma. GBB: 찌찌자라⁴⁸²tsi tsi dzA la.

탕뽕양제 3인이 산 채로 무덤으로 들어가야 했다.⁴⁸³

그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태어난 후 눈이 멀었으므로 [이름을 맹인 (dmus long) 꺾빠따dkon pa bkra라고 했다].⁴⁸⁴ 부친이 유언하기를 “착한 마음은 황금과 같고 좋은 논이는 甘露와 같으니 들어야 한다. 나쁜 사람은 불과 같으니 제거해야 하고, 사람의 법(mi chos)을 이해하는 것에 의해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며 뉘뽕 상와를 공양해라. 토욕혼(‘a zha)⁴⁸⁵의 의사를 티베트에 [데리고 와서]⁴⁸⁶ 눈을 치료하라. 눈이 낫지 않는다면, 숨빠sum pa⁴⁸⁷의 땅에 한 뵤교도의 -87- 아내 겔모 가짚rgyal mo rgya lcam이라는 여성과 내가 일찍이 같이 밤을 보낸 후 숨리롱 뽕sum ri rong po⁴⁸⁸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으니 그를 불러라. 이복 형이니

⁴⁸³ 왕비의 이름 중 루꺾klu rgyal은 “龍王”을 말하며 비가 용의 가문 자손임을 나타낸다. 이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금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왕통을 비추는 거울rgyal rabs gsal ba'i me long』에 내용이 상세하다. 루꺾 앤부 妃가 쇠약해지자 고향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여 시녀가 가서 가져왔고 왕비는 이를 먹고 전과 같은 아름다움을 회복했다. 왕도 역시 이것을 먹어보려고 몰래 창고를 여니 그 음식은 버터에 삶은 개구리였으며 이를 본 왕은 문둥병에 걸렸다고(snyung du mdze) 한다(Per K. Sørensen, p. 152).

⁴⁸⁴ [] 부분은 GBT에 없다.

⁴⁸⁵ 토욕혼은 주로 쿠쿠노르 서부에 거주하고 있던 투르크계 민족이며 차이담 분지까지 세력을 넓혔다. 토번과 당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다. 티베트와 전쟁을 하기도 했으나 티베트 공주가 토욕혼 왕에게 시집을 가서 조카-외삼촌(사위-장인, dbon-zhang) 관계를 이루기도 했다.

⁴⁸⁶ GBT: 아샤의 의사를 티베트에서(bod la) GBB: 아샤의 의사를 불러서(bos la).

⁴⁸⁷ 한문 사료의 蘇毗. 토번 북부 청해성 남부 지역에 있던 투르크 계 집단. 송꺾 감뽕 시기 토번에 복속되었다. 하나의 루ru로 편성되었으며 숨빠 루의 중심지는 낙쇠 동부의 가데 rgya sde였다고 한다. 13개의 천호부stong sde로 구성되었다. 숨빠 루의 범위와 포함 지역들에 대하여는 Brandon Dotson & Guntrap Hazod, pp. 168-169 참고.

⁴⁸⁸ GBB: 숨링뽕sum ring po

⁴⁸⁹ 즉위시켜라.”라고 하였다. 도넨 데루의 무덤은 상다zhang mda’에 세웠다.

그 후 맹인 꺾빠따는 낸뽀 상와gnyan po gsang ba에 크게 공양했고 또한 토욕혼의 의사를 불러 움부라 궁 꼭대기에서 <197> 눈을 치료했는데 [그 직후] 끼쇠 skyid shod의 딱모stag mo 산 위에서 낸gnyan 사슴이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딱리 낸식stag ri gnyan gzigs”⁴⁹⁰이라 하고 왕으로 추대하였다. 딱리 낸식의 대신은 뽀티도레낭쨌mon khri do re snang btsan, 나남망냐sna nam mang gnya’, 당티송민빠sbrang khri gzung min pa 등이 맡았다. [도넨 데루와 딱리 낸식] 부자 사이에 왕위가 21일간 비어 있었다고 한다. 낸식의 묘는 뽀카르다don mkhar mda’ 지방에 세웠고 자리는 티낸khri gnyan 묘의 왼쪽 위에 있으며 또한 봉분이 없이 흙을 쌓아 펼친 모양이다.

남리 송쨌gnam ri srong btsan

그 왕의 아들은 남리송쨌gnam ri srong btsan이었으며⁴⁹¹ 그의 재위기에 배낭세르sbas snang bzher 와 체뽀낙세르tshe spong nag ser,⁴⁹² 냥쪼구 뽀팬아nyang rtso dgu snon phan lnga⁴⁹³ 등 세 명이 대신을 맡았다. 이 왕의 시기에 漢地에서 漢地의 점술과 육십 甲子를 세는 법과 의료, [음식의 이득과 해에 대한 이론이 들

⁴⁸⁹ gcen <cho pa> [chol].

⁴⁹⁰ “딱[모]산의 낸을 봄”의 뜻.

⁴⁹¹ 남리 뽀쨌gnam ri slon brtsan이라고도 한다.

⁴⁹² GBT: tshe spongs na ga nag ser

⁴⁹³ GBB: 냥쨌구뽀팬악nyang rtseng dgu snon ban sngags. GBT는 이 이름을 냥쪼구nyang rtso dgu와 뽀팬아 snon phan lnga 두 사람으로 나누었으나 그렇게 되면 대신이 총 네 명이 되므로 하나로 합쳐야 할 것이다.

어왔고⁴⁹⁴ 99b- 인도에서 12연기와 六日輪(nyi ma drug bskor) 등이 들어왔으니 이것이 티베트 최초의 의약과 역산이었다. 그러나 또한 당시 티베트에는 문자가 없었고 번역을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제 간에 구두로 전수할 뿐 이 지식은 널리 퍼질 수가 없었다.⁴⁹⁵ 이 티베트 왕은 일찍이 漢地(rgya)와 돌궐(gru gu)⁴⁹⁶을 정복하여 냥nyang, 뱌lbal, 뉘non 세 씨족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했다. 오래된 돌궐의 터키석(gru gu'i g.yu)을 18마리의 노새 등에 싣고 티베트 지방으로 가져온 것도 이 때라고 한다.

또한 티직불독khris rtsigs 'bum gdug이라는 王城을 홍색 소의 젖으로 진흙을 반죽하여 세웠다. 남리 송쨌은 맹인을⁴⁹⁷ 데리고 닥숨당마초brag gsum ding ma mtsho 호숫가에서 '모든 것을 아는 말'을 손에 넣어 자신이 탔다. 이를 당가보 sbrang dga' bo와 무뽀강링뽀rmu spun rgyang ring po라고 하는 두 명의 대力士로 하여금 끌게 했다. 또한 야크 무리 중에 텔카루링thal kha ru ring⁴⁹⁸이라고 하는 야생 야크를 죽였으며⁴⁹⁹ 북방에 퇴빠thod pa성을 세웠다. <199> 돌아오는 길에 야크의 고기를 말 안장에 실었는데 고기가 땅 위에 떨어진 곳에서 소금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 티벳에는 소량의 암염⁵⁰⁰ 뿐 식염(lan tshwa)은 이름도 없었는데 이때부터 북방의 식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⁵⁰¹ 소금을 60알의 청보리 단

⁴⁹⁴ GBB는 '漢地에서 算法과 의료가 전해졌지만 널리 퍼지지 않았다cher ma dar'고 적었다.

⁴⁹⁵ [] 사이의 문장은 GBB에 없다.

⁴⁹⁶ "gru gu" 혹은 "dru gu".

⁴⁹⁷ GBT: rmus te long pa. GBB: dmus te long ba. GBB를 따랐다.

⁴⁹⁸ "회색의 長角"의 뜻.

⁴⁹⁹ 야생 야크'brong와 죽였다bsad 사이에 "na le bong"은 의미를 알 수 없다.

⁵⁰⁰ btab tshwa.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 "땀Btab"은 "주다, 던지다, 심다"의 의미이며 "차 tshwa"는 "소금"이다.

⁵⁰¹ "이 이전에"부터 여기까지는 GBB에 없다.

위로 무게를 재는 방법이 나타났다.⁵⁰² 그의 능은 된카르다don mkhar mda' 지방에 세워졌고 봉분이 있게 지었으므로 삼각형sog<s> kha⁵⁰³ 모양으로 있다. 위치는 티넨송젠khri gnyan bzung btsan 묘의 오른쪽에 있다.

2. 불교 전흥기-토번 제국의 군주들의 역사

송젠 감뽀strong btsan sgam po(605-650; r. 617-650)⁵⁰⁴

⁵⁰² 이 문장 뒤에 GBB는 “그 후 티벳에 암염의 이름이 없어졌다”고 적었다.

⁵⁰³ “sog kha”는 원래 “어깨-뽀”를 뜻하며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삼각형을 가리킨다. 중역본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고 같은 문장이 들어 있는 『거울』 영역본은 알 수 없다고 했으며 『거울』 중역본은 역시 언급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phul이 봉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이 문장은 남리송젠 능이 봉분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모양이 삼각형으로 보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⁵⁰⁴ 알룬 왕조의 32대 군주이자 토번 제국의 첫번째 군주. 돈황의 연대기에는 단지 쯔뽀 티 송젠btsan po khri strong rtsan이라고 쓰여 있다. 『新唐書』에 “棄宗弄讚(즉 티 송젠khri strong btsan. 송젠 왕)” 혹은 짧게 “棄蘇農(즉 티 송khri strong. 송 왕)”이라고 기록되었다. 후에 그의 업적을 칭송하여 심오하다는 뜻의 “감뽀sgam po”를 덧붙여 송젠 감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송젠은 중앙 티베트의 알룬 계곡에 기반하여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세력을 키웠고 자신의 누이 새마르까르sad mar kar와 혼인한 서부 티베트의 상송 왕 립니하lig myi rhya를 정벌하면서 토번 제국의 기초를 세웠다. 또한 토욕혼('a zha)이 당 군대에 의해 쇠약해진 때를 틈타 638년 공격을 감행하여 토욕혼을 장악했다. 토번의 세력이 커지자 唐太宗(599-649)은 공주와의 혼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으며 문성 공주(d. 680)를 대량의 물품과 인력을 동반하여 시집보냈다. 송젠 감뽀와 문성 공주의 혼인은 티베트와 당의 정치, 문화적 만남의 상징으로 여겨지나 처음에 공주와 혼인하기로 한 인물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일치하지 않으며 처음에 송젠의 아들 궁송 궁젠gung strong gung btsan과 혼인하기로 하였으나 공주가 도착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는 바람에 송젠이 그녀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남리 송첸왕과 체뽕tshe spong 출신의 그의 비 디마퇴까르‘bri ma thod dkar 소생의 아들은 송첸strong btsan이다. 그는 선조 토토리이 뉘첸tho tho ri'i snyan btsan 출생 후 191년이 지난 불-陰-소해에 잠빠 민규르기링byams pa mi 'gyur gyi gling 궁⁵⁰⁵에서 태어났다. 열 세살이 되었을 때 부왕이 사망하니 바로 그 해에 즉위하여 69년 재위했다.⁵⁰⁶ 그는 바로 관세음보살이 친히 설역에 이른 것이며 <200> 티베트인을 교화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불법을 전해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시하였다. 이는 『無垢女神授記經』⁵⁰⁷과 『第一聖法續』⁵⁰⁸에서 예언한 그대로다.

“티베트에 열 네살 된 황제가⁵⁰⁹ 佛法에 따라 국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명성이 섬부주에 퍼지니 사방의 군주들이 특별한 예물과 서신을 보내왔는데 티베트의 황

일반적이다. 이른바 티베트 3 법왕(chos rgyal) 중 첫번째로 꼽히며 또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토번 제국 시기에 있었던 공적들이 소급하여 송첸의 공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⁵⁰⁵ 알룽 계곡에 위치한 남리 송첸 이래 찌뽕들의 궁. 일반적으로 조사 “기gyi”가 없이 “잠빠 민규르기링 byams pa mi 'gyur gling”이라고 적는다. 티베트 최초의 사원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타독khra 'brug 사원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 타독 사원은 여 마귀(srin mo)를 제압하기 위해 송첸 감뽕 때 세워졌다.

⁵⁰⁶ 토번 제국의 다른 찌뽕들과 마찬가지로 송첸 감뽕의 생몰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돈황의 연대기 The Old Tibetan Chronicles에 기반하여 정리하면 그는 605년에 태어나 열 세 살인 617년에 즉위하여 33년 재위 후 650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⁵⁰⁷ lha mo dri ma med pa'i lung bstan pa'i mdo. 주로 Lha mo dri ma med p a'i 'od lung bstan pa로 쓰인다. 이 경에 의하면 붓다의 열반 이후 2500년이 지나고 나서 붉은 얼굴을 가진 자들의 땅에 佛法이 흥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Gray Tuttle & Kurtis Schaeffer (ed.), The Tibetan History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p. 556).

⁵⁰⁸ dam pa dang po'i rgyud.

⁵⁰⁹ rgyal po를 송첸 감뽕 이후에는 당의 군주들과 마찬가지로 “황제”로 번역했다. 찌뽕 btsan po라고 티베트만의 호칭을 쓴 경우에는 그대로 찌뽕으로 두었다.

제는 답례할 재물은 있었으나 구두로 소식을 보낼 뿐 서신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티베트에도 반드시 문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툽미 아누라thon mi a nu ra⁵¹⁰의 총명한 아들 삼보라 미충sam bho ra mi chung(ca. 605-650)⁵¹¹에게 황금을 주어 인도에 가서 문자와 佛法을 배우도록 보냈다. 그는 학자 리진li byins을 만났는데⁵¹² <201> 리진이 말하기를 “나는 서로 다른 64 종류의 다른 문자를 알며⁵¹³ 그것을 大海⁵¹⁴ 변의 石碑에 새겼다.”라고 하고 [문자를] 보여준 후⁵¹⁵ [65a] “제자여, 그대는 이것들 중 어느 것을 배우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삼보라는] 이 티베트 문자 체계를 배웠고 번역도 또한 능숙하게 되었으며 『寶雲經(mdo dkon mchog sprin)』, 『拈花』, 『寶篋經呪(tog bzungs pa)』,⁵¹⁶ 『大悲白蓮花經(snying rje pad dkar)』 등을 가지고 티베트로 돌아왔다. 황제는 마음에 매우 기뻐하였다. 티베트 번역과 문자에 정통한 최초의 학자가 그다. -쿵뽀 유티khyung po g.yu khri가 지은 『티벳문 大綱(bod yig gi stong thun chen mo)』에서는 툽미가 가서

⁵¹⁰ GBB: 툽미 아누thon mi a nu

⁵¹¹ GBB: 삼보따 미누saM bho Ta mi nu. 즉 툽미 삼보따. “툽미mthon mi”는 “툽 사람”이라는 뜻이고 툽은 지명이면서 부족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툽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련 내용은 Chab spel Tshe brtan phun tshogs (ed.), *Bod kyi lo-rgyus rags-rim g. Yu yi phreng-ba*, (stod-cha), Bod-ljongs dpe-skrunkhang, Lhasa. 1989, pp. 153-155 참고. 툽미가 넬 남부 즉 로넬lho gnyal 출신이며 삼보따 혹은 삼보라라는 이름은 넬의 사부르뽀sa 'bur po 지방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삼보따는 티베트어화된 산스크리트어로 “좋은 티베트인”을 뜻한다고도 한다. 툽미의 출신과 이름의 뜻에 대하여는 Per K. Sørensen, pp. 167-168참고.

⁵¹² 리진(li byin/li byins)을 리비까라li bi ka ra(산스크리트어 lipikāra) 즉 “scriptmaker”라고 보기도 한다.

⁵¹³ GBB는 20종을 안다고 적었다.

⁵¹⁴ rgya mtsho. GBB는 왕 즉 rgyal po의 곁에 라고 적었다.

⁵¹⁵ 여기부터는 동양문고의 덴사빠 본을 바탕으로 읽었다.

⁵¹⁶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중역본은 『寶篋經呪』라고 번역했다.

인도의 왕 고쁠라go pi la를 만났고 왕이 협조하여 인도에서 문자에 정통한 리진과 빠디따 아난다를 초청해 와 『寶篋經呪』 등을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⁵¹⁷

그런데 인도의 문자는 모음이 16개이고 자음이 34개인데⁵¹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202> 티베트어는 소리가 좋지 않으므로⁵¹⁹ 그대로 할 수 없었다. 인도인들은 ‘하나’를 ‘에까e ka’라고 하고 ‘세상’을 ‘로까lo ka’라고 하며 ‘法’을 ‘다르마dhar+ma’라고 하고, 청하는 것을 ‘끄리따kri ta’라고 하며 말하는 것을 ‘매빠smras pa’라고 하는데⁵²⁰ 이들 음은 티베트어로 낼 수 없었다.

퇴미가 슬퍼하며 침실의 문을 닫아 건 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보니 가까이 한 노부인이⁵²¹ 있었다. “노부인께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고 물으니 그는 “법을 위해서⁵²²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 진실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65b] 하늘이 나의 길인데 문을 잠가서 무엇을 얻겠는가.”라고 하였다. [퇴미가] 의혹이 생겨 다시 물으니, “나는 사호르za hor⁵²³에서 왔고 토욕혼 땅으로 간다”고 하였다. 퇴미가

⁵¹⁷ GBB에는 - - 사이의 이 주가 결락되어 있다.

⁵¹⁸ GBB는 원음 자모가 34개인데라고 적었다.

⁵¹⁹ bod sgra brjod ngan pas.

⁵²⁰ smras pa도 티베트어다.

⁵²¹ GBTB는 노파rgan mo. GBB는 남자 노인rgan po. 그 뒤에 gu ba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을 알 수 없다.

⁵²² chos nyid don la. 법의 측면에서?

⁵²³ 인도 북부, 현 히마찰 프라데시 주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고대 왕국. 산타락시타 Śāntarakṣita(725-788)가 사호르에서 왔다고 하며 5대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가계가 이 사호르와 연계되어 있다고 했다. 5대 달라이 라마의 주장과 사호르 지명에 대하여는 Leonard W. J. van der Kuijp, “On the Edge of Myth and History: Za hor, its Place in the History of Early Indian Buddhist Tantra, and Dalai Lama V and the Genealogy of its Royal Family”, In Bangwei Wang, Jinhua Chen and Ming Chen, eds., *Studies on Buddhist Myths: Texts, Pictures, Traditions and History*. Shanghai: Zhongxi Book Company,

“길은 먼가요 가까운가요? ⁵²⁴”라고 물으니 답하기를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식량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니 “茶(ja)가 있다.”⁵²⁵고 하였다.
<203>

그리고 나서 노부인은 사라져 보이지 않았는데 그는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 그 후 튼미가 자세히 회상하다가 노부인의 말 중 짜ca, 차cha, 자ja 셋과 샤zha, 사za, 아'a의 열린 글자⁵²⁶ 여섯 개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고⁵²⁷ 위 아래에 붙은 까ka 부터⁵²⁸ 30개를, 구부리거나⁵²⁹ 세우는⁵³⁰ 방식으로 이어 합쳐서 만들어 티벳어 발음에 맞는 문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었다.⁵³¹

황제가 말하기를 “이제 나를 위해 내 조상들의 이 낸뽀 상좌에 어떤 내용이 있는

2013, pp. 114-164 참고.

⁵²⁴ thag ring thung yod. GBB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thag ci tsam yod라고 적었다.

⁵²⁵ 『한장사집』의 저자는 뒤에 나오는 <차의 역사> 장에서 차라는 것이 티베트에 처음 도입된 것은 뒤송 망뽀제 시기라고 적었으므로 송젠 감뽀 재위기에 차라는 말이 있었고 서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후대의 일을 섞은 것이다.

⁵²⁶ '반半 글자'일 수도 있다.

⁵²⁷ 이 내용은 『왕통을 비추는 거울』에 상세하다. 튼미는 다섯 개의 전접자ga da ba ma 'a, 열 개의 후접자ga, nga, ba, ma, 'a, da, na, ra, la, sa, 아홉 개의 첨족자ka ga ta da na nya zha sha ha를 나열한 다음 인도 문자에 없는 여섯 글자로 ca cha ja 'a zha za를 들었다. 이 여섯 개를 문수보살이 노부인으로 화현하여 튼미에게 힌트를 주고 간 장면으로 보인다. 튼미 삼보따의 문자 창제 과정에 대하여는 Per K. Sørensen, pp. 170-173 참고.

⁵²⁸ 티벳어의 첫번째 자음. ka <mas> [mad].

⁵²⁹ gug.

⁵³⁰ <'brenḡ> ['grenḡ].

⁵³¹ 자세한 내용은 *Me long*에.

지 읽어보라.”라고 하였고 틴미가 그것들을 보고서 『寶篋經』,⁵³² 『諸佛菩薩名稱經』(spang skong phyag rgya ba), 『十善經旃檀摩尼陀羅尼呪(tsan+dra ma Ni'i gzungs)』인 것을 알았다.⁵³³ 황제 역시 크게 경모하며 4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문자와 교법을 공부했다. 또한 틴미가 인도에서 가지고 온 『寶雲經』 등 경전도 티베트 문으로 번역하게 하였으니 <204> 이것이 최초로 번역한 불경이었다. 신민 모두에게 널리 교법과 티베트 문자를 확산시키고 황제는 가장 먼저 티베트 문자로 “大悲觀世音보살 主從 3존 찬송”을 지어서 꺄phud로⁵³⁴ 바쳤다. [66a] 토번 문자의 새로운 글자체를 만들었으며 이 찬송시는 다음과 같다.⁵³⁵

허물에 오염되지 않은 백색의 像,

원만한 붓다의 관을 쓰고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시는

관음보살에게 예경합니다.

자비와 지혜 두 가지가

똑같이 합쳐진 마음을 가졌으며

두 손을 합장하여 가슴에 대고 있는

⁵³² mdo za ma tog. “za ma tog”은 산스크리트어 samudga (상자, 바구니)의 음역.

⁵³³ GBB에는 마지막에 『무드라mu dra'i phyag rgya』가 추가되어 있다.

⁵³⁴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신에게 먼저 최초의 것을 바치는 것.

⁵³⁵ 다음에 나오는 송췌 감뵤의 찬미는 각 행이 모두 7음절로 구성된 운문이다.

상서로운 佛相應⁵³⁶에 예경합니다.

모든 붓다의 정수인

密呪王⁵³⁷의 염주는

진주와 같이 흰데 그것을 오른 손에 들고 있는

呪師⁵³⁸에게 예경합니다.

윤회의 허물에 오염되지 않고

수정의 빛으로써 빛나는 연꽃

왼손에 그 흰 연꽃을 들고 계신

持蓮 관음에게 예경합니다.

청정 無垢한 법신

달빛과도 같은, 승자⁵³⁹들의 佛母

미려한 色尊⁵⁴⁰

⁵³⁶ mnyam sbyor.

⁵³⁷ gsang sngags rgyal po.

⁵³⁸ sngags 'chang.

⁵³⁹ <rgyas pa> [rgyal ba].

⁵⁴⁰ gzugs kyi lha mo.

여섯 글자에 예경합니다.⁵⁴¹

가없는 광명의 금빛 몸

大 如意之寶와 같이

유정들의 바람을 만족시키시는

持寶 관음에게 예경합니다.

라고 했다. 이것을 라싸의 달 바위⁵⁴²에 써서 두었다.

그 때 황제가 4년 동안 문 밖에 나오지 않자 대신들이 말하기를, “황제는 아무 것도 모른다. 티베트의 평안을 모두 우리에게 맡긴다.”라고 했다. 황제가 그것을 듣고서 “내가 어리석게 여겨진다면 티베트를 교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황제가 [66b] 단 한 명 있기 때문에⁵⁴³ 모두 행복한 것이다. 이전에는 법이 없었으므로 지혜로운 자 열 두명을 변지로 떠돌게 했다. <206> 이제 십선법(十善法, chos khrims dge ba bcu)에 따라 법을 정하겠다.”라고 하고서, 살인자는 목숨 값으로 은전 2만 1천 량을 내게 하고, 도둑질 한 자는 80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는 코를 베고, 거짓으로 모함한 자는 혀를 자르게 했다.

또한 淸淨人法(mi chos gtsang ma) 16조를 법률의 기초로 삼았다. 이 16조는

⁵⁴¹ 옴마니밧메훴. 여섯자 진언 자체가 예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⁵⁴² zla ba'i brag. 라싸 서쪽의 까르츱dkar chung에 있는 라왜 찰기닥Gla-ba'i tshal gyi brag을 가리킨다.

⁵⁴³ rgyal po gcig pu gnas pas. GBTB: 왕족들이 한 곳에 머문다면(rgyal po'i rigs de sa gcig tu gnas na).

三寶를 믿고 護持하며, 슬퍼하거나 지치지 않는 것이 하나다.⁵⁴⁴ 궁극적으로 佛法을 추구하고 수행에 힘쓴다는 것이 그 둘이다. 경전과 佛法을 학습한다는 것이 셋이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이 넷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나이든 이들을 공경한다는 것이 그 다섯이다. 형제나 친구⁵⁴⁵를 공정히 대하며 기꺼이 받아들인다는⁵⁴⁶ 것이 여섯이다. 알지 못하고 부탁받지 않은 일에 간여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일곱이다. 지역 사람과 이웃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이 여덟이다. 마음을 공정하게 하고 그가 소심한 이 그 아홉이다.⁵⁴⁷ 일과 행동은 상등을 추구하며⁵⁴⁸ <207> 과거를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 열이다.⁵⁴⁹ 은혜가 큰 사람에게 꼭 보답하는 것이 열 하나다. 빌린 것은 시간에 맞게 돌려 주고 무게를 잴 때 속이지 않는 것이 열 둘이다.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며 경쟁심을 갖지 않는 것이 열 셋이다. 상담을 하는 중에⁵⁵⁰ [67a] 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며 자신의 본분대로 하는 것이 열 넷이다. 모든 일을 적절히 하며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열 다섯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으며 자비심을 갖는 것이 그 열 여섯이다.⁵⁵¹

⁵⁴⁴ <skyong ngas> [skyo ngal] med pa.

⁵⁴⁵ mdza' <shes> [bshes].

⁵⁴⁶ 기꺼이 받아들이다 dang du blang ba. GBB는 이 앞에 “그가 소심하다(khong sems chung)”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⁵⁴⁷ 위의 주 참조. 조항의 내용이 섞여 있다.

⁵⁴⁸ ya rabs rjes <rnyog> [bsnyegs]. 원문에 bsnyegs가 rnyog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 있는데 앞의 구절에 붙이고 bsnyegs(추구하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⁵⁴⁹ phyi mig ring du lta ba. GBTB는 phyir mi ring du blta ba.

⁵⁵⁰ <grog> [gros] kyi nang du.

⁵⁵¹ 송쨌 감뵤의 법률 제정 관련 내용은 Geza Uray, "The Narrative of Legislation and

였다. 티베트의 법규와 티베트의 교법과 율례를 끼쇠skyid shod의 쇼마라sho ma ra⁵⁵²에서 상세히 정하니 이에 대해 신민들은 기뻐하며 “이 황제는 매우 심오하다 (sgam po).”라고 하였고 이에 황제의 호칭을 티 송쎄 감뽀khri srong btsan sgam po⁵⁵³라고 하였다.⁵⁵⁴

또한 우매한 사람도-92- 佛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208> 등 <sbrung>[sgrung],⁵⁵⁵ 데우<'debs> [lde'u],⁵⁵⁶ 빈bon의 교법으로써 가르쳤다.⁵⁵⁷

Organization of the mKhas-pa'i dga' -ston: The Origins of the Traditions concerning Srong-btsan sgam-po as First Legislator and Organizer of Tibet", *Acta Orientalia Hungaricae*, XXVI, 1972, pp. 11-68 참고. 16조 청정인법의 다른 형태는 Per K. Sørensen, p. 183 참고.

⁵⁵² 돈황의 문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으로, 토번 제국 시기 중요한 행정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쇼마라에 대하여는 Per K. Sørensen, p. 184 참고.

⁵⁵³ 심오한 왕 송쎄. GBB는 티khri가 없이 송쎄 감뽀라고 하였다.

⁵⁵⁴ 토번 제국의 법률에 대하여 구당서는 “형법은 매우 엄하여, 작은 죄에도 눈을 파고 코를 베어 내거나 혹은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였는데, [집행관의] 감정에 따르며 고정된 법규가 없었다. 죄인을 지하 감옥에 가두는데, 깊이가 여러 장(丈)이고, 2-3년이 지나서야 풀어 주었다.”라고 했다(중국정사 외국전 역주, 『舊唐書』, 「吐蕃傳」, p.338. 『新唐書』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이러한 기술은 토번이 제국의 형태를 갖추기 전의 상황을 적은 것이거나 이들의 야만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기술로 보이며, 상세히 남은 기록은 없지만 토번아우르는 법령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Brandon Dotson, “Divination and Law in the Tibetan Empire,” Matthew T. Kapstein, Brandon Dotson ed., *Contributions to the Cultural History of Early Tibet*, Brill, Brill's Tibetan Studies Library, 2007, v.14, pp. 4-5. 위의 十善法이 토번 군주들의 성스러운 유산과 세속의 정통성의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관료들이 협력하여 티베트 정치체의 기초를 법률화하고했다. 토번 제국 시기의 법률에 대하여는 Geza Uray, 1972, pp. 11-68 참고.

⁵⁵⁵ GBB: 등sgrung.

⁵⁵⁶ GBB: 데우lde'u.

황제가 이야기와⁵⁵⁸ 수수께끼를⁵⁵⁹ 행한 것이 라싸ra sa 조강 사원의 벽에 그림으로 있다.

이 기간 동안 망냥뽕제상냥mang nyang po rje zhang snang(d. 636)⁵⁶⁰ 등 현명한 6인이 6-6-36(drug drug sum cu so drug) 종의 문서 양식을 제정하였고⁵⁶¹ 전체 티베트를 4개의 루ru와⁵⁶² 천호stong sde들로 나누었으며 친위대sku srung를

⁵⁵⁷ 낫선 佛法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빈교의 개념과 틀로써 설명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신의 사람의 군주 노릇을 한 스물 일곱 왕의 시기 즉 라토토리 넨젠 이전까지 시기에 국정은 둥, 뎡, 빈 세가지로 다스렸다고 했다.

⁵⁵⁸ <rgung rgyud> [sgrung rgyud].

⁵⁵⁹ <ldems> [lde'u].

⁵⁶⁰ 송젠 감뽕 시기의 대신. 냥myang 부족은 제국 시기 초기의 강력한 권력집단이었다. 상냥은 남리 송젠(d. 629) 시기에 대신이 되었고 군사 원정을 이끌어 알룽 왕조의 권역을 넓혔다. 남리가 피살되자 그는 송젠 감뽕가 자라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 때까지 재상 직에 있었는데 또다른 대신인 쿵뽕 뽕새 수째khyung po spung sad zu tse의 모함을 받아 살해되었다.

⁵⁶¹ 6-6-36(drug drug sum cu so drug) 제도란 즉 6대 法典, 6대 商議 원칙, 6등급의 表彰 원칙, 여섯 가지의 標識, 여섯 가지의 관직명, 여섯 가지의 무공 훈장이 그것이다. 이 중 6대 법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六六大計法, 도량형 표준법, 윤리 도덕법, 법률 평등법 등이 있었다. 6대 법전에는 윤리 도덕법의 내용이 가장 많은데 거기에 위의 청정인법(淸淨人法, mi chos gtsang ma) 16조가 있다.

⁵⁶² “루ru”는 토번 제국 시기에 확정된 대규모 행정 단위이며 의미는 “뽕”이다. 처음에 3개 루가 있었는데 ①라싸를 중심으로 한 우루dbu ru, ②라싸 동남쪽 꾡뽕rkong po를 중심으로 한 요루g.yo ru ③짱뽕 강 계곡과 그 서쪽 땅을 중심으로 한 애루g.yas ru였고, 후에 ④루락ru lag가 추가되어 “4개의 루” 즉 “루쉬ru bzhi”라고 한다. 가뵤익창의 저자 뽕조르 상뽕은 자신을 애루g.yas ru의 딱창종 사람이라고 했다. 이는 그가 짱뽕 계곡과 그 서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을 말한다. 각 “루ru” 아래에 여러 개의 千戶部(stong sde)가 있었다. 4루의 위치와 범위, 그리고 그 지도는 Brandon Dotson & Guntrap Hazod, pp. 197-211에 상세하다.

네 방향에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문서를 발급하였다. 준마의 몸에 표지⁵⁶³를 그렸다. 상류의 물phu chu을 호수에 저장하고 주요 물줄기를⁵⁶⁴ 관개 수로로 끌어왔다. 또한 산지민들을 경작지로⁵⁶⁵ 내려오게 하고 평원을 농지로 바꾸며 농지의 경계를 지었다. 강에는 배를 띄웠고 데bre와⁵⁶⁶ 상srang⁵⁶⁷의 단위를 제정하였다. 변지의 모든 小邦과 로뮌lho mon⁵⁶⁸ 지구의 초원 거주민과 삼림 거주민 등을 [67b] 모두 휘하에 들어오게 하였으며 전 국토가 평안하고 안락하며 대부분의 백성이 교법에 안착했다.

황제가 생각하기를 <209> “나는 법률을 엄격히 했다. 이제 教法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하여 법을 행해야 한다. 佛法을 행하려면 本尊像(yi dam gyi lha)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초파일 저녁에 구름 속에서 天女가 나타나 말하기를 “인도 남쪽 변지에 싱갈래링sing gha la'i gling⁵⁶⁹이라는 곳의 바닷가에 모래밭이 있다. 그 곳에 空行 觀音像의⁵⁷⁰ 뒤에 코끼리가 누워 있는 아래에 蛇心 旃檀樹⁵⁷¹ 안에 十一面 관세음보살상 하나가 스스로 나타났으니 가서 이

⁵⁶³ cho ris. 종류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해 말, 돼지 등에 그리는 점자.

⁵⁶⁴ <gzhur du> [gzhung chu].

⁵⁶⁵ <rlungs> [klungs].

⁵⁶⁶ 용량의 단위.

⁵⁶⁷ 무게의 단위.

⁵⁶⁸ “남쪽의 뮌.” 뮌은 티베트 남부에 있는 지역으로, 대략 오늘 날의 부탄 지역을 가리킨다.

⁵⁶⁹ 즉 실론.

⁵⁷⁰ <mkhar sa pa Ni> [ka sar+pa Ni]. Skt. Khasarpaṇi. 관세음보살의 여러 형태 중 하나.

⁵⁷¹ tsan dan sbrul gyi snying po. 뱀의 심장 전단 나무. 뱀이 이 나무의 향에 이끌렸다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Roberto Vitali, Tibetan Perceptions of a Foreign Cult: the Sandalwood Statue of Buddha Shakyamuni, Known as the Tsan dan jo bo, *Bulletin of Tibetology* 2012, vol. 48-1. p. 66. 전단수의 종류 중 드물고 귀하게 여겨진다고 한다.

像을 모셔오면 설역의 중생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사라졌다. 이에 황제는 매우 기뻐하여 자신의 미간에서 빛을 뽑았고 그 빛의 끝에 쉬라아까라마띠 shi la a ka ra ma ti라는 비구가 화현하였으니 그를 보내 [상을] 모셔오게 하였다.

이 화신 비구가 인도에 <210> 이르렀을 때 싱갈래링의 도시 께루ke ru의 왕은 이름이 우마라게사르u ma ra ge sar였는데 힘과 재력이 있었으나 外道の 교법을 신봉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 비구가 여러 환화술을 보여 그를 佛法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했으며 또한 이 왕에게 身語意의 의지처⁵⁷²를 다수 건립할 것을 청했다. 해변에 도착하니 이 전단은 拘留孫佛('khor ba 'jig)⁵⁷³ [68a] 재세 시에 뿌리를 내고, 拘那含牟尼佛(gser thub)⁵⁷⁴ 재세시에 잎이 났으며 迦葉佛⁵⁷⁵ 재세 시에 꽃을 피웠고 석가모니불 재세 시에 열매가 익은 것이었는데 그 후 뿌리가 마르고 쓰러져서 모래에 묻혀 있었다. [비구가 나무를 꺼냈을 때] 이 蛇心 旃檀樹 안에서 “천천히 자르시오!”하는 소리가 나더니 얼굴은 십일 면에, 높이가 12脂⁵⁷⁶이고 팔이 열 개이며 그 색이 만다까man+ta ka⁵⁷⁷ 꽃처럼 붉은 [관음상이 나왔다]. 향기는 사방에 넘쳐서 12 유순(dpag tshad)⁵⁷⁸ 거리까지 퍼졌고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았다.⁵⁷⁹ <211> 이 상과 함께 또 전단나무 조각 하나를 가지고 왔다.

⁵⁷² 身, 語, 意의 의지처는 각각 불상, 불경, 불탑을 말한다.

⁵⁷³ Pāli. Kakusandha. Skt. Krakucchanda. 과거 7佛 중 제4佛.

⁵⁷⁴ Pāli. Koṇāgamana. Skt. Karakamuni. 7佛 중 제5佛. 金寂佛이라고도 한다.

⁵⁷⁵ 'od srung. Pāli. Kassapa. Skt. Kāśyapa. 7佛 중 제6佛. 과거 칠불은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그리고 석가모니불이다.

⁵⁷⁶ sor = sor mo. 길이의 단위. 보리알 여덟 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길이라고도 한다.

⁵⁷⁷ GBB: ma nu ka.

⁵⁷⁸ 요자나(Skt. yojana). 고대 인도의 거리의 단위.

⁵⁷⁹ <lta ba'i mchog mi shes pa> [lta bas chog mi shes pa].

또한 모래밭에서 茅草('jag ma) 잎 끝에 각각 일곱 명의 天女lha'i bu mo가 나타나 보살을 향해 공양을 바치는 광경을 보고 茅草 한 다발을, 그리고 보타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던 자색 나무 기둥을 하나 취했다. 께루ke ru 도시의 연화법륜탑 안에서 拘留孫佛, 迦葉佛, 석가모니불의 사리를 하나씩을 취했고 또한 그들이 머물던 보리수 가지 3개를 취했다. 8대 성지(gnas chen brgyad)의 모래알 하나하나 위에 모두 9천만의 부처가 있는 것과, 나라자라na ra dza ra⁵⁸⁰ 강변에 석가모니 발우의 물이 넘쳐 지나간 모래알 하나 하나 위에 각각 10만의 보살이 있는 것을 보고 [68b] 그 성지들의 모래를 각 1 승bre씩 취했다. <212> 비구가 이 두 종류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와 열 가지의 수승한 공품을 황제에게 바치니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또한 놀라워했다. 비구는 황제 주위를 세 차례 돌고 나서 그의 미간으로 사라졌다. 그 후 훌륭한 외모를 가진 16명의 여성을 뽑아 공양을 하는 시종으로 삼고 6시에 공양을 바쳤다. 황제 스스로도 본존 신상 앞에서 집중하여⁵⁸¹ 앉아 있었다.

그 후 황제의 생각에 “또한 남쪽의 네팔(lho bal)⁵⁸² 땅에 진기한 自現 불상이 있단데 모셔올 수 있다면 좋겠구나.”라고 하고서 전단 불상을 향해 기도하니 불상의 심장에서 빛이 나와, 네팔 변경의 전단 나무 숲속에 <213> 자현 관세음보살상 3존이 둥치 안에 쌓여 있는 하리 전단수tsan+dan ha ri⁵⁸³ 하나를 비추었다. 황제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화신을 내비추어 비구 설라아까라[마띠]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이 때 그 지역은 신의 가피로 낮과 밤이 똑같았고 낮에는 전단 둥치에서, 밤에는 관음상으로부터 빛이 비치는 것을 [69a] [비구가] 보고 나무를 자르는데 낮이 되자 둥치가 흔들렸다. 이 때 나무 안에서 “천천히 자르시오!”라는 소리가 나더니 불상 3존이 나왔는데 그 중 제일 위의 상이 “나를 인도와 네팔 경계 지역에 두시

⁵⁸⁰ 혹은 Ne ra dza ra.

⁵⁸¹ 'ben gang yang mi 'da' bar

⁵⁸² 여기서 “lho bal”은 글자 그대로 “남쪽-네팔”을 뜻하는데, “야만인”을 뜻할 때도 있다.

⁵⁸³ 전단 나무 종류의 하나.

오! 그 곳에서는 매일 아침 상인 한 사람씩 종창으로sbos grir 죽고 있으니 그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상은 조오 자말리jo bo ja ma li라고 하며 三面六臂의 自現(rang byung) 백전단상으로, 크기는 다섯 살 어린아이와 같은데 10 요다나dpag tshad 에 퍼지는 [향을] 가진 진기한 상이었다.

가운데 상은 “나를 네팔bal yul의 암부야감yam bu ya gham⁵⁸⁴에 두시오! 그 곳에는 악성 전염병 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죽고 있으니 그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이 상은 조오우캉jo bo u khang이라고 하며 一面 四臂의 진기한 自現 백전단상이었다.⁵⁸⁵

가장 아래 상이 말하기를 “나를 망월mang yul의 마을에 놓아주시오! 그 곳에서 마을의 수령들이 나병(mdze nad)으로 죽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오 와띠jo bo wa ti라고 하고 몸체가 붉은 색이며 一面二臂였다. 오른손에는 다섯 갈래 금강저를 가슴께에서 들고 있고 왼손에는 흰 연꽃을 들고 있는 自現 상이다.

그들의 정황을 황제에게 아뢰니 [69b] “상을 모셔오지 못했지만 유정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매우 기뻐하였다.⁵⁸⁶ 그 후 <215> 황제가 생각하기를 “본존(yi dam gi lha)을 친견하였고 유정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는데 티베트의 백성, 유정들의 이익은 어느 지역에서 얻을지 알아보아야겠다.”라

⁵⁸⁴ 즉 카트만두.

⁵⁸⁵ jo u khang은 Bungamati 관세음보살이 거주한다고 하는 파탄Patan 남부 지역 Bunga (혹은 Buga, Bugma)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Mirror, p. 194).

⁵⁸⁶ 빨조르 상뵤는 전단 나무 안의 불상이 셋이었고 각 불상이 당시 재난을 당한 지역의 중생들을 도우러 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티베트에는 모셔오지 못했다고 적고 있으나 Me long은 이 전단 나무 안에 안치되어 있던 불상이 넷이라고 하고, 세 불상은 위와 같이 각각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 두었으나 마지막 네번째 불상은 “나는 설역 티베트의 송쨌감뵤의 본존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티베트로 모시고 왔다고 기록했다(Per K. Sørensen, p. 195)

고 생각하고 보니 보살의 화신인 조상 라토토리 넨췌이 이르렀던 끼쇠bskyid shod⁵⁸⁷ 라싸 마르뽀리dmar po ri⁵⁸⁸ 지역이 대승의 법을 전파하기에 적당한 것을 알았다. 이에 불상들을 수레로 모시고 군주와 대신들 모두가 그 곳에 이르렀다. 다 뽕첼⁵⁸⁹에서 숙영하고⁵⁹⁰ 다음날 간단히 식사를 하고 황제와 대신 나첸뽀sna chen po가 물에서 몸을 씻고 물을 마실 때 위dbus 지역의 계레gye re에서 6자 진언이 들리며 예언을 하셨다.

그 뒤 마르뽀 리 꼭대기로 가서 조상들의 유적지에 궁을 세우고 머물렀다. 황제가 그곳에서 “나는 유정들에게 이익을 줄 것을 <216> 승인하고 약속했는데 그들을 교화할 방법은 무엇이 좋은가?” 라고 생각하고 나서 불상에게 기도하니 像의 가슴에서 흰 빛줄기 두 개가 화살처럼 나와 동쪽과 서쪽으로 가서 漢地와 네팔에 이르렀고, “분노불모(khro gnyer can)와 타라 여신(sgrol ma)의 [70a] 화신을 아내로 초청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났다. 이에 먼저 대신 가르mgar와 어린 튜미(thon mi chung)를⁵⁹¹ 비롯하여 백 명의 기병에게 금화⁵⁹² 백 냥, 금으로 된 상자 일곱 개, 황금 망으로 덮고 하늘의 보물로 장식한⁵⁹³ 코끼리 한 마리, 金沙 반 승과 더불어, 서신을 금, 은, 동 세가지로 된 상자에 넣어 주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⁵⁹⁴ 가

⁵⁸⁷ GBB: skyid smad.

⁵⁸⁸ “붉은 언덕”. 포탈라가 세워진 언덕. 포탈라가 이 곳에 세워진 것은 이전에 송췌 감뽀가 역시 그곳에 성을 지었다고 하는 전설 때문이다.

⁵⁸⁹ <sbrang> [sbra] stod tshal. “상부의, 천막이 있는 정원”. 라싸 동쪽 교외에 위치. 당번 회맹비에도 등장하는 지명이다.

⁵⁹⁰ rgung mal. 아마도 zhag mal. 임시로 숙영하다.

⁵⁹¹ Chung(작은)은 산스크리트어 “anu”의 번역어일 것이다.

⁵⁹² gser gyi <g>dong rtse.

⁵⁹³ GBTB: spras pa 주다 GBB: brgyan pa장식하다.

⁵⁹⁴ bslab cha byas nas. GBB에는 이 구절 결락.

을의 첫번째 달⁵⁹⁵ 8일 새벽 해가 막 떠오를 무렵에 네팔의 공주를 청하러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이 <217> 서쪽 네팔인의 궁 양꺈(yam ghal)에 이르러 외세 고차(od zer go cha)⁵⁹⁶ 왕을 알현하고 정황을 보고하니, [그 왕이] ‘부처님이 이르신 성스러운 땅의 군주인 나와 변두리 티베트의 왕 둘이 姻戚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당신들은 내 사돈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소. 나는 가섭불의 때부터 지금까지 왕국의 법률에 오류가 없게 했소. 그와 같은 국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딸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이니 당신의 왕에게 [가서] 물어보시오!”라고 했다. 재상 가르가 “폐하, 네팔과 티벳 땅은 거리가 먼데 그곳을 [70b] 각 명령을 전하러 오고 간다면, 공주는 언제 모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답으로 <218> 소신의 군주가 서신이 담긴 이 상자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銅으로 된 상자를 예품들과 함께 손으로 바쳤다. [왕이] 상자를 여니 네팔文으로 된 서신이 나왔다. “먼저 國法の 유무는 그와 같이 맞는 말이지만⁵⁹⁷ 이후 만약 왕께서 국법을 좋아하여 [그것이 있어야만] 공주를 주신다면 나는 하루만에 오천 개의 몸으로 변하여 이 변방 설역 왕국에 十善法(chos

⁵⁹⁵ 티베트 력은 달의 이름을 각 계절마다 첫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세 달씩을 두어 전부 열두 달로 했다. 봄의 마지막 달 dpyid zla tha cung, 여름의 첫번째 달 dbyar zla ra ba, 여름의 중간 달 dbyar zla ‘bring po이 각각 대략 그레고리안 력의 4, 5, 6월이며 여름의 마지막 달 dbyar zla tha cung, 가을의 첫번째 달 ston zla ra ba, 가을의 중간 달 ston zla ‘bring po가 각각 7, 8, 9월, 가을의 마지막 달 ston zla tha cung, 겨울의 첫번째 달 dgun zla ra ba, 겨울의 중간 달 dgun zla ‘bring po가 10, 11, 12월, 겨울의 마지막 달 dgun zla tha cung, 봄의 첫번째 달 dpyid zla ra ba, 봄의 중간 달 dpyid zla ‘bring po가 각각 1, 2, 3월에 속한다.

⁵⁹⁶ “빛나는 무기”의 뜻. 네팔 공주 티췌의 부친에 대하여는 티베트 사료마다 기록이 달라 확정하기 어려운데 학자들은 대체로 외세 고차 왕이 Amśuvarma 왕(r. 596-621)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네팔 공주와 송췌 감뽀의 혼인이 641년 이전, 아마도 628-638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 이 왕의 사후에 혼인이 일어난 것이 된다. 송췌 감뽀의 생몰 연대도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는 569년에 태어나 649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⁵⁹⁷ 티베트에는 네팔과 같은 법이 없었다는 뜻.

dge ba bcu의 법을 제정할 것이니 놀랍지요?”라고 하였다. [네팔 왕은]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그는 참으로 호연장담하는구나. 나에게는 이익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맞서기 어려운 자가 있는 것이로구나.”라는 의심이 생겼다.

그후 왕이 또한 말하기를 “나의 나라에는 가섭불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불탑을 비롯하여 다수의 身, 語, 意의 의지처에 공양자들이 <219> 끊이지 않고 있다. [티베트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姻戚이 되기에 적합하니 물어보고 오시오!”라고 하였고, 그에 대한 답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은으로 된 상자를 바치니 그 안에 “내가 몸을 오천으로 화현하여 이 설역에 하루 만에 108 곳의 사원을 [71a] 지어 모든 입구를 당신이 있는 쪽을 향하게 할 것이니 대단히 놀랍지요?”라고 써 있었다. [이에 네팔 왕은] “저 변방의 군주에게 딸을 안 주면 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라를 다 파괴할 것이고 공주도 어쩔 수 없이 빼길 것이 분명하니, 주어야 할 것 같구나.”라고 생각했으나 약속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군주가 허풍이 심하구나. 내 휘하에 속하는 것 중에 가섭불 <220> 때부터 지금까지 화로에 연기가 계속되어 끊이지 않는, 五慾樂⁵⁹⁸을 향유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당신들에게] 그와 같은 복덕이 있다면 딸을 줄 것이니, 당신들 모두는 머물고 기병 몇을 보내⁵⁹⁹ 황제에게 물으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전처럼 여쭙고 “그 말씀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하고 금으로 된 상자를 바치니 그 안에 써 있기를 “이전까지 당신의 재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여 [재부가 있어야] 공주를 주신다면 내가 三寶에 기도하여 화신으로 나뉘어 이 설역의 왕국에 수많은 寶藏을 열고 四方으로부터 많은 山口를 열어 오욕락을 수백 수천으로 화현하게 하여 끝내는 [71b] 당신의 왕국과 다른 모든 이들의 보물도 설역에 이르게 해야겠습니다 <221> 이 또한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서신이 있었다.

⁵⁹⁸ 색, 성, 향, 미, 촉.

⁵⁹⁹ <mthong> [gtong].

네팔의 군주와 대신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며 “티베트 군주의 서신의 상자는 소진되지도 않고 지혜는 막힘이 없으니 그는 분명 화현한 대법왕이다.”라고 생각했다.⁶⁰⁰ 그리하여 네팔 비 티췌 bal bza' khri btsun⁶⁰¹ 공주를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보물 등 예품, 不動金剛神(yi dam mi bskyod rdo rje), 미륵 법륜(byams pa chos kyi 'khor lo), 自現 전단 度母 상 등과 함께 보냈다. [공주를] 모셔서 마르뿌리의 궁으로 왔다.⁶⁰²

그 후 네팔 비는 황제의 걱정을 덜고 적군이 주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보물을 연결하고 남녀 夜叉(gnod sbyin)를 종으로 삼아 마르뿌리 가운데에 벽돌로 성벽을 32 강림gyang rim⁶⁰³ 이 <222> 되게 하여 魔地 랑까뿌리⁶⁰⁴의 마을처럼 만들었다. 9백 9십 9좌의 城을 세우니 꼭대기와 함께 모두 천 성이 되었다. 각각의 성에 붉은 천이 달린 創 네 개씩을 세우고 네 방향의 네 門樓⁶⁰⁵에 지키는 자들을 두었으며 성 꼭대기에는 경계병 다섯이 상주하게 했다. 그 남면에는 성벽 안에 9 층짜리 궁 [72a] 속뽕성(sog po mkhar)이라는 곳이 있는데 군주의 성과 [높이가] 같았으며 그 둘을 사슬로 연결하고 은으로 된 다리(dngul zam)로 연결했다. 성과 벽들에는 성가귀⁶⁰⁶와 창문과 야크꼬리 총채와 벽돌과 난간과 패루, 보석으로 만든

⁶⁰⁰ 『티베트 왕통을 비추는 거울』에는 이 세가지 질문과 답이 唐 황제와의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pp. 217-219).

⁶⁰¹ ‘뱌사’는 ‘네팔의 공주’, ‘네팔 여왕’, ‘네팔 비’의 뜻이고 ‘티췌’는 ‘비’, ‘여왕’의 뜻이다. 후에 뱌사와 티췌는 각각 송췌 감뽕의 네팔 비에 대한 專稱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⁶⁰² 티베트와 중국 양 사료에서 그 출신이나 이름 등이 분명한 문성 공주와 달리, 네팔 공주 티췌는 실존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다.

⁶⁰³ 눈(雪)의 깊이를 재는 단위. 1강림은 약 2피트.

⁶⁰⁴ srin yul lang ka pu ri. 스리랑카. 혹은 육식하는 마귀들이 사는 도시.

⁶⁰⁵ sgo spe.

⁶⁰⁶ mda' <dbyangs> [yab].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 쌓은 담.

종, 진주가 있는 장식천 등으로 장식하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건설했다.

그 후에 또한 대신 가르mgar⁶⁰⁷와 툼미 삼보따'thon mi sam+bho를 필두로 기병 백명에게 은전 <223> 백냥과 보석으로 만든 의복 한 벌, 보석으로 된 그물을 덮은 코끼리, 금가루 반 승 gser phye bre phyed 등을 주어, 동쪽 漢地의 공주를 청하러 보냈다.⁶⁰⁸ 그들은 漢地의 따쉬 티고bkra shis khri sgo⁶⁰⁹에 이르러 당 태종

⁶⁰⁷ 가르mgar 가문은 토번 제국 시기 대략 50년 간 군주와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의 권력을 누렸다. 가르라는 이름은 대장장을 뜻한다. 이들은 재상이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군사 영웅이었고 군주의 경쟁자이기도 했다. 티 뒤송(r. 677-704)의 모친인 티마퇴khri ma lod(d. 712)가 가르 가문의 라이벌인 도'bro 부족 출신이었다. 가르 가문 출신의 재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가르 동젠 율송mgar stong btsan yul zung(d. 667)이며 문성 공주를 티베트 군주의 비가 되게 하는 데에 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후계자는 가르 쯔냐 돔부mgar spyan snya ldom bu였고 와숨낭dba' sum snang이 그를 도왔다. 가르 가문의 영향력이 커진 데에는 장군 가르티딩mgar khri 'bring이 시닝 근처에서 당의 대군을 제압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많은 티베트인들이 아샤('a zha) 지역으로 옮겨갔다. 가르티딩은 쯔냐 돔부 사망후 685년 대신이 되었다. 이 해에 뒤송 망뽀제도 쯔뽀로 정해졌다. 가르 가문은 694년 당 군대가 이전의 영토를 탈환하면서 후퇴해야 했다. 가르티딩이 당의 유명한 장수 왕효걸王孝杰의 대군에 승리하고 원정을 계속할 때 뒤송 망뽀제는 가르를 공격하기로 하고 가르 가문 사람과 관련인물들 2천명 이상을 사로잡았다. 뒤송은 가르에게 돌아오라고 했으나 가르는 거부했으며 뒤송이 군대를 이끌고 가르를 향해 가자 가르의 군대는 가르를 버렸다. 일부 생존한 가르 인은 자살했고 또 일부는 당으로 도망쳤다. 『新唐書』는 이 일의 배경에 대해 “欽陵이 집권한 지 오래 되었는데 ... 그 형제들은 모두 재력이 있어 여러 토번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器弩悉弄(즉 티 뒤송)이 장성하니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고, 이에 점차 불만이 쌓여가자 대신 논암 등과 도모하여 [欽陵 형제들] 제거하고자 했다.”라고 적고 이후 가르 가문의 몰살 과정을 상세히 적었다(『新唐書』, 「吐蕃傳」, pp. 279-280).

⁶⁰⁸ 『舊唐書』와 『新唐書』는 이때 파견된 재상으로 가르 동젠(祿東贊) 만을 기록하고 있다. 『舊唐書』는 가르 동젠에 대해 “동찬은 문자를 알지 못했으나 천성이 총명하고 의지가 굳었으며, 용병에 절제가 있었으니, 토번이 그에 의지하여 마침내 강국이 되었다. 그가 처음 입조했을 때, 웅대함이 황제의 뜻에 맞아 태종은 그를 우위대장군(右衛大將軍)에 임명하고, 낭사(琅邪) 공주의 외손을 처로 삼게 했다.”고 적었다. 동젠은 자신이 이미 혼인을 했으며 쯔뽀가 아직 공주를 만나지 못했음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新唐書』, 「吐蕃」, p. 262). 한편 툼

thang tha'i dzung 왕을 알현하고서 정황을 아뢰고 공품을 바쳤는데 그 때 공주를 청하러 인도, 大食stag gzig, 룸khrom⁶¹⁰의 계사르ge gsar, 위구르hor의 왕 등도 기병을 백명씩 보내와서 모여 있었다. 漢地의 왕과 왕비, 왕자와 공주 등 모두 중에 티베트에 [공주를] 보내고 싶어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⁶¹¹

그러나 국법을 따라야 하므로 “이제 그대 대신들 중 지혜가 큰 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하고 나서, 각 사람들에게 고기와 [72b] 술(chang)을 주고 “하루 동안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마셔야 하며, 양의 가족을 무두질하는데 방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구불구불하게'khyil pa 구멍이 뚫려 있는 漢地의 터키석g.yu에 비단을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오늘 아침에 온 따쉬 티고의 문을 누가 아는지,⁶¹² 어미 말과 새끼 말 백 마리, 어미 닭과 병아리 각 백 마리를 누가 짝 맞

미에 대하여는 675년 망송 망쎄 시기 당에 화해를 청하러 온 인물로 論吐渾彌가 기록되어 있는데(『新唐書』, 「吐蕃傳」, p. 266) 그가 된 틈미일 가능성도 있다.

⁶⁰⁹ “吉祥萬門”의 의미. 長安의 궁(혹은 성문) 이름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름을 의역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티베트 사료에 唐의 수도는 “京師”를 음사한 다양한 표기로 기록되었다.

⁶¹⁰ 아나톨리아를 가리키는 말. 한문 사료의 불림(拂菻).

⁶¹¹ 이 내용은 『거울』에 상세하다. “부친은 주장했다. ‘다르마는 인도에서 왔다. 공주는 인도의 법왕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에게 크게 감사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매우 탐욕스러워서, 제안하기를 ‘부유한 대식stag gzig 왕에게 주어라!’라고 했다. 왕자는 육체적 힘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제안하기를 ‘위구르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다. 공주는 잘 생긴 몸을 좋아했기 때문에 끼어들어서 말하기를,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했고 그러므로 룸khrom의 계사르 왕에게 관심을 가졌다.” (Per K. Sørensen, p. 219)

⁶¹² 이 또한 『왕통을 비추는 거울』에 상세한데, 어느날 황제가 갑자기 복을 쳐서 각 나라의 대신들을 급히 궁으로 불러 대연회를 열어 주어 참석자들을 모두 크게 취하게 한 다음 저녁에 각자 알아서 자신의 숙소를 찾아가게 했다. 처음 궁으로 갈 때 이것이 황제의 계획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가르 똥쎄는 숙소에서 궁까지 복잡한 길 곳곳에 칠을 하고 계산하여 흔적을 남겨 두었으므로, 가르 똥쎄만이 찾아가갈 수 있었다고 한다. 황제가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하니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의 숙소에 가 있었고 어떤 이는 길에서 자고 있기도 했다

출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공주가 그녀와 닮은 삼백명⁶¹³의 여성 속에 섞여 있는데 누가 판별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에게 주겠다고 했다. 대신 가르는 지혜로웠고 또한 머무는 곳의 여주인이 가르침을 준 것에 의지하여 매일 승리하니 공주를 티베트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 사신들은 각각 돌아갔고, 한인들 중에는 “우리 공주를 티베트에 잃는구나!”라고 말하며 통곡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業緣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주 漢妃 공조kong jo⁶¹⁴에게 셀 수 없는 진보를 선물로 주어 보냈으니, 본존 석가모니상, 오행 숫자표 60종, 약, 18 방면의 匠人, <225> 모든 종류의 곡물 종자 그리고 다수의 남녀 시종을 함께 먼저 보냈다. 그리고 大臣 가르의 지혜로운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고자 1년간 머물라고 했다. 후에 남아야 하게 되자 그는 병이 났다고 말하고 치료 의식을 빌미로 [73a] 각종 속임수를 써서 다수의 한인들을 이끌고 신속하게 올라가⁶¹⁵ 캄 지역의 낙쇠nags bshod에서 공주 主從 일행을 따라잡았다.

이 때 티베트 왕에게 “공주가 대단한 혼수품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 대신들과 백성들이 마중하고 잔치를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먼저 보냈다.⁶¹⁶ 마르쁘리 궁의 사방을 지키는 위병들에게 길을 정비하게 하고 마중하는 이들을 여러 지역에 배치하여 공주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두었다. 공주는 화신으로 <226> 화현하여 하루 동안 사방의 도로에 공주와 똑 같은 사람이 각각 화신으로 나타났다가 궁의 문에 이르러 하나로 합쳐져 안으로 들어갔다. 공주 일행이 라싸 중심에 있는 숲

(Per K. Sørensen, pp. 222-223). 이는 한편으로 대신들이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장안의 골목이 복잡하여 외국인들이 길을 찾기 어려웠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⁶¹³ 삼백 뒤에 “천stong”이 더 있어서 삼십 만명이 되나 삼백명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⁶¹⁴ 문성 공주(d. 680)

⁶¹⁵ 漢地와 티베트를 비교할 때 티베트는 높은 곳yar이고 漢地는 낮은 곳mar로 표현될 때가 있다.

⁶¹⁶ 주어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나 가르가 보낸 것으로 보인다.

에서 진흙 땅인 연못가를 지나다가 불상을 신고 가던 마차가 진흙에 빠졌는데 이를 力士인 라가lha dga'와 루닥klu dags도 끌어내지 못했으니, 이는 조오 불상이 그 곳에서 땅의 흥신(sa dgra)을 진압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力士 두 명을 배치하여 불상을 지키게 하고 또한 비단으로 덮어 두었다. 그곳에서 공주가 왕과 만난 후 왕과 두 명의 비와 신민들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후 황제가 [73b] 마음 속으로 “불상과 경전을 안치할 사원gtsug lag khang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이에 공주가 점복⁶¹⁷을 본 후 周易ju yag으로 점을 치고 나서, 이 나라에는 八吉祥 등 길상의 예조가 많이 있으나 <227> 땅의 흥신 또한 여덟 혹은 다섯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설역 티베트는 羅刹女(srin mo)가 누워서 잠들어 있는 모양과 같으며 평원(thang)⁶¹⁸의 호수는 나찰녀의 心血이니 이곳을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⁶¹⁹ 그 또한 먼저 네개의 루ru⁶²⁰에 각각 사원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나찰녀의 오른쪽 상박dpung mgo에는 까챤ka tshal 사원을, 왼쪽에는 타둑khra 'brug 사원을, 오른쪽 대퇴에는 짱담rtsang 'gram 사원을, 왼쪽에는 돔빠강'brom pa rgyang 사원을 세워야 했다. 또한 羅刹女의 사지를 진압하기 위하여 타될mtha' 'dul 쪽락강을, 오른쪽 팔꿈치를 진압하기 위하여는 꾀부충kong bu chung을, 왼쪽에는 로닥콤평lho brag khom ting을, 오른쪽 무릎에는 까

⁶¹⁷ [s]por thang. 문성공주와 함께 토번에 도입된 唐의 점복술을 뽀르탕spor thang이라고 한다.

⁶¹⁸ GBB는 'o thang. plain of milk의 뜻. 현 조강 사원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⁶¹⁹ gan rkyal du nyal ba. GBB를 따랐다. 그의 심장을 누르기 위해 조강 사원이 세워졌다. GBTB는 srin po gan rgyal du nyal ba. srin po는 남성형, srin mo는 여성형이며 아래에서 저자는 계속 여성형인 srin mo로 적고 있다.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 불교 용어 대조집인 Mahāvvyutpatti에는 여성형 신모가 없고 신뽀만 보인다. 티베트 서사에서 羅刹女는 불교를 반대하는 여러 악신들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빠드마중내 즉 빠드마삼바바가 티베트에 이르렀을 때 제압했다고 여겨진다.

⁶²⁰ 루ru는 토번 제국 시기에 획정된 행정 단위이며 의미는 “뿔”이다. 우루dbu ru, 요루g.yo ru, 애투g.yas ru, 루락ru lag.

닥ka brag 사원을, 왼쪽에는 상된째sranḍun rtse를 세웠다. 또한 羅刹女の 네小指⁶²¹를 진압하기 위하여 네 곳의 양털yang 'dul 라캉을 세우고, 오른쪽 손바닥에는 장첼 룡닌byang 'tshal gyi rlung mnon 사원을, <228> 왼쪽에는 캄kham의 룡탕 꺄마klong thang sgron ma⁶²²를, 오른쪽 발바닥에는 [74a] 잠뵔byams sprin 사원을, 왼쪽에는 뵔뵔탕mon bum thang의 꺄르추skyer chu⁶²³ 사원을 세웠다.

그 후 -황제가 22세이던 흙-陽-개 해에- 라싸ra sa의 [조캉 사원의] 기초가 무너져 내린 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던 것에 대해 황제가 전단 불상에게 기도하니 불상이 말하기를 “먼저 남쪽에 궁을 세우고 그 곳에 각종 진기한 불탑을 모시고 나면 비로소 사원이 차차 뜻대로 건설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네팔 비에게 지시하여 남면에 궁을 세우고 불탑을 모셔오게 했다.

황제가 [궁에] 이르자 네팔 비는 네팔 匠人의 불상 만드는 특별한 재료와 도구를 왕 앞에 쌓아 놓았고 다음 날부터 만들기 시작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궁의 天窓으로부터 문득 <229> 제 불보살들이 빛을 내며 이르러 불상 재료⁶²⁴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황제가 생각하기를, “나의 본존상에게 시방의 모든 불보살들과 같은 가피가 있으니 매우 좋은 일이다. 그 또한 설역 티베트의 佛緣이다. 그러나 51종의 大悲 관세음보살 중 어느 보살의 상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다음 날 일어나니 불상을 놓는 자리에 황제 자신과 키가 같은 11面 불상이 스스로 나타나 있었다. [74b] “아주 좋다. 그런데 이 자현 전단상과 이 불탑 셋을 이 불상의 가슴 앞에 놓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말로 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불상의 두 손이 자신의 가사의 치마⁶²⁵를 들어올려 무릎 위로 올렸고,

⁶²¹ nying lag bzhi. 팔과 다리에 달린 손가락, 발가락 등.

⁶²² GBTB는 klong thang sgron me. 『왕통을 비추는 거울』과 GBB를 따랐다.

⁶²³ GBTB는 skyer chung. GBB와 『왕통을 비추는 거울』을 따랐다.

⁶²⁴ <ru> [rgyu].

⁶²⁵ sham thabs.

오른쪽 발바닥에서 <230> 빛이 퍼져 나왔으며 전단 불상과 스투파 셋을 모셔와 가슴 앞에 두더니 매우 조용해졌다. 아미타불 상도 또한 [불상의] 왼쪽으로 갔으며 이 때 불상의 발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었지만 승복은 무릎 위에 남아서 붙어 있었다. 황제가 이를 보고 매우 놀라워하고 기뻐했다.

그 후 황제가 또한 본존불상에게 기도하니 [본존불상의] 가운데 얼굴에서 빛이 나와 서남방의 여우 숲⁶²⁶wa tshal의 毒이 있는 나무에 비추어 그 나무를 쓰러뜨리고 魔軍을 쳐부수었다. 빛이 바위를 비추니 바위에 空行 觀音菩薩khar sa pa Ni, 馬頭明王, 아미타불의 몸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바위는 닥라쨌동brag lha can gdong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빛이 서쪽을 비추니 닥라루푹brag lha klu phug의 女魔⁶²⁷가 잠자는 곳이 파괴되었다.

황제가 또한 화신으로 분현하여 大悲 千手千眼 관세음보살(hugs rje chen po phyag stong spyang stong) <231>의 상을 만들었고, 네팔 장인이 또한 관세음보살,⁶²⁸ 공행관음보살, 묘음천녀(dbyangs can ma), 광명천녀('od zer can), 분노모(khro gnyer can), 마두명왕(rta mgrin), 감로명시옥(bdud rtsi 'khyil ba) 등을 지으니 [75a] 총 아홉 좌였다. 그 후 비jo mo 루용ru yong의 비 겐보쨌rgyal mo btsun이, 女魔가 잠자는 곳의 바위에 석가모니, 十一面千手觀音像⁶²⁹을 부조로 새겼고 궁 서남방의 전단 나무 자라는 곳에 게루탑을 세웠다. 용왕의 궁-현재 라모체 사원이 있는 곳⁶³⁰-은 석가모니의 금상으로 하여금 진압하게 했다. 황제는 또한

⁶²⁶ GBB: wa ba tshal.

⁶²⁷ ma mo. 닥라루푹brag lha klu phug은 라싸 짝뽀리 언덕에 있는 이른바 송쨌 감뽀가 명상하던 동굴이다.

⁶²⁸ lo ki swa ri. 즉 *Lokeśvara*.

⁶²⁹ bcom ldan 'das rnam snang kun tu zhal.

⁶³⁰ 라모체ra mo che 사원은 라사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처음에 문성 공주가 가져온 조오 린포체 상을 모시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상을 수레에 싣고 티베트로 오다가 수레가 진흙에 빠지자 이는 불상이 자신이 머물 곳을 정한 것이라 여기고 문성 공주는 그곳에 사원을

사방 8종의 땅의 흙신을 진복하고 팔길상물이 분명하게 보이게 했으니, 천상의 팔 폭 바퀴와 지상의 여덟 잎 연꽃 사이의 헐까르따모 산^{han kar rta mo ri}에 日傘이 있고, 라까^{ra ka}의 바위에는 물고기가 있고, 종쨌^{rdzong btsan}의 절벽에는 항아리가 있고, 덩세돔^{grib se sgrom}에는 소라가 있고 <232> 옥마^{yugs ma}의 구석에는 珍寶 길상 매듭이 있고 윈^{bshun}의 산에는 經幢^(rgyal mtshan)이 있었다.⁶³¹ 이처럼 각종 공덕이 모두 갖추어지자 황제는 이제 라싸^{ra sa}의 사원^{lha khang}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설역 티베트에 선업이 모두 일어나고 모든 죄악은 사라지게 하고자 황제는 오천 화신으로 분현하여 사원^{lha khang}을 세웠고 존귀한 비들도 각각 사원 하나씩을 세우니, 네팔 티쨌 비는 라싸의 툴낭^{'phrul snang}⁶³²을, 漢地의 콩조 비^{rgya bza' kong jo}는 가딱^{rgya stag}⁶³³ 라모체^{ra mo che}를, 상숭의 비 리딕만^{li tig man}은 탐부꼭마^{khram bu lkog ma}, 루용^{ru yong}의 비 겐모쨌^{rgyal mo btsun}은 닥라루팍^{brag lha klu phag}, 윈^{mon}의 비 티째^{khri lcam}은 예르빠^{yer pa} 사원^{lha khang}을 지었다.

라싸 쪽락강^{gtsug lag khang}을 세우고 나서 3년이 되었을 때, [75b] 티베트의 모든 백성들이 四時를 알지 못하여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법왕 송쨌감빠가 “나

짓기로 했다. 조강은 원래 네팔의 비가 가져온 불상을 모시기로 했는데 후에 두 불상 위치를 바꾸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唐軍이 티베트를 침입해 조오 린포체를 당으로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당의 이 계획이 새나가서 티베트인들이 문성 공주가 가져온 조오 린포체를 위치를 바꾸어 조강에 숨겼고 침략자들은 대신에 네팔 공주가 가져온 불상을 약탈해 가서는 이를 라싸 밖의 평원에 버리고 갔다고 한다. 그러나 라싸까지 당 군대가 들어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⁶³¹ 여덟 가지 상서로운 물건 즉 八吉祥이 나열되어 있다. 소라고동, 연꽃, 바퀴, 일산, 영원의 매듭, 황금 물고기, 승리의 깃발^{rgyal mtshan}, 물병(단지)의 여덟 가지다.

⁶³² 조강 사원의 다른 이름. 15세기 이후에는 조강으로 불리게 되었다.

⁶³³ 라모체의 다른 이름.

는 세속의 법을 <233> 제정하였고 티베트의 신민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세인들이 의혹의 그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인도와 漢地의 역산법도 퍼지게 하여 나라에 이익을 주어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티베트인 중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인 다따뎨'bra rta brtan과 랑초도렉lang tsho ldo legs, 자각통편bya gag stong kun, 다르미딱카'dar mi stag kha 등 네 명에게 각각 금 한 줌과⁶³⁴ 銀幣⁶³⁵ 여덟 냥, 金幣 한냥, 그리고 여정 중에 사용할 金沙 반 승bre 등을 주면서 말했다. “그대들은 漢地에 도착하여 이 티베트에 이익이 될 학문을 공부하라. 이전에 티베트에는 다만 공주kong jo가 가져온 漢地의 역산서 60 갑자에 대한 것과 인도에서 번역한 12 緣起, 6일 輪轉 등이 있을 뿐 인도와 중국의 역산(dkar nag gi rtsis)은 발달하지 않았다. <234> 生死를 측산하는 것과 사계 시절을 추산하는 방식을 배우고 마땅히 한인과 접촉하며 대 학문에 이르러라. 큰 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명령에 의해 그들을 보냈다. 그 네 사람이 가서 漢地에서 먼저 네 명의 학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고 그 중 四時nam zla 추산에 [76a] 정통한 가티 마하야나rgya khri ma+hA ya na에게 티베트인 네 명이 청하여 1년 7개월을 머물렀는데 마하야나는 그 외에 나머지 대 전통 등 오행⁶³⁶ 전체를 가르쳐 주지는 않고 다만 분별하여 『明燈書(rgyu snag gsal sgron me)』, 『封書(spang rgya bla ma)』, 『天地尋適(gnam sa rjes gcod)』, 『紙繩封術(phyag shog 'breng bu'i gab rtse)』 등의 측산법을 가르쳤다.⁶³⁷

⁶³⁴ gser gyi spar tu.

⁶³⁵ dngul gyi yang khol can.

⁶³⁶ ma bu. ma bu dgra grogs. 오행.

⁶³⁷ 역산과 점성술은 티베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체계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별로 계산하는 것(dkar rtsis, 점성술)으로, 인도의 예를 따른다. 또 하나는 원소로 계산하는 것('byung rtsis)으로, 중국의 측산(rgya rtsis)이라고도 불리며 易經에 기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두 체계가 티베트에서 합쳐져서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냈다. 중국의 측산은 다섯 원소(흙, 물, 나무, 쇠, 불)와 여덟 개의 괘(spar kha)를 강조한다. 매 해는 12 동물 즉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쥐, 소, 호랑이가 순서대로 붙으며 다

총명한 그들이 생사를 측산하는 법, 四時를 구별하는 법을 배운 후 올라오고 나서⁶³⁸ 모든 배운 지식에 대하여 <235> 그 방식을 [송젠 감뽀 왕에게] 설명해야 했다. 황제가 우dbu에 머물 때 집합처⁶³⁹에서 그들이 아는 역산법을 모두 티벳어로 번역하여 바치라고 하였다. 그 후 다따뎨⁶⁴⁰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설명하게 했는데 그것을 자각bya gag이 반박하였고, 그 후 랑초 동렉이 설명하였는데 그에 대하여도 역시 자각이 오류를 찾아냈다. 그러자 황제가 분부하여 자각 자신이 설명하게 하니 [다른] 세 학자의 지식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는 학자(mkhas pa)로 불렸고 군주와 대신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다르미딱카dar mi stag kha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자각똥 뒤에서 있어서 해야 하는데 강설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자각의 제자가 되었다. 황제가 명령하기를 “다따뎨, 그대는 小’phran 팔괘를 얻는 것 외에 기타 生死 측산은 하지 말라. 사람이 망가지게⁶⁴¹ 될 것이다.”하였다. 랑초 도렉에게는 “그대는

섯 가지 원소를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점성술은 또한 칼라차크라 탄트라를 따르는데 이는 12세기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급하여 1027년을 불-토끼해로 하고 새로운 시대의 첫 해로 삼았다. 다섯 원소 즉 불-흙-쇠-물-나무에 陽과 陰이 번갈아 가며 붙고 거기에 열 두 동물 토끼-용-뱀-말-陽-원숭이-닭-개-돼지-쥐-소-호랑이를 차례로 연결하여 60년을 한 주기가 되며, 이 주기를 랍중(rabjung, rab byung)이라 한다. 예를 들면 흙-陽-용 해의 다음은 흙-陰-뱀 해가 되며 각 동물이 음/양이 고정되게 되므로 단순히 흙-용, 흙-뱀으로 적기도 한다. 티베트曆에 대하여는 Zuiho Yamaguchi, “Methods of Chronological Calculation in Tibetan Historical Sources”, *Tibetan and Buddhist Studies* by Louis Liget, vol. 2 Munshiran Manoharlal Publishers Ltd., 2000, New Delhi 참고.

⁶³⁸ yar la. 티베트로.

⁶³⁹ khrom tshogs sa. 일반적으로 톰khrom은 시장을 뜻하므로 “시장이 모이는 곳”을 의미하는데 의미를 알 수 없다. 한편 토번 제국 시기 피정복지에 8개의 군사 중심지를 “대 톰(khrom chen po)”이라고 하기도 했다. 여덟 개의 대 톰에는 황하 유역의 마툼rma khrom, 돈황 지역의 야르모탕 톰dbyar mo thang khrom, 양주 지역의 카르쎄 톰mkhar tsan khrom, 길기트 지역의 두샤 톰(bru zha khrom) 등이 있었다.

⁶⁴⁰ 여기부터는 위의 다따뎨를 데냐뎨`bre snya brtan이라고 적고 있다.

⁶⁴¹ mi phung.

生을 측산할 뿐 [76b] <236> 죽음에 대한 측산과 재난을 몰아내는 대 의식gto chen mo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책을 바치니 황제가 도장을 찍어 봉했다. 자각통편은 漢地의 측산법의 여러 방면에 모두 정통하였다. 그의 아들은 자각 가초bya gag rgya mtsho였는데 부자가 이어서 황제의 궁정의 역산사bla rtsis pa를 담당했다. 이것이 漢地의 역산학이 티베트에 전파된 최초이다.

漢地 역산학의 오래된 전파 차례는, 성자 문수보살’phags pa ‘jam dpal이 제석천 lha tshangs pa에게 전해주고, 제석천이 시빠srid pa의 공주lha mo 남꺄lma rgyal ma에게 전해 주었었다. 이후 역대 전수자로 라왕이 화현한 왕lha wang ste ‘phrul gyi rgyal po, 루가보klu dga’ bo, 담세세르까bram ze ser skya, 가딱뽕체 rgya stag po che, 향가hang gha, 가도레rgya do re, 가티 마하야나rgya khri ma ha ya na가 차례로 강설했고 그(가티 마하야나)가 티베트의 학자 네 명에게 가르친 것이다.

자각통편의 제자는 가링 예세 꺄뽕창ga rings ye shes rgyal po tshang이라고 하는데 그는 漢地의 측산법에 두루 능했고 특히 地輿學(sa gzhung)에 정통했다. <237> 漢地의 측산학은 五大續(rgyud chen po lnga)이라고 칭하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즉 攝集諸樹之木續(sdong po kun ‘dus shing gi rgyud), 神燈光明之火續(snang gsal sgron me me’i rgyud), 隱匿幻輪之土續(gab pa ‘khrul ‘khor pa’i rgyud), 黑色鉛丹之鐵續(se ru nag po lcag kyi rgyud), 甘露淨瓶之水續(bdud rtsi bum pa chu’i rgyud) 등이며, 기타 소규모 續, 論書, 秘訣 등이 셀 수 없이 있다.

그 후 티베트 왕과 16 대신이 함께 漢地의 [77a] 오대산(ri bo rtse lnga)으로 가서 漢地의 수호신에게 공양하고, 공주를 맞이할 때 했던 맹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많은 사원(lha khang)을 지었다. 13년 동안에 토번과 漢地에 108좌의 사원을 지었으며, 랍강rab sgang⁶⁴²에 용족라캉yongs rdzogs lha khang이라고 하는 것을 지은 것이 그 마지막이다.

⁶⁴² 일반적으로 미낙 랍강. 구 서하 지역.

『송쨌감뽀 遺訓(bka' chems bka' khol ma)』에 의하면 이 법왕 재위시에 인도에서 大師(slob dpon) 꾸사라ku sa ra⁶⁴³를 <238> 초대했는데 그의 통역사를 툐미삼보따'thon mi sam bho tra가 담당하여 論藏⁶⁴⁴의 廣, 中, 略 3종의 사본을 번역했다고 한다. 또한 네팔의 大臣 실라만주shi la man+ju의 통역사인 네팔의 비 티쨌공주가 經藏(mdo'i sde snod)과 『華嚴經(phal po che)』과 觀世音菩薩의 經續(spyan ras gzigs kyi mdo rgyud) 등을 번역했다. 인도의 바라문 샤까라sha ka ra의 통역사인 아짜리야 다르마꼬샤dhar+ma ko sha가 律藏('dul ba'i sde snod)과 『까리까 光明律(ka ri ka 'dul ba 'do ldan)』, 그리야의 經續(kri ya'i mdo rgyud)을⁶⁴⁵ 번역했다. 漢地에서 大師(slob dpon) 和尚 마하야나ha shang ma+hA ya na를 초청하니 그의 통역사인 공주 겔와 콩조rgyal ba kong jo⁶⁴⁶와 라룽 도르제 뽀lha lung rdo rje dpal이 漢地의 역산법과 의약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번역했다. 상승 지역에서 [77b] 뵈교의 성취자 상승 라뎀zhang zhung lha ldems이라는 자를 불러 뵈교도 라오남빠la'o rnam pa라는 자로 하여금 [그에게서] 뵈교를 공부하게 하고 질병의 치료 의식 등을 <239> 번역하여 뵈 종교도 역시 전파하게 하였다.

이 화신 대법왕은 장래 티베트 지방의 法緣을 증장시키기 위하여 친히 성 관세음보살의 경전과 五行(ma bu)의 口傳 등 108부를 직접 강설하고 그것들을 모두 책으로 써서 라싸lha sa의 장출링byang chub gling의 마두명왕(rta mgrin)의 발 아래에 그리고 윈루타독g.yon ru khra 'brug의 왕실 창고에 묻어 두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미래 어느 때에 이르러 이 경전은 모든 연분을 갖춘 이가⁶⁴⁷ 획득하게

⁶⁴³ GBB는 꾸마라ku mA ra.

⁶⁴⁴ mngon pa'i sde snod.

⁶⁴⁵ 산스크리트어 그리야. 밀교의 4부(事部, 行部, 유가부, 무상유가부) 중 첫번째.

⁶⁴⁶ 즉 문성 공주.

⁶⁴⁷ skal ldan las phro can. las phro can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티베트를 덮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없애기 위해 적절히 화현하여, 티베트인들이 예언을 믿도록 시장에서 병자, 의사, 점복자, 빈 교도, <240> 하늘을 날 수 있는 사슴 등으로 현신했다. 병자가 치유되자 시장의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병으로써 3 惡趣⁶⁴⁸ 윤회의 고통에 대해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원숭이 力士 하누만다⁶⁴⁹ha nu man tha로부터 티베트인들이 난 것에서 그의 고사로부터 티베트 민족을 [78a] 業의 인과와 연결하니 [비로소] 믿었다. 또한 티베트인들을 戒, 定, 慧 3학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빈교 사도로 화현하여 bon byas 병을 치료하고 3학의 대 공덕을 보여주었다. 황제는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세운 12 功業의 모습을 따라 라싸 ra sa의 조캉 gtsug lag khang에 일생 12 공적의 역사를 그렸고 분노 금강상 khro bo rme brtsegs의 뒤에 여덟 개의 불탑을 세웠다.

이처럼 이 대 법왕은 관세음보살의 현신 dngos이라고 알려져 있고 석가모니가 <241> 가르치신 방식을 잘 전수하고 나서 82세가 되던 흠-陽-개해 초에 유언을 남겼다. 유언에서 말하기를

“이 설역 티베트에

나로부터 5대에

“데 lde”라고 하는 법왕이 나서⁶⁵⁰

수승한 불법을 남김없이 전파하고

⁶⁴⁸ ches na ba'i ngan song gsum. 3악취는 지옥(dmyal ba), 아귀(yi dwags), 축생(dud 'gro).

⁶⁴⁹ GBTB: ha lu man+da

⁶⁵⁰ 티송 데첸 (Khri srong lde brtsan r. 756-797 or 804).

그도 마침내 성불할 것이다.

그로부터 2대에

짐승의 이름을 가진 왕이 날 것인데⁶⁵¹

그는 佛法을 남김 없이 소멸시킬 것이며

그도 결국 惡趣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몇 대가 지나

정법은 단지 무상한 것으로 되어,

마치 등이 꺼질 때에 밝게 타는 것과 같이,

단지 겉모습을 취하는 때에⁶⁵² 정법은 극히 밝게 타오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 티베트 신민에게 모든 면에서 [78b] 이익을 주는 많은 유훈을 남긴 후 왕과 <242> 분노모의 화신인 네팔 비, 타라의 화신인 漢妃, 이렇게 부부 세 사람이 라싸 조캥'phrul snang 사원의 북쪽 호법전에서 자현 십일면 성 관음보살상 안으로 사라졌다.⁶⁵³ 그 상세한 정황은 『송쎌 감뽀 유훈』을 보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황제는 팬일'phan yul 지방의 삼모강zam mo sgang 지방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신 나첸뽀sna chen po와 시우궁뎌si'u gung ston 등 참결 권한 대신들이 티베트 모든 백성에게 퍼뜨리기 위하여 삼모강 지방에서 사망했다고 하고 또 사망 시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⁶⁵⁴ 漢妃 공주rgya bza' kong

⁶⁵¹ 랑 다르마(Glang dar ma r. 838-842)를 지칭할 것이다. 랑glang은 소를 뜻한다.

⁶⁵² rtags tsam 'dzin pa.

⁶⁵³ 문성 공주는 송쎌 감뽀보다 약 30년 더 살았다.

jo는 철-陰-소 해(641)에 漢地에서 와서 티베트에 58년을 거주했다.⁶⁵⁵

송쟁의 능묘⁶⁵⁶는 총개'phyong rgyas 계곡에 세웠다.

크기는 화살 하나를 쏘 거리다.

안에는 다섯 좌의 사원(lha khang)이 있다고 하므로 <243>

“안에 장식이 있는 무덤(bang so nang rgyan can)”이라고 불린다.

능묘를 정방형으로 짓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묘의 이름을 묵리묵뽕smug ri smug po라고도 한다.⁶⁵⁷

⁶⁵⁴ 삼모강은 셤모강zal mo'i sgang이라고도 적는다. 빠오 쪽락 텡와dpa'bo gtsug lag phreng ba의 로닥최중lHo-brag chos-'byung은 세 사람이 팬월('phan yul)의 셤모강에 머물다가 쨌뽕가 인후염(mgur cham)이 심했고 열이 났는데 두 비도 역시 병에 걸려 마침내 세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고 적었다. 이 때 팬월은 중앙 티베트가 아니라 캄에 있는 팬월이라고 한다. 또한 네팔 비의 시종이 비를 전염병에 감염시켰고 그에 따라 쨌뽕와 문성 공주도 역시 감염되어 세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는 구전도 널리 알려져 있다. 송쟁 감뽕와 두 비의 죽음에 대하여는 Per K. Sørensen, p. 341 참고.

⁶⁵⁵ 바로 앞의 문장에서는 송쟁감뽕 사망 시 두 비도 함께 조강의 자현 십일면 성 관음보살 상 안으로 사라졌다고 적어서, 함께 사망한 것처럼 썼다.

⁶⁵⁶ <dbang po> [bang so].

⁶⁵⁷ 『왕통을 비추는 거울』에는 그의 능 이름이 “꾸리 묵뽕sku ri smug po(갈색의 몸산)”라고 되어 있다(Per K. Sørensen, p. 346). 슈타인 등이 이를 무리 묵뽕smu ri smug po(갈색의 무 산)이라고 읽고 하늘과 쨌뽕를 연결하는 “무”와 연결하여 송쟁이 빛 속에서 용해되어 관세음보살 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능의 이름도 그렇게 붙여졌다고 보았다(R. A. 슈타인, p. 246). 송쟁 이후에도 군주들의 능은 알룬의 총개에 세워졌고 모양은 사각형이거나 원형의 큰塚이며 각 능은 명칭이 있다. 랑 다르마 이후의 혼란기에 왕릉은 대부분의 왕릉은 약탈되었다.

궁송 궁궐gung srong gung btsan(605/617? - 649)

그와 원의妃 티짬mon⁶⁵⁸ bza' khri lcam의 아들은 궁송궁궐gung srong gung btsan이다. 그의 대신은 망궤제상낭mang po rje zhang snang⁶⁵⁹과 늑궐 도례 snubs btsan do re였다. 5년간 재위하고 18세에 사망하자 부친이⁶⁶⁰ 재등극했다고⁶⁶¹ [79a] 한다.

능은 된카르don mkhar 계곡mda'에 세웠고

남리송궐의 왼쪽에 있다.

능 이름은 궁리궁첸gung ri gung chen⁶⁶²이라고 한다.

망송 망궐mang srong mang btsan(r. 650-676)⁶⁶³

⁶⁵⁸ GBTB: mong

⁶⁵⁹ GBTB: mang so rje zhang sang. GBB를 따랐다.

⁶⁶⁰ 즉 송궐 감뽀

⁶⁶¹ slar yang yab kyi rgyal srid bzung pa phyed mar <'grang> [bgrang].

⁶⁶² GBB는 궁시궁첸gung sri gung chen.

⁶⁶³ 알릉 왕조의 34대 군주. 그의 이름은 사료에 따라 망궐 망궐mang slon mang btsan이라고도 적혀 있기도 하다. 돈황의 연대기 역시 그를 망궐 망궐이라 적고 있다. 송궐 감뽀의

위의 황제와 토욕혼'a zha 비 꾀조모제khos jo mo rje의 아들 망송망꺈mang srong mang btsan은 13세에 조부 송꺈 감꾀가 사망하자 즉위하여 15년간 집꾀했으며 그의 대신은 가르 동꺈 율송mgar stong btsan yul bzung⁶⁶⁴과 침 망네르'chims mang gnyer가 맡았다. 27세에 꺈 지역의 바르낭bar snang에서 사망했다. -샹shang 지구의 포당강pho brang sgang이라고도 한다. <244>

망송의 능은 송꺈의 왼쪽에 있고

이름은 오셰르꺈꾀sngo bzher hral po⁶⁶⁵라고 한다.

뒤송 망꾀제'dus srong mang po rje(r. 676-704)⁶⁶⁶

손자이며 조부 사후 군사 정복을 계속하여 토번 제국을 당 영토로까지 넓혔다. 아샤 즉 토욕혼을 공격했고 티베트의 권역을 타림 분지까지 넓혔다. 그러나 당시 군주는 힘이 없었고 이를 추진한 것은 가르 가문이 실세였으며 조정의 거의 모든 요직을 차지했다. 그의 재위기에 가르 동꺈 율송이 송꺈 감꾀의 법률을 정비했다고 한다. 『新唐書』, 「吐蕃傳」은 그의 재위기에, 당 고종이 토번의 사자에게 “꺈꾀(망꾀 망꺈)와 그의 조부(송꺈 감꾀)는 누가 더 현명한가?”라고 물으니 사신 린 꺈상blon cung bzang이 “용맹과 과단은 선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치국에 근면하시어 신하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는 분이 지금의 꺈꾀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新唐書』, p. 266).

⁶⁶⁴ 가르 동꺈는 649년 송꺈 감꾀 사망후 사임했으나 곧 재임명되었고 새 군주가 어렸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큰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초기 저작인 『바꺈sba bzhed』에는 그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는데 비해 후에 14세기부터 그의 역할이 확대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의 전임자는 꺈꾀 뽕꺈 감꾀khyung po spung sad sgam po였는데 가르가 그를 몰락시켰다.

⁶⁶⁵ GBB: sdong shar sral po.

⁶⁶⁶ 뒤송 망꾀제는 어려서 즉위했고 재위 초 가르 가문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그의 권력

그 황제와 도'bro 출신의妃 세 티마囉se khri ma lod(?-712/713)⁶⁶⁷의 아들 뒤송 망뽕제'dus srong mang po rje⁶⁶⁸ 즉 룡남이 화현한 황제(rlung nam 'phrul gyi rgyal po)는⁶⁶⁹ 물-陽-닭해에 태어났는데 그 전에 선왕은 이미 사망했다. 그러므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즉위하여 29세에 사망할 때까지 집권했다.

그의 재위 동안 티베트는 악기들의 종류가 많이 생기는 전조가 나타나고⁶⁷⁰ 일곱 명의 용사가 출현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아괴 동쨌a rgod ldong btsan은 백사자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⁶⁷¹ 뽀 티상mon khri bzang은 두 마리 성숙한 호랑이를 같이 포박하여 끌 수 있었으며 골짜기를 호랑이 울음소리로 가득차게 했다고 한다. 도된담양닥팍ldo don dam yang dag 'phags은 13개의 큰 자단목(seng ldeng gi gdung) 위에 쇠를 [79b] 올린 후 지고 나를 수 있었고, 쪽로 상까르lcog ro zangs dkar는 라싸lha sa의 <245> 石碑rdo rings를 허리에 지고 흔들며 걸었다고 한다. 독링 낙뽀 rdog rings nag po는 살아 있는 어린 코끼리를 네팔에서부터 지고 왔다고 한다. 괴삭충mgos shang chung은 사슴 가죽 부대 두 개를 소금으로 가득 채워 머리에 이고 다녔다고 하며, 뽀 깬 남당 mnon rgyal mtshan rnam grangs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의 세 배나 먼 곳에 화살을 쏘아 이르게 했고 강이 쪽 저쪽으로 뛰어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후에 세력을 넓혀 운남의 왕조 남조까지 진출했으며 704년 원정 도중 사망했다.

⁶⁶⁷ GBTB: pe khri ma lod. 티마囉 황후는 도'bro 부족 출신이며 뒤송 망뽕제의 모친으로, 그 후에는 티데 쪽뽀를 권좌에 올린 최고 수훈자이며 조모로, 토번 제국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⁶⁶⁸ GBTB: lus sreng mang po rje.

⁶⁶⁹ 그러므로 이 왕을 단순히 화현 즉 뽀'phrul이라고도 부른다.

⁶⁷⁰ rol mo'i rnam grangs mang po 'byung ba'i snga ltas su.

⁶⁷¹ GBB: 목덜미gnya'. GBTB: 코sna를 잡았다고 한다.

이 황제(뒤송 망뽀제)의 재위기에 티베트에 전에는 없던 차(ja)와 도자기가 나타났다. 그 역사는 여기에 없고 다른 것을 보면 되니 여기에는 간략한 내용만 적는다. 어느 때에 황제가 중병에 걸렸는데 당시 티베트에는 의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음식과 행동 방식을 아는 것에⁶⁷²에 의존할 따름이었다. 황제가 몸을 편히 하고 쉬고 있을 때 궁 옥상의 난간에 아름답고 <246> 전에 본 적이 없는 새 한 마리가 왔는데, 잎이 몇 개 달린 나무 가지 하나를 입에 물고서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다. 황제가 이를 보았으나 좋지도 싫지도 않았는데 다음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와 있었다. 황제가 이를 의아하게 여기면서 살펴보고서 그 나뭇가지를 침실에 두었는데 전에 보지 못한 나무였고 [80a] 잎 하나를 입에 넣어 맛을 보자 갈증이 해소되었으니 최고의 음료인 것이 분명했다. 황제는 “신민들은 들으라! 내가 지금 병에 걸려 다른 음식은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나 다만 새가 가지고 온 이 잎이 음료로 매우 뛰어나니 몸을 보양하며 병을 치료하는 양약일 것이다. 나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247> 큰 상을 주리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신민들이 티베트 땅 위 아래 모두를 살폈으나 찾지 못했다. 대신들 중, 오로지 왕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며 충성심이 지극히 큰 한 사람이 티베트 변경에서 걷고 또 걸다가 漢地의 숲rgya nags에⁶⁷³ 보라색 연무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이 숲에 그 나무가 분명히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 가니 숲의 한쪽 가에는 큰 강이 하나 있었다. 건너갈 수 없었으나 건너편 숲에 그 나무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보고서 대신은 또한 마음으로 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그의 앞에 나타나더니 헤엄쳐 강을 건너 갔고 그것을 보고서 강폭이 넓을 뿐 수심은 깊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크게 기뻐하며 물고기가 헤엄쳐 간 쪽을 따라 강을 건넜다. 대신이 숲 안에 이르니

⁶⁷² rtog bzo - rang 'dod blo bzo - personal invention, fancy, imagination, fabrication, fantasy

⁶⁷³ 그 뒤에 'thub po라는 단어가 있으나 여기서 의미를 알 수 없다.

<248> 나무들이 [80b] 대부분 새가 가져온 나무와 같았다. “물고기⁶⁷⁴의 왕이 나타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하며 이 나무를 한 짐 베었다.

또 계속 생각하기를 “이것은 군주의 병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길이 먼데 만약 지고 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나 혹은 짐 나를 짐승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어미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피하지 않고 그에게로 왔다. 대신이 그 사슴에 혹시 실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시도해보자 과연 바람대로 되었으니 이 나뭇가지를 어미 사슴 등에 한 묶음 싣고 자신도 한 묶음 지고서 갔다. 도중에 날이 가고 달이 갔지만 사슴에 싣고 티베트 황제의 궁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 곳에서 도울 사람을 불러 황제의 어전에 <249> 바쳤다.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큰 상을 주었고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험이 있었다.⁶⁷⁵

그 후 황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뛰어난 음료수이니 이를 담아 마실 잔은 이전에 있던 마노잔이나 금은 등 진보로 만든 그릇이 아닌, 이전에 없던 그릇을 찾아야 한다. 漢人들(rgya nag po)의 황제에게 도자기(dkar yol)라고 하는 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가서 청하라!”고 [81a] 사신gser yig pa을 보냈다. 漢地의 군주가 말하기를 “우리 漢地와 티베트 양측은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가] 토변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의약, 역산, 匠人, 약사들을 차례로 보냈는데도 티베트는 이를 마음에두지 않으니 도자기를 보낼 수 없다. 티베트인들에게 <250> 만들 원료가 있다면 匠人을 하나 보내리라.”고 했다.

⁶⁷⁴ ba gi rje bo (소의 왕)이라고 되어 있으나 물고기nya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⁶⁷⁵ GBB는 한 대신이 잎을 구해 왔다는 내용만 짧게 적었다. 『한장사집』의 이 기록은, 비록 전설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으나, 티베트에 차가 도입된 시기와 정황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첫째는 그 시기가 뒤송 망뽀제 때였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처음에 도입될 때 가벼운 음료수라기보다는 병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다는 것, 세번째는 티베트와 중국과의 경계 지역에서 차를 구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장에서는 티베트에서 뒤송 망뽀제 시기 처음으로 차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나 앞에서 송젠 감뽀 시기에 튼미 삼보따가 티베트 문자를 만들 때 한 노부인이 와서 자신의 식량은 차(ja)라고 대답했다고 하여, 그 때 이미 차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적고 있다.

漢地의 도자기 만드는 장인을 데리고 티베트 군주의 어전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것인데 먼저 재료와 물자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했다. 장인이 답하기를 “재료로 제일 좋은 것은 보석을 이용하는 것이고 중간으로는 숫돌('dzeng)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白石(rdo dkar po)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財庫에서 이 세 종류의 재료 어떤 것이라도 내주겠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장인이 “도자기의 종류는 아주 많은데 어떻게 만들까요?”라고 하였다. 황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이전에 漢地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모양은, 입구가 넓고 두께가 얇으며 다리가 짧고 색깔이 희며 부드럽고 푸른 광택(sngo dangs)⁶⁷⁶이 있는 것이다. 그 명칭으로는, 이것이 이전에 없었던 것이고 변창하지 않았었는데 그 그릇을 가리킴으로써 장수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니 <251> 다르체 dar tshe⁶⁷⁷라고 해라. 거기에 그림의 종류는, 처음에 새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는 덕택에 생긴 것이니 [81b] 上品에는 새가 입에 나무를 물고 오는 것을 그려라. 中品에는 호수를 물고기와 함께 그리고 하품들에는 초원spang ri의 사슴sha ba⁶⁷⁸을 그려야 한다. 이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 그림과 종류를 어떤 것이든 적당한 것으로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했다.

이에 장인이 원료의 우열과 淸濁을 구별하여 다르체 여섯 종류를 만들었다. 황제의 명에 따라 만든 세 종류에는 삽체shab tshe,⁶⁷⁹ 랜체lan tshe,⁶⁸⁰ 상체shang tshe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통의 것 세 가지에는 텍제theg rtse⁶⁸¹ 에체nges

⁶⁷⁶ 광택. sngo dang<s?> ldan pa.

⁶⁷⁷ 번영과 생명의 뜻.

⁶⁷⁸ GBTB: shi ba (죽음). GBB: sha ba가 맞을 것이다.

⁶⁷⁹ GBB: sham tshe.

⁶⁸⁰ GBB: lab tshe.

⁶⁸¹ GBB: theg tshe.

tshe⁶⁸² 도체brdo tshe⁶⁸³라고 불렸다. 티베트의 이 다르체 도자기들은 이전에 漢地에서도 없던 것이었으며 [티베트에] 차ja와 <252> 도자가 최초로 생긴 것이 이들이다.⁶⁸⁴

이 황제(뒤송 망뽀제)는 티베트 외에 남조ljang yul 등 많은 국가를 치하에 두어 세력이 커졌다.⁶⁸⁵ 그는 29세에 남조 지방에서 사망했고 그 시신은 네르쪽두궁티

⁶⁸² GBB: deb tshe.

⁶⁸³ GBB: rdo tshe.

⁶⁸⁴ 토번 제국 시기에 차의 음용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이 때 티베트인들이 널리 차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10세기 이래 사원을 중심으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1세기경에는 상층 승려와 귀족, 수령들 사이에서 차가 널리 음용되었다고 본 연구가 있고(趙國棟, 西藏傳統茶文化的發展階段, 『農業考古』, 2018-2, p. 155) 유사한 관점으로 또 한 연구는 사까 지배기 즉 몽골 제국 시기에 들어서 차가 널리 퍼졌다고 보았다(Patrick Booz, “Tibet and Tea,” Jeannine Bischoff and Alice Travers (eds), *Commerce and Communities: Social and Political Status and the Exchange of Goods in Tibetan Societies*. Berlin: EB-Verlag, 2018, p. 130). 그러나 몽골제국 시기에도 차의 향유 계층은 지위가 높은 승려나 관료 등 상류층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용도는 손님 접대나 의식용으로 많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14세기 중반 사까파를 압도하고 티베트에서 권력을 장악한 팍모두 만호장 장츄 겐첸은 자신이 사까파의 고위 승려에게 차를 바친 기록이나 자신이 사까파의 구금에서 풀려나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며 차를 바친(“ja 'dren,” Byang chub rgyal mtshan, p. 89; 贊拉 阿旺, 余萬治, p. 121) 기록 등을 남겼다. 뒤에서 살펴볼 가뵈익창 <몽골 군주들의 역사> 장에서 상가가 군대를 이끌고 티베트에 파견되었을 때 “대학자 로되 상뽀blo gros bzang po가 막사로 차를 대접하러 왔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장츄 겐첸의 또 다른 기록은 그가 어릴 때 사까 사원으로 가서 주지 다니 첸뽀 상뽀뽀를 모셨는데 다니 첸뽀가 장츄 겐첸 자신을 비롯한 어린 귀족 자제들로 하여금 “수종 없이 직접 차를 끓이고 불을 피우고 물을 길게 했다”고 적고 있다(Byang chub rgyal mtshan, p. 27; 贊拉 阿旺, 余萬治, p. 83). 아마도 당시 티베트에 케식 제도와 유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소년들은 조카 혹은 손자라는 뜻의 “원뽀dbon po”라고 불렸다. 이 차는 주지 승려인 다니 첸뽀에게 바칠 차였을 것이며 고위 승려들은 일상적으로 차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

⁶⁸⁵ 『新唐書』는 뒤송 망뽀제 시기의 토번에 대해 “그 땅은 동쪽으로는 송주, 무주, 휴주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婆羅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4진을 취하고 북쪽으로는 돌궐에 이르러 그

gnyer cog gru gung khri⁶⁸⁶가 거두었다.

화신황제⁶⁸⁷의 능은 망송 망쎄의 왼쪽에 있으며

이름은 쎄게 짝사쎄seng ge rtsig sa can⁶⁸⁸이다.

이 능을 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는 위구르인(hor) 백성들이 세웠다고 한다.

티데 쪽쎄khri lde gtsug btsan 메악츄mes ag tshoms(r. 704-755)⁶⁸⁹

넓이가 만여리에 이르니 그 강성함은 漢과 魏 시기의 여러 戎 중에도 없는 바였다(『新唐書』, 「吐蕃傳」 p. 272)”라고 적었다.

⁶⁸⁶ GBB: gnyer lcog gru khung khri.

⁶⁸⁷ 툐꺄'phrul rgyal. 뒤송 망뽀제의 별칭. 간단히 툐이라고도 한다.

⁶⁸⁸ GBB: seng ges ba rtsigs pa can.

⁶⁸⁹ 알룬 왕조의 36대 군주. 즉위하기 전의 이름은 꺄 쪽루rgyal gtsug ru다. 그의 즉위는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는데, 부친 뒤송 망뽀제가 남조 원정 중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후, 조모 티마뢰khri ma lod와 그녀의 출신 부족인 도'bro 부족이 꺄 쪽루를 지지했지만 뒤송의 妃 중 하나이며 돌꺄이나 토욕혼 출신으로 보이는 가꺄(ga tun, 아마도 카툐의 음사) 왕비의 아들 라 뵈뵈lha bal po가 먼저 즉위한 것으로 보인다. 『新唐書』에서 “뽀뽀의 조모 '可敦'”이라고 적은 것은 토번 제국 뽀뽀의 비를 칸의 부인에 대한 칭호인 카툐으로 불렀다가 보다 라뵈뵈의 모친 가꺄를 정변 후 뽀뽀가 된 꺄 쪽루의 조모 티마뢰와 혼동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돈황의 티베트 연대기는 가꺄의 아들 라 뵈뵈를 공식 뽀뽀로 기록하고 704-705년 사이 재위했다고 적었다(Brandon Dotson & Guntrap Hazod, p. 143) 당시 꺄 쪽루의 조모 티마뢰는 제국 내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인물이었고 세력다툼에서 티마뢰 측이 승리하면서 라뵈뵈는 퇴위하고 가꺄 비는 곧 사망했다. 꺄 쪽루 즉 티데 쪽쎄의 재위기는 비교적 길고 안정된 시기였는데 6세에 금성 공주와 혼인했고 755년 피살되었다. 티 마뢰는

이 황제와 참'tshams의 비 쩐라 메톡btsan la me tog의 아들 티데 쪽땡khri lde gtsug tan은⁶⁹⁰ 메악츨mes ag tshoms으로도 알려져 있고 철-陽-용 해(712)에 댄 까르ldan dkar 궁에서 태어났는데 그 해에 부친이 [82a] 사망했기 때문에 바로 즉위했다.⁶⁹¹ 배 꺾상똥땡sba skyes bzang stong btsan⁶⁹²과 침 꺾식슈데'chims rgyal gzigs shu lde,⁶⁹³ 도 추상호르망'bro chu bzang hor mang⁶⁹⁴ 세 명이 재상을 맡았다. <253>

그는 “선조인 송땡이 예언한 사람이 나다.”⁶⁹⁵라고 생각하여 大師 상개 상와sangs rgyas gsang ba⁶⁹⁶와 시와zhi ba를 초청하고 또한 사람을 보내 많은 대승 현밀경전을 가져왔으며⁶⁹⁷ 이 경전을 안치하기 위하여 닥마르딘상brag dmar mgrin

거의 동시대 인물인 唐의 武則天(690-705)에 비할 만하다. 메악츨 시기에 토번은 발를을 정벌했으며 당과 적령(청해성 日月山)에 정계비를 세웠다.

⁶⁹⁰ GBB: khri lde gtsug brtan.

⁶⁹¹ 이는 티데 쪽땡 즉위 전 라벨뽀와의 계승 전쟁으로 인한 토번 내부의 갈등을 지우고 그가 부친 사망 후 바로 즉위한 것으로 적은 것이다. 부친 뒤송 망뽀제의 생몰 연대는 사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나 티데 쪽땡의 즉위와는 최소한 몇년의 간격이 있다.

⁶⁹² GBB: sba skyes bzang stong btsan.

⁶⁹³ GBB: mchims rgyal gzugs

⁶⁹⁴ GBB: skyi sho ting 'gro chu bzang hor mang.

⁶⁹⁵ 후손 중 이름에 데lde가 들어가는 자의 시기에 佛法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

⁶⁹⁶ 즉 Buddhaguhya.

⁶⁹⁷ 앞의 전체 해설에서 본대로, 메악츨이 漢地에 보낸 사신들은 당의 수도 장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시 개척된 장안-사천-티베트 노선을 채택하여, 사천으로 가서 엑츨eg chu(아마도 益州)에서 김 화상kim hwa shang(金和尚)을 만나 토번과 관련된 예언을 듣고, 불경도 받는다. 이 기사는 『바세』와, 『바세』를 옮겨 실은 16세기 빠오 쪽락 텡와(dpa' bo gtsug lag phreng ba, 1504-1566)의 『賢者喜宴(mkhas pa'i dga' ston)』 등에 실려 있다. 즉 기록에 의하면 티송데땡이 어릴 때 부친이 바 상쉬 등 사신들을 중국에 보내 불경을 구해 오게 했는데 황제를 만나고 티베트로 돌아가는 길에 익주에서 호랑이를 능히 다루는 김 화상을

bzang, 닥마르까추brag dmar ka chu, 칭푸'ching phu,⁶⁹⁸ 남랄 nam ral, 마사공 ma sa gong 등 사원(lha khang) 다섯 곳을 세웠다. 또한 한인 껀르셰와ker she ba⁶⁹⁹가 『金光明經(mdo gser 'od dam pa)』, 『辨業經(mdo las <rnam>[rnam['byed)』을 번역했고 비지 쩌빠실라bi ji btsan pa shi la⁷⁰⁰가 다수의 의학서를 번역했다. 이 시기에 칭아딱째'phying nga stag rtse⁷⁰¹에서 큰 옥g.yu rtog chen po도 발견했다.

만났고, 김 화상은 이들에게 왕은 이미 사망하였고 왕자는 아직 어려서 黑道를 좋아하는 대신들이 불교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불법을 파괴하고 있고, 닥마르딘상의 불상도 파괴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만약 왕이 성년이 되어 법을 거론하면 그때에 이 경전에 대해 말해주라고 했다. 그러면 왕이 믿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사신들이 김화상 곁에 두 달을 머물며 공부를 하고나서 경전을 받아 지니고 티베트로 돌아가니 과연 화상이 말한 대로였다(Sba gsal snang, pp. 7-15. 또한 Matthew T. Kapstein, *The Tibetan Assimilation of Buddhism: Conversion, Contestation, and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71 참고). 김 화상은 바로 신라의 왕자로 출가하여 승려가 된 淨衆 無常大師(680-756)이다. 송고승전에도 역시 김 화상이 호랑이를 다루는 능력과 예언 능력을 언급하고 있어 티베트 측 기록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불교영상학회보편, 『정증무상선사淨衆無常禪師』, 불교영상학회보사, 1993, pp. 290-291). 『바세sba bzhed』 등의 사료에 김화상은 단순히 漢人 화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바세sba bzhed』 해당 구절의 첫부분에 티베트 사신들이 김화상 있는 곳으로 갈 때 지나야 했던 언덕 이름 혹은 언덕이 있는 지명으로 나오는 “끼울레ke'u le”는 고려를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화상kim hwa shang에 대한 기록에서 편집본들이 끼야 화상ki ya hwa shang이라거나(巴臥 祖拉陳瓦 著, 黃顯·周潤年 譯注, 『賢者喜宴-吐蕃史 譯注』,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0, p. 121) 니마 화상nyi ma hwa shang이라고 한 것은 모두 “kim hwa shang”의 오류로 보인다. 『賢者喜宴』은 다른 페이지에서는 “kim hwa shang”이라고 올바르게 적었다(p. 125). 인민출판사 본 『바세』는 그의 이름을 모두 kim hwa shang이라고 적었다.

⁶⁹⁸ GBB: 'phying bu. 이 앞에 라싸 카르닥lha sa 'khar brag이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다.

⁶⁹⁹ GBB: ke shang.

⁷⁰⁰ GBB: bi ji tsan pa shi la. GBTB: bi ji btsan pa shi la.

⁷⁰¹ GBTB: 'ching nga stag rtse.

그는 남조의 티뽀khri btsun을 妃로 맞이했는데 그 사이에서 뛰어난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은 장차 라원ljang tsha lha dbon이라고 했다.⁷⁰² 그의 비가 되기에 적절한 사람이 티베트에 없었기 때문에 漢地로부터 漢地 군주 예종khing dzung⁷⁰³의 딸 금성공주kim shing kong jo <254> 를 취하였는데, 공주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넥티 상된gnyegs khri bzangs 'don⁷⁰⁴이 자신의 딸을 취하지 않은 것을 시기하여 장차를 죽였다.⁷⁰⁵ 장차 라원의 능은 그 부친 능의 앞에 둥그렇게 세웠다고 한다. 그 부친이 [금성] 공주를 취하여⁷⁰⁶ 낳은 [82b] 아들이 티송 데쨌khri srong lde btsan이었으며⁷⁰⁷ 선조 송쨌 감뽀가 태어난 지 174년이 지난 철-陽-말 해에 닥마르brag dmar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63세에⁷⁰⁸ 야독ya 'brog의 뱀첸카sbal tshan

⁷⁰² 그의 이름에서 장ljang은 모친의 출신지 南詔에 대한 티베트어 이름인 “장”을 딴 것이다.

⁷⁰³ GBB: wing 'jung. 금성 공주의 부친은 옹왕 守禮이고 무척천의 차남 장회태자의 아들이다. 중종 복위 후 옹왕에 봉해졌고 707년 딸을 금성 공주에 봉하여 토번의 쨌뽀에게 시집보냈다. 혼인 후에 토번은 당에 河西 九曲을 공주의 탕목읍으로 줄 것을 요구했고 당이 이를 허락하니, 九曲이 목축에 적합하면서 당과의 접경 지역이라 토번 세력이 늘어나고 쉽게 쳐들어왔다고 한다. 당에서도 역시 쨌뽀가 오만한 글을 보내와도 군사적 대응이 어렵자 공주를 통해 쨌뽀와 화약하려고 한 기록이 있으니(『新唐書』, 「吐蕃傳」 pp. 292-293), 이는 토번과 당 모두가 공주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⁷⁰⁴ GBB: gnyags khri bzang 'don.

⁷⁰⁵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장차 라원이 공주를 맞이하러 가는 도중 달빛에 말 경주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다.

⁷⁰⁶ 이글에 따르면 공주가 도착하기 전에 아들이 사망했고 따라서 공주는 아버지와 혼인했다는 것.

⁷⁰⁷ 티송 데쨌는 데쨌 나남sna nam 출신 비에게서 났다. 『거울』은 심지어 나남 비가 금성 공주가 낳은 아이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적고 있으니 이는 당 공주에 대한 선호 때문일 뿐 아니라 아마도 티송이 어릴 때 섭정을 맡았으며 反 佛의 惡臣으로 불리는 마샹 툰빠꺄ma zhang khron pa skyes가 티송 데쨌의 친모와 같은 나남씨였으므로 그와 거리를 두기 위함이기도 할 것이다.

kha에서 사망했다.

악춤의 능은 무라산mu ra ri에 세웠고

화현한 황제⁷⁰⁹의 능의 왼쪽에 있다.

이름은 라릭쭈남lha rig tsug nam⁷¹⁰이라고 한다.

티송 데쎌khri strong lde btsan(r. 755-ca. 797)⁷¹¹

티송 데쎌 13세 때에 부친이 사망하니 [이때부터 그가] 43년 집권했다. 그는 聖 문

⁷⁰⁸ 메악춤 즉 티데 쭈쎌은 712/3년에 태어나 755년에 사망했으므로 향년 43세가 맞다. 그의 재위기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당이 이전에 토번에 잃은 땅을 되찾고, 서북쪽에서는 아랍인들이 진격해 와서 부하라, 사마르칸드 등을 탈취하는 시기였다.

⁷⁰⁹ 뒤송 망뽀제.

⁷¹⁰ GBB: lha ri gtsug nam.

⁷¹¹ 알롱 왕조의 37대 군주. 755년 대신들의 반란이 일어나 부친 티데 쭈쎌 즉 메악춤이 사망한 후 13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그의 재위기에 티베트 군대가 당의 수도 장안을 점령했고 티베트에 의한 꼭두각시 군주가 세워졌다. 또한 티베트 군이 돈황을 점령했고 이후 수십년간 이어진 돈황 지배는 이 도시에 티베트의 영향을 강하게 남겼다. 불교 관련 업적도 많아서, 인도의 학자이며 승려인 산타락시타(fl. 8th century)와 빠드마 삼바바를 초청했고 그리하여 티베트 최초의 불교 사원인 삼애를 건설했다. 또한 삼애에서 까말라설라(fl. 8th century)를 필두로 한 인도 승려들과 화상 마하연을 비롯한 당의 승려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쟁론하게 했다고 하는 유명한 “삼애의 쟁론”을 열었다. 그 결과 인도 승려들이 승리했고 중국 승려들은 추방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송쎌 감뽀에 이은 티베트 역사상 두번째 “법왕”이며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수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며 그가 수승한 법을 펼친 <255> 방식은 불가사의하다. 특히 처음 몇 년 동안은 惡臣 마상틴빠께ma zhang khron pa skyes⁷¹²가 제안하기를 “전의 왕족들의 短命은 법과 율을 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며, 이제까지는 규정을 바꾸어 적용했지만 누구라도 佛法대로 행한다면 畊교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명을 내려 석가모니상을 모래밭에 버리고 후에 다시 망월mang yul로 가져갔다.⁷¹³ 또한 [寺廟를] 관리하는 和尚ha zhang과 長老들을 漢地로 쫓아내고 백성들이 사망했을 때도 복을 부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을 小律令(khrims bu chung 'cha' ba)이라고 한다.

[티송 데첸] 왕자는 즉위하자마자 가르침에 해를 입히는 [83a] 다수의 행위들을 모두 제거하고, 마상틴빠께를 산 채로 묻었으며 석가모니 상을 망월에서 모셔오고 佛法을 흥성하게 했다.⁷¹⁴ <256> 그는 삼애bsam yas에 사원lha khang을 세우고자 했으며 티베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해뽀 산 has po ri⁷¹⁵에서 쇠로 된 관으로 들어가고 싶은가, 게개dge rgyas 지방의 모래밭을 금가루로 덮겠는가, 애루g.yas ru의 짱뽀(강)를 銅으로 된 관 속에 넣겠는가, 해뽀 산 꼭대기에 장인의zhang po 漢地가 보이는 수정으로 된 보탑을 세우겠는가,

⁷¹² 마상 틴빠께ma zhang khron pa skyes는 마상 톰빠 깡ma zhang Khrom pa skyabs 혹은 샹마샹 톰빠 깡zhang-ma-zhang Khrom pa skyabs 등 다양하게 표기되며 나남sna nam 씨족 출신의 재상으로, 티송 데첸이 아직 어릴 때 섭정을 맡았다. 마상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모친의 외삼촌”이어서, 티송 데첸의 친모의 외삼촌이 아닌가 추정하게 한다. 불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反 불교 정책의 대표자로 후대에도 비난받는 인물이다.

⁷¹³ GBTB는 skye ba (태어나다)라고 했으나 GBB대로 skyel ba (가져가다)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⁷¹⁴ 畊교 역사에서 이른바 세번째 단계가 이때 시작되었다. 이 단계는 畊교의 용어들이 불교 용어에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동화된다. 畊교의 이러한 절충적 형태는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고, 따라서 이 종교의 많은 문헌과 사원은 닝마파와 매우 유사한, 변형된 티베트 불교의 한 종파로 보이게 된다(R. A. 슈타인, 안성두 역, pp. 287-288).

⁷¹⁵ 삼애 남쪽의 언덕. 중앙 티베트의 성산 중 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원lha khang을 하나 세우겠는가?”라고 물어 선택하게 하니 백성들은 사원을 선택했다.⁷¹⁶

황제가 21세 되던 호랑이 해에 배 예세왕sbras ye shes dbang po, 지금은 배 셤sbras <snang gsal> [gsal snang]이라고 불리는 사람이⁷¹⁷ 사호르za hor 출신의 대승려 보디사뜨바⁷¹⁸를 초청해 보냈다. 와서 땅을 고르는 의식을 하는데 황제 자신이 금을 내어 사원의 기초를 세웠다. 1肘尺⁷¹⁹을 파내려 갔는데 쌀 <257> 地味⁷²⁰가 나왔다.

호랑이 해에 삼애사의 기초를 세우자 티베트의 神魔(lha srin) 등이 크게 [83b] 두려워하였고 칸빠(보디사뜨바)의 말대로 데왜 망빠제de was mang po rje와 쉹고 라릉seng gho lha lung 두 사람으로 하여금 우꺠u rgyan⁷²¹의 大師 빠드마 중내 pad+ma 'byung gnas⁷²²를 네팔의 양례셰yang le shed 의 동굴에서 찾아 초청해 보내왔다. 호법신의 명으로 대사가⁷²³ 그전에 이미 몸을 움직여 [토번에] 이르러 망

⁷¹⁶ 이 기사는 『왕통을 비추는 거울』에 상세하다. Per K. Sørensen, pp. 372-373 참고.

⁷¹⁷ 예세 왕빠라는 법명을 받은 재상 바 셤sbras를 가리킨다.

⁷¹⁸ bho te sa twa. 즉 산타락시타.

⁷¹⁹ khru gang tsam. 팔꿈치에서 주먹 쥔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약 15인치.

⁷²⁰ sa zhag. 불교 우주론에서 말하는 첫번째 겹의 음식.

⁷²¹ 오꺠o rgyan이라고도 하며 산스크리트어 우디야나. 파드마 삼바바가 머물던 곳이라고 하며 13세기 우꺠빠 린첸뵤(1229/30-1308/9)이 우꺠를 다녀왔다고 한 이후 티베트인들 사이에서는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북쪽 스와트 밸리라고 알려져 있으나 좀 더 논증이 필요하다.

⁷²² 8세기 티베트 불교 부흥을 이끈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빠드마 삼바바 (Padmasambhava, 蓮花生) 혹은 구루 린포체라고도 한다.

⁷²³ 즉 빠드마 삼바바. 티송 데첸 시기에 티베트에 왔다고 전해지는 탄트라 승려. 티베트에 이르러 악마들을 제압하고 티송데첸, 산타락시타와 함께 삼애 사원을 지었다고 한다. 닝마 파의 개조로 존중되며 무량광불(아미타바)의 화현이라고 여겨진다.

일에서 [맞으려 간 사자와] 만났고 황금을 바치니 대사가 받았다. 황제가 맞이하려 갔는데 시주와 복전이yon mchod⁷²⁴ 누가 누구에게 예경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사가 스스로를 위대하고 강하다고 하는?⁷²⁵ 노래를 부르고 궁으로 들어갔다. 대사는 또한 맬도mal gro⁷²⁶에서, 티베트에 큰 권세가 있는 용왕에게 명하여 寶藏을 열게 하였으며 또한 귀신을 진압하는 노래를 부르고 티베트의 모든 신마를 제압하고 사원을 <258> 지었기 때문에 낮보다 밤에 속도가 더 빠르게 건설되었다. 수르푸우첼zur phud u tshal의 용이 공사를 방해하므로 나무를 주었더니, 미래에 티베트에 龍病이 유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애는] 인도의 오판뚜뿌리o tan tu pu ri 사원을 본뒀고, 삼애의 꼭대기는 밀고 3부의 수미산의 모양이었으며, 내외의 環形道는 차례로 칠금산ri bdun을 나타내며, 비로자나불이 惡趣⁷²⁷ 중생을 구제하는 만달라를 만들었다. [84a] 또한 꼭대기는 律藏'dul ba에 맞게 건설했고 바깥 둘레의 14종의 經續(mdo rgyud)은 경장(mdo sde)에 맞게 세웠으며 78개의 塑像은 모두 密呪와 일치한다.⁷²⁸ 불전 전체에는 총

⁷²⁴ 원최 혹은 최원은 원yon이 공덕주yon bdag, 최mchod가 복전mchod gnas의 줄임말이며 세속의 후원자와 불교 승려를 뜻한다. 둘의 관계는 정치적 의무가 없는 관계일 수도 있고 정치, 군사적 요인이 강할 수도 있다. 외부의 공덕주와 티베트 승려들의 원최 관계의 시작은 서하 군주와 티베트 승려들간에 맺어진 관계로 본다.

⁷²⁵ che dang gnyan.

⁷²⁶ 지명. 라싸 남부.

⁷²⁷ 중생이 악업(惡業)의 인(因)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곳. 중생이 태어나는 곳은 모두 여섯 가지가 있으니 즉 天, 人, 菟羅, 餓鬼, 畜生, 地獄 취이며 이 중 뒤의 세 가지를 악취라고 한다.

⁷²⁸ 『바세sba bzhed』에 그 내용이 상세한데 인도에 있는 사원 이름이 오판뚜리o tan spu ri라고 적혀 있다. 『바세sba bzhed』에 의하면 보디사트바가 티송데첸에게 “이 사원은 경장(mdo sde), 율장('dul ba), 논장(mngon pa)과 密宗(gsang sngags)의 형식에 부합하게 지어야 하며 세계에서 威德이 가장 높아 비할 데가 없는 사원이어야 합니다.”라고 했고 이에 티송데첸이 “아짜리야 당신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니 보디사트바가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오판뚜리o tan spu ri에도 똑같은 사원이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1002개의 기둥이 있고 36개의 대문, 42개의 작은 문, 6개의 새소리가 나는 문, 8개의 큰 종이 있었다. 俱舍論에서 말하는 4 大洲, 8 中洲, 일월 등을 만들었으니, <259> 東 승신주(lus 'phags po)에는 지혜 문수보살전, 두 中洲 중 제하lus dang는 청정승률전(rnam dag khrims khang gling), 승신주는 어합범천전(brngo sbyor tshangs ba'i gling)이 있고 이 세 전은 반달 모양이다. 남쪽의 섬부주의 두 中洲 중 拂洲(rnga yab)에는 북마밀주전(bdud 'dul sngas ba'i gling), 別拂洲(rnga yab <gzhal> [gzhan])에는 天竺譯經殿(sgra bsgyur rgya gar gling)이 있으며 이 세 전은 견갑골 모양이다. 서쪽 牛貨州(ba lang spyod)⁷²⁹에는 도솔천 미륵전(dga' ldan byams pa'i gling)이 있고 두 중주 중 小行洲g.yo ldan에는 大日如來殿이, 勝道行洲lam mchog 'gro에는 不動禪定殿(mi g.yo bsam gtan gling)이 있고 세 전은 원형이다. 북방의 惡音洲(sgra mi snyan)⁷³⁰에는 菩提發心殿(byang chub sems bskyed gling)이 있고 樂音sgra mi snyan dang주에는 珍寶會合殿(rin chen sna tshogs gling)이 있고 惡音對洲sgra mi snyan gi zla bo에는 毗伽르 財庫殿(dpe dkar skor mdzod gling)이 있다. 이 세 殿은 정방형이다.⁷³¹

(拔塞囊 著, 佟錦華・黃布凡 譯註, 『拔協(增補本) 譯註』(附 藏文原文), 四川民族出版社, 1990, p. 130). 현 비하르Bihar주에 위치했던 오단따뿌리(skr. Odantapuri)는 날란다 대학에 이어 두번째로 오래된 사원 대학으로, 인도 불교가 흥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북인도의 사원대학 중 하나였고 인도 불교가 티베트에 전해지는 주요 매개처이기도 했다.

⁷²⁹ “소를 (화폐로) 사용함”의 뜻.

⁷³⁰ “소리가 아름답지 않은 주.”

⁷³¹ 불교의 우주관을 설명하고 있다. 13세기 팍빠는 쿠빌라이의 아들 제왕 진김의 요청에 따라 『彰所知論(Shes bya rab gsal)』을 지었고 그 안에 구사론적인 불교의 우주관을 싣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인간들은 4 洲와 8 亞洲 즉 12주, 그리고 小洲들에 거주한다. 북쪽의 구로(kuru) -소리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은 수명을 천세로 정했다. 동쪽의 비제하(승신勝身, 몸이 위대한 사람들) 인들은 수명이 500년이다. 서쪽의 구타니(우화牛貨, 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인들은 수명이 250년이다. 북쪽의 소리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횡사하는 일이 있다. 북쪽의 구로(kuru) 사람들은 갈지도 심지도 않은 쌀을 먹는다.” 등의 설명을 실었다('Phags pa Blo gros rgyal mtshan, *Shes bya rab tu gsal ba*, Derge edition, pp.

약샤yak+Sha와 따옥rta 'og 둘은 해와 달의 모양이다. 외부 철위산의 구석은 金剛舞步의 모양으로⁷³² 지었고 108개의 불탑을 상징한다. 각 둘레에는 [84b] <260> 부처님의 사리가 하나씩 들어 있다. 사방에 있는 네 호법신전은 대문 앞에 석비 네 개가 서 있는데 각 비에 동으로 된 어미 개khyi mo가 있다. 모두 황제의 명령에 따라 세운 것이다.

존귀한 비 까르꺄초 메독뎨dkar rgyal mtsho me tog sgron은 三界銅殿(khams gsum bzangs khang gling)을 세웠고 도'bro의 비 장춍뎨byang chub sgron이 게개제마殿dge rgyas bye ma gling을 세웠으며 포용pho yong의 비 꺄모 뎨rgyal mo btsun이 부첼金殿sbu tshal gser khang gling을, 모후 금성 공주gyim shang kong jo는 아홉 개의 꼭대기를 가진 담빠 木殿dam pa'i shing khang rtse을 세웠다.

궁 꼭대기의 밀교 삼부전(rigs gsum)의 네 구석에는 네 개의 대탑을 세웠다: 대재상 쉬뵤 뵤기 양미꺄레shud po dpal gyis ngang mi rgyal re는 白菩提塔⁷³³을 세웠는데 이것은 聲聞(nyan thos)의 방식을 따랐으며 사자로 장식했다. 가차라낭gya tsha lha snang은 홍색 법륜탑(dmar po chos 'khor bskor ba'i mchod rten)을 세웠는데 보살부(byang sems)의 방식으로 지었고 연꽃 무늬로 장식했다. 딱두루공 stag gru klu gong이 흑색 사리탑(sku gdung mchod rten)을 세워 <261> 여래의 사리와 탑 모양으로 장식했다. 침 도르제 떼츄'chims rdo rje spre chung은 청색의 天降塔(lha babs mchod rten)을 세웠는데 여래부의 방식으로 세웠고, 천신의 방은 16개의 문으로 장식했다.

나무-陽-호랑이 해 마지막 봄달 7일, 푸쉬야 별자리(skar+ma rgyal) 때 사원들의

22-23). 삼애는 바로 이러한 우주론에 의거해 지어졌다.

⁷³² mang rdo rje'i 'gros. GBB: mangs 'khor gdugs.

⁷³³ dkar po byang chen mchod rten. 최뎨mchod rten은 “공양의 의지처”라는 뜻으로 탑을 가리키는데 원적한 스승 등의 사리가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준공을 시작하여 만 6년 만에 완성되었다. 흙-陰-양해(779)에 캔뽀 보디사뜨바와 대사 빠드마 중내가 [85a] 開光 授權 의식을 행했는데 가피와 매우 신기한 幻化 현상이 다수 일어났다. 북면의 보리발심殿⁷³⁴의 주존불 비로자나(rnam snang) 상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꼭대기 전의 각 소상들이 모두 문을 나가버렸다. 황제가 매우 놀라며 불상들이 전 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상이 안으로 돌아와 <262> 원래의 자리에 안착했고 네 석비 위의 동으로 만든 네 마리 어미 개들도 역시 네 방향으로 뛰어내리더니 세 번씩 짙은 다음 모두 석비로 돌아왔다. 이것은 [유정들이] 윤회의 순서대로 태어나지 않으며 한 순간에 태어나는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三界銅殿(khams gsum <bzangs> [zangs] khang gling)의 주존상의 목덜미에 蓮花樹(me tog pad ma'i sdong po) 하나가 나기도 하니 왕 시주-북전은 매우 기뻐했으며 모든 臣民이 신기하게 여기고 크게 공경하게 되었다.

“길상 삼애 不變 自成 佛殿(dpal gyis bsam yas mi 'gyur lhun gyis grub pa'i gtsug lag khang)”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난 후 황제는 기쁨의 노래를 열 세곡 불렀고, 각 대신들은 행복한 길상의 노래를 아홉 곡을 불렀으며, [개광의식에 참가한] 각 사람들도 모두 길상의 노래를 불렀다. 계속해서 닥마르초모구르brag dmar mtsho mo 'gur 연꽃이 저절로 나니 13년 동안에 기쁨의 큰 복을 치고, 성대한 경축 연회를 [85b] 거행했다. <263>

이와 같이 다양한 행복의 시기에 사원을 보살피고 받드는 것에는 다소 소홀하게 되니 황제가 말하기를 “이제 나의 희망은 이루어졌으나 이 진기한 불탑과 사원이 훼손되지 않게 보살피고 받드는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적당할까요.”라고 하니 캔뽀가 말하기를 “인도에는 三寶를 받드는, 香燈師⁷³⁵라고 하는 출가인들이 있습니다. 티베트에는 지금까지 출가인이 없으니 왕을 생각하고 존경하는 대신과 백성 중 적당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또 말하기를 “그렇다

⁷³⁴ 앞에서 북 구로주에 세웠다고 한 전.

⁷³⁵ dkon gnyer. 삼보를(dkon) 돌보는 사람(gnyer).

면 티베트인도 출가하기에 적당한지를 캐뵈께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적당한지 아닌지 시험해 보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바샐낭sba gsal snang과 다웨티셰르da was khri gsher, <264> 빠고르 바이로짜나pa gor bAI ro tsA na, 앤람 겔와 축양ngan lam rgyal ba mchog dbyangs, 퀴왕뵈송와mkon klu'i dbang po bsrung ba, 마 아짜리야 린첸축sma a tsa rya rin chen mchog, 짱렉둑gtsang legs grub 등이, 출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러 캐뵈에게 왔다. 캐뵈는 이들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차례로 [법명을 주기] 바자넨트라락시따⁷³⁶는 예세 왕뵈 송빠 ye shes dbang po bsrungs pa, 다웨 라뜨나락시따 티셰르는 린첸 송와rin chen bsrung ba, 랜라드난뜨레락쉬따 ran rad nan+tre rak+Shi ta는 린첸 왕뵈 송빠 rin chen dbang po bsrung pa, 랑감빠 glang khams pa [86a] 수가따와르마락쉬따su gha ta war+ma rak+Shi ta는 데와르 섹빠 송빠bde bar gshegs pa bsrungs pa, 빠고르 바이로짜나 락시따는 남빠르 낭재 송와rnam par snang mdzad bsrung ba, 퀴나가 인드라 락시따는 퀴왕뵈 송와klu'i dbang po bsrung ba, 짱 데 덴뜨레 락시따는 래왕뵈 송빠 lha'i dbang po bsrung pa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 이들 티베트 최초의 출가자 7인을 “일곱 試人(sad mi bdun)”이라고 한다.

캐뵈는 그들을 까와 쉬리 꾸데 락시따 뵈쩍송빠ka ba dpal rtsegs bsrungs pa 등 <265> 譯師 108명으로부터 학습하게 했고 또한 쪽로 퀴겔첸 cog ro klu'i rgyal mtshan과 상 벤데 예세데 zhang ban+de ye shes dhe 등 譯師 1008명으로부터도 배우게 하니 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羊 해부터 이 비구들은 모두 캐뵈가 전한 교법 대로 설유부說有部(smra ba'i sde)를 세웠고 또한 인도에서 열두 명의 중관(dbu ma) 비구를 초빙하여 중관분별설부(dbu ma bye brag tu smra ba'i sde)를 건립했다.

이제 佛法이 퍼지고 증장되자 캐뵈는 인도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황제가 만류

⁷³⁶ 즉 바샐낭.

하여 청하니 1년 간 譯師들을 위해 강설하고 수많은 경전을 번역했다. 이때 그가 “티베트에는 후에 外道(mu stegs)가 나지 않을 것이나 불법을 신봉하는 자들이 둘로 나뉘어 결국 쟁론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266> 그 후 캔뽕 [86b] 보디사뜨바는 말을 타다가 머리를 차여서 열반했고 시신은 삼애의 해뽕 산 꼭대기에 탑을 세운 뒤 그 안에 안치했다.

빠드마 중내 대사는 티베트에 54년을 거주했고 모든 흉악한 天龍 8부를 진압하고 각지에서 산천토지에 가피를 내렸으며 무수한 法藏(chos gter)⁷³⁷ 과 寶藏(nor gter)⁷³⁸을 매장했다.

密法에 대하여는 이른바 6 試人이 나타났다. 그들은 늑 남카닝뽕gnubs nam mkha' snying po와 데 겔외 로되'dre rgyal ba'i blo gros, 루공 비리야라짜ru gong bi+rya ra tsa, 독구우뽕샤 drug gu u pe sha,⁷³⁹ 랑 뽕기성게glang dpal gyi seng ge,⁷⁴⁰ 께꾸꾸라짜ce ku ku ra tsa 등이며 밀교의 무수한 經續을 번역했다. 또한 넥gnyegs,⁷⁴¹ 사수르sa zur, 늑gnubs 3인과 퀴 도르제 린포체mkhon rdo rje rin po che <267> 는 성취를 획득한 “주요 8 만달라人(dkyil 'khor gtso bo brgyad)”⁷⁴² 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을 많이 늘렸다.

빠드마 중내 대사는 티베트에서 밀법을 전파한 후 서남쪽의 拂洲(rnga yab gling)로 갔으며, 왕자lha sras 무네쨌뽕mu ne btsan po를 비롯한 티베트의 많은 신민들이 그를 망월 궁tang mang yul gung thang의 고개로 전송하러 갔다. [대사는] 산

⁷³⁷ 경전을 매장함.

⁷³⁸ 불교에서 중요한 물건을 매장함.

⁷³⁹ . GBB: dru gu u pe sha.

⁷⁴⁰ . GBB: dpal glang gyi seng ge.

⁷⁴¹ GBB: gnyag ku mA ra

⁷⁴² GBB: dkyil 'khor bco brgyad. 18 단성 인. 만달라인. GBB를 따랐다.

위에서 티베트의 왕신과 많은 승속들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설했고 이것을 “蓮花 유훈(pad+ma bka' chems)”이라고 한다. 그후 그는 태양빛을 타고 [87a] 銅色 길 상산(zangs dog dpal ri) 위의 무량전(gzhal yas khang)으로 갔고 妖魔를 진압하고 不死의 지혜를 획득했다. 또한 티베트의 비구 다섯 명을 大手印(phyag rgya chen po) 성취의 경전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보냈고 바이로짜나bAI ro tsA na가 이 경전을 받았다.

또한 한 생동안 부처님의 교법을 듣기를 원하니 <268> 캔뽀와 낭땡진 상뽀 nyang ting 'dzin bzang po⁷⁴³의 예언대로 왕 인드라보떼in+dra bho te의 福田(mchod gnas)인 학자 비말라미뜨라bhi ma la mi tra⁷⁴⁴를 초청하기 위하여 까ka, 쪽cog 두 사람과 마린첸축(sma rin chen mchog)을 카쉬미르kha che국으로 파견했다. [비말라미뜨라] 대사와 만나 상황을 여쭙니 보피사뜨바다땡bho ti sa tba dha thim을 3차 강설하셨다. 초청하러 간 3인은 각자 서로 다른 분명한 이해에 도달했다. 대사가 네 개의 리소르li sor 기둥에 인도문으로 일곱 자를 새기고 그 중 하나를 가지고 삼애사로 갔다.

대사는 漢地와 티베트의 邪見을 조복하고자 불상(lha)과 황제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은 외도phyi pa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생겨 “어째서입니까?”라고 물으니 대사가 “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였다. “모릅니다.”라고 하니 “저는 神佛lha과 구별없는lha dang gnyis su med pa 절을 이미 했습니다. 표상을 나타내어 절한다면 불상이 견디지 못합니다.”⁷⁴⁵ 라고 했다. <269> 황제는 마음으로 “불교의 大師가 아닌 듯하구나.”라는 생각이 [87b] 들었다. “황제께서 믿지 못하신

⁷⁴³ 8-9세기 활동한 승려 재상. 족첸(rdzogs chen, 大圓滿) 전통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닝마파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티데 송젠(새날렉sad na legs, r. ca. 799-815)이 의뢰한 사원 새라강zhwa'i lha khang에 그의 공적을 적은 석비가 둘 서 있다.

⁷⁴⁴ 즉 Vimalamitra.

⁷⁴⁵ 자신이 불상과 하나라는 뜻으로 보인다. ngas lha dang gnyis su med pa'i phyag 'tsal zin/ brda'i phyag lhas mi thub.

다면 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비말라가 袈裟를 입기를 청하고서 먼저 신통력 (rdzu ‘phrul)의 절을 하고 비로자나불(rnam par snang mdzad)의 상에

비말라가 지혜존(ye shes lha)에게

세속kun rdzob의 예경을 합니다.⁷⁴⁶

라고 하고 절하는 동작을 하니 비로자나 상의 정수리부터 앉아있는 자리까지 쪼개져 버렸다. 황제가 “저 사람은 外道이다.”라고 생각하고 얼굴이 흠뻑이 되었는데 대사가 말하기를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고 손을 비로자나 상의 정수리에 대고서

비로자나 지혜신 중의 신이시여,

비말라가 세속의 몸으로

다섯 지혜의 신상을 갖추어 灌頂합니다.

라고 하니 상이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고 殿의 안팎이 빛으로 가득하였다. 대사가 “당신은 티베트의 황제이니 <270> 절 할까요?”라고 말하고 준비하자 황제의 袈裟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에 [황제가] 대사에게 절하고 그를 3층 사자좌(seng ge’i khri gsum)에 앉기를 청했고 황제 부부와 대신, 평민들이 모두 그에게 설법을 다수 청했다.

⁷⁴⁶ bi ma la ye shes lha’i phyag/ kun rdzob ngo gang phyag ‘tshal lo//

그 후 인도에서 캄뵤 [보디사뜨바]의 제자 까말라설라ka ma la shi la(Kamalaśīla, 740-795)를 초청했다. 그가 삼애를 향해 오다가 짱뵤gtsang po강에서 표식을 보고 한인 和尚ha shang⁷⁴⁷을 조복시킬 것을 알았다.⁷⁴⁸ [까말라설라가 삼애에 도착한 후] 황제가 상좌에 앉았고⁷⁴⁹ [까말라설라는] 화상과 쟁론했다.⁷⁵⁰

⁷⁴⁷ 즉 마하연Mahāyana (Ch. 摩訶衍, 8CE).

⁷⁴⁸ 삼애 사적기라고도 불리는 『바세sba bzhed』에는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다. “후에 까말라설라가 룡축rlung tshugs에 이르렀음을 사자가 와서 보고하자 君臣이 맞이하러 가서 물가에 이르렀는데 和尚도 권속과 함께 물가에 도달했다. 까말라가 물 건너편에서 “漢人 뻘디따에게 二執의 답을 얻기 위하여 聲明과 因明(sgra tshad)으로 물어야겠다.”고 말하고 지팡이(<chags> [phyag] shing)을 머리에 세 번 돌려 ‘三界에 어찌하여 윤회하는가?’라는 몸짓을 보냈다. 화상이 물 건너편에서 [二執에 의한 것임을 알리는 표시로] 외투의 밑자락을 잡고 두 번 흔들고 나서 “무서운 사람이구나.”라고 말했다(“kâ ma las chab phar kha nas rgya'i pan di ta la gzung 'dzin gnyis kyi lan bya bar sgra tshad dri gsungs nas/ chags shing dbu la lan gsum bskor bas kham s gsum du cis 'khor bya ba'i brda btang bar | hwa shang gis chab tshur kha na ber gyi thu ba nas bzung nas sprugs/ snyis kas go te lan btab/ hwa shang na re/ 'jigs po gcig 'dug zer” Sba gsal snang, *Sba bzhed*, Mi rigs dpe skrun khang, 1982 (2nd printing), p. 67).

⁷⁴⁹ gtso bor bzhugs. 『바세sba bzhed』는 왕이 중앙의 사자좌에 앉고 오른쪽 사자좌에 마하연과 그의 편인 왕비 등 頓門(ston min), 왼쪽의 사자좌에 까말라설라와 그 漸門(brtse min) 일행이 앉았다고 했다(Sba gsal snang, p. 67).

⁷⁵⁰ 티송데첸 시기 삼애 사원에서, 이른바 단계적 해탈론(漸悟)을 대표하는 인도의 학승 까말라설라 (Kamalaśīla, 740-795)와 즉각적 또는 동시적 해탈론(頓悟)을 대표하는 돈황의 和尚 마하연Hwa shang Ma hā ya na(Ch. 摩訶衍) 사이에서 벌어진 대쟁론이다. 까말라설라는 유가행 중관파의 대학자인 산타락시타(寂護)의 제자로, 스승의 돌연한 죽음 이후 삼애사의 쟁론을 위해 794년 티베트에 초빙되어 왔다. 마하연은 돈황에서 활동하던 중국계 선사로, 북선종 계열에 가까운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티베트의 돈황 점령 직후인 786년 라싸로 초빙되어 와서 당시 왕비와 귀족들의 후원 아래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 쟁론은 티송데첸의 입회 아래 795년 삼애사 장충링에서 일어났다(안성두, 「삼애사의 논쟁: 돈점론의 티베트불교적 전개」, 『불교평론』, vol. 14. No.1. 2003, pp. 399-417). 후대의 불교 철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많은 중요한 쟁점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그런만큼 이 쟁론은 티베트 불교사에서 일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일과 관련된 문제는 다소 복잡

그는 뭇 사람들로 하여금 佛法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고 和尚의 [88a] 견해에 나타난 의혹을 제거하였다.⁷⁵¹ 和尚은 패하고 漢地로 돌아갔는데 갈 때 신발 한 짝을 남겼고, “미래에 티베트에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몇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대사 까말라설라는 수습차제(sgom rim) 세 편을 지어 황제에게 <271> 바쳤고 사람들 중 청정인들은 까말라설라의 견해와 교법에 안주했다.⁷⁵²

하고 20세기 중엽 이후 학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에서 삼애의 대 쟁론이라는 서사는 티베트 문화가 8세기에 겪은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가 그 실존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쟁론의 명칭에 대하여도 여러 의견이 있다. Paul Demieville의 선구적인 저작 *Le concile de Lhasa* 이래로 이 일은 “The Council of Lhasa” 즉 라싸 공의회 혹은 라싸 종교회의라고 불려왔으며, 이 쟁론이 삼애에서 일어난 것에 근거하여 Tucci는 삼애 공의회(종교 회의)라고 불렀다. 최근의 연구들은 티베트 종교회의라는 명칭을 널리 쓰고 있다. 논쟁 당사자들의 만남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대면이 아니라 書面 논쟁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삼애 쟁론을 둘러싼 연구들의 쟁점에 대하여는 앞의 논문 안성두, 2003; 배재형, 차상엽, 김성철 역, Demieville, Paul 저, 『라싸 종교회의: 8세기 말 티벳불교의 돈점논쟁』, 금강학술총서 34, 서울: 씨아이알, 2017; 박건주,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돈오대승정리결』을 중심으로』, 운주사, 2017; David Seyfort Ruegg, “On the Tibetan Historiography and Doxography of the “Great Debate of Samye””, Gray Tuttle & Kurtis R. Schaeffer, 2013 참고. 본 역서는 『바세』와 『최중메독닝뽀』를 비롯한 티베트 사료들에 이 사건의 발생 장소를 삼애 사원으로,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논쟁stsod pa”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따라 “삼애의 쟁론”으로 적기로 한다

⁷⁵¹ 양 측의 쟁론 내용에 대한 기록은 중국측 자료로는 왕석(王錫)이 편찬한 『돈오대승정리결頓悟大乘正理決』이 있고, 티베트 문헌으로는 『바세sba bzhed』, 12세기 저작으로 아닥 낭랄 니마 외세르mnga' bdag nyang ral nyi ma 'od zer(1124-1192)의 역사서 『최중메독닝뽀chos 'byung me tog snying po』, 부뽀Bu ston(1290-1364)의 『불교사(chos 'byung)』 등이 있다. 양 측의 쟁론 내용 분석과 그 의미에 대하여는 안성두 2003 참고. 한편 부뽀는 쟁론 후 漢人 네 명이 까말라설라를 죽였다고 적고 있는데(Bu ston rin chen grub, Lisa Stein and Ngawang Zangpo tr., *Butön's History of Buddhism in India and Its Spread to Tibet*, Snow Lion, 2013, p. 289) 바세는 外道mu stegs들이 까말라설라를 살해했다고 했다(Sba gsal snang, pp. 77-78).

⁷⁵² 티베트의 기록은 이 쟁론의 주재자인 티송데첸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처

그 후 싱갈라shing gha la의 다나쉬rda na shi 대사 등 빠디파 학자들을 많이 초청하여 모셨고, 그들이 각자의 지역의 언어에 맞는 교법과 주석을 설한 것을 학자 바이로짜나와 까ka, 쪽cog, 상zhang 세 사람 등 인도와 티베트의 譯師들이 차례로 번역했다. 그리하여 현밀 경전, 결주man ngag의 설법과 청법, 수행등 교법이 밝은 태양처럼 밝게 했으며 또한 높은 지위의 남녀 142명을 동시에 출가시켰다. 동쪽에 간댄라폭dga' ldan lha phug, 남쪽에 딱창생게폭stag tshang seng ge phug, 서쪽에 닥마르뽀틴brag dmar spo thon, 북쪽에 아리아빠뢰폭a rya pa lo'i phug 네 곳에 대 수행지sgom grwa chen po를 세워 네 명의 대 수행자mkhas grub chen po가 그곳에서 <272> 전념하여 성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88b] 도'bro 출신 妃 장춍뽀byang chub sgron이 만년에 애루g.yas ru 하부에 사원lha khang을 세웠고, 왕 무락젠뽀mu tig btsan po가 샹푸첼shang phu

음부터 漸門 측에 서 있었음을 보여준다(Sba gsal snang, p. 64). 군주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교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 종교 쟁론을 여는 것은 후대의 몽골 제국시기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쟁론은 서로 다른 종교 철학 간의 객관적인 대담이라기보다 정치 행위에 가깝다. 한편 삼애의 논쟁은 티베트 불교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뽀조르 상뽀는 이 책의 2권에서, 몽케가 소집한 도교와 불교의 쟁론에 참여했던 팍빠가 몽케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漢地の 승려(ha shang, 和尚)들은 頓悟의 견해에 집착한다(rgya'i ha shang/ chig char ba'i lta ba la zhen pa",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2*,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ed., Thimphu, Bhutan, 1979, p. 35; 최소영, 「13~14세기 몽골의 침입과 지배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 『중앙아시아연구』, 2018, 23-1, p. 80).”고 비난한 내용을 기록했다. 즉 티베트 불교에서 頓悟는 극복되어야 할 邪見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는 그의 스승이며 삼촌인 사까 빠디파(Sa skya Pandita: 1182~1251)가 마하연의 가르침을 정신적 “만능적 구제약”으로 간주하고, 이를 “오늘날의 마하무드라”에 대한 비판과 연결시켜 이를 “중국적 족첸”(rgya nag lugs kyi rdzogs chen)으로 부르며 그 단점을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안성두 2003, p. 참고). 또한 8세기 말의 티베트에서 돈과 점이라는 두 불교 전통을 지지하는 집단이 논쟁을 한 것은 인도불교와 중국불교라는 두 국가 전통이 만난 것이 아니라,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되어 마하연에 이르는 선종과, 나가르주나에서 시작되어 카말라실라와 산타락시타에 이르는 중관파(유가행중관파) 간의 쟁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Gray Tuttle & Kurtis Schaeffer, p. 116).

'tshal의 사원을, 妃 가르꺄초 메톡뎨dkar rgyal mtsho me tog sgron이 만년에 길상 추보산chu bo ri의 사원을 지었고, 침'chims의 비 라모뎨lha mo btsan과 카르제'khar rje의 妃 초꺄mtsho rgyal 두 사람은 수행에 힘썼고 사원은 짓지 않았다. 바 예세 왕뎨sba ye shes dbang po⁷⁵³등 불교를 받드는 대신들도 역시 다수의 사원을 세웠다.

이 법왕의 재위기에 의학(gso spyad sman gyi rig)도 역시 발전했다. 처음 티베트의 의학 번역은 세 시기로 나누는데, 선조 송뎨 감뎨 시기에 의학이 시작되었으나 산만했고 큰 발전은 없었다. 티송데뎨 재위기에 <273> 그 방식이 제대로 도입되었다. 그때 譯師 바이로짜나가 모든 지역의 의사(sman pa)들을 초빙하여⁷⁵⁴ [의학 지

⁷⁵³ 『바세』의 저자라고 일컬어지는 바 샬낭.

⁷⁵⁴ 16세기 역사가 빠오 쪽락 텡와(Dpa' bo gtsug lag phreng ba, 1504-1566)의 『賢者喜宴(Mkhas pa dga' ston)』에 의하면 “티베트에 의학이 처음 나타난 것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영양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을 뿐이었는데 후에 漢妃가 『의학대전(sman dpyad chen mo)』이라는 책을 가져왔고 화상 마하데바ha shang ma ha de wa와 다르마고샤dhar+ma ko sha가 번역했다. 그리고나서 세 명의 의사, 즉 인도로부터 바라드화자bdzra d+hwa dza (Skt. Bharadvāja), 漢地에서 헨웡항데hen weng hang nge, 그리고 大食stag gzigs의 톰khrom에서 갈레노스ga les nos를 초청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파의 많은 것을 번역했고 함께 『두려움 없는 무기(mi 'jigs pa'i mtshon cha)』 일곱 권을 편찬했다. ... 또한 갈레노스는 御醫(bla dpyad)로 [티베트에] 남았다(Dpa' bo gtsug lag phreng ba, *Dam pa'i chos kyi 'khor lo bsgyur ba rnams kyi byung ba gsal bar byed pa mkhas pa'i dga' ston*, Delhi edition vol. tsa, pp. 697-698)”고 한다. 漢妃는 문성 공주를 말하며, 漢地의 헨웡항데 또는 헨웡헨데hen wen han de로 표기되는 것은 韓文海라는 漢人 의사로, 티베트어 이름은 똥숨강와Stong gsum gang ba(삼천계에 가득하다는 뜻)이다. 그는 티송데뎨의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티베트에 정착하여 살았으며 그의 제자들은 티베트 의학의 북방학파를 형성했다. 한문 해에 대하여는 丹曲, 「藏族古代醫學教育初探」, 『中國藏學』, 1995-4, pp. 107-112 참조. 한편 위에서 본대로 갈레노스라는 이름의 등장은 과연 그리스-아랍 의학이 티베트에 소개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해 Ronit Yoeli Tlalim은 티베트 의학의 소변 분석법에서 이븐 시나Ibn Sina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보이며, 향수와 약재로써 머스크를 다룬 연구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갈레노스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리스-서아시아 의학의 도래를 긍정하고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의약재의 명칭에서도 유사점이 발견

식을] 티베트어로 번역했다. 인도인 신파가르빠shin+ta gar pa는 藥師佛이 강설한 續部를 모두 번역했고, 漢地의 화상 마하야나는 문수보살이 강설한 續部를 티베트어로 번역했다. 네팔의 다나실라rda na shi la는 관세음보살이 강설한 속부를, 투르크gru gu의 생축 첸뽕seng mchog chen po는 持金剛佛이 [89a] 강설한 속부를, 툼khrom의 쯔빠실라btsan pa shi la는 미륵의 속부를, 뢰뽕dol po의 키마루쨌khyi ma ru rtse는 타라 여신이 강설한 續部 모두를 번역했다.

티베트 초기의 의사들에 대하여는, 황제가 御醫(bla dpyad)로 임명한 9인, 널리 알려진 의사sman pa 45인, 의술에 정통하다고 여겨지는 의사 92인이 있었는데 그들의 師承 관계는 <274> 다른 곳에서 밝힐 것이다. 라라마 장쭈 외lha bla ma byang chub 'od(984-1078)의 시기에 의학이 전해져 퍼졌고 그 종류는 셋으로 나누는데, 앞에서 말한 번역을 古派rnying ma, 로첸⁷⁵⁵ 린첸 상뽕가 번역한 8종류의 원문과 주석, 3부의 구전, 왕의 御醫 등을 新派gsar ma라고 하며, 구파와 신파가 혼합된 것과 각종 伏藏 등을 半傳派phyed mar dar ba라고 한다.⁷⁵⁶

되는데 예를 들면 장뇌camphor가 티베트어로 가포르ga phor 혹은 ka phor, ga phur 등인 것이 그 예이며 이런 면이 티베트 의학에 대한 서아시아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Ronit Yoeli Tlalim, “Revisiting Galen in Tibet”, *Medical History*, 56:3, 2012, pp. 355-365 참고. 한편 티베트 약의 명칭에 토번 제국 초기 멸망한 상송zhang zhung어로 된 것도 있으며 이는 외부의 영향 이전 이미 상송 시기에 상당한 수준의 의학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丹曲, 「藏族古代醫學教育初探」, 『中國藏學』, pp. 107-108). 상송의 의학에 대하여는 陳慶英, 劉英華, 象雄 醫學史淺議, 黃福開 主編, 『藏醫藥 研究文集』, 中國藏學出版社, pp. 215-231 참고. 티베트 의학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張恩英, 尹暢烈 「티벳의학에 對한 研究-《四部醫典·根本醫典》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金圭滿, 「藏醫學의 學術思想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양승규, 「불교의학과 사상의학의 체질적 양생론(養生論) 연구」, 『淨土學研究』, 2013, vol. 19, pp. 367-400 등이 있다.

⁷⁵⁵ 로짜와 첸뽕. 대 譯師.

⁷⁵⁶ 전통 티베트 의학 체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칼라차크라 탄트라(dus kyi 'khor lo rgyud)로, 이전에 작성되었으나 소실되었던 것을 11세기에 발견했다고 여겨지는 책이다. 또다른

일반적으로, 처음에 첨부주의 의약학gso rig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요약하면, 上續rgyud rab에 속하는 세 가지가 있었으니 즉 內道 불교의 續, 外道の 續, 고대 학문 중의 續 세 가지다. 그리고 11 유파babs가 있는데 如來의 유파, 帝釋天 유파, 仙人의 유파, 밀법 3부 자비(rigs gsum thugs rje) 유파, <274> 聖 지식 유파, [89b] 空行母 姿勢(mkha' 'grol ma brda)의 유파, 成就者語(grub thob lung) 유파, 外道 自理(mu stegs rang gzhung) 유파, 천신성취(lha dngos grub) 유파, 魔魁密語('dre gsang tshig) 유파, 醍醐愚語(dol po glen tshig) 유파이다.

[의학] 강설법 네 가지는, 원전의 뜻을 견지하는 설법, 주석을 설명하는 법, 사람들을 널리 이해시키는 설법, 구전을 듣기 좋게 하는 설법 이 있다. 번역의 두 종류에는 인도문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것, 한문에서 인도문으로 번역한 것이 있다.

[의학의] 열세 가지 방식은 인도식, 카쉬미르식, 네팔식, 카를룩gar log 식, 톰 khrom 식, 漢地 식,⁷⁵⁷ 상승 식, 투르크gru gu 식, 속뽕sog po 식,⁷⁵⁸ 뮌mon 식, 카쉬미르kha che 식, 티베트 식, 도르do 식 등이다.

의약학의 大典(rgyud chen)의⁷⁵⁹ 종류는, 부처님의 자비심의 빛으로부터 나온 「根

저작은 『四部醫典rgyud bzhi』이다.

⁷⁵⁷ 일부 티베트 사료들은 문성 공주가 토번으로 올 때 가져온 책 중 의학서가 있었다고 하고 있다(Zhen Yan, Cai Jingfeng, *China's Tibetan Medicine*, Foreign Languages Press, 2005, p. 171).

⁷⁵⁸ 티송데젠 시기인 것을 고려하면 소그드로 보아야 할 것이다. GBTB: srog po.

⁷⁵⁹ 보통 『四部醫典』이라 번역되는 책. 티베트어 제목은 “bdud rtsi snying po yan lag brgyad pa gsang ba man ngag gi rgyud (감로의 여덟 支에 대한 비밀 口訣의 精粹 탄트라)”. 8세기 초 유평 온뎐 권뽕 닝마(yu thog yon tan mgon po rnying ma, 708-833?)가 여러 의학 서적과 동시대 의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했다고 하며 또한 이것을 후대의 또다른 유평 온뎐 권뽕(yu thog yon tan mgon po, 1138-1213)가 보완했다고 전해진다. 책 제목은 일반적으로 짧게 『귀쉬rgyud bzhi』라고 부르며 위와 같이 네 개의 부(續)로 구성되어 있다. 귀rgyud는 “續”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나 일반적인 책 이름 대로 “부”로 번역했다. 관련 내용은 張恩英, 尹暢烈, 1998 참고. 한편 『四部醫典』은 17세기에 위구르문 몽골

本醫典rtsa rgyud」여섯 장이 있고,⁷⁶⁰ 몸의 빛으로부터 「論說醫典bshad pa'i rgyud」 31장이 나왔다.⁷⁶¹ [부처님의] 공덕의 빛으로부터 「秘訣醫典(man ngag rgyud)」 92장이 나왔으며⁷⁶² 부처님의 功業의 빛으로부터 나온 「後續醫典(phyi ma'i rgyud)」 25장이 있다.⁷⁶³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신 두 장이 있다.⁷⁶⁴

의약학의 『四部醫典(rgyud chen bzhi)』과 그 후기를

어로도 번역되었다.

⁷⁶⁰ 「根本醫典」은 『四部醫典』의 맨 앞에 나오는 것으로, 총 여섯 장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의전을 소개하는 부분이므로 내용이 함축적이며 내용의 대부분이 목차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생리와 병리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근본의전을 이해하는 것이 『四部醫典』 전체 이해의 기반이 된다.

⁷⁶¹ 「論說醫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六道 중생 중 우두머리인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 하며 안락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의학은 네 개의 방면을 포함하는데 1. 신체와 질병 2. 약물 3. 치료방법 4. 의사의 도리라고 한다. 그 중 1은 생리와 병리의 두 개 방면으로 나눌 수 있고 치병의 방법은 기거 행위, 음식과 음료, 약물, 수술과 같은 네 개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치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병이 들었을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그것이다. 치료는 변증, 치료 방법, 치료 施治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체가 생기고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처음 受精이 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환생하려는 의식이 모친의 子宮 안에서 부친의 精子和 자궁혈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차적 원인은 五源 즉 地, 水, 火, 風, 空 이라고 한다.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 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張恩英, 尹暢烈, 1998, pp. 436-437).

⁷⁶² 「秘訣醫典」은 「要訣醫典」이라고도 하며 신체의 부분 70장, 養老 1장 등 총 9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상 각론을 다루며 92장으로 외과, 여성과, 소아과, 五官 각과의 질병의 증상, 진단과 치료 방법을 다룬다.

⁷⁶³ 「後續醫典(phyi ma'i rgyud)」은 총 28장이라고도 하며 脈診과 尿診을 보충하는 것 외에도 약물의 제조와 용법밀 뜸 등의 外治法을 심도있게 설명하고 있다.

⁷⁶⁴ 맨 뒤의 후기(mjug don) 두 장을 말한다.

모두 합하면 156장이다.⁷⁶⁵

여래 제불이 화현하여 중생의 이익을 위해,

인도에서는 처방을 말하셨고

漢地에서는 불me 치료⁷⁶⁶와 根瀉 療法⁷⁶⁷을 가르쳤고,

될뽕dol po에서는 望診⁷⁶⁸를 가르쳤으며,

티베트에서는 대소변을 분석하는 것을 가르쳤다.⁷⁶⁹

천신lha의 권속들에게 강설하신 의학 십만송,

仙人(drang srong)의 권속들에게 진단tsa ra ka⁷⁷⁰ 8부, [90a]

내도의 권속들에게 밀법 事部 三怙主⁷⁷¹ 續部,

⁷⁶⁵ 위에서 본대로 『四部醫典』은 「근본의전rtsa rgyud」이 6장, 「논설의전bshad pa'i rgyud」이 31장, 「秘訣醫典(man ngag rgyud)」이 92장, 「後續醫典(phyi ma'i rgyud)」이 25장이니 총 154장에 후기 두 장을 합하여 156장이 된다.

⁷⁶⁶ 땀 등을 가리킨다.

⁷⁶⁷ rtsa sbyong. 티베트 의학에서 병의 기본 치료 후 下劑를 주어 몸 안의 병의 근원을 없애는 것.

⁷⁶⁸ ltar kha gtso bo. 환자의 증상을 봄으로써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

⁷⁶⁹ 티베트 의학에서 소변을 살펴 진단하는 것에 대하여는 Ronit Yoeli Tlalim, "On urine analysis and Tibetan medicine's connections with the West", Sienna Craig; Mingji Cuomu; Frances Garrett and Mona Schrempf, eds. *Studies of Medical Pluralism in Tibetan History and Society*. Hall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ibetan and Buddhist Studies, 2010, pp. 195-211 참고.

⁷⁷⁰ Skt. medical examination/ diagnosis

⁷⁷¹ rigs gsum mgon po. 즉 佛部の 문수, 금강부의 金剛手, 蓮花部の 관세음.

외도의 제자들에게 강설한 대자재 續部이다.⁷⁷²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학은 다른 곳에도 없다.

이와 같이 <277> 각 속과 주석들은 대체로 八支로 나누어 가르쳐야 하니, 먼저 제석천이 만든 의약gso spyad 십만송, 중간에 仙人 짜라까rsa ra ka⁷⁷³가 지은 치료 십만송이라고 알려진 것에 520장이 있고 이들을 八支로 나누니 즉 첫째는 專論支(rkos bstan pa'i sde), 둘째 成實支(gzhi sgru pa'i sde), 셋째 大甘露支(bdud rtsi chem po'i sde) 넷째 無畏의 武器支(mi 'jigs mtshon cha'i sde), 다섯 째는 五種甘露支(bdud rtsi rnam lnga'i sde), 여섯째는 命匣支(srog gi sgrom bu'i sde), 일곱째는 五種 醫治支(gso byed rnam lnga'i sde), 여덟째는 醫用藥用支(gso byed sman gyi sde)이다. 이 팔지에 대하여 또한 상부의 주석 「金針(gser gyi sbar khab)」이 있고 하부의 주석 「열쇠(lde mig)」가 있다. 또한 빠오dpa' bo 대사가 지은 『醫藥學八支論』의 주석에는 <278> “나는 의학의 지류를 몸병, 소아병, 마귀병, 상체병,⁷⁷⁴ 부상, 치아병, 노년 장양병의⁷⁷⁵ 여덟로 나누어 설명한다.”라고 하셨다.

근원에 대하여 八支가 [90b]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병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인데

⁷⁷² dbang phyug chen po'i rgyud. 티베트 의학에서 진찰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望診으로, 눈으로 혀와 소변을 관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切診은 이는 손가락으로 아는 것이고 驗情學이라고 칭한다. 마지 입으로 묻는 것(問診)은 병의 발생, 통증, 먹은 음식에 대해 묻는 것이고 이 방법을 聞聲學이라고 한다(張恩英·尹暢烈, 1998, vol. 11-1, pp. 434-435).

⁷⁷³ 이 이름 자체가 산스크리트어의 ‘진찰’을 뜻한다.

⁷⁷⁴ 上體lus [s]tod 병.

⁷⁷⁵ 老年將養病rgan ro tsa.

遠因은 無明이다.

近因은 탐욕, 분노, 우매 세 가지다.⁷⁷⁶

병의 종류도 상세히 나누면 730종인데 그 중 소화병(ma zhu)이 3종, 전염병(rims nad) 8종, 糞病(lud) 5종, 호흡병(dbug) 5종, 치매병(skyi bu) 5종, 풍병(rlung nad) 80종, 담병(khris <nas> [nad]) 3종, 자궁병(mngal skyon) 25종, 임부병(sbrum ma'i nad) 5종, 소아병(byi pa'i nad) 11종, 소아 魔病 12종, 일반 마병(spyi gdon) 18종, 失性病(smyo byed) 4종, 망각병(brjed byed) 4종이고, 눈병(mig gi nad) 9종, 바짜bA rtsa 4종으로 설명한다. 코병(sna nad) 25종, 귀병(rna) 18종, 목 등 입병 19종이라고 하는 것 등 <279> 730 종류의 병이 있고 모두 분명한 명칭이 있다. 대부분의 秘傳에서는 병의 종류를 404종이라고 말하는데,

101종은 類似 短期病ltar snang 'phral gyi nad으로,

치료 않고 그냥 둬으로써 살 수 있는 것이 많고,

101가지는 遍計魔kun btags gdon 병으로,

마귀를 다스리지 않고서 치료의 효험을 바라면 안 된다.

101종은 成就時(yongs grub tshe) 병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고 치료하면 대부분 산다.

⁷⁷⁶ 탐, 진, 치를 말한다. 질병의 원인에 대해 탐진치를 드는 것은 티베트 의학에 대한 불교의 영향을 보여준다. 티베트 의학의 불교적 맥락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張恩英·尹暢烈, 「西藏醫學에 나타난 診斷과 治療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vol. 18-2, p. 46; Ronit Yoeli Tlalim, “Tibetan Medicine and its Buddhist Contexts”, John Barton, ed.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참고.

101종은 歲業緣(las dbang sngon) 병으로,

치료할 수 없으며 死病이라고도 설명한다.

또한 간단히 九絶病(srog gcod nad dgu)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병을 404종으로 나누어도

모두 冷 혹은 熱 둘에 포함된다.

[병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1200 가지로, [91a]

望lta, 촉reg, 問診을 못 한다면 판단할 방법이 없다.

치료의 방법 1002 종류도

의약, 치료, 음식, <280> 행동에 모두 포함된다.

치료의 시행에는 360종이 있는데

진단, 치료 방식(gso tshul), 치료 방법(gso thabs) 세가지로 망라할 수 있다.

화살과 활이 품에 가득해도 과녁이 없다면 장난과 같으니

그처럼 續部和 각 支의 경문을

여러가지 말해도 經의 의미의 종류 두 가지,

유병과 무병이라는 것을 섞어서hril? 설명하게 된다.

의사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는

병을 진단할 때는 영리함이 산과 평원 경계의 독수리와 같아야 하고

병을 치료할 때는 우둔하여 양과 같아야 하고

병의 흔적을 제거할 때는⁷⁷⁷ 세심하여 여우와 같아야 하고

도구⁷⁷⁸를 이용할 때는 용맹하여 호랑이 같아야 한다.

風rlung, 담즙'khris, 점액bad kan 셋의 총체⁷⁷⁹를 이해하고

단어에 구애되지 말고 실행하라.⁷⁸⁰

의미를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

秘傳(man ngag)은 핑계를 대지 말고 암기하라.

치료에 대하여 얇게 알면 안 되며 분석하고 집중하라.

약의 맛은 여섯 가지인데 단맛, <281> 신맛, 짠맛, 쓴맛, 매운 맛, 짙은 맛이 있다고 한다.⁷⁸¹ 이와 같이 의약학에 정통하여 티베트 군주의 어의에 임명된 아홉 명은

⁷⁷⁷ nad g.ya' cog dus

⁷⁷⁸ spyad <log> [lag].

⁷⁷⁹ spyi khog: 全局, 총체. 티베트 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체액'으로서 風(rlung), 담즙('khris), 점액(bad kan)을 말한다. 티베트 의학에서는 병은 이 세가지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중 특히 風과 그와 관련된 질병에 대하여는 Ronit Yoeli-Tlalim, "Tibetan 'wind' and 'wind' illnesses: towards a multicultural approach to health and illness",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C: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2010, 41-4, pp. 318-324 참고.

⁷⁸⁰ tshig 'di dpe la ma bzhag nyams su long.

⁷⁸¹ 『四部醫典』에서는 “흄과 물, 불과 흄, 물과 불, 물과 바람, 불과 바람, 흄과 바람 둘에 의하여 여섯 가지 맛이 발생한다. ... 단 맛은 기력을 일으키고 몸에 영양분을 제공한다. 신 맛은 몸의 열기를 발생시키고, 식욕을 일으킨다. 짠맛은 몸을 단단하게 만든다. 매운 맛은 위의 열기와 몸의 열기를 일으킨다. 짙은 맛은 혈, 담즙, 지방이 상한 것을 없앤다.”고 하고 여섯 가지 맛과 질병의 관계를 “단맛, 신맛, 짠맛, 매운 맛은 풍병(rlung)을 없애고, 쓴맛,

⁷⁸² 상부stod에 비지bi ji, 치제chi rje, 옥빠'ug pa 세 사람, 중부bar에 메낙me nyag, 당띠brang ti, 유톡g.yu thog⁷⁸³ 세 사람, 하부smad에는 냐gnya', [91b] 타쉬mtha' bzhi, 동stong 세 사람이며 仙人이 화현한 이 고명한 자들이 차례로 일어났다. 황제가 명령하기를,

나는 모든 이의 天(lha)인데

이들 의사들은 나의 尊者(rje)이니

모든 이가 라제lha rje라 칭하고⁷⁸⁴

봉공하고 존송할 할 대상으로 모셔라.⁷⁸⁵

라고 한 대략이 전해진다.

이 황제의 대신은 괴 티상압락mgos khri bzangs yab lhag, 왜 겔포레dbyas rgyal to re, 티 숨제딱나khri gsum rje rtag sna, 네르 딱쨌동식gnyer stag btsan

단맛, 뚝은 맛은 담즙병(mkhris)을 없애고, 매운 맛, 신맛, 짠맛은 점액병(bas kan)을 없앤다.”고 한다(양승규, 「불교의학과 사상의학의 체질적 양생론(養生論) 연구」, 『淨土學研究』, 2013, vol. 19, p. 380에서 재인용).

⁷⁸² 唐의 의사 한문해 즉 티베트명 타쉬 동숨(똔숨) 강와mtha' bzhi stong(ston) gsum gang ba가 티데 쪽쨌의 초청으로 티베트에 와서 제자를 길러 티베트의 9명의 명의를 배출했다고 전해진다(丹曲, 「藏族古代醫學教育初探」, 『中國藏學』, 1995-4, p 108). 매smad는 티베트 저작들이 漢地를 가리킬 때 자주 쓰는 단어로 뜻은 “아래”, “동쪽”을 의미한다.

⁷⁸³ 유톡 온땀 권뽀 닝마. 즉 老 유톡을 말한다.

⁷⁸⁴ 天(혹은 신, lha)과 존자(rje)를 연결한 명칭.

⁷⁸⁵ 의사를 'lha rje'라고 하는데 그 근원을 밝힌 詩다. 단어 자체의 뜻은 '왕의 존자'이다. 御醫를 가리키기도 하나 일반적인 의사도 라제라고 한다.

ldong gzig⁷⁸⁶ 등이 말아 현명하게 처리했다. 상제꺄식 <282> zhang rje rgyal gzigs과 딱다루공stag sgra klu gong⁷⁸⁷이 외부의 적을 제압하고 漢地의 吉祥 滿門⁷⁸⁸을 무너뜨린 일 등의 역사가 시sri 비석에 적혀 있다.⁷⁸⁹ 티숨제딱나는 漢地, 돌

⁷⁸⁶ 그는 토번 칠 현신 중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네르 딱잡동식gnyer stag tshab ldong gzigs과 동일인일 것이다.

⁷⁸⁷ 일반적으로 딱다루공stag sgra klu khong이라고 한다. 앤람ngan lam 출신으로 티송 데 켜 시기 대신이며 장군이다. 755년 재상 뱀동잡'bal ldong tsab과 랑네식lang myes zigs이 티데 쪽쨌khri lde gtsug btsan(r. 704-755)을 독살했고 딱다루공이 이것을 적발한 공으로 새 켜쨌인 티송데켜에게 중용되었다. 빠오 쪽락 텅와의 『賢者喜宴』에는 삼애 칙령 전문이 실려 있는데 거기서 佛法을 수호하고 절대 버리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 자들의 이름 중에 딱다루공도 포함되어 있다. 후대의 불교나 빈 전통은 딱다루공이 빈교도였다고 보고 있다. 그는 “빈”을 신봉하고 불교에 반대했기 때문에 티송데켜 시기에 북방으로 쫓겨났으나 위구르에 출정하였고 후에 당 침략전에 기용되었으며 763년 장안 함락의 총지휘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불교-빈교 논쟁에서 빈교를 지지하고, 삼애의 돈-점 논쟁에서는 전자를 지지했으니 즉 그는 강력한 친불 정책을 시행한 티송데켜 시기 빈교도의 대표적 인물이었으나 그 군사적 재능 때문에 켜쨌가 그를 등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딱다루공이 구당서 등에는 馬重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라싸 동부의 토번 군사 본부가 마 군진rma khrom(또는 rma grom)이었고 마중영은 이를 음역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任小波, 河野 剛彦 譯, 「763年の吐蕃による長安陥落の再検討」, 『学習院大学国際研究教育機構研究年報』, 2016, vol. 2, pp. 134-135)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딱다루공 기록에 대한 또다른 연구는 Sam van Schaik & Lewis Doney, “The Prayer, the Priest and the Tsenpo: An Early Buddhist Narrative from Dunhuang,”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007, pp. 199-200 참고.

⁷⁸⁸ bkra shis khri sgo. 당의 수도에 대한 티베트어 이름. 어느 궁성 혹은 성문의 이름일 수 있다.

⁷⁸⁹ 설 碑(zhol rdo ring). 오늘날에도 포탈라 앞에 세워져 있다. 원래 앤람 지역에 있는 것을 5대 달라이 라마의 섭정인 상개 가초sde srid sangs rgyas rgya mtsho(1653-170)가 설 즉 포탈라 궁 기슭으로 옮겼다. 비문은 남, 북, 동 3면에 남아 있으며 763년 딱다루공의 장악 공략 과정이 남면에 기록되어 있다. 앤람 딱다루공이 뱀 동잡과 랑 네식을 제거하고 티송데켜의 즉위를 도왔으며, 당에 속해 있던 일부 토욕혼과 당의 변경을 공략하여 당 속종이 비단 5만 필 등의 세폐를 바쳤으나 그 아들 대종이 이에 반발하자 티송데켜를 설득하여 장안을 함락시키는 등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동면의 기록에 의하면 이로 인해 그는 낭원

꺄gru gu, 남조ljangs 세 지역과 협상하여 한-티베트 경계에 티베트의 용사 아홉 명을 필두로 한 군대⁷⁹⁰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니 이로 인해 까마록bka' ma log⁷⁹¹이라는 대 부족이 형성되었다. 외적이 티베트에 들어오지 못한 것 등 많은 이유로 이 화신 대법왕은 티베트에 은혜가 매우 크다.

그는 56세이던 나무-陰-소 해(785)에 승카르에서 사망했다.⁷⁹² -68세가 아닌가라고도 한다- 티송 데첸의 능묘는 무르리mur ri에 있고, 능묘의 zung mkhar이름은 툐리쭈나'phrul ri gtsug sna라고 하며 '외부가 장식된'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능묘에는 [92a] 문자가 새겨져 있는 비석도 <283> 하나 있다.

첸뽀nang blon chen po(大內相) 등에 임명되었다. 북면에는 딱다루공의 공로로 인해 그의 후손과 방계 혈족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명기되었다(『舊唐書』「吐蕃」, pp. 392-393). 비가 새겨진 배경과 비문의 원문, 번역은 H. E. Richardson, *The Corpus of Early Tibetan Inscriptions*, Routledge, 2002, pp. 2-19참조.

⁷⁹⁰ skyen btus kyi dmag dpung. skyen btus의 뜻을 알 수 없다. Skyen은 야생 염소. Btus는 모으다.

⁷⁹¹ 까마록은 몽골 제국 시기까지도 암도 지역에 오래 주둔한 티베트 집단이다. 뒤의 <몽골 군주들의 역사> 장에서 저자는 쿠빌라이가 티베트에 역참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예전에 티베트 왕이 있던 시절 당의 태종 황제thang tha'i dzung rgyal po(r. 626-649) 때 오대산ri bo rtse lnga에 다수의 티베트 군이 왔고 후딩후bhu ding hu 땅에 까마록bka' ma log이라고 하는 대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奸臣’ 상가桑哥도 까마록 출신이다.

⁷⁹² 여기 적힌 대로 티송 데첸 13세에 부친이 사망하면서 즉위한 후 43년 집권했다고 하면 56세에 사망한 것이 되나, 뽀조르 상뽀가 덧붙인 대로 그의 재위 기간과 사망 년도에는 이 설이 많다.

무네 쩌뽀mu ne btsan po(r. 797-798)⁷⁹³

그 왕과 체뽕tshe spong의 비 가르꺄초 메뚝뚝sgar rgyal mtsho me tog sgron의 아들은 넷이 있었는데 장자 무티 쩌뽀mu khri btsan po는 어릴 때 사망하여 능묘가 없다. 그 동생 무네 쩌뽀mu ne btsan po는 물-陽-호랑이해(762)에 닥마르brag dmar에서 태어났고 1년 9개월 간 재위했다. 조상에 대한 정기적인 제사를 지내고, 정결한 달⁷⁹⁴에 삼매의 경전부mdo sde에 제사 지내며, 기적의 달⁷⁹⁵에는 울장'dul ba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는 전체 티베트 백성들의 빈부를 세 차례 평등하게 했는데 후에는 각자 가피의 힘이라고 생각했다.⁷⁹⁶ 論藏에 제사 지내고자 하는 등 兩法⁷⁹⁷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29세에 독살당했다.

⁷⁹³ 알룽 왕조의 38대 군주. 티송데첸의 장자. 구체적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신민들의 재산을 평등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교도였다고 전해지는 모친 체뽕tshe spong 비에 의해 살해되었다.

⁷⁹⁴ tshul 'jug gi zla ba. 바세 참고.

⁷⁹⁵ cho 'phrul zla ba. 붓다가 기적을 보인 첫번째 달. 티베트력 1월.

⁷⁹⁶ bod 'bangs byin po'i dbul phyug theng gsum <nyams> [nyoms] kyang rang rang gi sbyin shugs yin par dgongs. 『왕통을 비추는 거울』에 따르면, 무네 쩌뽀는 티베트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티송 데첸의 사원에 바칠 물품을 내라고 했고 이 명령이 매우 엄했으므로 모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금, 은, 터키석 등 보석을 냈고 어떤 이들은 천 조각(ras hrul) 밖에 내지 못했는데 황제가 물품의 차이가 큰 것을 지적하며 후자를 비난하자 티베트인들은 “믿음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는 바칠 재물이 많고 빈자는 아무 것도 없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왕은 백성들 사이에 재산의 격차가 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 차례에 걸쳐 빈부dbul phyug의 차이를 없애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결과는 부자는 그대로 부유하고 빈자는 그대로 가난하니 왕은 “어째서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신 하나가 그 차이는 각자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왕은 불교를 더욱 깊이 믿었다(*Clear Mirror (Rgyal rabs gsal ba'i me long)*, pp. 404-405 참고. 중역본은 이를 “티베트 신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에 따라 보시를 바치라고 했다.”고 번역했으나 옳지 않다.

⁷⁹⁷ khirms gnyis. 즉 종교 방면과 세속 방면.

쿠첸⁷⁹⁸ 무네 쩌뽀의 능묘는

악촘⁷⁹⁹ 능묘의 왼쪽 앞에 있고

능묘 명은 라리뎀부lha ri ldem bu라고 한다.

<284> 그의 동생 무딕 쩌뽀mu tig btsan po는 상가차zhang rgya tsha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상가차 집안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죽였다. 무딕 쩌뽀의 능은 된카르다don mkhar mda'에 있고 능묘 명은 까링 뎀빠skya rings ldems pa라고 알려져 있다.

티데 송쩨khri sde srong btsan(r. ca. 798-815)⁸⁰⁰

그의 동생 티데 송쩨khri sde srong btsan은 나무-陰-용 해⁸⁰¹에 닥마르에서 태

⁷⁹⁸ 무네 쩌뽀와 티 쪽데쩨에 대한 호칭.

⁷⁹⁹ 즉 티데 쪽쩨.

⁸⁰⁰ 알룽 왕조의 39대 군주. 새날렉(sad na legs)이라고도 한다. 티송 데쩨(r. 755-ca.797)의 막내 아들이었으며 형인 무네 쩌뽀가 친모에 의해 독살되고 다른 형제인 무룩 쩌뽀는 나남 sna nam 부족에 의해 피살되는 끝에 즉위했다. 즉위 시에도 여전히 어렸고 불교 승려들을 대신으로 두었고 불교를 장려했다. 위에서 보다시피 라싸 주변의 까르츨skar chung/cung 사원 건설을 후원했다고 전해진다. 당에 대하여도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도 화해를 하는 양면 정책을 폈다. 이 시기에 티베트 군이 사마르칸드를 포위하기도 했다. 그에게는 아들이 다섯 있었는데 첫째는 승려가 되었고 막내 둘은 요절하였으며 다른 아들 랑 다르마(r. 838-842)는 불교에 반대했기 때문에 즉위 후보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그의 사후 랄빠쩨(b. ca. 803; r. 815-841)이 즉위했다.

어났다. 그가 네 살 때 [92b] 형이 사망하니 그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혔다. 머리에 보석을 넣은 장식을 한 왕관을 씌웠는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목이 흔들렸으나('jing pa g.yo) 많은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으므로 그에게 “새날렉 징원sad na legs 'jing yon⁸⁰²”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32년간 재위했으며 그의 대신은 빠망자데동spa mang rja lda ldong, 당겔첸노꼡sbrang rgyalmtshan no skong이 맡았다. 뽀디따 비말라미뜨라bhi ma la mi tra와 까말라 쉐라ka ma la shi la(Skt. Kamalaśīla), 자난세나dza+nyan se na(Skt. Jñānaśena), 네팔의 흠까라hUM ka ra(Skt. Humkara) 등을 초청하고 譯師 킨 뤼왕뽀 승빠 mkhon klu'i dbang po bsrungs pa <285> 등이 번역을 맡아, 인도가 가르침이 탄생한 곳이므로 이전에 여러 언어로 번역했던 경전들을 모두 인도 말로 다시 번역하고 티베트어를 새로 교정하여 정했다.

그는 “이전의 선조들은 차례로 많은 사원lha khang을 세웠다. 나는 섬부주에서 지극히 큰 사원을 하나 세우기를 원한다. 태양과 같고 巨星skar chen과 같은 정도의 크기로 세울 땅을 찾으라!”고 했고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티베트의 땅은 강과 산, 계곡이 막고 있어서 그렇게 큰 빈 터는 없습니다.”라고 차례로 아뢰니, “그렇다면 가장 작은 별 하나 정도의 크기로 1 강닥rgyang grags⁸⁰³ [93a] 넓이 정도의 땅은 있다고 한다. 그 정도의 사원을 반드시 만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까르쑹 도르제잉skar chung rdo rje dbyings⁸⁰⁴ 사원을 건설했다. <286> 그는 라싸⁸⁰⁵ 조캥에 여러 주랑khyams을 만들고 모든 출가인의 생계를 뒷받침해주었다. 라싸와 삼애 등에 열두 곳의 강원을 세우고, 예르빠와 칭푸'ching phu 등에 수행처 열두 곳을 지었으며 공양법 여섯 가지와 셈촉sems

⁸⁰¹ 나무-陰-용해에 해당하는 연도는 없다. 이는 나무-陽-용해로 764년이다.

⁸⁰² “시험했는데 목이 흔들렸으나 좋은 징조가 있었다”는 뜻.

⁸⁰³ 소리가 전해지는 정도의 거리. 약 2마일이라고 한다.

⁸⁰⁴ “작은 별 금강계”의 뜻.

⁸⁰⁵ 아마도 쪽락캥 즉 현재의 조캥을 가리킬 것.

phyogs⁸⁰⁶ 열두 가지를 정하여 수승한 법이 크게 퍼지게 하였다. 54세이던 불-陰-
달 해에 닥끼푸sbrags kyi phu에서 사망했다.

대왕의 능은 툐꺄다'khrul rgyal mda'에 있는데

모친의 눈물로 가득 차니 [무덤이] 솟아올랐고(mtho)

[그러므로] 그 이름을 “꺄첸 툐리rgyal chen 'khrul ri”⁸⁰⁷이라고 한다.

그 앞에는 많은 문자가 적혀 있는 큰 비석도 하나 있다.

티족 데꺄- 랠빠꺄khrī gtsug lde btsan ral pa can(b. ca. 803; r. 815-
841)⁸⁰⁸

⁸⁰⁶ 대원만(족첸) 수행의 가르침 중 하나.

⁸⁰⁷ “대왕의 오해 산” 혹은 “대왕의 환상 산”의 뜻.

⁸⁰⁸ 알룽 왕조의 40대 군주. 세번째이자 마지막 법왕이다. 착나 도르제(금강수보살)의 화현이라 여겨진다. 이 시기 티베트 군이 당의 일부, 인도, 네팔, 호탄, 발티스탄, 길기트, 샹슈, 그리고 투르키스탄 대부분과 감숙까지 병합했다. 810년 당 황제가 그에게 서신을 보내 정복 지역 세 곳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장군 상 도팍zhang 'bro stag이 군대를 이끌고 816년 투르키스탄을 통과해 당의 영역으로 가서 위협하고 위구르 수도인 오르두 발릭에서 이를 거리까지 갔고 그가 진군을 계속하자 당과 티베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어(821-822) 라싸의 조강 사원 앞에 회맹비를 세웠다. 랑 다르마 시기에 불교에 대한 황실의 후원이 극에 달했고 일곱 가구가 한 명의 승려를 봉양하게 하였다. 산스크리트-티베트어 번역에 대조서를 만들게 하고 역경사들을 후원했다. 우상도'u shang rdo 사원을 꺄뽀 강과 끼추강이 만나는 지역에 건설했는데 높이가 9층으로 지붕은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가운데 층은

이 황제와 도'bro의 왕비 망뽀제mang po rje의 아들들은 장자 짡마gtsang ma, 다음으로 다르마dar ma, 랄빠젠ral pa can, 린제lhun rje, 린둑lhun grub이었는데 짡마는 불교를 크게 좋아했고 다르마는 악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⁸⁰⁹ <287> 국정을 맡기지 못했고 린제와 린둑 둘은 요절하여 능도 없다. 가운데인 랄빠젠은 티송 데젠 탄생 76년이 지난 불-陰-개해(804)에 우상도u' shang rdo⁸¹⁰에서 태어났다. 12세가 되던 해 [93b] 초에 대신들의 논의로 왕으로 채택되었고 24년 재위했다. 대신은 댄카뽀원bran kha dpal yon과 데티송람속'bre khri bzung ram shogs, 디티르제 딱나'bri khri rje stag sna 세 사람이 맡았다.

인도의 스승 지나미뜨라dzi na mi tra(Skt. Jinamitra)와 수렌드라오페su len dra 'o te, 뿌라즈냐데와prad dznya dhe ba(Skt. Prajñādeva), 신땡 가르빠sin+ting gar pa 등을 초청하니 譯師 승려 예셰 데ye shes sde 등 다수가 경전을 잘 수정⁸¹¹ [번역]하였으며 이전에 번역되지 않았던 것도 번역했다.

쇠-陰-돼지 해(831)에 우상도'u shang rdo에 뽀메따쉬게펠⁸¹² 사원을 <288> 세웠는데 지붕⁸¹³은 9층이었고 큰 새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지었다. 선조들

불교 학자와 역경사가 사용하고 1층은 국가의 관료들이 사용했다. 무게와 부피를 재는 단위를 표준화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국가 의식 때 그의 긴 머리에 리본을 달고 승려들이 그 위에 앉게 했다고 할 정도이며 여기서 그의 별칭인 “랄빠젠(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자)”이 나왔다. 그는 841년 아마도 그의 불교옹호에 대한 반발로 대신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러나 그가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 랑 다르마의 사망은 티베트 불교의 전흥기(snga dar)의 종말을 의미한다.

⁸⁰⁹ 후에 랄빠 젠을 이어 황제가 되어 제국 전체에 폐불을 행하는 “랑 다르마”.

⁸¹⁰ 라싸 서남쪽 끼추 강변. 티 랄빠젠은 이 곳에 사원(dpe med bkra shis dge 'phel)을 세운다.

⁸¹¹ GBTB: da gar, GBB: dag ther.

⁸¹² dpal dpe med bkra shis dge 'phel 복덕이 비할 바 없고 길상이 증장된다는 뜻.

⁸¹³ rgya phubs. rgya phibs라고도 한다. “중국-지붕”. 건물 꼭대기에 중국식으로 지은 지붕.

이 사원을 짓다가 완성하지 않은 것을 맹세에 따라 수선했다. 漢地의 오대산⁸¹⁴에 사원을 짓고 沙洲sha chu⁸¹⁵의 동꺄sdong btsan의 호수 안, 철나무 위에 千佛寺(sangs rgyas stong rtsa'i lha khang)를 세웠으며 랑월glang yul 지방에 링뽀ring po를, 숨빠gsum pa 지역에 레우틸기떼sle'u 'phrul gyi kre'i와 그 아래에 까닥 꺄축중내ka brag dkon mchog 'byung gnas를 지었다. 티베트에 잠첸 사원(byams chen lha khang)을, 냥로찌내사르nyang ro rtsis gnas gsar에 기갑 문을 가진 사원(lha khang khrab sgo can)을 세웠다.

쪽로cog ro 출신의 비 뽀기양첼dpal gyi ngang tshul이 꺄탕위btsan thang g.yu 사원을, 냥nyang의 비 축기라모mchog gi lha mo가 윈토탁첼smon khro stag tshal의 사원을 세웠다. 형 [94a] 다르마가 디'bri 사원을, 그 妃 꺄모꺄btsan mo 'phan이 알룽에 如意寶樹dpag bsam ljon shing 사원과 <289> 꺄뽀체phug po che 사원을 세웠다.

대 呪師들과 대학자들이 닥라꺄뽀brag lha mgon po사원과 예르빠 양원yer pa yang dben 사원을, 냥뽄진nyang ting 'dzin이 모자(zha) 사원을,⁸¹⁶ 댄까뽀원bran ka dpal yon이 이첼dbyis tshal과 매일멜롱탕dmas yul me long thang을, 까와 뽀꺄 ka ba dpal rtsegs이 가와일나ka ba yul sna를, 체뽀 꺄상라되tshe spong stag bzang ra 'dod가 뽄룽락마를stong lungs lhag ma, 체뽀 라상루뽀이 tshe spong lha bzang klu dpal 보뽄 자괴송bo dong bya rgod bshongs 사원을 세웠다. 이 때 까지 티베트 군주와 대신들이 漢地와 티베트에 사원을 천 8곳 세우고자 했다고 한다.

이 법왕은 전에 부처님이 예언하기를 “聖石(rdo mchog)이라는 도시에 시주 랠빠

⁸¹⁴ “ri bo rtse lnga.” 그대로 “봉우리 다섯 개의 산”을 의미.

⁸¹⁵ 오늘날의 둔황.

⁸¹⁶ 라싸 동북쪽에 있는 사원으로, 『賢者喜宴』에 의하면 비끄라미뜨라가 냥뽄진에게 대나무 모자를 주고 보리로 채우라고 했다는 설화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쩨이라는 사람이 가르침을 크게 퍼뜨릴 것이다.”라고 하신 그 인물이라고 하며 또한 금강수보살의 화신이라고도 한다. <290> 주요 업적으로는 佛法을 행하고, 삼보에 공양하며 자량을 쌓고 국법을 佛法에 의거해 보호한 것들이 있다. 승려 각각을 백성 7가구가 봉양하여 생계를 부담하게 하였고 존경심이 매우 컸다. 일반인이 閑談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94b] [승려를] 가리키면 황제가 “나의 복전에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며 그 손가락을 자르게 했으니 그와 같이 불교에 힘과 권한이 있었다.⁸¹⁷

이전에 선조의 시기에 세력 하에 두지 못했던 동쪽 漢地를 손에 넣었으니⁸¹⁸ 그 경계는 흰 비단 장막 같은 뽀뽀산spo lon shan⁸¹⁹ 산맥(ri rgyud)으로 정했다. 서

⁸¹⁷ 유사한 상황이 후대 몽골 제국 조정에서 재현되는데, 즉 티베트 사료인 『紅史』에 울제이투 황제(ol ja du rgyal po)가 내렸다고 수록한 聖旨에 “지금부터 티베트의 승려들에 대해 俗인이 손으로 닿으면 손을 잘라라! 입으로 닿으면 혀를 뽑아라!(“da phyin chad bod kyib an dhe rnams la mi skyas lag gis slebs na lag pa bregs/ khas slebs na lce thon,”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Mi rigs dpe skrun khang, Lhasa, 1981, pp. 149-151)”라고 실려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한문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元史』 「釋老傳」은 편가龔柯라는 승려가 제왕의 비와 道에 대해 爭論하다가 비를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선정원이 오히려 백성이 티베트 승려를 때리면 손을 자르고 욕하면 혀를 자르게 하라는 주를 올려 허가를 받았고, 그 때 황태자였던 인종이 이를 듣고 그 명령을 취소하라는 주를 올렸다고 했다(“凡民毆西僧者, 截其手; 詈之者, 斷其舌. 時仁宗居東宮, 聞之, 亟奏寢其令” 『元史』 卷202, 列傳 89, 「釋老」) 『元史』 무종 본기도 역시 至大 연간 아유르바르와다가 “선정원이 전에 성지를 받기를 티베트 승려를 때리는 자는 그 손을 자르고 욕하는 자는 그 혀를 자르게 하였으니 이 법은 전에 들어본 바가 없는 것이고 국법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며 또한 승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僧俗이 서로 범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명백한 법이 있으니 청컨대 그 명령을 고쳐 주십시오(宣政院先奉旨, 毆西番僧者截其手, 詈之者斷其舌, 此法昔所未聞, 有乖國典, 且於僧無益. 僧俗相犯, 已有明憲, 乞更其令).”라고 상주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적고 있다(『元史』 卷23, 本紀 23, 「武宗本紀二」). 그러므로 『紅史』에 실린 성지는 울제이투 카안 즉 성종 테무르가 아니라 무종 카이샨의 성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⁸¹⁸ GBTB: rgya nag po'i dus. GBB: rgya nag dbang du 'dus. GBB를 따랐다.

⁸¹⁹ 아마도 賀蘭山

쪽으로 대식stag gzig⁸²⁰과의 경계는 딱샤stag sha 소라문(dung gi sgo mo can)이 었고, 북방 위구르hor와의 경계는 깡링 나망매 갑다rkang rings nya rmang ma'i rgyab 'dra 모래밭에 두었으며 남쪽으로 <291> 윈따라와띠셀기듬부다와mon ta la ba ti shel gyi dum bu 'dra ba에 이르렀으니 섬부주의 3분의 2를 세력 하에 둔 것이다.⁸²¹

그 때 황제가 티베트 군 수십만을 이끌고 漢地의 많은 지역을 무너뜨렸다. 가택 gha thag⁸²² 지역의 윈리될까르smon ri dol dkar⁸²³라고 하는 곳에 大營을 세웠을 때, 나무로 된 보좌 위에 앉아 “동쪽 하부의 쯡가tsong kha의 가운데로 군대를 이

⁸²⁰ 딱식stag gzig은 빈교 문헌에서 “영원한 빈g.yung drung bon”이 처음 일어났다고 하는 신화적인 장소다. 성자 셴랍 미오체gshen rab mi bo che가 태어났다고 하는 성지 월모 룡링'ol mo lung ring이 그곳에 있다. 그는 18000년 전에 그곳에서 나서 티베트 서부의 상 승으로 와 빈교의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한문의 大食과 연결되며 아랍과 이란 지역을 가리키는데 종종 톰khrom/phrom, 즉 원래 비잔틴 제국을 가리켰고 후에 10세기 무렵 아나톨리아의 셀죽 왕조를 가리키는 말과 연결되거나 교환되어 사용되었다.

⁸²¹ 『사가世系史』에 의하면 티베트에 군주가 있었던 때가 있나는 쿠빌라이의 물음에 팍빠 역시 티베트의 왕이 일찍이 漢地의 왕과 교전하여 승리하였으며 남섬부주(전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답하고 나서 “이 일은 사실이며 佛書에는 비록 없으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살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하였다고 한다. 漢地의 예전 사적yig tshang을 조사하니 팍빠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阿旺 貢噶索南 著, 陳慶英, 高禾福 周潤年 譯注, 『薩迦世系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p. 102;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Jam mgon A myes zhabs, *'Dzam gling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Sa-skya gdung rabs chen mo), Delhi: Tashi Dorji ed., Dolanji, H.P., 1975, p. 152).

⁸²² 앞의 <서하 군주들의 역사> 장에서도 가택gha thag이라는 지명이 나왔고 이것이 서하의 땅이라고 했다.

⁸²³ <서하 군주들의 역사>에서 윈리 즉 윈 산의 위치를 양주(byang ngos)와 하주'ga 사이라고 했다.

끌고 간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티베트 왕 앞에 비사문천왕이 8살 된 소라(dung) 아이로 화현하여 나타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이 아래는 나의 중요한 권속인 메낙me nyag인과⁸²⁴ 마가ma gha인이 있는 곳이니 군대에게 몰아내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황제가] “그렇다면 당신의 권속들로 하여금 한인, 티베트인 등과 [95a] 다른 표식을 하게 하시오!”라고 말했다. 메낙인들의 산발(ral pa)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 황제의 <292> 재위기에 돌궐국에서 老玉(g.yu rnying)을 18마리의 노새에 실어 와서 왕에게 바쳤다.⁸²⁵ 티베트에는 돌궐의 옥이 분명한 것은 이것 말고는 없다고 한다. 우상도의 사원을 지을 때 一眼國⁸²⁶과 卽跏tsu ta⁸²⁷ 一脚國⁸²⁸ 등 다수의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후에 땅 속에서 그와 같은 머리와 잔해가 많이 나왔다고 하니 티베트 황제의 세력이 가장 컸던 때였다. 이 때에 가정은 행복하고 사람들은 평안했으며 짐승을 해나 달[이 지나야] 모으고, 불은 태양으로부터 일어났고 암 야크는 코뚜레가 없었으며 말은 줄이 필요 없었고 문에는 개가 없었다. 군주는 인자하고 백성은 공경했으며 이웃들은 정중했고 친속은 화목했다. 남자는 용감했고 여자는 현명했으며 의복이 훌륭했다. 티베트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을 누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대되고 전파되게 하셨으니 <293> 그 은혜가 매우 크다.

이때까지가 [티베트의] 행복한 시기 9대 반이었고 그 중 특히 행복한 시기는 4대 반이라고 한다. “半代”라는 것은 법왕 송贊감뽕과 메악츄이 [95b] 아들 요절 후 각각 재집권했던 것을 말한다. 그 후 어두운 면이 확대되고 가까이 와서 전체 티베트

⁸²⁴ 후에 서하의 지배층을 이룬 집단.

⁸²⁵ 앞에서는 이 일이 남리 송贊 시기에 일어났다고 했다.

⁸²⁶ mig gcig pa

⁸²⁷ 어떤 명사에 대한 음사인지 알 수 없다.

⁸²⁸ rkang gcig pa.

의 복덕에 장애가 생기니, 왕에게는妃가 쪽로의 왕비 뽕기양첼마dpal gyi ngang tshul ma, 침'chims의 비 가르꺄dkar rgyal, 나남sna nam출신 비 망뽕꺄렉mang po khod legs, 냥nyang의 비 축기라모mchog gi lha mo, 체뽕의 비 도꺄마mdo rgyal ma까지 다섯 명의 비가 있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황제는 불교를 지극히 존중했으나 배딱나sbas stag sna 등 나쁜 신하들로 인해 뽕 첸뽕ban chen po⁸²⁹를 죽이고 왕자lha sras 꺄마gtsang ma⁸³⁰를 도모gro mo⁸³¹로 쫓아냈다. 또한 수승한妃와 댄까 뽕원bran ka dpal yon⁸³² <294>을 죄가 없는데도 처벌했다. 황제 자신도 36세이던 쇠-陰-닭해(841)에 뽕도삼빠의 사원 돌계단으로 오다가 쪽로 렉다다뽕꺄cog ro legs sgra lda long btsan에 의해 겹에 찢려 죽었다.

쿠첸 랄빠꺄의 능은

뽕카르다don mkhar mda'의 왼쪽에 있는데

이름은 티뽕망리khri stengs rmang ri라고 한다.

그 아래에는 글자 없는 비석 하나도 서 있다.

이와 같이 황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사원에는 축복의 기도?⁸³³가 없고, 능에는 珍

⁸²⁹ “대승려(ban dhe chen po)”의 줄임말. 국정에 참가한 고위 승려.

⁸³⁰ 랄빠 꺄의 형. 불심이 매우 깊었다.

⁸³¹ 현재의 亞東. 부탄, 인도의 씨킴과 가까운 변경 지역.

⁸³² 티꺄 뽕꺄의 3 대신 중 하나.

⁸³³ mnga' gsol은 일반적으로 benediction, enthronement를 뜻한다.

寶가 없고 묘비에는 문자가 없었다. 이때까지 무네쩨뽀를 포함하여 정권을 잡은 것은 [96a] 42대였다. 해수로는 1444년이 갔으며, 군주와 신하들이 모두 태양 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린 시기였다.

위 둠쩨 랑 다르마'u'i dum btsan glang dar ma (r. 841-846)⁸³⁴

형 랑 다르마glang dar ma는 물-陰-양해(803)에 태어났다. 39세가 되던 해에 <295> 티 램빠쩨이 살해되자 그가 집권했다. 2년간은 군주 답게 다스렸으나 물-陰-돼지해(843)부터 마음에 마귀가 일어났고 또한 대신 겔또레 딱나쩨rgyal to re stag sna can 등 악을 좋아하는 이들에 의해 조종되고 전에 동생이 왕위에 올랐던 것에도 원한을 품으니 티베트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쇠퇴해가고 3년 반만에 악한 통치 만이 행해졌다.

황제가 44세이던 불-陽-호랑이해(846) 어느 날 한밤에 예르빠yer pa의 라리링뽀 lha ri ring po에 있던 라룽 뽀기 도르제lha lung dpal gyi rdo rje(ca. 750-?)⁸³⁵에게로, 黑天女lha mo nag mo가 여성으로 화현하여 나타나, “지금 티베트에는 성취자가 그대 외에는 없다. 이제 사악한 군주를 [죄악으로부터] 해탈하게 할 때다.”라고 하였다.⁸³⁶ 이에 라룽 뽀기 도르제는 라싸의 비석 아래에서 왕을 시해하고 도망

⁸³⁴ “소(牛) 다르마”의 뜻. 알룽 왕조의 41대 군주.

⁸³⁵ 韃靼로 유명한 왕 랑다르마를 살해했다고 전해지는 승려. 끼추 강의 북안, 라싸 동쪽의 돔뽀 궁모체'brom stod gung mo che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이름에서 보다시피 라룽 출신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는 당과의 전투에 나섰던 군인이었으나 부정적인 업을 쌓을 것을 두려워하여 종교에 귀의하기로 하고 삼매로 가서 계를 받았다.

⁸³⁶ 『왕통을 비추는 거울』은 이 여신이 뽀댄 라모dpal [ldan] lha-mo (Skt. Śrīdēvi)라고 적고 있으며 여신의 명령을 좀 더 상세히 기록했다. “이제 티베트에 그대 외에는 성취자가 없다. 랑 다르마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협이 되니 이 사악한 왕을 죽일 때가 왔다. 내가

쳤다.⁸³⁷ 그 때 황제가 “내 해탈이 3년 늦었거나 혹은 3년 <296> 빠르구나!”라고 하였다. 이 악한 황제의 정황 때문에 물-陰-돼지해부터 시작하여 쇠-陽-말해(910)까지 68년 동안 佛法이 티베트에서 [96b] 사라졌다.

다르마의 능은 툴⁸³⁸과 대왕rgyal chen⁸³⁹의 사이에 있고

이름은 방림 코르로쨌bang rim ‘khor lo can

이라고 하는데, 만들다 말고 방치되어 있다.

랑 다르마를 매끼땡smad kyi steng⁸⁴⁰이라고도 한다. 그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었다.⁸⁴¹

그대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Per K. Sørensen, pp. 431-432)

⁸³⁷ 『왕통을 비추는 거울』에 의하면 라룽 뵈기 도르제는 말에 검은 칠을 하고 얼굴도 솟을 칠한 뒤 모자와 옷을 바깥면은 검은 색 안쪽면은 흰색인 것으로 착장하고 가서 랑 다르마를 죽인 뒤 말과 자신의 얼굴을 물로 씻고 하얗게 하고 옷을 뒤집어서 흰색면을 밖으로 입고 도망쳤다. 자세한 내용은 Per K. Sørensen, pp. 432-435 참고. 5대 달라이 라마의 저작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다.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Zahiruddin Ahmad tr., *The Song of Queen of Spring or A History of Tibet*,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and Aditya Prakashan, New Delhi, 2008, pp. 59-60.

⁸³⁸ 즉 뒤송 망뵈제

⁸³⁹ 즉 티데 송쨌.

⁸⁴⁰ 아래의 꼭대기의 뜻.

⁸⁴¹ 알룽 왕조의 군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나티 쨌뵈gnya’ khri btsan po 2. 무티 쨌뵈mu khri btsan po 3. 덩티 쨌뵈ding khri btsan po 4. 소티 쨌뵈so khri btsan po 5. 데티 쨌뵈de khri btsan po 6. 티뵈 쨌뵈khri spe btsan po 7. 디굼 쨌뵈gri gum btsan po 8. 뿌데 궁궐spu lde gung rgyal 9. 툴렉 쨌뵈tho legs btsan po 10. 솔렉 쨌뵈sho

다르마 사후 그의 정妃가 아이를 하나 찾아내어서는 간밤에⁸⁴²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이라고 했다. 지난 밤 태어난 아이라면 이가 없을 것이나 모친의 말이 강고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옴땡yum brtan”⁸⁴³이라고 했다. 그는 후에 우루u ru⁸⁴⁴를 장악했다. 次妃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버터 램프의 빛(‘od)으로 지켰기(bsrung) 때문에 외승(‘od bsrung, 843-905 또는 847-885)⁸⁴⁵이라고 했다. 그는 요루g.yo ru를 장

legs btsan po 11. 고루 렉 쯔뽀go ru legs btsan po 12. 동쉬렉 쯔뽀’brong shi legs btsan po 13. 티솔렉 쯔뽀thi sho legs btsan po 14. 이솔렉 쯔뽀i sho legs btsan po 15. 사남신편zwa gnam zin te 16. 데두보남 송쨌lde pru bo gnam zhung brtan 17. 데골lde gol 18. 남데 닐남gnam lde rnol nam 19. 세닐뽀bse’ rnol po 20. 데 겐뽀lde rgyal po 21. 겐신편rgyal srin brtsan 22. 겐 토레 룡쨌rgyal to re longs brtsan 23. 티쨌남khri btsan nam 24. 티다봉쨌khri sgra sbung brtsan 25. 티톡쨌khri thog brtsan 26. 라토토리 뉘쨌lha tho tho ri gnyan btsan 27. 티냐송쨌khri snya zung brtsan 28. 도넨데 루’bro mnyen lde ru 29. 딱부냐식stag bu snya gzigs 30. 뉘쨌룡남slon btsan rlung nam 31. 송데쨌srong lde brtsan 32. 티 송쨌감뽀khri srong btsan sgam po(ca. 605-650) 33. 궁송 궁쨌gung srong gung btsan 34. 티 망쨌망쨌khri mang slon mang btsan(650-676; r. 663-676) 35. 티 뒤송 망뽀제khri ‘dus srong mang po rje(r. 677-704) 36. 티 데쨌쨌khri lde gtsug btsan(메악츄mes ag tshoms, 712-755) 37. 티송데쨌khri srong lde btsan(r.754-ca.799) 38. 티 무네 쯔뽀khri mu ne btsan po(786-803; r. 802-803) 39. 티데 송쨌khri lde srong btsan(새날렉sad na legs, r. ca. 799-815) 40. 티 랠빠쨌(즉 티쨌데쨌 b. ca. 806; r. 815-836) 41. 티 랑다르마khri lang dar ma(위뽀땡u’i dum brtan, r. 838-842). *이상은 The Old Tibetan Annals*를 참고했다.

⁸⁴² <‘dang mo> [mdang mo].

⁸⁴³ “모친(yum)이 강고하다(brtan)”는 뜻.

⁸⁴⁴ 4루 중 하나인 우루dbu ru의 다른 표기로 보인다.

⁸⁴⁵ 랑 다르마의 유복자. 正妃가 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외승을 지키게 했는데 밤에는 버터램프로 불을 밝히고 지켰다고 한다. 옴땡과 외승의 총돌은 백성들 사이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는 865년에서 870년 사이에 극에 달했다. 내전으로 인해 왕조는 무너지고 왕조에 대한 적대감으로 알룽 계곡의 군주들의 무덤은 모두 파괴되었다고 한다. 왕조가 무너진 후 많은 소규모 집단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었고 알룽 군주의 후손들 일부는 아리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웠다.

악했다. 우루와 요루가 전쟁을 하여 왕가가 둘로 나뉘었다. 大臣은 쿠 톡다상시 khu thog sgra shang sri와 <297> 옥 약숨다제예rngog yag gsum sgr rje yas와 옥 겔포레겔빠rngog rgyal to re gel pa가 담당했는데, 군주와 대신이 복덕이 작았으므로 흙-陰-소 해(869)에 반란이 일어났고 불-陰-닭해(877)에는 황제의 능묘가 훼손되었다. 왕족이 백성이 되고 국법은 무너졌으며 佛法은 쇠락했다. 나라 밖의 초소들은 사라지고 티베트 내부는 쟁란이 일어났다.

랑 다르마가 물-陰-돼지해에 滅法을 시작한 이래 위짱의 6인 혹은 10인이 수트라와 탄트라를 가지고 매smad⁸⁴⁶로 가서 출가하고 쇠-陰-말해(910)에 삼애사로 돌아와서 티베트 왕 찰라나tsha la na 부자 [97a] 어전에 이른 때까지 68년 동안 일반적으로는 티베트, 그리고 특히 위짱 4루ru에는 석가모니의 교법의 소리조차 없었다. 계율 전수는 중단되었으며 각 사원은 여우와 개의 소굴이 <298> 되어 어지러워졌고 도살장(bshas ra)과 변소(lud khang)가 되었다. 불상들은 걸인들의 숨기는 통⁸⁴⁷이 되었고 온갖 악업이 일어났다. 랑 다르마 부자는 티베트 백성들에게 은덕이 실로 적다. 옴땀은 36세에 사망했고 능은 없다. 외승은 나무-陰-양해⁸⁴⁸에 옴부 yum bu 궁에서 났고 39세에 야르룽yar rlungs의 팬다르'phan mdar에서 사망했다.

외승의 능은 툴⁸⁴⁹의 뒤에 있고

능의 이름은 께우라뎌nskye'u lha rten이라고 한다

그 이후 능묘를 짓는 일도 중단되었다.

⁸⁴⁶ 도매mdo smad. 암도를 가리킴.

⁸⁴⁷ sba zom skal.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

⁸⁴⁸ 나무-陰-소해 즉 845년이어야 한다.

⁸⁴⁹ 뒤송 망뵈제.

3. 불교 후흥기의 역사⁸⁵⁰ *bstan pa phyi dar gyi byung tshul*

랑 다르마의 휘불 시에 길상 추보리⁸⁵¹ *chu bo ri*로부터 재'jad 사람인 짱 랍샬 *gtsang rab gsal*과 보동⁸⁵² *bo dong* 사람 요게중⁸⁵³ *g.yo dge 'byung*, 띄룽⁸⁵⁴ *stod lungs* 사람 마르 샤까무네⁸⁵⁵ *dmār shQ+kya mu ne* 세 사람이 울장 경전('dul ba'i po ti)을 노새 한 마리에 싣고 <299> 아리로 도망쳤다. 카를룩⁸⁵⁶ *gar log*으로 갔는데 통역자가 없어 중생에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97b] 위구르⁸⁵⁷ *hor* 지역을 우회하여 도매의 안중남⁸⁵⁸ *an chung rnam rdzong*과 댄딕⁸⁵⁹ *dan tig* 수정 사원에 이르렀다. 이 지역은 惡王⁸⁶⁰이 있는 곳과 거리가 멀었고 사람들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불교의 흔적이나마 남아 있었다. 빈교도의 장로 수샬상⁸⁶¹ *zu gsal bzangs*이라는 이의 조카 무수샬와⁸⁶² *mu gzu gsal ba*가 열 다섯 살이었는데 위의 세 사람에게 신앙이 생기니, 짱 랍샬이 캔뽀를 맡고 요 게중이 上師⁸⁶³ *slob dpon*를 맡아 사미계를 주었으며 법명은 게와 샬⁸⁶⁴ *dge ba gsal*이라고 했다.

라싸에서 라룽 뽀기 도르제가 랑 다르마 왕을 죽였을 때 추격자들이 잡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는 『大乘阿毘達磨集論』⁸⁶⁵과 『淨光明律論('dul ba 'od ldan las dkar

⁸⁵⁰ 이 제목은 붉은 색 잉크로 되어 있다.

⁸⁵¹ 추보 산.

⁸⁵² *sdig rgyal*. 즉 랑 다르마.

⁸⁵³ <snyir> [snying] rus.

⁸⁵⁴ <rda'> [rda] mtshon.

⁸⁵⁵ [chos] mngon pa kun las btus [pa].

ma sha stam)』 <300> 세 부를 가지고 도캄으로 도망쳐서 또한 쟁, 요, 마르 세 사람과 만났다. 계와 셸이 출가한 지 5년이 지나서 이전의 캔뽀와 상사는 그대로 말고 마르 [사까무네]가 새로운 大師가 되었다. 라룽 뽀기 도르제는 왕을 죽였기 때문에 다섯 명을 채울 수 없었다.⁸⁵⁶ 그래서 두 명의 한인 화상 껀왕ke wang과 기웬gyi wan을 찾아 그들 5인이 구족계를 주고 법명은 공빠 랍샬dgongs pa rab gsal이라고 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르침의 잔불이 [98a] 매smad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 후 공빠 랍샬이 캔뽀가 되어 빠공 예세 송spa gong ye shes bsrung과 빠르 린첸 셸par rin chen gsal, 엘빠 도르제 왕축'al pa rdo rje dbang phyug, 늑팍 시따 snubs phag shi rta, 조오 예세 쎅게 jo bo ye shes seng ge, 쯔로 세랍 장츄 co ro shes rab byang chub에게 사미계를 주어 승려의 착장(btsun gzugs)을 했지만 캔뽀와 대사가 부족하였으니 이에 라첸의 초기 제자를 <301> “캄의 여섯 가짜 승려”⁸⁵⁷라고 한다. 라첸이 정한 4 法印도 역시 그들을 위해 정한 것인데 이 네 가지는 테두리가 있는 투구 모양 금색 모자,⁸⁵⁸ 끝부분이 바느질되어 있는 袈裟,⁸⁵⁹ 供具袋,⁸⁶⁰ 안을 푸르게 만든 두개골⁸⁶¹이었다. 라첸이 원래 빈교도의⁸⁶² 후예였기 때문에 [그러한 관습에] 미련이 남아있는 표상이라고 말해진다.

그들의 정황을 삼애에서 움땀의 후예인 영주 찰라나tsha la na父子가 듣고서 위

⁸⁵⁶ kha skongs. 구족계를 주는 데에 필수적인 비구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

⁸⁵⁷ khams kyi zog po mi drug.

⁸⁵⁸ zhwa theb gyi mu thum

⁸⁵⁹ bla gos kyi mtha' tshems.

⁸⁶⁰ gtor bu. 神物을 넣는 주머니.

⁸⁶¹ ka li. ka pa la라고도 적는다.

⁸⁶² GBTB blon po. GBB를 따랐다.

짱 사람 여섯을 佛法을 구하게 도매로 보냈다. 이 여섯 사람 중에 위dbus 출신 루메 세랍 철팀 klu mes shes rab tshul khirms, 데 예세 온뎐 'bre ye shes yon tan, 짱 출신 총편 세랍 생게tshong btshun shes rab seng ge, 로핀 도르제 왕축lo<s>ston rdo rje dbang phyug 등 네 명은 라첸 본인으로부터 계율을 얻었고, 바쎄 로되 왕축sba btsun blo gros dbang phyug 과 <302> 락시 철팀 중내rag shi tshul khirms 'byung gnas [98b] 숨빠 예세 중내sum pa ye shes 'byung gnas 세 사람은 둠grum, 늑snubs 두 사람으로부터 계율을 받았다. 그들 중 바쎄와 락시를 한 사람으로 쳐서 여섯 사람이라 칭한다. 또 말하기를, “위짱 7인”이라고 하니 위 지역 3인, 짱 지역 3인, 위도 짱도 아닌 지역의 1인이었다고도 한다. 또한 “위짱 10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루메 세랍 철팀과 데 예세 온뎐, 랜 세랍바르klan shes rab 'bar, 바 로되 왕축, 락시 철팀 중내를 위 출신 5인, 로핀 도르제 왕축, 총편 세랍 생게, 우빠떼까르라u pa lte dkar ra, 그리고 오개'o brgyad 두 형제를 짱 출신 5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마 차례대로 갔기 때문에 점점 많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303> 그들이 계율을 얻고 많은 설법을 듣고서 돌아갈 때 라첸이 말하기를 “로핀은 능력이 크니 가르침을 護持해라. 루메는 고귀한 신분이니 캔뽀를 해라. 총편은 총명하니 大師가 되어라. 데'bre는 말을 잘하고 현명하니 사원을 관할해라. 그대들 모두가 가르침의 전파를 책임져라!”라고 하고 보냈다. 그들은 돌아가서 왕을 만나니 상을 주고 [99a] 크게 존경하였다. 처음 그들 모두가 모여 냥매 갠공nyang smad rgyan gong 사원lha khang을 세우고 그 후 위짱 각 지역에 별도의 사원을 많이 세웠다.⁸⁶³ 승단을 만들고 수승한 법을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했다. 가르침의 후흥기에 대하여 <304> 아메a mes 라첸 공빠 랍샬과 그 제자들 위짱인들, 시주였던 영주 찰라나 부자 등이 최초로 은혜가 매우 크다.

랑 다르마 황제의 아들 둘의 후예들은 다음과 같다. 옴뎐 왕과 빠잡spa tshab 출신妃 따시 초bkra shis mtsho의 아들들은 티데 권넌khri lde mgon gnyen이며 그

⁸⁶³ 그 다음에 나오는 “rabs zur nas gsal cing” 구절은 의미를 알 수 없다. GBB에는 없다.

의 아들은 티데 릿빠 권khri lde rig pa mgon과 니마 권nyi ma mgon이다. 동생 (니마 권)의 아들은 니외 뽕권nyi 'od dpal mgon인데 그의 자손들은 룡쇠slungs bshod와 팬윳'phan yul, 도캄에 많았다. 형의⁸⁶⁴ 아들은 티 데뽕khri lde po와 도르제 바르do rje 'bar였다. 데뽕의 자손은 북빠쨌bug pa can과 탕라닥빠thang lha brag pa이다. 도르제 바르의 아들은 티 왕축쨌khri dbang phyug btsan이고 그의 아들은 찰라나 예세 겔첸thsa la na ye shes rgyal mtshan이다, 그의 아들은 아닥 티빠mnga' bdag khri pa이며 이 부자 두 사람이 <305> 위장인들을 求法을 위해 도매로 보냈고 [99b] 승가, 사원을 세웠으며 삼애의 轉經⁸⁶⁵과 수행처를 등 티베트 위장에서 가르침의 잔불을 회복시키는 것을 장려하며 밝힌 큰 공이 있다.

티빠의 아들은 아짜라a tsa ra⁸⁶⁶와 겔롱dge slong,⁸⁶⁷ 라마bla ma, 베데라자bhe dhe ra dza 등이었다. 아짜라의 후손은 탕소빠'phrang so pa, 쩡갑빠gtsang rgyab pa, 락와람빠glags ba lam pa, 딕빠grib pa, 네탕빠snye thang pa, 쿨사 쨌뽕khum sa rtsad po⁸⁶⁸ 등이다. 라마에게는 후손이 없었고 겔롱의 자손은 빼시빠spe bzhi pa다. 베데라자의 후손으로는 라쨌 윈모lha btsun sngon mo, 녹룸빠snyug rum pa, 라딩강빠lha 'bring sgang pa 등이 일어났고 현재 윈'on, 도르do, 찹탕chab thang, 삼애 쨌뽕bsam yas gtsang po 가문이 그들이다. 그들이 움땡의 후손들이다. <306>

티데 외승과 쪽로의 비 겔모렉rgyal mo legs의 아들인 영주 뽕코르쨌dpal 'khor btsan은 나무-陰-달해(865)에 얄룡팡다yar lung 'phangs mda'에서 태어났고 조상이 행한 악행을 제거하고 낭매nyang smad, 뿔부sgrol bu의 매룡smad lung 등

⁸⁶⁴ 즉 티데 릿빠 권.

⁸⁶⁵ chos 'khor.

⁸⁶⁶ Skt. acarya.

⁸⁶⁷ 사미승의 뜻.

⁸⁶⁸ rtsad po는 왕의 의미.

사원을 여덟 곳 지었다. 그의 대신은 짱겐 아뽕spyang rgan a po와 도쪽 다라 동'bro gtsug dgra lha ldong이 담임했다. 33세에 알룽 쇼르보에서 넥딱제와 snyegs stag rtse ba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들과 옴땐의 아들 티데 퀴넨과 차보 립 빠권의 시기 흙-陰-소해에 [100a] 반란이 일어나고 능묘가 파괴되며 성이 무너지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체뽕tshe spong 출신으로 요루g.yo ru에 있던 비의 아들 끼데 니마권(skid lde nyi ma mgon, r. ca. 900-930),⁸⁶⁹ 次妃이며 뵈'bal 출신으로 우루u ru에 있던 비 팬꺄phan rgyal의 아들 <307> 티 따쉬 꺄빠 뵈로khri bkra shis rtsegs pa dpal lo 이 두 사람의 권역은 대부분 옴땐이 모두 빼앗아가니 두 형제가 차례로 뵈 stod⁸⁷⁰ 아리mnga' ris 쪽으로 도망쳤고, 니마 권의 아들 뵈기권dpal gyi mgon 과 데쪽권lde gtsug mgon과 따시 니마권bkra shis nyi ma mgon이 일어났으니 이들을 “뵈stod⁸⁷¹의 3권”이라고 한다. 부친 기데 니마 권이 먼저 이르러서 뵈 지역을 세력 하에 넣고 전체 이름을 “아리”라고 했다.⁸⁷² 장자가 마르윌mar yul⁸⁷³과 늑랄을 장악하고 둘째는 상슝zhang zhung, 찌쪽ci cog 두 지역과 니공snyi gong, 루 툽ru thog 두 지역, 뿌랑초spu rangs mtsho 두 지역 등 총 여섯 곳을 장악했다. 막내는 가르샤gar zha, 상가르zangs dkar를 통치했다. 여기에서 아리 꼬르숨 mnga' ris bskor gsum⁸⁷⁴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다.

⁸⁶⁹ 뵈코르쨌 왕의 두 아들 중 하나. 아리를 다스렸으며 자신의 나라를 세 아들 뵈기권, 데 쪽권, 따쉬권에 나눠 주었다.

⁸⁷⁰ 上部. 때로 서쪽을 가리키기도 한다.

⁸⁷¹ GBTB; snyod이나 뵈로 보아야 할 것이다.

⁸⁷² “mnga' ris”는 속민, 속지를 뜻한다. 히말라야부터 곤륜산까지 이어지는, 중앙 티베트 서부 지역. 정확한 경계는 없다.

⁸⁷³ 토번 제국 시기에, 오늘날의 대략적인 라다크 지역을 가리키던 말.

⁸⁷⁴ 몽골 제국 시기 한문 사료에 아리 꼬르숨의 음사인 “納里速 古兒孫”으로 표기되었다. 아리 3圍라고 번역한다. 크게 구게 지역, 뿌랑 지역, 상슝 지역으로 구분하며 또한 여섯 개의

따시 니마권은 니송nyi gzungs 성에 <308> 살았다. 아들은 코르레'khor re⁸⁷⁵와 송에srong nge 둘이었고 코르레의 아들은 나가라자na ga ra dza와 데와라자dhe ba ra dza였다. [100b] 코르레의 말년에 선조들의 문서를 보고 마음이 슬퍼져서 조상의 전통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칠 것을 발원했는데 출가를 담당할 캔뽀가 없으므로 불상rten 옆에서 가르침을 얻었고 이름을 “라라마 예세 외 lha bla ma ye shes 'od(ca. 959-1036)라고 했다.⁸⁷⁶ 이는 『문수보살 근본속'jam dpal rtsa rgyud』에서 예언하기를

북방 설산 지역의 후예는

네 부족mi rigs이 있는데

군주 가문의 부족에서

예세 외라고 하는 자가 나올 것이며

그가 가르침의 공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종rdzong 즉 가르sgar, 루톡ru thog, 째다rtsa mda', 뿌랑spu grang, 게개dge rgyas, 게르째sger rtse, 그리고 초첸mtsho chen으로 나누기도 한다. 몽골 제국 시기 아리 꼬르숨으로 나뉘었고 16세기와 17세기 초 이 곳의 구게 왕국이 멸망하면서 황폐한 지역이 되었다.

⁸⁷⁵ 티베트 불교 후흥기를 개척한 인물이며 출가하여 라라마 예세 외 lha bla ma ye shes 'od라는 이름을 얻는다.

⁸⁷⁶ 구게 왕국의 두번째 왕으로, 최초의 라썬 즉 왕족-승려라고 알려진 인물이며 랑 다르마 이후 무너진 불교 부흥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여겨진다. 티베트 고원 서부에 자리잡은 그 부친 따쉬 니마 권bkra shis nyi ma mgon의 땅을 물려받았다. 라-라마는 “신-라마”라는 뜻으로, 그가 군주(lha)이면서 라마인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세 외는 티베트 역사에서 최초의 승려 군주였으며 이는 후에 티베트 정치에서의 모델이 되었다. 토링tho ling 사원의 유지를 위해 유목민과 농민이 똑 같은 기부를 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에 남아 있던 탄트라 불교의 “해탈(즉 살해)”와 성적 교합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티베트 불교의 후흥기(phyi dar)의 시작을 연 인물이라 여겨진다.

라고 한 대로이다.

그는 토링tho gling의 황금 사원을 지었고 두 아들도⁸⁷⁷ 출가를 했는데 법명이 시와 외zhi ba 'od와 장츱 외byang chub 'od였다. 그 부자가 출신이 좋고 영리한 소년⁸⁷⁸ <309> 일곱 명을 열 네명의 어린 종복과 함께 출가시켜 대량의 금을 주어서 카쉬미르kha che로 求法하러 보내며 “뽀디따 다르마팔라dhar+ma pha la와 브라만 린첸 도르제rin chen rdo rje를 초대하고자 하는데 금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티베트에 이익이 될 다른 뽀디따를 알아보아 번역을 특히 열심히 공부하여라!”라고 했다. 그 중 열 아홉 명이 열병으로 죽고, 경장에서 예언한, 새의 얼굴을 한 승려라고 알려져 있는 예루 승빠 흥소르g.yas ru gzhung pa lhung bzor의 린첸 상뽀 rin chen bzang po 大譯師,⁸⁷⁹ 그리고 독'brog 호수가의 [101a] 리낭ri nang 사람이며 小譯師lo chung인 렉빠 세랍legs pa'i shes rab 두 사람이 살아 남았다.

그들이 번역을 배우고 나서 인도 동쪽 서쪽을 모두 찾아본 뒤 “비흐라까말라설라 bi+hra ka ma la shi la 에 디뽀까라 비흐라자나dhi pam ka ra bi+hra dza+nyana⁸⁸⁰라고 하는 사람이 티베트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라라마에게 여쭙니 그가 기뻐하며 <310> “그를 반드시 초청하여라!”라고 하고 쟁낙첼와gtsang snyag tshel ba 지역의 譯師 가쥘 쉹게rgya brtson seng에게 금 16량 상당의 금덩어리를 비롯한 다량의 황금을 주어서 백 명 정도의 수종과 함께 인도로 보냈다. 그러나 존자는 초청하지 못하고 종자들은 대부분 열병으로 죽었으며 금 조각들은 다 써버렸다. 큰 덩어리는 라라마에게 [도로] 바치니 라라마는 “그 휘하의⁸⁸¹ 위대한 이를

⁸⁷⁷ 즉 나가라자와 데와라자.

⁸⁷⁸ <khyi'u> [khye'u]

⁸⁷⁹ lo chen. locawa chen po의 줄임말.

⁸⁸⁰ GBB: di paM ka ra shrI dza+nyA na.

⁸⁸¹ de'i <'go nas> ['og nas].

초청해야겠다.”고 말하였고 가쥔 생계와 낙초nag tsho 두 사람이 “존자를 티베트에 초청할 수 없으니 인도로 가서 존자에게 敎誡를 청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師弟 여섯 명이 [인도에] 이르렀다.

라라마도 역시 -정치는 동생에게 맡기고- 빠디따를 초청할 물자인 금을 찾기 위해 인도 변경에 이르렀다가 변경의 外道 왕에게 사로잡혔다. <311> [외도의 왕이] “그대가 티베트인들을 외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몸값을 받지 않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몸무게와 같은 양의 금을 가져오라!”라고 하니 둘째 아들 [101b] 라쥔⁸⁸² 장춘 외가 티베트 백성 전체에게 금을 내게 하여 몸뚱이만큼의 금은 구했지만 머리 하나만큼은 모으지 못했다. [외도 왕은] “그것이 안 되니 보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에 라라마가, “그대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나이가 들어 유정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 그 금으로 존자와 빠디따, 학자들을 초청하고 토링mtho ling에 큰 제사를 마련하라. 선조들이 세운 라싸⁸⁸³와 삼애 등 무너진 것을 재건해라!”라고 하였다. 즉 티베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칠 방법을 찾아라!”라고 하는 전갈을 보내왔다. 그러나 <312> “그래도 머리 무게만큼의 금을 찾아 반드시 모셔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라라마는 그만 변경에서 사망했다. 그 때 동생 송에의 아들 라데lha lde가 빠디따 스므리띠smri ti와 타라링모phra la ring mo를 초청하여 경전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譯師가 네팔에서 복통으로 사망하니 경전을 번역할 자가 없었다.⁸⁸⁴ 이전에 지식을 익힌 자는 있었지만 통역자가 없으니 두 빠디따는 티베트를 떠돌아다녔다. 그 때 네팔인 메루쎄rme ru rtse라고 하는 이가 티베트에 왔고 인도 말을 알았으므로 그것으로 설법을 했지만 티베트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도로 돌아갔다. 그 무렵의 여러 해 동안 [102a] 譯師와 빠디따들의 왕래가 끊겼다.

⁸⁸² 출가한 왕족에 대한 호칭. 티베트로 유배를 가서 승려가 된 남송의 마지막 군주 조현에 대하여도 티베트인들은 라쥔이라 불렀다.

⁸⁸³ 라싸의 조강.

⁸⁸⁴ 빠디따들과 소통할 역사가 죽었다는 말.

그 후 라췌 장츄 외가 마음 속으로, “이제 숙부⁸⁸⁵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존자⁸⁸⁶와 뽀디따를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신을 찾지 못하고 있을 <313> 때, 가췌 쉑[게]가 인도에서 머물고 낙초가 번역을 특히 배워서 티베트로 왔다. 식량을 받으러 양푹yang thog 사원⁸⁸⁷에 있을 때 라췌 장츄 외가 그를 불러서 “우리 티베트에는 가르침을 퍼는 데에 장애가 많다. 쉬리카말라설라부터 존자 아티샤, 그리고 불상을 모셔오려는데 만약 그들이 오지 않으려 하면 그 아래의 대학자를 반드시 모셔와야 한다. 그대는 계율을 수지하고 있고 장애에도 익숙하며 길을 잘 아는 데다가 번역도 아니, 초청하는 사신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말하고 종자들을 백 명 준비하게 했다. 낙초는 “그만큼은 너무 많습니다. 다섯 명이면 족합니다.”라고 했고 그에게 존자와 뽀디따에게 드릴 16 냥만큼의 금덩어리, [낙초] 역사를 위한 7냥, <314> 여정 중의 식량 비용으로 7냥을 주고, 전에 가 본 적이 있고 일상 회화를 아는 한 사람에게는 5냥, 안뽀an ston, 깬뽀rkan ston, 가췌rgya ston 세 명에게 각각 한 냥씩을 주어서 그들 師弟 다섯을 보냈다.

그들이 쉬리카말라설라의 숙소에 이르렀을 때 가췌쉑[게]와 만나 소량의 황금을 바치고 정황을 말하니 [가췌 쉑게가] “다른 뽀디따들도 많지만 티베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티샤 존자를 반드시 [102b] 초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훈을 주었다. 이에 아티샤 존자의 앞에서 금으로 만든 만달라를 바치고 티베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존자는 “본존 空行母에게 기도해 보고, 예언을 얻으면 가겠소.”라고 답을 주었다. 타라 6여신과 공행모의 예언에, “그대가 티베트에 가면 수명이 20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낮처럼 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존자는 “가르침에 <315> 도움이 된다면, 수명은 짧아져도 좋다. 티베트인들이 慈心과 悲心이 있으니 가야겠다.”고 말했다. 62세이던 물-陰-양해(1043)에 네팔에 이

⁸⁸⁵ 문맥상 예세 외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 앞에서 저자는 장츄 외가 예세 외의 아들 중 하나라고 썼다.

⁸⁸⁶ jo bo rje. 아띠샤.

⁸⁸⁷ 토링 사원일 것이다.

르렸는데 가쥔 쉑게에게 외도들의 저주가 일어나 죽고 말았다. 존자가 말하기를 “티베트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가쥔쉑게를 죽지 않게 할 복덕도 없구나. 이제 번역에 능통한 이가 없으니 나는 티베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지만 낙초가 강하게 만류하여 모셔왔다.

틸딩mthil lding 사원에서 라쥔 장츄외 두 시주-복전이 만났다. 대 역사 린첸 상뽕와 낙초 등이 譯師를 맡아 다수의 경을 번역했다. 또한 돛뽕'brom ston⁸⁸⁸과 아리에서 만났고 아리 위짱 지역에 11년 5개월 머물렀다. 개광하지 않은 불상에 개광 의식을 행했고⁸⁸⁹ <316> 회향이 없었는데 회향했으며, 영혼을 濟度하지 않았었는데 濟度하는 등⁸⁹⁰ 善品을 증장시킬 많은 관행을 세우며 佛法을 펼치고 전파하시니 아티샤 존자 시주-복전과 師弟들이 티베트에 대한 은혜가 대단히 크다. 그의 친전 제자 쿠khu, 옥rngog, 돛'brom 세 사람이 까담파bka' gdams pa의 전승을 이루었고⁸⁹¹ 많은 큰 사원이 세워졌다. 대 譯師 린첸 상뽕 등이 이전에 번역한 [103a] 모든 현, 밀 경전을 “舊譯”이라고 한다. 존자 자신은 73세이던 나무-陽-말해(1054)년 9월 8일 네탕snye thang에서 도솔천으로 갔다.

[라라마 예세 외의] 동생 송에strong nge에게는 아들 라데, 남라외첸gnam la 'od chen, 우빠u pa 셋이 있었다. 이들 부자가 카차르kha char의 사원lha khang을 짓고 빠디파 뽀야쉬리pu nya shri를 초청했다. <317> 라데의 아들 중 외데'od sde가 정권을 잡았으며, 라쥔 장츄 외와 동생 외세르 고차'od zer go cha 세 명이 있었다. 이 부자가 빠디파 샤까라와르마 sha ka ra war ma, 다르마팔라 dhar+ma pha la, 빠드마까라 pad ma ka ra, 다르마까라 dhar+ma ka ra 등을 초대했다.

⁸⁸⁸ 돛뽕뽕 겐외 중내('brom ston pa rgyal ba'i 'byung gnas, 1004/5-1064). 아티샤의 수제자.

⁸⁸⁹ 개광(rab gnas)은 불상, 靈塔, 경전 등에 신을 모셔와 안주하게 하는 의식.

⁸⁹⁰ gshin dge ba med pa la/ dge rtsa <stong pa> [gtong ba]

⁸⁹¹ 조오 아티샤는 까담파의 宗祖로 불린다.

그들이 말한 것을 譯師 기조 다외 외세 gyi jo zla'i 'od zer, 괴 쿡빠라째 mgos khug pa lha btsas 등이 번역하니 이때부터 현밀 경전의 “新譯(gsar 'gyur)”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형 외데는 또한 즈나나쉬리 dz+nyA na shrI(Skt. Jñāśri) 를 초청하였고 외데의 아들 영주 껀데rtse lde의 시기에 인도에서 캔뽀 시와 상뽀 zhi ba bzang po, 학자 즈나나쉬리 dz+nyA na shrI, 치메사라해따'chi med sa ra he ta, 뽀디따 가야다라 ga ya dha ra -그는 아내가 있었다- 뽀디따 뿌나쉬리pu nya shrI(Skt. Punyaśri), 뽀디따 수리야시띠su rya si ti, 뽀디따 수마띠기르띠su ma ti ghir ti(Skt. Sumatikirti), 뽀디따 쉰누 붐빠 gzhon nu bum pa, 세르기 고차gser gyi go cha, 네팔인 바렌드라 bha len+dra, 카쉬미르 뽀디따 샤까쉬리shA+kya shrI(Skt. Śakyaśri), <318> 등을 초청하였고 [103b] 그들의 번역은 옥 로덴 세랍 rngog blo ldan shes rab, 수가 도르제 zu dga' rdo rje, 쉰누 축 gzhon nu mchog, 최쎅 chos seng, 쿵빠 닥쎅 khyung pa grags seng, 구루 린첸닥 gu ru rin chen grags, 독미 샤까예쎅'brog mi shA+kya ye shes, 땡진 상뽀 ting 'dzin bzang po, 상까르 팍빠 세랍 zangs dkar 'phags pa shes rab, 넌충 다르마 닥 gnyen chung dar ma grags, 쪽로 최축 cog ro chos mchog, 마르빠 도빠 mar pa do pa, 로닥 마르빠 로짜 lho brag mar pa lo tsA, 빠잡 니마닥 spa tshab nyi ma grags, 마뻬 최와르 sma ban chos 'bar, 라로 ra lo, 썰로 bcal lo, 사로 꺾가 겐첸 sa lo kun dga' rgyal mtshan, 티로 잠빠 뽀 khri lo byams pa dpal 등 인도, 티베트 번역가 다수가 인도, 네팔의 뽀디따들이 강설한 현밀 경전을 수없이 번역하여 가르침이 점점 밝아지게 했으니 은혜가 지극히 크다.

특히 영주 껀데는 말년에 토푸khro phu의 譯師 잠빠 뽀 lo tsA byams pa'i dpal 을 인도에 보내 뽀디따를 초청해 오게 했다. <319> 카쉬미르의 대 뽀디따 샤까쉬리shA+kya shrI는 佛滅 3천 2백 5십 8년인 물-陽-호랑이해(1122)에 태어났고, 85 세에 본존의 예언에 따라, 또한 초청하러 온 사자의 정성을 보고 불-陽-호랑이해

(1206)년에 초대받아 왔다. 티베트에 12년 머물렀고, 사sa,⁸⁹² 토khro,⁸⁹³ 짍lcags⁸⁹⁴ 세 명 등 학자 제자들을 [104a] 많이 증가시켰다. 짱소와 철팀제gtsang so ba tshul khri ms mdzes와 도르rdor bang 2인 등 제자들을 뽑아 가르침의 관행을 세웠고, 티베트인들이 일반적으로 존송하는 四部(tshogs pa sde bzhi) 전승의 가르침의 흐름이 강물처럼 길게 이어지게 하였다. 97세에 인도로 떠나서 99세인 흠-陰-토끼해(1219)에 법계로 <320> 갔다. 영주 께데의 아들은 바데bha lde였고 그 다음 차례대로, 따쉬데bkra shis lde, 바데ba lde, 나가데na ga lde등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구게gu ge, 뿌랑pu rangs, 마르윌mar yul 등의 께뽕들이다. 뽕코르췌 후부터의 가계의 기록은 서로 다른 것도 몇 가지 있다.

또한 나가데와na ga de ba의 아들 께축데btsan phyug lde는 께rtse⁸⁹⁵로 갔는데 그의 아들은 따쉬 데bkra shis lde이며 그 아들 닥췌데grags btsan lde는 금 17정bre으로 문수보살 상을 세웠고 금 24정으로 불탑을 세우고, 백은 5백정으로 金剛亥母⁸⁹⁶와 俱生母⁸⁹⁷ 상을 세웠다. 또한 백은 1만 2천 정으로 미륵보살 상을 세웠고 서적도 다수 펴냈다. 그 아들 아속데a sogs lde는 부다가야(rdo rje gdan)에서 법왕 아쇼카 바친 42개 마을을 <321> 속뽕sog po인들이 가져갔던 것을 되사서 부다가야에 바쳤다. [104b] [대가로] 백은 12정을 매년 속뽕인들에게 주었다. 그의 아들은 제다르멜'dze dar smal과 아난멜a nan smal이었는데 형이 백은으로 喜金剛

⁸⁹² 사까 뽕디따 께가 께첸sa skya pan di ta kun dga' rgyal mtshan.

⁸⁹³ 토푸 역사?

⁸⁹⁴ 짍 로짜와.

⁸⁹⁵ 야췌ya rtse를 가리킨다. 뿌랑spu hrang의 수도였고 Tucci는 야췌가 오늘날의 서부 네 팔의 마을 췌자semja라고 보았다. 야췌의 지배층은 자신들이 티베트 군주들의 적통이라고 보았다. 야췌 역사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췌니빠 린도르가 그 기원이다.

⁸⁹⁶ phag mo.

⁸⁹⁷ lhan skhyes.

9존 상을 세웠다. 동생은 금강좌 사원을 수리하고 금으로 깐규르를 썼다. 아난맬의 아들 레우맬⁸⁹⁸re'u smal은 인도로부터 많은 지역을 취했고 백은 40정으로 藥師佛⁸⁹⁸ 여덟 상을 세우고 라싸 조오 상의 정수리에 금관⁸⁹⁹을 바쳤다. 그의 아들은 상그라 맬sang gh+ra smal이고 제다르맬의 아들 아지드맬a jid smal이 백금 11정으로⁹⁰⁰ 타라 여신 상을 세웠다. 집권하기 전에 사까로 가서 승려가 되었다.⁹⁰¹ 야제ya rtse 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시띠맬sri ti smal과 대신 뽀덴 닥빠dpal ldan grags pa는 사까의 대법좌와 <322> 라싸 [조강 사원의] 11면 관음상에 금관을 바쳤다. 이들이 [뽀고쨌의] 장자 끼데 니마권skyid lde nyi ma mgon의 후예들이다.

[뽀고쨌의] 차자는 티 따쉬 쩍빠 뽀khri bkra shis rtsegs pa dpal이고 그 아들은 뽀데dpal lde, 외데'od lde, 끼데skyid lde이니 이들을 “매smad의 3 데”⁹⁰²라고 한다. 이들 부자가 아리 궁탕 이하를 통치했다. 뽀데의 후예들은 윈뽀 친뽀sngon po'i tshon po에 이른 자들이며⁹⁰³ 캅 궁탕빠khab gung thang pa,⁹⁰⁴ 루꺄klu rgyal, 찌와ci ba, 라제와lha rtse ba, 라룽sla lung, 꺄꼬르와rtsad bskor ba 등의 가문들이며 라꺄la stod 위쪽에 있다. 동생 끼데는 재'jad, 따낙rta nag을 얻었고 아들이 여섯 명 있었으며 그 중 다섯 명은 장byang⁹⁰⁵으로 갔다. 도'bro 지방의

⁸⁹⁸ sman lha.

⁸⁹⁹ gser <tog> [thog].

⁹⁰⁰ 단위 안 나옴. 11 백금.

⁹⁰¹ lha btsun byas. 라꺄lha btsun이 되다. 라꺄는 출가한 왕족을 가리킨다.

⁹⁰² Smad는 낮은 곳, 오른쪽을 의미하며 “꺄stod(높은 곳, 왼쪽)과 대비된다. 여기서는 중앙 티베트를 가리킨다.

⁹⁰³ la thug pa. 윈뽀 친뽀는 지명으로 보이거나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이 이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Per K. Sørensen, pp. 445-446 참고.

⁹⁰⁴ 궁탕은 서부 티베트의 캅 지역에 있다.

⁹⁰⁵ 티베트 북부의 장탕(북쪽 고원의 의미).

째뽞, 애루g.yas ru의 락lhag의 째뽞, 뽞빠mus pa, 재'jad, 따낙rta nag에 있는 자들이 [그 후예들이]다. [105a] 다른 한 아들의 자손은 째뽞rtsad po 겐와 외rgyal ba 'od까지 포함하며 짱뽞gtsang grom pa, 새srad, 냥뽞nyang stod 등에 있다. <323>

외데의 자손은 짱 지역의 애루g.yas ru에 자리 잡았고 깐카르skyin mkhar의 째뽞rtsad po까지 포함한다. 동쪽 쯡카tsong kha의 군주 뽞아 뽞첸spyan mnga' don chen 등 도매의 왕족들도 그의 자손들이다. 영주 티츱khri chung의 시기에 야르룽yar lung에 이르러 그의 자손들이 위dbus 지역의 째뽞rtsad po,⁹⁰⁶ 외승'od bsrungs 가문 등이 되었다. 티츱의 아들은 외끼바르'od skyid 'bar이고 아들은 일곱 명인데 장자는 상제차 티데바르zhang rje tsha khri lde 'bar였고 [나머지는] “짱빠 차둑gtsang pa tsha drug”⁹⁰⁷이었다. 티데바르에게 아들 여섯이 있었는데, 나모와sna mo ba, 아칭아와'a phying nga ba, 뽞카르와don mkhar ba, 탕코르와thang 'khor ba등⁹⁰⁸ 가족은 유g.yu thog툑의 후예였다.⁹⁰⁹ 지츱 라곰byi chung lha bsgom은 후손이 끊겼다. 궁데 외바르gung lde 'od 'bar는 뽞까spe skya 지방에서 후손이 단절되었다. 다와zla ba의 후손은 따삭빠rta bshags pa와 다나와gra sna ba이다. 티툑탁마khri thog thag ma는 뽞spe에서 후손이 단절되었다. 막내 쉹뽞바르bzhengs spyan 'bar의 후예는 뽞카르와mon mkhar ba, 상다와zhang mda' ba, 뽞뽞뽞뽞dpun bdun thang pa 등이었다. <324> 라뽞 까르모lha ston dkar mo의 후예는 제츱빠rje chung pa 가족 등이다.

⁹⁰⁶ 왕.

⁹⁰⁷ “짱 지역의 여섯 명의 차(즉 차보tsha bo)”의 뜻이며 차보는 “손자”, “조카”를 뜻한다. 장자 상제차 티데바르zhang rje tsha khri lde 'bar의 이름에도 역시 “차tsha”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⁹⁰⁸ 나모, <아>칭아, 뽞카르, 탕코르는 지명이고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ba”가 붙은 형식이다.

⁹⁰⁹ 유툑은 티데바르의 장자이다.

짱빠 차독 중 외쨌'od btsan, 라쨌lha btsan, 궁쨌gung btsan 세 사람의 후예는 징와bying ba의 짱뽕gtsang po 등이다. 름뽕lhun po의 자손은 자르byar에 있다. 다르라dar ra의 후손은 타독빠khra 'brug pa와 추믹 곡뽕chu mig gog po 등 가문이다. 이들이 외송'od bsrungs의 후예들이다.⁹¹⁰

이상의 티베트 군주들이 일어난 역사는 얄룽 조오yar lung jo bo⁹¹¹와 장치뽕빠sbyang phyi ston pa,⁹¹² 쉐빠 [105b] 꺾가 도르제'tshal pa kun dga' rdo rje⁹¹³ 등이 편찬한 문서들로부터 모아 편집한 것이다. 야쨌<yang> [ya] rtse의 왕통은 세르톡빠gser thog pa 름도르rin rdor⁹¹⁴에 상세하게 물어서 쓴 것이다.⁹¹⁵

⁹¹⁰ 즉 랑다르마의 장자 옴땡의 이복 형제 외송.

⁹¹¹ 『얄룽 조오 교법사ya rlung jo bo chos 'byung』.

⁹¹² 일반적으로 장치 뽕빠Byang-ji ston-pa. 1286년 티베트 왕통을 다룬 역사서 『꺾랍 뽕삼쨌신Rgyal rabs dPag-bsam ljon-shing』을 펴냈다고 알려져 있다. 꺾가 도르제가 『紅史』에 많은 부분을 인용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⁹¹³ 『紅史』의 저자.

⁹¹⁴ 쯔니빠 름첸 도르제(bcu gnyis pa rin chen rdo rje, 1218-1280). 유명한 팍모두파의 주지 꺾와 름포체 닥빠 쯔뽕(rgyal ba rin po che grags pa brtson 'grus, 1203-1267)의 동생이었고 1267년 형 사망 후 그를 이어서 주지가 되었다. 위의 장치 뽕빠가 『꺾랍 뽕삼쨌신Rgyal rabs dPag-bsam ljon-shing』을 쓸 때 뽕톡빠 름도르dpag thog pa rin rdor라는 인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쯔니빠 름첸 도르제를 가리킨다. 쯔니빠는 세르톡빠gser thog pa라고도 불렸다. 쯔니빠 름첸 도르제에 대하여는 Jampa Samten and Dan Martin, "Letters to the Khans: six Tibetan epistles of Togdugpa addressed to the Mongol rulers Hulegu and Khubilai, as well as to the Tibetan Lama Pagpa", ed. Roberto Vitali, *Trails of the Tibetan Tradition, Papers for Elliot Sperling*, Dharamshala, 2014, pp. 300-301 참고.

⁹¹⁵ 세르톡빠 름도르는 1280년에 사망했으므로 이 책의 저자 뽕조르 상뽕가 그에게 질문한 것은 아니며 저자가 典據로 삼은 저작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妙善이 등장되기를!

대부분의 현밀 학자들이 일치하여 말하기를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5천년 존재한 중에

석가모니가 탄생한 흙-陽-용해부터 <325>

1천 3백 5십 6년이

지난 물-陽-개해에 티베트 군주의

최초인 나티쨌뽀가 등극했다

그리고 9백 6십1년이 지난

개해에 토리 넌쨌tho ri gnyen btsan이 왕위에 올랐고

197년이 지난 불-소해에

송쨌 감뽀가 태어나고, 1백

7십4년이 된 쇠-말해에 닥마르brag dmar에서

티송 데쨌이 태어나고 그 뒤 76년이 된

불-陽-개해(806)에 영주 티 랠이 태어났다.

36년이 된 쇠 닭해(841)까지 국정을 장악했다.

그 때 佛法이 티베트에 도입된 정황은

티베트에 왕통 42대가 지나고

그 뒤 물-陰-돼지해에서 쇠-말해까지

68년이 지났고 랑 다르마가 가르침을 파괴했다

티베트 지역 위짱에 佛法의 소리도 알려지지 않고

그때부터 가르침의 후흥기 불-호랑이 해(1206)

빠첸 샤까쉬리가 이를 때까지 4백

9십 <326> 7년이 된 불 호랑이해부터

지금 나무 호랑이해(1434) 까지 [106a] 228년이 지났다.⁹¹⁶

모두 합치면 3585년이 갔다. -불 닭해까지 42년이 지났다-

미래에 가르침이 1천

4백 15년이 더 있을 것이고 계산하니

표상의 시대⁹¹⁷ 5백년

이 의미를 이해하는 모든 지혜를 가진 중생은

보석 같은 가르침의 등불이 있는 이 때에

해탈의 길로 들어가라.

이 법왕의 왕통을 적는 선업에 의해

부처님의 가르침의 문으로 들어가는 존귀한 승려들이

호법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기를!⁹¹⁸

⁹¹⁶ 책의 성서 연대를 알 수 있는 문장이다. 물론 후대에 일부 가필이 행해졌다.

⁹¹⁷ rtags tsam 'dzin pa.

⁹¹⁸ bstan 'dzin 'dzin ma'i ngos kun khyab gyur cig.

중생들이 속히 一切知王을 얻기를!

길상!

티베트 일곱 大臣 이야기

길상!

티베트에 법왕 祖先과 자손이 차례로

공통의 권세와 정치가 복덕으로부터 났고

화현한 훌륭한 다수의 대신들이 생겨났으니

특히 모든 티베트 백성에게 은혜가 큰

七人賢臣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디굼 쨌뽀의 아들 셋 중에

둘째 뿌데 궁궐spu <ne> [de] gung rgyal⁹¹⁹ 시기에

첫번째로 지극히 현명하며 쟁'dzeng의 아들인

루라껐의 아르쇠<rgyu> [rus] la skyes kyi ngar gsos⁹²⁰라는 자가 났다.

⁹¹⁹ spu de gung rgyal.

그가 어떤 방편과 공적을 행했는가 하면,

황소와 검은 암 야크와 염소, 양을 법 안에서 조사했고⁹²¹

여름에 계산하여 풀을 베어 쌓아서 겨울에 사용했으며

들판을 [106b] 밭으로 바꾸고 산봉우리를 장악했다.

그 전에 티베트에는 풀을 수확해 두는 일이 없었다.⁹²²

티넨 승짚khri snyan bzung btsan 왕 재세 시에

두번째 현명한 대신으로, 쿠khu의 아들

⁹²⁰ 이는 앞에서 본 디굼 쩡뽀 사후 그 비가 낳은 아들이다. 이름 뒷부분의 아르쇠ngar gsos는 의미를 알 수 없다. 랑 다르마 사후 그 아들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뽀조르 상뽀는 루래계가 랑 다르마의 비와 흰 야크가 결합하여 태어났고 처음에 덩어리였던 것을 뿔에 넣어 두었더니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여기서는 쟁'dzeng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다. 한편 그가 딱bkrags의 아들이라고 하고, 딱 씨족이 다른 씨족과 전쟁에서 패하고 족멸되었는데 딱의 유복자였던 루래계가 장성하여 원수를 갚고, 도망쳤던 형을 불러와 즉위시키고 자신은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張雲, 「吐蕃七賢臣考論」, 『西藏民族 學院學報』, 1992-1, p. 43).

⁹²¹ <rtsal> [btsal] 과세를 위해 가축 수를 조사한 것을 의미.

⁹²² 루라께(혹은 루래께)에 대한 다른 기록에서는 그가 “나무를 태워서 목탄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광물을 용해하고 금, 은, 동, 철을 추출했다. 그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 쟁기와 멍에를 만들었고 땅을 파서 상류의 물을 수로를 통해 끌어오고 두 마리의 황소를 짝지어 쟁기를 걸어 경작하게 했다. 초지를 경작지로 바꾸고, 강에 다리를 놓았다.”고 적고 있다(R. A. 슈타인, 안성두 역, p. 54).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금은을 추출하고 쟁기와 멍에를 만든 이 업적이 딱리넨식stag ri snyan gzigz 왕의 시기에 세번째 현명하고 박식한 이, 몽mong의 아들 티 도리가 낭찡khri do ri'i snang tshab의 공으로 돌려졌다. 즉 여기에 언급된 일곱 명은 대부분 실제 인물이고 유명한 재상이었으나 각각의 공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시간적으로 서로 섞여 있으며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부 고까르lha bu mgo dkar라는 자가 났고⁹²³

그가 어떤 방편과 공적을 행했는가 하면,

방목에 좋게 하고⁹²⁴ 경작에 좋도록 만들었으며⁹²⁵

호수 물을 끌어서⁹²⁶ <328> 水路yur ba와 합쳐지게 하고

높은 곳의 물을 연못에 가두고 밤의 물을 낮에 끌어왔다.⁹²⁷

그 전에는 들판이 물에 적셔진 적이 없었다.⁹²⁸

막리넨식stag ri snyan gzigs 왕의 시기에

세번째 현명하고 박식한 이, 몽mong의 아들

⁹²³ 앞에서 저자는 루래계가 디굼 쩌뽀의 원수를 갚고 이복형을 불려와 즉위시킨 공으로 인해 쿠khu 성을 사사받아 이름이 쿠쿠 라부뎐상khu khu lha bu smon bzang이라고 했다. 따라서 쿠의 아들 라부 고까르는 라부 뎐상 즉 루래계의 자손일 것이다.

⁹²⁴ 'brog gi don. 유목의 편리.

⁹²⁵ zhing gi thul 'debs pa: clear land for tillage

⁹²⁶ mtsho la <ltar> [gtar] kha byas

⁹²⁷ <grangs> [drangs]. 밤에 물을 가두었다가 낮에 사용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⁹²⁸ de'i gong na zhing rnams char mar 'debs.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빠오 쪽락 텡와의 『賢者喜宴』에는 라부 고까르가 경작지를 한 쌍으로 계산했고(즉 두 마리의 소를 하나의 멍에에 매는 방식), 아마도 과세를 위해 초지를 가축의 가족으로 평가했다고 적었다. 또한 계곡의 꼭대기에서 물을 관으로 끌어오고 계곡 아래에 관개용 수로를 만들어 생산량을 증대시켰다고 한다(Dpa' bo gtsug lag phreng ba, *Dam pa'i chos kyi 'khor lo bsgyur ba rnams kyi byung ba gsal bar byed pa mkhas pa'i dga' ston*, Mi rigs dpe skrun khang, 1986, p. 165).

티 도리이 낭잡khri do ri'i snang tshab이라고 하는 자가 났다.⁹²⁹

그가 어떤 방식과 공적을 행했는가 하면,

돌을 목탄으로 태워 금, 은, 동, 쇠를 취출했고

나무에 구멍을 내어 쟁기(gshal)와 멩예를 만들었으며

조mdzo⁹³⁰ 두 마리glang dor⁹³¹를 쌍으로 이어⁹³² (땅을) 갈았다.⁹³³

그 전에는 티베트에 동물에 짐을 싣는 것이나 [운송]비rin가 없었다.

법왕 송젠 감뽀 시기 네번째 현명한 이 튼미 삼보따,

문수보살의 화신이며 중생의 등불인 그는

중생을 위해 헤아릴 수 없이 어려운

티베트 문자 자음 서른 개를 구부러진 모음 부호⁹³⁴와 함께

⁹²⁹ 그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여러 저작에 기록되어 있다. 돈황 문서 The Old Tibetan Chronicle에는 mong khri do re snang tshab(https://otdo.aakken.jp/archives.cgi?p=Pt_1287#). 그는 딱리 낸식 시기에 쿵뽀 뽕새 수째khyung po spung sad zu tse와 함께 대신직을 수행했다고 한다(Per K. Sørensen, p. 179). 쿵뽀 뽕새는 송젠 감뽀 시기의 대신 망냥뽀제상냥mang nyang po rje zhang snang을 포함하여 제거했다고 하는 대신이다.

⁹³⁰ 조. 소와 암컷 야크의 교배종.

⁹³¹ 랑도르glang dor는 두 마리의 소를 가리키는데, 토지 면적의 단위로도 쓰인다. 1 랑도르는 소 두 마리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땅을 말한다.

⁹³² <ldeb> [sdeb].

⁹³³ thang ma thams cad btab.

붙이고 연결하며, 음절 부호(tshegs)⁹³⁵와 구절 부호(shad)⁹³⁶와 더불어

문장이 나뉘고 章skabs don이 [107a] 말해지게 했다.

그 전에 티베트에는 읽는 것과 문자가 없었다.

티데 쪽땀 황제의 재세 시에

다섯 번째 賢臣 티 상압된khri bzang yab don이 출현했다.⁹³⁷

그가 어떤 방식과 공적을 행했는가 하면

데bre⁹³⁸와 상srang⁹³⁹의 收支⁹⁴⁰를 계량하고

지역들yul dang <khyor> ['khor]의 식품을 조정하였다.

쌍방을 만족하게 하고 매매에 쌍방이 동의하는 일을 시행했다.

그 전에 티베트에는 데bre, 상srang, 상업이 없었다.

⁹³⁴ gug kyed. “구부러진 모음 부호” o, u, i, e 등 티베트 문의 모음 부호가 모두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⁹³⁵ 티베트 문에서 각 음절 뒤에 찍는 점.

⁹³⁶ 한 구절이 끝난 것을 알리는 세로 줄. 문장이 끝나면 세로줄 두 개를 긋는다(니세gnyis shad).

⁹³⁷ 그와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⁹³⁸ 升.

⁹³⁹ 兩.

⁹⁴⁰ 'du 'khyod ['god].

법왕 티송 데쨌 재세 시에

여섯 번째 賢臣 티상 압락khri bzang yab lhag이 이르렀다.⁹⁴¹

그가 어떤 방식과 공적을 행했는가 하면,

모든 산위의 家口들을 계곡<rlung> [klung]으로 옮겼고

변방의 고원에 농사 짓는 곳so nams khang을 집으로khyim 만들었다.

황무지를 농전으로 바꾸고 물을 주었다.

그 전에는 산 위의 石城에 집을 짓고 살았다.

화신 티데 송쨌 재세시에

일곱 번째 대 현신, 네르gnyer의 아들

딱잡동식stag tshab ldong gzigs이 <330> 이르렀다.⁹⁴²

⁹⁴¹ 돈황 문서에는 “괴 티상압락mgos khri bzang yab lag”으로 적혀 있다(*Old Tibetan Chronicle*, PT 1287 1: 113). 南詔에 사신으로 다녀온 일이 있어 남조의 비문에 “宰相 倚祥 葉樂”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이 방문은 그 전에 남조의 段忠國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이었고 단충국은 *Old Tibetan Chronicle*에 “재상 blon po 단쥬꺄d'an cung kog”으로 기록되어 있다(*Old Tibetan Chronicle*, PT 1287 1: 350). 이 상호 방문의 결과 남조의 군주는 贊普鐘(쨌뽀의 동생btsan po chung/cung)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티상압락은 남조로 갈 때 金冠 등 무수한 진보를 가지고 갔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는 Helga Uebach, *Tibetan Officials in the 8th-Century South-eastern Part of the Empire, Proceedings of the Tenth Seminar of the IATS*, 2003. Volume 14: Old Tibetan Studies, pp. 53-64 참고.

⁹⁴² 네르 딱잡동식은 티송 데쨌이 신민들을 모아 놓고 “당신들은 해뽀 산에서 쇠로 된 관으로 들어가고 싶은가, 아니면 계개 지방의 모래밭을 금가루로 덮겠는가, 아니면 애루g.yas ru의 쨍뽀(강)를 銅으로 된 관 속에 넣겠는가, 아니면 해뽀 산 꼭대기에 장인의 漢地가 보이는 수정으로 된 보탑을 세우겠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원lha khang을 하나 세우겠는가?”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답하기를 앞의 것은 모두 불가능하며 사원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그가 어떤 방식과 공적을 행했는가 하면,

사방의 수호자들로 하여금 왕을 위한 의식sku'i rim 'gro을 행하게 하고

豪奴rgod⁹⁴³ 千戶stong sde로 하여금 변경 초소so kha의 적과 싸우게 했으며

내부를 동등하고⁹⁴⁴ 공평하게 [하고] 법률에 의해 목숨 값gsos <stong> [thang]을
내게 했다.⁹⁴⁵

그 전에 티베트에는 목숨 값이 없었다.

현신 칠인이 일어난 정황은 그와 같으니

묘선이 [107b] 증장되기를!

도검이 티베트에 전파된 정황⁹⁴⁶

좋다고 한 인물이다(Per K. Sørensen, pp. 371-373). 한편 바셀낭의 기록이라고 전해지는 『바세』에는 그가 산타락시타를 초청한 내무대신 3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津曲真一, 「『パシェ』訳註(2)-忿怒する魔鬼-」, 『四天王寺大学紀要』, 2011, vol. 51, p. 423).

⁹⁴³ 전통시대 티베트는 전체 노비를 호노(rgod)와 馴奴(g.yung)로 나누었고 전자가 비교적 지위가 높았으며 군사로 충당되었다.

⁹⁴⁴ <'khod mnyams> [khod snyoms]

⁹⁴⁵ 티베트 연대기 등을 따랐다. Brandon Dotson, Doctoral Dissertation, Oxford University, 2006, Administration and Law in the Tibetan Empire: The *Section on Law and State* and its Old Tibetan Antecedents, p. 396.

⁹⁴⁶ 여기부터 티베트 절의 마지막, 즉 “몽골 군주들의 역사” 전까지가 GBB에는 없다.

길상!

티베트 역대 군주들의 권세로

이전에 없던 도검과 차나무와 도자기 등

신기하고 대단한 것들이 새로 생겨나

차차 발전한 정황을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처음 디굼 꺄뽀 말년,

티베트에 검ral gri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혜의 무기로써 邪見을 지닌 적을 굴복시키고

기억의 밧줄로 사나운 도적을 죽이며

수승한 화신 법계의 문을 여시는

不動의 보호자 憤怒 明王께 <331> 예경합니다.

이전에 티베트에 검의 이용과 분류를 문서로 쓴 것은 없었다. 내가 학자들의 좋은 말을 잘 분석하여 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글로 쓸 것이니 다음과 같다.⁹⁴⁷

⁹⁴⁷ 저자의 말대로 검에 대한 티베트 기록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으며, 현전하는 것으로 이 『한장사집』의 기록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대로 1524년 따쉬 남꺄(bya 'jam dbyangs bkra shis rnam rgyal)이 『세상의 관행에 대한 논서('jig rten lugs kyi bstan bcos las dpyad don gsal ba'i sgron me)』라는 글을 써서 무기를 비롯한 여러 물건들을 감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검에 대한 따쉬 남꺄의 설명은 뽀조르 상뽀와 유사하나 좀더 간략하다. 번역은 제공하지 않지만 따쉬 남꺄 <검> 관련 기사의 티베트어 원문과 주석이 실

검의 종류의 분류는 상마zhang ma, 속뽕sog po, 후페hu phe 세 가지와 구시dgu zi, 자랄'ja ral까지 다섯 종류, 그 안에 [각각] 소분류로 상마와 상제zhang rje 둘로 나누고, 속뽕과 속지sog rdzi 둘로 나누며, 자랄과 가자rgya 'ja 둘로 나눈다. 후페와 후록hu rogs 둘로 나누고 구시와 구닥dgu dag 둘로 나눈다.

상마는 漢地의 검이며 태종tha'i dzung 황제 때부터 발전했다. [108a]

황제의 외삼촌zhang⁹⁴⁸ 나라에서

상사 토모zhang bza' khro mo라는 이가 打造했다.

이 검으로 어떤 두께의 물건이라도 벨 수 있다.

이 무기에 대하여, 여성 현자로부터 이름이 붙었는데⁹⁴⁹ <332>

린 책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Donald Larocca, *Warriors of the Himalayas: Rediscovering the Arms and Armor of Tibet*,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2006, pp. 253-257).

⁹⁴⁸ 상zhang은 외삼촌 혹은 장인(舅)을 뜻한다. 당의 공주가 티베트로 시집온 이래 당과 티베트의 관계를 舅甥 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싸 조캥 사원 앞에 지금도 남아 있는 이른바 唐蕃會盟碑에서도 티베트의 껌뽕와 당의 황제 두 사람을 舅甥 (원상, dbon zhang)이라고 적고 있다(“bod <gyi> [kyi] rgyal po chen po 'phrul gyi lha btsan po dang rgya'i rgyal po chen po rgya rje hwang te dbon zhang gnyis”). 토번 제국 왕가에 신부를 주는 쪽을 의미하는 상zhang은 唐의 황실만이 아니라 토번 내에서도 유력 가문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였다. 예를 들면 도'bro, 침mchims, 체뽕tshes pong, 나남sna nam 집안이 “상zhang” 칭호를 보유하고 토번 군주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 물론 이 칭호를 가진 집안 만이 왕비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위의 네 가문은 티송데첸 이래로 빈번히 재상을 배출했다. 토번 제국 왕실의 혼인에 대하여는 Brandon Dotson, 2010, pp. 29-37 참고.

⁹⁴⁹ 이름 자체의 뜻은 “상사zhang bza'”는 “상-공주(여왕)”을 의미하며 “토모khro mo” 또한 “여성 憤怒尊”을 뜻한다. 한편 상사는 암도 지역, 西寧 남부에 지금도 남아 있는 부족

샹뽕(외삼촌)의 나라에서 만들어 졌으므로 “샹zhang”이라고 하며

이 검에 대해 여성이 정통하므로 “마ma”라고 하여⁹⁵⁰

그것과 그 후예들을 샹마zhang <dma> [ma]라고 부른다.

그녀에게⁹⁵¹ 존자(제rje)가 하나 있었는데 그도 역시 검을 打造했다.

그것과 그 계통[의 검]을 샹제zhang rje라고 한다.

속뽕sog po는 변경인들의 검이다.⁹⁵²

속뽕 툽궤thub rgyal의 재위기에

속이라는 無邊의 땅에

한 나이든 대장장이가 타조했다.

이 검으로 운철gnam lcags로 만든 두꺼비도 자를 수 있다.

그러므로 철보다 속뽕가 예리하다.⁹⁵³

민족의 이름을 붙여 속뽕라고 했으며

나이든rgan 대장장이가 타조했기 때문에 속궤sog rgan⁹⁵⁴이라고 한다.

명이기도 하다.

⁹⁵⁰ “ma”는 여성을 나타내는 조사다.

⁹⁵¹ 중역본은 “이 검에게”로 번역했으나 원문이 “mo”로 여성 인격을 가리키므로 샹마를 만든 대장장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⁹⁵² 잘 알려진 대로 티베트어 속뽕sog po는 소그드인에 대한 호칭이었다. 그 후 몽골 초기 호레즘을 가리킨 것이 분명한 기록이 보이기도 하며, 몽골 이후에는 몽골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⁹⁵³ lcags <la> [las] sog po rno.

그것과 그 계통이 속꺈이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관리자(지오rdzi bo)를 두었는데

그도 우연히 [타조법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만든 검과 그 계통을 속지sog rdzi라고 한다.⁹⁵⁵

후페hu phed⁹⁵⁶는 몽골의 검이다.

칭기스 칸 재위기부터 성행했다.

몽골국 후페라는 곳에서 타조되었다. <333>

이 검으로 야생 야크 뿔 여섯 개를 자르니

그러므로 후페는 뿔보다 예리하다.

지역과 [검의] 이름을 묶은 것이며

그것과 그 계통을 후페라고 한다.

그에게는 조수(rogs)가 하나 있었는데 그도 역시 [제조법을] 알았으므로

그가 만든 것과 그 계통을 [108b] 후록hu rogs이라고 한다.

구시dgu zi는 티베트의 검이다.

디꺈 꺈뽕 재위기부터 발전했다.⁹⁵⁷

⁹⁵⁴ 꺈rgan은 “연장자”, “노인”의 뜻이다.

⁹⁵⁵ “속sog-관리자rdzi”라는 뜻. 속sog은 시대별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므로 정확히 어느 집단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토번 제국 시기에 속뽕은 소그드인이었다.

⁹⁵⁶ ‘jig rten lugs kyi bstan bcos las dpyad don gsal ba’i sgron me는 저본에 따라 후베 hu bed 혹은 후데hu bde라고도 적고 있다(Donald Larocca, p 255)

시두zi ‘du라는 凶地에서

믹심mig zim⁹⁵⁸ 형제 아홉 명이 [각각] 타조했다.

가장 큰 검으로 하늘의 밧줄dmu thag을 잘랐으니⁹⁵⁹

[그 검이] 그 아래 여덟 개보다도 더 예리하다.⁹⁶⁰

그 아홉 명의 각 제자들이 아홉 부류로 나뉘어

그와 같이 티베트에 검이 많아지게 되었다.

아홉 형제가 타조하였기 때문에 “구dgu”라 하고

실눈mig zim을 가진 자들인 것에서 “시zi”라고 하여⁹⁶¹

그것과 그 계통의 것들을 구시라고 한다.

그들 아홉 명에게 주인(bdag, 닥)이 한 명 있었는데 그도 역시 [제조법을] 알았으므로

그것과 후대 그 계통의 것들을 구닥dgu bdag이라고 한다.⁹⁶²

⁹⁵⁷ 앞에서 본대로 디굼 쩌뽀의 이름은” 검으로 죽는 왕”이라는 뜻이고 그가 룡암 따지와와 대결에서 말을 타고 휘두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줄을 자른 검이 바로 구시검이라고 했다.

⁹⁵⁸ “실눈 뜨다”의 뜻.

⁹⁵⁹ 앞에서 본, 디굼 쩌뽀가 구시 검으로 잘라버린, 하늘로 올라가는 줄. 이전까지 토번의 쩌뽀들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밧줄이었으나 이 때문에 토번의 쩌뽀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시신이 땅에 남게 되었다.

⁹⁶⁰ 아홉 형제가 만든 검 중 이 검이 다른 여덟 개보다 강하다는 뜻.

⁹⁶¹ 아홉 형제가 이 검을 만든곳이 시두zi ‘du이므로 구시일 가능성도 있다.

⁹⁶² 『新唐書』는 토번에 대한 설명에서 “다수가 칼과 활을 차고 다닌다(多佩弓刀, 『新唐書』, 「吐蕃」, p. 250)”라고 적고 있어서, 토번 제국 시기에 도검이 이미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

자'ja는 남쪽 뮌mon의 검이다.

남카 디제⁹⁶³의 재워기부터 발전했다.

자'ja국 <334> 로닥lho brag의 숲에서

미톡 텔고mi togs thal mgo라고 하는 이가 타조했다.

이 검으로 한번에 나무 아홉 그루를 자르니,

자랄이 버드나무(skya)⁹⁶⁴보다 예리하다는 말은 이로부터 알려졌다.

“자”라는 것은 지역에서 이름붙인 것이다.

그것과 그 계통을 자랄이라고 한다.

왕rgyal po 또한 鐵匠 방법을 알아 타조하였으므로

그 부류는 겐자rgyal 'ja⁹⁶⁵라고 한다.

그것들을 대략 분류하면, 샹마의 부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디째'bri rtse, 고쇠go chod, 샹텐zhang phran이고, 그들로부터 다시 1종씩 분기된다. 샹제⁹⁶⁶는 사까르 sa dkar와 사마르sa dmar 둘로 나뉜다. 샹마의 부류는 이것이 전부다.

인다. 도검의 제조는 제철 기술과 깊은 관련이 있고, 토번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新唐書』는 운남 지역에서 당과 토번이 싸울 때 토번 측이 강에 철교를 지어 다른 쪽의 오랑개와 교통하고 성을 쌓았다고 했다(『新唐書』, 「吐蕃」, p. 281).

⁹⁶³ nam mkha' gri mdzes. “하늘의 아름다운 검”의 뜻.

⁹⁶⁴ [lcang] skya 즉 버드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jig rten에서는 단순히 “나무보다 예리하다(shing la rno ba)”라고 했다.

⁹⁶⁵ “王-자('ja)”

⁹⁶⁶ 샹마의 제작자 샹사 토모의 존자(rje)가 타조한 검.

속뽕 역시 분류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09a] 속첸sog chen, 속까sog skya, 속탠sog phran의 셋이며, 이로부터도 두 부류씩이 분기되었다. 속지sog rdzi⁹⁶⁷에는 짝락lcags rlag, 탁테thag khres가 있다. 속뽕의 부류는 이것이 다다.

후폐를 나누면 쉐까르zal kdar와 쉐마르zal dmar, 쉐타zal khra 셋이 있고 그들로부터도 두 부류씩이 분기되었다. <335> 후록hu rogs⁹⁶⁸은 캐깐khas rgan, 캐나khas sna 두 가지이고 후폐의 부류는 이것이 전부다.

구시는 아홉 가지로 나뉘며, 남카뽕최nam mkha' spu chod, 다래가르최dgra lha'i gar chod, 공타구최gong khra dgu chod, 추낭냐최chu nang nya chod, 겔게조최gal rge'i jo chod, 앤퇴개최ngan tho'i skas chod, 오채삼최o tsha'i bsam chod, 공괴팍최gong go'i phag chod의 아홉 가지이다.⁹⁶⁹ 이들을 분류하면 다시 두가지씩이 있다. 구닥dgu bdag⁹⁷⁰을 나눈 세가지는 상까르shang dkar, 상낙shang nag, 사옥쨌za 'ug can셋이다. 이것이 구시의 분류이며 종류는 두 가지, 長刀⁹⁷¹ 두가지가 있다.

자렐로부터 분기된 것은 샤르자shar 'ja', 로르자lhor 'ja' 두가지가 있다. 샤르자가 나뉜 것으로 쉐록bshal khog, 율록dngul khog, 티록'bri khog 세 가지가 있다. 이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로자lho 'ja'는 자녕'ja' rnying, 가우마ga'u ma, 구라시dgu la zi와 바르빠르bar par, 사르둥sar brdungs의 <336> 다섯 가지가 있다. 가자rgya 'ja'는 상마르shang dmar, 상낙shang nag, 미삭쨌mi sags can 세 가지로 나뉜다. 자 종류는 다와쨌da ba can을 제외하고 [109b] 모두

⁹⁶⁷ 속뽕의 관리자(rdzi)가 타조법을 알게 되어 제작한 검.

⁹⁶⁸ 후폐 제조의 조수(rogs)가 만든 검.

⁹⁶⁹ 여기까지의 분류는 여덟 가지이며 뒤에 나오는 제네동최byed ne'i gdong chod를 추가해야 한다.

⁹⁷⁰ 아홉 형제의 주인(bdag)이 만든 검.

⁹⁷¹ shang lang. 허리에 차는 긴 칼.

샹마 종류다. 이상이 자랄 부류다.

형상의 특징을 아는 秘法은,

샹마 류에는 샹템zhang them이 있고,

속뽕의 표지는 벼이삭 모양(<go chog> [mgo lcogs])⁹⁷²이고,

후폐의 표지는 섞인 것(gu rdzi)이며,

구지⁹⁷³의 표지는 은하수(dgu tshig)다.⁹⁷⁴

표지가 없는 것도 몇 가지 있으니

그렇다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검신과 설명이 일치해야 하니,

샹마는 대부분 멀리 phar phar ‘phra 하며,

羊에 색깔있는 기름을 발라 놓은 듯하다.

속뽕은 대부분 검 자루 부분과 검 끝이 [넓기가] 비슷해서,

⁹⁷² ‘jig rten을 참고하여 바꾸었다.

⁹⁷³ dgu <rdzi> [zi].

⁹⁷⁴ 모양으로 분류하면, 가장 일반적인 티베트 도검의 날의 형태는 직도에 외날이다. 검 끝의 모양은 다양한데 부드러운 곡선일 때도 있고 가파르게 경사가 있기도 하며 완전히 둥글기도 하다. 검끝이 둥근 것은 부탄의 도검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이다. 두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직도에 외날이면서도 끝이 가늘고 날카로운 것도 있는데 주로 단검 등 좀 더 짧은 도검에 많이 쓰인다. 세번째로는 직도에 양날 검이면서 대칭인 검끝을 가진 도검이 있는데 초기 도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나 후대에도 보인다. 날의 형태로 마지막 유형은 곡도이면서 외날인 것이며 외부에서 들어온 형태로 보인다(Donald Larocca, 2006, p. 146).

소나무에서 떨어진 잎 같다.

후페는 대부분 푸른 색이 섞여 있고⁹⁷⁵,

가루다 새가 쫓는 검은 뱀 같다.

구시는 대개 회색이고 공포스러우며skya la 'jigs <337>

물기를 바른 버드나무 같다.⁹⁷⁶

자랴은 대개 빛나고 날카로워서

암호랑이가 고원을 질주하는 듯하다.

샹마의 변치 않는 분명한 표지는

검 끝에서 손가락 세 개 정도로 내려가

날카로운지 아닌지ngar yod med 알 수 있는 무늬가

손톱으로 둘러싼 흔적 같은 것이 있다.⁹⁷⁷

현자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어리석은 자라도 손으로 더듬어보면 안다.

속뽕의 변함없는 분명한 표지는

검 끝에서부터 손가락 세 개 정도 오면

陽鐵pho lcags과 陰鐵mo lcags의 벼이삭 모양⁹⁷⁸이 있다.⁹⁷⁹

⁹⁷⁵ <mthong> [mthing]

⁹⁷⁶ lcang skya'i byug pa rlon pa 'dra.

⁹⁷⁷ sen mos bskor ba'i rjes 'dra yod.

후폐의 [110a] 변치 않는 분명한 표지는

검 끝에서 손가락 반 정도, 다시 손가락 다섯개 정도를 가면

암호랑이 그림 같은 문양이 있다.

구시의 변치 않는 분명한 표지는

가운데에 철이 펼쳐진 것이

마치 회백색 은하수 같다.

자랴의 변치 않는 분명한 표지는

검신이 가늘고 긴데 검 끝은 두꺼운 것이다.

샬마 고쇠의 모양은

철의 색이 희며 부드럽다 <338>

샬마 샬탄의 특징은

⁹⁷⁸ 위와 마찬가지로 go chog을 mgo lcogs로 바꾸었다. 이 단어는 'jig rten의 여러 판본에서 'go lcog, go cog 등으로 기록되었다(위에서 속뽕 검의 표지가 고촉go chog이라고 했다).

⁹⁷⁹ 陰鐵은 陽鐵보다 품질이 좋으면서 軟性인 철을 말하는데 양철과 음철이 각각 도검 제조에서 말하는 강철·연철과 일치하는 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도검을 제조할 때 강한 성질 때문에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철을 넣어 부드러운 성질을 갖게 만든다. 이 구절은 여러 종류의 철을 섞어서 만들면서 검신에 무늬가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속뽕의 경우 그 모양이 이삭 같은 것이다. 검 날위의 문양은 검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종류가 다른 철이나 강을 합쳐서 버리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티베트 도검의 날에 나타나는 가장 고전적인 패턴은 검 날의 전체에 부드러운 파도 모양의 기복을 나타내는 일련의 무늬들이며 진한 색과 밝은 색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다가 검 끝에서 만나는 문양이라고 한다.

농사가 잘 된 해lo legs의 벼의 모와 유사하다.

상제 짜와zhang rje rtsa ba의 특징은

두껍고⁹⁸⁰ 철의 색이 검은 것이다.

상까르⁹⁸¹는 희고 두껍고

상마르⁹⁸²는 붉고 두껍다

하부 부류의 특징은 여기서 상세히 말하지 않는다.

속뽕 짜와sog po rtsa ba의 특징은

외부의 모습은 속뽕과 같은데

내부의 변치 않는 분명한 표지는

검 끝이 나이든 개구리의 두개골과 흡사한 것이다.

속뽕 체와sog po che ba의 특징은

이삭 모양이고, 검끝이 銅인 것이다.

속뽕 속까의 형상은

눈 위에 사슴 털을 뿌려놓은 듯하다.

속뽕 속탄의 성상은

⁹⁸⁰ <mthub> [mthug]

⁹⁸¹ “흰색 상”의 뜻.

⁹⁸² “붉은 색 상”의 뜻.

마디 마디가 있는 것이다.⁹⁸³

분류한 후페 짜와의 성상은

후페인 외형은 같은데

내부의 표지는 칼집(hud rdzi)에 여러 종류의 색이 있는 것kham sne can이고

후페 셸까르hu phed <zel> [zal] dkar의 [110b] 모습은

칼집 외부가 銅으로 되어 있다.

셸까르zal dkar⁹⁸⁴라고 말하는 이유는

칼집 안이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39>

셸타zal khra라고 하는 이유는

내외가 모두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독hu grogs⁹⁸⁵이라고 하는 이유는

칼집이 두 겹이기 때문이다.

후록 카갠hu rogs kha rgan의 특징은

찌르고 타격하는 것을btab brdungs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후록 캐나hu rogs khas sna의 성상은

가늘고 긴 줄무늬(skra)와 곡(<dgo> [gog])이 만나는 것이다.⁹⁸⁶

⁹⁸³ khol bu khol nyag byung na yin. 중역본은 여러 번 熔煉했다고 적었다.

⁹⁸⁴ 여기서는 셸까르와 구별되는 셸마르zal dmar를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⁹⁸⁵ 독grogs은 친구, 동반자의 뜻.

구시 짜와dgu zi rtsa ba의 성상의 분류는,

남카 뿌췌nam mkha' spu gcod의⁹⁸⁷ 내부 표지는

하부에 가늘고 긴 무늬와 성긴 무늬dwogs 둘이 만나는 것이다.

다라가르췌dgra lha gar chod의 특징은⁹⁸⁸

하부에 그림만 있는 것이다. thu ris rkyang pa yod

공타 구췌gong khra dgu chod의 특징은

오로지 가늘고 긴 무늬만 있는 것이다.

추낭냐췌chu nang nya chod의 특징은

성긴 그림dwogs ri만이 있는 것이다.

꺄게 조췌gal rge'i jo chod의 특징은

순수한 양철 한 줄기(yug)로 만든 것이다.

제네동췌byed ne'i gdong chod의 성상은

순수한 음철 한 줄기로 만든 것이다.

앤퇴 깨췌ngan tho'i skad chod의 특징은

⁹⁸⁶ Skra의 사전적 의미는 머리카락이다. 'jig rten은 검 날의 특징을 이루는 요소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하나는 머리카락(skra), 하나는 곡gog, 또 하나는 투르thur라고 했다. 곡의 분명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검 날의) 고저”를 뜻한다고 한다. 투르는 막대기를 뜻하므로 아마 여러 철 성분이 모여 검 날을 이루므로 생긴 날 표면의 긴 패턴일 것이라고 한다. (Brandon Dotson & Guntra Hazod, p. 256)

⁹⁸⁷ 앞에서는 남카 뿌췌nam mkha' spu chod라고 했다.

⁹⁸⁸ 앞에서는 dgra lha'i gar chod라고 했다.

찌르고 쳐서 단련한 것이다.⁹⁸⁹ <340>

오채 삼최o tsha'i bsam chod의 특징은

투르thur가 있는 것과,⁹⁹⁰ 쳐서 차가운 鍛鍊⁹⁹¹을 한 것이다.

공괴팍최gong go'i phag chod의 특징은

흑철이 섞여 있는 것이다.

구닥dgu bdag은 검 끝이 두꺼워서 타격할 수 있다?⁹⁹²

상까르shang dkar는 [111a] 양철 하나만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⁹⁹³

상낙shang nag은 음철 하나만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쇠 올가미가 있는 것은 사옥za 'ug이라고 한다.

분류한 것의 자랄 오보'ja' ral ngo bo의 성상은

외부 모습은 자랄과 같고

내부의 불변의 분명한 표지는

⁹⁸⁹ brdungs ngar

⁹⁹⁰ 종류가 다른 여러 철 즉 陰鐵(mo lcags)과 陽鐵(pho lcags)을 녹여 만들면서 검 날에 생긴 패턴(Warriors, p. 256). 검의 종류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이다.

⁹⁹¹ 검을 만드는 철에 대해 뜨거운 鍛鍊(tsha ngar)과 차가운 단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⁹⁹² rtse <sbob> [sbom] ltag brdungs. (위의 번역에서 brdungs는 주로 ngar(단련)과 연결했음)

⁹⁹³ 양철은 딱딱한데 색이 연하며 음철은 색이 짙고 유연하다. 주로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강하면서도 유연한 도검을 만든다. 양철은 탄소 함유량이 높아 도검을 강하게 만들며 음철은 탄소 함유량이 적고 잘 펼쳐진다(Donald Larocca, p. 146).

두께가 얇고 크며 zhang che 검끝은 두꺼운 rtse sbom 것이다.

샤르자 shar 'ja' 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늘고 긴 무늬와 투르thur 문양과 문장? gzhung pa이 있기 때문이다.

로자 lho 'ja'는 무겁고 이빨 모양이 있다. ljid la so rtsib can

꺄자 rgyal 'ja'는 매우 넓고 길며

샹마르 shang dmar는 음철에 보석 장식을 한 것이다.

샹낙 shang nag은 人皮, 양피가 있다.

검의 손잡이는 모두 야크의 뿔로 만들었다. rtsa ba'i 'ja' rtse g.yag ru kha

상세한 분류는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産地와 철의 종류, 그리고 외형의 특징 이 세가지에

맞추어 그들의 일반적 특징을 <341> 나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하부 분류는 그 안에서 일반적인 것이며

각자의 특징은 자신의 몫이다.⁹⁹⁴

대략의 분류 만을 말했으며

검의 종류를 분류한 세목과

철의 종류, [검의] 능력, 강력함 정도 등의

⁹⁹⁴ rtags mtshan rang gi thob skal yin. “각각의 특징은 다르다.”는 뜻.

상세한 구분은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학자들에 의거하여

전장의 용맹한 사람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여

취하고 버리는 것에 오류가 없이 무기를 잡고서

가르침에 해를 입히는 모든 적과 장애를

신속히 [111b] 法界chos dbyings로 보내기를!

길상!

甘露의 바다(bdud rtsi'i rgya mtsho): 차엽의 종류

티베트 왕 뒤송 망뽀제 즉

룽남 텨기 겔뽀rlung nam 'phrul gyi rgyal po 시기에

이전에 없던, 신들의 감로와 같은

차, 그리고 도자기가 나타났다

그 정황은 군주들의 역사에서 밝혔고

상세한 분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一面 兩臂에 검과 책을 <342> 드시고
가부좌에 위엄있는 모습의 장려한 像이
각종 아름다운 보석 장식으로 빛나니
일체지왕 문수보살에게 예경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좋아하시고
고귀한 선지식들이 최고의 음료로 즐기며
갯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감로의 특징을
[제가] 유정에게 이익이 되도록 씁니다.

天界에서 마시는 감로가
떨어져 人間界에 내린 후
황제의 처소에서 茶로 익어
중생들에게 복덕으로 나타납니다.

차는 열 여섯 종으로 분류하니⁹⁹⁵

⁹⁹⁵ 여기부터 차의 종류를 매행 7음절로 이루어진 운문으로 적고 있다.

골짜기 위와 아래, 마른 땅과 습지

生田과 熟田, 분뇨가 있는 곳과

거름이 있거나 없는 곳, 잎 끝 차와 잎 가운데 차,

열을 다스리는 것과 한기를 다스리는 것, 익은 것과 익지 않은 것이 있다.

골짜기 높은 곳의 차는 잎이 작고 차나무가 굵다

잎 색은 회색이며 당귀(tang kun, 當歸) 향이 난다.

맛은 떫으며 구워서 끓여 담(bad kan)을 치료하게 한다.⁹⁹⁶

즈나나뿌따dz+nya na pu ta 차라고 한다. [112a] <343>

골짜기 낮은 곳에서는 잎이 크고 부드러우며 차나무가 굵다.

색이 검고 즙의 맛은 매우 쓰며

음료로 좋은데 풍병rlung nad 치료에 매우 좋다.

우수넨따u su nan ta 차라고 한다.

마른 땅의 차는 잎이 크고 차나무가 굵으며

색은 갈색이고 냄새가 나쁘며 즙은 까맣다

떫은 맛이 나고 구워 끓이면 좋으며 ‘khris를 치료한다.

⁹⁹⁶ 이후 차 종류에 대한 설명은 모두 치료약으로서의 효능을 덧붙이고 있다. 티베트인들이 차를 가벼운 음료가 아닌 의료용으로 본 것은 송대의 기록에도 보이는데, 『淨德集』은 11세기 후반 송이 사천 차를 專賣 품목으로 정하고 現錢으로 구입하게 하면서 티베트인들이 겪게 된 어려움을 기록했다. 즉 “藩部는 혹 질병이 있으면 차를 이용하여 치료하며(或有疾病用茶療治) 아침 저녁으로 잠깐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었다. 최근 관에서 現錢을 요구하며 판매하므로 藩部에서는 산초나무, 밀초 등의 물품을 바꾸어 장에 들어가 博買하기 어려워졌다.”고 적었다(徐銀美, pp. 246-247).

삽띠?⁹⁹⁷하면 붉은 황갈색의 즙처럼 되며

꾸오마띠ku'o ma ti 차라고 한다.

우미바라u mi bha ra라는 차는

촉촉한 땅에서 나는데

잎이 두껍고 부드러우며 차나무가 가늘다.

색은 녹색이고 찌슈르ci zhur 즙과도 같다.

단내가 나며 맛이 좋고 부드럽다

갈아서 쓰면 좋으며 열을 다스린다.

하라즈냐ha la dz+nya라는 차는

生田에서 나며 색은 황색이고

잎이 크고 거칠며 나무는 굵다

즙은 피 같고 맛은 매우 쓰다.

향은 자멘 나무⁹⁹⁸ 같은 냄새가 난다.

빨리 끓이기에 적합하며 혼침을 없애준다. <344>

아구따마a ghu ta ma라는 차는-

熟田에서 나며 색은 자주색이다.

잎은 작고 차나무는 가늘다.

⁹⁹⁷ sab ti. 뜻을 알 수 없다. 중국어 번역본은 “봉해서 보관하면”이라고 했다.

⁹⁹⁸ ja men shing. 혹은 “차가 없는 것 같은 나무.”

즙은 우유 나무에서 나는 듯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맛이 매우 달다
 갈아서 쓰면 좋고 풍병을 치료한다
 후루빠따hu lu pa ta 차는
 糞便이 있는 땅에서 나며 색은 노랗다. [112b]
 잎이 작고 얇으며 차나무가 가늘다
 즙은 황록색이고 맛은 매우 달다
 향은 따라ta la와 비슷하다
 갈아서 쓰면 좋고 담('khris)병을 낫게 한다.
 두구파라gru gu pha la 차는
 소변이 있는 땅에서 나며 색은 검다.
 잎이 많고 차나무가 누워 있다.
 즙의 색은 노랗고 맛은 매우 떫다.
 냄새는 마즈뉴샤까madz+nyu sha ka 같다.
 갈아 쓰면 좋고 혈액병을 치료한다.
 사리바리sa ri bha li 차는
 거름이 있는 땅에서 나고 색은 노랗다
 잎과 차나무가 부드럽고 연하다snyoms.⁹⁹⁹

⁹⁹⁹ 중역본: 光滑

즙은 胡麻의 즙과 비슷하고

향이 좋고 부드럽다

끓여서 마시면 모든 'dud (귀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아리바구a li bha gu 차는 <345>

거름이 없는 땅에서 나고 색은 붉다

잎이 크고 단단하며 나무는 굵다

즙은 짙은 붉은 색이고 맛은 몹시 쓰다

냄새는 코를 찌르며

구워서 끓이면 좋고 풍병과 담병'khris을 없앤다.¹⁰⁰⁰

무뻔띠mu pan ti 차는

¹⁰⁰⁰ 여기까지는 차나무가 자라는 땅의 환경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陸羽의 『茶經』에 의하면 차가 자라는 땅으로 제일 좋은 곳은 爛石土이라고 했다. 난석토는 풍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토양으로 소위 生土를 말하며, 각종 유기질이나 토양 속의 생물 함유량이 풍부하여 차나무의 생장 발육에 적합하다. 다음으로는 礫壤土를 들었는데 이는 점성이 적고 미세한 모래가 많이 포함된 砂質 토양이고 가장 낮은 것은 黃土로, 지질의 점성이 강해 공기가 통하기 어려운 땅이다(陸羽, 김진무 김대영 옮김, 『육우 다경』, 일빛, 2017, p. 170.

한편 일반적인 차의 명칭을 구분해 보면, ①잎의 형태에 따라: 작설차, 미차眉茶, 竹葉青 등 ②산지명과 관련하여: 西湖龍井茶, 鶴林仙茗, 廬山雲霧 등 ③채집 시기 및 계절에 따라: 청명절 전에 채집한 차인 明前茶, 우수 전에 채집한 雨前茶, 4~5월에 채집한 春茶, 6~7월의 夏茶, 8~10월의 秋茶, 당년에 채집한 차를 新茶, 당년 채집이 아닌 차를 陳茶라고 한다. ④차 나무의 품종에 따라: 鐵觀音, 肉桂 등 ⑤가공 방법에 따라: 철솥에 볶아 만든 炒青, 불을 때 건조시켜 만든 烘青, 햇빛에 건조시킨 曬青, 증기로 처리한 蒸青, 꽃을 넣어 만든 花茶, 차잎을 증기 압력으로 눌러 만든 緊壓茶 등이 있다(徐銀美, p. 60)

찾잎 끄트머리로 만들며 색은 노랗다.

나무와 잎이 작고 부드러우며

즙은 주황색이고 냄새가 열다

맛은 달고 각종 병을 다 치료한다.

팔 공덕을 가진 모든 이들이 칭송한다.

하스띠구^{has ti gu} 차는

색이 노랑고 부드러운 차다

차나무와 찾잎이 부드럽고 연하다.

빈랑 나무(檳榔, zhu mkhan)처럼 색이 초록색이며 달다. [113a]

맛과 냄새가 달고 물이 적으면 좋다.¹⁰⁰¹

나이 든 사람이나 고질병 있는 이들에게 약이 된다

구나다루^{rgyu na dha lu}는 열을 다스리는^{tsha 'dul} 차로

차나무와 찾잎이 하나로 섞여 있다.

향에는 광채가 없지만

끓이면 향미와 효력이 나타난다

즙은 紅花¹⁰⁰² 같고 야크 버터 같은 색이다.

몸의 4대 원소¹⁰⁰³가 조화롭게 되고 몸에 빛이 난다.

¹⁰⁰¹ chu non chung. non chung ba: 1) weak oppression/ burden, control suppression;
2) w/o brilliance/ shining, faded, lusterless. 찾물이 선명하지 않다

¹⁰⁰² gur gum. 국화와 약용식물.

<346> 바라미따bha la mi ta는 오한을 다스리는 차로

저으면 거품이 나고 연한 녹색이 된다.

여러 낮에 뜨는 무지개 색이 나타난다.

차나무와 찻잎의 모양이 선명하며

쥬은 연노랑 버터 밀크 같고

맛과 냄새는 쓰고 고약하다.

건강한 사람이 마시면 기력이 생긴다

후루후까hu lu hu ka차는

잘 성숙하면 색이 먹 같고 매끄럽다

차나무와 찻잎이 유연하고 부드럽다.

황금 유지油脂 같고 맛은 여섯 가지가 나며

냄새가 향기롭고 물이 많으면 좋다.¹⁰⁰⁴

풍병과 독을 낮게 한다.

즈나나즈나뚜dz+nya na dz+nya tu 차는

다 자라지 않았을 때 빛나는 붉은 색이 나며

차나무가 굵고 찻잎 수가 적다.

쥬은 짙은 녹색으로 뿌라즈나(dri ba)의 색이다.

¹⁰⁰³ 'byung bzhi: 땅, 물, 불, 바람.

¹⁰⁰⁴ chu non che.

맛과 냄새는 거칠다.

위장병과 풍병을 치료한다.¹⁰⁰⁵

처음 찻잔에 부었을 때

당나귀, 낙타, 원숭이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시신이나 [113b] 해골의 영상이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면 흉조이며 <347>

누구에게 나타났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팔 길상이나 장수 현인의 모습

군주의 칠보가

그와 같이 찻잔 안에 머물면

¹⁰⁰⁵ 여기까지는 잎의 색과 두께, 차의 맛과 냄새에 따른 분류다. 唐의 陸羽는 양지바른 산 기슭의 나무 그늘 아래서 생장한 차나무의 자색 잎(紫者)을 최고의 품질로 꼽고, 녹색 잎(綠者)이 그 다음이라고 했다(“紫者上, 綠者次”). 茶芽가 자색을 띠기 위하여는 芽葉이 강한 자외선을 받아야 하며 온도가 높아야 하고, 호흡 작용이 원활하여 아엽 내에서 화청소 즉 안토시아닌의 형성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당시에는 쓴맛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쓴맛이 더 나는 자색을 고품질로 본 것이며 오늘 날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한다. 또한 차잎의 여린 정도(嫩度)는 죽순과 같은 상태의 싹 즉 芽葉이 길며 芽頭가 통통하고 충실한 것(荀者)을 상품으로 보고, 芽者 즉 가늘면서도 짧고 약한 아엽은 그보다 못하다고 보았다(“荀者上, 芽者次”). 또한 차잎 형태의 감별은, 葉卷이 상품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차나무의 新梢에 돌아난, 뒤로 말린 형태의 어리고 부드러운 아엽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차의 싹은 부드러우며 그 여린 성질이 오래 지속되므로 상등품의 찻잎을 만드는 주재료가 된다. 葉舒는 차나무의 新梢에 돌아난 곱게 퍼진 형태의 아엽을 말하는데, 이런 종류의 차의 싹은 여린 정도가 떨어지고 여린 성질이 오래 가지 않으며 쉽게 딱딱해지니 찻잎도 뻣뻣하고 차 품질 또한 좋지 않다고 한다(“葉卷上, 葉舒次.” 陸羽, 김진무·김대영, pp.176-178).

누구에게 나타났든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차를 사는 이나 파는 이

차를 마시는 이들이 많지만¹⁰⁰⁶

차를 즐기는 법은 화상(和尚, ha shang)이 잘 안다

그에게 가미gha mi 왕이¹⁰⁰⁷ 물었고

가미왕에게 미뜨라 궂뽀mi tra mgon po가 물었으며

¹⁰⁰⁶ 시기 별, 계층 별로 티베트인들이 차를 음용한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9세기 초의 저작인 『唐國史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常魯公이 西蕃에 사신으로 갔을 때 막사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데 꺄뽀(贊普)가 묻기를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常魯公이 '변잡함을 씻어 주고 갈증을 막아 주는, 茶라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꺄뽀가 '나도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꺼내오게 하여 가리키며 '이것은 壽州 것이고 이것은 舒州 것이다. 이것은 顧渚(절강 오흥) 것이고, 이것은 蘄門 것이다. 이것은 昌明(사천 면주) 것, 이것은 瀘湖(강서 악주) 것이다.'라고 하였다(常魯公使西蕃, 烹茶帳中, 贊普問曰“此爲何物?” 魯公曰, “滌煩療渴 所謂茶也.” 贊普曰, “我此亦有.” 遂命出之 以之曰, “此壽州者, 此舒州者, 此顧渚者, 此蘄門者, 此昌明者, 此瀘湖者”, 『唐國史補』, p. 259; 徐銀美, 『北宋 茶 專賣 研究』, 國學資料院, 1999, pp. 44-45). 이를 통해 티베트의 꺄뽀가 이른바 회남차(수주, 서주) 뿐 아니라 사천차, 강남차를 두루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常魯公은 토번에 사신으로 갔다가 781년 당의 수도로 돌아온 入蕃使判官 常魯를 말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 때의 꺄뽀는 티송데꺄(r. 754-ca. 799)이라고 볼 수 있다. 唐代的 기록에 위구르인들이 말을 대량으로 몰고 와서 차를 사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으나(“往年回鶻 入朝, 大驅名馬, 市茶而歸.” 『封氏聞見記』, 趙金鎖, 「藏族茶文化: 茶馬貿易與藏族飲茶習俗」, 『西北民族大學學報』, 2008-5, p. 127에서 재인용) 이 시기에는 티베트인들이 차를 사간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오대와 송대에는 확실히 티베트인들이 漢地에서 필수 구매하는 품목으로 차가 거론되고 있다.

¹⁰⁰⁷ 가미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mi”는 사람이라는 뜻이나 “gha”는 티베트어에 없는 글자다. 다만 宋 呂陶(1028-1104)가 티베트인들의 차잎 구매를 언급하면서 티베트인들이 차를 ‘茶米’라고 했다(『淨德集』, 卷1, 徐銀美, pp. 246-247에서 재인용)는 것과 상관이 있을 지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 차례로 후손들이 물었다.

漢地의 차 품질을 살피는 법을 설명했고

이를 <감로의 바다(bdud rtsi'i rgya mtsho)>라고 이름 붙이며 마친다.¹⁰⁰⁸

인도 말로¹⁰⁰⁹ 스와따바루샤스트라swa ta ba lu sha stra, 티베트 말로 瓷器
를 탐구하는 論

일체지자이신 길상 문수보살에게 예경합니다.

순백의 결함 없고 잡티 없는 길상,

모양이 아름다우며, 보기 좋고 영양 있는 음식을 담는,

모든 이들이 찬탄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器皿.

진귀한 자기를 감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¹⁰⁰⁸ 차에 대한 빨조르 상뵈의 이 설명은 티베트 차의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나(Patrick Booz, p. 129) 각 명칭의 뜻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후대에 티베트의 차는 소금이나 버터 등을 더하는 방식이 주종이 되었다. 1716년 라싸에 이른 예수회 선교사 데시데리(Father Ippolito Desideri, 1684-1733)는 티베트의 차 음용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짜아ci'a(즉 차)를 마시는데, 하루에 몇번씩이나 마신다. 그 방식은 유럽이나 중국식이 아니다. 커다란 솥에 차와 물, 소다를 넣어 색깔을 붉은 포도주처럼 만들어 끓이고 나서 우유를 넣고, 노란 버터와 약간의 소금을 더한다”고 했다(Patrick Booz, p. 136). 버터는 지방과 칼로리를 더하는 데에 좋은 재료가 된다.

¹⁰⁰⁹ “rgya gar skad du”. 희미해졌지만 원문의 글자 색이 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료는 상, 중, 하 세 가지인데

上品은 보석이고

중품은 돌조각으로 만든 것이고

하품은 흰 돌가루다.

색은 황색이 가장 좋고

흰색이 중간이며 하품은 청색이다.

모양과 문양으로 분석하면

여덟 종류인데 이를 세분하여 열 여섯 종류로 [114a] 설명하니

바라뜨라bha ra tra와 삭띠shag ti,

바링따까bha ring ta ka, 무루띠mu lu ti

까리까따ka li ka ta와 까랑까ka lang ka

마띠꾸뜨라ma ti ku tra와 구나빠ghu na pa,

싱구가sing ghu dga와 라까라ra ka ra

부끼따bhu ki ta와 비딩끼bhi lding ki

바라하시ba ra ha si와 뿌라땀끼pra tam ki이다.¹⁰¹⁰

바라뜨라는 순황색이다.

수련ku mu ta¹⁰¹¹ 꽃과 같고

¹⁰¹⁰ 위에서 열 여섯 종류라고 했으나 여기까지 모두 열 네 종류다.

¹⁰¹¹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로 사뫼sa mos.

다수의 大鵬과 앞이 풍성한 나뭇잎 [문양]이 있다.

어디에 있더라도 원만 길상이 있을 것이다.

삭띠까shag ti ka는¹⁰¹² 담황색이며

얼룩이 많고 대붕¹⁰¹³은 적다

물 문양이 많고 뽕뚜까pan+tu ka의

꽃과 <349> 닮았으며 [이를 소유하면] 재부가 늘어난다.

바리따까bha ri ta ka는¹⁰¹⁴ 희고 얇다

대붕의 날개¹⁰¹⁵와 물 문양이 있고

짬빠카tsam pa kha 꽃과 닮았으며

[이를 소유하면] 지혜와 禪定이 대단히 늘어난다.

무무띠mu mu ti는¹⁰¹⁶ 적갈색이고

안팎 모두에 문양이 없다

후두까hu du ka 꽃과 닮았고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음식이 많아진다.

빈두까bhin du ka는¹⁰¹⁷ 희고 푸르며

¹⁰¹² 위에서는 삭띠라고 했다.

¹⁰¹³ “khyung <shog> [gshog]”

¹⁰¹⁴ 바링따까bha ring ta ka라고 했다.

¹⁰¹⁵ khyung <shog> [gshog].

¹⁰¹⁶ 무루띠mu lu ti.

물 문양과 대붕 날개 그림들이 있다.

靑蓮(ut+pal la) 꽃과 닮았다.

자비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된다.

빠리띠pa li ti는 푸르고 얇다.

琥珀¹⁰¹⁸ 류의 문양이 있다.

까라띠ka ra ti 꽃과 닮았다.

그것을 가지면 지혜와 학식을 갖게 된다.

까리까따ka li ka ta는 [구름] 색깔과

구름의 그림으로 다양하게 장식되었다.

마라사ma la sa 꽃과 닮았다.

[이를 지니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114b]

아랑까라a lang ka ra는 구름 색이고

나뭇잎과 나무 가지 문양이 매우 뾰뾰하며

짜나까tsa na ka 꽃과 닮았다. <350>

[이를 지니면] 명성을 얻고 칭송받게 된다.

마띠꾸따ma ti ku ta는 희고 붉다

앞이 넓은 나무 문양이 있고

¹⁰¹⁷ 위에 없는 이름이다.

¹⁰¹⁸ spos [shel]

까우빠띠ka'u pa ti 꽃과 닮았다.

자손이 번성하지 않게 되고 재산도 감소한다.

구나사ghu na sa는 다섯 색깔이며

대붕 날개가 없고 물고기 그림이 있다.

광택이 없고 사따sa ta 꽃 같다.

그것을 가지면 병환과 먼지가 많아진다.

싱구다라sing ghu dha ra는 푸르고 깨끗하다.

날개를 펼치는 까마귀와 학¹⁰¹⁹ 그림이 있다.

짜르짜까tsar rsi ka 꽃 같으며

[이를 지니면] 늘상 구설과 논쟁이 있게 된다.

까라까ka ra ka는 푸르고 희다

짐승의 형상이 가득 장식되어 있다.

후루까hu lu ka 꽃 같다.

[이 자기의] 주인은 머물지 못하고 거주지에서 옮기게 된다

부끼따bhu ki ta는 청회색이고

물 그림과 배, 뱃사공이 있다.

삽띠까리sab ti ka li 꽃 같다

일에 성취가 없게 되고 망상이 많아진다.

¹⁰¹⁹ bya mgrin pa <rings> [ring].

비딩끼bhi lding ki는 하늘의 색이며

온통 용과 구름으로 장식되었다

청련화(ut+pal la)와 닮았고 <351>

군주들이 器皿으로 가졌다.

바라하시ba ra ha si는 희고 맑다.

많은 새와 나뭇잎으로 장식되었다.

잠부 띠샤'dzam bu kri sha 꽃과 닮았다

선지식들의 器皿으로 쓰인다.

따땀끼tra tam ki는 푸르고 빛이 난다.

물 [115a] 문양과 바다 괴물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만주샤까man+ju sha ka 꽃 같다.

귀인들이 器皿으로 쓴다.

용 문양의 공덕은

독과 차 때, 눈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맑게 하고 병을 물리치며 우매함을 부순다.

음식이 풍미가 있게 하고 효능을 갖게 한다.

용 문양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총명한 이들이 이 자기를 가지고 있으라.

瓷器 외형(dar rtse)의 식별 방법에

[외형] 종류는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삽째shab rtse, 랍째lab rtse, 상째shang rtse

텍째theg rtse, 돕째dhob rtse, 동째dhong rtse이다.¹⁰²⁰

상째는 입구가 넓고 다리가 짧으며¹⁰²¹

색은 연청색이고 두께가 얇다.

구름이나 나뭇잎, 물 문양, 벌레 등이 있어

용과 <352> 마찬가지로의 공덕이 일어난다.

랍째는 완의 아랫쪽이 튀어나와 있어 모양이 보기 좋지 않다

두께가 얇고 그릇 폭이 넓으며 깨끗하다

색이 유리 같다

새와 짐승 그림으로 장식했다

상째는 모양이 보기 좋고 색이 푸르다.

소리가 크고¹⁰²² 광택이 나며 다리가 길다.

빠뜨라pa tra 나뭇잎 문양이 가득 장식되어 있다.

¹⁰²⁰ 이 이름들은 앞에서 뒤송 망뽀제가 당의 장인을 시켜 다완을 만들어 붙인 이름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¹⁰²¹ 차완의 높이가 낮다는 뜻으로 보인다.

¹⁰²² “skad ‘tsher”라고 써 있어서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그 아래 문장에서 “skad che(소리가 큰)”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여 바꾸었다. 다만 설명이 전반적으로 “모양”에 대한 내용 이어서 확실하지 않다. 중역본은 완의 “배가 크다”로 해석했다.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다.

텍제는 푸른 색이고 다리가 굵다.

몸체가 크고 바닥이 깊으며 넉넉하고 장대하다.

입구가 좁고 소리가 커서¹⁰²³ 모양이 부조화스럽다.

나뭇잎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깨끗하다

덥제는 재료가 좋지 않고 색도 나쁘다.

소리skad와 어울리지 않고 장식이 없다

美醜(legs nyes)와 功過(skyon yon)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사체sa tshe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115b]

도체rdo tshe는 아름답고 용 같으며

색과 모양이 아름답고 소리¹⁰²⁴가 좋으나

물 문양과 大鵬은 없고

안쪽에 개의 흔적 같은 것이 있어서 좋지 않다.

또한 특징을 요약하면

재료의 좋고 나쁨은 완의 배 부분으로 알 수 있다. <353>

[도안은] 용과 구름이 연결되었으면 가장 좋다

¹⁰²³ skad che.

¹⁰²⁴ skad.

차와 나무가 이어져 있으면 중간이다
물고기와 물의 괴물이 있으면 하등이라고 한다.
용과 코끼리, 사자, 호랑이,
법륜과 淨瓶, 연꽃과
樹林의 도안들
이것들이 있으면 최상의 기명이다.
대붕과 거위, 야수,
구름과 나뭇잎, 물 문양과
호수와 물의 괴물, 꽃 등은
[이를 지닌 사람의] 기쁨은 짧고
결국 사라진다
물고기와 까마귀, 시신의 형상,
야수가 무기로 찌르는 것과
맹수가 포효하는sgrogs 도안들은
누가 지니고 있어도 고통이 일어난다.

색이 희고 부드럽고 모양이 좋으며 얇고
깨끗하며 광택이 있고 도안이 좋으며
바닥이 넓고 구멍이 없는,
이 열 가지 특징을 알고 식별하면 된다.

카쉬미르kha che에서 태어난 편첸 겔뽕kun mkhyen rgyal po의

<珍寶 자기 구별법>¹⁰²⁵과 연결하여 <354>

심오하고 완전한 法界에서 주인이 되어

중생이 지혜 공덕을 속히 얻기를!

자기를 감별하는 방법을 담은 이 편은 <고귀 기명의 감로>라고 하며

카쉬미르의 일체지 선지식이 지었다.

원만 길상이 [116a] 증장되기를!

길상!

몸은¹⁰²⁶ 빛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지고

말씀은¹⁰²⁷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방에 퍼지며

마음은¹⁰²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전파하는¹⁰²⁹

한 분이신¹⁰³⁰ 거짓 없는 문수보살¹⁰³¹에게 절합니다.

¹⁰²⁵ rin chen dkar yol brtag thabs.

¹⁰²⁶ “gang sku” 붉은 색 잉크로 되어 있다.

¹⁰²⁷ “gang gsung” 붉은 색.

¹⁰²⁸ “gang thug”. 붉은 색.

¹⁰²⁹ 몸과 마음, 말씀 즉 身, 語, 意 세 가지를 말한다.

이전에 이 티베트에서는 좋고 나쁜 자기를 사용하면서
 분류를 문서로 적어 놓은 것은 없으니
 크기, 종류, 제조 방식 등을
 후대의 학자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였으며
 논쟁의 여지없는 가르침과 이치를 가진 賢哲 <355>
 학자의 왕이신 로되 빨상blo gros dpal bzang께서¹⁰³²
 분명히 분류했으므로 그것을 문서로 적겠다.
 용 도안이 있는 진귀한 자기는
 처음에 인도 땅에서 일어났다.
 한 大 상인(ded dpon chen po)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보물을 얻기 위하여 큰 뗏목을 띄웠을 때
 총 열 여섯 개 자기 중 두 개가

¹⁰³⁰ “gang zhig”. 붉은 색.

¹⁰³¹ ’jam dbyang. 붉은 색.

¹⁰³² 확실하지는 않으나 조낭파의 로짜와 중에, 땡 로짜와dpang Lo tsā ba(원래 이름은 로되 땡빠blo gros brtan pa, 1276-1342)라는 인물의 제자이며 문법 등 다양한 산스크리트어 문헌을 번역한 로되빨 상빠blo gros dpal bzang po라는 譯經師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Cyrus Stearns, *The Buddha From Dolpo: A Study Of The Life And Thought Of The Tibetan Master Dolpopa Sherab Gyaltsen (Tsadra)*, Snow Lion; Revised, Expanded edition, 2010, p. 187 참조.

가우카ga'u kha가 연결되어 있는 듯, 바다 속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 것을 보고서
 大鵬(mkha')으로 하여금 부리로 그것을 집어 물 위로 가져오게 했다.
 부리로 문지른 힘 때문에 대붕 흔적이 생겼다.¹⁰³³
 용의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두 자기가] 열리면서(kha bya ba)
 그 안에서 바라는 대로 보물들이 나왔다
 밖에는 네 야수의 흔적도 생겼다.
 거기에 바라는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 상황은 이와 같다. [116b]
 대붕 문양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진귀한 완의 특징이다.
 낙타의 둥근 발굽 모양이 있으면
 모두에게 공경받게 되고 <356> 광영이 있게 된다.
 코끼리의 왕이¹⁰³⁴ 짐을 싣고 가는 흔적을 있는 완을 가지면
 땅의 주재자, 인간의 주인이 된다.
 게르링gyer gling 말의 발굽 흔적을 가지면
 네 발 달린 짐승의 주재자가 되어 가축이 증가하게 된다.
 규삼gyu sram 물고기 지느러미의 흔적이 있으면
 음료와 더불어 물의 주재자가 된다.

¹⁰³³ mchu la brdar ba'i shugs kyi khyung por grags.

¹⁰³⁴ gnyis 'thung dbang po.

용사가 대봉을 검으로 찌르는 흔적을 가지면
 외적에 완벽히 승리하게 된다
 현인이 땅에 거울을 두는 흔적이 있으면
 온갖 음식을 얻게 되고 만물이 분명하게 된다.
 이러한 표식을 모두 가졌으며 놀랍고
 진기한 이 두 개의 자기는
 법왕 아쇼카 때에
 사자 젓을 담아두는 그릇¹⁰³⁵으로 썼는데
 지금은 카필라(kapila, ser skya) 성의
 사원의 주요 供物이다.
 그 후에 구운¹⁰³⁶ 두 자기는 <357>
 도넨 디구'bro rnyan ldi gu 시기에 티베트에 퍼졌다.
 황제의 주요 완을 보관하는 곳에 감추었는데
 그 후 룡남 툐꺄rlung nam 'phrul rgyal¹⁰³⁷ 시기에
 숙련된 匠人이 속낙 탕뽕체sog nag thang po che에서
 칭부'ching bu¹⁰³⁸를 재료로 하고, 들은 것을 본보기로 하여

¹⁰³⁵ gsol zhal. 컵, 사발 등의 높임말.

¹⁰³⁶ zhugs pa.

¹⁰³⁷ 뒤송 망뽕제.

대중소 세 종류로 서른 두 가지를 [117a] 만들어냈다.

상과 중등의 자기는 백색이고 하등은 대부분 청색sngo이었다.

그것은 티베트 위짱 지역에서 珍寶로부터

얻은 용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에는 해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으니

인연이 있는 자(skalldan)들은 이것을 가지라.

이것과 비교할만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르쎄dar rtse,

딜라'dol la, 장까byang skya 세 가지가 알려져 있다.

이것들은 티베트에서 생산된 자기이다.

다르쎄에는 분명한 도안이 없는데

라강마와¹⁰³⁹ 푸르게 둘러싼 원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水晶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짜오체rtsa'o che와 등떼dung skred 두 가지다. <358>

좋고 나쁜 것의 구분은 도안으로 하는데,

[좋은 것은] 광채가 크게 나고 도안은 두 종류가 있다.

연꽃 안에 팔 길상과

漢地의 여러 무늬 위에 법륜이 있는 것

¹⁰³⁸ 'ching phor 陶碗, 石碗. 중역본은 珍寶.

¹⁰³⁹ bla rgang ma. 고슴도치?

또한 소룡 두 마리가 입을 마주 대고 있는 것과

대룡 한 마리가 가득 그려져 있는 것이 있다.

희고 광택이 나며 문양이 많은 것

그것이 좋은 자기의 외형상의 특징이다.

당충마dangs chung ma¹⁰⁴⁰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색은 푸른 색이고 대개 빈 구멍sbu gu이 있다.

만든 방식이 다르지 않으며 모양도 같은데

이름이 다른 것은 도안에 의한 것이다.

닥외마grags 'os ma라고 하는 자기는

안에는 연꽃이 겹쳐 있고 입구는 벽돌 무늬로 둘러싸여 있다.

제사 닥빠 외세grags pa 'od zer¹⁰⁴¹ 시기에 생겼다.

겔상마rgyal bzang ma 라고 하는 자기는 [117b]

하얀 손잡이처럼 길고

¹⁰⁴⁰ 광택이 적은 것.

¹⁰⁴¹ 닥빠 외세(1245-ca.1303; r. 1291-ca.1303)는 1282년 팍빠의 조카이며 착나 도르제의 유복자인 다르마팔라락시타가 大都로 갈 때 그를 수행했고, 그 다음 제사인 예세 린첸이 1291년 자리를 비우자 帝師에 임명되었다. 린씨가 아니라 캄사르빠 가문 출신이나 당시 린씨 가문에 후손이 없어 제사에 임명되었다. 유일한 린씨 후손인 다니 첸뽕 상뽕 뻔(bdag nyid chen po bzang po dpal, 1261-1323)은 쿠빌라이에 의해 만주로 유배를 가 있었는데, 사까파 뻔첸을 비롯한 티베트인들이 조정에 있는 닥빠 외세에게 청원하여 다니 첸뽕 상뽕 뻔을 복권시켜 줄 것을 청했고 그가 성종 테무르에게 청하여 다니 첸뽕가 복권되면서 린씨 후손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얇고 넓으며 광택이 나므로 다른 이들도 모방한다. <359>

청룡과 다색 용으로 장식한 것도 있다.

뵘첸 겔와 상뵘rgyal ba bzang po¹⁰⁴² 院使dben shri가

宣政院son bying dben 관청을 관할하고 있을 때 만들었다

왕축 찌뵘dbang phyug brtson ‘grus¹⁰⁴³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rdzogs pa¹⁰⁴⁴

홀레구가 외도를 물리칠 때¹⁰⁴⁵

특별한 진보 자기 하나가 있었는데

바다드bha dad¹⁰⁴⁶ 왕의 목소리로 명령하고 나서

¹⁰⁴² 18대, 21대 뵘첸. 제사 편가 겔첸(팍빠 질손)을 따라 입조했다. 중임시 팍모두파의 장쑤 겔첸과 충돌했는데 후에 자신을 이은 왕축 찌뵘와 갈등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장쑤와 연합하여 왕축 찌뵘에 맞섰다. 겔와 상뵘가 뵘첸이던 시기 사까파 권세가 하락하고 권력이 팍모두파로 넘어갔다.

¹⁰⁴³ 22대 뵘첸. 겔와 상뵘를 이어 재임했다. 이후 겔와 상뵘와 충돌하고 팍두 장쑤 겔첸과 여러 차례 전쟁하여 결국 패했다. 팍두에 포로로 잡혔는데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¹⁰⁴⁴ 중역본은 “제조가 중단되었다”고 보았다.

¹⁰⁴⁵ 원문은 “홀레구의 외도를”이라고 되어 있으나 “홀레구가 외도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사까파의 기록에서 홀레구는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즉 몽케 시기 홀레구는 팍모두파와 만호를 분봉받았고 그들에게 많은 보시를 했다. 자신에게 분봉된 민호를 팍모두사원인 댜사 툼에 바치기도 했다. 사까파 사료들은 그가 사까의 반대파인 팍모두와 디궁을 후원하는 홀레구에 대해, 그가 쿠빌라이를 시기하고 그와 적대했다고 적고 있으며, 중앙 티베트에 빈번히 침입하고 1290년에 일어난 디궁의 난에서 디궁파를 후원하여 대칸-사까 정권에 대항한 이른바 서부 몽골(stod hor)이 홀레구 세력이라고 적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영, 「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홀레구 울루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논문, 2010 참조. 이 문장이 만약 “홀레구의 外道”라고 쓴 것이라면 사까파에 적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하나의 가능성은 이들이 사까파를 후원한 카안 울루스와 오랫동안 적대한 차가타이 울루스나 우구데이 울루스 세력을 홀레구와 혼동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가 손가락들로 문지르기만 하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그 안에서 나왔다.

왕이 시링zi ling¹⁰⁴⁷ 성에서 사망하자

그 자기로부터 음식이 나오지 않고

그 곳에서 부서졌다고 들었는데

줄줄이 난 구멍은

온갖 방법으로도 복구하지 못했으며

사까파 샤르와shar ba¹⁰⁴⁸의 수중에 있다.

까빠드ka pad라고 하는 자기는

까빨라ka pa la와 연꽃(pad+ma) 문양이 있다

그러므로 까빠드라고 하는 것이다.

깔빠kal pa는 강황(yung nga)과 같은 색이고 <360>

라빠lha pa의 수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차와 함께 출렁이는'khyoms pa 자기는

얄룽 조오yar lung jo bo의 [118a] 수중에 있다.

¹⁰⁴⁶ 지칭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나 홀레구와 연결되므로 바그다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므로 “바다드의 왕”은 칼리프를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압바스 칼리프조의 마지막 칼리
프 알 무스타심(Al-Musta'sim)의 아들이 몽골군에 끌려 몽케의 조정으로 오다가 도중에 살해되었는데 정확
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¹⁰⁴⁷ 西寧.

¹⁰⁴⁸ 사까파의 4개 라당 중 하나.

사째sa rtse라고 알려진 자기는

길상 사까에서 만든 것이고¹⁰⁴⁹

가운데에 “사sa” 글자가 반드시 있다.

후에 [명] 조정으로부터 나온 자기 두 가지는

까르skar라고 하는데 如來(de bzhin gshegs pa) 칭호를 받은 분¹⁰⁵⁰과

중생고주 대승법왕(‘gro kun skyabs gnas theg chen chos rgyal)¹⁰⁵¹에게

化身인 대 大明 황제(sprul pa'i rgyal po rta ming chen po)가¹⁰⁵² 바친 것이다.

¹⁰⁴⁹ “길상 사까의 ga dar”. ga da는 방망이, ga dar는 청소를 뜻하는데 이 구절의 ga dar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중역본은 사까의 禮品을 위해 만든것이라고 번역했다.

¹⁰⁵⁰ 5대 까르마파(1384-1415). 1403년 명 영락제의 초청을 받아 당시 수도인 南京에 도착해 환대를 받았다. 明 사료에 그의 이름은 까르마의 음사인 “哈立麻”라고 적혀 있다.

¹⁰⁵¹ 사까파의 편가 따시 겔첸 뵐 상뽀(1349-1425). 역시 明의 초청을 받아 조정으로 갔고 大乘法王 칭호를 받았다. 앞에서 본대로 남카 렉뵐 겔첸 뵐 상뽀를 보교왕에 봉하도록 明에 요청한 인물이다. 라캉lha khang 라당 출신이며 명 사료에 昆澤思巴라고 적혀 있다. 『明史』 서역전은 “영락 연간(1403~1424)에 성조(成祖)가 이미 합립마(哈立麻)라고 봉했는데, 다시 곤택사파가 도술이 있다는 것을 듣고 중관에게 명하여 새서와 은전 및 채폐를 가지고 가서 그를 초빙했다. 그 승려는 앞서 사람을 보내 사리(舍利)·불상을 공물로 바치고 마침내 사신과 함께 입조하였다. [영락] 11년(1413) 2월에 경사에 도착하자, 황제는 [그를] 불러 접견하고 장경(藏經)·은초·채폐·안마·다과(茶果) 등 여러 물품을 하사하였으며, 만행원융묘법최승진여혜지홍자광제호국연교정각대승법왕서천상선금강보응대광명불(萬行圓融妙法最勝眞如慧智弘慈廣濟護國演教正覺大乘法王西天上善金剛普應大光明佛)에 봉하여 천하의 불교를 관령(管領)하도록 하고, 인고·가사·번당·안마·산기(傘器) 등 여러 물품을 하사하여 대보법왕(大寶法王)에 버금가게 예우하였다. 이듬해(1414)에 하직인사를 하자 이전보다 더 많은 하사품을 내리고, 중관에게 명하여 호송토록 하였다.”라고 적었다(동북아역사재단,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5: 明史』 西域傳-烏思藏, p. 293)

¹⁰⁵² 영락제.

대소 두 가지가 있고 큰 것이 대승 법왕의 것이다.

청화에 님모 델렉nyin mo bde legs¹⁰⁵³ 글귀도 있다.

여섯 종류의 도안과 팔길상 등

매우 진기한 도안이 있어서 대단하다

이 둘은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널리 쓰인다.

용 문양을 비롯한 구별법 설명을 마친다.

이 선업으로 인해 모든 중생이 궁핍에서 벗어나기를!

¹⁰⁵³ “白晝 吉祥”의 뜻. 주로 의례용 긴 천인 카닥에 쓰이는 글귀.

IV. 설명을 덧붙인 위대한 몽골 군주들의 역사

해설

『한장사집』에서 역사적 의미가 가장 큰 기록은 단연 몽골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선조들의 계보
2. 몽골 제국 대칸들의 계보
3. 다스만sda sman(答失蠻, ?-1304)의 티베트 역참 설치
4. 바얀ba yan(伯顏, 1236-1295) 승상 이야기
5. 상가sang gha(桑哥, ?-1291) 승상 이야기
6. 위짱dbus gtsang 아리mnga' ris의 호계 조사와 역참 관리

여기서 몽골은 '호르(hor)'로 표기되며 이는 다른 티베트 저작들도 마찬가지다. '호르'라는 명사는 몽골 제국 시기 이전에는 주로 위구르에 대해 쓰이는 호칭이었다. 일본학자 모리야스森安孝夫는 이 말이 처음에는 돌궐을 가리켰고 이후 위구르가 성장하자 위구르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으며 13세기 몽골이 흥성하자 다시 몽골에 대한 호칭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 집단에 대한 專稱이 아니라 티베트 북부에서 일어난 강력한 유목집단에 대한 호칭이었으며 시대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¹⁰⁵⁴

'호르'가 몽골을 지칭한 가장 이른 티베트 기록은 몽골의 중앙 티베트 침략 후 조카 팍빠('gro mgon chos rgyal 'phags pa, Ch. 八思巴, 1235-1280) 형제를 데리고 티베트를 대표하여 쿠텐의 조정으로 간 사까 뽀디따(sa skya pan di ta kun dga' rgyal mtshan, 1182-1251)가 티베트에 보낸 서신에 나타난다. 즉 사까 뽀디따는 1247년 장외byang ngos¹⁰⁵⁵로 가서 쿠텐을 만난 뒤, 티베트 승려와 세속 지배자들에게 몽골에 대한 완전한 복속과 貢物 제공을 독촉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는 몽골을 '호르'라고 지칭했다.¹⁰⁵⁶ 한편 몽골 '사람'에 대해서는 티베트 저작들이 '속뽀sog po'¹⁰⁵⁷ 라고 쓰는데 이 명칭이 전에 소그드인에 대한 호칭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의 사까 뽀디따의 편지에서는 몽골인에 대한 지칭

¹⁰⁵⁴ 그는 'hor'의 기원 자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전에 로리히 Rorich 등의 학자들은 호르가 한자어 '胡'에서 기원한다고 보기도 했는데 모리야스는 이 주장에 대해, 1820년에 쓰인 한 티베트 지리서가 “호르라는 것은 중국 말로 ‘후hwu’u’라고 하는 것이 와전된 것이다”라고 적은 데서 비롯된 이론이며 이 책은 후대에 쓰인 것으로 그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森安孝夫, 「チベット語史料中に現われる北方民族-DRU-GUとHOR」,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no. 14, 1977, pp. 1-48). 중국 학계에서는 'hor'가 위구르에 대한 專稱이었다가 13세기 이후 몽골에 대한 호칭으로 바뀌었고 그 후에는 다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藏漢大辭典』은 호르에 대해 “시기에 따라 지칭하는 민족이 달랐다. 당송 시대에는 위구르, 원대는 몽골인을 가리켰고 元明간에는 토욕혼인을 지칭했다. 현재 티베트 북부의 유목민과 청해의 토족을 가리킨다 不同的時期所指的民族不同, 唐, 宋時期指回鶻; 元代指蒙古人; 元明之間指吐谷渾人; 現在藏北牧民和青海土族”고 적고 있다. 토번 제국시기와 그 직후 티베트 저작들의 위구르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는 Federica Venturi, “An Old Tibetan Document on the Uighurs: A New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Asian History*, 2008, vol. 42-1, pp. 1-35 참조.

¹⁰⁵⁵ 현 감숙성 武威.

¹⁰⁵⁶ 서간문은 위구르를 '유구르 yu gur'라고 적고 있다. (『薩迦世系史』, pp. 88-91; Sa skya grung rabs chen mo, pp. 135-140). 토번제국시기와 그 직후 티베트 저작의 위구르 기록에 대하여는 앞의 글 Federica Venturi, 2008 참조.

¹⁰⁵⁷ 드물게 sogs po. po는 사람을 나타내는 조사다.

이 아닌 것이 분명한 “속뽕”가 등장한다. 즉 사까 빠디따는 몽골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다 끝내 멸망한 집단의 예로 西夏, 金과 더불어 “속뽕”를 들고 있다. 즉 위구르가 일찍 몽골에 귀부하여 전보다 더 창성하고 있다고 한 후, “漢地(rgya), 서하(mi nyag), 속뽕sog po 등은 멸망하기 전에 몽골 사자를 보내 무엇을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후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귀순해야 했다.”¹⁰⁵⁸ 적은 것이다. 漢地는 북중국 즉 金을 가리킬 것이며 여기서 金, 서하와 마찬가지로 몽골에 맞서다가 패망한 나라로 든 속뽕은 호레즘 제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전의 소그드인 지역을 장악한 호레즘인을 티베트인들이 여전히 속뽕라고 불렀고, 후에 그 호레즘인들을 정복한 몽골인에 대하여도 똑같은 호칭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¹⁰⁵⁹

저자가 이 장의 제목을 <설명을 덧붙인 위대한 몽골 군주들의 역사>¹⁰⁶⁰라고 한 것은 이 장이 몽골 왕통을 간략히 적은 외에 티베트의 인구 조사 결과와 역참 관리 상황, 바얀, 상가 등 주요 인물들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카안 울루스 말기 주원장의 흥기 과정과 토곤 테무르가 대도성에서 몽골리아로 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장은 부르테 치노아부터 토곤 테무르까지의 계보와 대도에서 몽골의 축출 상황, 티베트 역참 설치, 바얀ba yan과 상가sang gha 승상 이야기, 위짱dbus gtsang(Ch. 烏思藏) 아리mnga' ris(Ch. 納里速)의 호계 조사와 역참 관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¹⁰⁵⁸ “rgya/ mi nyag/ sog po la sogs pa ma brlag gong du hor 'dra btang yong ci zer ma nyan pas brlag pa'i rting la 'gro sa ma rnyed nas ngo blta dgos byung/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Sa skya'i gdung rabs ngo mtshar bang mdzod*, Mi rigs dpe skrun khang, 1986, p. 137.

¹⁰⁵⁹ 몽골인의 집단이나 국가를 호르hor라고 하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왜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호르빠hor pa 등을 쓰지 않고 속sog이라는 별개의 호칭을 썼는지, 또한 속sog과 호르hor라고 하는 별개의 호칭이 예를 들어 호레즘에 가까운 티베트 서부와 위구르 땅에 가까운 티베트 북부에서 각각 다르게 쓰이기 시작했는지 등의 여부는 알 수 없다.

¹⁰⁶⁰ 즉 “chen po hor gyi rgyal rabs cha lag dang bcas pa”

이 중 칭기스 칸 선조의 계보와 칭기스 칸부터 토곤 테무르까지의 계보는 이전의 저작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티베트 저작들에 실린 부르테 치노아로부터 시작되는 몽골의 계보는 대부분 “티베트 최초의 세계사”¹⁰⁶¹인 『紅史』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전거를 『예케 툽치얀^{ye ke thob chi yan}』이라고 적고 있는 것도 같다. 티베트 사서들이 몽골 왕통을 적을 때 근거로 삼은 “툽치얀”은 분명 카안 울루스에 보관되어 있던 일종의 蒙文 實錄이라 할 수 있는 『툽치얀(Ch. 脫必赤顏)』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¹⁰⁶²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다음의 본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티베트 저작에 실린 몽골 군주들의 계보가 『元史』나 『몽골 비사』와 여러 군데 다른 곳이 보이며, 페르시아어 사료인 『집사』와 좀더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몽골 비사』는 칭기스 칸 조상의 계보에서 카추의 아들로 보르지기다이 메르겐, 그 아들로 토로골진 바얀을 적었고 그의 아들로 도분 메르겐을 적었는데 티베트 사료 즉 『한장사집』을 비롯한 『紅史』, 『얄룽 조오 教法史』, 『왕통을 비추는 거울』, 『靑史』에는 모두 보르지기다이 메르겐과 토로골진 바얀이 빠져 있으며 이는 페르시아어 사료 『집사』와 같다. 그러나 일부는 『집사』와도 다른 표기가 보여서, 티베트인들이 입수한 몽골 선조들의 계보는 『비사』와도 다르고 『집사』와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⁶³

¹⁰⁶¹ Van der Kuijp, “Jambhala. An Imperial Envoy to Tibet During the Late Yu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3.4, 1993, p. 44.

¹⁰⁶² “예케 툽치얀” 즉 ‘大 툽치얀’은 티베트어 편집본의 제작 과정에서 ‘ye ke’를 잘 못 읽어 ‘pe ka (작은 책을 의미)’로 적는 바람에 번역자들이 “툽치얀 一書”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툽치얀은 『元史』에 脫必赤顏이라고 적혀 있으며 “요약. 총괄”을 뜻하는 몽골어 “tobchiyan”을 음사한 것이다. 원대의 툽치얀은 한자로 된 『實錄』과는 별도로 몽골어로 쓰인 역사 기록으로서 황실에 수장된 秘禁의 서책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카안 울루스의 툽치얀 脫必赤顏은 칭기스 칸부터 쿠빌라이까지의 문헌 실록을 위시하여 그 후의 帝王들의 사적을 기록한 史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그 외 툽치얀에 관한 연구는 金浩東, 「元代の 漢文實錄과 蒙文實錄-元史本紀의 中國中心의 一面性的 解明을 위하여」, 『東洋史學研究』, vol. 109, 2009, pp. 144-157 참고.

¹⁰⁶³ 애트우드 는 이를 분석하고 칭기스 칸 선조의 계보가 최소한 여섯 종류가 있었을 것으로

『한장사집』의 몽골 장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내용은 카안 울루스의 조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던 몇몇 인물들에 대한 전기적 기록이다. 저자는 먼저 쿠빌라이가 다스만(sda sman, ?-1304)을¹⁰⁶⁴ 파견하여 티베트에 역참을 설치하고 관련 규칙을 정했던 일에 대해 기록했다. 다스만은 쿠빌라이의 제왕 시절부터 그를 섬긴 케식이었다. 뵘조르 상뵘는 다스만이 1264년 쿠빌라이의 명령으로 파견되어 漢地와 티베트 경계부터 사까까지 대 역참'jam 총 27곳, 즉 도매mdo smad에¹⁰⁶⁵ 일곱 참, 도피mdo stod에¹⁰⁶⁶ 아홉 참, 위짱dbus gtsang에는 열 한 개의 역참을 세우는 중차대한 업무를 완수하고 간 것을 상세히 적었다. 또한 저자는 처음 쿠빌라이가 티베트로 갈 것을 명하자 다스만이 “티베트는 사람이 사납고 법도 없으며 보호할 군사도 없는 곳”인데 어떻게 가서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이에 쿠빌라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댈 테니 가라고 달랜 것을 적고 있어서 몽골 조정의 관료들이 티베트에 파견되는 것을 꺼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뒤에 나올 상가sang gha(Ch. 桑哥)가 티베트계 출신이었고 팍빠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과 달리 티베트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다스만으로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때 티베트에서 세운 공으로 다스만은 후에 宣政院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몽골 장수 바아린 출신의 바얀ba yan(Ch. 伯顏, 1236-1295)의 남송 정복 정황과 그 후 삭탈관직 등에 대한 서술은 몽골 조정에서 대칸과 중신 간의 갈등을 어떤 지역의 저작들보다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바얀은 시종일관 충성스러운 신하였으나 南宋戰 대승 이후 쿠빌라이는 끊임 없이 그를 의심했고 마침내 악인들의 말을 듣고 그를 관직에서 쫓아냈다. 이후 재기용과 의심을 반복하다가 쿠빌라이는 결국 바얀이 옳았음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은 다음 절의 상가(sam gha/sang gha, 桑哥 ?-

보았다(Christopher P. Atwood, 2012, pp. 18-19).

¹⁰⁶⁴ 케레이트 출신의 대신이다. 한문 사료의 答失蠻.

¹⁰⁶⁵ 즉 靑海를 중심으로 한 암도 지역.

¹⁰⁶⁶ 즉 사천 서부를 중심으로 한 캄 지역.

1291)¹⁰⁶⁷ 승상에 대한 기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상가와 의 관계에서도 역시 쿠빌라이는 변덕이 심하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군주로 등장한다.

뵐조르 상뵐가 이들의 전기를 실은 것은 저자 자신이 사까파 출신이고 바얀과 상가 두 사람이 팍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모두 팍빠가 몽골 조정에 천거하여 등용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즉 뵐조르 상뵐에 의하면 처음 일칸의 사신으로 대칸의 조정에 온 바얀을 쿠빌라이에게 천거한 것은 팍빠이며 이 천거는 그 전부터 쿠빌라이가 남송을 장악할 방법을 팍빠에게 물었던 결과였다. 저자는 바얀이 남송 정벌에 큰 공을 세운 뒤에도 대칸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팍빠의 천거가 틀리지 않았음을 역설하고 있다. 상가에 대하여도 역시 팍빠가 아들이라고 불렀을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상가의 일관된 청렴함과 충성심을 강조했다. 즉 상가가 당시 조정의 재정의 불안정과 심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케식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미워한 케식 장들이 케식을 규합하여 대칸에게 그를 모함했다는 것이다. 쿠빌라이는 처음에는 그 모함을 무시했으나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예전에는 용서했던 일들을 끄집어 내어 상가를 비난하고 결국 그를 사형에 처했다. 이 기록은 『元史』의 編者들이 상가를 <奸臣傳>에 입전시킨 것과 대조를 이루며 당시 몽골 조정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¹⁰⁶⁸

¹⁰⁶⁷ 이 이름은 승단, 불교 공동체를 말하는 산스크리트어 saṃgha (한자 문화권에서 僧伽 또는 僧迦)에서 왔다. 티베트어 사료에서 sam gha 또는 sang gha로 기록되며 순수한 티베트어인 쎡게seng ge (사자)와 구별된다. 상가는 한문 사료에서 桑哥 혹은 드물게 桑葛라고 기록되었으며 압도 지역의 옛 토번의 후예들이 이룬 집단인 까마룩bka' ma log 부족 출신이다.

¹⁰⁶⁸ 한편 주의할 것은 바얀과 달리 상가는 티베트에 몇 차례나 군사를 이끌고 왔었기 때문에 교파 별로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다른 교파의 기록은 상가에 대해 『한장사집』과 전혀 다르게 적고 있다는 점이다. 까귀派에 속하는 저명 승려 우궤빠(U-rgyan-pa Rin-chen-dpal, 1230-1309)의 전기에 의하면 티베트에 파견되었을 때 상가는 고승 우궤빠U rgyan pa Rin chen dpal(1230-1309)를 만나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아는가?”하고 거만하게 물었다가 우궤빠의 냉소적인 답을 들었다(Vitali Vitali, Roberto. (2012) ‘Grub chen U rgyan pa and the Mongols of China’, *Studies on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ibet and the Himalayas*, edited by Roberto Vitali, Kathmandu: Vajra, p. 45; van der Kuip,

한편 이 두 전기에 모두 등장하는 울룩 노얀¹⁰⁶⁹ 즉 한문 사료의 위시 테무르(玉昔鐵木兒, 1242-1295)에 대한 묘사도 주목할 만하다. 칭기스 칸의 四傑 중 하나인 보르추의 후손인 울룩 노얀은 같은 몽골 귀족 출신인 바얀에 대하여는 대칸에게 그의 무죄를 호소하는 “안다an ta”로 등장한 반면, 상가가 잔치에 초대하여 후한 선물을 주며 “안다” 관계를 맺자고 하는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기록되었다. 이 두 기사는 위시 테무르를 비롯한 몽골 귀족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훌레구의 4케식 중 하나의 장이었다고 하는 바얀이 대칸의 조정에서도 처음부터 울룩 노얀과 벗이 되고 순조롭게 자리를 잡은 반면 암도 티베트 부족 출신인 상가는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아 큰 재부와 권세를 누릴 때조차 몽골 귀족들과 교유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몽골 장에 나타나는 親 툴루이적 성격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다. 즉 『紅史』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한장사집』도 역시 우구데이의 즉위에 관해, 칭기스 칸 재세시 그의 명으로 주치와 차가타이가 군주권을 다투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툴루이는 적지 않았으므로 왕권을 다룰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툴루이의 후예들을 제외하고 차가타이 울루스와 우구데이 울루스의 후예들은

L. W. J. (2004a) 'U rgyan pa Rin chen dpal (1230-1309) Part Two: For Emperor Qubilai? His Garland of Tales about Rivers,' in Ch. Cüppers (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chos srid zung 'brel) in Traditional Tibet*, Lumbini, pp. 321-322). 우겐빠는 수차례에 걸친 쿠빌라이의 초청을 강하게 거부하던 까귀파 출신 승려이며 그가 상가를 조소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상가가 첼파의 만호장을 심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첼파 측의 기록은 더욱 그를 비난하고 있다. 첼파의 기록은 상가가 후에 권력 남용과 부패를 이유로 처형당할 때, 앞에서 본 『紅史』의 저자 편가 도르제의 조부이며 당시의 첼파 만호장이었던 가데 뵘dga' bde dpal은 기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고 적고 있다 (Sørensen and Guntram, 2007, pp. 187-8). 다시 말해, 뵘조르 상뵘은 티베트를 지배했던 사까派 소속이며 그가 접한 정보와 문서들도 역시 사까의 입장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¹⁰⁶⁹ 한문 사료의 月兒魯 那顏 또는 月呂祿 那寅. “能官”의 뜻. 칭기스 칸의 四傑 중 하나인 보르추의 후손이다.

일찍부터 대칸이 될 공식적인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며, 몽케에서 시작된 톨루이계의 대칸위 계승을 정당화하고 있다.¹⁰⁷⁰ 팍빠가 자신의 저서에서 톨루이가 “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사발의 물을 마시고 죽었다”고 하는, 『元史』와 『비사』의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을 남긴 것도¹⁰⁷¹ 티베트 사료들이 톨루이계에 우호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팍빠를 비롯한 티베트인들이 몽골과 공식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쿠빌라이 시기부터였던 것을 고려하면 예상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¹⁰⁷²

본 역주의 전체 해설에서 밝힌 대로 뽕조르 상뽕의 몽골 장이 또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몽골 제국 시기와 그 직후 몽골인들 사이에 전해지던, 왕통의 계승과 정통성 문제에 대해 몽골 제국이 남긴 서사의 초기 모습이 티베트에 전해진 상황을 일별할 수 있는 점이다. 즉 칭기스 칸 시기에 옥새가 나타났다는 기록이나 주원장의 아들이 몽골 황제가 언행이 똑같았다는, 이른바 영락제 몽골인설의 원류 등 몽골 제국 말기 혹은 직후에 몽골인들 사이에 퍼졌으나 이른바 “몽골 역사의 암흑기”에 사라졌다가 17세기 이후 다시 등장하는 서사들이 15세기 티베트의 저작인 『한장사집』에 남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뽕조르 상뽕이 몽골이 티베트에서 인구조사를 한 방식과 티베트의 각 역참 이름과 그 참을 관리한 만호를 상술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떤 사료에도

¹⁰⁷⁰ 이 기사는 한문이나 페르시아어 저작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물론 티베트인들의 의견이 아니라 몽골인들 사이에서 만들어져 전해지던 것을 티베트인들이 수록했을 것이다.

¹⁰⁷¹ János Szerb, “Golsses on the oeuvre of Bla ma 'Phags pa, IV, A Propos of Tolui, Religious and lay symbolism in the Altaic world and other papers”, *Proceedings of the 27th meeting of the Permanent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1984, pp. 370-373.

¹⁰⁷² 이런 면에서 우구데이계였던 쿠텐에 대한 사까파의 기록의 양상은 복잡하다. 톨루이계와 가까웠다고 해도 혈통이 몽케, 쿠빌라이와 다른 것은 분명하고 또한 그는 대칸이 아닌 일개 제왕이었다. 그러므로, 쿠텐에게 처음 복속한 사까 뽀디따와 팍빠 형제에 대한 기록에서, 팍빠의 동생 착나 도르제가 쿠텐의 딸과 혼인했으나 쿠빌라이의 딸과 혼인했다고 하거나, 쿠텐을 명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칸(rgyal po)이라고 적었다. 이는 17세기 이후 몽골 사서에도 영향을 미쳐서, 때로 쿠텐이 카안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없는 소중한 기록이다. 다만 아직 확실하게 비정되지 않은 지명이 있어,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뵈조르 상뵈의 몽골 역사 장은 티베트 사료의 일반적인 내용과 맥락을 포함하면서도 여타 티베트 사료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은 중요한 기록들을 싣고 있어서, 이 장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몽골 제국사 연구의 커다란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제국 시기 몽골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서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17세기 이후 다양한 몽골 저작 속에 다시 나타나는 내용들과 비교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준다는 의미에서도 『한장사집』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설명을 덧붙인 위대한 몽골 군주들의 역사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¹⁰⁷³에게 예경합니다.¹⁰⁷⁴

¹⁰⁷³ 바즈라빠니badz+ra pa ni. 金剛手 혹은 金剛力士라고도 한다. 앞에서 보다시피 저자는 漢地 역사 장의 시작부분 계송에서는 문수보살에게, 티베트 장에서는 티베트를 수호한다고 알려져 있는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했다. 칭기스 칸은 티벳 불교의 관점에서 바즈라빠니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차간 테우케』 역시 관련 기록을 싣고 있으나 그 연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칭기스 칸과 바즈라 빠니의 관계에 대한 현전하는 기록은 『한장사집』이 가장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유래에 대하여는 위구르가 몽골 초원에서 오늘날의 신강성 북부로 이주하고 불교를 수용하면서 칸들을 바즈라빠니의 화신으로 이해하였고 이후 위구르를 병합한 몽골에서도 그 전통이 이어졌다고 한다. (김성수, 「내륙 아시아 불교 세계와 "뎌람첸 모(smon lam chen mo)"」, 『몽골학』, vol. 32, 2012, p. 92).

¹⁰⁷⁴ 이 문장은 붉은 색 잉크로 쓰여 있었던 흔적이 보인다.

강력한 금강金剛으로 마군魔軍을 물리치시고
 위협적인 분노의 손짓¹⁰⁷⁵으로 적과 장애물들을
 겁해劫海의 피안으로 몰아 내신 분,
 허공의 빛을 가진 분노명왕에게 절합니다.
 그 분의 화현이 북방 몽골 땅에서¹⁰⁷⁶
 권력을 잡았을 때 漢地¹⁰⁷⁷와 호탄¹⁰⁷⁸ 그리고 티베트에서도
 佛法을 보호하시고 반대를 물리치셨습니다. [118b]
 그 역사를 분명하게 밝히니 다음과 같습니다.¹⁰⁷⁹

¹⁰⁷⁵ sdig 'dzub drag po.

¹⁰⁷⁶ GBB에는 “몽골 땅과”로 되어 있으나 GBTB와 GBC를 따라 “몽골 땅에서”로 번역했다.

¹⁰⁷⁷ rgya nag. 앞에서 본 대로 “가낙rgya nag”은 대략적인 중국을 가리키는 호칭이며 현대 티베트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¹⁰⁷⁸ bal. “뵐(bal)” 혹은 “뵐일(bal yul)”은 보통 네팔을 가리키나 『한장사집』의 작자는 앞서 호탄에 대한 章의 초두에 “호탄을 뵐일이라고도 한다”고 썼다. 일반적으로 티베트어 저작에서 호탄은 리의 나라 즉 리울(li yul)로 표기되고 그 안의 성채를 우텐('u then 즉 于闐)이라고 칭한 듯하다. 호탄 장의 시작 부분에서 호탄을 뵐일이라고도 칭한다고 기록한 것은 저자가 네팔의 전설과 호탄의 전설을 혼동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 사료에서의 네팔과 호탄 혼동에 대하여는 丹曲, 朱悅梅, 「藏文文獻中“李域”(li- yul, 于闐)的不同稱謂」, 『中國藏學』, 2007:2, vol. 78 참고. 몽골 제국이 네팔을 지배하지 않았고 호탄국은 이 책이 쓰일 때에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지 오래였으나 저자가 앞에서 쓴 대로 호탄으로 번역하였다.

¹⁰⁷⁹ 원문은 각 행이 9음절로 이루어진 9행의 운문이다.

1. 선조들의 계보¹⁰⁸⁰

대 몽골¹⁰⁸¹ 왕통의 시초는 하늘의 아들 보르타 체bhor ta che¹⁰⁸²였다. 그의 아들은 바르타체간 bhar ta che gan,¹⁰⁸³ 바르타체간의 아들은 탐착tham chag¹⁰⁸⁴이었다. 그의 아들은 치생 메르겐chi seng mer gan¹⁰⁸⁵인데 그는 대 스승 빠드마 중내

¹⁰⁸⁰ 소재목은 역주자.

¹⁰⁸¹ chen po hor. 붉은 색으로 쓰여 있다.

¹⁰⁸² GBTB·GBC·DMB: sbor ta che. GSM·DMS: sbor tha che. 『몽골비사』의 부르테 치노. 『집사』의 부르테 치나. 부르테 치노에 대하여 대부분의 티베트 사료들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구절 외에 출현 시기 등 다른 정보를 신지 않고 있다. 1538년 완성된 『新紅史』는 부르테 치노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 “그는 漢地(rgya nag)의 짜우왕(ci'u rgyal po) 후에 나타났다”고 기록했다. 짜우 왕은 周王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한장사집』 등 사료들의 호탄의 역사 장에 아쇼카왕이 버린 아들을 데려다 키워 후에 호탄을 세울 수 있게 한 漢地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서, 주왕은 아쇼카왕 (재위 c. 268-232 BCE)과 동시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티베트 사료에서의 부르테 치노의 등장은 기원전 232년경 혹은 그 이후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¹⁰⁸³ GBTB·GBC: bha ta che gan. 『비사』, 『집사』의 바타치칸.

¹⁰⁸⁴ GBTB: thams cad cha'i; GBC: thams cad tha'i. 『비사』의 타마차. 『집사』의 타마치.

¹⁰⁸⁵ GBTB·GBC: chi ge ma regs gan. DMB: khyi ji mer gan; DMS: byi ji mer gan. 『한장사집』의 다른 두 편집본은 치게 마렉겐이라고 보았고 『紅史』도 각각 키지 메르겐과 지지 메르겐으로 적었는데 이는 페르시아어 저작 『집사』의 QYJW MRGAN 과 가깝다(라시드 앓 딘, 김호동 譯, 『칭기스칸기』, 사계절, p. 16). 『몽골비사』에는 타마차의 아들이 코리차르 메르겐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크리스토퍼 애트우드(Christopher Atwood)는 이 이름을 예로 들어, 티베트어·페르시아어 기록의 현대 번역문 대부분은 이들 치게 메르겐 혹은 키지 메르겐이라는 이름을 『秘史』에 맞추어 코리차르 메르겐으로 수정하고 있다면서 학자들이 몽골 世系를 다룰 때 『비사』를 무조건 옳은 것으로 보고 그를 기준으로 다른 사료들의 이름을 수정하는 것을 “秘史 근본주의(Secret History Fundamentalism)”라 부르며 비판했다. (Christopher Atwood, 2012, p. 6) 그 전에 이시하마 유미코도 이 이름을 들어 티베트어 사료와 페르시아어 사료의 계보의 유사함을 지적한 바 있다(石濱裕美子, 「モンゴル年代記がチ

¹⁰⁸⁶의 화신이라고 한다.¹⁰⁸⁷

그의 후손들은 순서대로 <362> 아우잠 뽀데윌라a 'u dzam po de wo la,¹⁰⁸⁸ 예카
노둔ye kha no bdun,¹⁰⁸⁹ 쎄 사오체sems za'o che,¹⁰⁹⁰ 가추ga chu,¹⁰⁹¹ 토부 메겐

ベット年代記に与えた影響について-特にモンゴルの祖先説話を中心として-, 『日本西藏学会
會報』 vol. 36, 1990, p. 23). 한편 17세기 이후 몽골 사료들은 『비사』 계통의 계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몽골 제국 시기 이후의 몽골 사서인 저자 미상의 『황금사』는 타마차
tamançan의 아들을 코리찰 메르겐qoriçal mergen이라고 적는 등(김장구, 2014, p. 35) 티
베트 기록이나 훌레구 울루스 측 기록과 달리 『비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GBTB
은 ma와 regs 사이에 음절 분리점(')이 없어 “치게 렉(mregs) 겐”으로 보이기도 한다. GBC
은 ma와 regs 사이에 분리점을 찍어 두 음절을 확실히 나누었다.

¹⁰⁸⁶ 연꽃에서 난 자(pad+ma byung gnas, 蓮花生) 즉 인도의 불교 사상가인 빠드마삼바바
(Padmasambhava)를 가리킨다. 8세기 왕 티송데첸(Khri srong lde btsan, r. 755-797/804)
의 초청으로 티베트에 와서 티베트 불교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저자
라고 일컬어지며 존귀한 스승이라는 뜻으로 구루 린포체라 불리기도 한다.

¹⁰⁸⁷ 『紅史』에는 연화생의 화신이라는 구절 앞에 “지금도(da lta'ang)”라는 구절이 들어 있
다. 『紅史』와 『한장사집』 모두 “~라고 한다(zer)”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티
베트 史家에 의해 추가되었고 이후 다른 사가들이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Atwood,
2012, p. 49).

¹⁰⁸⁸ GBTB·GBC: a'u jam po de wol; DMB: la 'ur byang sbo ro 'ol; DMS: la'u jang sbe
re 'ol. 비사의 아우잠 보로울. 집사의 쿠잠 보코를.

¹⁰⁸⁹ GBTB·GBC: ye gra no dun. 『紅史』는 DMB·DMS 모두 빼까 니둔(pas ka ni dun)으로
적고 있다. 필기체 “ya”가 “pas”와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사』는 아우잠 보로울의 후
계자로 “살리 카차우”를 들고 그의 후계자로 비로소 예케 니둔을 들고 있는데 『한장사집』을
비롯한 『紅史』, 『티베트 王統을 비추는 거울』, 『알룽 조오 교법사』, 『청사』 등 티베트 사료
에는 살리 카차우가 나와 있지 않으며 이는 라시드 앳딘의 『집사』도 마찬가지이다.

¹⁰⁹⁰ GBTB·GBC: sems za'o che'i; DMB: sems za'u ji; DMS: sems dza'o ji. 비사의 쎄 소치,
집사의 쎄 사우치.

¹⁰⁹¹ GBTB·GBC: gra chung nga. GBB는 쎄 소치와 가추를 한 이름으로 붙여 썼으나 여기서
가추는 아마도 『紅史』에서 쎄 소치 다음에 그의 아들로 써넣은 카충(kha chung)과 같은 사

tho bu me gen¹⁰⁹²이다. 그가(토부 메겐) 사망한 후 그의 아내 nag mo¹⁰⁹³ 아난 토 a nan khro¹⁰⁹⁴에게서 해와 달의 빛으로부터¹⁰⁹⁵ 태어난 것이 보톤차르 문칸 bo thon char mun khan¹⁰⁹⁶이다. 또한 그의 후손들은 순서대로, 가이치 ga'i chi,¹⁰⁹⁷

람으로 보아 둘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셈소치의 아들에 대해 『紅史』는 DMB와 DMS 모두 kha chu라고 적었고 『티베트 王統을 비추는 거울』은 캅추 khab chu라 적고 있다. 라시드 앓 단의 『집사』는 칼리 카추 Qālī Qāchū라고 적었다(김호동, 『칭기스칸기』, p. 17). 『비사』에는 이 이름이 카르초라고 적혀 있다.

¹⁰⁹² GBTB-GBC: tho bu mer gan. 『비사』는 카르초의 아들로 보르지기다이 메르겐(명궁), 그 아들로 토로골진 바얀(부자)을 적었고 그의 후계자로 비로소 도분 메르겐(명궁)을 적었는데 『한장사집』을 비롯한 티베트 사료들 즉 『紅史』, 『알룽 조오 교법사』, 『티베트 王統을 비추는 거울』, 『청사』는 모두 보르지기다이 메르겐과 토로골진 바얀이 빠져 있으며 이는 페르시아어 사료 『집사』와 같다.

¹⁰⁹³ GBTB-GBC: 결락. 『紅史』 DMB는 마찬가지로 “nag mo”라고 적혀 있으나 사천민족출판사 편집본(DMS)에는 “nag mo la”라고 적혀 있다. “nag mo”는 “여성, 부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어둠”으로도 볼 수 있으나 조사 “la”를 가진 것은 『紅史』 민족출판사 본 뿐이며 『紅史』의 다른 편집본과 『한장사집』이 모두 단지 “nag mo”라고 쓰고 있으므로 “부인 알란 코아”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트우드도 이를 “어둠으로부터 from darkness 알란 코아가 낳은”으로 번역한 것은(Atwood, 2012, p. 50) 적절하지 않다.

¹⁰⁹⁴ GBTB-GBC: a nan khro; DMB: a lan kho; DMS: a lan kwo.

¹⁰⁹⁵ GBTB와 GBC는 햇빛으로부터 났다고 적었다. 『알룽 조오 교법사』, 『紅史』와 『청사』는 ‘해와 달의 빛으로부터(nyi ma dang zla ba'i zer las)’라고 적었으며 1376년에 완성된 『알룽 조오 교법사』도 ‘해와 달의 빛으로부터’라고 했다. 1368년에 완성된 『티베트 王統을 비추는 거울』은 알란 고아가 낳은 사실만 적고 있다. 『비사』에 의하면 알란 고아의 자식들은 달빛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대인 17세기 5대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저작에서 칭기스 칸은 부르테 치노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도분 메르겐 사후 그 처 알란이 일월의 빛으로 낳은 이의 후손이라거나 아니면 장막으로 금색 소년이 들어와 알란이 회임하여 낳은 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모두 믿기 어렵고 자신들의 특수한 인연을 보여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적었다(第五世達賴喇嘛, 郭和卿 譯, 『西藏王臣記』, 民族出版社, 1983, p. 88;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Zahiruddin Ahmad tr., 2008, pp. 69–70).

¹⁰⁹⁶ GBTB-GBC: sbo thon char mung khag; DMB: bo don char mung khan; DMS: bo

베키르be khir,¹⁰⁹⁸ 마난 토돈ma nan tho don,¹⁰⁹⁹ 가이투 간ga'i thu gan,¹¹⁰⁰ 바이 싱코르 독싱ba'i shing khor dog shing,¹¹⁰¹ 둠비나이 칸bum bi na'i khan,¹¹⁰² 가 불라 칸ga bu la khan,¹¹⁰³ 바르탄 바두르bar than ba dur,¹¹⁰⁴ 그리고 예수가 바두

don char mung khag.

¹⁰⁹⁷ GBTB·GBC: ga <si> [pi] chi. DMB: ga'i chi; DMS: ga'm chi. 『비사』의 카비치. 편집본들이 가시치ga si chi라고 본 것은 티베트어 필기체(우메dbu med)의 “s”와 “p”가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¹⁰⁹⁸ GBTB·GBC: sbi khor. DMB·DMS: sbe khir; GSM: be khir는 물론, 『알룽 조오 교법사』를 포함한 티베트어 사료는 모두 이 이름을 적고 있다. 이 이름은 티베트어 사료와 비슷한 연대기를 보이고 있는 『집사』에도 보이지 않고 티베트 사료에만 철자를 조금씩 달리하여 나타나고 있다.

¹⁰⁹⁹ GBTB·GBC: ma nan; DMB·DMS: ma nan tho don. 『비사』의 투돈 메넨. 집사의 두툼 메넨.

¹¹⁰⁰ GBTB·GBC: kha'i du khan. 비사의 카이도. 집사의 카이두 칸. 씨킴본은 마난과 카이두 칸을 한 사람으로 붙여 쓰고 있다. DMB: ga'i thu khan; DMS: ga'm thu gan.

¹¹⁰¹ GBB는 이 이름을 바이싱과 코르독싱으로 분리하여 두 사람으로 만들었으나 한 이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GBTB·GBC: sbi' khor dog shing. 『紅史』 편집본은 모두 카이두 칸의 아들 바이싱(ba'i shing), 그의 아들(de'i bu) 코르독싱(khor dog shing)이라고 하여 GBB보다 확실하게 바이싱코르 독신을 두 사람으로 나누었다. 청사도 이와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 王統을 비추는 거울』(GSM)과 『알룽 조오 교법사』는 『한장사집』 GBTB·GBC와 마찬가지로 바이싱 코르 독신 한 사람으로 적었다. 『비사』의 바이 싱코르 독신, 『집사』의 바이 싱코르.

¹¹⁰² GBTB·GBC: [thum bi] na'i khan; DMB: dum bi na'i khan; DMS: dum bi ha'i khan. 비사의 툼비나이 칸. 집사의 툼비나 카안.

¹¹⁰³ GBTB·GBC: ga pu khan; DMB: ga bu la khan; DMS: ga bu la gan. 비사의 카불 카한. 집사의 카불 칸.

¹¹⁰⁴ GBTB·GBC: bha dan bha dur; DMB·DMS: bar than ba dur. 비사의 바르탄 바아투르. 집사의 바르탄 바하두르.

르 ye su ga ba dur¹¹⁰⁵였다. 여기까지 열 아홉¹¹⁰⁶ 몽골 왕통은 몽골 땅(hor yul)에서 일어났다.

2. 몽골 제국 대칸들의 계보

예수가 바두르 황제¹¹⁰⁷와 그 비 흘룬hu lun¹¹⁰⁸의 아들 太祖tha'i dzung 칭기스 황제jing gir rgyal po¹¹⁰⁹ 나무-陽-말 해(1174)¹¹¹⁰에 나섰으며 형제가 일곱이었

¹¹⁰⁵ GBTB·GBC: ye su ga [bha] dur; DMB: ye sur ga ba dur; DMS: ye phur gang ba dur. 예수게이 바아투르.

¹¹⁰⁶ 뽕조르 상뽕의 계보를 정리하면 몽골 왕통은 1.보르따 체 2.바르따체간 3.탐착 4.치성 메르겐 5.아우잡 뽕데윌라 6.예카 노둔 7.셈 사오체[-] 8.가추 9.토부 메겐 10.보통차르 문칸 11.가이치 12.베키르 13.마넨 토돈 14.가이투 간 15.바이싱코르 독싱 16.뎀비나이 칸 17.가불라 칸 18.바르탄 바두르 19.예수가 바두르가 된다. 이는 『비사』의 계보와 비교했을 때, 『비사』의 6대인 살리 카차우와 10대 보르지기다이 메르겐, 11대 토로골진 바안, 16대 카치 쿨룩 총 4대가 빠져 있는 한편, 『비사』에는 없는 베키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시드 앗 딘의 『집사』의 계보도 티베트어 사료와 마찬가지로 6대, 10대, 11대가 빠져 있어서 두 지역의 史家들이 『비사』와는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집사』에도 역시 베키르(be khir. 『紅史』는 베키르 sbe khir, 『한장사집』 다른 편집본은 비 코르sbi khor)는 없어서, 티베트 사료들이 근거로 한 가계도는 『비사』나 『집사』와 모두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¹¹⁰⁷ ‘ꣳꣳrgyal po’. 최고 군주를 가리키며 이전의 唐, 서하 군주 등에게 적용되던 표현이었다. 물론 예수게이는 대칸 칭호를 받지 못했으나 칭기스 칸의 친부이므로 이 칭호를 적용하고 있다. 뒤에서 보듯 칭기스 칸을 비롯한 대칸들은 모두 ꣳꣳ라고 적었다.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 사가들이 카안이라는 호칭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나, 대부분의 사료들은 몽골 대칸에 대해 기존의 티베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ꣳꣳ’라고 부르고 있다. 제왕들에 대하여는 왕자 즉 ‘ꣳꣳrgyal bu’라고 적었다.

¹¹⁰⁸ 칭기스 칸의 모친 후엘룬.

¹¹⁰⁹ 표기를 발음대로 읽으면 징기르 ꣳꣳ. GBTB·GBC도 같다. 칭기스 칸의 이름은 사료마다

다.¹¹¹¹ 그는 (255) 서른 세 살이 되던 흙-陽-말 해(1206)에, 미낙mi nyag의 꺄괴 rgyal rgod¹¹¹² 이후 당thang¹¹¹³을 다스리던 토지tho rdzi¹¹¹⁴라는 황제의 손에서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는데, 『티베트 王統을 비추는 거울』은 ‘징긴 칸jing gin gan’, 『알룽 조오 교법사』와 『紅史』는 ‘징기 황제jing gi rgyal po’, 『新紅史』는 ‘징긴 황제dzing gin rgyal po’라고 표기했다. ‘타이중tha'i dzung’ 표기는 발음상 ‘太宗’으로 읽을 여지가 있으나 한자 ‘祖’를 ‘dzung’으로 적은 예가 다수 보이므로 태조로 읽어야 할 것이다.

¹¹¹⁰ 칭기스 칸의 탄생 연대 역시 사료마다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보다시피 뵤조르 상 뵤의 『한장사집』은 1174년으로, 『紅史』는 물-陽-호랑이 해 즉 1182년이라 적었고 『청사』는 이를 따르고 있으며 1376년 완성된 『알룽 조오 교법사』는 물-陽-말 해 즉 1162년으로 적고 있다. 티베트 저작들의 칭기스칸의 生年 기록에 대한 연구는 Ariane Macdonald, “Préambule à la lecture d'un rGya-bod yig-chañ”, *Journal Asiatique*, 1963, pp. 139-142 참고. 라시드 웃딘의 『집사』는 칭기스칸이 回歷 549년(1154-55)에 태어났다고 했다. 한편 앞에서 본 대로 티베트曆은 이른바 칼라차크라 력으로 불리며 1027년을 시작 해로 삼는다. 다섯 원소 즉 불-흙-쇠-물-나무에 陽(pho)과 陰(mo)이 번갈아 가며 붙고 거기에 열두 동물 토끼-용-뱀-말-陽-원숭이-닭-개-돼지-쥐-소-호랑이를 차례로 연결하여 60년을 한 주기로 하며, 이 주기를 랍중(rabjung, rab byung)이라 한다. 예를 들면 흙-陽-용 해의 다음은 흙-陰-뱀 해가 되며 각 동물에 음/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순히 흙-용, 흙-뱀으로 적기도 한다. 티베트曆에 대하여는 Zuiho Yamaguchi, “Methods of Chronological Calculation in Tibetan Historical Sources”, *Tibetan and Buddhist Studies* by Louis Liget, vol. 2 Munshiran Manoharlal Publishers Ltd., 2000, New Delhi 참고.

¹¹¹¹ 『티베트 王統을 비추는 거울』, 『알룽 조오 교법사』, 『紅史』, 『청사』는 형제가 다섯이라고 적었다. 칭기스칸의 형제가 일곱이라고 한 것은 『한장사집』이 유일하다. 『집사』는 후엘룬으로부터 칭기스 칸, 주치 카사르, 카치운, 테무게 옷치긴 네 명이, 그리고 다른 부인으로부터 벨구데이 노안이 태어나 모두 5형제였다고 적고 있다. 『元史』 종실세계표도 집사와 같이 다섯 명을 나열하고 있다.

¹¹¹² 미낙과 꺄괴에 관하여는 앞의 서하 장 참고.

¹¹¹³ 저자는 다음 행에서 보다시피 북중국을 “가낙 탕grya nag thang”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漢地 왕조인 唐이 지배하던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어 “탕thang” 자체의 의미는 “들판, 평원”이다.

¹¹¹⁴ 서하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왕이며 이 이름은 원래 티베트어 도르제rdo rje (금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서하 장 참고.

하늘이 보호하는 군대¹¹¹⁵의 힘으로 그 왕권을 빼앗았고, 몽골이 <363> 漢地rgya nag 탕thang¹¹¹⁶을 지배한 지 23년 되는 해이며 [119a] 그가 66세 되던 해인 불-陰-돼지해(1227)의 첫 번째 가을달의 12번째 날에 미낙mi nyag의 가gha¹¹¹⁷ 땅에서 하늘로 갔다. 하늘이, 혹은 長壽 새가 주었다는 寶印도¹¹¹⁸ 그의 치세에 나타났

¹¹¹⁵ dpung gshe mong

¹¹¹⁶ 저자는 일반적으로 북중국을 “가낙”이라고 적고 있는데 “가낙 탕”이라고 적은 예가 몇 군데 보인다. 이는 티베트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토번 제국 시기 중국의 왕조가 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형식의 표기는 앞에서 본 대로 서하를 “미낙 가mi nyag gha”라고 적는 것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¹¹¹⁷ 즉 서하. “가”는 탕구트인들의 나라 이름 夏의 음역.

¹¹¹⁸ nor bu'i tham kha. 몽골어 ‘qas boo’ 즉 玉印 혹은 寶印이며 傳國璽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 제국 시기에는 성종 초라고 확실히 전해지던 보인의 발견 시기가 언젠가 칭기스 칸 재세시로 바뀌고, 몽골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이 서사를 15세기에 『한장사집』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寶印은 진시황 때부터 전하는 傳國璽로, 금이 북송을 침략할 때 없어진 것을 몽골이 발견했다고 하며 몽골의 중국 지배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쓰였다. 『南村輟耕錄』 崔彥의 <進傳國璽箋>에 의하면 쿠빌라이 사후 성종 즉위 무렵 지원 31년(1294) 최옥은 어사대에 있었는데, 어사대 통사인 쿠쿠추(闊闊術)에게 보고하기를 태사 국왕 무칼리의 손자 拾得(碩德) 사망후 家業이 날로 쇠락하여 흠어미와 아들이 먹고 살 도리가 없이 고생하는데 집에 보관해온 옛 印이 하나 있어 쿠쿠추에게 돈으로 바꾸기를 청했다고 한다. 그 도장은 청록색에 검은 색이었고 광채가 빛나며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쿠쿠추는 새겨진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 최옥에게 판독을 부탁했고 박학다문한 최옥은 그 글자가 “受命于天, 既壽永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미 바얀이 남송 정벌시에 남송의 전국새를 가져다 바쳤으나 사실 宋은 금에게 쫓겨서 남으로 올 때 이미 금에게 전국새를 잃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바얀이 구한 것은 남송이 새로 제작한 전국새였다는 것이다. 원의 전국새에 대하여는 Herbert Franke, *From Tribal Chieftain to Universal Emperor and God: The Legitimation of the Yuan Dynasty*, VERLAG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In Kommission bei der C. H. Beck'sehen Verlagsbuchhandlung Munchen, 1978, pp. 42-46; 鮑音, 「元傳國璽傳承始末」, 『社會科學戰線』, 2006-4, pp. 125-129 참고. 칭기스 칸 조상의 계보에 대한 이 기록은 『紅史』와 유사하지만 寶印에 대한 기사는 『紅史』에 없다. 17세기 몽골 연대기도 이 국새가 칭기스 칸 시기에 처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출현 방식에 대한 기술은 조금씩 다르다. 寶印의 서사는 몽골을 거쳐 이후

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주치rdzo chi와 차가타이cha ga ta'i, 우구데이o ko ta'i¹¹¹⁹ 그리고 툴루이 노얀tho lo no yon 등 아홉이 있었다.¹¹²⁰ 그 군주 재세 시에 큰 아들 둘은 왕권을 다투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고¹¹²¹ 우익과 좌익의 수령에 임명되었고¹¹²² [그들의] 큰 동생인 우구데이가 6년간 제위에 있었다. 주치'jo chi¹¹²³에게는 아들이 여덟 있었고¹¹²⁴ 차가타이ca ga ta'¹¹²⁵에게는 아홉이 있었다.¹¹²⁶ 우구데이의 장남 구육go yug은 6개월 간 재위했고 그 동생은 쿠텐go dan등 일곱이었다.¹¹²⁷ 구육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툴루이 노얀은 전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을

만주인에게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Johan Elverskog, *The Jewel Translucent Su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p. 69 참조.

¹¹¹⁹ GBB에는 이 구절에 우구데이의 이름이 빠져 있다.

¹¹²⁰ 『元史』宗室世系表는 칭기스 칸의 아들이 주치, 차가타이, 우구데이, 툴루이 그리고 우르치(兀魯赤, 집사의 우르차칸Ūrchaqān으로 보인다), 쿨겐(闊列堅, 집사의 Kūlgān) 여섯 명이었다고 적었다. 『집사』는 『元史』의 여섯 명 외에 타타르 출신 카툰에게서 난 차우르(Chāuūr)와 나이만 출신 후궁에게서 난 주르체테이(Jūrchetay)를 추가하여 모두 여덟 명을 적었다(김호동 p. 119; Rawshan vol. 1, pp. 299-304).

¹¹²¹ 같은 내용이 『紅史』에 실려 있는데 '문서를 주다/받다' 둘 다로 번역 가능한 yi ge byin 으로 적혀 있다.

¹¹²² 알롱 편집본: 우익에 임명되었다고 기록. 좌익 없음. 초본 확인 필요.

¹¹²³ 바로 앞에서는 주치를 rdzong chi라 적었었다

¹¹²⁴ 『집사』는 열 넷, 『元史』는 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¹¹²⁵ 앞에서는 차가타이를 cha ga ta'i 라 적었다.

¹¹²⁶ 『집사』는 판본에 따라 6명 혹은 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元史』는 차가타이의 아들로 예수 몽케와 카라 흘레구 둘을 기록했다.

¹¹²⁷ 『집사』와 『元史』는 모두 우구데이의 아들이 모두 일곱이라고 적었다.

다투었다.¹¹²⁸ 그와 妃 사인 에케za yin e kha¹¹²⁹ 소르캅타니zo rog ta의 큰 아들
몽케 칸mo gol gan -디궁 派와 시주-복전 관계를 맺었다¹¹³⁰-은 9년간 재위했고

¹¹²⁸ 이 기록은 몇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紅史』에도 실려 있다. 칭기스 칸이 살아 있을 때 차가타이와 주치가 칸 위 계승에 관련된 “문서”를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몽골 비사』는 칭기스칸 말년 후계자를 정하는 논의에서 주치와 차가타이가 삼남인 우구데이를 즉위 시키고 자신들은 그를 돕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칭기스칸이 “조치와 차아다이는 제가 한 약속들을 지켜라! 백성들에게 비웃음당하지 않도록 하라! 속민들에게 비웃음사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유원수 역, 『몽골비사』 p. 266) 『집사』에는 우구데이 재위 시, 형 차가타이가 취한 상태에서 우구데이와 말 경주를 하여 이겼고, 술에서 깬 뒤 대칸의 말보다 더 빨리 달린 것은 예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자책하면서 “우리는 모두 형·아우들이다. 쿠릴타이에서 말을 다 끝냈으며 “우구데이가 카안이 되고,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고 명령을 받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게 대항하거나 분쟁(tamâchâmîshî)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서(khatt)까지 주었다.”라고 말했다는 기록(김호동, 『칸의 후예들』, pp. 236-237)이 있다. 여기의 페르시아어 “khatt”나 위 본문의 티벳어 “yi ge”는 잘 알려진 몽골어 “무첼게 möchelge” 즉 맹세문일 것이며 집사에 “mujilkā” 혹은 “mūjilkā” 등으로 여러 차례 기록되었다(Christopher P. Atwood, 2012, p. 21 참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툴루이가 다른 형제와 달리 대칸이 될 권한이 있었다고 하는 이 기록은 티베트 사료에만 남아 있는 親 툴루이 서사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Soyoung Choi, (미간행) “From Brutes to Boddhisattvas: the Mongols in Tibetan Sources”, Timothy may & Michael Hope ed., *The Mongol World*, Routledge 참고).

¹¹²⁹ 몽골어 ‘좋은 어머니’.

¹¹³⁰ - - 안의 내용은 GBB에는 없고 GBTB와 GBC에는 모두 있다. 몽케는 즉위 후 티베트를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원래 티베트를 관할하던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의 분봉지로 만들었고 주요 불교 교파와 그 속민들을 나누어 관할했다. 각 제왕들은 자신의 분봉지에 다루가치와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 체제는 쿠빌라이가 즉위하여 자신과 훌레구의 봉지만을 남겨두고 다른 제왕의 군대를 철수시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분봉의 원인에 대해서 14세기 중반 파코두派 중흥의 장본인인 장춘 겔첸은 티베트의 교파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즉 “철-개 해(1250)에 티베트의 승려, 譯師, 각처의 지방 수령, 왕공들이 몽케에게 [몽골] 왕실 형제들이 라마에게 공양할 분지를 정해주기를 요청했다. 몽케는 왕자 쿠텐에게서 티베트를 거두어 티베트를 획분하여 각 교파에 공양했다”는 것이다(Byang chub rgyal mtshan, Si-tu bka' chems, Bod-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Lhasa, 1989, p.449. 贊拉 阿旺, 余万治 역, 陳慶英 校, 『朗氏家族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p. 278). 몽

둘째 아들은 에젠e chen¹¹³¹ 쿠텐ga dan -사까 뽀디따와 관계를 맺었다-이었다.¹¹³² 셋째 쿠빌라이go pe la 세조 세첸 칸shi dzung se chen gan은 -전에 궁탕派¹¹³³와 관계를 맺었다- 나무-陰-돼지 해(1215)에 나섰고¹¹³⁴ 35년간 재위했다. 넷째는 아릭 부케a ri bho ga -까르마派와 관계를 맺었다-였고, 다섯째는 훌레구hu la hu -디궁派와 관계를 맺었다¹¹³⁵-인데 그는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국토를 찾

골 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몽케의 티베트 분봉은 그가 즉위 직후인 1252년 서아시아, 러시아를 포함한 제국 내 영토에 대해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지역을 제왕들에게 분봉을 내린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관련 내용은 최소영 석사논문 「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울루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논문, 2010 참고.

¹¹³¹ 몽골어이며 ‘주인, 군주’의 뜻이다. 쿠텐은 티베트 사료에서 빈번히 ‘에젠’이라는 칭호로 불리고 있는데 元代 한문 사료는 물론 明代에 제작된 합벽비에도 ‘에젠’이라고 기록되었다. 즉 1362년 제작된 몽-한 합벽의 이른바 <西宁王忻都公神道碑>의 몽골문에 그는 ‘Köden ejen’이라고 쓰여 있고 이에 대응하는 한문은 大王이라고 적혀 있다(Francis Woodman Cleaves, “The Sino-Mongolian Inscription of 1362 in Memory of Prince Hindu,”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2, No. 1/2, 1949, p.27; p. 35). 또한 明 宣德 5년(1430)년 사까 뽀디따를 기념하여 티베트-한문 두 언어로 양주에서 작성된 <重修涼洲白塔誌>의 티베트문 면에도 “왕자 에젠 쿠텐rgyal bu e cen go dan”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한문은 “에젠 쿠텐 왕也禪火端王”이다(伴眞一郎, 「明初における対モンゴル政策と河西におけるサキャ・パンディタの チョルテン再建—漢文・チベット文対訳碑刻, 宣德5年(1430) 「重修涼洲白塔誌」の歴史的背景」,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2012, vol. 84, p. 46).

¹¹³² 물론 쿠텐은 톨루이의 아들이 아니라 우구데이의 아들이고 몽케 등과는 사촌 관계이며 저자 뽀조르 상뽀는 바로 위의 문장에서는 쿠텐go dan이 우구데이의 아들이라고 적었다. 이 문장에서는 이름을 “가단ga dan”으로 적고 있으나 사까 뽀디따와 관계를 맺은 인물이므로 이 문장의 가단 역시 쿠텐일 것이다. 쿠텐은 중앙 티베트와 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사까파를 몽골의 티베트 통치 대리인으로 인정한 최초의 몽골 제왕이었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 몽골 제국 이후 즉 15세기부터 사까파는 쿠텐을 황제라고 하거나 몽케, 쿠빌라이의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다.

¹¹³³ 첼派라고도 한다.

¹¹³⁴ ‘khrung. 태어나다의 높임말.

으러 [119b 서쪽(stod)으로 보내졌고 그래서 띄호르stod hor라고 알려지게 되었다.¹¹³⁶

세첸과 후비 차비의 아들 넷 중 첫째는 도르제rdo rje, 둘째는 진김jim gin,¹¹³⁷

¹¹³⁵ 저자는 몽케와 홀레구가 모두 디궁파와 시주-복전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하였으나 홀레구가 처음 분봉받은 것은 디궁파와 깊은 관계가 있던 팍모두파였다. 몽케 사망 후 쿠빌라이가 자신과 홀레구의 분봉지를 제외한 다른 제왕들의 분봉권한을 없애면서 디궁파도 홀레구의 휘하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과정은 알 수 없다. 팍모두파의 만호장이던 장쭈겔첸은 홀레구가 팍모두파를 분봉받았으며 군대와 다루가치를 파견한 사실을 상세히 적었다(Byang chub rgyal mtshan, *Si-tu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 mthong ba don ldan*, Bod-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Lhasa, 1989p. 8; 『朗氏家族史』, p. 70).

¹¹³⁶ “띄호르stod hor”의 “띄”는 위쪽 혹은 서쪽을 가리키므로 “서부 몽골” 혹은 “상부 몽골”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홀레구는 몽케 즉위 쿠릴타이에서 서역 원정 명령을 받고 1253년 원정길에 올랐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의 지역을 정복한 뒤 그 곳에 정착해 1256년에는 독자적인 울루스를 갖게 되었다. 『紅史』와 『新紅史』에도 홀레구를 ‘서부 몽골’이라고 불렀다는 기사가 있으며 『新紅史』는 “홀레구는 서부 몽골의 왕이 되었는데 그 권력과 재부가 매우 컸다”고 적었다(Bsod nams grag pa, *Deb ther dmar po gsar ma*, Tibetan Text and English translation by Giuseppe Tucci, Institue Italiano per Medio ed Estremo Oriente, 1971, p. 46). 이는 그가 자신이 관할하던 팍모두파에 대량의 보시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최소영,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0 참고.

¹¹³⁷ 진김은 사까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팍빠의 유명한 저작 『彰所知論(shes bya rab gsal)』은 진김의 요청으로 쓴 것이라 한다. 팍빠가 첫번째 티베트 행에서 대도로 돌아왔을 때 진김과 그 비를 비롯한 대신들이 대도성 교외로 나와 팍빠를 환영한 것을 기록하며 진김에 대해 “大 황제(rgyal po chen po)의 수승한 섭정(rgyal tshab dam pa)인 長子(sras kyi thu bo) 진김jim gyim”이라고 적었다(Ngag dbang Kun dga' bsod nams, p. 212). 팍빠의 2차 티베트 행에서는 진김이 라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여정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까측 기록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전송 시간이 하루에서 한 달로 늘고 한 달에서 일 년으로 늘었다고 적고 있다). 또한 돌아온 팍빠가 티베트 추막에서 연 대법회에 7만명의 승려가 모였고 팍빠는 매 승려에게 황금 1전씩을 주는 등 무수한 재보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모두 진김의 시주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추막 법회는 원-사까 시기 최대의 법회로 일컬어진다. 사까 기록은 이 때의 진김에 대해서는 진김 황제(rgyal po jim gyim)라고 부르고 있다(Ngag dbang Kun dga' bsod nams, *Sa skya gdung rabs chen mo*, p. 215).

셋째는 망갈라mang gha laM, 넷째는 노무간no mo gan이다. 후비 샤관마zhwa gon ma¹¹³⁸의 아들은 여덟이었는데 그 중 첫째는 후까르체hu dkar che, 둘째는 아록체a rog che¹¹³⁹, <365> 넷째는 골룩 티무르go lug thi mur, 다섯째는 에센 보카e sen sbo ga, 여섯째는 토간tho gan, 일곱째는 고고추go go chu, 여덟째는 돌로rdo lo이니 세첸의 아들은 모두 합쳐 열 둘이었다.¹¹⁴⁰ 세첸 자신 34세가 되던¹¹⁴¹

¹¹³⁸ 샤관마zhwa gon ma는 티베트어로 ‘모자(혹은 冠)를 쓴 여성’을 뜻한다. 쿠빌라이의 비는 대카툰인 차비 외에 메르키트 출신의 코룩친 카툰, 두르벤 출신의 카툰, 후신 출신의 카툰, 바야우트 출신의 카툰 그리고 차비와 마찬가지로 쿡크라트 출신의 남부이 카툰 등이 있었다. 『한장사집』은 차비 소생 외의 다른 아들들을 모두 샤관마 소생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 명칭은 인명이라기보다 지위와 권세를 부여하는 冠을 하사받은 카툰들에 대한 통칭일 가능성이 있다. 『紅史』도 쿠빌라이의 비로 차부이, 다음으로 샤관마를 들고 그 소생으로 6명이 있어서 쿠빌라이의 아들은 모두 열 명이라고 적었다. (『紅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p. 25;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Mi rigs dpe skrun khang, 1981, p. 30). 알룽 조오는 샤관마라는 호칭 없이 ‘次妃ma chung ba’라고만 적었다(yar lung p. 83).

¹¹³⁹ 아우룩치. 집사의 Oğrūqchī. 한문 사료의 奧魯赤(?- 1303). 西平王으로 티베트를 관할했다. 후에 그의 아들 테무르 부카가 鎮西武靖王에 임명되었고 아우룩치를 이어 티베트를 관할했다. 이들은 出鎮宗王으로, 티베트에서의 정치적 갈등이나 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임무였고 이는 분봉과 다르다.

¹¹⁴⁰ 『元史』 「宗실세계표」 (p. 2724)는 쿠빌라이의 아들이 10명이라고 적고 있는데, 도르지朶而只(Dorji), 진김眞金(jingim), 망갈라忙哥剌(Manggala), 노무간那木罕(Nomuqan), 후게치忽哥赤(Hügechi), 아야치愛牙赤(Ayachi), 오룩치奧魯赤(Oğruqchi), 쿠쿠추闊闊出(Kököchü), 토곤脫歡(Togon), 쿠틀룩 테무르忽都魯帖木兒(Qutluq Temür)이다. 즉 『한장사집』은 『元史』의 목록에 에센 부카와 돌로를 적어 넣어 그 수를 12명이라 적고 있고 또한 모든 사본과 편집본에 쿠빌라이와 후시진Hūshijīn 과의 사이에서 난 아야치Ayachi(Ch. 愛牙赤)가 없다. 라시드 앗딘의 『집사』는 『元史』의 목록에, 메르키트 빠 출신의 카툰에게서 난 코리다이(Qōrīdāi) 그리고 남부이 카툰 출신의 성명 미상의 아들을 넣어 쿠빌라이의 아들이 모두 12명이라고 적었다(김호동, 『칸의 후예들』, pp. 359-366). 또다른 티베트 사료 『紅史』는 대카툰 차비(DMS: cha'u; DMB: cha bu'i) 소생의 아들 넷을 들고 샤관마의 아들은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 수만 여섯이라고 쓰고, 총 열명이라고 한 뒤 남부이nam bu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요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典據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¹¹⁴¹ 쿠빌라이는 1215년에 나서 1260년에 대칸을 칭했다.

쇠-陽-원숭이해(1260)부터 35년간 재위했고 80세가 되던 나무-陽-말 해에 숨졌다.

세첸의 장자 도르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왕자 진김과 그 비인 고고쎄go go can¹¹⁴²의 장자는 카말라ka ma la였고, 둘째는 병어리¹¹⁴³인 다르마팔라dhar+ma pha la, 그리고 셋째 울제이투 테무르ol ja du thi mur 이렇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울제이투는 元貞dben cing 2년과 大德ta'i ting 11년으로 13년간 재위했다. 그 아들 德壽ti shu는 일찍 사망했다.¹¹⁴⁴

다르마팔라와 그 비 태항 태후 다기tha'i hong da'i hu da ga의 <366> 장자 카이산 ha'i shan은 至順ci shun 3년 泰定ta'i ting 2년,¹¹⁴⁵ 총 5년 동안 재위했다. 그 이름을 쿨룩go lug¹¹⁴⁶ 황제라고도 한다.

둘째 아유르바르와다a yu par pa ta가¹¹⁴⁷ 즉위하여 [120a] 9년간 집권했다. 부안투 bu yan du 황제라고도 한다.¹¹⁴⁸

¹¹⁴² 한문사료의 闊闊眞.

¹¹⁴³ 꺾빠lkugs pa. ‘병어리, 바보’ 등의 의미이다. 『元史』나 『집사』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보이지 않으나 엽자기의 초목자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世祖生子口啞，即裕宗”라고 하여 다르마팔라의 아버지인 유종 즉 진김이 병어리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叶子奇, 『草木子』 卷四).

¹¹⁴⁴ 『五分枝』는 쿵타이시(Qūngtāishī, 皇太子)로 적고, “Dīshī라고도 부른다”고 덧붙였다. 『元史』에는 皇太子 德壽로 기록되어 있다. 德壽는 1306년 陰六月 皇太子로 봉해졌으나 그 해 十二月 사망했고 後嗣가 없었다. (김호동, 『칸의 후예들』 p. 362)

¹¹⁴⁵ 무종 카이산은 1308년에서 1311년까지 재위했고 연호는 지대至大였다. 지순은 문종 톡 테무르의 연호이고 태정은 태정제의 연호이다. GBB에는 연호별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며 GBTB와 GBC의 내용을 첨가했다.

¹¹⁴⁶ 몽골어 駿馬, 영웅.

¹¹⁴⁷ GBB는 아유르바르와다의 아들이 제위에 올랐다고 적고 있다.

¹¹⁴⁸ 『紅史』에는 황경(DMS, DMB: hong khing) 2년, 연우(DMS spen ye'u; DMB spen spe'u) 7년 이 기재되어 있다.

카말라ka ma la의 아들 이순 테무르ye sun the mur는 태정(ta'i ting, 泰定) 1년, 지순(ci shun, 至順) 4년¹¹⁴⁹ 총 5년 재위하였다.

부안투의 아들 시데발라si ti pha la 英宗g.ying khyung 게젠ge gan 황제는 3년 재위했다.

쿠텐go dan에게는 지빅 테무르ji big thi mur 등 아들이 셋 있었다.¹¹⁵⁰

이순 테무르ye sun the mur의 아들 라키팍ra khyi phag¹¹⁵¹은 40일간 집권했고 망갈라maM+gha laM pa의¹¹⁵²의 아들 아난다a nan ta의 아들 울룩 테무르u<t>[l]

¹¹⁴⁹ 연호 명과 기간은 GBB에 없다. GBTB와 GBC에 따라 적었다.

¹¹⁵⁰ 여기에 쿠텐과 그 아들이 적힌 이유를 알 수 없다. 대뽕본 phyi ra 20(GBBR)에는 이 문장 앞에 “쿠텐을 황제라고도 한다(go dan rgyal po'ang zer ro)”는 문장도 들어가 있다. 덴사빠본(GBTB)에는 쿠텐을 황제라고도 한다는 문장이 없다. 앞에서 말한대로 『사까세계사』를 비롯한 사까파의 기록들은 많은 경우 자신들에게 최초로 권위를 부여했던 쿠텐을 겔뽕 rgyal po 즉 대칸/황제로 적었다.

¹¹⁵¹ 라키팍은 티베트어로 양, 개, 돼지를 의미한다. 『元史』에 그의 이름은 ‘阿速吉八’이라고 쓰여 있으나 이는 ‘阿剌吉八’의 오기일 것이다. 「宗室世系表」는 ‘皇太子阿里吉八’이라고 썼다. 이름 앞에 “아阿”가 붙은 것은 몽골어 단어의 어두음에 ‘r’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로 시작하는 단어는 대개 모음이 그 앞에 첨가되며 이는 티베트어 ‘린첸 rinchen (보석)’이 몽골인들에게 ‘이린진irinjin’으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Christopher Atwood, “From Bagisba to Pagba: Mongolians systems for writing Tibetan words”, The 13t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발표문, Ulaanbaatar, July 23, 2013 참고. 일반적으로 아라기팍은 몽골 대칸의 계보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원대는 물론 17세기 저자 미상 『황금사』의 대칸 명단에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 이름에 대해 진득지는 산스크리트어 “rakirbagg(보호, 호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으나(陳得芝, 「藏文史籍中的蒙古祖先世系札記」, 『中国藏学』 2014-4, p. 35) 티베트어 자료들은 티베트어 단어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ra khyi phag”이라고 적고 있다. 세 동물을 나열한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는 알 수 없다.

¹¹⁵² DMB, DMS: mam gha la. ‘망갈람’은 ‘吉祥’의 의미이다.

ug thi mur¹¹⁵³는 살해되었다.¹¹⁵⁴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쿨룩 황제의 장자 코실라ku sha la는 1년간 권좌에 있었고¹¹⁵⁵ 쿠투투go thug 황제라고도 불린다.

둘째 <367> 툽 테무르thog the mur는 天歷the lo 3년과 至順ci shun 2년¹¹⁵⁶으로 5년간 제위에 있었다. 자얀두'ja' yan du¹¹⁵⁷ 황제라고도 한다.¹¹⁵⁸

코실라의 아들 둘 중 작은 아들은 린첸 뵘rin chen dpal¹¹⁵⁹ 황제인데 처음에 즉위하여 至順ci shun¹¹⁶⁰ 한 달 간 집권 후 사망했다. 그 때 점성가들을 불러 점을 치

¹¹⁵³ DMB, DMS: u rug the mur.

¹¹⁵⁴ 울룩 테무르는 南坡의 變의 주동자 중 하나로 태정제는 그를 운남으로 유배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紅史』와 『알롱 조오 교법사』에도 실려 있는데, 『紅史』中譯本이 이 기사와 앞 문장을 연결하여 라기박이 울룩 테무르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쓴 것(pp. 25-26)은 잘못이다. 『紅史』일역본과 『알롱 조오 교법사』중역본은 맞게 번역했다.

¹¹⁵⁵ lo ngo gcig은 滿 1년을 말한다. 『紅史』는 한달 재위했다고 적었다. 코실라는 1329년 1월 28일 즉위하여 그 해 8월 6일 사망했다.

¹¹⁵⁶ 연호 명과 각 기간은 GBB에 없다

¹¹⁵⁷ 몽골어로 '복이 있는'의 뜻.

¹¹⁵⁸ 쿠빌라이부터 몽골 대칸들의 재위 기간과 각 연호는 사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나 다음과 같다. 세조 쿠빌라이 中統 1260-1263, 至元 1264-1294; 성종 테무르 元貞 1295-1297, 大德 1297-1307; 무종 카이샨 至大 1308-1311; 인종 아유르바르와다 皇慶 1312-1313, 延祐 1314-1320; 영종 시데발라 至治 1321-1323; 태정제 이순 테무르 泰定 1324-1328, Zhihe 致和 1328; (천순제 아라기박 天順) 1328; 문종 툽 테무르 天歷 1328-1329; 명종 코실라 天歷 1329; 문종 툽 테무르 至順 1330-1332; 영종(寧宗) 이린진 발 (린첸 뵘) 至順 1333; 순제 토곤 테무르 元統 1334-1335, 至元 1335-1340, 至正 1341-1368.

¹¹⁵⁹ Irinjibal.한문사료의 懿璘質班 혹은 亦憐眞班. 亦이 들어간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몽골어 발음의 특징이다.

¹¹⁶⁰ 대뽕본에는 '至順' 구절이 없다.

니 그 형 토곤 테무르가 새의 해 여섯 번째 달에 즉위하면 세첸 황제와 같아질 것이라고 나왔다. 이에 고관들이 “그 기간에 제위가 비게 되면 누가 국정을 맡겠습니까?” 하니 엘 테무르~~el thi mur~~ 태사¹¹⁶¹가 말하기를 “그 대들 司天監 太史~~se khyim tha'i sa~~.¹¹⁶²들은 다시 한 번 잘 점쳐보라. [120b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황제의 장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동안 국정은 내가 책임 지겠다.”라고 하였다. 여섯 달 동안 제위는 비었고 법률 사무는 엘 테무르가 보았다. 그 후 토곤 테무르는 물-陰-새 해의 여섯 번째 달 8일에 상도~~shang rdo~~의 대궁에서 즉위했다.¹¹⁶³ 그는 至順~~ci shun~~ 1년과 元統~~en thung~~ 2년, 至元~~ci dben~~ 6년, 至正~~ci jing~~ 27년으로 총 36년 재위했는데, 처음 권좌에 앉은 지 26년이 되던 흙-陰-개 해(1358)에 제사~~ti shri~~ 편 꺄~~kun rgyal~~¹¹⁶⁴이 열반에 들었고 몽골¹¹⁶⁵ 수령들이 반란을 일으켜 상도~~shang rdo~~¹¹⁶⁶ 궁이 불에 탔다. 그 때 여래如來의 성스

¹¹⁶¹ 『元史』의 燕鐵木兒(?-1333).

¹¹⁶² 알룬 조오 교법사도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이 단어도 유사하게 나타나나, 마지막 글자가 ~~sa~~가 아니라 ~~pa~~ 즉 ~~si then tha pa~~로 되어 있는데, 티베트어 필기체 ~~pa~~는 ~~sa~~와 그 형태가 유사하여 사본들이 많이 틀리는 글자이므로 ~~si then tha sa~~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¹¹⁶³ 『元史』는 즉위 전의 어린 토곤 테무르가 엘 테무르를 두려워하여 그의 말에 대답을 않자 엘 테무르가 이를 의심하여 오랫동안 즉위하지 못하게 했고 太史들도 역시 토곤 테무르가 즉위하면 천하가 어지러울 것이라고 했다고 하여 몇 개월을 미루었으며 그 기간 동안 국사는 모두 엘 테무르가 처리했다고 썼다. “燕鐵木兒既見帝，並馬徐行，具陳迎立之意，帝幼且畏之，一無所答。於是燕鐵木兒疑之。故帝至京，久不得立。適太史亦言帝不可立，立則天下亂，以故議未決。遷延者數月，國事皆決於燕鐵木兒，奏文宗后而行之。俄而燕鐵木兒死，后乃與大臣定議立帝，... 四年六月己巳，帝即位于上都”(『元史』卷38, 「順帝本紀一」). 또한 권용철, 「元代 중·후기 權臣 정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pp. 218-219 참고.

¹¹⁶⁴ 편가 꺄첸 뵤 상뵤~~kun dga' rgyal mtshan dpal bzang po~~(1310-1358/1359). 『元史』의 公哥儿監藏班藏卜. 토곤 테무르의 帝師였으며 팍빠의 姪孫이다.

¹¹⁶⁵ ~~sog po~~.

¹¹⁶⁶ GBTB·GBC: ~~shang do~~.

러운 치아와 돌로 된 발우鉢盂가 하늘에 이르렀다고 한다.¹¹⁶⁷

그로부터 10년이 된 흙-陽-원숭이 해(1368) 몽골 월 8월 29일 황혼에 대 황제 부자는 대도ta'i tu 궁에서 몽골 땅(hor yul)으로 가야 하게 되었다. <369> 왕권은 중국의 대명ta'i ming 황제가 장악했다고 한다.

또한 전에 항주¹¹⁶⁸의 궁을 몽골인sog po들이 불태웠을 때 만체sman tshe의 왕자가 몽골 황제에게 존경을 표하였으나 적절하지¹¹⁶⁹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쫓겨나 사카로 왔다. 그는 佛法을 수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그 때 [121a 몽골 점술사가 말하기를 “서쪽의 승려가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탈취할 것입니다.” 하므로 그에 따라 [사자를] 보냈더니 만체sman tshe의 라쥘lha btsun¹¹⁷⁰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보였다. 그것을 몽골 황제에게 말했더니 “죽이라!”고 명하였으므로 죽이러 가니¹¹⁷¹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도 만약 죽인다면 내가 부디 다음 생에서 몽골의 왕권을 탈취하게 되기를!”이라는 저주를 남겼기 때문에 漢rgya 大明ta ming 황제로 태어나 몽골 왕권을 빼앗았다

¹¹⁶⁷ 사라졌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치아 사리와 발우는 앞에서 몽골이 남송을 정복할 때 얻은 것이라고 했다. 사천 태사들이 점을 치는 대목에서 여기까지는 『알룬 조오 교법사』의 내용을 저자가 그대로 실었다(yar lung pp. 85-86; 釋迦仁欽德著, 湯池安譯, 『雅隆尊者教法史』,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89, p. 53. 카안 울루스가 멸망하기 전에 완성된 『紅史』는 아마도 후대의 가필로, 『알룬 조오 교법사』에서 인용했다는 출처를 밝히고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Mi rigs dpe skrun khang, 1981, pp. 31-32)

¹¹⁶⁸ 본문에서 상도shang do라고 적고 있으나 남송의 궁이 불탄 기록이므로 항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¹¹⁶⁹ ma lo ba. lo ba는 알맞다, 적절하다, 충분하다는 뜻이다.

¹¹⁷⁰ 왕족 출신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된 자를 뜻한다. 조현이 남송의 황제였고 불교를 깊이 믿고 티베트어를 배워 한문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하는 등의 공을 세웠기 때문에 라쥘이라고 높여 불렀다.

¹¹⁷¹ GBB는 “티베트로(bod du)”.

고 <370> 한다. 그 만체 라편을 죽일 때 피도 우유로 나왔다고 알려져 있다.¹¹⁷²

몽골 토곤 테무르tho gon the mur 황제 시기에 漢地의 왕권을 빼앗긴 실제 원인이 일어난 방식에 대하여 몇 가지 이설이 있지만 그 때 위짱에서 [몽골 조정]에 갔던 박시dpa shri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¹¹⁷³ 왕권을 빼앗기기 약 10년 전¹¹⁷⁴에, 한인 점술가가 “지금 이 왕권에 변화가 생길까 우려되는데, 지금 아드님이 즉위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부친 황제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허락하였고, 고관들도 모두 잘 논의하여 동의했지만, 이를 아들 왕자 아유르시리다라¹¹⁷⁵에게 청하자 그는 “예부터 지금까지 父王이 하늘나라

1172 흰 피는 만체 하편의 무고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조현은 4세 때인 1274년 南宋 마지막 황제위에 올랐고 8세 때 바얀이 이끄는 몽골군에 사로잡혀 대도로 왔다. 쿠빌라이는 그를 瀛國公에 봉하고 대도, 그리고 이후에는 上都에서 살게 해주었으나 18세가 되던 해인 1288년 갑자기 티베트로 추방한다. 『元史』의 기사는 至元 25년 10월 丙子일에 “瀛國公趙顯學佛法于土番”하게 했다고 짧게 언급하고 있다. 『佛祖歷代通載』는 “瀛國公을 도매(脫思麻)路로 가서 인도 서적과 티베트문 경전을 공부하게 했다(勅令瀛國公往脫思麻路 習學梵書西蕃字經)”고 적고 있다(釋念常撰, 『佛祖歷代通載』,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77,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 p. 479) 다른 티베트 사료 『紅史』도 조현 기사를 싣고 있고 『청사』도 그것을 그대로 따랐는데 『한장사집』보다 간략하다. 『청사』는 “세첸 황제가 정권을 잡은 지 13년, 만체의 황제 幼主g.ye'u ju가 즉위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바얀 승상ba yan ching sang이 漢地の 영토를 취했다. 황제는 [만체의 황제를] 사까로 보내 하편lha-btsun으로 만들었고 게젠ge gan 황제 시기에 그를 죽였는데 피가 우유로 흘렀다”(Gos Lo tsā ba Gzhon nu dpal, Deb ther sngon po, Si khron Mi rigs Dpe skrun khang, Chengdu, 1984, p. 81)라고 쓰여 있다. 이 사료들은 조현의 무고함을 보이는 것으로 그쳤는데 『가뵈익창』은 한 발 더 나아가 그가 억울하게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서 몽골의 권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것이 몽골이 한인에 의해 쫓겨난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¹¹⁷³ 여기부터 주원장의 흥기와 정권 탈취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는데 GBB에는 이 기사 전체가 결락되어 있다.

¹¹⁷⁴ 1358년경이 된다.

¹¹⁷⁵ 아유르바르와다a yu par pa ta로 되어 있으나 토곤 테무르의 아들은 기황후 소생의 아유르시리다라이다.

에 가지 않았는데¹¹⁷⁶ [그 아들을] 왕권에 임명하는 관행이 없었고, 지금 황제께서 신체 건강하게 계시고, [121b] 두 법(政敎)¹¹⁷⁷이 번창하며 <371> 발전하고 있는 이때에, [나를] 제위에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 때 만째sman rtse 국토를 바로잡는 군대를 일으켜야 하게 되었고, 수령에는 황태자를¹¹⁷⁸ 임명했다. 약 3백만의 군사를 보냈는데, 만째에 이르러 큰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때 궁 안에 병사 열명의 우두머리인 사람이 있었는데,¹¹⁷⁹ 그 자신이 병에 걸렸고 아들은 어린데 군역을 대신할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하자 랍데lab de라고 하는 [그의] 福田이며 평소 [그가] 재물을 바치던 비천한 출신의¹¹⁸⁰ 한인 승려를¹¹⁸¹ 보냈고 [승려] 역시 시주-복전 관계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또 식량 등을 보고서 군복을 입고 나갔다. 대군의 무기를 점검할 때 황태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승려에게 군복이 주어진 <372> 이와 같은 것은 두 법을 알보는 것이며¹¹⁸² 규범을 해치는 것이므로 그를 재판에 넘기고, 그 휘하의 10인은 각각 곤장 107대를 쳐라.”고 하였고, 궁핍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아뢰었으나, 그를 수없이 곤장을 쳐서 거의 죽게 했다. 매를 맞은 동료들도 역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를 둘러싸고 전체 군대의 뒤에 남았다. 얼마 후 그들이 몸이 회복되고 [122a] 그 반란승이 마음을 보이자, [다른 이들도]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동의했다.

¹¹⁷⁶ 원문에는 “부왕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라고 쓰여 있으나 문맥상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GBC는 이를 그대로 “부왕이 하늘나라로 갔는데(가고 나서)”로 두고 뒤의 “관행이 없었다”를 “있었다”로 고쳤다.

¹¹⁷⁷ khrimis gnyis '두 법'. 세속 정치와 불교 두 방면을 뜻한다.

¹¹⁷⁸ 단지 “rgyal”만 적혀 있으나 앞뒤 내용을 보아 황태자(rgyal bu)로 적어야 할 것이다.

¹¹⁷⁹ de ras pho brang khog gi/ dmag mi bcu dpon thob pa gcig gis. 십호장.

¹¹⁸⁰ 무괴rmu rgod는 고대 티베트의 가장 낮은 계층을 가리킨다.

¹¹⁸¹ 유사한 내용이 저자 미상의 황금사에도 실려 있는데 미래의 주원장의 이름이 “주게(jüge)”로 나와 있다.

¹¹⁸² 즉 政敎 분리의 원칙을 해쳤다는 것.

궁의 서쪽 큰 호수에 있는 작고 험한 땅을 차지하고 나서, 먼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만나면 보는 대로 모두를 죽이거나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차차 그의 휘하에 <373> 들어와야 하게 되었고 그의 수령들과 시종들에게는 큰 힘으로 뺏은 장원과 처 등도 생겼다. 마침내 1, 2년이 지나고 나서 강서성 *gyang si zhing*이라고 하는 한 省*zhing* 전체가 그의 세력 하에 들어오게 되니 그 때 랍데가 몽골 왕에게 요청을 보내 “당신의 아들이 내가 죄가 없음에도 처벌했는데 지금 내가 휘하에 성 하나를 둘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왕¹¹⁸³*dbang*의 직무와 금인을 주어야 하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의 근원과¹¹⁸⁴ 가계를 조사해 보아라. 만약 몽골인이면 그가 청한 대로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나서 “그는 漢人 평민¹¹⁸⁵입니다.”라고 아뢰니, “그렇다면 왕¹¹⁸³*dbang*의 호칭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여 그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전하니 그가 분노하였다.

그 때 그에게는 이제 막 말을 하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처음 말할 때 몽골 황제와 말과 행동을 [122b] 똑같이 하므로 아버지가 상서로운 징조라 여기고 황제에게 다시 요청을 보내 “황제 그대가¹¹⁸⁶ 내가 원하는 대로 직을 주면 나도 역시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못 하겠다면 나 스스로 왕의 직위에 오르면 된다. 지금부터 내 영토에서는 그대의 명령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때부터 자신을 大明王¹¹⁸⁵*ta'i ming dbang*이라고 칭하고 모든 대수령들에게도 문서를 주었으며 그 권세가 해마다 번성하게 되었다. 그의 명성을 듣

¹¹⁸³ *dbang*는 발음이 ‘왕’이고 티베트어 자체로는 ‘힘을 부여함’, ‘灌頂’을 의미하므로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라고도 볼 수 있으나 뒤에서 토곤 테무르가 그에게 ‘*dbang*’의 호칭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아 한자어 王의 음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¹¹⁸⁴ *rtsa ba*. 기초, 기본, 뿌리를 의미하며 한문 사료에 보이는 근각根脚에 해당하는 의미였을 것으로 보인다.

¹¹⁸⁵ *rgya dmangs rigs*. “*rgya*”는 漢人, “*dmangs rigs*”은 일반인, 보통 사람을 뜻한다.

¹¹⁸⁶ 大明王이 처음 황제에게 요청을 할 때는 “*khyed*” 즉 “당신”이라고 지칭했으나 왕 칭호가 거부된 후에는 “*khyod*” 즉 “그대, 너”라고 부르고 있다.

고 처음 그를 대리 병사로 보냈던 施主와 <375> 十戶 아래 있던 동료들도 그에게 와서 만나, 예전에 일어난 일과 처벌받아 생긴 마음을 말했다.

그 뒤 달과 날짜를 확실히 하고 나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대 궁 안에 있는 자들이 안에서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라.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황제의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몽골의 왕권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할 것에 동의하고, 시기를 정하여 집 주인¹¹⁸⁷ 대신들이 궁에 이르렀고, 이전에 벌을 받았던 승상ching sang 하나도 해질 무렵부터 랍데의 [123a] 대군이 오고 있다는 흥흥한 소문을 퍼뜨렸다. 그때 그 승상으로 하여금 궁 안의 다수의 주민들에게 “황제의 명령이므로 내일 새벽 궁의 구석에 황색 깃발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면 그때 그대들의 지붕에도 황색 깃발을 각각 세우라.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포고하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그렇게 하여 궁 안의 [민가의] 3분의 1 이상이 집 꼭대기에 깃발을 세워 두었고, 황제가 “이것은 무엇인가?” 물었다. 승상은 “랍데의 군대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궁의 청소ching so와 나라의 대부분이 어제 이후 그에게 귀부했다고 합니다. 성 안에 깃발을 세운 이 자들도 우리에게 반란하고 그의 깃발을 표시한 것이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제께서도 그에게 투항하거나 몽골 땅으로 도망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곧 점술사들을 불러 점을 치니 “이번에는 왕권을 잃었습니다. 황제께서는 몽골 땅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곳의 왕권은 몽골이 다시 잡을 것입니다.”라고 말하하였으며, 이를 확실하다고 믿고 황제 토곤 테무르 부자는 [123b] 주요 몽골 고관들과 십만이라고 일컬어지는 군사 등을 데리고, 寶印을 비롯하여 매우 귀중한 보물은 무엇이든 가지고, 말과 소, 낙타 등을 싣고서 황혼에 궁의 북쪽 문으로 빠져나가 자신들의 몽골 땅에 이르렀다고 한다.¹¹⁸⁸

¹¹⁸⁷ gnas po. 집주인, 여관 주인 등을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¹¹⁸⁸ 토곤 테무르는 1370년 제홀의 북서쪽에 있는 응창에서 사망했다. 그의 아들 아유쉬리 다라는 카안 위를 계승하였으나 그 직후 임시 수도에서 명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압도당하여 소규모의 군대와 함께 고비 사막을 지나 카라코룸으로 도망쳤고 1378년 사망할 때가

그 후 세 밤 동안에 외부로부터 군대는 전혀 오지 않았고 안에서는 랍데 쪽의 군에 고용된 사람도 없었다. 황제가 이르렀던 문에 닫는 사람도 없었고 主宮¹¹⁸⁹은 빈채로 남아 있었다. 몽골에 충성심 있는 사람 하나가 황제에게 청하여 몽골군에 명하여 오게 하라 했지만 <378> 돌아오지 못했고, 세 밤이 지난 아침, 전에 강력한 랍데 父子¹¹⁹⁰가 모은 천 명 정도가 주궁에 이르자 곧 복문을 닫고 남문으로 그들을 차례로 들어가서 “내일 오전부터 각 戶에 대해 한인과 몽골인을 조사하여 몽골인은 백 명씩 모아 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뒤 랍데의 아들을 군주로 임명하고 대명 황제 rta'i ming rgyal po라고 이름 붙이니 나라의 군주가 되었다. 지금도 漢地의 부대 깃발이 모두 황색이 된 것이 이것이 시초이며 궁안에 황색 깃발을 세워 두는 것도 [124a] 그 때문이라고 한다.¹¹⁹¹

지 그 곳에서 살았다. 아유시리다라는 몽골어로 빌릭투 카안, 한자로 昭宗이라고 묘호가 붙여졌다. 아유시리다라의 동생 토구스 테무르가 복원의 카안 지위를 계승하였으며 그도 역시 중국식 연호 天元을 택했고 묘호는 몽골어 우쉬칼(Uskhal) 카안이었다.

¹¹⁸⁹ pho brang rtse. 궁의 꼭대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

¹¹⁹⁰ 앞에서 몽골 황제 父子에 대하여는 높임말 “압새 yab sras”를 썼고, 대명왕 父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표현인 “파부 pha bu”를 쓰고 있다.

¹¹⁹¹ 이 기록은 『한장사집』에만 고유한 내용으로, 이 한인 승려 랍데,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몽골 황제를 닮은 아들”의 이야기는 18세기 이후 몽골 사서에 실리는 ‘주게’ 설화와, ‘영락제 몽골인’ 설화의 가장 이른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저자 미상의 『황금사』에는 주게가 툽토가(툽토)와 카라장을 모함하여 파면시키고 토곤 테무르의 重臣이 되었다가 나중에 군사와 재화를 가지고 대도를 공격하여 토곤 테무르가 몽골땅으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다(김장구, 2014, pp. 86-88). 이 내용은 이후 그 내용과 길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러 몽골 사서에 실린다. 지금까지 『한장사집』의 이 기사는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저작 자체가 몽골학 연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후대 몽골 저작 속의 ‘주게’ 설화에 대하여는 여러 편의 연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엘베스콕은 그 설화를 분석하고 그 기록이 17세기 초의 알탄 칸전(*The Jewel Translucent Su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에는 보이지 않는데 몽골이 청에 흡수된 뒤인 17세기 후반에 출간된 몽골 사서에는 모두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이 기록이 단일한 몽골 이상에 대한 토곤 테무르와 립단 칸의 실패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토곤 테무르가 주게에게 제국의 일부를 다스리는 권한을 준 것, 즉 권력의 분산이 제국 존립 실패의 원인이

몽골 최초의 황제 태조tha'i dzung 칭기스 황제jing gir rgyal po가 흙-陽-호랑이 해(1218)에 漢地의 왕권을 성취했을 때부터¹¹⁹² 마지막 토곤 테무르tho gon the mur 황제가 흙-陽-원숭이 해(1368)에 왕권을 <379> 잃은 때까지 151년이 지났고 몽골의 왕통도 15대가 일어났다. 法主 사까 뽀디따가 63세이던 나무-陽-용해(1244)에 몽골이 보낸 최초의 금자사신 도르타체rdor tha che가¹¹⁹³ 사까로부터 [가도록] 초대하러 이르고 나서 길에서 3년이 갔으니 66세이던 불-陰-양해(1247)에 장외 byang ngos의 幻化寺(spyrul pa sde)에서 몽골 황제 예첸 쿠텐e chen go dan과¹¹⁹⁴ 만난 때부터 몽골이 왕권을 잃은 때까지 몽골과 사까파가 원최 관계를 116년간 맺었다.¹¹⁹⁵

세첸 황제의 작은 비의 아들 아록체a rog che¹¹⁹⁶를 해가 지는 쪽을 관할하게 했으니 그는 漢地와 티베트 경계에 머물면서 위짱dbus gtsang에도 와서 많은 반란을 진압했다. 그의 아들 테무르 부카the mur sbo kha도¹¹⁹⁷ 대 사원¹¹⁹⁸의 복무자

있던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설화는 명에 대한 몽골의 인식이 아니라 청 정복을 몽골이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Johan Elverskog, "The Story of Zhu and the Mongols of the Seventeenth Century," *Ming Studies*, vol. 50, 2005, pp. 39-76).

¹¹⁹² GBB는 "티베트 위짱으로 최초로 칭기스 황제가bod dbus gtsang du thog mar hor jing gir rgyal po라고 썼다.

¹¹⁹³ "위대한 도르타". 처음 몽골군을 이끌고 중앙 티베트를 침략한 도르타는 일반적으로 티베트인들에 의해 "도르타 낙뽀 dor ta/tha nag po" 즉 "나쁜 도르타"라고 불리며 저자 뽀조르 상뽀가 사까 소속이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부른 것이다.

¹¹⁹⁴ 여기서도 쿠텐을 황제rgyal po라고 부르고 있다.

¹¹⁹⁵ 랍데 기사 전체와 앞이 단락은 GBB에 결락되어 있다.

¹¹⁹⁶ 앞에서는 아록체에 대해 세첸 황제의 비 샤궤마zhwa gon ma 소생이라고 썼다.

¹¹⁹⁷ 鎮西武靖王 鐵木兒不花.

¹¹⁹⁸ 사까 사원.

들과 <380> 법률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의 아들 랍데lab de¹¹⁹⁹가 부친의 자리에 임명되었는데 위짱에는 오지 않았다. [124b] [테무르 부카의] 작은 비의 아들 최뵐chos dpal¹²⁰⁰에게 진서무정왕(tsing dbang)¹²⁰¹의 호칭을 주었고 그는 위짱에 이르러 꺄기꺄rgyal gyi rtsib 산의¹²⁰² 산자락에서 서부 몽골(stod hor) 군을¹²⁰³ 진압하고 디궁 곱빠를 처벌했다. 그의 자손들 리짱왕ri rtsing dbang 빠드마파pad+ma twa와¹²⁰⁴ 뿌라드자나왕prad dza+nywa dbang¹²⁰⁵ 등은 가춘ga chun¹²⁰⁶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후에 위짱에 간 왕자 황태자hong tha'i tshe 종핑 첸뵐rdzong phing chen po¹²⁰⁷ 부자도 역시 그러하다.

¹¹⁹⁹ 老的 혹은 老的罕. 지대 2년(1309) 雲南王에 봉해짐. 앞의 “미래의 주원장”의 이름도 랍데였다.

¹²⁰⁰ 한문 사료의 焦八 혹은 撈思班. 최뵐은 鎮西武靖王이었다. 집사에는 테무르 부카의 아들로 샤스카바Shâskaba와 주시박Jûshbâk이 적혀 있다.

¹²⁰¹ 진서무정왕에 대한 축약 표기.

¹²⁰² 라파 지역에 있는 유명한 산. GBTB GBC: rgyal gyi rtsi ri. at the famous mountain of Gyalgyi Tsiri in Latö (La stod Rgyal gyi Rtsi ri), Cyrus Stearns, *King of the Empty Plain: The Tibetan Iron Bridge Builder Tangtong Gyalpo*, 2007 참고.

¹²⁰³ stod hor. 서부 몽골 혹은 상부 몽골. 이에 대하여는 최소영 석사논문 참고.

¹²⁰⁴ GBTB: pad ma ta. 『元史』의 八的麻的加(*Badimadiga). 그는 西平王에 임명되었다. 집사에는 아우룩치의 아들로 ‘이질 부카’가 기록되어 있다. 이질 부카가 빠드마디가의 異名인지는 불분명하다. 리짱왕ri rtsing dbang은 몽골 카안이 복주 후 복원에서 이전의 티베트 백란왕 대신 티베트의 윈씨에게 내려주던 칭호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전의 쩡왕rtsing dbang 즉 진서무정왕과 같은 것인지 알 수 없다.

¹²⁰⁵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를 뜻하는 뿌라즈냐prajña로 보이나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¹²⁰⁶ 河州일 가능성이 있다. 토번등처선위사사도원수부吐蕃等處宣慰使司都元帥府가 하주에 있었다.

¹²⁰⁷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몽골 토곤 테무르 황제의 손에서 漢 대명 황제 $rt'a'i\ ming\ rgyal\ po$ 가 흠-陽-원숭이 해(1368)에 漢地의 정권을 빼앗은 이래 올해 나무-陰-호랑이 해 - 공가르를 탈취하기 위해 위짱에서 전란이 일어난 때-¹²⁰⁸ 第八宮이 위dbus에 있는 이때까지 67년이 지났다.¹²⁰⁹

몽골의 왕통을 차례로 요약하면,¹²¹⁰

처음에, 하늘에서 온 보르타 체 $sbor\ ta\ che$ 부터 예수가 [바]두르 $ye\ su\ ga\ dur$ 까지 19대는 몽골 땅 자체에서 왕통이 차례로 일어났다.

漢地의 왕권을 처음으로 잡은 중생의 보호자 $'gro\ ba'i\ mgon$ 칭기스 황제 $jing\ gir\ rgyal\ po$ 는 나무-陽-말 해에 태어나셨고 33세가 되던 흠-호랑이 <381> 해부터 23년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두 번째 황제는 우구데이 $o\ ko\ ta'i$ 황제이며 6년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세 번째 황제는 구육 $go\ yug$ 이라는 황제이며 6개월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네 번째 황제는 몽케 $mong\ gor$ 라는 황제이며 9년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땅의 보호자 다섯 번째 황제는 세첸 황제이며 나무-陰-돼지해에 [나셨고] 34세가 되던 쇠-원숭이 해부터 35년 동안 사람의 군주로 [129a] 국정을 보호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여섯 번째 황제는 울제이투 $ol\ ja\ du'i$ 황제이며 햇수로 13년간 올바르게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¹²⁰⁸ GBB에는 없다.

¹²⁰⁹ 즉 지금이 1436년. GBTB와 GBC에는 이 단락 위치가 다르다.

¹²¹⁰ 몽골 왕통을 요약한 이 단락 전체는 GBB에 없다. “몽골의 왕통 $hor\ gyi\ rgyal\ rabs$ ” 구절은 붉은 색으로 되어 있다.

몽골의 일곱 번째 황제는 쿨룩go lug이라는 황제이며 5년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여덟 번째 황제는 부얀투bu yan du'i 황제이며 - 아유르바르와다a mu bar pa rta라고도 한다 - <382> 9년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아홉 번째 황제는 게젠go gan이라는 황제이며 - 시데발라si ti pa la¹²¹¹라고도 한다 - 3년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열 번째 황제는 이순 테무르me sun the mur라는 황제이며 5년 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열 한 번째 황제는 라키팍ra khi phag이라는 황제이며 40일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열 두 번째 황제는 코실라ku sha la라고 하며 1년 간 집권하셨습니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열 세 번째 황제는 자얀투'ja' yan du'i 황제이며 5년간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열 네 번째는 린첸 뽕rin chen dpal이며 1개월 집권하셨다. 그에게 예경합니다.

몽골의 열 다섯 번째 황제 토곤 테무르tho gon the mur 황제는 물-陰-새 해부터 흙-원숭이해(1368)의 여덟 번째 몽골 달 29일 이후 36년 되는 해까지 法¹²¹²에 따라 <383> 보호하셨으니 그에게 예경합니다.

왕통을 보호한 15대 중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129b] 칭기스jing gir께서 흙-호랑이 해를 시초로 하여 마지막까지 토곤 테무르가 흙-원숭이 해에 몽골 땅에 이른 때까지 150하고도 1년을 국정을 보호하였다.

불-陰-양 해 (1247)에 양주에서 법주 사까 뽕디따가 예젠e chen과¹²¹³ 만나 흙-원숭이해(1368)까지 몽골과 사까가 시주-북전 관계로 연결된 110년하고도 6년 간 가

¹²¹¹ 뒤에 “ga si khyung ga”라는 구절이 붙어 있는데 의미를 알 수 없다.

¹²¹² 佛法을 가리킨다.

¹²¹³ 쿠텐을 가리킨다.

르침의 전통을 분명히 하신 것에 예경합니다.

<384> 堯帝ye hu ti¹²¹⁴라고 하는 당thang唐의 황제 시기에 나라의 이름을 당thang이라고 했다. 그 뜻은 나라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¹²¹⁵ 그 후 禹g.yung 황제¹²¹⁶ 때 나라의 이름을 夏he'i라고 하였으니, 나라를 능히 증장시킬 수 있는 공덕이라는 의미이다.¹²¹⁷ 그 후로는 왕조 名으로 나라에 이름 붙이지 않았는데 몽골의 징기르 황제가 나라의 이름을 대원rta'i dben이라고 붙였다.¹²¹⁸ 그 뜻이 어떤 것인지 易yi¹²¹⁹이라는 문서 안에 있으니, 건원khen dben(乾元)이라는 단어이고, 광활하다는 의미이며 이를 확대하면 진실하고 확고한 거처의 [130a] 의미라고 한다.¹²²⁰ 『大元通制rta'i dben mthong ji』라는 책은 또한 광대한 나라의 크고 작은 법률 사무가 행해지는 방식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것이 『大元通制』이다. <385> “統領釋教tho ling byus skya'u”¹²²¹를 티베트어로 번역하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지키는 대 영토의 스승이라고 한다. “灌頂國師 kon+ting ku shl 靖國公'chang gu'i gung”은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金剛 上師라고 한다. 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dhim zam lu son wi <pi>[si] du dben sha hu의 수령은 다수의

¹²¹⁴ 唐堯. 五帝 중 한 명.

¹²¹⁵ 『說文解字』는 唐의 의미를 “唐, 大言也.”라고 하고 『白虎通』은 “唐, 蕩蕩也. 道德至大之貌也.”라고 적고 있다.

¹²¹⁶ 五帝 중 하나인 禹王.

¹²¹⁷ 『說文解字』는 “夏, 中國之人也.”라고 했다. 『康熙字典』의 夏 풀이는 “寬假萬物, 使生長也.”라고 하여 위의 뜻풀이와 가깝다.

¹²¹⁸ 물론 大元은 칭기스 칸이 아니라 쿠빌라이 재위기에 정한 이름이다.

¹²¹⁹ 즉 易經.

¹²²⁰ “大哉, 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¹²²¹ tho ling byus skya'u의 발음은 토링쥬까우이고 중국어 음역이 분명한데, 뒤의 티베트어 뜻풀이를 보면 통령석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寺院의 주인이라고 한다.¹²²²

티베트 위와 쟁에 처음 몽골의 칭기스 황제가 漢地의 수도에 이르러 나라 전체를 진압하고 아들들에게 땅을 분봉할 때 그리고 또한 군주들이 차례로 재위할 때, 또한 라데lha sde¹²²³와 미데mi sde¹²²⁴를 조사하고 토지를 측량하고 戶 수를 셀 때 그 방식이 어떠했는가.

몽골 황제 토곤 테무르가 즉위한 후 토슈아누간tho zhu a nu gan¹²²⁵이라는 사람과 킵착타이 平章ges chag rta'i phing chang¹²²⁶을 파견하여, 쉰누 왕축이 위짱

¹²²² 여기까지는 GBB에 없다. 저자가 여기에 유독 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를 거론한 것은 1990년 위짱에서 일어난 디궁의 난 이후 몽골 정부가 중앙 티베트 즉 위짱 지역에 설치한 기관이 烏思藏納里速古兒孫 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府였기 때문일 것이다. “烏思藏 納里速 古兒孫”은 “위dbus 쟁gtsang 응아리 꼬르숨nga' ris skor gsum”의 음사이며 위 쟁아리 3 圍 라고 번역할 수 있다. 納里速 즉 아리mNga' ris는 중앙 티베트 서북쪽을 가리키며 전통적으로 구게, 푸랑, 망월 3 구역(skor gsum)으로 나뉘므로 아리 꼬르숨이라 불린다. 그 이전에는 중앙 티베트에 烏思藏宣慰使司가 있었다.

¹²²³ 寺屬 인구.

¹²²⁴ 라데와 대비되는, 민간 수령에게 속하는 인구.

¹²²⁵ 인명과 직책 명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

¹²²⁶ 한문 사료의 欽察臺. 위구르 이디쿠티 가문 출신으로 선정원사에 임명되었다. 티베트 사료에 geb-cag-rta'i, ges chag-rta'i, gab-chag-ste, gye-phyag-ta 등으로 기록된다. 토곤 테무르 재위기인 1335년 말 혹은 1336년 초에 왕축 찰위와 함께 티베트에 파견되었다. 그들의 업무는 저명한 까르마파 승려 된외 겐첸don yod rgyal mtshan 랑중 도르제를 대칸의 조정에 초대하고 인구조사를 갱신하며 세금 징수를 하는 것이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Luciano Petech,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the Yüan-Sa-skyä period of Tibetan history*,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1990, pp. 96-97 참고.

뵤첸을 再任하고 있을 때¹²²⁷ 인구 조사와 호수 조사, 몽골 戶(hor dud) 등이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¹²²⁸

기둥 여섯 개 규모의 집 하나 그리고 12켈khal의 몽골 씨¹²²⁹를 뿌릴 수 있는 땅, 사람은 부부와 자식, 남녀 시종 등 [130b 여섯 명, 가축은 馱畜sgal 耕畜rmos 承畜bzhon 세 종류, 머리가 큰 염소와 양 두 종류에 얼룩인 것mgo se 스물 네 마리가 있는 그와 같은 戶를 완전한 몽골 戶(hor dud)라고 하고 있다. 50 몽골 호를 1 땅고(rta mgo)¹²³⁰, 두 개의 땅고를 1 百戶brgya skor라고 한다. 이것이 열이면 천호stong skor, 이것이 열 모이면 1 만호khri skor라고 한다. 모든 만호에는 라데lha sde 4개 천호와 미데mi sde 6개 천호가 있어야 한다.¹²³¹ 만호 열 개를 1 路glu¹²³² 라고 하며 이것이 열이면 1 성zhing이라고 한다.¹²³³

¹²²⁷ 원왕의 두번째 임기는 1290년 디궁의 난 이후다.

¹²²⁸ “호르 뒤hor dud”는 글자 그대로는 “몽골 연기”를 뜻하며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의 課稅戶에 대한 명칭이다. 티베트에서의 몽골의 인구조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Gray Tuttle and Kurtis R. Schaeffer, pp. 235-238 참고.

¹²²⁹ hor son. GBTB, GBC는 “dpon(수령, 우두머리)”으로 썼으나 대뽕본 “son” 즉 “씨앗”을 따랐다. 1켈은 25~30파운드 즉 11kg~13kg 정도의 무게다.

¹²³⁰ 50호를 말하며 의미상으로는 馬頭의 뜻.

¹²³¹ 라데는 사원에 속하여 요역과 차세를 부담하는 호이며 미데는 만호장 등에 속했다.

¹²³² GBB: glu.

¹²³³ 『元史』兵志의 萬戶, 千戶, 百戶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兵을 관장하는 관리[에 대하여]는 병사의 수의 많고 적음을 살펴서 작질의 고저를 정했다. 만 명의 장은 萬戶, 천 명은 千戶, 백 명은 百戶였다. 세조 시에 관제를 크게 고쳐서 안으로(內) 五衛를 두고 宿衛 제군을 총괄하게 하였다. 衛에는 親軍都指揮使를 두었다. 밖(外)에는 만호 아래 總管, 천호 아래 總把, 백호 아래 彈壓을 두고, 樞密院을 세워 그것을 총괄하게 하였다. 사방에 일이 있으면 행추밀원을 세우고 일이 끝나면 폐하고 [업무를] 都鎮撫司에 옮겨 행성에 속하게 하였다. 만호 천호 백호는 上中下로 나누었다. 만호는 金虎符를 찼다. 符는 옆드린 호랑이 모양이었고 머리는 진주였으며 3珠, 2珠, 1珠의 구별이 있었다. 천호는 金符를 [찼고] 백호는 銀符[를 찼다]. (典兵之官, 視兵數多寡, 爲爵秩崇卑. 長萬夫者爲萬戶, 千夫者爲千戶, 百夫者爲百戶. 世

이와 같은 省 11개가 몽골 세첸 황제se chen rgyal po 시기에 그 세력 하에 들어왔으니 省들의 이름은 <387> 대도城ta'i tu'i mkhar 안에는 中書省 cong [zhi] zhing,¹²³⁴ 밖에는 하남성ho nam zhing, 영북성?zhing pi zhing,¹²³⁵ 감숙성gam zu'i zhing, 사천성si chon zhing, 운남성 g.yu nam zhing,¹²³⁶ 강서성gyang si zhing, 강절성 gyang ca'i zhing,¹²³⁷ 호광성?gu rum zhing,¹²³⁸ 요양성le'o yang zhing이다. 티베트의 3 첼카chol kha¹²³⁹는 완벽한 성 하나가 되기에는 모자라지만¹²⁴⁰ 라마¹²⁴¹의 거주지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진 곳이므로 1성으로 치기 때문

祖時，頗修官制，內立五衛，以總宿衛諸軍，衛設親軍都指揮使；外則萬戶之下置總管，千戶之下置總把，百戶之下置彈壓，立樞密院以總之。遇方面有警，則置行樞密院，事已則廢，而移都鎮撫司屬行省。萬戶、千戶、百戶分上中下。萬戶佩金虎符。符趺爲伏虎形，首爲明珠，而有三珠、二珠、一珠之別。千戶金符，百戶銀符。宋濂 撰，『元史』卷98，志46，兵一」”

¹²³⁴ GBB: cong [zhi] zhing.

¹²³⁵ GBB: zhim zi zhing.

¹²³⁶ GBB: hu nam zhing.

¹²³⁷ GBB: byang ci zhing.

¹²³⁸ GBB: gu ru zhing.

¹²³⁹ GBTB: chol kham, 일반적으로 chol kha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있는 대뽕본을 따랐다. 위dbus, 짱gtsang, 북서부의 아리mnga' ris 세 지역을 가리키는데 후대에는 중앙 티베트 즉 위짱, 도매(암도), 도캄(캄) 세 지역을 티베트 3개 첼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첼카chol kha gsum 개념에 대하여는 Eveline Yang, “Tracing the *Chol kha gsum*: Reexamining a Sa skya-Yuan Period administrative Geography,” *Revue d'Etudes Tibétaines*, no. 37, December 2016, pp. 551-568 참조.

¹²⁴⁰ 중앙 티베트에는 13개 만호가 있었으나 각 만호의 호수는 많아야 3천여 호였다. 몽골 제국 시기 萬戶府는 상, 중, 하로 나뉘고 下萬戶의 호수가 3천호였다. “至元二十一年二月十六日 樞密院官 同中書省官 御史臺官 奏准 萬戶千戶百戶等官員 職名品級 上中下 萬戶府。上萬戶府 七千軍之上，達魯花赤一員，萬戶一員，副萬戶一員，前件達魯花赤萬戶，俱作正三品，虎符，副萬戶作從三品 虎符；中萬戶府，五千軍之上，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副萬戶一員，前件達魯花赤萬戶，俱作從三品，虎符，副萬戶作正四品，金牌；下萬戶府，三千軍之上，達魯花赤一

에 [티베트를 합쳐서 모두] 11개 성이라고 한다.¹²⁴²

직위가 배열되는 순서는 십호장(bcu dpon), 50호장(lnga bcu dpon), 백호장(brgya dpon), 천호장(stong dpon), 만호장(khri dpon), 路의 다루가치da ra kha che이며, 3路를 다스리면 路軍民萬戶¹²⁴³라고 하는 이름과 수정 인을¹²⁴⁴ 하사한다. [131a] 티베트에서는 뵘첸 사까 상뵘에게 주었다. 또한 수령들에게는 일반적으로 等三路宣慰使[司]都元帥¹²⁴⁵의 호칭과 <388> 虎頭 6陵gling의 銀印¹²⁴⁶ 등을 하사한다. 뵘첸dpon chen이라는 것은 티베트인들이 라마의 侍者에 대해 큰 이름을 붙인 것이다.¹²⁴⁷ 철카chol kha라는 것은 몽골 황제가 라마에게 관정의 대가로¹²⁴⁸ 바친

員，萬戶一員，副萬戶一員，前件達魯花赤萬戶，俱作從三品，虎符，副萬戶作從四品，金牌。”『元典章』元刻本，吏部，定奪軍官品級，pp. 129b-130a; Ch'i-ch'ing 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78, pp. 170-171.

¹²⁴¹ 팍빠를 가리킨다.

¹²⁴² 元の 행정은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많았다. 원대 행정 제도에 대하여는 李治安, 『行省制度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0.

¹²⁴³ GBTB: klu gun min dben hu; GBB: klu gun min dban hu.

¹²⁴⁴ shel gyi tham kha.

¹²⁴⁵ GBTB: dhing zam lu son wi <pi>[si] du dben ba hu; GBB: dhing zwam lu son wi si du dbyen sha hu.

¹²⁴⁶ stag mgo 虎頭.

¹²⁴⁷ 사까파에는 사원의 최고 지위인 사까 주지와 세속 업무를 처리하는 수장인 뵘첸이 있었는데 사까가 티베트를 지배하면서, 뵘첸이 사실상 사까 뿐 아니라 티베트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다. 그는 13개 만호로부터 요역이나 군역을 징발할 수 있었으며 예를 들어 디궁이 사까에 대항하여 일어난 디궁의 난(1285-1290) 때는 뵘첸이 징발한 각 만호의 군대가 몽골의 지원군과 함께 디궁을 격파했다.

¹²⁴⁸ 첫번째 관정은 1256년에 있었다.

도피와 도매, 위짱 등에 이름 붙인 것이다.¹²⁴⁹ 漢地와 몽골에는 省이나 천호 만호 등만 있을 뿐 철카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省이 되기에 충분하면 省의 대수령이라는 지위에 황족과 부마를 임명하며 왕dbang의 호칭과 금인gser gyi tham kha,¹²⁵⁰ 금패gser sgor, 은패dngul sgor를 주는 것이다. 또한 대중소 셋으로 구분되는 명칭을 가진 제왕들을 상중하 세 단계의 직무에 임명한다고 한다.

국토를 안정시키기 위해 <389> 황제 부자에게 아침 없는 권고를 여쭙고¹²⁵¹ 황족과 수령들이 뇌물을 받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131b] 고치고 잘못을 바로잡는 관청인 臺署tha'i sa가 셋 있는데 본대ku'i thai¹²⁵² 관청은 대도 ta'i tu¹²⁵³에 있고, 西臺si tha'i는 京兆府kim chang hu¹²⁵⁴에 있으며 南臺gnam tha'i는 항주hang byi'u에 있다. 세 어사대tha'i sa 아래에는 스물 네 곳의 廉訪司glen hang zi¹²⁵⁵가 있다. 찬라mtshan la¹²⁵⁶ 또는 사첸랑sa chen lang, 쇤하shon ha,¹²⁵⁷ 쇤밍bzhing ming,

¹²⁴⁹ Eveline Yang은 출카가 사까파가 팍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강조한 단위였으며 사까 사망 이후 100년, 원 멸망 이후 수십년이 지난 『한장사집』과 『사까세계사』에 나타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카는 위짱, 도매, 도캄이 아니라 위, 짱, 아리의 좁은 지역이라고 보았다. 관련 내용은 Eveline Yang, “Tracing the *Chol kha gsum*: Reexamining a Sa skya-Yuan Period Administrative Geography,” *Revue d'Etudes Tibétaines*, 2016, no. 37, pp. 551-568.

¹²⁵⁰ GBB: gser gyi dam kha.

¹²⁵¹ snyan bskul. 촉진하다, 독려하다의 높임말.

¹²⁵² GBB: sku'i thai.

¹²⁵³ GBB: tA'i tu.

¹²⁵⁴ GBB: kiM cha huM.

¹²⁵⁵ glen han si. 元初 提刑按察使였으며 1291년 桑哥 숙청 후 肅政廉防司로 바뀌었다. 《元典章》的一件公文说：“至元二十九年正月，御史台承奉中书省札付，奉圣旨：各道提刑按察司改为肅政廉访司，其所责任与前不同。”

¹²⁵⁶ 찬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다. 찬라에 해당하는 구절은 GBTB에 없다.

¹²⁵⁷ GBB는 사첸랑과 쇤하 자리에 쇤향son hang 하나만 적혀 있다.

짜호짜호tsa ho tsa ho도¹²⁵⁸ 역시 법률의 네 요충이며¹²⁵⁹ 이 넷 주변에 관청이 [각각] 여섯이 있어서 총 스물 네 곳이다.

이 위대한 몽골의 왕통을 적음으로써,
흰 善業의 열매의 힘으로 인해
이 광대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중생이
큰 즐거움의 해탈의 땅으로 속히 가기를!
원만과 길상이 널리 퍼지기를!¹²⁶⁰

吉祥! <390>

3. 다스만das sman(答失蠻, ?-1304)의 티베트 역참 설치¹²⁶¹

몽골 세첸 황제의 명령으로, 大臣 다스만das sman¹²⁶²에게 말씀하셨다. “다스만 그

¹²⁵⁸ GBB: tsa he tsa ho. 탈탈확손?

¹²⁵⁹ 사첸랑sa chen lang이나 쇤하shon ha, 신밍bzhin ming, 짜호짜호tsa go tsa go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¹²⁶⁰ 마지막 줄은 GBTB에 없다.

¹²⁶¹ 분절과 제목은 역자.

¹²⁶² 케레이트 출신. 『集史』에도 그는 쿠빌라이 시기 승상 네 명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다. 高昌에서 살았다. 쿠빌라이 즉위 이전부터 그의 케식 비티치로 복무하였으며 후에 泉府司를 관할하고 이 글의 뒤에 나올 桑哥와 함께 宣政院使를 지냈다. 1304년 사망 후 고창 충혜왕에 추봉되었다. 姚遂『牧庵集』 권 13 「皇元高昌忠惠王神道碑銘并序」 참고. 이름 자체는 ‘有

대는 들어라. 티베트는 사람들이 사납고 예전에 티베트 황제가 있던 시절¹²⁶³ 당의 태종 황제(r. 626-649) 때 오대산(ri bo rtse lnga)에 다수의 티베트 군이 왔고 후딩후**bhu ding hu**¹²⁶⁴ 땅에 까마룩**bka' ma log**¹²⁶⁵이라고 하는 대부대가¹²⁶⁶ 주둔하고 있었다. 지금 티베트에는 황제가 없고

칭기스 황제jing gir rgyal po의 복덕으로

識, 有識者'를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다니쉬만드dānishmand에서 비롯되었으며 원대 이슬람 종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라시드 앓 단도 그의 이름을 티베트 사료와 유사하게 Dāshmān이라고 표기하였는데, '다니쉬만드'라는 뜻과 음을 아는 그가 Dāshman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당시 몽골인들이 dānishmand를 dāshman과 가깝게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김호동, 『칸의 후예들』, pp. 415-417). 이는 티베트어 표기로부터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스만은 1290년 카이두와의 전쟁에서 쿠빌라이를 따라 종군했고 그후 변경에 또한 역참을 설치했다.

¹²⁶³ 토번 제국 시기를 말한다. 앞에서 본대로 티베트 팍빠가 쿠빌라이와 대화하다가 이전의 티베트 군주들을 언급하니 쿠빌라이가 “티벳에 언제 왕이 있었는가? 이것은 佛書와 맞지 않으니 필시 거짓이다.”라고 비난하니 팍빠가 티벳의 왕이 일찍이 漢地의 왕과 교전하여 승리하였으며 남섬부주(전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답하고 나서 “이 일은 사실이며 佛書에는 비록 없으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살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하였다고 한다. 漢地의 예전 사적yig tshang을 조사하니 팍빠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阿旺 貢噶索南 著, 陳慶英, 高禾福 周潤年 譯注, 『薩迦世系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p. 102: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Jam mgon A myes zhabs, *Dzam gling byang phyogs kyī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Sa-skya gdung rabs chen mo)*, Delhi: Tashi Dorji ed., Dolanji, H.P., 1975, p. 152. 『紅史』 등이 토번제국사 기록에 『舊唐書』 『新唐書』 『吐蕃傳』을 이용한 것을 보면 팍빠가 언급한 漢地의 예전 사적이란 그와 유사한 저작이었을 것이다.

¹²⁶⁴ 胡定府? GBB: bhu ding hu.

¹²⁶⁵ 까마룩은 토번 제국 시기 암도 지역에 주둔하던 옛 토번의 후예들이 이룬 집단이다. 상가桑哥가 까마룩 출신이다.

¹²⁶⁶ GBB: mtshan chen po. GBTB에 dmag tshan chen으로 대 부대라고 적혀 있다.

큰 나라를 세력 하에 들어오게 했고
사까의 라마도 우리의 응공라마로 초대했다.

라마 팍빠 속질이 다른 지역의 [132a] 군주라면 그는 지혜가 매우 커서 우리가 맞설 수 없는데 지금 티베트 전체가 우리의 세력 하에 들어온 것이다.¹²⁶⁷ 다스만 너는 행동이 올바르니 사까까지 한 번 가라. 티베트 전체가¹²⁶⁸ 세첸 쿠빌라이se chen go dpe la의 휘하에 들어오고 大臣 다스만도 <391> 티베트에 도착해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하라!”라고 하셨다.

다스만이 아뢰기를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티베트라는 곳은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국법도 무너졌는데 漢地나 몽골의 법 어떤 것도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보초들도 세우지 않고 있으니, 왕래하는 데 필요한 물자의 조달과 큰 사무를 성취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¹²⁶⁹라고 하니 황제가 또한 명령하기를 “전 티베트가 휘하에 들어왔다고 하는 희소식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면 그것으로 됐다. 물자나 도구 등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¹²⁷⁰ 財庫gan pa에서 내어줄 것이다. 사까까지 대참 소참¹²⁷¹에 맞게, 땅의 험한 정도, 민호의 빈부를 漢地の 역참을 본보기로 하여 확정하라! 팍빠 라마가 올라 갈¹²⁷² <392> 때 여정이 평안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너를 宣政院son jing 유두에¹²⁷³ 임명하니 티베트의 상황을

¹²⁶⁷ 아래 문장을 고려하면 이 말은 몽골이 아직 티베트 전체를 손에 넣은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¹²⁶⁸ bod byings. GBTB와 GBC는 ‘bying’이라고 적고 있어서 ‘이해가 어려운’의 뜻이 되며, 中譯本은 吐蕃強悍民衆이라고 번역했다(p. 150).

¹²⁶⁹ GBB: yong min. GBTB의 yong yin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¹²⁷⁰ 이 구절 뒤의 ma thung의 뜻을 알 수 없다. GBTB GBC: ma thungs pa

¹²⁷¹ ‘ja’ mo che chung.

¹²⁷² 티베트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한 것은 티베트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인 듯하다.

¹²⁷³ GBB: swan jing dben. 선정원의 전신이 總制院이었고 그 이름이 선정원으로 바뀐 것은

자세히 안다면 [132b] 국고의 大事 처리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일 것이니 가라.”
라고 하셨다.¹²⁷⁴

다스만은 [팍빠] 라마의 법지(bka' shog)¹²⁷⁵와 황제의 성지('ja' sa)의 업무를 받고 많은 수종들과 함께, 오가는 데에 필요한 물품과, 일반적인 그리고 특별한 티베트 승속 장로들과 귀족들¹²⁷⁶에게 줄 좋은 물품¹²⁷⁷들을 大小 財庫로부터 가지고 올라 갔다. 처음 티베트에 가르침의 후흥기¹²⁷⁸ 불교가 일어난 도매mdo smad의 댄딕 dan tig 수정 佛殿과¹²⁷⁹ 도퇴mdo stod의 쯔도 삼듭gtso mdo bsam 'grub¹²⁸⁰, 짱

지원 25년 즉 1288년의 일이다. 다스만이 선정원사를 지낸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가 티베트로 가서 역참을 설치한 것은 총제원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 쿠빌라이의 말 중 팍빠가 처음 티베트로 가는 길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다면 1264년경이라고 할 수 있다.

¹²⁷⁴ 역참 제도의 주요 목적은 내외의 使者들에게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의 신속한 소통 유지, 군사행동의 협력을 위해서도 중요했다. 쿠빌라이 재위기 1276년에 通政院이 세워져 제국 전체의 역참을 관장했는데 兵部로 옮겨지기도 했다. 지방에서는 중국 지역의 역들은 지방 정부가 관할했고 몽골리아 지역(達達站)은 그 지역의 萬戶나 千戶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들은 站戶들이 운영했으며 그들은 中上戶 중에서 뽑힌 자들이었으며 4경의 토지에 대해 면세혜택을 얻었고 이는 軍戶와 같은 조치였다. 그들은 역을 유지하고, 역참을 이용한 권리가 있는 자들에게 음식과 말, 수레, 기타 운송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몽골 제국 시기의 역참에 대하여는 党寶海, 『蒙元驛站交通研究』, 崑崙出版社, 2006 참고.

¹²⁷⁵ 까속bka' shog은 일반적인 명령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문서 행정에서는 帝師의 명령에만 적용된다.

¹²⁷⁶ GBB: drag rigs. GBTB GBC: drag rim으로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¹²⁷⁷ GBB: cha rkyen.

¹²⁷⁸ bstan pa phyi dar. 티베트 불교는 시기적으로 前弘期和 後弘期로 나뉘며 전흥기는 불교가 처음 티베트에 도입되었다고 보는 송췌 감뽀(srong btsan sgam po, 569-649?/ 605-649?) 시기부터 토번 제국의 마지막 군주인 랑 다르마(glang dar ma, r. 838-841)의 폐불까지, 후흥기는 그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¹²⁷⁹ 토번등처선위사사도원수부吐蕃等處宣慰使司都元帥府 즉 도매 선위사(朵思麻宣慰司)가

gtsang의 상서로운 사막에서 차례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누구에게든 알맞은 하사품을 주었다. <393>

명령을 선포하여 漢地와 티베트 경계¹²⁸¹부터 사까까지 대 역참'jam 총 27곳¹²⁸²을 세웠는데 분석해보면 도매mdo smad는 땅이 평탄하므로 역참 일곱 곳, 도되mdo stod에 역참 아홉 곳, 위짱dbus gtsang에는 역참 열 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위dbus 지역의 사람들이 관할해야 했던 역참은 속sog, 삭shag, 찌와르tsi bar, 샤포sha pho, 깡rkang, 귤사르dgon sar, 잠가와byam gya ba 등 일곱 곳이었다. 짱gtsang 사람들이 관할해야 했던 곳은 딱stag, 총뒤tshong 'dus, 다르릉dar lung, 돔빠 사까 랑grom pa sa skya rang¹²⁸³ 등 네 곳이었다. 萬戶 각각이 [관리할] 역참의 범위를 정하고 전체 티베트에 황제 시주-복전(yon mchod)의 명을 선포하고 [133a] 사까의 권속들이 티베트의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을 모두 그에게 맡겼다. 황제의 어전에 이르러 상황을 <394> 아뢰니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하시며 좋은 선물과 하사품을 주고 宣政院swan jing dben의 법을 관할하는 수령에 임명했다.

티베트의 역참들은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설치할 사람 하나를 임명해야 한다고 청하니 이질lak'i ji lag이라고 하는 대신을 티베트 역참을 관리하게 하는 성지를 주고 同知thong ji 직을 주고 올려 보냈다.¹²⁸⁴ 그때부터, 몽골과 사까파가 시주-복

있던 河州에 있던 불전으로 보인다.

¹²⁸⁰ 사원 이름. 토번등로선위사사도원수부土蕃等路宣慰使司都元帥府 즉 도감 선위사의 치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¹²⁸¹ 漢地와 티베트의 경계는 臨洮가 중요하다. 섬서행성 휘하의 鞏昌等處 總帥府에 소속되었고 漢地에서 티베트로 향할 때 漢地の 出口였다(山本明志, 「チベットにおけるジャムチの設置」, 『日本西藏学会会報』 2009, p. 4).

¹²⁸² GBB는 23곳이라 했으나 27곳이 맞다.

¹²⁸³ GBTB GBC: grom mda'

¹²⁸⁴ 올려 보냈다고 하는 것은 티베트가 높은 곳이라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질락이 어떤 인물인지 비정하기 어렵다.

전으로¹²⁸⁵ 맺어진 동안 티베트 역참 27곳이 안정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라마, 뽄첸, 몽골 금자사신들에게 여정이 편안해졌고 티베트 백성들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세첸 황제가 사까에 보낸 최초의 금자 사신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까파에 큰 믿음을 가진 훌륭한 대신 <395>이었으므로 간략한 전기를 쓰는 것이다. 통지 이질락이 티베트 역참을 관할하러 오기 전에, 몽골 황제가 장jiang 지역(즉 운남)¹²⁸⁶에 군대를 이끌고 이르렀을 때 도매의 두 참을 漢地의 역참과 결합하니 효력이 컸고, 도피mdo stod의 가레ga re와 고빠go dpe 두 역참은 위장인들에게 딱stag 근방부터 강요되었다. 법¹²⁸⁷을 어기고 몇 해 동안 계속되었는데 동지thong ji가 오고나서 가레와 고빠go <sa> [dpe] 두 역참을 이전과 같이 도피인들 자신에게 맡기니 동지 이질락 그 역시]¹²⁸⁸ 위장에 은혜가 크다.¹²⁸⁹

몽골 세첸 황제 시기에 전체 티베트 지역에 [133b] 호구 조사mi brtsis dud grangs를 -142- 실시할 때 도매에서부터 세었는데 하주ga chu¹²⁹⁰의 랍카rab

¹²⁸⁵ GBTB와 GBC는 시주yon만 기재하고 복전mchod은 적지 않았다.

¹²⁸⁶ GBB: 'jang

¹²⁸⁷ 본문에 khrooms 즉 별자리라고 되어 있으나 내용상 khrim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¹²⁸⁸ [] 안의 내용은 GBTB와 GBC에는 결락. GBB로 보충했다.

¹²⁸⁹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 역참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 지역보다 역참 간의 간격이 상당히 멀었다는 점이다. 라시드 앗 딘에 의하면 몽골 지역에 5 파르상farsang 즉 30km마다 역참이 하나씩 세워졌다고 하는데(김호동, 「몽골支配期 西아시아의 驛站制와 가잔 칸(Ghazan Khan)의 改革」, 『역사문화연구』, vol. 35, 2010, p. 3), 『永樂大典』 「站赤」의 1296년 티베트 관련 기사는 “지금 위장 등지에 소참 7곳을 제외하고 대참이 28곳이며 티베트에 보시를 체송하고 왕래하는 사신들이 매우 많은데 인호 수는 적고 역참 간의 거리는 가까워도 3백~5백리(113km~189.5km)이상입니다(今烏思藏等 除小站七所勿論 其大站二十八處 遞送西番布施來往之使實繁. 人戶數少 驛程近者不下三五百里).”라고 말하고 있다.

¹²⁹⁰ 토번등처선위사사도원수부吐蕃等處宣慰使司都元帥府의 치소가 있던 河州 즉 오늘날 감숙 臨夏 회족 자치구의 臨夏縣일 것이다.

kha에서 부터 낭소nang so¹²⁹¹에게 속한 장원과 담의 아래에 라와bla ba 城¹²⁹²과 그 아래에 뎡강시dem khang gzhis라고 하는 장원이 있는데 그것들을 라마 팍빠에게 사뉘sa phud¹²⁹³로 황제의 명에 의해¹²⁹⁴ 바쳤고 창고gan이나 역참'jam 등 漢地와 티베트의 요역과 세금 어느 것도 <396> 부담하지 않고 면세 지역으로 있었으며, 500 몽골 씨앗[을 뿌릴] 땅 크기였다고 한다.¹²⁹⁵

몽골과 사까파가 시주-복전 관계를 맺은 후 중생의 보호자 법왕 팍빠는 漢地 大都ta'i tu 궁에 세 번 이르렀다. 세첸 황제¹²⁹⁶ 부부와 황자 등에게 사까파의 특별한 법 삼밀종 灌頂을 3차례 행했고 이 첫번째 灌頂의 대가로 [세첸 칸은] 위짱의 13 만호를 바쳤으니

아리mnga' Ris의 종카rdzong kha 아래의 로glo 뢰dol 종rdzong 세 지역이 1개 만호,

라뵤la stod 로lho와 장byang, 추[믹]chu [mig], 셸zhal¹²⁹⁷ 각각을 세어 4개 만호, 다sbra, 베르ber, 쿵khyung 3개 지역이 1개 만호,

¹²⁹¹ 티베트 불교 교단이 휘하의 부락에 파견하여 교무를 담당하고 보시를 거두게 하는 인물.

¹²⁹² GBB에는 'khar라고 적혀 있으나 GBTB, GBC의 기록을 따라 mkhar 즉 城으로 번역했다.

¹²⁹³ 집이 지어질 때 돌이나 흙을 바치는 것.

¹²⁹⁴ GBB에는 “황제의 명에 의해”라는 구절이 없다.

¹²⁹⁵ 하주 지역에 팍빠의 개인적인 봉지가 있었다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 기사는 관정의 대가로 제사에게 티베트 3개 철카 전체를 바쳤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논리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¹²⁹⁶ 저자는 몽골 대칸의 호칭을 주로 티베트어 겔뵤rgyal po 즉 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티베트 사료들이 주로 중국 황제를 칭하는 명사 공마gong ma도 덧붙여서 ‘세첸 칸 황제’ 정도로 적고 있다.

¹²⁹⁷ 샬루zha lu를 가리킨다.

얀독yar 'brog, 첼빠tshal pa 2개 만호,

가rgya [마ma], 디'bri [궁gung], 야g.ya' [상bzang], 팍phag [모두mo gru] 4개 만호,

남은 것을 모아서 1개 만호,

자윌bya yul 몽골 호¹²⁹⁸ 1천호,

독빠'brug pa 몽골 호 9백호로

1천 <397> 9백호를 모아서

1개 만호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

이들을 합쳐서 모두 13개 만호가 된다.¹²⁹⁹

관정에 대한 두번째 대가로는 [134a] 티베트 3 첼카chol kha를 바쳤는데 그것은 아리mnga' ris 궁탕gung thang부터 속라까오sog la skya bo까지 수승한 법의 첼카,¹³⁰⁰ 속라까오에서 황하rma chu 河曲<khug> [gug] pa까지 검은 머리 인간의 첼카,¹³⁰¹ 황하 하곡 아래부터 漢地의 白塔mchod rten dkar po까지 畜生 말(馬)의 첼카¹³⁰²로 모두 3개이니, 人, 馬, 法 셋을 바치는 방식으로 하여 바친 것이며 첼카 각각에 각 수령은 -143- 황제와 라마 시주 복전이 논의한 것에 따라 임명하게 하였다.

마지막 관정의 대가는 라마의 말씀대로 漢地의 대 草地yur ma chen mo를 바쳐서 漢人 수만명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그 때 라마 팍빠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398> 회향하셨다.

¹²⁹⁸ 호르 뒤hor dud. 몽골의 호 구성 조건에 맞는 호.

¹²⁹⁹ 이대로 계산하면 14개 만호가 된다.

¹³⁰⁰ 중앙 티베트 즉 위짱 지역을 말한다.

¹³⁰¹ 캄 지역을 가리킨다

¹³⁰² 압도.

허공계는 붉은 핏빛이며
 짓밟힌 시신이 外海에 가득한데
 이러한 것을 저지한 바로 그 선업으로
 지혜에 자재한 분의 의도를 생각하도록
 복리안락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도록
 人主의 수명이 지극히 견고하도록 회향합니다

라고 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 유정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게 하셨다.

4. 바얀ba yan (伯顏, 1236-1295) 승상 이야기

세첸 황제(gong ma se chen rgyal po)와 라마 팍빠 두 사람이 편안한 대화를 나눌 때 황제가 라마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칭기스 황제가 대 왕국을 [134b] 휘하에 들어오게 하실 때와 내가 나라를 정비하고¹³⁰³ 안정시킬 때 힘을 다 써서 지금 몽골 군사들에게 재부가 <399> 부족하니 자원을 늘리는 방도와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적합할까요?”라고 하셨다. 라마가 조언하기를 “당신¹³⁰⁴ 자신에게 있는 財庫의 물자와 군사와 케식(res pa)의 숫자를 파악하십시오. 몇 년 동안 재원으로 써 의복과 식량 등 생계에 필요한 하사품(gnang sbyin)을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라고 하시니 그대로 하였고 병사에 대하여는 근원인 몽골 병사가 5십만명이었으며¹³⁰⁵ 케식의 수도 다수였으니¹³⁰⁶ 하사품으로 할 물자가 충분하지 않았다.¹³⁰⁷

¹³⁰³ GBB: chos pa. 즉 불교도 혹은 수행자. GBTB, GBC: ‘chos pa 즉 정비하다, 준비하다, 건설하다로 썼다. dang과 연결되므로 동사로 보아 GBTB와 GBC를 따라 정비하다로 번역했다.

¹³⁰⁴ khyed. 2인칭 존칭어이며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를 가리킬 때 쓰인다. 폐하나 카안으로 바꾸기보다 단어 대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듯하여 그대로 두었다.

¹³⁰⁵ 『元史』에 따르면 元代에 군사의 총 수를 점검한 것은 몽케 2년의 이른바 壬子年籍이

또 황제가 말하기를 “지금 물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몽골 지방 hor yul 남쪽에 -144- 만체 sman rshe라고 하는 황제와 그 휘하에 민호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있고, 쿠빌라이 지원 8년(1271), 11(1274)년에 행해졌으며 新附軍에 대하여 지원 27년에 점수가 있었다(“其名數, 則有d宗二年之籍, 世祖至元八年之籍, 十一年之籍, 而新附軍有二十七年之籍.” 『元史』 卷98, 志46 「兵1」). 남송 정복 전이라면 지원 8년 즉 1271년의 점수를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元史』는 군사의 총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몽골 제국의 군사의 수는 기밀 사항이었다. 『元史』 兵志는 “兵籍은 군기의 중요한 사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漢人들은 그 수를 볼 수 없었다. 비록 추밀원 근신들이 軍旅를 관장하지만 장관 1, 2인 만이 그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라가 계속되는 백 년 동안 내외 병사의 수의 다과는 아는 자가 없었다 以兵籍係軍機重務, 漢人不閱其數. 雖樞密近臣職專軍旅者, 惟長官一二人知之. 故有國百年, 而內外兵數之多寡, 人莫有知之者(『元史』 卷98, 志46 「兵1」).”고 기록하고 있다. 『憲臺通紀』에도 역시 “과거에 世祖皇帝가 계실 때 울룩 노얀(月呂魯 那演)이 上奏하기를, “軍隊의 數目에 대해서는 ‘照刷하지 말라!’는 규정에 따라, 樞密院에 있는 天下軍馬의 總數目은 皇帝께서 알고 계시고, 樞密院의 官人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蒙古官人들이 알고 있으며, 外處의 行省에 있는 軍馬의 數目은 우두머리가 되는 蒙古人 省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外處의] 文卷도 마찬가지로 照刷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처럼 機密과 관련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인용하면서 김호동은 위의 『한장사집』의 기사와 비교하고, 티베트 고승들이 몽골의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을 것이라고 보았다(金浩東, 「元代的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 『元史』 「本紀」의 中國中心的 一面性的 解明을 위하여-, 『東洋史學研究』, 2009, vol. 109, pp.174-176; 최소영 석사논문). 한편 여기의 울룩 노얀은 이하의 본문에서 보다시피 바로 바얀과 동시대인일 뿐 아니라 가까운 안다(an ta)였으며 쿠빌라이가 바얀을 감금했을 때 석방을 청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¹³⁰⁶ 한편 케식의 수는 규정상 1만인이었으나 실제 수는 늘 그를 초과했고 케식에게 속하는 私屬人(怯憐口)를 더하면 케식 조직의 총 인원은 때로 4.5만 사이였다. 세조 후기 케식타이의 수는 마르코 폴로가 언급한 약 1, 2만인 지원 30년 4부 衛士들에게 말 만 필을 준 기록도 이를 증명한다.

¹³⁰⁷ GBB는 물자 cha rkyen와 충분하다 dang 사이에 부정어인 “ma”를 넣어서 “충분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GBTB와 GBC는 ma 자리에 對格 조사 la를 써서 충분했다고 번역이 되며,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GBTB와 GBC를 이용했기 때문에 “충분했다”고 적고 있다. 군사의 수와 케식의 수가 많았다는 글의 문맥으로 보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군대가 취하여 부파bu rta¹³⁰⁸의 자원을 보완하면 적절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400> 라마가 조언하기를 “지금 당신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낼 인물이 없으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셨다.

그 다음 해에 황제의 동생인 에첸e chen¹³⁰⁹ 훌레구hu la hu가 황제에게 신년 선물을 보내기 위해 그의 케식장¹³¹⁰ 바얀ba yan(伯顏)이라고 하는 자를 우두머리로 하여 500 울락'u lag¹³¹¹과 [135a] 함께 보냈다. 그가 오는 길에 울룩 노얀u lug no yon¹³¹²이라고 하는 이가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을 만났으며¹³¹³ 광대한 지혜와 훌륭한

¹³⁰⁸ 부파bu rta는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의 특수 군대 명으로, 단어 자체는 ‘아들-말(馬)’의 뜻이다. 14세기 중엽 티베트에서 팍모두파가 세력을 키울 때 사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공을 세운 것이 팍모두파의 부파군이었고 따라서 랑씨가족사에 이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 中譯本이 bu rta를 붓다의 음역으로 보고 ‘佛法의 힘으로’라고 번역한 것(p. 153)은 잘못이다. 부파군에 대하여는 Luciano Petech,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The Yuan-Sa skya period of Tibetan History*, In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rtemo Oriente, 1990, p. 61 참고.

¹³⁰⁹ 몽골어 “에젠ejen” 즉 주인, 군주 등에서 온 말. 티베트 사료들이 유력 몽골 제왕들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앞에서 보았듯이 티베트 사료에서 쿠텐에게 적용된 예가 다수 보인다.

¹³¹⁰ GBTB와 GBC는 케식 장이라 썼는데 GBB는 단순히 大臣 혹은 관료를 뜻하는 “mi dpon”을 썼다. 뒤에서 쿠빌라이가 바얀을 자신의 조정에 남게 하면서 그 대신 훌레구에게 자신의 케식장 한 명을 보냈다는 기사를 보면 바얀이 훌레구 4 케식 장 중 한 명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¹³¹¹ 역마를 뜻하는 투르크-몽골어 ulaya에서 왔다.

¹³¹² 한문 사료의 月兒魯 那顏 혹은 月呂魯 那演. 몽골어로 能官. 이름은 위시 테무르(玉昔鐵木兒 혹은 玉速 鐵木兒, 1242-1295). 아룰라트씨로, 칭기스 칸의 사결 중 하나인 보르추의 후손이다. 알타이 산에 머무르다가, 20세에 1만호를 세습하고 군대를 알타이산에 주둔시키고 있었으며 후에 조정에 들어와 케식관이 되었고 울룩 노얀이라는 호칭을 하사받았다. 1275년 어사대부에 임명되었다. 쿠빌라이의 나얀乃顏 반군 진정에 종군하여 공을 세웠다(『元史辭典』, p.176; 김호동 역주, 『부족지』, 2002, 사계절, p.285). 울룩 노얀과 바얀은 정치적 행동을 함께 했고 쿠빌라이 사후 열린 쿠릴타이에서도 함께 테무르를 옹립했다.

¹³¹³ GBB: nam la byed pa가 덧붙여져 있는데 의미를 알 수 없다. GBTB, GBC: dham la

한 외모를 지닌 이 대신 둘은 말 위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기뻐했다. 바얀이 황제를 알현하기 전에¹³¹⁴ 황족들과 대신들 간에 몽골 지방에 울룩이라는 훌륭한 대신 하나가 있는데 그는 황제의 어전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 말을 황제가 듣고 <401> 울룩을 부르러 보냈고¹³¹⁵ [울룩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內務大臣(nang blon chen po)에 임명되었다. 그 역시 바얀에 대해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했다.

그 후 바얀이 대도에 이르러¹³¹⁶ 황제를 뵈는 때 궁에서 대연회가 열리고 수승한 라마¹³¹⁷도 초대되었는데, 바얀이 알현할 때의 행동과 걷는 모습, 주를 올리는 말의 능함과 덕이 큰 것을 라마가 알고서 황제에게 “위인 중에 위인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¹³¹⁸라고 말씀하셨다. 황제가 그 말을 알아듣고 바얀 대신에 황제의 케식장 한 명과 금자사신 한 명을 더불게 하며 좋은 하사품과 신년 선물의 답례품을 주어 보내고 바얀은 머물게 하셨다.¹³¹⁹ [135b] 말씀하시니 <402> 그가 머물 때 바얀과

byed pa, dham은 티베트어가 아니다.

¹³¹⁴ 원문에는 “rting”, 즉 “후에” 라고 쓰여 있으나 문맥상 “전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¹³¹⁵ GBB에는 보내다btang가 없다.

¹³¹⁶ GBB는 “대도에 이르고 나서ta'i tur slebs nas” 구절이 없다.

¹³¹⁷ 즉 짝빠.

¹³¹⁸ mi bzang po la mi bzang po kho pa la 'dug.

¹³¹⁹ 『元史』 「伯顏傳」에 “지원 초 훌레구가 (바얀을) 보내 주를 올렸는데 세조가 그 용모가 빼어난 것을 보고 말이 엄숙한 것을 듣고서 ‘그는 제후왕의 신하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남아서 집을 섬기게 하라’라고 했다 (至元初, 旭烈兀遣入奏事, 世祖見其貌偉, 聽其言厲, 曰: 非諸侯王臣也, 其留事朕, 『元史』 卷127 列傳14 「伯顏傳」).”고 하고 있어서, 티베트 사료와 유사하다. 라시드 웃딘은 『집사』의 쿠빌라이 카안기에서 “쿠빌라이 카안은 아바카 칸에게 수둔 노얀의 아들 사르탁 노얀을 압둘 라흐만과 동행시켜 이란땅에 사신으로 파견해서, 바얀(Bâyân) — 그의 부친 쿠케추(Kôkechû)는 바아린 출신의 대아미르였고, 그의 조부인 알락 노얀은 죄를 지어 야사에 처해졌었으며, [그 자신은] ‘분배된 몫’(qûbî wa naşîb)으로 쿠

올록 -145-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훌륭한 재상(blon chen)이었다. 그 때 황제가 또한 라마에게 “지금 이 바얀을 만제sman tshe 방향으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시니 “가능합니다. 제가 목표를 이룰 방도와 典禮를 행하겠습니다.”라고

빌라이에게 주어졌던 그 바얀이다 -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었다. 소해 [즉 1265년]에는 훌레구 칸이 타계했고, [아바카 칸은] 그를 사르탁 노얀과 동행시켜 카안의 어전으로 보냈다. 압둘 라흐만은 회계를 끝내기 위해서 이 고장에 남았다.”고 적고 있다(김호동, 『칸의 후예들』, p. 403). 압둘 라흐만은 몽골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케식의 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르탁 노얀일텐데 그의 행적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라시드 앗 딘에 의하면 그는 술두스 부 수둔 노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형제인 순착 노얀(Sūnchâq Nôyan)이 일칸의 조정에서 “케식의 아미르” 즉 케식장이었다고 한다. 케식장의 직이 일반적으로 세습되었고 술두스 출신이 훌레구의 4케식 중 하나의 장을 맡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쿠빌라이가 술두스 출신의 인물을 보낸 것은 티베트 사료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 케식장의 직계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지위를 계승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케식장 하나를 보냈다는 것은 대칸의 케식장이 아니라 훌레구의 케식장이 될만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얀이 ‘분배된 몫’(qûbî wa naşîb; qûbî wa bakhsh)으로 쿠빌라이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은 한문이나 티베트 사료에는 보이지 않으며 qûbî wa naşîb 혹은 qûbî wa bakhsh의 각 단어는 모두 분배된 몫이라는 뜻으로 동어반복의 형태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라시드 웃딘은 술두스 부에 대한 장에서 역시 “쿠빌라이 카안의 휘하에 있던 수둔 노얀의 자식들 가운데에는 사르탁(Sartâq)이라는 이름의 한 아들을 사신으로 훌레구 칸에게 보냈다. 그와 함께 會計를 위하여 압둘 라흐만(Abd al-Rahman)[도 파견했다]. 그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쿠빌라이 카안의 사람인 바얀(Bâyân) - 바아린 종족 출신 알락 노얀(Alâq Nôyan)의 손자-을 [다시 쿠빌라이에게 돌려주도록] 요청했고, [훌레구 칸은] 그에게 귀환을 허가해 주었다. 훌레구 칸이 사망하던 해에 돌아갔다.”고 적어서, 바얀이 쿠빌라이 카안의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호동, 『부족지』, p. 403). 『元史』 「伯顔傳」은 神道碑-cleaves. 쿠빌라이는 바얀을 자신의 조정에 남게 하고 안동의 여동생과 혼인시켰다고 적었다. 바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C.C. Hsiao, “Bayan (1237-1295)”, Igor de Rachewiltz et al. ed., *In the Service of the Khan: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uan Period 1200-1300*,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93, pp. 584-607 참고. 바얀의 혼인에 대하여는 Stephen. G. Haw, “Bayan of the Bârin's Persian wife, and other perplexitie”, *Journal of Asian History*, vol. 48, no. 2, 2014, 263-79 참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나서 뛰어난 匠人인 네팔인 에네르가e ner dga'(1245-1306)¹³²⁰ 등에게 명하여 주추'ju tshu(巨州?)에 佛殿과 호법신 마하갈라ma hA ka la와 그 隨從의 像을 세우게 했다. 開光 의식rab gnas은 라마가 직접 하셨으며 수호신의 얼굴을 만체 방향을 보게 했다. 대스승 담빠 꺄가Dam-pa Kun-dga'-grags (Tan-pa, 1230-1303)¹³²¹에게 명하여 호법신을 완성하도록sgrub pa¹³²² 임명하였다.

바얀에게 승상ching sang 칭호와 인장tham kha¹³²³을 주고 그를 보조할 인물로 漢人 장비양추byang bi thang chu의 平章phing cha<d> [ng]¹³²⁴이라고 하는 현인도 <403> 함께 보냈다. 승상을 수장으로 하여 몽골 군 전체를 파견하면서 “만체의 왕국을 취해 와라!”고 명하니 바얀 승상이 “제가 만체에 이르러서 대군의 업무에 대해 의문이 생겨 奏講을 보내야 할 때 저의 사신이 폐하의 어전에 가면 그를 기

¹³²⁰ 한문 사료의 阿尼哥 또는 阿你哥. 네팔 출신의 장인이다. Jaya Bhim Dev Malla 왕 시기에 불탑 건축을 위해 티베트로 파견되었다가 그 곳에서 다시 쿠빌라이 조정으로 보내졌다. 至元 10년(1273), 人匠總管이 되었다. 至元 15년, 광록대부, 대사도를 제수받고, 將作院일을 관장하였다. 62세에 사망 후 太師·涼國公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敏慧이다(『元史辭典』, p.542). 아니가에 대하여는 Jing Anning, “The Portraits of Khubilai Khan and Chabi by Anige (1245-1306), a Nepali Artist at the Yuan Court”, *Artibus Asiae*, Vol. 54, No. 1/2, 1994, pp. 40-86 참고.

¹³²¹ 한문 문헌의 膽巴. 라시드 옷딘의 집사의 Tanba. 라시드 옷 딘은 그의 앞니 두 개가 매우 길어서 그의 두 입술이 서로 닫혀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대칸의 조정에서 칸바라는 박시와 함께 박시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고 적었다. 『佛祖歷代通載』와 『元史』에 그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탄빠에 관한 연구로는 H. Franke의 “Tan-pa, A Tibetan Lama at the Court of the Great Khans,” (*China under Mongol Rule*, Aldershot: Variorum, 1994)에 再錄; 原載 *Orientalia Venetiana*, Volume in onore di Lionello Lanciotti, ed. Mario Sabattini. Firenze: Leo S. Olschki Editore, 1984)가 있다.

¹³²² 中譯本은 호법신이 있는 곳에서 修法하게 했다고 번역했다.

¹³²³ GBB: dam kha.

¹³²⁴ 병부상서의 평장. 바얀과 함께 남송전에 파견된 인물 중 阿朮(Aju, 1234-1287)는 平章政事였고 바얀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 揚州, 泰州를 점령하였다.

다리는 동안의 군대의 [136a]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고 물으니 “그 말이 맞다. 내 명령인 것이라 여기고¹³²⁵ 너의 결정으로 업무들을 처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얻고 갔다. 승상은 전술이 좋았기 때문에 만체 황제의 궁도 얻고 나라를 취하였고, 大臣mi dpon 임명을 직접 하였다. 만체 황제의 진주mu tig 의복 한 벌을 <404> “내 군대의 승리의 표식이다”라고 하며 승상이 취하고 다른 물자들은 모두 황제에게 보냈다. 그때 만체의 지역을 잘 아는 몇 명의 인물들이 -146- 토지와 민호가 좋은 성시에 업무를 청하고서 聖旨'ja' sa를 가지고 [바얀에게] 갔으나 바얀은 등용하지 않고서, “나는 처음에 성지를 얻었고 이미 임명을 끝낸 관리들을 안정되게 하지 않으면 민호가 동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이 완수되고 나서 황제의 어전에 가서 알현할 때 승상이 케식과 만나자마자 자신의 집에 가지 않고 케식의 건물(res khang)에 머무르니 황제는 그가 크게 교만해졌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수구르치zu gur che¹³²⁶ 한 사람을 바얀에게 보내 “너¹³²⁷ 바얀은 <405> 部の 사람일 뿐이고¹³²⁸ [136b] 庫지기gan pa인데¹³²⁹ [내가]

¹³²⁵ GBB: nga'i lung yin gyis la: GBTB GBC: nga'i lung yin gyis las. 중역본은 “내 명령 이외에”로 번역했다.

¹³²⁶ 몽골어 sukürchi. “parasol holder.”

¹³²⁷ khyod

¹³²⁸ tshan pa. 여럿을 나눈 것 중 하나를 말한다. 대칸이 아닌 일개 제왕 훌레구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으나, 케식 4부를 res tshan bzhi라고 하므로 tshan pa는 케식의 한 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앞에서 보았듯 저자는 바얀이 훌레구의 케식장 중 하나였다고 적고 있다.

¹³²⁹ gan pa: 창고 관리자. 몽골어 발라가치. 위의 구절은 쿠빌라이가 바얀의 출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바얀은 바아린Baarin 부 출신으로, 한문 사료들은 바얀의 부친에 대해, 훌레구를 따라 서역 원정에 나섰으며 이름은 曉古台(수구데이)라고 적고 있다(『元史』, 卷127, 「伯顏傳」, p. 3099, “伯顏, 蒙古八鄰部人. 曾祖述律哥圖, 事太祖, 爲八鄰部左千戶. 祖阿剌, 襲父職, 兼斷事官, 平忽禪有功, 得食其地. 父曉古台世其官, 從宗王旭烈兀開西域”). 『集史』는 바아린 부족에 대한 章에서 부족의 주요 인물로 알락(Alâq)을 들고 쿠쿠추(Kûkechû)는 바로 이 알락의 아들이며 바얀의 부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쿠쿠추의 소재에 대하여

제왕의 칭호와¹³³⁰ 주요 업무를 주어 보낸 것이다. 만체의 왕국을 취한 것은 찼뒤

는 "... 에서 ...의 연유로 처형되었다"라고만 적고 있어서 사망 장소와 사유는 모두 결락되어 있다(金浩東, 『部族志』, p. 323). 라시드 옷딘은 다른 곳에서는 알락이 죄를 짓고 처형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오류일 것이다.

한편 바얀의 부친을 한문 사료는 수구데이라고 하고 페르시아어 사료는 쿠쿠추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데티베트 사료에 홀레구 울루스 출신의 쿠쿠추라는 인물이 보여서 주목할 만하다. 즉 홀레구가 티베트에 있던 자신의 분봉지-팍모두 만호-를 관할할 다루가치를 파견했는데 그의 이름은 쿠쿠추go go che였고, 홀레구 4케식 장 중의 하나이며 혈통rgyud pa은 비란(bhi ran)이고 카르빠mkhar pa 출신이라고 한 것이다(Byang chub rgyal mtshan, *Lha rigs rlangs kyi rnam thar, A detailed account of the "Rlangs po ti bse ru" and the "Si tu'i bka' chems" of Si-tu Byang-chub-rgyal-tshan*, T. Tsepel Taikhang, New Delhi, 1974, pp.245-246). 그의 혈통 '비란bhi ran'은 '바린'의 오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한편 티베트어의 '카르빠(mkhar pa, 城-사람)'는 '발라가치balaqachi'를 번역한 말이며 한문 사료에서 '管城官, 管城的'이라고 기록되는 케식 업무의 하나로, 후에 열쇠를 관리하는 자로서 후에 庫를 지키는 자로 轉化되었다고 한다(설배환, 『몽원제국 창고제의 성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 27-29). 쿠쿠추가 관할한 팍모두파는 1285년부터 1290년까지 티베트를 흔든 '디궁 반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며 티베트 사료들은 초기 그의 활동 외에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다. 다만 빨라도 1297년 이후 팍모두파를 관할한 인물 중에 '이전에 홀레구가 임명한 지방 수호관 쿠쿠추의 아들 도르지 알롱빠'가 보이므로 이 시기 쿠쿠추는 분명히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한문 사료와 페르시아어 사료를 통해 바얀은 바아린 출신임이 분명하며, 『한장사집』의 기록대로 그가 홀레구의 케식장이었고 업무는 발라가치였다면, 그보다 이른 14세기의 또다른 티베트 사료 『랑씨가족사』가 말한 "비란 출신의 홀레구의 케식장이며 발라가치였던 쿠쿠추"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즉 그가 티베트로 "떠난 뒤 그 아들 바얀이 케식장 자리를 물려받았다가 쿠빌라이에 의해 대칸 조정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홀레구의 西征 때 그를 따라간 쿠쿠추는 한문 사료에서 자세한 기록을 찾기 어려우나 『元史』 憲宗 본기에 "二年十二月戊午, 大赦天下. 以帖哥紬, 闊闊朮等掌帑藏(『元史』 卷3, 本紀3, 「憲宗一」)"라고 적고 있어서 몽케 초기 帑藏을 관리했던 '쿠쿠추闊闊朮'라는 인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문 사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쿠쿠추에 대한 대략의 내용은 최소영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pp. 2-28에도 실려 있다.

¹³³⁰ sras ming. Sras는 아들의 높임말이며 군주의 자식 등을 가리킨다. Ming은 이름, 호칭을 뜻한다.

brtson ‘grus와 장 평장byang phing chang¹³³¹인데 명예는 그대가 가지고서 교만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전해 보냈다. 수구르치가 와서 [승상에게 “황제에게 의심이 일어나서, 반역하지 않음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명을 전하니 승상이 말하기를 “그대가 황제의 명령을 나에게 전해주었으니 내 주청을 황제께 전해주게¹³³². 쓰면 전해주게.” 라고 하고 승상이]¹³³³ “황제께서는 저에 대하여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部の¹³³⁴ 사람은 部に 배치하면 부로 갈 것이며 직책과 업무를 주거나 삭탈하는 것¹³³⁵은 황제의 권한입니다. 만체 왕국을 취한 것은 쏘드와 자와 평장이 했는데 명예는 바얀이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만체 사람들이 말들 해서 전해온 것입니다. 폐하께 성취하는 것으로써 충분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여 보냈다. 그 말을 황제에게 아뢰니 “내 말이 <406> 너무 성급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까봐 우려한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 후, 황제가 성지’ja’ sa를 -147- 주어 만체에 파견한 사람 중에 승상에게 등용되지 못한 자들이 바얀이 만체 황제의 물자를 자기 재산으로 하고 財庫 관리자에게 보내지 않았으며 성지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업무에 임명했다고 말했다. 고발gtug bsher이 일어나니 “바얀 자신에게 물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바얀을 체포하여 [137a] 박¹³³⁶에 두었을 때 울룩 노얀이 그것을 알았고 조정에 와서 황제의 어전에 온 것을 바얀이 보고서 “울룩 안다an

¹³³¹ GBB는 ‘자와bya ba 평장’.

¹³³² thengs: theng ba.

¹³³³ GBTB는 []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¹³³⁴ 여기서 GBB는 ‘tsham pa라고 적었으나 GBTB와 GBC는 tshan(部)으로 적고 있으며 GBB 역시 위에서 tshan으로 표기했으므로 이를 따랐다.

¹³³⁵ GBB는 ches. GBTB와 GBC는 ‘bebs(떨어지게 하다)으로 적혀 있고 후자를 따랐다.

¹³³⁶ phyi rol. GBTB GBC: khyi ro 개 시체. 中譯本은 이에 따라 바얀을 체포하여 개 狗圈에 두었다고 번역했다.

ta,¹³³⁷ 그대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소?” 하니 “내 알고 있소.”하고 나서 황제에게, “악인이 바얀 승상을 고발하여 그를 잡아 바위굴¹³³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얀 한 사람을 <407>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풀 하나 베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만체 왕국 사람들이 폐하를 비웃지 않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그 말이 맞다. 그를 풀어주어라!”라고 명하였고 [바얀은] 해직되어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얼마 후 “나얀의¹³³⁹ 대군이 몽골 지방에서 기병했다”는 말이 있어 큰 소란이 일어났고 대신들이 두려워하며 황제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여쭙니 “그대들이 논의하시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황제에게 다시 물으니 “그대들이 방도를 찾지 못하면 바얀에게 방법을 논의하여 물으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얀에게] 가니 승상이 말하기를 “나는 쓸모 없어 파직되어 집에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알겠소. 그대들이 알겠지.”라고 하였다. 그대로 <408>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자신의 어전으로 [137b] 바얀을 불러 의견을 물었고 그는 “우리 몽골 군에 훌륭한 인물을 임명하고 나서 군대가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48-

그러자 황제가 “바얀 승상 자신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는, 사람을 그가 가는 길에 동행시켜서 바얀 승상이 무슨 말을 하는 지 등을 엿듣게 하기 위해 보냈다. 바얀이 말을 타고 가면서 같이 있던 동행 대신들에게 “당신은 사람을 파견하는데 이런 사람을 파견하는군요!”하는 말을 세번 하고 나서 갔다는 말을 [그가] 듣고 황제에게 가서 아뢰었고 “그것은 좋지 않은 말이므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하고 사람을 보냈다. 神店zim dem 站ja' mo에 이른 후 소환하여 다음 날 새벽에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바얀 그대는 어제 제권팅je gon thing

¹³³⁷ 몽골어 “anda”.

¹³³⁸ gyam.

¹³³⁹ GBB와 GBTB 모두 바얀ba yan이라고 적어두고 있으나 문맥상 맞지 않다. 나얀na yan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¹³⁴⁰에서 <409> 말을 타고 갈 때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물었고 [바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황제가 “그대가 ‘이런 사람을 파견하는군요’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니 “그것은 사실입니다.”라고 하였고 무슨 뜻인가 하니 승상이 아뢰기를, “제가 폐하께 만체 왕국을 취하여 바친 것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제국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잘못이 없는데 [138a] 평민으로 떨어져 머물고 있는 것도 역시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죄인을 보내는데 북쪽의 몽골 땅에는 폐하의 자손(rgyal rgyud)들과 대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죄가 있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저를 그 위에 임명하여 보내면 그들 역시 폐하에 대해 낙담할 것이며 대군의 업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410>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대가 옳다. 바얀보다 진실한 자는 없다. 지금 내가 성지를 쓸 것이다. 바얀이 만체 왕국을 취한 것과 힘을 다한 것을 성지의 맨 위에 적고 악인들이 거짓을 아뢰는 것을 그 가운데에 적어라. 바얀이 정직하므로 -149- 명성과 권력이 높아진 것은 마지막에 써라. 제왕, 공주, 부마(mag pa), [관군관(dmag dpon)]¹³⁴¹ 군인, 관민관(mi dpon), 백성들로 하여금 바얀이 어떤 것을 말해도 그 말을 듣게 하는 성지를 발표하여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 뒤 바얀 승상을 가게 하라 (‘grim!’)”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얀은 군대를 통솔하여 몽골 지방의 국토를 안정시키고 조정으로 돌아왔고 황제는 또한 바얀에게 다른 이와 비할 수 없는 대우를 해주셨고 황족들과 대신들에 의해서도 역시 잘 공경받는 <411> 보배 같은 대신이었다. [138b] 겐칭gal ching 聖旨¹³⁴² 중에 최초가 이것이라고 한다.¹³⁴³

¹³⁴⁰ 中譯本은 接官亭이라고 보았다. GBB: je gon mting.

¹³⁴¹ GBB에는 없다.

¹³⁴² 무엇을 뜻하는 지 알 수 없다.

¹³⁴³ 위 기사에 의하면 바얀은 처음부터 남송을 정벌할 인재로 천거된 것이며 그 추천인이 바로 帝師 팍빠라고 하고 있다. *In the Service of the Khan*에 바얀의 전기를 쓴 소계경은 팍빠가 바얀을 추천했다고 주장하는 티베트 사료의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이 “혼

팍빠 라마에게 황제가 佛法에 관한 논의는 물론, 세속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던 증거 중 하나가 이것이다. 라마 또한 佛法과 일치하는 세속의 좋은 일을 황제에게 강설했다고 한다. 만체의 황제를 필두로 귀순자들이 올 때, 巨州dzu chu¹³⁴⁴의 호법신전(mgon khang)을 보고서 “우리 지방에 군대가 이르렀을 땐 앞에서 도착한 검은 사람이 종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또한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말했다. 시주-복전 두 사람이 논의하여 바얀 승상을 만체에 보내고 왕국을 취한 것에 대하여 衆生の 보호자 팍빠께서는 “만체의 많은 왕들이 안정시킨 지역들을 당신이 <412> 親征하지 않고도 우리가 취하여 하나의 세계('dzam gling)¹³⁴⁵로 합쳐졌습니다. 당신은 轉輪聖王'khor lo bsgyur rgyal과¹³⁴⁶ 같습니다.”라고 경축하였다. 요약하면, 쿠빌라이 법왕에게¹³⁴⁷ 중생의 보호자 법왕('gro mgon chos kyirgyal po) 이 주신 가피로 몽골과 漢地의 대 財富로써 사까를 필두로 한 이 티베트 지역에 -150- 가르침이 있게 되었으니 이는 이 시주-복전 두 사람의 은덕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의 원본은 [139a] 중서성cong zhu zhing의 관서에¹³⁴⁸에 있는데¹³⁴⁹ 筭子

동(confusion)은 당시 바얀에 대해 쿠빌라이의 주위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In the Service of the Khan*, p.587). 한편 뽕조르 상보로서는, 바얀이 팍빠와 무관한 인물이라면 자신의 저작에 싣고 그의 무고함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¹³⁴⁴ GBB: ji ju.

¹³⁴⁵ dzam gling. 잠부링dzam bu gling의 줄임말. 잠부 땅. 한문 佛書의 섬부주膽部洲.

¹³⁴⁶ GBB: 'khor los sgyur rgyal.

¹³⁴⁷ go se la chos kyirgyal por' 쿠빌라이는 티베트 저작에서 보통 go pe la라고 적는데 여기서 go se la라고 쓴 것은 필기체 's'와 'p'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GBB에는 없다.

¹³⁴⁸ khirms ra. 원래 법정을 가리키나 일반적인 관청을 의미하기도 한다.

¹³⁴⁹ GBTB는 있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서 중서성에서 차자를 받았다고 쓰여 있다.

bca' tshe¹³⁵⁰ 받은 blangs 그것이다. 사본 하나를 벱 부카 sbeg su kha¹³⁵¹ 승상 ching sang이 뵈첸 왕축 찼뒤 dbang phyug brtson 'grus¹³⁵²에게 주었었는데, 원 문은 위구르 yu gur 문자로 쓰였고 몽골문이 함께 있는 大元通制 ta'i dben mthong ji 그 책을 알룬인 yar lung pa¹³⁵³이 가져갔으나 그 뜻은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을 썼다.

5. 상가 sang gha(桑哥, -1291) 승상 이야기

또한 <413> 복덕있는 세첸 황제 재위기에 상가 sang gha¹³⁵⁴라고 하는 大臣이 있었

¹³⁵⁰ 箭子を 가리킨다. 中譯本은 짜체랑을 합쳐서 左司郎의 음역으로 보고 ‘中書省 衙署 左司郎에 있었다’고 번역했으나 옳지 않다.

¹³⁵¹ GBB: sbag po. 벱 부카는 호광행성 승상이었는데 문종 지화 원년 中書 左丞相에 임명 되고 같은 해에 知樞密院事에도 임명되었는데 다음 해에 파면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Luciano Petech,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pp. 97-98; 胡海帆, 「廬山八思巴字摩崖題刻暨左丞相別不花生平考述」, 『東南文化』 2007, vol. 4 참고.

¹³⁵² 줄여서 왕찼이라고도 하며, 1347년에서 1350년까지 사가 뵈첸이었다. 그는 뵈첸 재임시에 팍모두 만호장 장츄 겐첸(Byang chun rgyal mtshan)을 거짓으로 속여 감금하고 만호장 직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결국 실패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상세한 내용이 장츄 겐첸의 자서전 적 저작인 『랑씨 가족사』에 실려 있다(Byang chub rgyal mtshan, *Si-tu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 mthong ba don ldan*, Bod-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Lhasa, 1989, pp. 106-107). 또한 왕찼은 뵈첸 왕찼은 교만하여 몽골인과 사가인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고 선위사 son wi si pa도 머리를 조아렸다고 한다(Byang chub rgyal mtshan, p. 114).

¹³⁵³ 알룬의 사람. 쿼읍은 이것이 알룬 조오 교법사를 쓴 알룬 조오일 것이라고 보았다 (Leonard W. J. van der Kuijp, *Jambhala: An Imperial Envoy to Tibet during the Late Yu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993, Vol. 113, No. 4, p. 535).

¹³⁵⁴ GBTB와 GBC는 상가 sang gha. GBT는 삼가 sam gha. 이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samgha에서 왔고 한문으로 僧伽, 즉 승려 집단을 의미한다. 발음이 유사한 이름으로 쟁계

는데 까마룩bka' ma log¹³⁵⁵ 종족rus pa¹³⁵⁶ 출신의 청년이었으며 몽골어, 한어, 위구르어와 티베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아는 譯官lo tsA ba이었다. 처음에 라마 팍빠가 도매의 漢地와 티베트 경계에 이르렀을 때 뵈고, 힘을 쓰게 해달라고 청하여¹³⁵⁷ 譯官lo tsA ba에 임명되었으며 수구르치zu gur che¹³⁵⁸ 업무도 하고 었다. 그때 그는 광대한 지혜와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져서 라마가 기뻐하며 황제의 어전에 자주 파견하였고 황제 역시 그의 지혜와 공덕을 생각하여 라마에게 청하여 [상가를] 여러 직책에 차례로 임명하였으며 그는 유능하게 해냈다. 宣政院son jing dben의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그는 메톡 라바me tog ra ba 사원(bde chen)¹³⁵⁹에 <414> 라마에게 법을 청하는 靜室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태사tha'i sa¹³⁶⁰가 죄를

seng ge가 있는데 이는 티베트어이며 ‘사자’를 뜻하는 별개의 이름이다. 상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Igor de Rachewiltz et al. ed., *In the Service of the Khan: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uan Period (1200-1300)*, pp. 558-583 참고.

¹³⁵⁵ 까마룩에 대하여는 <법왕 티베트 군주들의 역사> 장의 티송 데쨌에 대한 기록에 그의 대신 티숨제딱나khri gsum rje rtag sna가 “漢地, 돌궐gru gu, 남조ljangs 세 지역과 협상하여 한-티베트 경계에 티베트의 용사 아홉 명을 필두로 한 군대¹³⁵⁵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였고, 이로 인해 까마룩bka' ma log¹³⁵⁵이라는 대 부족이 형성되었다.”고 적고 있다.

¹³⁵⁶ GBTB: brgyud pa

¹³⁵⁷ shed mong 'dab pa. GBB는 이 뒤에 차ja를 넣어서 차를 청했다고 되어 있으나 GBTB와 GBC(shed mong 'dab <pha> [pa]r zhu byas pa를 따랐다.

¹³⁵⁸ zu gu chen po. GBTB와 GBC: zu gur che. 몽골어 sikürchi.

¹³⁵⁹ 메톡 라바는 花宛이라는 뜻이며 大都에서 팍빠가 머물던 장소의 이름이다. 보통 ‘메톡 라바의 데첸sde chen’ 즉 ‘花宛 大寺’로 기록되어 있다. 나까무라 준(中村 淳)은 이 사원이 大護国仁王寺일 것이라고 보았다. 大護国仁王寺는 대도 서쪽, 高梁河(高良河)강가에 있었다. 大護国仁王寺에 대하여는 中村淳, 『元代法旨に見える歴代法師の居所大都の花園大寺と大護国仁王寺』, 『待兼山論叢(史学篇)』, vol. 27, 1993, pp. 57-82 참고.

¹³⁶⁰ 어사대를 가리킬 것이다.

물어 [139b] 상가를 감옥으로 끌고 갔다. 그때 갈레후ka le hu¹³⁶¹에서 부처님의 열 두 공덕의 彫像을 모셔와서 세상의¹³⁶² 음악과 공연이 열리니 황제도 역시 와서 권 속들과 함께 관람하셨다. 그 곳에 라마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라마가 말하기를 “우리 티베트에서는 아들이 감옥에 끌려간 아버지는 -151- 길을 갈 때도 부끄러워 합니다. 나의 상가는 나에게 법을 청하기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사대 tha'i sa가 잘못이라고 하고 감옥으로 끌고 갔으니 나는 [彫像과 공연을 보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를 황제에게 보고하였고, 황제는 “라마가 가는 침실을 위한 것이라면 그에게 죄가 없으니 풀어주어라! 라마에게 보내라!”고 하는 명을 내 렸고 상가는 <415> 죄에서 벗어났고 시주와 복전¹³⁶³은 만났다.¹³⁶⁴

또한 선정원에 임명되었을 때 라마가 사까에 이르렀는데, 썬첸 편가 상빠가 신의 를 어겼기 때문에 [어떤 이가] 조정에 상주를 보냈다. 사까와의 관계는 특별히 중

¹³⁶¹ 정확한 비정은 어려우나 나까무라 준은 갈레후가 高粱河의 음사일 것이라고 보았다. 中村 淳, 「モンゴル時代におけるパクパの諸相 - 大朝国師から大元帝師へ -」, 『駒澤大学文学部研究紀要』, vol. 68, p. 37

¹³⁶² GBB: 'dzam bu gling 'dir. 이 세상에 GBTB: 'dzam bu'i gling gi. 세상의. GBTB를 따 랐다.

¹³⁶³ 쿠빌라이와 팍빠.

¹³⁶⁴ 이 일은 쿠빌라이 초기의 일이고 상가가 처벌받은 기록이지만 이 일이 팍빠가 제사에 임명된 후 대도에서의 일이고 아들이라고 부를만큼 가까운 자신의 친신이였음에도 팍빠가 처음부터 어사대의 상가 구금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감찰 기관 인 어사대의 권한이 컸던 것과 그 반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큼 몽골 조정에서 帝師의 권 력이 크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쿠빌라이가 대칸이 되기 전, 사까가 國師나 帝師 가 되기 전에는 더 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까측의 저작은 앞에서 본 대로, 팍빠가 토번 제 국 시기를 언급했다가 쿠빌라이로부터 “티베트에 왕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비난을 들은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어느 때는 티베트에 과세를 엄중히 하려는 쿠빌라이의 계획 을 팍빠가 반대했으나 쿠빌라이는 듣지 않았고 이에 팍빠가 “그렇다면 나는 티베트로 돌아 가겠다”고 했으며 쿠빌라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쿠빌 라이의 카툰 차부이가 팍빠의 티베트 행을 만류하도록 쿠빌라이를 설득했다고 한다(Ngag dbang kun dga' bsod nams, 'Jam mgon A myes zhabs, pp. 151-152).

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돕기로 하고 大臣 상가를 수장으로 하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가게 하시니 상가가 말하기를 “티베트 위짱dbus gtsang은 땅이 좁은 계곡이어서 대군을 수용할 곳이 [140a] 없습니다.”라고 했고 [황제가] 주요 몽골군¹³⁶⁵ 7만에 더하여 티베트 도피와 도매군을 함께 하여 10만여 군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 “그것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니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청했고 명령이 내려져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執法軍¹³⁶⁶을 이끌고 우육¹³⁶⁷ 메톡링me tog gling에 이르렀을 <416> 때, 땅이 넓으니 라샹lha shangs에서 軍路를 만들려고 하였다. 찰리동 사람chab li grong pa¹³⁶⁸ [이며 라마 팍빠의 차시종이고 상가 대신의 벗인]¹³⁶⁹ 룽뵐¹³⁷⁰ 로되 상뽕blo gros bzang po라는 이가 막사로 차를 대접하러 왔고¹³⁷¹ 진로를 랑도lang 'gro에서 꺾어 몽골군의 방향을 바꾸어 장악하기 위하여 먼저 랑도의 붉은 성mkhar dmar을 무너뜨려 취하고 그 다음 吉祥 자룩창bya rog tshang¹³⁷² 城에 포¹³⁷³를 맹렬히 쏘아 편가 상뽕을 치되하니 대군의 업무는 완수되었다.¹³⁷⁴ 라마와 대 사원에 대한 믿음과 큰 존경의 힘으로 사가에 -

¹³⁶⁵ rtsa ba'i hor dmag. 앞에서도 나온 표현인 것으로 보아 특정한 명사인 듯하다.

¹³⁶⁶ GBB는 khri dmag 즉 만-군으로 되어 있으나 GBTB에 따라 “khrims dmag(법-군)”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khrims dmag”은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하는 군대에 대해 쓰는 용어다.

¹³⁶⁷ 짱gtsang의 한 지역.

¹³⁶⁸ GBTB와 GBC는 “찰리동에서(chabs li grong na)”로 되어 있다.

¹³⁶⁹ GBB에는 없다.

¹³⁷⁰ slob dpon. 대학자.

¹³⁷¹ GBTB와 GBC는 이 구절 뒤에 ‘만나 뵈기를 청하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¹³⁷² 자룩창은 현 시가째의 白朗현.

¹³⁷³ sgyogs.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 내에서 포를 사용한 드문 기록이다.

¹³⁷⁴ 문맥으로 보아, 자세한 언급은 없으나, 진로 변경은 아마도 팍빠의 차 시종인 룽뵐 편가 로되의 조언인 것으로 보인다.

152- 이르러, 짝충당강bcags chung brang khang을¹³⁷⁵ 그가 건설했고 입구에 양
체g.yang tshe¹³⁷⁶ 글자도 漢地의 양식으로 했으며 라마에게로 무슨 일이 있어도
¹³⁷⁷ 올 것을 생각하고 <417> 있었다. [140b]

그 뒤 전체 집법군이 돌아갈 때 뽕보르강spom 'bor sgang부터 니마권nyi ma
mgon과 다르게dar dges를 필두로 하여 군사 160명을 뽑아 롬뽕 다르마팔라
dhar+ma pha la¹³⁷⁸의 친위(sku srung)로 삼고 사까의 근시로 배치하고, 몽골군 7
천명 중에 7백명은 서부 몽골(stod hor)의 경계를 지키게 하기 위해 배치했다. 남
권사르gnam dgon gsar에 우마르 착u dmar chag을 필두로 하는 몽골군 4백명을
배치하고, 도르타rdor tha¹³⁷⁹를 수장으로 하여 바락sba rag의 군대를 세리롱se ri
rong에 배치하였으며 우푸르u phur¹³⁸⁰의 군대를 짝체lcags tshe¹³⁸¹, 디구gri gu
와 안독yar 'brog에 주둔하게 보내 둥렝dung reng¹³⁸²을 막게 했다. 도르반 투만
¹³⁸³의 군대는 사원 전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숨의 나마르na dmar, 나룽na rong
등 장탕의 草地에 배치했으니 상가의 은혜가 크다.

¹³⁷⁵ GBB: 쪽충당 칸샤르 lcog chung brang khang shar.

¹³⁷⁶ “성스러운 생sacred life”의 의미.

¹³⁷⁷ GBB: cis kyang GBTB: phyis kyang

¹³⁷⁸ 다르마 팔라(1269-1287). 다르마팔라 락시따答儿麻八刺刺吉塔라고도 한다. 팍빠의 동생
인 착나 도르제phyag na rdo rje(1239-1267)의 유복자. 3대 帝師이며 아들이 있었으나 그
아들이 요절하여 착나 도르제 계의 대가 끊겼고 유일한 권씨 후손이 다니 쩌뽕 상뽕뽕이 되
었다.

¹³⁷⁹ GBTB: dho tha.

¹³⁸⁰ GBTB: us phur.

¹³⁸¹ GBTB: lcags rtse

¹³⁸² 원대 히말라야 남록에 있던 부락명. 간쑤와 산남 남부 지역을 약탈.

¹³⁸³ <hor> [rdor] ban thu man.

이전에 북쪽의 역참‘ja’ mo들은, 삭swAg, 삭shang, 찌마르tsi dmar, 샤포sha pho, 콩skong, 궤사르dgon gsar, 가와gya ba 등의 <418> 대참을 티베트 위짱의 만호인들이 유지하는 사람’dzin mkhan을 일년 내내lo khor 머물러야¹³⁸⁴ 했으므로 고충이 지극히 컸다. 티베트인들¹³⁸⁵이 북쪽(byang)에 적응하지 못해 도망쳤기 때문에 역참이 추워서¹³⁸⁶ 운영이 되지 않았고 몽골-티베트 사신이나 여행자들에게 단계별로 오게르가o ger ga¹³⁸⁷의 역마u’ lag를 그들 자신이 구비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그와 같이 大臣 상가가 [141a] 푸르phur와 바락sba rag 등지의 군인 중 장탕에 있는 자들을 역참의 삽디텐人zab bri ‘then mi을¹³⁸⁸ 위해 별도로 배치하고, 위 지방 만호들의 땅고rta mgo¹³⁸⁹ 호dud¹³⁹⁰로부터 짐 실을 말, 承畜, 양고기, 역참에 공급할 -153- 청보리, 차테르phyra ther,¹³⁹¹ 야크 텐트, 안장 천, 짐 나를 야크, 화덕, 방석, 의약비를 民戶dud mi와 함께 몽골에 주는 것을 법으로 하니, <419> 위 지역 사람들dbus pa은 북쪽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몽골 군사들에게 티베트 물자로 역참에 지은 물품들이 매년 오게 되니 여행객들에게 역참의 역마가 비지 않게 되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 이것 역시 상가 승

¹³⁸⁴ GBB는 gtong 즉 “보내야 했다”고 되어 있다. 이전의 규정에 따르면 장탕 초원의 역참 지을을 위해 위짱인들이 직접 가서 참역에 복무해야 했다.

¹³⁸⁵ GBTB는 티베트인(bod mi)이라고 적었고 GBB는 티베트 군대(bod dmag)라고 했다. 전자가 더 개연성 있다.

¹³⁸⁶ GBTB: ‘jams grang por. GBT: 역참의 주거지(‘jam brang so)가.

¹³⁸⁷ 오게르가의 뜻을 알 수 없으며 몽골어의 음사일 가능성이 있다. GBT: 오게카o ge kha.

¹³⁸⁸ GBT: za ‘khri ‘then pa. 철자가 다르게 나타나나 발음이 유사한(GBTB: 삽디텐, GBT: 사티텐) 것으로 보아 몽골어의 음사인 것으로 보인다. 각 표기의 끝 글자 pa와 mi는 둘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¹³⁸⁹ 단어 자체의 의미는 馬頭. 50호를 가리킨다.

¹³⁹⁰ 50호를 가리킨다.

¹³⁹¹ 의미를 알 수 없다. GBB: cha ther. 中譯本은 베(褐布)라고 번역했다.

상의 은혜이다.

그가 티베트로부터 돌아가서 중서성cong zhu zhing의 승상에 임명되었을 때 카르와mkhar ba의¹³⁹² 銅錢dor tshe이¹³⁹³ 유통되던 것을 鈔cha ‘o로 바꾸어서 財庫에 도움을 주고 제국에 이익이 되니 호평을 얻었다. 전에 대신들 중 뇌물을 받아 벌을 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법도 가벼워졌으니 상가 승상이 이전 漢人들 시기의 오래된 관행을 찾아서 内外의 대소 관청 대신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과 입을 것을 위한 俸錢hun rtsen을¹³⁹⁴ 주고 그 妻 등에게도 <420> [141b] 쌀za ‘bras dmar po¹³⁹⁵ 등을 주었으며 뇌물을 받지 못하는 법su bcas pa에 맞게 법을 엄격하게 했다.¹³⁹⁶ 백성들도 기뻐하였으며 지금까지¹³⁹⁷ 大臣들에게 봉전을 주는 것도

¹³⁹² Mkhar ba는 일반적으로 지팡이나 사원의 게스트 하우스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Mkhar는 城이라는 뜻이며 ba는 사람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약 mkhar pa의 오기라고 한다면 카르빠는 바얀 기록에서 본 대로 발라가치balayači의 티베트어 번역이며 管城官을 가리키기도 하며 庫지기를 지칭하기도 한다.

¹³⁹³ GBTB: dong tshe. 티베트어가 아닌 것은 분명하여 “동전”의 음사로 보인다. 중역본도 동전으로 보았다.

¹³⁹⁴ 혼젠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일단 俸錢의 발음을 옮긴 것으로 보았다.

¹³⁹⁵ 붉은 쌀. 질이 낮은 쌀을 가리킨다.

¹³⁹⁶ 상가가 관료와 그 가족에게 봉록과 식량을 지급하여 부패를 예방하려 했다는 내용은 한문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元史』의 기록을 종합하면 상가의 정책은 1) 무능력한 관원 탄핵. 쿠빌라이 지지하에 병부상서 쿠툽다르 등 관원들을 파면했다. 이것이 조정의 고위 관료 특히 몽골 귀족들의 반감을 불러온 것은 당연할 것이다 2) 鈎考를 통한 재정 확보. 구고 혹은 理算이 상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행해진 것은 상가가 상서성 右丞이 되고 나서 실시한 1288년의 구고였다. 상가와 그 휘하의 관원들이 1288년부터 1289년까지 전국 각 省의 재무에 감독과 검사 진행하고 많은 부패 관리를 처벌했다. 이는 지방뿐 아니라 중서성 등 중앙 관서도 포함했다 3) 稅收를 증가시킴. 鹽課 1리에 중통초 30 관이던 것을 1錠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세입을 증가시켰다. 상가의 재정 정책에 대하여는 李治安, 『元代政治制度研究』, 人民出版社, 2003, pp. 561-594; 羅賢佑, 「論元代畏兀兒人桑哥與便哲篤的理財活動」, 『民族討論』, 1991, vol. 6, pp. 102-109; 楊德華, 「元代藏族宰相桑哥理財的政績」, 『中國藏學』, 1995, vol. 4, pp. 64-69 참고.

상가의 은혜임을 기억한다. 또한 가르침과 티베트에 이익을 주고 보시를 보내는 등도 그가 라마를 받들기 zhab tog 위해 청한 것이니 큰 이익이 생겨났다.

또 다른 면에서 상가 승상¹³⁹⁸은 지혜가 방대하고 재물이 있어서 많은 몽골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재고를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케식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말 때문에 승상이 다른 이들의 재물을 뇌물로 취했다고 비난하며 황제가 밖으로 가는 길에 케식들이¹³⁹⁹ <421> -154- 上奏하여 고발하니 [황제가] 말씀하시기를 lung gis “케식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¹⁴⁰⁰ 상가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뇌물을 주었으면 다른 이를 고발해라. 그에게 재물이 있다고 말하여 허물을 찾는 것을 어디서 듣는가?”¹⁴⁰¹라고 하며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케식장들이¹⁴⁰² 케식들을 선동하여 다시 아뢰니 [황제가 이 일을] 평식할 방도를 행하여 상가에게 “울룩u lug과¹⁴⁰³ 그대 두 사람이 만나라.”고 [142a] 하셨다.¹⁴⁰⁴ 상가가 울룩을 가

¹³⁹⁷ 이 글이 쓰인 시기가 상가 이후, 원 멸망 이전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빨조르 상뵈는 구전으로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원대에 기록된 문서를 자신의 저작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¹³⁹⁸ 여기서는 삼가 칭삼sam gha cing sam이라 적었다.

¹³⁹⁹ GBB에 dos pa라고 되어 있으나 GBTB와 같이 res pa 즉 케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¹⁴⁰⁰ GBTB와 GBC: ‘확실히 모른다nges shes med’로 되어 있다.

¹⁴⁰¹ 재물이 있는 것이 허물은 아니라는 뜻.

¹⁴⁰² <dos> [res] pa.

¹⁴⁰³ 위의 바얀 승상 절 참고.

¹⁴⁰⁴ 몽골 제국의 제도들 중 케식은 가장 몽골적인 기구 중 하나였다. 케식은 군주와의 관계에서 세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중국의 엘리트 친위대보다 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칭기스 칸은 이 케식의 구성원들을 네 조로 나누고 각각 삼일씩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하며 각 조에 케식 장을 두었다. 케식 장은 세습적으로 칭기스 칸의 4傑 즉 보로굴, 보르추, 무칼리, 철라운의 후손들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후 변동이 있었다. 울룩 노얀은 보르추의 후손이다. 원대의 케식에 대하여는 史衛民, 『元代軍事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11장 참고.

운대에 앉히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고 자신의 모자와 옷과 허리띠를 바치며¹⁴⁰⁵ 안다an ta가 되기를 청하니 “모자와 옷과 허리띠를 가져와도 원하지 않는다. 잔치는 황제가 주신 선물이니 먹었다.”라고 하고 떠났다고 한다.

후에도 또한 케식들이 케식장들과 <422> 울룩 노얀u lug no yon을 꺾어 상가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난하여 아뢰니 마침내 황제가 “그의 재산을 비난하고 허물을 찾는 것을 들었다. 제국의 재부는 나의 것이다.”¹⁴⁰⁶ 그렇다면 내가 직접 묻겠다.”라고 하시고 예전에 상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황제 자신이 알면서도 허물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을 후에 폭로하면서 “상가 너는¹⁴⁰⁷ 상도shang rdo¹⁴⁰⁸에서 대도ta'i du로 파견했을 때 오르두'ur rdo가 이동하는 도중에 나무 밑 그늘에 내가 앉는 옥좌에 네가 앉았었다. 대도ta'i tu에서 내게 보내온 장미나무 열매(se thog) 상자의 봉랍 huM la을¹⁴⁰⁹ 찢고 새뿔zas phud¹⁴¹⁰를 먹어 버린 것은 잘못이 아닌가? 또한 내 몸에 땀rngul¹⁴¹¹이 많아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고 나서 다시 바느질하면 [142b] 몸에 끼기¹⁴¹² 때문에 漢人 재봉사로 하여금 <423> 솔기가 없는 옷을 만들게 하여 두 벌이 있는데 너에게는 세 벌이 있다고 -155- 한다. 나보다 많은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닌가?”라고 하셨다.¹⁴¹³ 질문 세가지를 하시고 나서 “지금 나라의

¹⁴⁰⁵ phul. 주다의 높임말.

¹⁴⁰⁶ GBTB는 ‘나의 것이 아니다nga'i min’이라고 했다. GBB를 따랐다.

¹⁴⁰⁷ 앞에서 황제는 상가에게 당신khyed이라고 했고 이 문장에서는 너khyod라고 하고 있다.

¹⁴⁰⁸ GBB: shang mdo.

¹⁴⁰⁹ 중국어 黃蠟에서 왔다고 한다. 서신 등의 입구에 붙여 蠟印을 찍어둔 것. GBB: hung la.

¹⁴¹⁰ food-offer 혹은 food-first 신선한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 신에게 바치는 것.

¹⁴¹¹ GBTB: rdul. 먼지, 때.

¹⁴¹² GBTB GBC: dog por. dog mo: narrow, dense, thick.

¹⁴¹³ 『집사』도 상가가 결정적으로 쿠빌라이의 신임을 잃는 장면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다. 즉 쿠빌라이는 상가에게 진주 몇 개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그가 부정축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내게는 왜 진주와 보석을 갖고 오지 않은 것이냐? 나쁜 옷감으로

업무를 맡기에 적절한 사람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시니 “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하고 물으시니 승상은 자신의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¹⁴¹⁴

그를 시종에게 명하여 데려가게 했고, 그 뒤에 승상이 그 곳에서 무엇이랴 하는지 볼 사람을 보냈는데 “그는 刑場¹⁴¹⁵에 도착하자 ‘그대들의 칼은 예리하게, 손은 가볍고 민첩한 방식으로 하라.’¹⁴¹⁶고 말했고 사형 집행인은 ‘네가 웅얼거리는 bzlas pa¹⁴¹⁷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찌할 것인가. 나는 알고 있다.’¹⁴¹⁸라고 했습니다.”라고 전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나의 상가가 떠날 때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424> 그 악한 자들을 각각 107대씩 처라!”¹⁴¹⁹라고 명했다고 한다. 그 때 만약 라마 팍빠가 계셨다면 자비심을 보여서 목숨을 살렸을 것이다라고들 말한다. 그는 죽었지만 공적이 큰 훌륭한 대신이었으므로¹⁴²⁰ [143a] 그의 사적을 쓴다.¹⁴²¹

된 옷은 내게 갖다 주고, 비할 데 없이 좋은 현금과 목걸이는 너 자신이 취하는 것이냐?”라고 비난하고 그를 처형했다는 것이다(김호동, 『칸의 후예들』, pp. 439-430).

¹⁴¹⁴ 즉 상가는 자신만큼 쿠빌라이 조정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인물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런 자신감은 『元史』 「桑哥傳」의 기록에서도 보인다. 상가는 쿠빌라이에게 이전의 토번 관련 업무가 중요하므로 총제원을 선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秩을 종1품으로 하자고 상주했고, 이에 쿠빌라이가 어떤 인물을 쓸 것인가 묻자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한 사람을 댔다. 쿠빌라이는 그를 開府儀同三司, 尙書右丞相에 임명하고 宣政院使를 겸하게 하고 功德使司를 관령하게 했다(『元史』 卷205 「桑哥傳」).

¹⁴¹⁵ sgrol ba'i sa

¹⁴¹⁶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해달라는 뜻일 것이다.

¹⁴¹⁷ GBB는 zlas.

¹⁴¹⁸ GBB에는 사형수가 한 말 중 “어찌할 것인가, 나는 잘 알고 있다.”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¹⁴¹⁹ 이 책에 등장하는 태형의 대 수는 모두 107대로 나온다.

¹⁴²⁰ 일방적으로 상가를 탐욕스럽고 부패한 관리로 그리고 있는 한문 사료나 페르시아어 사료와는 달리 『한장사집』은 상가가 국고를 충실히 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케식의 이익을

6. 위짱dbus gtsang과 아리mnga' ris의 戶計 조사와 역참 관리¹⁴²²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반대 세력의 핵심에 케식장과 케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룩 노얀은 보르추의 후손으로 그의 가문은 대대로 제 2케식의 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가뿐 아니라 그 이전에 아흐마드, 노세영 등 서역 출신 재무 관료들은 강남에 강경하고 급속한 재원 확보책들을 시행하였고 五戶絲戶와 江南戶鈔 分地에 주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몽골 훈신들로서는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안동 역시 몽골 대귀족 무칼리의 후예로 케식장을 역임했는데 그 역시 상가가 백성을 학대하고 나라를 망친다며 그 등용을 강하게 반대했다(“是歲，復立尙書省，安童切諫曰：「臣力不能回天，乞不用桑哥，別相賢者，猶或不至虐民誤國。」不聽。二十五年，見天下大權盡歸尙書，屢求退，不許。”『元史』，列傳13，「安童傳」). 빨조르 상뽕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팍빠의 생전이었다면桑哥는 이와 같은 곤란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티베트 소부족 출신으로 팍빠 사망 후 조정에 기댈 세력이 없었던 상가는 대간의 강력한 지지가 없으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쿠빌라이의 신뢰를 잃자마자 권력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상가에 대해 『한장사집』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유는 또한 대간의 최측근으로서 제국의 재정에 대한 티베트 고위 승려들의 시각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가는 한인들에게도 비난받았는데 그가 鹽課의 가격을 올린 것 등의 문제 외에도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양 린첸 깡yang rin chen skyabs(楊璉真加, 楊璉真伽, 楊璉真珈, 楊輦真加 등)이 至元 14년(1277) 江南釋教都總統이 되어 강남의 불교 관계 업무를 관장했는데 佛寺로 佃戶 五十餘萬을 影占했기 때문이다. 또한 錢塘 紹興 등의 宋의 능묘를 도굴하여 진기한 보물을 탈취했는데 이 일에 상가도 관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양 린첸깡에 대하여는 崔紅芬, 「元代楊璉真伽佛事活動考略」, 『西部蒙古論壇』, 2015, no. 4, pp. 11-20 참고.

¹⁴²¹ 앞에서 본 대로 상가에 대한 기록은 티베트 내에서도 각 교파별로 큰 차이가 있다. 빨조르 상뽕가 상가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자신이 사까파 소속이고 상가가 와서 행한 일들이 몽골-사까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¹⁴²² 절의 제목은 필자. 이 절은 모든 행이 7음절로 이루어진 시처럼 되어 있다. 만호, 천호의 획정과 각 역참을 관리 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 장은 GBB는 생략이 많고 소략하다. GBTB를 따랐다.

吉祥!

[처음에 衆慶王mang pos bkur baἀ¹⁴²³

地味(sa zhag)¹⁴²⁴를 향유하고

그로부터 6대 짜에

四洲와 수미산에

기대어 人主人 군주가

十善法으로써 즐겁게 하시므로

중생이¹⁴²⁵ 어떤 연회라도 열었다.

人主人 군주 그의 아들로부터

왕통이 일백만 하고도

7만 代가 지난 뒤

調伏의 시대가 이르렀고 그 뒤

투쟁의 시대(諍劫)가 되었을 때

精飯王(zas gtsang rgyal po)의 아들로

석가모니께서 탄생하시니 <425>

神과 세속의 어둠을¹⁴²⁶ 밝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태양이 솟았다.

그리고 나서]¹⁴²⁷ 3천 년하고도

¹⁴²³ “모든 이가 추대한 왕”의 의미. 앞에서 본대로 불교적 세계관에서 인류 최초의 왕이라고 여겨진다. 처음 길상! 부터 이 구절까지는 붉은 색 잉크로 썼다.

¹⁴²⁴ 우주가 생기고 나서 첫번째 劫kalpa의 음식이다.

¹⁴²⁵ 'gro 'di.

¹⁴²⁶ bdun pa 일곱.” mun pa(어둠)”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¹⁴²⁷ 첫 행부터 여기까지는 GBB에 없다.

2백 9십년이 지났을 때
 북쪽 몽골의 땅에서
 대 북덕의 바다로부터
 칭기스 칸jing gir gan이라는 황제가
 대지의 보배로운 주재자로 태어나시고
 人主 그로부터 다섯번째 왕통인
 힘의 바퀴를 굴리시는
 세첸 칸se chen gan이라고 알려진 그분께서
 문수보살의 화신인 사까인
 법왕 팍빠를 초대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지게 하셨다
 라마의 업적에 의해
 설산을 둘러싼 티베트에서는
 황제의 財庫에 공물과,
 세금, 군역 [143b] 요역 세가지를 취하지 않았으니
 佛法과 세속을 연결하였기에
 雪域(kha ba can)에 자비의 힘으로
 人主인 군주의 궁으로부터 <426>
 라마의 주석지인 사까까지,
 마나사로바 호수ma dros pa로부터 네 개의 강줄기가
 大海로 흘러드는 것과 같이¹⁴²⁸
 두 시주 복전의 황금길에 있는
 마을과 도시들이 모두

¹⁴²⁸ 티베트어로 ma pham g.yu mtsho라고도 한다. 널리 알려진 이름인 마나사로바 Manasarovar는 산스크리트어로 마음, 지혜를 뜻하는 “Mānas”와 호수를 뜻하는 “sarovara”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해발 4590m에 위치해 있으며 카일라스 산의 빙하가 녹아 생긴 호수로 불교는 물론 원교, 힌두교, 자이나교 네 종교가 성지로 여긴다.

설역의 중생들이 모두
황제와 라마를 존경하니
身, 口, 意 셋에 대해 공경한 방식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누가 하겠는가.

그 중에서 위dbus와 짱gtsang
아리 꼬르 숨mnga' ris skor gsum 등의
지역을 확정하고
힘의 바퀴를 굴리시는
황제의 라마의 빼어난 주석지
길상 사까의 휘하에
다수의 대 만호에 의해
대 황제에 대한 봉사를 얻기 위하여
황제가 라마를 초대한지
10년이 지났을 때인¹⁴²⁹
흙-陽-용 해(1268) 연초에
조정에서 파견한 金字 사신
아핀a kon과 미링mi<ng> gling¹⁴³⁰ 두 사람이 와서
민호를 토지와 함께 <427>
대 몽골로써 이름을 붙인¹⁴³¹

¹⁴²⁹ GBB: 2백년 하고도/ 90년이 지났을 때 몽골 땅에서/ 대 복덕의 바다로부터/ 황제rgyal po 칭기스 칸jing gir gan./ 大地의 보배로운 주재자께서 탄생하셨다./이 人主로부터 다섯 번째 왕통에/힘의 法輪을 굴리시는/세첸 칸se chen gan이라고 알려진 그가/문수보살의 화신인 사까人 /法王 팍빠를 초대하여/십 년이 지났을 때/

¹⁴³⁰ GBTB: mi ling. GBB도 다음 기사에서는 미링mi ling으로 적고 있다.

¹⁴³¹ 몽골은 일정한 課稅 조건에 맞는 티베트 호를 “hor dud” 즉 “몽골 戶”라고 이름 붙였다.

근본 호계를 조사하였고
 그 해에서
 20년이 지난 불-돼지 해에
 대 관청으로부터 파견한
 호슈ho shu와 우누칸u nu khan 두 사람과 [144a]
 뽀첸 쇠누 왕축gzhon nu dbang phyug이
 나라를 조사하는 힘으로
 호계를 세는 것 무엇이든
 모든 총명한 이들이 기뻐하는 장식,
 보석의 環珠를 지키게 하셨다.

상부 아리 꼬르슴stod mnga' ris skor gsum은,
 설산에 둘러싸인 뿌랑pu rangs과
 돌산으로 둘러싸인 구게gu ge와
 강이 모두 둘러싼 망일mang yul
 그 지역들을 모두 합친 것이며¹⁴³²
 근본 호계는 2천 6백 그리고
 3십 5호를 집계하였다.
 영주mnga' bdag 휘하에 있는 것으로서
 아리 지역의 미데mi sde는
 7백 6십 7호였다.
 라뽀 로la stod lho의 호의 수는
 천 8십 9호였고 <428>
 라뽀 장la stod byang에 속하는 것은
 2천 2백 50호를 집계하였다.

¹⁴³² “아리 꼬르 슴”은 “아리의 세 지역”이라는 뜻이며 그 세 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라데lha sde와 관료들은 따로 밝혔다.

그리고 추믹 만호에

몽골 호가 3천 2십 3호이고

샬루zhal lu 만호는 3천

8백 9십 2호가 있었으며

북쪽의 유목민 만호는 후에 생겼다.

얀독ya 'brog 만호는 특이하게

열 여섯 부라고 여겨진다.

이제 라데와 관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¹⁴³³

망카르와mang mkhar ba와 딜첸dril chen 둘은

백 20호이다

짱빠는 87호이다

보동bo dong의 산중은 77호

도빠 마르와mdo spe dmar ba는 [144b 1백

25호로 집계되었다.

돔룽grom lung, 라싸ra sa, 카강kha sgang은

근본 호계가 75호이다.

조오jo의¹⁴³⁴ 옥좌khri¹⁴³⁵ 아래에는 35호.

라싸 낭까에는 33호로 나타났고

마르라탕은 10호이므로

¹⁴³³ 라데lha sde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神-백성의 뜻이며 사원에 속해 있어 부세와 요역을 사원에 제공하는 민호를 뜻한다. 위에서 라데에 대조되는 미데 즉 俗民을 설명하였고 라데와 관료는 따로 설명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문장 이하에서 각 지역 사원에 속하는 민호를 설명하고 있다.

¹⁴³⁴ Lord의 뜻이며 부처님을 가리키기도 한다.

¹⁴³⁵ 萬을 뜻하는 khri는 옥좌 보좌의 뜻도 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몽골 호 6백 6호가 된다.
그리고 <429> 장원으로부터gnas gzhi las go la
몽골 호 1백 3십 1호가 있다.

또한 라데나 미데의
만호 어느 쪽에서 속하지 않는 것으로
루참ru 'tshams에 3백 60호가 있다
가와와 농민, 목민이 1백 50호
탕차thang tsha에는 근본 호계가
1백 2호 있다.
총뒤tshong 'dusp는 1백 14호.
사까 내부의 게루dge ru에
耕地 종사자에 속하는
라띠 로와 사까 주변
꼬데ko dre와 도충gro chung의 오른쪽g.yas ru와
당라dang ra와 니다르ni 'dar, 미넥mi nyeg
그 지역들을 모두 합쳐 30호이다.
게루dge ru 로동lgo gdong에 40호와
다차아쨌bra tsha a btsan 46호로
3천 6백 30호가 있다
이들이 만호에 속하지 않는 [호이며]
짱 지역 아리에서 조사한
수승한 燈이 이것이다.

그리고 위dbus 지역이 관할하는
근본 호계를 취한 방식은 이것을 들었다. <430>

디궁의 농민bod¹⁴³⁶과 유목민'brog 둘에
 3천 6백 30호¹⁴³⁷가 있다.
 첼파'tshal pa에 3천 7백 2호¹⁴³⁸
 팍모두파phag mo grub pa는 2천 하고
 4백 3십 8호이다. [145a]
 야상파g.ya' bzang pa에는 3천
 가마rgya ma와 자일bya yul은
 5천 9백 5십을 취했다.
 따룽stag lung에는 5백 호가 있다.
 삼예bsam yas 푼다phu mda' 62호
 칭푸'ching phu는 8호로 조사했다
 되 푼다mdo' phu mda'는 70호가 있었다.
 궁카르dgung mkhar와 탕빠'phrang pa 둘은
 근본 대호가 70호 있었다.
 라빠lha pa가 관할하는 미데mi sde에는
 몽골 대호hor gyi dud chen¹⁴³⁹가 6백호였다.
 또한 짱gtsang에 속하는
 두구강gru gu sgang에 속하는 것으로
 몽골 호 2백 3십 2호

¹⁴³⁶ 명사 “뵈bod”는 티베트인들의 자칭이지만 유목민과 대비되는 정착민, 농경민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는 Leonard van der Kuijp, "The Tibetan Expression "bod wooden door" (bod shing sgo) and its probable Mongol Antecedent". 『西域历史语言研究集刊』, Beijing: Science Press. 3: pp. 89-134 참고.

¹⁴³⁷ GBB: 삼천 팔백 삼십 호

¹⁴³⁸ GBB: 삼천 칠백 호

¹⁴³⁹ 위에서 본 대로 몽골 제국 시기 티베트 호의 단위는 호르 뒤hor dud(몽골 연기)이며 몽골호 라고도 하는데 몽골 대호는 어떤 것인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카락빠kha rags pa에 8십 8호
랍쨌빠rab btsun pa 90호를 관할했다.
독빠'brug pa 2백 2십 5호.
탕뽕체thang po che 근본 호계
백 5십호이다. <431>
이것들에 의해 위 지역을 관할하였다.
이 방식이 몽골과 사까파
시주 복전 관계에서 위짱에서
토지를 조사한 최초이다.

픽 아리 꼬르 슝stod mnga' ris skor gsum에서
샤루zhwa lu 만호에 속하는 곳까지
아뀔a kon 미링mi<ng> gling이라는 자가 측량했고
그 이하 디궁까지의 땅은
사도 아끼닥si tu a skyid dag이 측량했다.

아리 꼬르 슝 지역과
위짱 4루ru를 모두 포함하여
몽골 호 3만 6천에
4백 5십 3호 [145b]
각각을 말하면 아리와
루참ru 'tshams 아래를 잘라 짱 지역에
1만 5천 6백
9십을 모두 집계했고
위dbus 지역에는 모두 2만
7백 6십 3호였다.
그들(위와 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얀독Ya 'brog의 16부에는

몽골 호 750호가 있었다.¹⁴⁴⁰

이 내용들은 <432> 사까의 뽌첸dpon chen¹⁴⁴¹

三路 軍民 萬戶zam gru gun ming dben hu¹⁴⁴²의

¹⁴⁴⁰ 『元史』의 티베트 13萬戶 기재를 비교해보면, Rgya Bod kyi Yig tshang(『한장사집』)과 일치하는 이름도 있으나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는 萬戶명도 보인다. 『元史』의 티베트 萬戶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沙魯(思)[田]地裏管民萬戶一員: 샬루Zha lu 만호 2) 搽里八田地裏管民萬戶一員: 철파'Tshal pa 혹은 Mtshal pa 만호 3) 烏思藏田地裏管民萬戶一員. 위짱전 지리 관민 만호. 티베트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이름이나, 사까派 직접 관할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 出蜜萬戶一員. चुमिChu mig 만호 5) 噶籠答刺萬戶一員. 복원 불가능 6) 思答籠刺萬戶一員: 따룽Stag lung 만호. 소속 호수도 500호 밖에 되지 않으며 사료에서 萬戶로 언급되지 않는데 萬戶 명단에는 티베트 사료와 『元史』에 모두 올라와 있다 7) 伯木古魯萬戶一員. 팍모두'Phag mo gru 만호 8) 湯卜赤八千戶四員. 탕포체Thang po che팔천호. 1300년경 팍모두를 벗어나 독립. 9) 加麻瓦萬戶一員. 가마Rgya ma 만호 10) 札由瓦萬戶一員. 자윈Bya yul 萬戶 ba. 1350년 기사에는 단지 千戶로 기록. 11) 牙里不藏思八萬戶府, 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 千戶一員, 擔裏脫脫禾孫一員: 야상G.ya' bzangs 만호부. 다루가치 1명, 만호 1명, 탈탈화손 1명. 원래 팍모두의 千戶. 이후 크게 늘어나 총 호수가 3千戶에 이르렀다. 12) 迷兒軍萬戶府, 達魯花赤一員, 萬戶一員, 初厚江八千戶一員, 卜兒八官一員. 디궁'Bri gung 만호부. 다루가치 1명, 만호 1명. 8 천호 1명, 도르파 관원 1명. (이상 『元史』, 卷87, 「百官3」). 『元史』는 '萬戶'와 '萬戶府'를 구별하고 있으며 '萬戶'에는 萬戶長 1명이 두어진 반면 매 '萬戶府'에는 萬戶長 외에 다루가치도 한 명 두어졌다. '萬戶府'에 속하는 것은 牙里不藏思八(야상파) 萬戶府와 迷兒軍(디궁) 萬戶府다. 이 구별은 티베트 사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몽골제국의 萬戶府는 추밀원이나 각 路가 관할하는 管軍萬戶府를 가리키는 군사 단위다. 군대의 규모에 따라 上, 中, 下 萬戶府로 나뉘었으며 上 萬戶府의 경우 다루가치 1명, 萬戶 1명, 副 萬戶1명 등이 두어졌다. 야상파 디궁은 몽케 시기 훌레구에게 분봉되었던 지역이며 이들 만호에 특히 萬戶府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사항이나 관련 기록이 없어 이에 대해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元史』의 萬戶는 탕포체 팔천호를 포함한다고 해도 12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티베트 사료에서 위짱 경계 지역의 단독 萬戶로 거론한 얀독Ya 'brog 만호는 『元史』에 이름이 없다 (최소영 석사논문, pp. 32-36).

¹⁴⁴¹ 사까파의 세속 업무를 관리하는 수장이며 몽골에 의해 사까파가 티베트 통치의 대리인이 된 후 티베트 13만호 전체를 관장하게 되었다.

¹⁴⁴² GBB: zan glu gun mi dban hu

칭호를 얻은 샤까 상뽕shA+kya bzang po의
책deb ther의 속릴shog ril이 있는 것과 같다.

변방의 모든 지역을 조사한 것은
환한 대낮에 한 것과 같이
태양과 같은 이 경전이gtsug lag 세속을
무엇을 원하든 밝게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대략적인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니
상세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전의 다른 문서를 보라.

짱 지역은 아뀐a kon과 미링mi<ng> gling이,
위 지역은 사도 아끼si tu a skyid가
근본 대호dud chen을 세웠다.

대참'jams chen을 지킨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짱gtsang 지역의 미데mi sde는 아리와 함께
4개 대참을 지키는데 각 참에 100명이 있다.
그 중 (라뽕) 로, (라뽕) 장, 아리 인 등이
吉祥 샤까에서 한 대참을 지킨다
라뽕로인들은 마르라탕mar la thang에 있는 소참'jam chung 하나
아리의 미데는 샹카zhab kha에 있는 소참과 <433>
감링gyam rings 소참과 뽕렌spong len의 군참dmag 'jams을 지키고
마팡ma phang의 소참은 [146a 뿌랑pu rangs인들이 지키며
남북 구게gu ge 두 지역의 소참 하나는
메톡 세루me tog se ru에서 지킨다고 한다.
추믹chu mig 만호 3천 2백 3호가

다르릉dar lungs 대참을 지킨다

샬루zha<|> lu는 3천 8백과

9십 2호인데

자룩창bya rogs tshangs인들이 8백

3십 2호를 따로 두고zur bzhag

3천 60호가 총뒤tshong 'dus를 지킨다

얀독ya 'brog의 16부와

자룩창의 땅고rta mgo¹⁴⁴³

28호 그들과

샹shangs의 추촉chu phyog 땅고¹⁴⁴⁴ 그들의 수는

11개인데 그들이 딱stag의 참을 지켰다.

야르십yar srib¹⁴⁴⁵의 소참은 얀독인들이

지켰다. 이것들이 짱 지역이다.

위dbus 사람들이 예전에 역참을 지킨 방식을 <434>

보여줄 것이며 이는 오늘날의 것이 아니다.

고빠go pe 역참에서 디궁인'bri khung pa

몽골 호 3천호가 지켰다.

가라ga ra 참에서는 자윈bya yul인들

2천 6백 5십 호가

첼파'tshal pa가 돌아가면서 속할 때

3백 5십호를 진압하여

3천호가 그 역참을 지켰다.

¹⁴⁴³ 땅고는 50호를 가리키며 그 단어 자체는 말머리를 뜻한다.

¹⁴⁴⁴ 여기서는 sta mgo로 썼다. 추촉은 물의 방향, 물 쪽. 의 뜻이다.

¹⁴⁴⁵ 얄룽 짱뵐의 河陰' srib 그늘. GBB: yas sribs

쪽sog 참은 가마rgya ma인들의 호
 2천 6백 50호(를)
 첼파의 수르카zur mkha에 근본 호계
 350호를 진압한 것으로써
 3천 호가 있었는데 그들이 지켰다.
 찌와르tsi dbar의 역참은[146b] 팍모두phag gru인의
 몽골 호 2천 4백과
 3십 8호가 있는 위에
 사딱sa stag이라고 하는 따룽인stag lung pa
 몽골 호 5백이 지켰고
 라빠lha pa 6백이 진압하여mnan 지켰다.
 싸포sha pho 역참에서는 두구강gru gu sgang,
 카락kha rag, 독빠'brug pa등과
 다마탕빠gra ma thang pa 2백 호와
 월카'ol kha인들 4호¹⁴⁴⁶
 이들과 <435> 라딱lha rtag이 지켰다. 라딱 위의
 다른 것들 사딱sa stag이라고 하는 것들이
 짱에 속하는 것으로 짱을 진압했다.
 콩rkong 참은 야상g.ya' bzangs의 근본 호계
 3천 호가 기꺼이 지켰다.
 이들 방식은 사까파의
 낭첸빠와 도원수du dben sha
 쇤누뀐gzhon nu mgon이라는 이가
 책deb ther 안에 쓴 것이다.

¹⁴⁴⁶ 4백호의 오기로 보인다.

빛나는 燈과 같은 이 쪽락이
현자를 밝히는 모습이다
라고 한다.
吉祥!

참고문헌

사전

Doerfer, Gerhard,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älterer neupersischer Geschichtsquellen, vor allem der Mongolen- und Timuridenzeit*, Band 4, F. Steiner Verlag, 1975.

Digital Archives Section,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of Dharma Drum

Buddhist College 法鼓佛教學院 圖書資訊館 數位典藏組, *Mahāvvyutpatti Digital version* <http://buddhistinformatics.ddbc.edu.tw/glossaries>

일차사료와 역서

Bsod nams grag pa, *Deb ther dmar po gsar ma*, Tibetan Text and English translation by Giuseppe Tucci,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1971.

Bsod nams rgyal mtshan, Sørensen, Per K. trans., *The Mirror Illuminating the Royal Genealogies*,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1994.

Bu ston rin chen grub, Stein. Lisa and Ngawang Zangpo tr., *Butön's History of Buddhism in India and Its Spread to Tibet*, Snow Lion, 2013.

Byang chub rgyal mtshan, *Lha rigs rlangs kyi rnam thar, A detailed account of the "Rlangs po ti bse ru" and the "Si tu'i bka' chems" of Si-tu Byang-chub-rgyal-tshan*, T. Tsepel Taikhang, New Delhi, 1974

Byang chub rgyal mtshan, *Si-tu Byang chub rgyal mtshan gyi bka' chems mthong ba don ldan*, Bod-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Lhasa, 1989.

大司徒 絳求堅贊 著, 贊拉 阿旺, 余万治 譯, 陳慶英 校, 『朗氏家族史』, 西藏人民出版社, 2002.

Chab spel Tshe brtan phun tshogs (ed.), *Bod kyi lo rgyus rags rim g.yu yi phreng ba*, (stod cha), Bod ljongs dpe skrun khang, Lhasa. 1989.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Toyo Bunko, no. 520-3066.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chen mo 'dzam gling gsal ba'i me long*, Kunsang Topgyel and Mani Dorji ed., Thim-phu, Bhutan, 1979, 2 volumes.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l rabs mang po'i legs bshad rnam grangs yid 'dzin nor bu'i phreng ba*, Pe cin: Krung go'i bod rig pa dpe skrun khang, 2007.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 Bod kyi Yig tshang chen mo*, Si khron mi rigs dpe skrun khang, 1985.

Dpal 'byor bzang po, G.yas ru Stag tshang pa, *Rgyal rabs gong ma'i legs bshad rnam dbye yid 'dzin lta bde go gsal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 dga' byed*, Bras spungs, phyi. ra. 20, Thub bstan nyi ma ed., 2010.

達倉宗巴 班覺貢布 著, 陳慶英 譯, 『漢藏史集』, 西藏人民出版社, 1986.

Dpa' bo gtsug lag phreng ba, *Dam pa'i chos kyi 'khor lo bsgyur ba rnams kyi byung ba gsal bar byed pa mkhas pa'i dga' ston*, Delhi Karmapae chodey gyalwae sungrab partun khang, Delhi, 1980.

Dpa' bo gtsug lag phreng ba, *Dam pa'i chos kyi 'khor lo bsgyur ba rnams kyi byung ba gsal bar byed pa mkhas pa'i dga' ston*, Mi rigs dpe skrun khang, 1986.

巴卧 祖拉陳瓦 著, 黃顯•周潤年 譯注, 『賢者喜宴-吐蕃史 譯注』,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0.

'Gos Lo tsā ba Gzhon nu dpal, Deb ther sngon po, Si khron Mi rigs Dpe

skrun khang, Chengdu, 1984.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Zahiruddin Ahmad tr., *The Song of Queen of Spring or A History of Tibet*,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and Aditya Prakashan, New Delhi, 2008

第五世達賴喇嘛，郭和卿 譯，『西藏王臣記』，民族出版社，1983.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Sa skya'i gdung rabs ngo mtshar bang mdzod*, Mi rigs dpe skrun khang, 1986.

阿旺 貢噶索南 著，陳慶英，高禾福 周潤年 譯注，『薩迦世系史』，西藏人民出版社，2002.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Jam mgon A myes zhabs, *'Dzam glinng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Sa-skya gdung rabs chen mo*), Delhi : Tashi Dorji ed., Dolanji, H.P., 1975.

'Phags pa Blo gros rgyal mtshan, *Shes bya rab tu gsal ba*, Derge edition.

Sba gsal snang, *Sba bzhed*, Mi rigs dpe skrun khang, 1982 (2nd printing).

拔塞囊 著，佟錦華・黃布凡 譯註，『拔協（增補本）譯註』（附 藏文原文），四川民族出版社，1990.

Sgra tshad pa,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i mdzes rgyan gyi rgyan mkhas pa'i yid 'phrog*, 1369,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1971.

ShAkya Rin chen sde, *Yar lung jo bo'i chos 'byung*, : Bod ljong mi dmangs dpe skrun khang, 1988.

釋迦仁欽德著，湯池安譯，『雅隆尊者教法史』，拉薩：西藏人民出版社，1989.

Shes rab rin chen, *Lo chen thams cad mkhyen pa shes rab rin chen rgyal mtshan dpal bzang po'i zhabs kyi rnam par thar pa*, *Gsung 'bum*, vol. 2, Mes po'i shul bzhag, ed. Rgyal mo 'brug pa, Beijing: Krung go'i bod rig pa dpe skrun khang, 2007.

Spyan-snga-ba Rin-chen-ldan. *Rje-yang-dgon-pa'i rnam-par-thar-pa*, *Dkar-brgyud-gser-'phreng*, compiled by Mon-rtse-pa Kun-dga'-dpal-ldan and edited by Kun-dga'-'brug-dpal. Leh: Sonam w. Tashigang, 1970.

Spyan-snga-ba Rin-chen-ldan. *The Collected Works (Gsung-'bum) of Yang-dgon-pa Rgyal-mtshan-dpal*, Reproduction of three volumes of the writings of the Stod 'Brug-pa Dkar-brgyud-pa master from Rta-mgo Monastery in Bhutan, 1982, Volume 1.

Tshal pa Kun dga' rdo rje, *Deb ther dmar po*, Mi rigs dpe skrun khang, 1981.

蔡巴・貢噶多吉 著，陳慶英，周潤年 譯，『紅史』，西藏人民出版社，2002.

稻葉正就，佐藤 長 譯，『フウランテプテル：チベット年代記』，法藏館，1964.

固始噶居巴·羅桑澤培 著，陳慶英 烏力吉 譯，『蒙古佛教史(1819)』，天津古籍出版社，1990.

김장구 역주, (저자 미상), 『역주 몽골 황금사』, 동북아 역사재단, 2014.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앳딘, 『부족지』, 사계절, 2002.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앳딘, 『칭기스칸기』, 사계절, 2003.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앳딘,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앳딘, 『일칸들의 역사』, 사계절, 2018.

Narayan, R. K. 편저, 김석희 역, 『마하바라타』, 서울: 아시아, 2014

道宣 지음, 이한정 역, 『한글대장경 廣弘明集』, vol. 1, 2, 동국역경원.

동북아역사재단,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0: 舊唐書 外國傳 譯註』, 서울: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 新唐書 外國傳 譯註』, 서울: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3: 宋史 外國傳 譯註』,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5: 明史 外國傳 譯註』,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宋濂 撰, 『元史』, 中華書局

釋念常 撰, 『佛祖歷代通載』,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권77,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8

耶喜巴勒登 著, 蘇魯格 譯註, 『蒙古政教史』, 民族出版社, 1989.

楊銜之 撰, 林東錫 譯註, 『낙양가람기』, 서울: 동서문화사, 2013.

오광익 역, 『42편의 지혜법문-불설사십이장경』, 서울:明文堂, 2012

(佚名) 『元典章』, 元刻本.

姚遂, 『牧庵集』

유원수 역, 저자 미상, 『몽골비사』, 사계절, 2003.

陸羽, 김진무 김대영 옮김, 『육우 다경』, 일빛, 2017.

李肇(唐), 이상천 역주, 『唐國史補』, 서울: 학고방, 2006.

慧皎, 柳月誕 편역 『高僧傳』, 자유문고, 2003.

연구 논문과 연구서

권용철, 「元代 중·후기 權臣 정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7.

其樂木格(Chelmeg), 「<金鬘(Altan Erike)> 諸問題研究」, 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金鵬飛, 「《漢藏史集》長期未引起足夠重視的認識和分析」, 『學理論』, 2014, pp. 112-114.

김성수, 「17세기 “할하(Qalq-a) 중심론”의 형성과 티벳 불교」, 『중앙아시아연구』, 2002, vol. 7, pp. 27-57.

김성수, 「내륙 아시아 불교 세계와 "뮌람첸모(smon lam chen mo)"」, 『몽골학』, vol. 32, 2012, pp. 85-109.

김성수, 「明朝와 番僧」, 『明清史研究』, 2013, vol. 40, pp. 141-175.

김장구, 「17세기 '몽문 연대기'에 보이는 한국 관련 기록의 비판적 검토」, 『동국사학』, vol. 62, 2017, pp. 323-361.

金浩東, 「元代の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 『元史』 「本紀」의 中國中心의 一面性的의 解明을 위하여 -」, 『東洋史學研究』, 2009, vol.109, pp.141-189.

金浩東, 「몽골支配期 西아시아의 驛站制와 가잔 칸(Ghazan Khan)의 改革」, 『역사

문화연구』, vol. 35, 2010, pp. 1-32.

金浩東, 「라시드 앓 딘(Rashīd al-Dīn, 1247-1318)의 『中國史』속에 나타난 ‘中國’ 認識」, 『동양사학연구』, 2011, Vol.115, pp.1-53.

丹曲, 「簡述藏醫學名著《四部醫典》及其影响」, 『中國民族學院學報』, 1987, vol.6, pp. 88-91.

丹曲, 「藏族古代醫學教育初探」, 『中國藏學』, 1995-4, pp. 107-112.

丹曲, 朱悦梅, 「藏文文獻中 “李域”(li- yul, 于闐)的不同稱謂」, 『中國藏學』, 2007:2, vol. 78, pp. 83-94.

旦增卓瑪, 「淺論西藏茶文化-以漢藏史集相關記載爲中心」, 『西藏發展論壇』, 2013-4, pp. 25-28.

党寶海, 『蒙元驛站交通研究』, 崑崙出版社, 2006.

羅桑開珠, 「論藏族茶習俗的形成及其特點」, 『中央民族大學學報』, 2011-3, pp. 85-90

羅賢佑, 「論元代畏兀兒人桑哥與僕哲篤的理財活動」, 『民族討論』, 1991, vol. 6, pp. 102-109.

박건주,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돈오대승정리결』을 중심으로』, 운주사, 2017.

박원길, 「Sine-usu 비문(碑文)과 p.1283 문서(文書)에서 본 바이칼 주변 및 동몽골의 민족분포-Cik 과 국부(鞠部), Mug-lig(맥족(獺族))와 백습(百靺)을 중심으로-」, 『몽골학』, 2018, vol. 54, pp. 1-75.

伴眞一郎, 「明初における対モンゴル政策と河西におけるサキャ・パンディタ의 チョルテン再建 -漢文・チベット文対訳碑刻, 宣德5年(1430) 「重修涼州白塔誌」の歴史的背景」,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2012, vol. 84, pp.39 - 65.

배재형, 차상엽, 김성철 역, Demiéville, Paul 저, 『라싸 종교회역: 8세기 말 티벳불교의 돈점논쟁』, 금강학술총서 34, 서울: 씨아이알, 2017.

百濟康義, 「〈旃檀瑞像中國渡來記〉のウイグル訳とチベット訳」, 森安孝夫編, 『中央アジア出土文物論叢』, 京都: 朋友書店, 2004, pp. 71-84.

불교영상회보편, 『정증무상선사淨衆無常禪師』, 불교영상회보사, 1993.

浜中沙椰, 「サキャ派史料における西夏の記述: チベット・モンゴル関係樹立期の記述変化を中心に」, 『史観』 175, 2016.

山本 明志, 「モンゴル時代におけるチベット・漢地間の交通と站赤」, 『東洋史研究』, 2008, vol. 67-2, pp. 255-280.

山本 明志, 「チベットにおけるジャムチの設置」, 『日本西藏学会会報』, 2009, 55-1, pp. 3-13.

徐銀美, 『北宋 茶 專賣 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1999.

설배환, 「몽원제국 창고제의 성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孫林, 「西藏傳說時代的“絶地天通”事件與苯教的制度化」, 『西藏民族大學學報』, 2007, pp. 1-9.

슈타인 R. A. 지음, 안성두 옮김, 『티벳의 문화』, 무우수, 2004.

沈衛榮, 「中世紀西藏史家筆下的蒙元王朝及其與西藏關係: 以閱讀藏文史著《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爲中心」, 『重新講述蒙元史』, 北京: 三聯書店, 2016, pp. 130-155.

안성두, 「삼예사의 논쟁: 돈점론의 티베트 불교적 전개」, 『불교평론』, vol. 14. No.1. 2003, pp. 399-417.

楊德華, 「元代藏族宰相桑哥理財的政績」, 『中國藏學』, 1995, vol. 4, pp. 64-69.

王璞, 「〈紅史〉考述二則」, 『正觀』, vol. 44, 2008, pp. 189-203.

양승규, 「불교의학과 사상의학의 체질적 양생론(養生論) 연구」, 『淨土學研究』, 2013, vol. 19, pp. 367-400.

오기열 역, 뽕뿔 린포체 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티벳의 모든 불교 종파의 제자

들이 받들어 공경하는 수행의 나침반』, 지영사, 2012

李治安, 『行省制度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0.

李治安, 『元代政治制度研究』, 人民出版社, 2003.

任小波, 河野 剛彦 譯, 「763年の吐蕃による長安陥落の再検討」, 『学習院大学国際研究教育機構研究年報』, 2016, vol. 2, pp. 134-145.

張雲, 「吐蕃七賢臣考論」, 『西藏民族 學院學報』, 1992-1, p.9; pp. 40-48.

張雲, 「藏文史書《漢藏史集》的文獻學特點及其史學價值」, 『青海社會科學』, 2016-1, pp. 32-40.

張恩英·尹暢烈, 「티벳의학에 대한 연구: 四部醫典 根本醫典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논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8, vol. 11-1, pp. 416-512.

張恩英·尹暢烈, 「西藏醫學에 나타난 診斷과 治療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vol. 18-2, pp. 45-69.

前田正名, 『河西の歴史地理学的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4.

趙國棟, 「西藏傳統茶文化的發展階段」, 『農業考古』, 2018-2, pp. 153-159.

趙金鎖, 「藏族茶文化: 茶馬貿易與藏族飲茶習俗」, 『西北民族大學學報』, 2008-5, pp. 126-131.

朱麗霞, 「古代藏族漢地佛教史觀若干問題探析」, 『北方民族大學學報』, 2010, vol. 3, pp. 18-23.

朱麗霞, 「藏族史書中的玄奘形象分析」, 『北方民族大學學報』, 2013, vol. 4, pp. 108-113.

中村淳, 「元代法旨に見える歴代法師の居所大都の花園大寺と大護国仁王寺」, 『待兼山論叢』(史学篇), vol. 27, 1993, pp. 57-82 .

中村 淳, 「モンゴル時代におけるパクパの諸相 - 大朝国師から大元帝師へ - 」, 『駒

澤大学文学部研究紀要』, vol. 68, pp. 35-69.

陳慶英, 「元朝在西藏所封的白蘭王」, 『西藏研究』, vol. 4, 1983, pp. 29-33.

陳慶英, 劉英華, 「象雄醫學史淺議」, 黃福開 主編, 『藏醫藥研究文集』, 中國藏學出版社, pp. 215-231.

陳慶英, 「關於漢藏史集的作者」, 『西藏民族學院學報』, 2004, vol. 25-2, pp. 11-17, 46.

津曲真一, 「『パシエ』訳註(2)-忿怒する魔鬼-」, 『四天王寺大学紀要』, 2011, vol. 51, pp. 421-430.

策·財吉拉胡, 「蒙藏兩民族文化交流中的藏醫古文獻」, 『中國藏學』, 1997-4, pp. 89-95.

최소영, 「13세기 후반 티베트와 훌레구 올루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최소영, 「13~14세기 몽골의 침입과 지배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인식」, 『중아시아 연구』, 2018, 23-1, pp. 67-99.

崔紅芬, 「元代楊璉眞珈佛事活動考略」, 『西部蒙古論壇』, 2015, no. 4, pp. 11-20.

탕응동 저, 장순용 옮김, 『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 1~4, 學古房, 2014

胡海帆, 「廬山八思巴字摩崖題刻暨左丞相別不花生平考述」, 『東南文化』 2007,

黃潛, 『金華黃先生文集』, 元鈔本.

Atwood, Christopher P., "Six Pre-Chinggisid Genealogies in the Mongol Empire,"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2012, xix, pp. 6-58.

Atwood, Christopher P., "From Bagisba to Pagba: Mongolians systems for writing Tibetan words", The 13t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발표문, Ulaanbaatar, July 23, 2013.

Beckwith, Christopher I.,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A History of*

the Struggle for Great Power among Tibetans, Turks, Arabs, and Chinese during the Early Middle Ag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Beckwith, Christopher I., "The Introduction of Greek Medicine into Tibet in the Seventh and Eighth Centurie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979, vol. 99, pp. 297-313.

Booz, Patrick, "Tibet and Tea," Jeannine Bischoff and Alice Travers (eds), *Commerce and Communities: Social and Political Status and the Exchange of Goods in Tibetan Societies*. Berlin: EB-Verlag, 2018, pp. 127-160.

Cabezón, José, "On the sGra pa Shes rab rin chen pa' i rtsod lan of Pan chen bLo bzang chos rgyan." *Asiatische Studien: Zeitschrift der Schweizerischen Asiengesellschaft*, 1995, vol. 49, issue 4, pp. 643-669.

Chan, Hok-lam, *China and the Mongols: History and Legend Under the Yüan and Ming*, Taylor & Francis, 2018.

Choi, Soyoung, (미간행) "From Brutes to Bodhisattvas: The Mongols in Tibetan Sources", Timothy May & Michael Hope ed., *The Mongol World*, 2020.

Cleaves, Francis Woodman, "The Sino-Mongolian Inscription of 1362 in Memory of Prince Hindu",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949, Vol. 12, No. 1/2, pp. 1-133.

Czaja, Olaf, *Medieval Rule in Tibet: The Rlangs Clan and the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Ruling House of Phag Mo Gru Pa : With a Study of the Monastic Art of Gdan Sa Mthil*,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3.

Das, Sarat Chandra, "Tibet under the Tatar emperors of China in the 13th century", *Journal of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 1905, Extra Number, pp. 94-102.

Dotson, Brandon & Hazod, Guntra, *The Old Tibetan Annals: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ibet's First History: with an annotated cartographic documentation by Guntram Hazod*,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10.

Dunnell, Ruth, "The Hsia origins of the Yuan institution of Imperial Preceptor", *Asia Major. Third Series*, Vol. 5, part 1, 1992, pp. 85-111.

Elverskog, Johan, *The Jewel Translucent Sutra: Altan Khan and the Mongols in the Sixteenth Century*, Brill, 2003.

Elverskog, Johan, "The Story of Zhu and the Mongols of the Seventeenth Century", *Ming Studies*, 2005, vol. 50, pp. 39-76.

Franke, Herbert, "Some Sinological Remarks on Rashid ad-Din's History of China," *Oriens*, vol. 4, no. 1, 1951, pp. 21-26.

Franke, Herbert, *From Tribal Chieftain to Universal Emperor and God: The Legitimation of the Yüan dynasty*, Vorgetragen in deutscher Sprache am 4. VERLAG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In Kommission bei der C. H. Beck'sehen Verlagsbuchhandlung Munchen, Munchen, 1978.

Gray, David, "Tibet and the Continent in the Tenth to Thirteenth century", Charles Orzech, Henrik Sorensen and Richard K. Payne, ed., *Esoteric Buddhism and Tantras in East Asia*, Leiden: Brill, 2011.

Haw, Stephen. G., "Bayan of the Bārin's Persian wife, and other perplexitie", *Journal of Asian History*, vol. 48, no. 2, 2014, 263-79.

Hsiao, Ch'i-ch'ing,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78.

Jamiyan Battur, "Korean Themes in Mongolian Historical Sources of the 16th-18th Centuries," 제5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문, 2010, 온라인 자료

https://congress.aks.ac.kr:52525/korean/files/2_1393906887.pdf

Jing, Anning, "The Portraits of Khubilai Khan and Chabi by Anige (1245-1306), a Nepali Artist at the Yuan Court", *Artibus Asiae*, Vol. 54, No. 1/2, 1994, pp. 40-86.

Kamola, Stefan T., "Rashīd al-Dīn and the making of history in Mongol Ir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2013.

Kapstein, Matthew, *The Tibeian Assimilation of Buddhism, Conversion Contestation and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Kapstein, Matthew, and Dotson, Brandon ed., *Contributions to the Cultural History of Early Tibet* / Leiden ; Boston: Brill, Brill's Tibetan Studies Library, v. 14, 2007.

Kuijp, Leonardo W. J. van der, "A Recent Contribution on the History of the Tibetan Empire",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991, vol. 111, no.1, pp.94-107.

Kuijp, Leonardo W. J. van der, "Dating the Two Lde'u Chronicles of Buddhism in India and Tibet," *Asiatische Studien*, 1992, vol. 46, pp. 468-491.

Kuijp, Leonard W. J. van der, "Jambhala: An Imperial Envoy to Tibet during the Late Yu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993, 113-4, pp. 529-538.

Kuijp, Leonard W. J. van der, "'Bayši" and Bayši-s in Tibetan Historical, Biographical and Lexicographical Texts", *Central Asiatic Journal*. vol. 39, 1995, pp. 275-302.

Kuijp, Leonard W. J. van der, "Tibetan Historiography," José Ignacio Cabezón and Roger R. Jackson eds., *Tibetan Literature: Studies in Genre*, New York: Snow Lion, 1996, pp. 39-56.

Kuijp, Leonardo W. J. van der, "The Kālacakra and the patronage of Tibetan

Buddhism by the Mongol imperial family”, Bloomington, Ind.: Dept. of Central Eurasian Studies, Indiana University, 2004.

Kuijp, Leonard W. J. van der, ‘U rgyan pa Rin chen dpal (1230–1309) Part Two: For Emperor Qubilai? His Garland of Tales about Rivers,’ in Ch. Cüppers (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chos srid zung 'brel) in Traditional Tibet*, Lumbini, 2004, pp. 299–339.

Kuijp, Leonard W. J. van der, "The Tibetan Expression "bod wooden door" (bod shing sgo) and its probable Mongol Antecedent". 『西域历史语言研究集刊』, Beijing: Science Press. 3, 2010, pp. 89–134.

Kuijp, Leonard W. J. van der, “On the Edge of Myth and History: Za hor, its Place in the History of Early Indian Buddhist Tantra, and Dalai Lama V and the Genealogy of its Royal Family”, In Bangwei Wang, Jinhua Chen and Ming Chen, eds., *Studies on Buddhist Myths: Texts, Pictures, Traditions and History*. Shanghai: Zhongxi Book Company, 2013, pp. 114–164.

Kuijp, Leonard W. J. van der, "Za hor and Its Contribution to Tibetan Medicine, Part Two: Sources of the Tibetan Medical Tradition," 『藏學學刊』, 2015, vol. 12, pp. 63–108

Kuijp, Leonard W.J. van der, “Fourteenth Century Tibetan Cultural History III: The Oeuvre of Bla ma dam pa Bsod nams rgyal mtshan (1312–1375), Part Two”, *Revue d'Etudes Tibétaines*, 2018, no. 46, pp. 5–89.

Larocca, Donald, *Warriors of the Himalayas: Rediscovering the Arms and Armor of Tibet*,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2006.

Macdonald, Ariane: “Préambule à la lecture d’un rGya–bod yig–chan”, in: *Journale Asiatique*, 1963, vol. 251, pp. 53–159.

Meyer. Robert, “Social silences and cultural shame in indigenous historiographies of Tibetan religions”, *History as a Challenge to Buddhism*

and Christianity, eds. Elizabeth J Harris and John O'Grady, EOS Press, 2016, pp. 169-189.

Miller, Willa Blythe, Doctoral Dissertation, "Secrets of the Vajra Body: Dngos po'i gnas lugs and the Apotheosis of the Body in the work of Rgyal ba Yang dgon pa",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2003.

Petech, Luciano,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The Yuan-Sa skya period of Tibetan History*,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rtemo Oriente, 1990.

Pochekaev R.Yu. "'King" Godan: Status of the Ruling Chinggisid in Mongolian and Tibetan Sources", *Golden Horde Review*, 2018. Vol. 6, no. 1, pp. 6-17.

Rachewiltz, Igor de et al. ed., *In the Service of the Khan: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uan Period 1200-1300*,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93.

Richardson, H. E., *The Corpus of Early Tibetan Inscriptions*, Routledge, 2002, pp. 2-19.

Schaeffer, Kurtis R, "A Letter to the Editors of the Buddhist Canon in Fourteenth-Centur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2004, 124-2, pp. 265-281.

Samten, Jampa and Martin, Dan, "Letters to the khans: six Tibetan epistles of Togdugpa addressed to the Mongol rulers Huleu and Khubilai, as well as to the Tibetan Lama Pagpa." In *Trails of the Tibetan Tradition, Papers for Elliot Sperling*, edited by Roberto Vitali, pp. 297-331. Dharamshala, 2014.

Schaik, Sam van & Doney, Lewis, "The Prayer, the Priest and the Tsenpo: An Early Buddhist Narrative from Dunhuang,"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007, pp. 175-218.

Schaeffer, Kurtis R., "A Letter to the Editors of the Buddhist Canon in Fourteenth-Century Tibet: The "Yig mkhan rnams la gdams pa" of Bu ston Rin chen grub",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2003, vol. 31, pp. 621-641.

Schaik, Sam van, "Review of The Old Tibetan Annals by Brandon Dotson", *European Bulletin of Himalayan Research*, 2010, vo. 1, 37, pp. 149-152.

Sørensen, Per K. & Hazod, Guntram, *Rulers on the Celestial Plain: Ecclesiastic and Secular Hegemony in Medieval Tibet. A Study of Tshal Gung-thang*, Denkschriften der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361. Veröffentlichungen zur Sozialanthropologie 10.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 vols.

Sperling, Elliot, "The 5th Karma-pa and som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ibet and the Early Ming", *Tibetan Studies in Honor of Hugh Richardson*, ed. Michael Aris and Aung San Suu Kyi. New Delhi: Vikas, 1980.

Sperling, Elliot, "Early Ming Policy Toward Tibet: An Examination of the Proposition that the Early Ming Emperors Adopted a "divide and Rule" Policy Toward Tibet",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83.

Sperling, Elliot, "Karma Rol-pa'i rdo-rje and the Re-Establishment of Karma-pa Political Influence in the 14th Century",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chos srid zung 'brei) In Traditional Tibet*, Christoph Cuppers ed., Lumbin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Lumbini, 2004.

Stearns, Cyrus, *The Buddha From Dolpo: A Study Of The Life And Thought Of The Tibetan Master Dolpopa Sherab Gyaltsen (Tsadra)*, Snow Lion; Revised, Expanded edition, 2010.

Stein, R. A., and McKeown, Arthur P.. *Rolf Stein's Tibetica Antiqua [electronic Resource] : With Additional Materials / by Rolf A. Stein ;*

Translated and Edited by Arthur P. McKeown, 2010.

Tuttle, Gray & Schaeffer, Kurtis (ed.), *The Tibetan History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Thomas, F. W., *Tibetan Literary Texts and Documents Concerning Chinese Turkistan*, [Oriental Translation Fund, New Series, Vol. 32] Part 1: Literary Texts, London, 1935.

Uebach, Helga, "Tibetan Officials in the 8th-Century South-eastern Part of the Empire", *Proceedings of the Tenth Seminar of the IATS*, 2003, vol. 14: *Old Tibetan Studies*, pp. 53-64.

Uray, G., "The Narrative of Legisl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mKhas-pa'i dga' -ston: The Origins of the Traditions concerning Srong-btsan sgam-po as First Legislator and Organizer of Tibet", *Acta Orientalia Hungaricae*, XXVI, 1972, pp. 11-68.

Venturi, Federica, "An Old Tibetan Document on the Uighurs: A New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Asian History*, 2008, vol. 42-1, pp. 1-35.

Vitali, Roberto, *The Kingdoms of Gu.ge Pu.hrang according to the Mnga' ris rgyal rabs by Gu ge Mkhan chen Ngag dbang grags pa*, Dharamsala: Tho ling gtsug lag khang lo gcig stong 'khor ba'i rjes dran mdzad sgo'i go sgrig tshogs chung, 1996.

Vitali, Roberto, "Tibetan Perceptions of a Foreign Cult: The Sandalwood Statue of Buddha Shakyamuni, Known as the Tsan dan jo bo", *Bulletin of Tibetology*, 2012, vol. 48-1, pp. 61-120.

Vitali, Roberto, "Grub chen U rgyan pa and the Mongols of China", *Studies on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ibet and the Himalayas*, edited by Roberto

Vitali, Kathmandu: Vajra. 2012, 31-64.

Yang, Eveline, "Tracing the *Chol kha gsum*: Reexamining a Sa skya-Yuan Period Administrative Geography," *Revue d'Etudes Tibétaines*, 2016, no. 37, pp. 551-568.

Yoeli-Tlalim, Ronit, "On urine analysis and Tibetan medicine's connections with the West", Sienna Craig; Mingji Cuomu; Frances Garrett and Mona Schrempf, eds. *Studies of Medical Pluralism in Tibetan History and Society*. Hall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ibetan and Buddhist Studies, 2010, pp. 195-211.

Yoeli-Tlalim, Ronit, "Tibetan 'wind' and 'wind' illnesses: towards a multicultural approach to health and illness",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C: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2010, 41-4, pp. 318-324.

Yoeli-Tlalim, Ronit, "Revisiting Galen in Tibet", *Medical History*, vol. 56-3, 2012, pp. 355-365.

Yoeli-Tlalim, Ronit, "Tibetan Medicine and its Buddhist Contexts", In: John Barton, ed.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Zhen Yan, Cai Jingfeng, *China's Tibetan Medicine*, Foreign Languages Press, 2005.

Zuiho Yamaguchi, "Methods of Chronological Calculation in Tibetan Historical Sources", *Tibetan and Buddhist Studies* by Louis Liget, vol. 2 Munshiran Manoharlal Publishers Ltd., 2000, New Dheli.

Abstract

Annotated Translation and Study of *Archives from
China and Tibet (Rgya bod yig tshang)*

Choi, Soyoung

Department of Asi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Tibet was under the sway of the Mongol Empire, a new wave of historical writing emerged in Tibet. *Hulan Debther* (*Red Annals*), a Tibetan book with a Mongolian title, had included not only the history of India and Tibet as was usual in Tibetan historical writing but also the history of Xixia (Tib. Mi nyag), China and above all, the Mongols. Since then, Tibetan historians began to include a kind of Tibetan “global history” in their books and give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Mongol genealogy. The volume or the quality of information on Mongol history were sparse than those in Rashīd al-Dīn’s *Jāmi al-Tawārīkh*, “the first world history” because the latter was written under the full support of Mongol rulers in Persia, while Tibetan historians had to scour for sources by themselves. Considering the lack of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Tibetan histories, they managed to gather up a valuable collection of records. This new tradition reached its zenith in the work *Archives from China and Tibet*, full title *Archives from China and Tibet which the Wise like: Mirror Illuminating the World* (*Rgya bod kyi yig tshang mkhas pas dga’ byed chen mo ’dzam bu gling gsal ba’i me long*), by Peljor Zangpo (Dpal ’byor bzang po, fl. 15c) from Taktsang.

Archives from China and Tibet was written in 1434, about 70 years after the Mongols were expelled from Dadu by the Ming army and fled to Mongolia. Continuing the new tradition begun by *Hulan Debther*, Peljor Zangpo covered the Tibetan “global history” in his book and in addition, wrote about

the beginning of tea drinking in Tibet, various types of tea leaves and swords, which were totally new themes in Tibetan historiography. What is more important, he explained the way how the Mongols ruled Tibet by describing the working of census and post station system and included rich records about several chief retainers at the Mongol court which were handed down in Sakyapa's library. To name a couple, Peljor Zangpo tells the story of the appointment, demotion, and the comeback of Bayan, the brightest star of the conquest of the Southern Song. In another account, he records a piece on the conflict between *keshig* members and Sanggha (Ch. 桑哥) who is notorious for his corruption and graft in Chinese sources. In Peljor's sharply opposite view, Sanggha was an official loyal to the Great Khan who strived alone to streamline the financial inefficiency of the Mongol court, thus his project was bound to hurt the interests of many Mongol nobility, resulting in their false accusations against Sanggha.

The reason why Peljor Zangpo could acquire these records was that he was an archivist (Tib. yig mkhan) of the Sakyapa sect, who ruled Tibet with the support of the Mongols during the previous centuries. In addition, he introduced himself as a layman (dge bsnyen) and confessed that he was not well informed of Indian history, which was essential in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Buddhism. His identity led his interest to strongly focus on new and non-Buddhist themes such as the material culture of Tibet or the Mongol ruling system in Tibet.

Invaluable fragments of records which had been preserved in the Sakyapa's library came into the world by the hands of this "layman archivist" in the name of *Archives from China and Tibet* but few researches were done of this book and the records left by close retainers of the Mongol Great Khan until now. And without the attention it deserves, a critical component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the Mongol Empire is still missing.

With this in mind, I translated and annotated *Archives from China and Tibet* and hope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a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Mongol Empire by suggesting an alternative perspective from the existing ones of Chinese and Persian sources and to understand the Tibetan historical writings in depth as well.

Keywords: *Archives from China and Tibet (Rgya bod yig tshang)*, Peljor Zangpo (Dpal 'byor bzang po), Tibetan Historiography, Bayan (伯顏), Sanggha (桑哥)